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30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08. 8. 30

< 大韓中國學會 >

고 문 : 성파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김태관(동의대)
부 회 장 : 이철리(경남대) 이인택(울산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서석홍(부경대)
감 사 : 이재하(경성대) 진광호(부산외대)
연구윤리위원회 :
위 원 장 : 김용운(동아대)
위 원 : 김희준(부산대), 하영삼(경성대), 김창경(부경대), 서석홍(부경대)
운영이사 : 강식진(부산대) 김남희(부산외대) 김성문(진주보건간호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상규(영산대) 류영표(경성대) 박경실(울산대) 박추현(경상대) 신석찬(부산여대) 심형철(신라대) 박숙경(동서대) 이철리(경남대) 임효섭(동아대) 정귀화(창원대) 정옥근(동의대) 김명자(동의공업대) 왕옥지(동명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최성경(경남정보대) 한중호(동주대)
총무이사 : 강경구(동의대)
학술이사 : 김창경(총괄, 고전문학 분과, 부경대)
박노중(현대문학 분과, 동아대) 문병순(중국어학 분과, 경남대) 손성문(사회과학 분과, 진주산업대)
편집위원회 :
위 원 장 : 하영삼(경성대)
위 원 : 문병순(경남대) 이규일(영동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김명구(명지대) 강경구(동의대) 손성문(진주산업대)
섭외이사 : 김태만(한국해양대)
기획이사 : 오창화(경성대)
사무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내 (☎614-714)
연 락 처 : 사무실: (051) 890-1252
총무: (051) 890-1257(연구실), 016-644-4815 kkkang@deu.ac.kr
편집: (051) 620-4266(연구실), 016-807-6738 ysha@ks.ac.kr

[題字] : 성파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30輯

2008年 8月

目 次

[논 문]

- 康寔鎭·다음절 어휘 성조의 변별 부하 연구 1
金世煥·中國文字의 收容과 《訓民正音》 35
文炳淳·戰國齊璽判別叢論 59
서재선·중국문자 교육 중 錯別字 교정에 관한 고찰 79
정동진·《羅末麗初金石文》與《漢語大詞典》編纂 103
김명자·현대한어 ABB식 형용사의 어법기능에 관한 연구 117
위수광·《語法等級大綱》의 체계상 한계점 고찰 149
金寅浩·《詩經》 鄭風의 淫風詩로서의 성격 연구 179
金周淳·龔巖 詩歌에 나타난 陶淵明 ‘歸去來’ 意識의 연구 205
李在夏·《東萊博議》와 齊桓公論 233
吳昶和·崔述의 文化談論的 考證事例考 259
김용운·中國 當代詩 浪漫의 流變 289
金明石·탈영토화 된 영웅주의의 귀환 323
王曉華·從主體論的角度看中國當代文學中的身體敘事 353
李曉虹·21世紀中國散文作家的精神守望 371
侯 穎·九十年代都市小說的敘事策略整體回眸 391
권진택·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증가요인에 관한 연구 405
주장환·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 중국정책 431

[서 평]

- 유병래·사유에 깃든 문명 469
金世煥·《信仰·母題·敘事—中國古典小說的新探索》 481
부 록·심사규칙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485

CHINESE STUDIES

Volume 30

August 2008

Study of discriminating capacity of tones in Chinese polysyllabic words/ <i>Kang Sik-Jin</i>	1
<i>Hunminjungum</i> (the Korean script) for effective use of Chinese characters/ <i>Kim, Se-hwan</i>	35
Theoretical essays on identifying <i>Qi</i> (齊) seals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i>Moon, Byung-soon</i>	59
Consideration on Correction of the Wrong Using Letters in the Chinese Letters' Education/ <i>Seoh, Jae-sun</i>	79
A The study on <i>Jinshi Inscription in the Beginning of Gaoli Dynasty and the End of Xinluo Dynasty and A Compilation of Chinese Dictionary</i> / <i>Jeong, Dong-jin</i>	103
A Study on the Grammatical Function of the 'ABB' Adjective in Modern Chinese Language/ <i>Kim, Myung-ja</i>	117
<i>Yufadengjidagang</i> (語法等級大綱)of organizational weakness -focused on korean learners-/ <i>Wui, Soo-kwang</i>	149
A Study of Lewd-poetry Character among <i>Jeng-fung</i> (鄭風) in <i>the Book of Songs</i> / <i>Kim, In-ho</i>	179
A Study on the Appearance of Tao Yan-ming's Reception in Nong Am's Poems/ <i>Kim, Jou-soon</i>	205
<i>Donglaiboyi</i> (東萊博議) and It's speak of Qi Huangong(齊桓公) / <i>Lee, Zai-ha</i>	233
A View on Cultural Dialectic Aspect in <i>Cuishu's</i> Bibliographical Works, <i>Kaoxinlu</i> (考信錄)--Especially Focused on Musical Dissertation/ <i>Oh, Chang-hwa</i>	259
A Study of "Romanticism" in the Chinese contemporary poetry / <i>Kim, Yong-woon</i>	289
The return of the deterritorialized heroism/ <i>Kim, Myung-suk</i>	323

Analyse the body-narratives in the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under the viewpoint of subjectivist-body-aesthetics /Wang, Xiao-hua	353
The mentality and the prospect of Chinese prose writings in 21st century/Li Xiaohong	371
A General Overview on Narrative Strategies of City Novels in 1990s/Hou, Ying	391
A Study on the causes of China's increasing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Korea/Kwon, Jin-taek	405
China Policy of Roh and Lee's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edging Policy/Joo, Jang-hwan	431
Reviews:	
Thoughts on Civilization: Marcel Granet's <i>La Pensée chinoise</i> /Yoo, Byung-tae	469
Belief systems, Motifs, Narratives in Chinese Classical Novels /Kim, Se-hwan	481
Appendix:	
Editorial Rules of <i>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i>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485

다음절 어휘 성조의 변별 부하 연구*

－《普通话三千常用词表》《汉语水平词汇等级大纲》同音率 분석－

康寔鎭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2.1 <甲級> (1033 어휘)
2. 다음절 낱말의 동일 분절음과 동음절 분석	2.2.2 乙級(2018 어휘 추가)
2.1 《普通话三千常用词表》의 분석	2.2.3 丙級(2202 어휘 추가)
2.2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의 분석	2.2.4 丁級(3569 어휘 추가)
	3. 결론
	[참고문헌]
	[论文摘要]

1. 문제의 제기

漢語는 단음절의 형태소 내지 낱말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音節數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일 단음절의 형태소나 낱말이 극도로 많다. 따라서 동일 단음절 내의 음성적 의미 변별은 불가능하고, 다만 漢字라는 표의문자의 시각적인 변별이 가능할 뿐이다.

한어의 음절수가 극히 적은 이유는 분절음의 결합 방식이 매우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普通話 음절의 분절음은 21개의 聲母와 39개의 韻母,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sjkang@pusan.ac.kr)

즉 자음 22개와 모음 10개인 32개 音素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4개의 음소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863,040(32 \times 31 \times 30 \times 29)$ 개의 분절음 조합을 만들 수 있으나, 22개의 자음 중 20개는 음절의 첫소리(聲母)의 위치에만 올 수 있으며, 나머지 2개도 음절의 처음이나 끝에만 올 수 있고, 10개의 모음 중 3개만 韻頭의 위치에, 2개만 韻尾의 위치에 올 수 있으므로, 한어의 분절음 형식인 聲母+韻母(韻頭+韻腹+韻尾)의 가능한 산술적 결합 개수는 $4,400(22 \times 3 \times 10 \times 4 + 22 \times 3 \times 10 + 22 \times 10 \times 4 + 22 \times 10)$ 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소 간 결합 방식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분절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서 겨우 400 여개¹⁾에 불과하다.

漢語의 분절음 음절수가 현대한어에 이르러 400여개로 축소된 가장 큰 원인은 聲母의 수적 감소이다. 특히 北方官話에서 일어난 濁音清化(有聲聲母의 無聲音化)로 聲母의 개수가 대폭 감소하고 또 入聲韻尾“-p”, “-t”, “-k” 및 陽聲韻尾“-m”의 소실로 분절음의 음절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濁音清化 현상은 聲母에 의해 대립되던 陰聲調(무성음)와 陽聲調(유성음) 간의 구별을 平·上·去·入의 四聲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고, 入聲 韻尾에 의해 분화된 入聲 음절의 분별도 사라지게 되며, 韻尾“-m”이“-n”에 합류하게 되어 韻尾“-m”에 의한 분절음의 분화도

1) 실제로 普通話의 음절수는 漢語拼音方案의 철자법을 벗어난 특수한 음절과 輕聲 음절의 인정 여부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卢僊,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语言教学与研究》 2001年 第6期), 29-30쪽에 조사된 중요한 몇 개 사전의 음절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现代汉语规范字典》(北京: 语文出版社, 1998年)

408개 분절음—404개 기본 분절음+4개 특수 분절음

1313개 음절—1265개 기본 음절+40개 경성 음절+8개 비기본음절

《现代汉语词典》(北京: 商务印书馆, 第3版, 1996年)

417개 분절음—410개 기본 분절음+7개 특수 분절음

1338개 음절—1263개 기본 음절+40개 경성음절+35개 비기본음절

《新华字典》(北京: 商务印书馆, 1999年)

416개 분절음—407개 기본 분절음+6개 특수 분절음+3개 경성음절

1319개 음절—1254개 기본 음절+41개 경성음절+24개 비기본음절

사라지게 된다.

분절음의 감소는 결국 동일 음절에 속하는 낱말 내지 형태소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게 되었다. 실례로 《现代汉语词典》(北京: 商务印书馆, 第5版, 2005年)의 통계에 의하면, 동일 분절음에 속하는 漢字 數(형태소 내지는 낱말의 수)는 평균 25.8개이며, 동일 음절에 가장 많은 한자가 속한 경우가 178자이다.²⁾ 이러한 분절음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가 초분절소로 음절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초분절소 중 음절수를 대거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는 소리의 고저이다. 소리의 고저는 強音 對 弱音이나 長音 對 短音과 같이 二分的 대립 외에도 高音 對 低音, 上昇調 對 下降調와 같이 二分的 이상의 대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초분절소 보다는 더 많은 음절을 만들 수 있다. 유성음 聲母가 무성음화하여 성모에 의한 陰聲調와 陽聲調의 대립이 없어지자 동일 음절에 속하는 글자 수가 가장 많았던 平聲에서는 초분절소의 변별인 陰平과 陽平의 대립으로 전환된 점도 분절음 음절수의 감소를 초분절소의 대립으로 만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별작용을 하는 音調(pitch)가 독자적인 역할로 모든 음절을 분화하는 언어를 聲調言語(tonal language)라 하고, 단어의 어느 특정 음절에 음조로 실현되는 악센트를 부여하여 다른 소리로 분화하는 언어 유형을 音調 악센트 言語(pitch accented language)라고 한다.³⁾

비성조언어에서는 분절음만으로도 하나의 음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표기만으로도 음절을 충분히 書寫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高低, 長短, 強弱의 초분절적 요소를 특별히 표기하지 않지만,

2) 苏新春·林进展, 〈普通话音节数及载字量的统计分析—基于《现代汉语词典》注音材料〉, 《中国语文》(2006年 第3期), 278쪽.

3) 필자는 성조언어와 음조 악센트 언어에 작용하는 음조는 서로 아주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조언어의 음조를 “성조”라 하고, 음조 악센트 언어의 음조는 “음조 악센트(pitch accent)”라 칭하기로 한다. 사실 “聲調”라는 단어는 后覺, 〈聲調究竟有没有用處〉, 《國語月刊》(第一卷 第八期, 1922), 趙元任, 〈五聲的標準〉, 《國語月刊》(第一卷 第八期, 1922) 등에서 漢語에 나타나는 高低起伏形의 초분절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성조언어에서는 초분절적인 성조가 오히려 분절음보다 上位의 변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조 표시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普通話의 경우, 22개의 聲母, 10개의 韻母, 4개의 聲調 및 2개의 聲調 등이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분절음 음절은 4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성조는 4개의 조소만으로 모든 음절의 韻母를 분화하여 1,300여개로 대거 증가시킬 수 있다.

1995년 林茂燦은 음향적 실험을 통하여 성조는 음절 내 전체 유성음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음절 구성 요소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韻腹(韻母)과 그 過渡의 과정에서만 실현되며 심지어는 韻頭나 韻尾와도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성조는 韻母를 1차적으로 분화하고, 분화된 韻母로 모든 음절을 2차적으로 분화하는 이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한 것이다.⁴⁾

다른 한편 한어는 단음절적이기 때문에 한 음절이 하나의 단어가 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일 음절이 성조에 의해 분화된다 해도 음절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예는 상용단어 3,996개 중 1,136개의 단음절 단어가 있는데, 이중 성조까지 포함했을 때 의미가 분별되는 단어는 657개인 58%, 성조를 포함해도 의미가 분별되지 못하는 단어는 42%였다⁵⁾는 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낱말은 결국 말소리로는 구분되지 않고 오로지 시각적인 漢字의 字形으로만 구별 가능한 것이다.

漢語의 음절수 부족 현상을 만회하는 보다 더 큰 효과적인 방법은 낱말의 多音節化이다. 이런 현상은 上古 후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王云路, 方一新的 연구에 의하면, 《論語》와 《孟子》 등의 先秦 漢語 典籍에는 일음절과 다음절 낱말의 비율이 3.7 : 1이었으며, 《詩經》에는 聯綿詞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 2.8 : 1 정도였으나, 魏晉六朝 시기에

4) 林茂燦, 〈北京話聲調分布的知覺研究〉, 《聲學學報》(第二十卷 第六期, 1995).

5) 郭錦桴, 《漢語聲調語調闡要與探索》(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3), 93 쪽 참조.

이르면 새로 만들어진 낱말의 대부분은 다음절이었다. 예를 들면 《搜神記》(20卷本)에는 魏晉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낱말이 82개인데 그 중 2음절 낱말이 72개이며 단음절 낱말은 불과 9개에 불과해 일음절과 다음절의 낱말 비율은 1 : 8이었다. 이로부터 魏晉 시대에 이미 다음절의 방법으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음절수의 부족으로 동음절 낱말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현상을 피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⁶⁾

현대에 만들어진 낱말 역시 당연히 다음절이 절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1993년 출판된 《新词新语词典》(北京: 语文出版社)에 수록된 8,400개의 표제어 중 2음절 어휘가 전체의 33%, 3음절 어휘가 전체의 22%, 4음절 이상 어휘가 3,745개로 전체 낱말의 45%⁷⁾인 점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단음절 새 낱말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로써 多音節化가 낱말의 음절 중복 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⁸⁾

6) 王云路·方一新, 《中古汉语研究》(北京: 商务印书馆, 2000年), 52-53쪽 참조.

7) 贺国伟, 《汉语词语的产生与定型》(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03年), 103쪽.

8) 낱말의 다음절화 추세와는 반대로 최근 1음절 낱말이 다수 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蔡长虹의 〈当代汉语词汇的单音节化现象考察〉, 《汉语学报》(总第17期, 2007年 第1期) 89-91쪽에 열거한 신생 단음절 낱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①偶(我的 익살스런 표현), 泥(你的 익살스런 표현), 横(哼의 대응), 粉(很의 대응), 素(是), 木(没), 滴(的), 败(买), 鸟(了), 米(美元)

②博(blogger), 沙(sofa: 게시판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다)

③顶(게시판의 댓글이 좋다. 멋진 말씀), 砖(게시판에 열심히 혹은 천천히 쓴 글), 汗(땀나다. 째째매다), 菜(수준이 낮다. 초보이다), 菜鸟(초보. 초보자)

(2) 외래어

①음역 단음절 낱말: 卡(cut), 蔻(cute), 当(download), 打(dozen), 嗨(high), 派(pie), 秀(show), 刀(dollar), 吧(bar)

②단음절 영문 자모 낱말

Q(QQ의 약칭: QQ는 메신저 프로그램), G(giga), X(미지수), K(가라오케), O(ok)

(3)방언과 구어체 낱말에서 유래된 것

整(搞/弄), 抽(打), 灭(杀), 花(刺伤/打伤), 旱(冷淡), 方(欺骗), 欠(缺乏) 등

실제로 漢語의 낱말은 1음절일 때 극도로 높은 同音率이 2음절 이상이 되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馬顯彬의 통계⁹⁾에 의하면 23,830개 어휘¹⁰⁾에 쓰인 낱말의 한자는 3,979개이며, 이중 동일 음절이 없는 한자는 1,114개, 동일 음절이 있는 글자는 2,865자로 同音率은 72%에 이른다.

또 3,979개의 한자 중 단음절 낱말은 1,894개이며, 낱말이 되지 못하는 한자는 2,085자이다.

①再單音節化

贊(주로 감탄문에 쓰여 “찬미하다” “칭찬하다”의 뜻), 邈(“바보스럽다”는 의미의 술어로 쓰임)

②方言 單音節 낱말의 발전

順(偷/順便拿/帶)

③단음절 용법의 확대

巨, 超, 强, 暴, 狂등이 형용사나 서술어를 수식하는 낱말.

④구어체의 약칭

呼(传呼), 短(短信), 电(电话), 婚(结婚) 등

蔡长虹은 이런 낱말이 생성되는 원인을 ①新事物, 新技術, 新概念, 新觀念의 끊임없는 출현, ②언어생활의 공식적 통시적 발전, ③바쁜 일상을 반영한 단음절로의 축약 등으로 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인터넷을 통한 문자적 의사소통은 말을 통한 의사소통처럼 동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으며, 또 지금의 문자적 의사 교환도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이전처럼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漢語의 단음절적 특성을 심분 활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다음절을 단축하여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하여 빈번하게 의사를 교환하는 계층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크게 보아 漢語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馬顯彬, 〈汉语同音现象分析〉, 《语文研究》(2005年 第2期, 总第95期), 15-17쪽.

10) 刘照雄, 《普通话水平测试大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4), 36-346쪽에 수록된 어휘목록은 “表一”과 “表二”가 있다. 이중 “表一”에 등재된 8,455개는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와 汉语水平考试部에서 발행한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 중의 词汇等级大纲에 등재된 어휘이고, “表二”에 등재된 15,496개는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에서 편찬한 《现代汉语词典》(北京: 商务印书馆, 第3版, 1996年)에 수록된 어휘이다. 이들 중 중복된 121개 어휘를 제외하면 23,830개 어휘가 된다.

음절별 낱말의 총수와 동음절 낱말과 비동음절 낱말의 개수 및 同音率에 대한 통계를 재구성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음절수	낱말 총수	동음절 낱말	비동음절 낱말	同音率(%)	同音率(%)
1음절	1,894	916	978	48.36	48.36
2음절	20,414	364	20,050 ¹¹⁾	1.78	1.66
3음절	1,425	1	1,424	0.07	
4음절	96	0	96	0	
5음절	1	0	1	0	
전체	23,830	1,281	22,549	5.38	

이 통계에 의하면 한자의 同音率은 무려 72%, 1음절 낱말의 同音率은 48.36%에 이르고 전체 同音率은 5.38%이지만, 2음절 이상의 다음절 낱말의 경우는 同音率이 대폭 감소하여 1.6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다음절 낱말에서 성조를 무시한 분절음만의 同音率은 어느 정도일까? 즉, 다음절 낱말에서 성조가 가지는 분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만약 성조의 분화 능력이 아주 제한적이라면 적어도 다음절 낱말에서는 성조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것은 아닐까? 漢語는 단음절적 특징과 음절수의 부족 때문에 漢字라는 표의문자를 쓰고 있지만, 漢語의 발전 추세가 다음절화에 있고, 다음절 어휘에서는 성조의 변별 부하가 극히 낮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발전한다면 성조의 역할이 극도로 약화되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아가 표음문자만으로도 표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등등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¹²⁾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普通话三千常用词表》(增订本, 郑林曦编, 语文出版社, 1987年)와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汉语水平考试部编制, 北京语言学院出

11) 马显彬, 〈汉语同音现象分析〉, 《语文研究》(总第95期, 2005年 第2期), 16쪽에는 20,057개로 계산하였으나 20,050으로 바로 잡음.
 12) 马显彬, 〈汉语同音现象分析〉, 《语文研究》(总第95期, 2005年 第2期), 17쪽에 성조를 무시한 분절음이 같은 낱말은 5,552개이며, 분절음이 다른 낱말은 18,278개로 同音率은 23.30%라는 통계는 있음.

版社, 1992年)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 다음절 낱말의 동일 분절음과 동음절 분석

2.1 《普通话三千常用词表》의 분석

《普通话三千常用词表》에 등재된 3,996개의 상용 어휘 중에 다음절 어휘는 2,863개로 전체의 71.65%, 1음절 단어는 1,136개로 28.35%이다. 1음절 어휘 중 분절음이 동일하여 성조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단어는 657개로 58%에 해당하며, 성조까지 포함하여도 구별되지 않는 1음절 어휘는 42%이다.¹³⁾ 이러한 통계에서 漢語의 성조는 극히 제한적인 분절음 음절을 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漢語 자체의 음절수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절 어휘에서의 변별력은 매우 제한적임을 말해 주고 있다.

다음절 어휘 2,863개 중 분절음이 동일하여 성조에 의해서만 변별되는 어휘는 다음과 같은 79음절 165개¹⁴⁾ 어휘이며, 이 중 12음절 24개 어휘는 성조에 의해서도 변별되지 않는다. 다음절 어휘 2,863개 중 성조를 포함한 音節同音率은 0.84% [$24 \div 2,863 \times 100$]로 아주 미미하지만 성조를 제외한 分節音同音率은 5.76% [$165 \div 2,863 \times 100$]이다¹⁵⁾. 즉 다음절 어휘의 5.76%만이 성조가 의미 분화에 간여하고, 이중 0.84%는 동음절이어서 성조 역시 변별작용을 하지 못하는 어휘이다.

13) 郭锦桴, 《汉语声调语调纲要与探索》(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年), 93쪽.

14) [花儿]huār [画儿]huàr [枝儿]zhīr [侄儿]zhīr [哪儿]nǎr [那儿]nàr 등은 “儿化”로 만들어진 일음절 합성어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시켰다.

15) 성모와 운모가 동일한 음절의 비율을 “分節音同音率”이라고 하고, 성모, 운모, 성조가 모두 동일한 음절의 비율을 “音節同音率”이라고 한다.

[包袱]bāofú/[报复]bàofù
[包围]bāowéi/[保卫]bǎowèi
[包子]bāozi/[雹子]báozi/^[豹子]bàozi/^[刨子]bàozi
[表哥]biǎogē/[表格]biǎogé
^[匙子]chízi/^[池子]chízi
[出发]chūfā/[处罚]chǔfá
[达到]dá/dào/[打倒]dǎ/dǎo/[大道]dàdào
[打架]dǎ/jià/[大家]dàjiā
[刀子]dāo-zi/[稻子]dào-zi
[大衣]dàyī/[大意]dàyi
[方子]fāng-zi/[房子]fáng-zi
[防止]fángzhǐ/[纺织]fǎngzhī
[哥哥]gē-ge/[各个]gè-ge
^[公鸡]gōngjī/^[攻击]gōngjī
[关于]guānyú/[惯于]guànyú
[咕咚]gūdōng/[鼓动]gǔdòng
[剪子]jiǎn-zi/[腱子]jiàn-zi
[结实]jiē-shi/[解释]jiěshì
[经理]jīnglǐ/[敬礼]jìng/lǐ
[进来]jìn-/lai/[近来]jìnlái
[机器]jī-qi/[极其]jíqí
[技师]jīshī/[即使]jíshǐ
[橘子]jú-zi/[锯子]jù-zi
[老师]lǎoshī/^[老是]lǎo-shi/^[老实]lǎo-shi
[联系]liánxi/[练习]liànxí
[帘子]lián-zi/[链子]liàn-zi
^[礼帽]lǐmào/^[礼貌]lǐmào
^[例子]lì-zi/^[栗子]lì-zi
[煤油]méiyóu/[没有]méi-yǒu
[哪个]nǎ-ge, [那个]nà-ge
[哪里]nǎ-li/[那里]nà-li
[批发]pīfā/[疲乏]pífá
[扑通]pūtōng/[普通]pǔtōng
[七十]qīshí/[其实]qíshí

[旗子]qí-zi/[妻子]qīzi
[晌午]shǎng-wu/[上午]shàngwǔ
[声明]shēngmíng/[生命]shēngmìng
[升子]shēng-zi/[繩子]shéng-zi
[生长]shēngzhǎng/[省长]shěngzhǎng
[身子]shēn-zi/[婶子]shěn-zi
[时常]shícháng/[市场]shìchǎng
[使得]shǐ-de/^[是的]shì-de/^[似的]shì-de
[实际]shíjì/[世纪]shìjì
[时间]shíjiān/[实践]shíjiàn
[十六]shíliù/[石榴]shí-liú
^[时期]shíqī/^[十七]shíqī
[实验]shíyàn/[试验]shìyàn
[虱子]shī-zi/[獅子]shī-zi/[柿子]shì-zi
[收到]shōudào/[受到]shòu-dào
[舒服]shū-fu/[叔父]shūfù
[书记]shū-jì/[书籍]shūjí
[书架]shūjià/[暑假]shūjià
[梯子]tī-zi, [蹄子]tí-zi
[同意]tóngyi/[统一]tǒngyī
[徒弟]tú-dì/[土地]tǔdì
[武器]wǔqì/[雾气]wùqì
[下级]xiàjì/[夏季]xiàjì
[姓名]xìngmíng/[性命]xìngmìng
^[形势]xíngshì/^[形式]xíngshì
^[修养]xiūyǎng/^[休养]xiūyǎng
[学员]xuéyuán/[学院]xuéyuàn
^[要是]yào-shì/^[钥匙]yào-shì
[一半]yībàn/[一般]yībān
[一面]yímiàn/[以免]yǐmiǎn
[一齐]yíqí/[一起]yíqǐ
[遗失]yíshī/[一时]yīshí
[一直]yízhí/[一致]yízhì
^[以至]yǐzhì/^[以致]yǐzhì

[游泳]yóuyǒng/[有用]yǒuyòng
 [院子]yuàn·zi/[原子]yuánzǐ
 [于是]yúshì/[浴室]yùshì
 [蒸汽]zhēngqì/[整齐]zhěngqí
 [指导]zhǐdǎo/[知道]zhī·dao
 [值得]zhí·de/[只得]zhǐdé
 [只是]zhǐshì/[知识]zhī·shì
 [主人]zhǔ·ren/[主任]zhǔrèn
 [主义]zhǔyì/[主意]zhǔ·yì/[注意]zhù·yì
 [竹子]zhú·zi/[柱子]zhù·zi
 [仔细]zìxì/[自习]zìxí¹⁶⁾

2.2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의 분석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의 음절별 어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¹⁷⁾

音节数	单音节	双音节	三音节	四音节	五音节	格式
数量	1,941	6,396	272	185	2	26
比率(%)	22.00	72.50	3.08	2.10	0.02	0.29

음절별 어휘 분포¹⁸⁾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에 등재된 다음절 어휘의 分節音同音率과 音節同音率을 계산하기 위하여, 분절음이 동일한 어휘, 즉 聲母와

16) 성모, 운모, 성조가 모두 같은 동일 음절은 “^”로 표시하였다.
 17) 邢红兵, <《(汉语水平)词汇等级大纲》双音合成词语素统计分析>, 《世界汉语教学》(2006年 第3期, 总第77期), 65쪽.
 18) 주 17)에서 제시한 음절별 어휘 분포와 여기에서 분석한 음절별 어휘 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필자가 분석한 결과로는 1음절에서 7개, 2음절에서 3개, 3음절에서 4개, 4음절에서 3개가 각기 적으며, 관용구에서는 17개가 많다. 이는 각 관용구 속의 어휘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용구에 산입하였기 때문이다.

韻母가 동일한 어휘와 음절이 동일한 어휘, 즉 聲母, 韻母, 聲調가 동일한 어휘를 급수별로 분리하여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¹⁹⁾

- ₁[过去]guòqù/₁[过去]guòqu
₁[橘子](桔子)júzi(júzi)/₁[句子]jùzi
₁[年级]niánjí/₁[年纪]niánjì
₁[聯系]liánxì/₁[练习]liànxí
₁^[他们]tāmen/₁^[它们]tāmen/₁^[她们]tāmen
₁[通知]tōngzhī/₁[同志]tóngzhì/₂[统治]tǒngzhì
₁[时间]shíjiān/₁[实践]shíjiàn/₂[事件]shìjiàn
₁[主意]zhùyì/₁[注意]zhùyì/₄[主义]zhǔyì

₂^[报到]bào dào/₂^[报道](报导)bàodào
₁[杯子]bēizi/₂[被子]bèizi
₂[不幸]búxìng/₂^[不行]bùxíng/₄^[步行]bùxíng
₁[城市]chéngshì/₂[诚实]chéngshí/
₂[达到]dá dào/₂[打倒]dǎ dǎo/₃[大道]dàdào
₁[地方]dìfāng/₂[地方]dìfāng
₂[底下]dǐxià/₂[地下]dìxià/₄[低下]dīxià,
₂[防止]fángzhǐ/₂[纺织]fǎngzhī/₃[防治]fángzhì
₂^[反应]fǎnyìng/₂^[反映]fǎnyìng
₂^[工夫]gōngfu/₂^[攻夫]gōngfu
₁^[公园]gōngyuán/₂^[公元]gōngyuán
₂[回忆]huíyì/₂[会议]huìyì
₁[机器]jīqì/₂[极其]jíqí
₁[教室]jiàoshì/₂[教师]jiàoshī
₂^[接到]jiē dào/₂^[街道]jiēdào
₂[结实]jiēshi/₂[解释]jiěshì/₄[揭示]jiēshì
₁^[进来]jìnlái/₂^[近来]jìnlái
₂^[精力]jīnglì/₂[经理]jīnglǐ/₂^[经历]jīnglì/₂[敬礼]jìng lǐ

19) 이 통계에서 동음·동형·이의어는 제외하였다. 낱말의 왼쪽에 있는 하부문자 “1”은 甲級, “2”는 乙級. “3”은 丙級, “4”는 丁級을 나타내며, “^”는 동일 음절을 표시한다.

- 1[老师]lǎoshī/2[老实]lǎoshí
 2[毛衣]màoyī/2[贸易]màoyì
 1[那个]nàge/2[哪个]nǎge
 1[那些]nàxiē/2[哪些]nǎxiē
 1^[年轻]niánqīng/2^[年青]niánqīng
 2^[其他]qítā/2^[其它]qítā
 2[妻子]qīzi/2[旗子]qízi
 2[人物]rénwù/2[任务]rènwù
 2[失业]shī yè/2[事业]shìyè/4[视野]shìyě
 2[实际]shíjì/2^[世纪]shìjì/3[时机]shíjī/3^[事迹]shìjì
 2^[食物]shíwù/2^[事物]shìwù/3^[事务]shìwù/4[失误]shīwù/4^[实
 物]shíwù
 2[实现]shíxiàn/2[事先]shìxiān/4[视线]shìxiàn
 2[实验]shíyàn/2[试验]shìyàn/4[誓言]shìyán
 1[使用]shíyòng/2^[实用]shíyòng/2[适用]shìyòng/4[试用]shìyòng/4^[食
 用]shíyòng
 2[书架]shūjià/2[暑假]shǔjià
 1[同意]tóngyi/2[统一]tǒngyī/4[同一]tóngyī
 2[无数]wúshù/2[武术]wúshù
 2[消化]xiāohuà/2[笑话]xiàohuà
 1[小时]xiǎoshí/2[消失]xiāoshī
 2^[形式]xíngshì/2^[形势]xíngshì/3^[行驶]xíngshǐ/4^[刑事]xíngshì/4^[行
 使]xíngshǐ
 1[眼镜]yǎnjìng/2[眼睛]yǎnjīng
 1[医生]yīshēng/2[一生]yìshēng
 2[以外]yǐwài/2[意外]yìwài
 1[一直]yìzhí/2[一致]yìzhì/2^[意志]yìzhì/3^[以至]yǐzhì/3^[以致]yǐzhì/3^[抑
 制]yìzhì/4[医治]yìzhì/4[遗址]yìzhǐ
 1[一般]yìbān/2[一半]yìbàn
 1[一起]yìqǐ/2[一齐]yìqí/2[仪器]yìqì
 2[英勇]yīngyǒng/2[应用]yìngyòng
 2^[有利]yǒuli/2^[有力]yǒuli
 1[游泳]yóuyǒng/2[有用]yǒuyòng
 1[知道]zhīdao/2[直到]zhídào/2[指导]zhǐdǎo/

2^ [制定]zhìdìng/2^ [制订]zhìdìng/4 [指定]zhǐdìng
1 [知识]zhīshì/2 [指示]zhǐshì/4 [致使]zhìshǐ
1 [重要]zhòngyào/2 [中药]zhōngyào
2 [主人]zhǔrén/2 [主任]zhǔrèn
2 [作为]zuòwéi/2 [座位]zuòwèi

3 [报酬]bào chóu/3 [报仇]bào chóu
3^ [报复]bào fù/3 [包袱]bāo fu/4^ [抱负]bào fù
2 [保卫]bǎo wèi/3 [包围]bāo wéi
1^ [必须]bì xū/3^ [必需]bì xū
2 [不必]bù bǐ/3 [不比]bù bǐ
2 [部队]bù duì/3 [不对]bù duì
2 [不仅]bù jǐn/3 [不禁]bù jǐn
2 [补课]bǔ kè/3 [不可]bù kě
2 [布置]bù zhì/3^ [不只]bù zhǐ/3^ [不止]bù zhǐ
1 [迟到]chí dào/3 [赤道]chì dào
2 [出席]chū xí/3 [出息]chū xī/4 [除夕]chú xī
2 [春节]chūn jié/3 [纯洁]chún jié
2 [打扮]dǎ ban/3 [大半]dà bàn
1 [大家]dà jiā/3 [打架]dǎ jià
2 [大量]dà liàng/3 [打量]dǎ liang
3 [大嫂]dà sǎo/3 [打扫]dǎ sǎo
2 [大衣]dà yī/3 [大意]dà yì
2 [倒](倒是)dào (dào shì)/3 [导师]dǎo shī
2 [地址]dì zhǐ/3 [地质]dì zhì/4 [抵制]dǐ zhì
3 [典礼]diǎn lǐ/3 [电力]diàn lì
3 [冬季]dōng jì/3 [动机]dòng jī
2 [肚子]dù zi/3 [独自]dú zì
1 [法语](法文)fǎ yǔ (fǎ wén)/3 [发育]fā yù
3 [防守]fáng shǒu/3 [放手]fàng shǒu
3 [分子]fēn zǐ/3 [分子]fēn zǐ
3 [夫人]fū rén/3 [妇人]fù rén
2 [副食]fù shí/3 [腐蚀]fǔ shí
1 [改变]gǎi biàn/3 [改编]gǎi biān

- 2[趕緊]gǎnjīn/3[干劲]gànjìn
 1[钢笔]gāngbǐ/3[港币]gǎngbì
 1[告诉]gàosu/3[高速]gāosù/
 2[个子]gèzi/3[鸽子]gēzi/3[各自]gèzi
 2[供给]gōngjǐ/3[攻击]gōngjī/4[攻绩]gōngjì/4[共计]gòngjì
 3^[攻克]gōngkè/3^[攻课]gōngkè
 3[估计]gūjì/3[古迹]gǔjì/
 2[鼓励]gǔlì/3[孤立]gūlì
 2[罐头]guǎntóu/3[关头]guāntóu
 2[国际]guójì/3[国籍]guójí
 1[化学]huàxué/3[滑雪]huá xuě/
 2[回信]huí xìn/3[灰心]huīxīn
 2[护士]hùshi/3[忽视]hūshì
 2^[激动]jīdòng/3^[机动]jīdòng
 2[及时]jíshí/3[即使]jíshǐ/4[集市]jíshì
 2[坚定]jiāndìng/3[鉴定]jiàndìng
 2[交际]jiāoji/3[焦急]jiāojí
 3[加入]jiārù/3[假如]jiǎrú
 3[假使]jiǎshǐ/3[驾驶]jiàshǐ
 3[夹子]jiāzi/3[架子]jiàzi
 1[结果]jiéguǒ(접속사)/3[结果]jiéguǒ(명사)/4[结果]/jiéguo/jiē guǒ
 3[精神]jīngshén/3[精神]jīngshen
 3[连接]liánjiē/3[廉洁]liánjié
 1[努力]nǔlì/3[奴隶]núlì
 3[拍子]pāizi/3[牌子]páizi
 3[气氛]qìfēn/3[气愤]qìfèn
 1[清楚]qīngchū/3[清除]qīngchú
 3[轻视]qīngshì/3[请示]qǐngshì
 2[情形]qíngxíng/3[清醒]qīngxǐng
 3^[权利]quánli/3^[权力]quánli/4^[全力]quánli
 3[燃料]ránliào/3[染料]rǎnliào
 2[人家]rénjiā(명사)/3[人家]rénjia(대명사)
 1[认识]rènshi/3^[人士]rénshi/4^[人事]rénshi
 1^[散步]sàn bù/3^[散布]sànbù

- 2[设计]shèjì/3[射击]shèjī/4[涉及]shèjí
 3[申请]shēnqǐng/3[神情]shénqíng/4[深情]shēnqíng
 3[身子]shēnzi/3[婶子]shěnzi
 1[胜利]shènglì/3[生理]shēnglǐ
 2[生命]shēngmìng/3[声明]shēngmíng
 2[生长]shēngzhǎng/3[省长]shěngzhǎng
 3[市场]shìchǎng/3[时常]shícháng
 3[使得]shǐde/3^[是的]shìde/3^[…似的]…shìde
 1[世界]shìjiè/3[时节]shíjié/4[使节]shǐjié
 2[事实]shìshí/3[时时]shíshí/3[实施]shíshī/3[逝世]shìshì/4[失事]shī shì/4
 [时事]shíshì
 2[收获]shōuhuò/3[售货]shòu huò
 1[收拾]shōushi/3[手势]shǒushi
 1[舒服]shūfu/3[束缚]shùfù
 3^[水利]shuǐlì/3^[水力]shuǐlì
 2[书记]shūjì/3[书籍]shūjí
 3^[树木]shùmù/3^[数目]shùmù
 2[数字]shùzì/3[梳子]shūzi/
 3[提问]tíwèn/3[体温]tīwēn
 2[土地]tǔdì/3[徒弟]túdì
 3[微笑]wēixiào/3[微小]wēixiǎo
 2[位置]wèizhi/3[为止]wéizhǐ
 2^[文明]wénmíng/3^[闻名]wénmíng
 2[文字]wénzi/3[蚊子]wénzi
 2[误会]wùhuì/3[舞会]wǔhuì
 1[屋子]wūzi/3[物资]wùzī
 3[西服]xīfú/3[媳妇]xīfù
 2[鲜花]xiānhuā/3[闲话]xiánhuà
 2[现实]xiànshí/3[显示]xiǎnshì
 3[协作]xiézuò/3[写作]xiězuò
 2[星星]xīngxīng/3[行星]xíngxīng
 1[新年]xīnnián/3[信念]xìnniàn
 3^[新式]xīnshì/3^[心事]xīnshì
 1[学院]xuéyuàn/3[学员]xuéyuán

- 1^ [要是] yàoshi/3^ [钥匙] yàoshi
 2 [一边] yibiān/3 [以便] yǐbiàn
 2 [一时] yíshí/3 [仪式] yíshì/3 [意识] yìshì/4 [遗失] yíshī
 3 [一心] yìxīn/3 [疑心] yíxīn
 1 [意义] yìyì/3 [一一] yīyī
 1 [音乐] yīnyuè/3 [隐约] yīnyuē
 2 [有时] yǒushí/3 [优势] yōushi
 1^ [友谊] yǒuyì/3^ [有意] yǒuyì/3^ [有益] yǒuyì/4 [优异] yōuyì
 2 [由于] yóuyú/3 [犹豫] yóuyù/4 [忧郁] yōuyù
 2 [语气] yǔqì/3 [与其] yǔqí/4 [预期] yùqī
 2 [于是] yúshì/3 [浴室] yùshì
 1 [语言] yǔyán/3^ [寓言] yùyán/4^ [预言] yùyán
 2 [愿望] yuànwàng/3 [冤枉] yuānwang
 2 [院子] yuànzǐ/3 [原子] yuánzǐ
 3^ [杂志] zázhì/3^ [杂质] zázhì
 3^ [占有] zhànyǒu/3^ [战友] zhànyǒu
 1 [着急] zháojí/3 [召集] zhàojī
 3^ [震动] zhèndòng/3^ [振动] zhèndòng
 3 [正当] zhèngdāng/3 [政党] zhèngdǎng
 1 [政府] zhèngfǔ/3 [征服] zhèngfú
 1 [整齐] zhěngqí/3^ [蒸汽] zhēngqì/4^ [争气] zhēng qì/4 [正气] zhèngqì
 2 [正式] zhèngshì/3 [证实] zhèngshí/
 2 [真实] zhēnshí/3 [真是] zhēnshì
 2 [值得] zhíde/3 [只得] zhǐde
 2 [指挥] zhǐhuī/3 [智慧] zhìhuì
 2 [支援] zhīyuán/3 [职员] zhíyuán/3 [志愿] zhìyuàn
 2 [重视] zhòngshì/3 [忠实] zhōngshí
 2^ [中心] zhōngxīn/3^ [衷心] zhōngxīn/4 [重心] zhòngxīn
 2^ [住院] zhù yuàn/3^ [祝愿] zhùyuàn/
 2 [竹子] zhúzi/3 [柱子] zhùzi/4 [珠子] zhūzi
 3 [转动] zhuǎndòng/3 [转动] zhuàndòng
 2 [资源] zīyuán/3 [自愿] zìyuàn
 1 [组织] zǔzhī/3 [阻止] zǔzhǐ
-

2[按时]ànshí/4[暗示]ànshì
1[办法]bànfǎ/4[颁发]bānfā
4^[保健]bǎojiàn/4^[宝剑]bǎojiàn
2[包子]bāozi/4[雹子]báozi
2[北面]běimiàn/4[背面]bèimiàn
4[贬低]biǎndī/4[遍地]biàndì
3[边界]biānjiè/4[辩解]biànjiě
3[编制]biānzhì/4[贬值]biǎnzhí/4[变质]biànzhì
4[鞭子]biānzi/4[辫子]biànzi
2^[笔记]bǐjì/4^[笔迹]bǐjì
4[不法]bùfǎ/4[步伐]bùfá
3[不见]bújiàn/4[部件]bùjiàn
1[不久]bùjiǔ/4[补救]bǔjiù/
3[不是]búshì/4[不时]bùshí
2[补习]bǔxí/4[不惜]bùxī
2[不住]búzhù/4[补助]bǔzhù
4[参与]cānyù/4[残余]cányú
4[差异]chāyì/4[诧异]chàyì
3[常识]chángshí/4[尝试]chángshì
4^[惩办]chéngbàn/4^[承办]chéngbàn
1[成绩]chéngjì/4[乘机]chéngjī
2[承认]chéngrèn/4[成人]chéngren
3[尺子]chǐzi/4[赤字]chìzì
4[出境]chūjìng/4[处境]chǔjìng
3^[出事]chūshì/4^[出世]chūshì/4[厨师]chúshī
1[出发]chūfā/4[处罚]chǔfá
2[厨房]chúfáng/4[出访]chūfǎng/4[处方]chǔfāng
3[出身]chūshēn/4[出神]chūshén
2[传播]chuánbō/4[船舶]chuánbó
3[伺候]cìhòu/4[此后]cǐhòu
3[大便]dàbiàn/4[答辩]dábiàn
4[胆子]dǎnzi/4[担子]dànzi
3^[导弹]dǎodàn/4^[捣蛋]dǎodàn
2[刀子]dāozi/4[稻子]dàozi

- ₃[得意]dé yì/₄[得以]déyǐ
₂[登记]dēngjì/₄[等级]děngjí/
₃[地势]dìshì/₄[敌视]díshì
₃[电炉]diànlú/₄[电路]diànlù
₃^[电器]diànqì/₄^[电气]diànqì
₄^[电源]diànyuán/₄^[店员]diànyuán
₃[电子]diànzǐ/₄[点子]diǎnzi
₄[定点]dìngdiǎn/₄[顶点]dǐngdiǎn
₃^[懂事]dǒng shì/₄^[董事]dǒngshì
₂^[发言]fā yán/₄^[发炎]fā yán
₃[繁殖]fánzhí/₄[反之]fǎnzhi
₄[飞舞]fēiwǔ/₄[废物]fèiwù
₄[分期]fēn qī/₄[分歧]fēnqí
₄^[分辩]fēnbiàn/₄^[分辨]fēnbiàn
₄[分母]fēnmǔ/₄[坟墓]fénmù
₂^[风力]fēnglì/₄^[锋利]fēnglì
₄[风险]fēngxiǎn/₄[奉献]fèngxiàn
₂[符合]fúhé/₄[複合]fùhé/₄[附和]fùhè
₃[夫妻]fūqī/₄^[服气]fúqì/₄^[福气]fúqì
₂[复述]fùshù/₄[附属]fùshǔ
₃[富裕]fùyù/₄[抚育]fùyù/₄[赋予]fùyǔ/₄[富余]fùyú
₃[敢于]gǎnyú/₄[干预]gānyù
₁^[刚才]gāngcái/₄^[钢材]gāngcái
₃[高潮]gāocháo/₄[高超]gāochāo
₄[高贵]gāoguì/₄[搞鬼]gǎoguǐ
₃[歌剧]gējù/₄[格局]géjú
₂^[个别]gèbié/₄^[各别]gèbié
₃[个性]gèxìng/₄[歌星]gēxīng
₄^[攻关]gōngguān/₄^[公关]gōngguān
₁[工人]gōngrén/₄[公认]gōngrèn
₃^[公式]gōngshì/₄^[工事]gōngshì
₄[攻效]gōngxiào/₄[供销]gōngxiāo
₃[鼓动]gǔdòng/₄[股东]gǔdōng
₃[顾问]gùwèn/₄[古文]gǔwén/

- 2[鼓掌]gǔ zhǎng/4[故障]gùzhàng
 2[管理]guǎnlǐ/4[慣例]guànlì
 3[柜子]guǐzi/4[鬼子]guǐzi
 3^[过渡]guòdù/4^[过度]guòdù
 3[果实]guǒshí/4[过失]guòshī
 4[汉奸]hànjiān/4[罕见]hǎnjiàn
 4[恒星]héngxīng/4[横行]héngxíng
 4[狐狸]húli/4[互利]hùlì
 4[花费]huāfèi/4[化肥]huàféi
 2[皇帝]huángdì/4[荒地]huāngdì
 1^[会话]huìhuà/4^[绘畫]huì huà
 4[回击]huíjī/4[汇集]huìjí
 3[火力]huǒlì/4[活力]huóli
 2[伙食]húshí/4[或是]huòshì
 4^[极度]jídù/4^[嫉妬]jídù/4[季度]jìdù
 2[机关]jīguān/4[籍贯]jíguàn
 1[集合]jíhé/4[几何]jǐhé
 1[机会]jīhuì/4[集会]jíhuì
 4[激励]jīlì/4[极力]jìlì
 2[集体]jíti/4[机体]jītǐ
 4[吉祥]jíxiáng/4[迹象]jìxiàng
 1[继续]jìxù/4[急需]jíxū
 3[给予]jǐyǔ/4[机遇]jīyù/4[急于]jíyú
 3[急躁]jízào/4[及早]jízǎo
 4[加班]jiā bān/4[甲板]jiǎbǎn
 2^[家具]jiājù/4^[加剧]jiājù
 1^[检查]jiǎnchá/4[监察]jiānchá/4^[检察]jiǎnchá
 4[尖端]jiānduān/4[简短]jiǎnduǎn
 3[见解]jiànjiě/4[间接]jiànjiē
 4[将近]jiāngjìn/4[奖金]jiǎngjīn
 3[奖励]jiǎnglì/4[讲理]jiǎng lǐ
 4[艰巨]jiānjù/4[检举]jiǎnjǔ
 4^[坚韧]jiānrèn/4^[兼任]jiānrèn
 3[监视]jiānshì/4[见识]jiànshì/4[坚实]jiānshí

- 2[建议]jiànyì/4[简易]jiǎnyì
 3[监狱]jiānyù/4[鉴于]jiànyú
 4^[焦点]jiāodiǎn/4^[交点]jiāodiǎn
 2[交换]jiāohuàn/4[叫唤]jiàohuan
 2[教授]jiàoshòu/4[交手]jiāo shǒu
 3[交谈]jiāotán/4[焦炭]jiāotàn
 4[接触]jiēchù/4[杰出]jiéchū/4[解除]jiěchú
 2[解放]jiěfàng/4[街坊]jiēfang
 2[接见]jiējiàn/4[借鉴]jièjiàn
 2[接受]jiēshòu/4[接收]jiēshōu
 3^[界线]jièxiàn/4^[界限]jièxiàn
 1[今年]jīnnián/4[近年]jìnnián
 1[进去]jìnqù/4[进取]jìnqǔ/4[禁区]jìnqū
 2[进修]jìnxiū/4[锦绣]jǐnxiù
 4[净化]jìnghuà/4[精华]jīnghuá
 4[警戒]jǐngjiè/4[境界]jìngjiè
 2[究竟]jiūjìng/4[酒精]jiǔjīng
 4[居室]jūshì/4[局势]júshì
 3[客观]kèguān/4[可观]kěguān
 1[可是]kěshì/4[课时]kèshí
 3[可惜]kěxī/4[可喜]kěxǐ
 1[劳驾]láo jiá/4[老家]lǎojiā
 2[利害](厉害)lìhài/4[利害]lìhài
 2[理解]lǐjiě/4[礼节]lǐjié
 1[历史]lìshǐ/4[理事]lǐshì/
 2^[例子]lìzi/4^[栗子]lìzi
 4[莲子]liánzi/4[链子]liànzi
 4[林场]línchǎng/4[临床]línchuáng
 3^[露面]lù miàn/4^[路面]lùmiàn
 3[爐子]lúzi/4[路子]lùzi
 1^[旅行]lǚxíng/4^[履行]lǚxíng
 2[毛巾]máojīn/4[冒进]màojin
 3[毛线]máoxiàn/4[冒险]màoxiǎn
 2^[蜜蜂]mìfēng/4^[密封]mìfēng

- 3[明明]míngmíng/4[命名]mìng míng
 2[名胜]míngshèng/4[名声]míngshēng
 2[难看]nánkàn/4[难堪]nánkān
 2[南面]nánmiàn/4[难免]nánmiǎn
 4[批发]pīfā/4[疲乏]pífá
 2[皮肤]pífū/4[批复]pífù
 3[汽船]qìchuán/4[气喘]qìchuǎn
 3[欺负]qīfu/4[起伏]qǐfú
 4[乞求]qǐqiú/4[气球]qìqiú
 3[其实]qíshí/4[歧视]qíshì/4^[启示]qǐshì/4^[启事]qǐshì/4[气势]qìshì/
 2[期间]qījiān/4[其间]qíjiān
 4[签字]qiān zì/4[钳子]qiánzi
 3[墙壁]qiángbì/4[枪毙]qiāngbì
 3[清洁]qīngjié/4[情节]qíngjié
 4[清理]qīnglǐ/4[情理]qínglǐ
 4[蜻蜓]qīngtíng/4[倾听]qīngtīng
 4[趋势]qūshì/4[去世]qùshì
 4^[人參]rénshēn/4^[人身]rénshēn
 1[认为]rènwéi/4[人为]rénwéi
 2[任性]rènxìng/4[人性]rénxìng
 4^[融化]rónghuà/4^[溶化]rónghuà
 3[商人]shāngrén/4[上任]shàng rèn
 1[上午]shàngwǔ/4[晌午]shǎngwǔ
 2[上衣]shàngyī/4[商议]shāngyì
 4[山腰]shānyāo/4[闪耀]shǎnyào
 3[扇子]shànzi/4[擅自]shànzi
 3[哨兵]shàobīng/4[烧饼]shāobīng
 2[沙子]shāzi/4[傻子]shǎzi
 1[生产]shēngchǎn/4[盛产]shèngchǎn
 3[剩余]shèngyú/4^[声誉]shēngyù/4^[生育]shēngyù
 3[神话]shénhuà/4[深化]shēnhuà
 3[神气]shénqì/4[神奇]shénqí
 3[慎重]shènzhòng/4[深重]shēnzhòng
 3[摄氏]shèshì/4[设施]shèshī

4[时代]shídài/4[世代]shidài
 3[师范]shīfàn/4[示范]shifàn
 3[是非]shìfēi/4[施肥]shī féi
 1[时候]shíhou/4[侍候]shìhòu
 4[石灰]shíhuī/4[实惠]shìhuì
 3^[势力]shìlì/4[实力]shíli/4^[事例]shìlì/4^[视力]shìlì/
 4[尸体]shītǐ/4[实体]shítǐ
 2[实行]shíxíng/4[施行]shíxíng/4[试行]shíxíng
 3[市长]shìzhǎng/4[师长]shìzhǎng
 3[实质]shízhì/4[试制]shìzhì
 4^[守法]shǒu fǎ/4^[手法]shǒufǎ/
 4[收益]shōuyì/4[手艺]shǒuyì
 2[手指]shǒuzhǐ/4[收支]shōuzhī
 2[司机]sījī/4[四季]sìjì
 3^[算数]suàn shù/4^[算術]suànshù
 4^[体制]tǐzhì/4^[体质]tǐzhì
 3[田地]tiándì/4[天地]tiāndì
 3[调节]tiáojié/4[调解]tiáojié
 3[条例]tiáoli/4[条理]tiáolǐ
 2[条约]tiáoyuē/4[跳跃]tiàoyuè
 2[停止]tíngzhǐ/4[停滞]tíngzhì
 3[同胞]tóngbāo/4[通报]tōngbào
 4^[同年]tóngnián/4^[童年]tóngnián
 1[同时]tóngshí/4[同事]tóngshì
 4[通行]tōngxíng/4[同行]tōngxíng
 4[投资]tóu zī/4[头子]tóuzi
 3^[团员]tuányuán/4^[团圆]tuányuán
 2[违反]wéifǎn/4[违犯]wéifàn
 2[危机]wēijī/4[危急]wēijǐ
 4[围棋]wéiqí/4[为期]wéiqī
 1[文艺]wényì/4[瘟疫]wēnyì
 3[无比]wúbǐ/4[務必]wùbì
 4[物理]wùlǐ/4[无理]wúlǐ/4[武力]wǔlì/4[物力]wùlì
 3^[诬蔑]wūmiè/4^[污蔑]wūmiè

- 2[无限]wúxiàn/4[诬陷]wūxiàn
 3[无疑]wúyí/4[无意]wúyì
 2[物质]wùzhì/4[无知]wúzhī
 3[夏季]xiàjì/4[下级]xiàjí
 4[相符]xiāngfú/4[享福]xiǎng fú
 1^ [香蕉]xiāngjiāo/4^ [相交]xiāngjiāo/4 [橡胶]xiàngjiāo
 3[相声]xiàngshēng/4 [响声]xiǎngshēng
 2[相同]xiāngtóng/4 [相通]xiāngtōng
 2[响应]xiǎngyìng/4 [相应]xiāngyìng
 2[先进]xiānjìn/4 [现金]xiànjīn
 4[掀起]xiānqǐ/4 [限期]xiànqī
 4[先前]xiānqián/4 [现钱]xiànqián
 4[先行]xiānxíng/4 [现行]xiànxíng
 4[销毁]xiāohuǐ/4 [校徽]xiàohuī
 4[型号]xínghào/4 [幸好]xìnghǎo
 2[姓名]xìngmíng/4 [性命]xìngmìng
 1[星期]xīngqī/4 [兴起]xīngqǐ
 4[新近]xīnjìn/4 [薪金](薪水)xīnjīn(xīnshuǐ)
 3^ [心理]xīnlǐ/4^ [心里]xīnlǐ
 3[信任]xìnren/4 [新人]xīnrén
 3[新型]xīnxíng/4 [新兴]xīnxīng
 2[修理]xiūlǐ/4 [秀丽]xiùlì
 4^ [休养]xiūyǎng/4^ [修养]xiūyǎng
 2[延长]yáncháng/4 [演唱]yǎnchàng
 3[严厉]yánlì/4 [眼力]yǎnlì
 1[颜色]yánsè/4 [眼色]yǎnsè
 4[延伸]yánshēn/4 [眼神]yǎnshén
 3[岩石]yánshí/4 [掩饰]yǎnshì
 3[厌恶]yànwù/4 [烟雾]yānwù
 4[演习]yǎnxí/4 [宴席]yànxí
 3[谣言]yáoyán/4 [耀眼]yàooyǎn
 3[依据]yījù/4 [一举]yījǔ
 2[以来]yǐlái/4 [依赖]yīlài
 3[医疗]yīliáo/4 [意料]yīliào

- ₃[一面…一面…]yímiàn…yímiàn…/4[以免]/yímiàn/yǐmiǎn
₃[依然]yīrán/4[毅然]yìrán
₂[以上]yǐshàng/4[衣裳]yīshang
₃[义务]yìwù/4[医务]yīwù
₃[一向]yíxiàng/4[意向]yìxiàng/
₁[医院]yīyuàn/4[议员]yìyuán/4[译员]yìyuán
₂[印象]yìnxiàng/4[音响]yīnxiǎng
₂[影子]yǐngzi/4[蝇子]yíngzi
₂[拥护]yōnghù/4[用户]yònghù
₂[优点]yōudiǎn/4[邮电]yóudiàn
₃[有机]yǒuji/4^[邮寄]yóuji/4^[游击]yóuji
₁[尤其]yóuqí/4[油漆]yóuqī
₄[游人]yóurén/4[友人]yǒurén
₃[有限]yǒuxiàn/4[优先]yōuxiān
₃[幼稚]yòuzhì/4[优质]yōuzhì
₂^[遇见]yù jiàn/4^[预见]yùjiàn
₄^[预定]yùdìng/4^[预订]yùdìng
₂[雨衣]yǔyī/4[予以]yǔyǐ
₁[早饭]zǎofàn/4[造反]zào fǎn
₂[战士]zhànshì/4[展示]zhǎnshì
₃[战线]zhànxiàn/4[展现]zhǎnxiàn
₃[招手]zhāo shǒu/4[招收]zhāoshōu
₃[证书]zhèngshū/4[整数]zhěngshù
₃[正义]zhèngyì/4[争议]zhēngyì/
₃[镇静]zhènjìng/4[震惊]zhènjīng
₄[支撑]zhīchēng/4[职称]zhíchēng
₂[指出]zhīchū/4[支出]zhīchū
₃[指点]zhīdiǎn/4[致电]zhì diàn
₄[支付]zhīfù/4[致富]zhì fù/4[制服]zhìfú
₃[直径]zhíjìng/4[致敬]zhìjìng
₄[智力]zhìlì/4[治理]zhìlǐ
₄[职能]zhínéng/4[只能]zhǐnéng/4[智能]zhìnéng
₂^[植物]zhíwù/4^[职务]zhíwù
₃[制止]zhìzhǐ/4[直至]zhízhì

4[支柱]zhīzhù/4[蜘蛛]zhīzhū
 2[重点]zhòngdiǎn/4^[终点]zhōngdiǎn/4^[钟点]zhōngdiǎn
 3[中斷]zhōngduàn/4[終端]zhōngduān
 3^[中年]zhōngnián/4^[終年]zhōngnián
 4[重型]zhòngxíng/4[中型]zhōngxíng
 2^[终于]zhōngyú/4^[忠于]zhōngyú
 3[种植]zhòngzhí/4[终止]zhōngzhǐ
 3[装置]zhuāngzhì/4[壮志]zhuàngzhì
 3[嘱咐]zhǔfù/4[祝福]zhùfú
 2[主观]zhǔguān/4[主管]zhǔguǎn
 3[主力]zhǔlì/4[助理]zhùlǐ
 3^[注视]zhùshì/4[主食]zhǔshí/4^[注释]zhùshì
 4[主题]zhǔtí/4[主体]zhǔtǐ
 2[主张]zhǔzhāng/4[助长]zhùzhǎng
 4[滋味]zīwèi/4[自卫]zìwèi
 3[自主]zìzhǔ/4[资助]zìzhù
 2[综合]zōnghé/4[总和]zǒnghé
 4[踪迹]zōngjì/4[总计]zǒngjì
 3[总之]zǒngzhī/4[宗旨]zōngzhǐ
 2^[做法]zuòfǎ/4^[作法]zuòfǎ

〈동음·동형·어의어〉

1[那么]nàme(접속사)/1[那么]nàme(부사)
 2[到底]dàodǐ/2[到底]dào dǐ
 2[距离]jùlí(명사)/2[距离]jùlí(전치사)
 1 [可以]kěyǐ(조동사)/2 [可以]kěyǐ(형용사)
 2[谈话]tán huà/3[谈话]tánhuà
 1[一下儿]yí xiàr(수량사)/3[一下儿]yíxiàr(부사)

2.2.1 〈甲級〉 (1033 어휘)

1음절 어휘 - 460개

2음절 어휘 - 547개(一下儿, 一会儿, 一块儿, 小孩儿, 面条儿, 一点儿)

은 2음절로 취급)
 3음절 어휘 - 15개
 4음절 어휘 - 2개
 관용구 - 9개(连…都(也), 一边…一边…, 一…就…, 从…到…, …之间,
 …得很, 除了…以外, …极了, …分之…)

甲級 내의 다음절 어휘 중 분절음이 동일한 어휘는 8개 음절 17개 어휘이다. 이 중 음절이 완전 일치하는 경우는 1음절 3개 어휘이다.

甲級の 다음절 어휘 564(547+15+2)개 중 分節音同音率は 3.01% [$17 \div 564 \times 100$]이고, 音節同音率は 0.53% [$3 \div 564 \times 100$]이다.

甲級에서 2음절 내에서의 同音率は 3.10% [$17 \div 547 \times 100$]이며, 3음절 이상의 同音率は 0%이다.

이는 〈甲級〉에 속하는 다음절 어휘 564개 중 3.01%에서만 성조가 분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며, 또 0.53%는 성조를 포함한 음절이 동일하여 성조로도 분별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2.2 〈乙級〉(2018 어휘 추가)

1음절 어휘 - 571개
 2음절 어휘 - 1,359개(好玩儿, 差点儿, 干活儿, 墨水儿, 好好儿, 老头儿, 聊天儿, 大伙儿, 没事儿, 有(一)点儿은 2음절로 취급)
 3음절 어휘 - 68개
 4음절 어휘 - 3개
 관용구 - 17개(一方面…一方面…, …的话, …之後, …之前, 当…的时候, …之中, …之下, …之上, …之一, 越来越…, 既…又…, 一…也…, 越…越…, 从…出发, 非…不可, 边…边…, 既…也…)

甲級과 乙級 내의 다음절 어휘 중 분절음이 동일한 어휘는 61개 음절 131개 어휘이다. 이 중 음절이 완전 일치하는 경우는 14음절 39개 어휘이다.

甲級에서 乙級까지의 다음절 어휘 1,994[564+1359+68+3]개 중

의 分節音同音率은 6.56% $[131 \div 1994 \times 100]$ 이고 音節同音率은 1.95% $[39 \div 1994 \times 100]$ 이다.

甲級과 乙級에서 2음절 내에서의 同音率은 6.87% $[131 \div (547 + 1359) \times 100]$ 이며, 3음절 이상의 同音率은 0%이다.

2.2.3 丙級(2202 어휘 추가)

1음절 어휘 - 443개

2음절 어휘 - 1643개(冰棍儿, 玩意儿, 这会儿, 一下儿은 2음절에 포함시킴)

3음절 어휘 - 69개

4음절 어휘 - 33개

5음절 어휘 - 2개

관용구 - 12개(对...来说, 拿...来说, 到...为止, 一面...一面..., 不是...而是..., 不是...就是..., 就是...也..., 愈...愈..., ...之类, ...之外, ...之内, ...似的)

甲級 乙級 丙級까지의 다음절 어휘 중 분절음이 동일한 어휘는 188개 음절에 403개 어휘이다. 이 중 음절이 완전 일치하는 경우는 34개 음절 74개 어휘이다.

甲級 乙級 丙級까지의 다음절 어휘 3,741 $[1,994 + 1,643 + 69 + 33 + 2]$ 개 중 分節音同音率은 10.77% $[403 \div 3,741 \times 100]$ 이고 音節同音率은 1.97% $[74 \div 3,741 \times 100]$ 이다.

甲級 乙級 丙級까지의 2음절 내에서의 同音率은 11.35% $[403 \div (547 + 1359 + 1643) \times 100]$ 이며, 3음절 이상의 同音率은 0%이다.

2.2.4 丁級(3569 어휘 추가)

1음절 어휘 - 460개

- 2음절 어휘 - 2844개(纳闷儿, 心眼儿, 光棍儿, 包干儿, 年头儿, 烟卷儿은 2음절에 포함)
- 3음절 어휘 - 116개
- 4음절 어휘 - 144개
- 관용구 - 5개(非…才, …来说, 连…带…, 从…看来, 一会儿…一会儿)

甲級 乙級 丙級 丁級까지의 다음절 어휘 중 분절음이 동일한 어휘는 481개 음절 1062개 어휘이다. 이 중 음절이 완전 일치하는 경우는 91개 음절 193개 어휘이다.

甲級 乙級 丙級 丁級까지의 다음절 어휘 6,845[3,741+2,844+116+144]개 중 分節音同音率은 15.51% $[1062 \div 6,845 \times 100]$ 이고 音節同音率은 2.81% $[193 \div 6,845 \times 100]$ 이다.

甲級 乙級 丙級 丁級까지의 2음절 내에서의 同音率은 16.61% $[1062 \div (547+1359+1643+2844) \times 100]$ 이며, 3음절 이상의 同音率은 0%이다.

4. 결론

漢語의 분절음 감소는 음절수를 감소시켰고, 음절수의 감소는 초분절 소인 성조의 분화 기능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성조의 분화력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어 결국 낱말의 다음절화로 음절수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음절 낱말에서는 성조의 변별력이 절대적이지만, 다음절 낱말에서는 성조의 분화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普通话三千常用词表》에 등재된 3,996개의 상용 낱말 중에 다음절 낱말은 전체의 71.65%, 1음절 낱말은 전체의 28.35%로 다음절 낱말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 1음절 어휘 중 분절음이 동일하여 성조가

절대적 변별력을 발휘하는 어휘는 58%에 해당이며, 성조까지 포함하여도 구별되지 않는 1음절 낱말은 42%임을 보면, 한어의 1음절 수준에서는 성조의 음절 분화력이 크게 발휘되지만, 역시 음절수의 부족으로 同音率이 지나치게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 음절 내의 다른 의미는 한자를 매개로 시각적인 변별을 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청각적인 변별은 다음절화로 어느 정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普通话三千常用词表》에 등재된 다음절 어휘 중 분절음이 동일하여 성조에 의해서 변별되는 어휘는 5.76%이며, 성조까지 간여하여도 변별되지 않는 동음절 어휘는 0.84%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는 다음절 어휘에 이르면 성조의 변별 부하가 급격히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그렇다면 다음절 어휘수의 증가에 따른 성조의 변별 능력은 어떠한 비율로 증가 혹은 감소할까?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에 등재된 다음절 어휘수와 분절음 및 音節同音率과의 관계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급수	甲級	甲+乙級	甲+乙+丙級	甲+乙+丙+丁級
다음절 어휘수	564개	1,994개	3,741개	6,845개
동일 분절음 어휘수	17개	131개	403개	1,062개
다음절 分節音同音率	3.01%	6.56%	10.77%	15.51%
동일 음절 어휘수	3개	39개	74개	193개
다음절 音節同音率	0.53%	1.95%	1.97%	2.81%
2음절 어휘수	547개	1906개	3549개	6393개
2음절 分節音同音率	3.10%	6.87%	11.35%	16.61%
3음절 이상 同音率	0%	0%	0%	0%

이 표에서 보이듯 다음절 어휘가 증가됨에 따라 分節音同音率과 音節同音率도 누진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아울러 동일 분절음 속의 동일 음절, 즉 동일 분절음 중 성조까지도 동일한 음절의 낱말 비율은 어

휘수의 증감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17:3(17.6%), 131:39(29.7%), 403:74(18.3%), 1062:193(18.1%)와 같이 대체적으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어휘가 많아질수록 동일 분절음과 동일 음절이 증가하여 성조의 의미 분화 능력은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어는 여전히 음절수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줄곧 낱말을 다음절화 하였지만, 음절 구조의 고정성 때문에 여전히 성조가 일관되게 일정 정도의 변별 부하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적어도 普通話의 성조는 단음절 낱말에서는 음절 분화의 결정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음절수의 제한과 다음절화라는 추세 하에서는 줄곧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普通話에서 낱말의 다음절화로 성조의 의미변별 부하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성조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성조의 역할 축소 내지 그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최근 金立鑫, 白水振이 음향언어학적 방법으로 많은 上海語의 다음절 낱말의 성조(音節音調)는 이미 음조 악센트(pitch accent; 词调)로 변하였고, 또 어떤 단음절 형태소의 성조는 경성화의 과정을 거쳐 차츰 소실되고 있음을 증명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普通話 성조의 작용은 지금 변화과정에 놓여 있으며, 성조의 변별력은 단음절 어휘에서는 상당히 발휘되지만 다음절 어휘에서는 점차 약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漢語의 다음절화 추세와는 반대로, 개혁개방이 단행된 이래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람들 간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일음절 낱말이 상당수 등장하게 된 것은 문자를 통한 즉석 의사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시각적 통화의 수단으로 문자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구어체 한어의 변화 방향과는 별개의 특수한 문자 활용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金立鑫, 白水振, 〈双音节词声调配对与普通话声调发展趋势及外汉语音教学的一些对策〉, 《对外汉语教学论丛》(上海, 学林出版社, 2008年 6輯), 147-172쪽.

[참고문헌]

- 《新词新语词典》(北京: 语文出版社, 1993)
- 《现代汉语词典》(北京: 商务印书馆, 1996年 第3版 및 2005年 第5版)
- 《现代汉语规范字典》(北京: 语文出版社, 1998)
- 《新华字典》(北京: 商务印书馆, 1999)
- 后覺, 〈聲調究竟有沒有用處〉, 《國語月刊》(第一卷 第八期, 1922)
- 趙元任, 〈五聲的標準〉, 《國語月刊》(第一卷 第八期, 1922)
- 郑林曦 편, 《普通话三千常用词表》(语文出版社, 1987年 增订本)
-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 汉语水平考试部,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2)
- 郭锦桴, 《汉语声调语调阐要与探索》(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
- 刘照雄, 《普通话水平测试大纲》(吉林省: 吉林人民出版社, 1994)
- 林茂灿, 〈北京话声调分布的知觉研究〉, 《声学学报》(第二十卷 第六期, 1995)
- 王云路, 方一新 著, 《中古汉语研究》(北京: 商务印书馆, 2000)
- 苏新春, 〈关于《现代汉语词典》词汇计量研究的思考〉, 《世界汉语教学》(2001年 第4期)
-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 《语言教学与研究》(2001年 第6期)
- 邓万勇, 〈英语同音异形异义词的研究与应用〉, 《陕西工学院学报》(2001年 第2期)
- 贺国伟, 《汉语词语的产生与定型》(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03)
- 马显彬, 〈汉语同音现象分析〉, 《语言研究》(2005年 第2期, 总第95期)
- 邢红兵, 〈《汉语水平》词汇等级大纲》双音合成词语素统计分析〉, 《世界汉语教学》(2006年 第3期, 总第77期)
- 苏新春, 林进展, 〈普通话音节数及载字量的统计分析—基于《现代汉语词典》注音材料〉, 《中国语文》(2006年 第3期, 总第312期)
- 蔡长虹, 〈当代汉语词汇的单音节化现象考察〉, 《汉语学报》(2007年 第一期, 总第17期)
- 张丽霞, 〈论汉语构词的双音节化趋势—从“儿”尾与“子”尾的使用频率谈起〉, 《山东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年 第23卷 第3期)
- 金立鑫, 白水振, 〈双音节词声调配对与普通话声调发展趋势及外汉语音教学的一些对策〉, 《对外汉语教学论丛》(上海: 学林出版社, 2008年 6輯)

[论文摘要]

在汉语的音节单位中，韵腹是不可缺少的音段音位，声调是不可缺少的超音段音位。因此，我们认为韵腹和声调是分化汉语音节功能最大的因素。汉语的音节结构本身很固定，音节构成还有许多限制条件，因而音节数量实际上要比简单的数学组合少得多。从古代汉语到近代汉语，汉语语音朝着简化的方向发展，尤其北方话的浊音清化而引起的声母数量的减少和入声韵尾的消失使得音节的数量大幅减少，发展到现代，普通话的音段音位的组合只有400多个，包括声调的音节只不过1200多个。汉语是一个音节可以作为词或者词素的单音节语言，同一个音节有不少包括许多的意义，很多单音节单位离开上下文无法区分出意义，只有在多音节的组合中才能区分出意义。因此，分化同音字的根本出路是扩展音节，由单音节发展为多音节。汉语词汇的复音化从上古后期就开始，音节的数量逐渐减少，而词汇的数量却随着社会的发展而大量增加，势必产生大量的同音词，影响人们的交际。因此词汇只能单音节向多音节(包括双音节)发展。例如：《普通话三千常用词表》的3,996个常用词汇中，多音节词汇多达71.65%之多，单音节只有28.35%，单音节词汇中，音段音位同一，只能依靠声调分别词义的占58%，包括声调同一音节的占42%，可见在单音节词汇中声调的音节分化能力还很明显，但音节数量不足同音比率依旧过高。《普通话三千常用词表》的多音节词汇中，因音段音位同一，只能依靠声调区别词义的占5.76%，包括声调同一音节的占0.84%，可见在多音节词汇中，声调的区别意义的作用大幅下降。

为了研究多音节词汇数量和声调的分化能力之间的相关关系，本文分析了《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的各等级别多音节词汇数量与音段音位和音节同音率如下表：

级别	甲級	甲+乙級	甲+乙+丙級	甲+乙+丙+丁級
多音节词汇数	564个	1,994个	3,741个	6,845个

同一音段音位词汇数	17个	131个	403个	1,062个
多音节词汇音段音位同音率	3.01%	6.56%	10.77%	15.51%
同一音节词汇数	3个	39个	74个	193个
多音节词汇音节同音率	0.53%	1.95%	1.97%	2.81%
2音节词汇数	547个	1906个	3549个	6393个
2音节词汇音段音位同音率	3.10%	6.87%	11.35%	16.61%
3音节词汇音段音位同音率	0%	0%	0%	0%

如表所示, 随着多音节词汇的增加, 音段音位同音率和音节同音率按累进比率增高, 声调仍然持有一定程度的词汇分化能力, 但是与单音节的同音率比较, 多音节的同音率要少得多。甚至在许多已经词调化(金立鑫, 2008)的多音节词中, 某些单音节语素的声调通过轻声化的途径开始消失。因此可以说普通话的声调作用正在演变过程中, 声调在区别意义上还存在一定的功能, 但是这个作用在多音节词中越来越弱, 只有在单音节中才基本保留其辨义的功能。

關鍵詞: 漢語分節音, 漢語音節, 聲調的作用, 多音節词汇, 分節音同音率, 音節同音率

투고일: 2008. 6. 25.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中國文字의 收容과 《訓民正音》*

金世煥**

〈목 차〉

1. 序言
2. 中國文字의 讀音과 收容의 문제
3. 訓民正音의 創制
4. 結語

1. 序言

文學은 文字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는 문학이 의존하는 절대적인 도구이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中國文字를 도입하여 사용하다가 訓民正音을 창제하여 이를 함께 사용하여 왔다. 현재 우리는 매우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國語基本法〉은 공문서의 작성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¹⁾고 규정하여 우리의 공식적인 문자를 한글만으로 국한시킨

* 이 논문은 200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 대한중국어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5.31.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kimshwan@pusan.ac.kr)

1) 국어기본법(2005.1.27 제정, 법률 제73685호) 제14조.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자를 외국 문자와 동일시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한자 사용이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學界는 뚜렷한 기준이 없이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中文學界의 논문집은 二重 三重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가령, 하나의 지명에 대해 북경, 北京, 베이징, 페이킹 등 다양한 표기 방식을 쓰고 있다. 중문학계의 논문집 대부분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자사용의 형식 조건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앞서 漢字가 과연 우리의 문자인지 아니면 외국의 문자인지에 대해서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글학자들은 지속적으로 한글을 專用하고 漢字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²⁾

학계는 이를 방관만 할 것인가? 한 권의 中國語文學 관련 논문집에서조차 한자의 사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글 전용은 논문의 형식까지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序論'이나 '結論'이라는 대신에 '들어가며' 또는 '나오며'라고 하는 것은 논문의 형식을 배제하면서 쓰는 자유로운 잡문의 형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中國의 문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역사는 대략 2000년쯤 될 것으로 추정한다. 《三國史記》에 小獸林王(西紀371-383年 在位) 2년(372)에 중국에서 經文을 보내오고, 또한 같은 해에 太學을 세워 子弟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³⁾, 이것은 중국의 문자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琉璃明王(西紀元前19-西紀元後17年 在位)이 〈黃鳥歌〉⁴⁾를 지은 것은 이보다 400년 가까이 앞선 것이다. 우리가 한자를 사용한 역사는 이처럼 오래되었으며, 또한 그 역사

2) 허웅 지음, 《한글과 민족문화》(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204-217쪽.

3) “小獸林王 二年,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立太學, 教育子弟.”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서울: 을유문화사, 1997), 429쪽.

4) “(琉璃明王)見黃鳥飛集, 乃感而歌曰,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위의 책, 343쪽.

속에 쓰인 漢字의 기록은 헤아릴 수없는 방대한 규모의 문헌을 남겼다. 《韓國文集叢刊》의 범례를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本書는 韓國學 基礎資料의 擴張을 위하여 三國時代부터 舊韓末에 이르기까지 著作된 韓國人의 現存文集(四千餘種) 중에서 第一次로 六百六十餘種을 選定하고 이를 影印·標點하여 三百五十冊으로 發刊하는 『韓國文集叢刊編刊計劃』(一九八六)에 依하여 刊行한 것이다.⁵⁾

이미 발간된 350 책의 문집은 전체의 2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다. 또한 이것은 단지 문집 분야의 문헌에 불과할 뿐이다.

《朝鮮王朝實錄》은 472년에 걸친 25대 임금의 역사 기록으로, 총 1,893권 888책이 간행되었다. 이를 번역한 《國譯朝鮮王朝實錄》은 413책 16만 쪽에 이른다.⁶⁾ 현재 합천 해인사에서 보관중인 팔만대장경의 원문 글자 수도 5천만 자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 걸쳐 기록된 문자가 어찌 이 뿐이겠는가? 이 모두가 남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이며 이러한 역사 속에서 현재의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과연 한자는 외국문자인가? 우리의 이러한 역사를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학계의 학술연구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한자를 배제하는 중국학 논문은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漢字의 수용과정과 함께 訓民正音의 창제 배경 및 목적을 살펴 우리 문자의 범위를 규명하면서 문자사용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5) 《韓國文集叢刊350》(서울: 民族文化推進會, 2005), 凡例 2쪽.

6) 이성무 지음,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서울: 동방미디어, 1999), 6쪽과 269쪽.

2. 中國文字의 讀音과 수용의 문제

우리가 中國의 문자를 사용한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朝鮮朝까지도 이의 사용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국과 언어가 달라 중국의 문자를 그대로 우리의 口語로 옮겨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시 중국에서조차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讀音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마다 전혀 다른 독음을 사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통일된 발음체계를 마련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매우 혼란스러운 문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것은 중국 문자의 태생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이 문자는 文言 중심의 문자라 할 수 있으며, 口語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문자였다는 점을 먼저 유념해야 한다. 이 章에서는 우리가 수용한 중국문자가 태생적으로 어떠한 한계를 지닌 문자였던가를 살펴보고 이로써 訓民正音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中國의 문자를 形·音·義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때 字形과 字音 두 가지 요소는 매우 불안한 역사를 지나야 했다. 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로 흔히 秦始皇과 毛澤東이 거론된다. 秦始皇은 字形을 통일시켰고, 毛澤東은 字音의 절대음가 표기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표준어 사용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이다.

象形文字는 처음에 그 상형의 방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즉 사물의 모습이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의 모양은 각양각색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字形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문자로서의 기능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다양한 篆書가 쓰이던 시대에 秦始皇은 中國을 통일하면서 焚書坑儒를 하여 자형이 자연스럽게 秦나라의 小篆으로 통일되었고, 이로부터 중국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 자형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字音은 현대까지도 현실적인 표준화를 이루지 못했었다. 表音文字와는 달리 表意文字는 글자에 絶對音價를 나타낼 수 있는 音素單位가 없기 때문에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천차만별로 읽히는 불안정한 字音의 역사를 이어왔다. 가령 우리는 중국문자의 수용 시기에 있었던 入聲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예 없어졌다. 우리는 朝鮮時代에 이미 訓民正音에 의해 절대음가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중국은 훈민정음과 같은 표음 수단이 없어 讀音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독음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크게 달랐다. 가령 北京 사람과 廣東 사람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달랐는데 이것은 독음의 표준화 방안이 없었다는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준화 방안이 마련된 지금은 약 반세기 정도의 시간으로 전국이 普通話로 통일되어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중국문자는 ‘古今不同音, 南北不同聲’의 상황이었다.

발음과 관련된 단서는 唐나라 前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韻書에서 보이는 反切의 방법이 있었지만 이것은 音價의 표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즉 이것은 절대음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두 글자의 聲母와 韻母를 취하여 讀音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동적인 것이었다. 이는 表意文字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독음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현대에 와서 시작되었으니 문자의 역사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훈민정음과 비교하면 500년 넘게 늦은 것이다. 중국은 서양과의 접촉이 있기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清末부터 문자의 개혁에 대한 논의와 실천 방안이 급격하게 雨後竹筍처럼 생겨난 것은 사실 서양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新文字 運動

중국문자는 현대에 와서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폐기의 위기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중국문자의 表音化(注音)는 서양인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명나라 때 이탈리아 예수회의 전도사였던 마테오 릿치(Matteo Ricci, 1552-1610)가 최초로 라틴문자로 중국문자의 독음을 표기하였다고 전한다.⁷⁾ 그러나 이것은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중국의 문자 학자들에게 문자 개혁에 대한 하나의 동기부여 정도의 의미로 그쳤다. 중국의 쇄국정책으로 서양과의 접촉이 적어지면서 라틴문자의 독음표기는 계속되지 못한 것이다.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1842)한 후 서양의 문물이 급속도로 밀려 오면서 다시 선교사들에 의한 로마자 拼音化 작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테오 릿치의 독음 표기와는 다른 것이었다. 즉 특정 지역의 방언을 바로 로마자로 音譯하는 것으로, 이에 의한 聖經이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로마자로 중국의 문자를 대체하는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1891년에서 1904년 사이에 이러한 聖經이 13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⁸⁾ 이는 중국인에게는 수천 년 이어온 중국 문자의 위기로 여겨질 만한 일이었다. 이러한 교회의 로마자 운동은 中華民國이 수립되고 나서 결국은 소멸되었지만 병음문자의 제창과 문자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漢字를 대체하는 방안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먼저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소위 絶音字 운동이 일어났다. 盧懋章(1854-1928)은 1892년 55字的 변형된 라틴 자모로 〈切音新字〉라는 음표체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한자개혁 초기단계의 대표적인 방안이었다. 1900년에는 王照가 50개의 聲母와 12개의 韻母로 된 〈官話合聲字母〉를 만들어 발표했는데, 편리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용을 추구한

7) 黃德寬, 陳秉新 著, 《漢語文字學史》(安徽: 安徽教育出版社, 1990), 340쪽.

8) 위의 책, 341쪽.

것이였다. 이 외에도 약 30종 가까운 절음자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문자의 筆劃을 따서 만든 것이며, 둘째는 歐美地域의 속기 부호를 본 뜬 것이었고, 셋째는 라틴자모를 채택한 것이였다. 이러한 운동은 사실상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쳤지만 이러한 운동은 계속되었다.⁹⁾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자 폐지 운동이 일어났다. 錢玄同은 한자를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魯迅은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고까지 했다.¹⁰⁾ 傅斯年의 주장을 보면 이들의 한자 배척 운동이 얼마나 극렬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만하다.

중국문자의 기원은 극히 야만적이며, 그 모양 또한 극히 기이하고, 인식하기에도 극히 불편하며, 응용도 극히 비경제적이고, 정말 거칠고 조잡스러워 소귀신 뱀귀신 같은 문자여서 참으로 천하에서 가장 불편한 기구이다.(中國文字의起源是極野蠻, 形狀是極奇異, 認識是極不便, 應用是極不經濟, 真是又笨, 又粗, 牛鬼神蛇的文字, 真是天下第一不方便的器具."라 했다.¹¹⁾

중국문자에 대한 이러한 일종의 열등의식은 서양의 표음문자가 더 우수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문자를 폐기하고 병음문자(표음문자)를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로부터 漢字는 병음문자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국어의 로마자 운동이 일어났다. 1926년 '國語羅馬字拼音委員會'는 〈國語羅馬字拼音法式〉을 통과시켰으며, 1928년에는 大學院(教育部)에서 이를 〈國音字母第二式〉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공포했다. 이 방안은 清末 이래로 전개한 문자개혁 운동에서 비교적 가장 발전된 병음문자 방안이었으나 일반 대중으로부터는

9) 위의 책, 340-344쪽.

10) 위의 책, 351쪽.

11) 위의 책, 352쪽에서 재인용.

호응을 얻지 못했다.¹²⁾

이어서 1930년대부터는 소련의 華僑社會에서 나타난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병음문자 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 방안도 급속도로 퍼져 전국적 규모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國共內戰이 勃發하면서 이 방안도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하였다.¹³⁾ 병음문자로 중국문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상 이로써 모두 실패로 끝났다.

注音字母 방안

위에서는 병음문자 즉 주로는 로마자로 한어를 표기하는 방식의 시험 과정이었다. 이와는 달리 마테오 텃치가 시도했던 병음 방안(기존 문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방식)이 따로 마련되었고 지금까지 이 방안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부호로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방식인데 주음 부호와 한어병음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辛亥革命(1911)으로 切音字運動이 종식되면서 中華民國이 수립(1912)되고 나서 注音字母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절음자운동의 영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1912년 교육부는 北京에서 '中央臨時教育會議'를 열어 '注音字母 採擇案'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1913년에 '讀音統一會'를 개최하여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되는 의제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모든 글자의 法定音을 규정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모든 음소의 총 숫자를 확정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모든 음소를 표기하는 자모를 채택 결정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음소의 자모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新舊의 각종 切音 字母案에 대한 격론 끝에 章炳麟의 〈紐文〉과 〈韻文〉을 개조하여 만든 〈記音字母〉를 채택하였고, 이를 다시 토론과 수정을 거쳐 〈注音字

12) 위의 책, 347쪽.

13) 위의 책, 348-350쪽.

母〉 방안이 만들어졌다.¹⁴⁾

이는 다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인 1918년에 이르러 39개의 주음자모를 제정 공포하였다.¹⁵⁾ 그리고 1930년 정부는 다시 '注音字母'라는 명칭을 지금의 '注音符號'로 바꾸었다. 이것이 나라에서 제정한 최초의 表音方式이었다. 아울러 정부에서 문자에 표준화된 음가를 부여하는 최초의 작업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곧 중국의 문자에 나라에서 정한 절대 음가를 표시하여 이를 사용하는 모든 중국인이 통일된 독음으로 글을 읽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臺灣에서 사용되고 있는 注音符號이다.

이와 달리 선교사들에 의해 로마자의 표기 방식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영국의 주증공사였던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의 '웨이드식 표기법'(T. F. Wade`s System)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정부와 예일대학의 협조로 만들어진 '예일식 표기법'(Yale System)이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면서 '漢語拼音方案'의 제정으로 이어졌다.¹⁶⁾

中華人民共和國의 문자개혁운동

지금까지는 문자에 대한 주음방식을 고안하거나 병음문자로 전통문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고 나서는 黨과 정부차원에서의 더 적극적인 문자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 1949년 共產黨의 영도 하에 전국의 문자개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中國文字改革協會'를 조직하였고, 1951년에는 毛澤東이 두 차례에 걸쳐 郭沫若과 馬敘倫 등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문자개혁의 문제를 토론하고 아울러 "문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14) 위의 책, 344-345쪽.

15) 임동석, 《中韓對比語文論上》(서울; 한국문화사, 2003), 172-173쪽.

16) 위의 책, 182-185쪽.

세계 문자의 공통인 병음 방향으로 가야 한다.(文字必須改革, 要走世界文字共同的拼音方向)"는 견해를 발표했다.¹⁷⁾

이로부터 많은 준비를 거쳐 1954년에는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중국문자개혁위원회가 발족되고, 1956년에는 중앙표준어보급위원회가 성립되었다. 1958년 1월에는 周恩來 總理가 全國政協會議에서 〈당면한 문자개혁의 임무〉라는 보고를 통해 문자개혁의 3대 임무를 摘示했다. 즉 한자의 簡化와 표준어의 보급, 그리고 漢語拼音方案의 제정과 추진이라는 세 가지였는데 이는 곧 문자개혁의 기본방향을 확정한 것이었다. 같은 해 2월에는 제1차 全國人民代表大會 제5차 회의에서 〈漢語拼音方案에 관한 決議〉가 통과되어 〈漢語拼音方案〉을 확정하고, 이를 한자 학습과 표준어 보급의 보조적 도구로 삼도록 했다. 같은 해 가을 전국의 소학교 語文教科書에서는 새로 나온 글자에 대해 한어병음으로 독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¹⁸⁾ 이로써 수천 년에 걸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중국어를 구사했던 중국이 하나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周恩來는 이 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방안은 과거의 直音法이나 反切法 그리고 각종 병음방안의 기초위에서 발전한 것이다. 라틴자모를 채택한 것으로 말하면 그 역사의 연원은 멀리는 350여 년 전으로 소급할 수 있고 가까이로는 60년 이래 우리 인민이 창제한 한어병음방안의 경험을 總結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역사상 존재했던 또는 현재 아직 사용하고 있는 각종 라틴자모의 병음방안과 비교할 때 확실히 완벽하게 개선된 것이다. (這個方案是在過去的直音·反切以及各種拼音方案的基礎上發展出來的. 從採用拉丁字母來說, 它的歷史淵源遠則可以一直追溯到350多年以前, 近則可以說是總結了60年來我國人民創制漢語拼音方案的經驗. 這個方案, 比起歷史上存在過的以及目前還在沿用的各種拉丁字母的拼音方案, 確實更加完善.)¹⁹⁾

17) 《漢語文字學史》, 354쪽.

18) 위의 책, 353-356쪽.

19) 위의 책, 359쪽에서 재인용.

이것은 한어병음방안 창제의 역사를 한 마디로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로마자로 중국문자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종식되었고, 한어병음방안은 중국문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일종의 부호임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문자개혁의 또 하나의 성과로 거론되는 한자의 簡化는 1977년 공포했던 제2차 漢字簡化方案(草案)이 1986년 폐지되면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다.

한어병음방안이 비록 서양의 문자를 차용하여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문자의 독음을 표준화 하고 아울러 전국에 표준어를 보급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하다. 1982년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推廣全國通用的普通話)"는 문구를 새 헌법에 추가하였는데²⁰⁾ 이는 한어병음방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국인 모두(현대의 교육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고령자를 제외하고)가 의사소통에 거의 지장이 없는 표준음으로 통일된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어의 역사에서 秦始皇에 의한 자형의 통일과 함께 빛나는 업적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毛澤東의 소신과 추진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3. 訓民正音의 創制

1. 창제의 필요성

중국의 문자가 字形을 통일시킨 뒤로 다시 字音을 통일시켜 완벽한 문자의 기능을 하게 되기까지는 약 2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자를 가져다 쓰기 시작한지 약 1000

20) 위의 책, 355쪽.

년 만에 이를 완벽하게 사용하였다. 이것은 訓民正音의 덕택이었다. 훈민정음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문자가 없을 때 중국의 문자를 가져다 쓰면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심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가령 우리는 지금도 ‘다방(茶房)’에 가서 ‘차(茶)’를 마신다고 한다. 왜 같은 글자인데 ‘다’와 ‘차’라는 서로 다른 음으로 읽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를 다르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漢字音의 전래 시기 또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쓰인 것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쓰였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가 없다. 훈민정음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거의 모든 글자에서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 韻書의 反切法으로는 사실상 절대 音價를 알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말에 중국의 문자를 중국음으로 섞어 사용하는 불편은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독음이 천차만별이었으니 우리도 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의 한 단면이 〈訓民正音〉의 鄭麟趾 序文에 보인다.

우리의 예악과 문물은 중국을 따라 같지만 방언이나 일상어가 그와 같지 않으니,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의미를 깨우치기 어려웠고, 刑房은 그 곡절을 통하기가 어려운 병폐가 있었다. 옛날 新羅 薛聰이 처음으로 吏讀을 만들어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이는 글자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어서 혹은 어렵거나 혹은 막히어 통하지 않았으니, 조잡하여 뜻을 헤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말로 사용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전달할 수가 없는지라. (吾東方禮樂文物, 倣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聰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間, 則不能達其萬一焉.)²¹⁾

우리의 언어가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문자를 그대로 가져다

21) 《世宗莊憲大王實錄》 113卷, 28年 9月 29日.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 제공.

쓸 수가 없으니 그 불편이 이려했던 것이다. 新羅 때부터 사용된 吏讀은 우리말과 중국문자의 혼합된 형태여서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이것을 口語로 사용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한 것이다. 語順이 다르고 표준화된 字音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문자는 매우 제한적인 문자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문자를 口語로도 옮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방안은 없었지만 일정 시대의 일정 지역은 사실상 자신들의 일정한 독음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局地的으로는 문제가 없는 문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느 한 시대도 또는 어느 한 지역도 통일된 독음체계를 가져보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야말로 漢字 어휘는 만에 하나도 말로 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언어가 다르다면 중국의 문자를 우리의 문자로 토착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각 글자마다 표준화된 독음을 부여하면 자유롭게 이를 구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禮樂과 文物을 가져다 쓴 역사가 이미 천 수백 년인데 이와 관련된 어휘를 구어로 옮겨 사용할 수가 없으니 당시 구어의 운용 범위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면 독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訓民正音을 창제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 훈민정음의 창제

世宗大王께서는 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의 韻書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정확한 音價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음가를 표기할 방법을 찾고자 하신 것이다. 훈민정음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諺文 28字를 지었는데, 글자는 古篆을 모방하였다. 初聲·中聲·終聲으로 나뉘었으며 이를 합하여 글자가 되었다. 무릇 文字와 우리나라의 日常語를 모두 표기할 수 있으니, 글자는 비록

간단하지만 轉換의 쓰임이 무궁하였다. 이것을 訓民正音이라 하시었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²²⁾

《世宗莊憲大王實錄》 25년(1443년)의 기록으로 훈민정음 頒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正史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매우 간략한 기록이지만 훈민정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장점에 대해 더 할 수 없이 간결하게 요약하였다.

훈민정음의 기능은 곧 창제의 목적과도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집약하였다. 즉 하나는 ‘文字’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일상어(俚語)’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文字’는 당연히 중국문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훈민정음은 ‘諺文’으로 구별하여 지칭하였다. 여기에서 ‘諺文’은 卑下의 명칭이 아니다. 단지 통속적인 글 즉 입말의 글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아무리 史官의 史草를 임금이 볼 수 없다 해도 대왕께서 친히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비하의 뜻으로 지칭했을 리는 없는 것이다. 언문은 중국문자와 우리말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훈민정음으로 표준화된 독음을 표기하면 곧 문자는 정해진 독음으로 읽히게 될 것이다. 중앙에서 표준화 하면 지방의 어디에서도 같은 독음으로 읽힌다. 훈민정음은 당시의 문자에 대해 正音 표기 기능을 함으로써 1000년에 걸친 문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鄭麟趾의 序文에는 훈민정음의 이러한 우수성과 특징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癸亥年 겨울, 우리 전하께서는 正音 28字를 창제하시어 '例義'를 간략하게 보이시고 이름을 訓民正音이라 하시었다. 象形의 글자로 古篆을 모방하였고, 소리를 따라 만들었으니 7音과 조화를 이루고, 三極(天·

22) 《世宗莊憲大王實錄》 102卷, 25년 12월 30일 第2條.

地·人)의 뜻과 陰陽 二氣의 오묘함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28자로 轉換의 쓰임이 무궁하며 간결하되 要略하였고, 정교하면서 서로 통하니 智者는 하루아침이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배운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로 訟事를 들으면 그 情況을 알아 볼 수가 있다. 字韻으로는 능히 淸濁을 구분할 수 있고, 樂歌로는 律呂의 조화를 이루었으니, 사용하기에 모자람이 없고, 표현에 전달되지 않음이 없다. 바람소리나 학과 닭의 울음소리 또는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淸濁之能卞,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²³⁾

훈민정음은 소리 표기를 바탕으로 한 표음문자체계이다. 표의문자에 없는 音素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다. 이로 중국문자의 독음을 표기하고 아울러 그 뜻풀이까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즉 훈민정음 체계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 책의 이해도 빠르고, 용어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訟事에서도 口語에 의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 문자의 표준화된 독음도 없고 吏讀와 같이 우리의 말에 이러한 남의 문자를 차용하는 방식으로는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표기력은 무궁무진하여 온갖 새소리 심지어는 바람소리까지도 표기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

훈민정음은 單音節語인 한자의 발음을 우리말의 다음절어 체계로 변환시키지 않고 단음절로 변환시키도록 만들었다. 예로 중국어의 ‘來’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라이’가 되어 두 음절로 표기되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말 속에 중국어를 넣어 말하는 결과가 되어 우리의 말은 그 기능이 마비될 만큼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선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도대체 우리의 말 사이

23) 《世宗莊憲大王實錄》 113卷, 28년 9월 29일 第4條.

에 외국어를 끼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중국의 독음을 단음절로 표기하도록 하여 우리말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다. 한글의 初聲·中聲·終聲으로 된 음운구조는 중국어의 어떤 음운체계도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한글로 轉寫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면 ‘라이(來)’를 ‘래’로 표기하여 音韻을 간화시킨 것이다. 물론 중국어의 발음 표기도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중국어 교본인 《老乞大朴通事》에는 중국어의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한글의 표음기능이 매우 우수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뜻글자인 중국문자는 무궁무진한 조어력을 갖고 있다. 훈민정음은 또한 ‘轉換無窮’ 즉 무궁무진한 표기력을 갖고 있으니 이 두 글자가 함께 하면 천상천하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문자는 없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풍요한 문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취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吏讀나 鄉札 또는 口訣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오랜 세월을 걸친 至難한 노력 끝에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3. 訓民正音의 활용

훈민정음이 어떻게 쓰이는데 대해 맨 처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龍飛御天歌〉의 편찬이다. 훈민정음이 과연 자유롭게 중국문자와 병행하여 言文一致의 언어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실험이기도 했다. 世宗 27(1445)년 4월 5일 權踷·鄭麟趾·安止 등이 〈龍飛御天歌〉 10권을 올렸다.²⁴⁾

모두 125章으로 이루어진 장편의 敍事 詩歌였다. 내용은 先代의 王들과 그 선조들을 칭송하면서 朝鮮의 開國을 찬양한 것이다. 125장 중에는 순 훈민정음만으로 지은 것도 있고 한자와 병행한 것도 있다. 두 가지 모두 漢文詩를 병기하였다. 예를 들어본다.

24) 《世宗莊憲大王實錄》 108卷, 27年 4月 5日.

第一章

海東 六龍이 ·느르·샤: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ㅎ시니(海東의 여섯 龍이 날아 하시는 일마다 天福이 있으니 옛 성인과 일치하심이라)

海東六龍飛, 莫非天所扶, 古聖同符.²⁵⁾

天命의 도움으로 朝鮮의 王業을 일으켰음을 노래하였다. 당시의 口語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면서 중국문자를 혼용하였다. 이제는 우리의 문자로 토착화해가는 과정이었다. 혼란이 없는 言文一致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에서 중국 문자를 완벽한 우리의 문자로 사용한 첫 작품의 첫 구절이다.

第二章

불·휘 기·픈 남·근 브·래 아니:뿔·쌩 | 곱:도:코 여·름 ·하느니(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根深之木, 風亦不抗, 有灼其華, 有實其實.

:스 | ·미 기·픈 ·무·른 ·그·래 아니 그·출·쌩 | :내·히 이·러 바·래 ·가 ·느·니(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니 냇물이 되어 바다로 가나니.)

源遠之水, 旱亦不竭, 流斯爲川, 于海必達.

이 章은 漢文의 어휘가 아니고 당시의 순수 口語를 훈민정음만으로 표기한 것이다.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훈민정음으로 구어의 아름다움을 절묘하게 살려 놓았다. 중국 문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훈민정음만으로도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구어는 단지 소리로 전해져 온 말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혼란이 없을 수 없다. 때문에 <龍飛御天歌>는 매 章마다 漢詩를 붙여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나타난 <釋譜詳節>이나 <訓民正音> 국역본 등이 곧 훈민

25) 윤석민 외, 《쉽게 읽는 용비어천가1》(서울: 박이정, 2006), 65-68쪽. 필자 번역.

정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한 기록이었다. 즉 한문에 懸吐를 하여 문장의 이해를 도왔으며, 독음을 표기하고 아울러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하였다.

4. 韻書의 간행

훈민정음으로 독음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중국문자에 우리의 표준화할 독음을 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東國正韻》을 간행하였다. 《世宗實錄》 29년(1447) 9월 29일에 《東國正韻》이 완성되어 이를 간행하라는 命하시었다는 기록이 있다.²⁶⁾

《東國正韻》은 東國(우리나라)의 正韻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洪武正韻》에 대칭되는 이름으로 보인다. 《洪武正韻》이 明의 太祖가 친히 冊名을 내렸듯이 《東國正韻》 또한 世宗大王께서 친히 命名하신 것이다. 正韻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訓民正音에서의 正音과 마찬가지로 바른音を 말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중국의 음운과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음운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중국의 음운(발음)을 차용하였지만 이것을 우리의 언어에 알맞도록 재정비하여 《東國正韻》이라 한 것이다.

즉 당시 元나라 때 발간된 《古今韻會舉要》가 36개의 聲母에 107개의 韻이었고, 《洪武正韻》이 31개의 聲母에 76개의 韻이었는데, 《東國正韻》은 聲母를 訓民正音에서의 23개로 하고, 韻母를 91개의 韻으로 고쳐 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였다.²⁷⁾ 이것은 중국음을 벗어나 우리의 독자적인 음을 정하여 우리문자로서의 토착화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획이 訛傳되어 '魚'字와 '魯'字가 서로 바뀌고, 聲音이 어지러워 淸濁의 구별이 없으니, 옆으로는 四聲에 따른 韻母를 가릴 수가 없고 縱으로는 聲母를 배열할 수가 없다. 때문에 韻母와 聲母가 결합되지 않

26) 《世宗莊憲大王實錄》 117卷, 29년 9월 29일.

27) 《東國正韻》(서울; 建國大學校出版部, 1973), 575-597쪽.

고 脣輕音과 脣重音의 순서가 바뀌어 聲韻의 변화가 극에 이르렀다.……옛사람이 정해놓은 운모와 성모를 따라서 합칠 것은 합치고 나눌 것은 나누되 聲韻을 합하고 나누는 것은 모두 聖上의 재가를 받았으니 이 또한 각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에 四聲으로 맞추어 91韻과 23聲母를 정하여 御製訓民正音으로 그 음을 정하였다.(字畫訛而魚魯混眞, 聲音亂而涇渭同流, 橫失四聲之經, 縱亂七音之緯, 經緯不交, 輕重易序而聲韻之變極矣.……因古人編韻定母, 可併者併之, 可分者分之, 一併一分一聲一韻, 皆稟宸斷, 而亦各有考據.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²⁸⁾

이어서 간행한 것은 《洪武正韻譯訓》이다. 《洪武正韻》은 明의 太祖(在位; 1368-1398)의 勅命을 받은 樂韶鳳, 宋濂 등이 편찬한 韻書였다. 이는 元代(1260-1368)의 《中原音韻》(1324)이 北方音에 치우쳐 있어 이에 南方音을 고려하여 통일된 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다. 世宗大王께서는 申叔舟와 成三問 등에게 명을 내려 《洪武正韻》에 훈민정음으로 중국어의 譯音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中國語에서의 中國音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중국어의 발음 준거를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韻學에 유의하시고 깊이 연구하시어 訓民正音의 글자들을 창제하시었으니, 사방 만물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우리나라 선비들은 비로소 四聲七音을 알게 되었고 이로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는 단지 字韻을 나타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을 섬겨왔으나 語音이 통하지 않아 언제나 通譯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먼저 《洪武正韻》을 번역하라 명하시었다.……그러나 語音이 이미 다르고 訛傳이 심하여, 臣들에게 명하시어 중국의 선생이나 학자들에게 찾아가 바로 잡으라 하시었으니 중국을 왕래한 것이 일곱 여덟 번이었고, 質正을 해준 사람이 상당수였다. 北京은 萬國이 모이는 곳으로, 가고 오는 먼 길에 交際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 것 또한 적지 않았다. 변방과 異域의 使臣이나 佛者나 道家 또는 군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접촉하여 正音과

28) 위의 책, 〈東國正韻序〉, 3-5쪽.

俗音의 變異를 다하고자 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한 중국의 使者가 왔을 때 儒學者라면 곧 찾아가서 바로 잡았다. 이렇게 십여 차례의 원고를 쓰고 부지런히 반복하기를 8년을 하였으니 거의 바로 잡아 결함이 없어졌음에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我世宗莊憲大王留意韻學, 窮研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吾東方之士, 始知四聲七音, 自無所不具, 非特字韻而已也. 於是, 以吾東國世事中華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然語音既異, 傳訛亦深,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於七八, 所與質之者若干人. 燕都爲萬國會同之地, 而其往返道途之遠, 所嘗與周旋講明者, 又爲不少. 以至殊方異域之使, 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俗異同之變. 且天子之使至國而儒者則又就正焉. 凡謄十餘藁, 辛勤反復, 竟八載之久, 而向之正罔缺者, 似益無疑.)²⁹⁾

《洪武正韻譯訓》은 《洪武正韻》의 中國音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문자를 함께 쓰지만 語音이 달라 口語로는 통하지가 않으니 譯官의 통역에 의존해야 했다. 이제 훈민정음이 완성되었고, 훈민정음은 만물의 소리를 표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표음문자였다. 따라서 중국의 語音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해 놓으면 口語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훈민정음의 표기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국의 정확한 발음을 알아내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音韻의 質正을 목적으로 북경을 왕래한 것이 7,8차에 이르고 또한 오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사귀며 물었고, 심지어는 불교나 도교인 또는 군인을 가리지 않고 물어 音價의 正俗音을 살피 이를 십여 차례나 고쳐 쓰기를 8년이나 한 것이다. 그런 후 중국의 어음 표기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책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훈민정음의 창제는 곧 한자를 우리의 말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문자로 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발음을 모르는 사람은 곧 《東國正韻》이나 《洪武正韻譯訓》으로 표준화된 발음을 찾아 알 수 있고 이로써 한자의 口語化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29) 《洪武正韻譯訓》(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349쪽.

이제 훈민정음은 중국문자를 우리의 문자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음을 쉽게 표기하여 중국어를 학습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기도 한 것이다.

4. 結語

中國의 文字를 形, 音, 義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音'은 중국 문자의 가장 큰 결함이었다. 즉 音素文字가 아니어서 글자에는 絶對音價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수천 년 동안이나 중국의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무수한 방언을 초래하여 같은 중국인끼리도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全 중국이 표준화된 독음으로 하나의 통일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현대에 와서이며 이제 겨우 반세기도 되지 않는다. 로마자를 차용하여 중국문자에 독음을 표시하는 漢語拼音方案을 발명하고서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문자는 본래 불완전한 문자였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국의 문자를 가져다 사용했지만 이렇듯 絶對音價를 알 수 없는 문자였기 때문에 이를 口語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世宗大王께서는 訓民正音を 창제하여 이제까지의 絶對難題를 해결하였다. 龍飛御天歌는 훈민정음으로 우리 口語와 중국문자를 성공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첫 작품이었다. 훈민정음 諺解本은 이제까지 중국문자로만 사용해온 漢文에 懸吐를 하고 그 독음을 표기하였으며 아울러 그 의미를 훈민정음으로 풀어썼다. 중국문자를 우리의 문자로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첫째, 중국문자로 표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우리의 국어를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혼란스러운 吏讀의 사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100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중국문자를 우리의 문자로 토착화

할 수가 있었다. 훈민정음 창제 때까지는 사실상 우리의 문자라고 할 수가 없었다. 양반들 사이에서 文言으로 겨우 사용되는 문자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는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할 뿐이었다. 여기에 우리 국어에 알맞은 독음을 정하여 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함으로써 言文一致를 이루고, 중국어와는 다른 우리의 문자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셋째, 《洪武正韻譯訓》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문자로 외국어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漢字를 중국문자와 우리의 문자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漢字의 宗主國인 중국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 중국은 현대에 와서 로마자를 빌어 拼音의 方案을 겨우 만들었지만 이는 단지 부호일 뿐으로 문자가 아니다. 로마자를 이용한 신문자 운동은 可讀性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注音符號나 한어병음방안을 만들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쳤다. 훈민정음은 그 자체가 문자이다. 다만 漢字와 병행하면 문자의 기능이 중국문자나 또는 일반 표음문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상을 다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문자는 漢字와 훈민정음이 결합된 형태이다. 우리의 문자에서 한자를 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문자의 내용을 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극히 일상적인 어휘를 제외하면 우리말의 어휘 대부분은 한자어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어휘에서 훈민정음은 단지 注音의 기능만을 한다. 때문에 한글만으로 표기하면 어휘의 뜻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학술 논문에서 한글의 편중 사용은 논문의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된다. 한자는 무한한 조어력이 있으며 훈민정음은 또한 무한한 표기력이 있어 이 두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世宗莊憲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 제공
《東國正韻》(서울; 建國大學校出版部, 1973)
《洪武正韻譯訓》(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韓國文集叢刊350》(서울; 民族文化推進黨, 2005)
허용, 《한글과 민족문화》(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黃德寬, 陳秉新 著, 《漢語文字學史》(安徽; 安徽教育出版社, 1990)
임동석, 《中韓對比語文論上下》(서울; 한국문화사, 2003)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서울; 동방미디어, 1999)
윤석민·유승섭·권면주, 《쉽게 읽는 용비어천가1》(서울; 박이정, 2006)
姜信沆, 《훈민정음연구》(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김무림, 《홍무정운역훈》(서울; 신구문화사, 2006)
金世煥, 《끝나지 않는 식민지 학문 100년》(서울; 박이정, 2004)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서울; 을유문화사, 1997)
고영근·남기심 공편, 《중세어 자료 강해》(서울; 집문당, 2004)

[中文摘要]

文学是以文字表现出来的, 文字就是文学的最重要工具。不过在韩国无论是一般人, 或是学术界, 对文字并没有明确的概念。韩国本来用汉字, 后来创制韩文, 加以混用, 由此韩国的文字就是汉字与韩文两种文字结合而成, 一直用到现在了。不过混用两种文字, 往往造成混乱, 有些人主张废除汉字, 专用韩文, 很像是过去中国的鲁迅所说“汉字不灭, 中国必亡。”的主张。尤其韩文学者的这种主张是很激烈的。汉字是韩国的国文, 还是外文, 国家及学术界都没有明确的答复。研究文学的学术界竟然对自己的文字也没有统一的标准, 可以说是搞文学最基本的条件也没有具备。

在此主要探讨有关汉字的这种问题, 想找一个标准, 来建立国文的范围。汉字不能说是外文, 韩国用汉字的历史已经超过两千年, 过去韩国的文

献，绝大部分都是使用汉字记载的。到了现在计较汉字的产地，排斥汉字，并否定用汉字的历史，这不能说是合理的态度。

世宗大王创制训民正音，并不是要代替汉字的，而是要补充汉字的缺点。汉字原来并不是很完善的文字。‘字形’到了秦始皇才开始用统一的形式。‘字音’呢，到了现代造出汉语拼音方案以后才有了全国性的标准音，这才有了半世纪左右的历史，又是借用罗马字母的。训民正音就是汉语拼音方案一样，给每个汉字注音，更进一步用韩国话解释字义，这是因为训民正音不只是表音符号，而是一个完整的表音文字，用来把汉字及汉文的意义都可以翻成韩文。

训民正音如此解决了当时文字的两大问题；其一确立汉字的注音方法，以确定汉字的标准音，其二可以记录当时的口语，一般平民也很容易掌握文字，可享有文字生活。

训民正音既是伟大，正如郑麟趾说；“因声而音叶七调，三极之义，二气之妙，莫不该括，以二十八字而转换无穷，简而要，精而通。……虽风声鹤唳鸡鸣狗吠，皆可得而书矣。”，不过训民正音还是表音文字，只能表音，不表义。因此与汉字结合，才能尽其功用，这就是世宗大王创制训民正音的目的了。

现在我们用汉字是极为自然的，单独用韩文是不合世宗大王的意图，是很明确的。再说我们用的汉字就是我们的文字。

关键词：中国文字，拼音方案，训民正音，龍飛御天歌，东国正韵。

투고일: 2008. 6. 30.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戰國齊璽判別叢論*

文炳淳**

〈목 차〉

1. 緒論
2. 戰國시대 齊璽의 判別 기준
 - (1) 出土地域으로 判別
 - (2) 字形으로 判別
 - (3) 地名으로 判別
 - (4) 文例로 判別
 - (5) 印面 특징으로 判別
3. 結論

1. 緒論

璽印은 문자를 근거로 하는 인류의 實用品이다. 戰國璽印에서 사용하였던 문자는 당연히 전국시대 各國에서 사용하였던 문자이다. 따라서 璽印文字 역시 당시의 各國 문화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明清時代 印譜 및 박물관, 개인소장 璽印과 최근 새로이 출토된 遺物중 戰國時代 齊나라에서 사용되었던 璽印을 선별하는 기준을 정립하는데 있다.

* 이 연구결과물은 2007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sinicakr@kyungnam.ac.kr)

齊나라는 戰國時代 秦나라, 楚나라와 더불어 三強을 형성했던 국가이다. 영토는 오늘날 山東省 沂蒙山 以北에서 河北省의 東南部, 그리고 河南省東部와 江蘇省北部 지역에 미치는 광활한 대지를 보유한 東方의 최대 국가였다. 특히 齊나라는 戰國七雄중 상업과 경제가 가장 발달된 국가이며, 儒家文化의 發祥地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璽印文字는 당시의 역사, 문화를 고찰함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戰國시대 齊璽의 판별 기준¹⁾

(1) 출토지역으로 판별

현재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璽印의 拓本은 대부분 明清시대의 印譜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며, 또한 印譜에 실려 있는 拓本の 출처 역시 불분명한 것이 대다수이다. 게다가 印譜에는 상당수의 위조품이 섞여있기에 더욱더 접근하기에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과학적인 근거 하에 발굴된 璽印은 그 신뢰도가 매우 높고, 또한 墓主의 신분을 판별하는 주요 증거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식으로 발굴된 地域으로 璽印을 판별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戰國시대 齊나라 지역에서 출토된 璽印 자료를 《山東新出土古璽印》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1) 학계의 戰國璽印 관련 논문은 주로 문자 考釋에 치중되어 있다. 현재 전국시대 璽印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저서로는 葉其峰의 《古璽印通論》과 曹錦炎의 《古璽通論》이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저서는 중국 고대 璽印을 전반적으로 서술한 통론성의 저작으로 戰國시대 각국의 璽印 특징을 一目瞭然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肖毅의 《古璽文字研究》가 있지만, 미 출간 자료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印 文	출 토 지 역
□侍	1957년 山東省 棗莊市 嶧城
左桁正木	1964년 山東省 五蓮縣 王世疇鄉의 盤古城
王慶忌	1970년 山東省 曲阜 九龍山
市正	1970년대 山東省 嘉祥縣 卜集鄉
左稟桁木	1973년 山東省 青州市 潭坊鎮 李家莊彌河
又簠	1974년 山東省 嘉祥縣 卜集鄉
莘大夫之璽	1984년 山東省 蒼山縣 卞莊鎮
絲□□□	1985년 山東省 臨淄區 T708 M009
孫邊信璽	1992년 淄博水泥廠 M1
□□信璽	1992년 淄博水泥廠
音子	1992년 淄博水泥廠 M1

(2) 字形으로 판별

齊나라 문자는 매우 독특하며 강한 지역색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다른 지역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 璽印의 지역판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陳」

齊나라의 「陳」은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성씨로 사용되는 「陳」은 「从土, 陳聲」의 구조로 되어있어, 다른 지역 문자와 구별되고 있다.²⁾ 다만 楚나라에서도 「土」편방이 추가된 구형이 보이고 있지만, 이 경우 「土」편방이 「東」字 하부에 추가되어 「重」聲旁으로 변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包簡》 138  《包簡》 181  《璽彙》 0281

따라서 戰國 璽印 중 「陳」字形으로 齊璽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璽彙》
0289, 1464, 1472, 1469, 1460, 1462, 1463, 1465
1466, 1468, 1470, 1473, 1475, 1478, 1479, 1481

2. 「王」

齊나라의 「王」은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璽彙》 0575  《璽彙》 0577  《陶彙》 3.624



「王」字에서 중간 「丨」획이 상부 「一」획을 뚫고 나와 있으며, 하부에 장식성 부호 「•」를 첨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자 특징은 齊나라 璽印문자에 자주 보이는 특징으로 이를 근거로 판별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063, 0570, 0571, 0578, 0579, 0580, 0581, 0582, 0583,
0584, 0585

2) 曹錦炎, 《古璽通論》(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6), 80쪽.

3. 「市」

齊나라의 「市」는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璽彙》 0152  《璽彙》 0355  《陶彙》 3.649

戰國문자중 각 지역의 「市」자는 모두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³⁾ 다른 지역의 문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秦:  《璽彙》 5708  《陶彙》 7.6
楚:  〈鄂君啓車節〉  《包山》 191
晋:  《璽彙》 2970  《璽彙》 2868
燕:  《璽彙》 0870  《璽彙》 5570

齊나라 역시 자신만의 특이한 構形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1142, 3626 《戰國璽印》 642, 959, 677, 681, 785

4. 「馬」

齊나라의 「馬」는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璽彙》 0152  《璽彙》 0026  《璽彙》 0028

3) 裘錫圭, 〈戰國文字中的「市」〉, 《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2), 454쪽.

曹錦炎은 齊나라의 「馬」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다른 지역의 문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秦:  《秦漢南北朝官印徵存》 0027  《雲夢·效律》 55
 楚:  《包山》 103  《郭店·窮達》 8
 晉:  《侯馬盟書》  《璽彙》 3828
 燕:  《庚都司馬鐸》  《璽彙》 0052

「馬」字의 머리 부분이 「乚」자 형태로 된 자형은 오직 齊나라 璽印에 서만 보이는 현상으로 이를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023, 0024, 0025, 0027, 0029, 0030, 0031, 0035, 0036, 0037,
 0038, 0039, 0040, 0041, 0043

5. 「師」



齊나라의 「師」는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陳純釜》  《璽彙》 0148  《璽彙》 0154

중간의 「丨」이 상부 「一」획을 뚫고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일반적으로 하부에 장식성 부호 「•」를 첨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문자

4) 曹錦炎, 《古璽通論》(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6), 79쪽.

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秦:  《雲夢秦律》 111	 《璽彙》 5487
楚:  《包山》 5	 《郭店·成之》 25
晉:  《璽彙》 3206	 《璽彙》 3204
燕:  《璽彙》 0158	 《璽彙》 3410

이러한 字形的 특징은 오직 齊나라 문자에서만 보이는 현상으로 이를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019, 0147, 0148, 0149, 0150, 0152, 0153, 0154, 0155, 0156, 0157

6. 「安」

齊나라의 「安」(「女」偏旁포함)은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陳純釜》	 《璽彙》 0289	 《陶彙》 3.551
---	---	--

《說文》에서 「安」은 「从女在宀下」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齊나라 「安」은 다른 지역과 달리 「从厂」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또한 「女」아래 「ㄣ」形 부호 혹은 「|」부호가 첨부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형은 燕나라 문자에 보이고 있는 「女」偏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璽彙》 0012	 《璽彙》 3900	 《璽彙》 5350
---	---	---

따라서 오직 齊나라 문자에서만 보이는 현상으로 이를 근거로 판별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235, 0236, 0237, 1944, 2200, 3922

7. 「都」

齊나라의 「都」(「者」偏旁포함)는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者」를 𠄎 형태로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다.⁵⁾ 戰國문자중 다른 지역의 「都」(「者」偏旁 포함)역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문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齊나라의 「都」字는, 「邑」편방이 자형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5) 「者」字의 考釋 및 분석에 대해서는 일찍이 朱德熙, 〈戰國匭文和璽印文字中的「者」字〉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朱德熙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5), 109-112쪽.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같은 자형 특징을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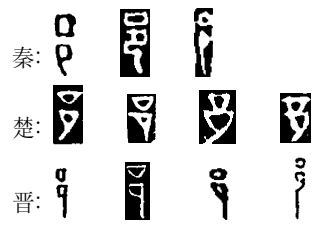
《璽彙》 0198, 0272

8. 「邑」

齊나라의 「邑」은 편방으로 사용될 때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A유형의 「邑」은 상하의 원형이 연결되어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B 유형은 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첫째, 모두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마지막 획이 힘차고 길게 밑으로 쪽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C유형은 앞에서도 언급된바 있지만, 밀폐된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문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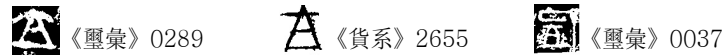


물론 단순히 「邑」편방의 모양을 근거로 璽印의 지역적 특징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나, 다른 조건과 더불어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邑」편방의 특징을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198, 1590, 1942, 1946, 1950, 2204, 2056, 2206

9. 「立」

齊나라의 「立」(偏旁포함)은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사람의 양다리 사이」에 획을 추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편방으로 사용될 때 도 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의 보편적인 「立」字形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형 특징을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039, 3931, 3932, 3933

10. 「耳」

齊나라의 「耳」(偏旁포함)은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자형은 다른 지역의 字形 「, , 」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왼쪽의 「」형 필획을 제나라 문자에서는 마지막 획을 생략한 직선을 사용하고, 오른쪽 필획에 장식성 획을 추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자형 특징을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028, 0029, 0030, 0031, 0032, 0033, 0312, 0193, 2797

11. 「信」

齊나라의 「信」은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璽彙》 1562



《璽彙》 0244



《璽彙》 1149

「信」자는 기타 지역에서 「从言, 从人」의 構形으로 쓰이고 있으나, 齊나라에서는 「从言, 从人」보다 「从口, 从人」의 構形이 더 보편적이다.⁶⁾ 또한 「人」에 장식성 부호 「·」 혹은 「-」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부호를 사용할 경우 「口」의 상부 「-」획과 연결된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형 특징을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232, 0233, 0234, 0235, 0236, 0237, 0238, 0240, 0241, 0242, 0244, 0245, 0246, 0247, 0248, 0249, 1147, 1149, 1589

12. 「廩」

齊나라의 「廩」(「稟」偏旁포함)은 아래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갖고 있다.

6) 葉其峰, 《古璽印痛論》(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 52쪽.

- A.  《璽彙》 0319  《陶彙》 3.829  《陶彙》 3.967
- B.  《璽彙》 0327  《陳純釜》  《璽彙》 1597

齊나라의 「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보이고 있다. A유형은 「从畺, 从禾」로 타 지역 문자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構形을 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畺」하부에 「人」편방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B유형은 「从畺, 从米」로 타 지역 문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構形이다. 특히 「畺」의 형태가 많이 訛變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형 특징을 근거로 판별 할 수 있는 齊璽는 다음과 같다.

《璽彙》 0319, 0313, 0327, 0300, 1597, 5526

(3) 地名으로 판별

璽印에는 대량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명은 璽印의 지역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나긴 중국의 역사 속에 古今地名이 간혹 차이가 있고, 특히 春秋戰國時代 각 국의 영토는 잦은 전쟁으로 變化無常하였다. 게다가 同名異地, 異名同地의 현상이 자주 보이기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璽印중 齊나라 지역으로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명은 그다지 많지 못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齊立邦璽」(《東周與秦代文明》, 253쪽)

璽文 중 「齊」는 戰國 시대 齊나라를 지칭함은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立邦」은 「立國」의 의미로 齊나라 건립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平阿左廩」(《璽彙》 0313)

璽文 중 「平阿」는 《讀史方輿紀要》에서 戰國 시대 齊나라 지역으로 기재하고 있다.⁷⁾

3. 「陽都邑聚徙嬴之璽」(《東周與秦代文明》, 253쪽)

璽文 중 「陽都」는 春秋 시대 陽國이 자리 잡았던 곳으로, 후에 齊나라가 점령하였다.⁸⁾

4. 「平陽司馬璽」(《璽彙》 0062)

璽文 중 「平陽」은 戰國시대 齊나라에서 두 군데 보이고 있다. 한 곳은 지금의 山東 鄒縣이며, 다른 한 곳은 지금의 山東 新泰縣 西北쪽에 위치하고 있다.⁹⁾ 璽文의 「平陽」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齊나라 지역임은 확인 할 수 있다.

5. 「蓋丘吏璽」(《璽彙》 0277)

璽文 중 「蓋丘」는 西漢 「蓋縣」과 동일 지역으로 추측된다. 《水經·沂水注》에 의하면 지금의 山東 沂水縣 西北쪽에 위치하고 있다.¹⁰⁾

6. 「平陵縣左廩璽」《簠齋》 1.15.3

璽文 중 「平陵」은 《說苑·貴德》: "齊桓公之平陵, 見家人有年老而自養者." (제나라 환공이 平陵에 가서, 연로한 노인과 결혼하지 못한 아들이 함께 사는 것을 보았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平陵」은 璽文 중 「平陵」과 동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7) 顧祖禹, 《讀史方輿紀要·江南·鳳陽府·懷遠縣》: "平阿城, 縣三十里, 戰國時齊邑. 魏惠王三十五年與齊宣王會于平阿南."

8) 曹錦炎, 《古璽通論》(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6), 117쪽.

9) 曹錦炎, 《古璽通論》(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6), 120쪽.

10) 《水經·沂水注》: "洙水出泰山蓋縣臨樂山."

7. 「陽工師璽」(《璽彙》0147)

璽文 중 「陽」은 《說文》에서 「唐」의 古文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의 山東 魚臺縣 東北으로 戰國시대 齊나라 지역으로 판단된다.¹¹⁾

(4) 文例로 判別

여기에서 文例란 璽印에 쓰인 내용의 규칙성 혹은 독특성을 말한다. 戰國시대 각 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배경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역시 자신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별 특색이 璽印에 새겨 넣은 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戰國시대 璽印은 일반적으로 璽文에 「尔」, 「銖」, 「杼」로 自稱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燕나라 官璽印에서는 「節」, 「鏹」, 「伏」, 「伏鏹」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璽文의 文例를 분석, 대조함으로써 국가별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1. 「聞」

齊나라 官璽에 「聞」字가 자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聞」은 「門」의 가차자로 「關門」을 의미한다.¹²⁾ 戰國시대 각 국은 「門」과 「關」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백성들의 출입을 감시, 통제하였으며 課稅를 하였다. 따라서 政府機構로 사용되는 「門」을 「聞」으로 기재하고 있는 璽印은 모두 齊璽로 判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璽彙》0028, 0029, 0030, 0031, 0032, 0033

2. 「璽」

齊나라 官璽에서 璽文에 「璽」로 自稱하는 경우가 있다.

11) 曹錦炎, 《古璽通論》(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6), 125쪽.

12) 曹錦炎, 《古璽通論》(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6), 81쪽.



《古代璽印》 42쪽¹³⁾

「璽」는齊나라 官璽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일반 璽印에서 「璽」字와 같은 위치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裘錫圭는 「璽」는 「節」의 의미로 사용되는齊나라 특유의 자형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⁴⁾

3. 「信璽」

戰國 璽印에서 「~信璽」는 「姓名+信璽」의 격식으로 楚, 齊私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官璽는 楚, 齊에서 「之璽」, 「~璽」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타 지역은 官名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적 특색이 있는 용어, 예를 들어 「節」, 「錙」, 「伏」, 「伏錙」, 「璽」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齊나라 官璽에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官名+信璽」의 격식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璽彙》 5557



《璽彙》 0232

(5) 印面 특징으로 판별

1. 外觀특징

13) 曹錦炎, 《古代璽印》(北京: 文物出版社, 2002), 42쪽

14) 裘錫圭, 〈戰國文字中的「市」〉, 《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2), 466쪽, 注10.

齊나라 官璽 중 印面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가 보이고 있다. 즉 印面의 상부 중앙이 돌출된 경우, 혹은 印面의 상하 양쪽 중앙이 돌출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외관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齊나라 官璽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東周與秦代文明》253쪽



《璽彙》0198

2. 邊欄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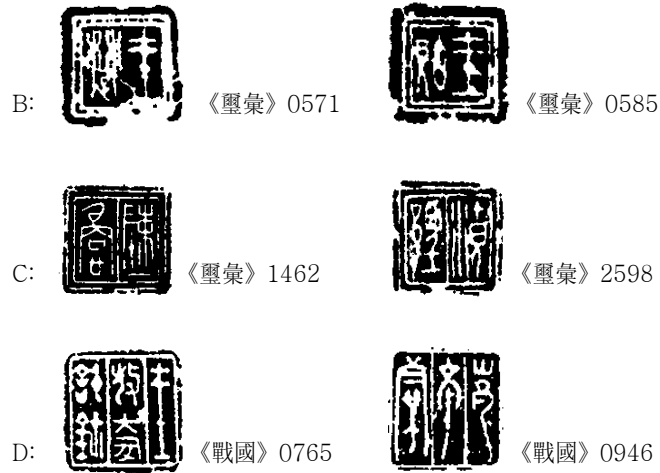
邊欄은 일반적으로 印面 외곽의 邊界와 印文속의 界線을 지칭한다. 邊欄은 璽文과 연계된 예술적인 부분으로 璽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 線의 굵고 가늘 및 構圖는 시대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戰國 시대 각 지역별 특징을 판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田」形 邊欄은 秦, 楚 官璽에 자주 보이고 있어 璽印의 지역판별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齊나라 璽印에 자주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다.



A: 《璽彙》0578



《璽彙》0584



위의 예는 모두齊나라 私璽이다. 그중 A유형은 타 지역 官璽에서 볼 수 있는 邊欄인데齊나라에서는 특이하게 私璽에 사용되고 있다. B유형은 외곽에 이중으로 된 邊을 사용하고 있으며, C유형은 A와 B의 혼합된 邊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邊欄은齊와楚 두 지역에만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D유형은 印面을 삼등분한 형태로 오직齊나라에서만 보이고 있다. 이러한齊나라 璽印의 邊欄 특징은 직·간접적으로 璽印 판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3. 結論

우리가 새로운 고대유물을 접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문자의 정확한 解讀이다. 정확한 解讀의 기초 하에 시대의 구분과 지역의 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학계에서 甲骨, 靑銅器의 시대, 국가 감

별 능력은 이미 관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상대적으로 璽印의 감별 능력은 아직도 미비한 단계에 처해있다. 그 원인으로 璽印은 갑골, 청동기 연구에 비해 소외되었던 연구대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학계의 중시를 받고 있다. 또한 璽印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고, 게다가 좁은 공간에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자를 생략하고,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璽印의 시대구분과 지역분류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戰國시대 齊璽印의 특징을 종합 정리하여, 기존 璽印중 齊璽印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판별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기준에 부합된다고 쉽게 齊나라 璽印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기준에 부합되어야지만 齊나라 璽印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별 기준은 향후 새롭게 발견 및 발굴되는 璽印의 판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판별기준은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羅福頤, 《古璽彙編》(北京: 文物出版社, 1981)
 羅福頤, 《古璽文編》(北京: 文物出版社, 1981)
 葉其峰, 《古璽印通論》(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
 葉其峰, 《古璽印與古璽印鑑定》(北京: 文物出版社, 1997)
 何琳儀, 《戰國古文字典》(北京: 中華書局, 1998)
 曹錦炎, 《古璽通論》(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6)
 曹錦炎, 《古代璽印》(北京: 文物出版社, 2002)
 賴非, 《山東新出土古璽印》(濟南: 齊魯書社1998.2)
 湯餘惠, 《戰國文字編》(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1)
 王本興, 《中國歷代印章邊欄演變簡史》(瀋陽: 遼寧美術出版社, 2002)

- 裘錫圭, 〈戰國文字中的「市」〉, 《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2)
朱德熙, 〈戰國匊文和璽印文字中的「者」字〉, 《朱德熙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5)
李學勤, 《東周與秦代文明》(北京: 文物出版社, 2007)

[中文摘要]

郭沫若先生曾經指出:“無論作任何研究, 材料的鑒別是最必要的基本階段。材料不夠固然大成問題。而材料的真偽或時代性如未規定清楚, 那比缺乏材料還要更加危險。”我們迎接古文物的第一項工作就是考釋文字, 有了釋讀上的成果之後我們才能進一步進行斷代分域工作。要正確的判別古文物的時代國別, 我們才能夠更往上一層樓, 這是不可否認的事實。譬如拿一方璽印來說, 它到底屬於那國之物? 如不能解結這個問題, 擺在我們眼前的古璽印只是個古董罷了。這種大小只有方寸的古代遺物所以被人們看重的原因, 就是璽文的史料價值並不低於其他古文字資料。它們可以提供古代官名、地名、姓名、經濟等各方面的資訊, 而且這種史料往往是傳統古籍所遺傳的寶貴資料。本文在諸家已有的研究成果的基礎上重新整理出戰國齊璽的五項選別標準:

- (一) 以出土地判別
- (二) 以字形判別
- (三) 以地名判別
- (四) 以文例判別
- (五) 以印面特征判別

希望為研究戰國齊璽者提供一個判別標準。這些判別標準得透過新材料繼續補充下去, 才有真正的學術價值。

關鍵詞: 齊璽 齊文字 古文字 戰國文字 篆刻 璽印

78 · 中國學 第30輯(2008.8)

투고일: 2008. 6. 20.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중국어 문자 교육 중 錯別字 교정에 관한 고찰

서재선*

〈목 차〉

1. 서론
2. 錯別字 발생의 원인과 오류의 예
3. 錯別字의 오류 교정
 - 3.1. 錯字의 오류 교정
 - 3.2. 別字의 오류 교정
4. 결론

1. 서론

한자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수학하고 중문학과에 들어와 이전과는 달리 繁體字에서 簡體字로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과제물을 검사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자를 다시 창제를 하는 경우와 독음이 같거나 자형이 비슷한 글자를 많이 혼용하여 쓰고, 그 것이 한 과제물에 연속 반복하여 틀리게 기록 되어진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그 외 한자 교육시간에도 書寫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 부경대 동북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seohjaesun@hanmail.net)

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논문을 통하여 자주 오류를 발생하는 글자의 발생이유와 오류의 예와 교정 그리고 문자 교육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색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논문에서 예를 든 錯別字의 오류 글자는 필자의 수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글자와 다른 연구자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예를 들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錯別字 발생 원인과 오류의 예

2.1 착별자의 정의

錯別字는 錯字와 別字의 합성어이다. 錯字는 원래 글자에 없는 필획을 잘못 썼거나¹⁾, 필획을 더하거나 감한글자, 혹은 문자구조를 변화시킨 경우를 말하고, 別字는 독음이 비슷하고 자형이 비슷하여 혼동하여 잘못 쓰인 글자를 일컫는다.

2.2 錯字발생의 원인과 예

1. 번체자에서 간체자로 넘어가는 필획의 간체 원리를 잘 모르는 관계로 인한 오류²⁾

1) 陳滿銘, 《作文教學指導》(台北: 萬卷樓圖書有限公司, 2001), 339쪽.

2) 중국정부가 간체자를 만든 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총획이 17획 이상인 글자는 반드시 그 필획을 줄인다. 그리고 12획 이상은 줄이지 않되, 12~17획인 글자는 경우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한자 서예법의 규칙과 특징에 맞게 간소화 한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원칙을 적용시켰다. (1)俗字를 채용 (2)옛 글자를 채용 (3)정자체를 초서화 (4)동음자를 채용 (5)회의문자 원리를 이용 (6)형성문자 원리를 이용 (7)복잡한 편방을 단순화 (8)원래 한자의 일부를 채용. 어문연구회, 《중국한자》(서울: 혜원 출판사, 2004), 3쪽.

학생이 중문과로 입학하여 기초중국어 배울 때, 한어병음과 성조를 배우고, 발음을 습득하는 것과 회화에만 치중하는 결과 간체자 쓰기 연습과 번체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번체자 사전인 《漢韓大字典》과 간체자사전인 《現代漢語詞典》의 부수를 비교한 결과 번체자 사전은 214개 부수이고 간체자 사전은 189개 부수로 이전에 배웠던 부수가 다른 부수로 편입되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³⁾ 어떻게 간화되었는지의 원리 설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번체자를 배우고 난후 간체자 중국어를 배울 때, 같은 성부로 된 글자가 간체자로 바뀌는 경우, 불규칙적인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 ‘責’의 글자가 간체자로 바뀌면 ‘責’으로 바뀐다. ‘成績’할 때, ‘績’ 또한 성부가 ‘責’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累積할 때, 積은 ‘积’으로, 성부가 ‘只’로 형태가 불규칙변화 하였다. 그 외 趙→赵, 風→风, 區→区, 岡→冈, 漢→汉, 歡→欢, 雞→鸡등의 불규칙 변화 등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한자의 筆順 습득미숙으로 인한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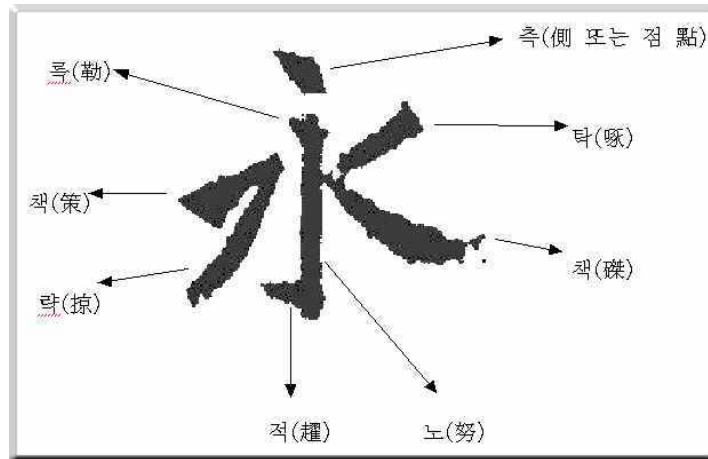
筆順이란, 점과 획이 차례로 거듭되어 하나의 글자를 다 쓸 때까지의 차례를 말한다.⁴⁾ 필순은 전체 모양이 정돈되고 구조적으로도 바르며, 또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오래 동안 연구되어진 한자 書寫방법이다. 현재 중국에서 해서를 기본필획으로, 永字八法을 사용하고 있다. 예로 側(丿), 勒(一), 努(丨), 趯(丨), 策(㇇), 掠(丨), 啄(ノ), 磔(乚)⁵⁾.(〈그림 1〉 참고)

3) 간체자로 바뀐 부수: 言→讠, 片→𠂔, 金→钅, 車門→门, 竹→𥯲, 糸→纟 馬→马, 韋→韦, 車→车, 貝→贝, 風→风, 龍→龙, 鳥→鸟, 頁→页, 麥→麦, 鹵→卤, 角→角, 齒→齿, 黽→黽, 魚→鱼, 青→青, 骨→骨

4) 《漢韓大字典》(서울: 民衆書林, 2002), 5쪽.

5) 李美蓉, 《中學國文文字教育教學網站建置與學習評詁-以學甲國中為例》(高雄: 國立高雄師範大學國文學系碩士論文, 2004), 19쪽.

이러한 서사방법은 한자를 쓰는데 정확하게 쓰도록 서사 습관을 바르게 한다.



(그림1) 다음 카페 고평서예마을 永字八法 그림 인용

필순은 기본 서사 원칙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⁶⁾.

- (1) 위로부터 아래로 써 내려 간다. 예: 三, 言
- (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간다. 예: 川, 例
- (3) 가로획을 먼저 쓴다. 예: 十, 士
- (4) 가운데를 먼저 쓴다. 예: 小, 樂(예외: 火, 性)
- (5) 바깥쪽을 먼저 쓴다. 예: 同, 國(예외: 區, 匹)
- (6) 왼쪽 삐침을 먼저 쓴다. 예: 文, 父 예외 必
- (7) 가로획과 왼쪽 삐침: 가로획이 길고 왼쪽 삐침이 짧은 글자는 왼쪽 삐침을 먼저 쓴다. 예: 右, 有; 가로획이 짧고 왼쪽 삐침이 긴 글자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예: 左, 友
- (8) 좌우로 꿰뚫은 획은 맨 나중에 쓴다. 예: 女, 母(예외: 世)

6) 《漢韓大字典》(서울: 民衆書林, 2002), 5~6 참조.

- (9) 아래위로 꿰뚫린 획은 맨 나중에 쓴다. 예: 中, 車(예외: 虫, 里, 重)
- (10) 오른쪽 어깨의, 은 맨 마지막에 찍는다. 예: 犬, 伐
- (11) 走, 支, 免, 是는 맨 먼저 쓴다. 예: 起, 勉, 題
- (12) 辵, 辶, 辵 은 맨 나중에 쓴다. 예: 近, 建, 直

이러한 한자서사 방법의 습득 미숙으로 인해, 간체자를 필사하였어도 글꼴이 좀 다른 형태로 쓰는 학생이 많았다. 이것은 한글을 쓰는 평소 자신의 글꼴의 습관으로 인해 한자를 쓸 때도 엽서체처럼 중국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 아리송한 글자가 다량으로 발견되어진다.

3. 한자 본래가 갖고 있는 문제로서 자형이 비슷한 글자로 인한 혼동

部件의 차이로 글자의 독음과 뜻이 달라진다.

- (1) 점의 유무로 인해 뜻이 달라진다. 예: 戊와 戌
- (2) 가로획의 유무로 뜻이 달라진다. 예: 亨과 享
- (3) 필획의 늘어남과 줄어듦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예: 日과 曰

4. 한자 구조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편방을 바꾸어 잘못 표기 하는 경우

- 예) 初 → 初(衣부를 示부로 오용)
- 爬 → 爬(爪부를 瓜자로 오용)

5. 글자의 本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

- 예) 祭 → 祭(月부를 夕자로 오용)

6. 쌍 음절 단어 일 때, 다음 단어의 편방에 영향을 주어서 생겨

나는 경우

- 예) 輝煌 → 輝^火煌(火변이 앞글자의 영향을 받아 光부로 오용)
- 跋涉 → 跋^水涉(水변이 앞 글자의 영향을 받아 足부로 오용)

2.3 別字 발생의 원인과 예

別字는 주로 독음이 같거나 근접한음, 자형이 비슷할 때,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중국문자의 음절은 401개에 비해 상용자는 4천여 개가 넘는다.⁷⁾ 그래서 새로운 글자를 접할 때, 사람들은 성부의 자근과 형부의 자근을 통해 그 글자의 대략의 뜻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런데 뇌리 속에서 그 자근을 찾는 가운데, 혼동되어 같은 음의 다른 글자로 착각하여 표기 될 때, 별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두 글자의 자형이 서로 비슷한 경우
예) 冫 ↔ 凵 戎 ↔ 戒 寸 ↔ 才 予 ↔ 矛
2. 두 글자의 독음이 같거나 비슷한 한 경우
예) 正所謂 "天網恢恢, 疏而不露"
露(lòu, lù) → 漏(lòu)
예) 幾百只猿狂呼亂叫起來, 聲音振耳欲聾.
振(zhèn) → 震(zhèn)
3. 두 글자의 자형이 비슷하고 독음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경우
예) 廠里正在準備迎接上級領導檢查工作
檢(jiǎn) → 檢(jiǎn)
예) 街上的行人廖廖無幾
廖廖(liào) → 寥寥(liáo)

7) 林桂華, 《國中漢字字形矯誤教學研究》(高雄: 國立高雄師範大學教學碩士論文, 2004), 25~26쪽 참조.

4. 두 글자의 독음이 서로 같고, 뜻이 비슷한 경우
예) 各單位都定立了衛生公約
定 → 訂
5. 두 글자의 뜻이 비슷한 경우
예) 那幾年, 他東奔西撞, 艱難地開拓着生活之路.
撞 → 闖
那只長鏈似的大風箏從空中墮落下來.
墮 → 墜

3. 錯別字의 오류 교정

착별자 오류 분석 방법으로, 아래의 순서로 착별자를 교정하였다.

- 1) 오류자 발견 후 틀린 이유를 추적한다.
- 2) 갑골문이나 《說文解字》에 있는 글자의 原義를 설명한다.
- 3) 자형을 분석하여 부수를 찾고, 六書의 원리로 분류한다.
- 4) 引伸義를 찾아 이 글자가 현재 사용되는 의미 들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글자에 대한 기억력을 증강 시킨다.

3.1 錯字의 오류교정


錯字의 사례는 필자는 杜維東의 《錯別字新析手冊》 중 錯字의 사례를 분류를 참고하여 크게 4가지로 분류 해 보았다⁸⁾. 예를 들어 필획의 증가, 필획의 감소, 편방의 혼동, 글자의 구조변경으로 분류했다.

8) 杜維東은 錯字의 사례를 6가지로 분류 하였다. 多筆畫, 缺筆畫, 筆畫寫錯, 不規範的簡化字和生造字, 多加部首篇旁, 偏旁寫錯. 杜維東, 《錯別字新析手冊》(北京: 華文出版社, 2004), 36~37쪽 참조.

(1) 필획의 증가

1. 步를 歩로 오인하여 잘못 표기

A. 설명

步  (1期 《合集》 6461)는 두 개의 '止'가 위 아래로 정반으로 구성된 글자이다⁹⁾. 아래의 止자에 삐침을 첨가한 것은 기억 속의 '少'자의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이전 서예가들이 글자체에 美感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步자에 삐침을 더한 것도 있어서 이 것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B. 오류교정

- 1) 자의 : 길을 걷다.
- 2) 부수: 「止」部에 속함
- 3) 자형분석:

두 개의 정반 되는 「止」로 구성되어진 회의자이다. 「止」는 두 개의 발의 형상이 왼쪽, 오른쪽의 발바닥 모양이 전후로 된 형상으로 두 발 사이의 거리가 바로 「一步」이다. 그래서 일보 연이어 일보 걷는 모습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걸음' 혹은 '보폭'이라는 인신으로 사용되어 졌다.


4) 인신의 활용

- a. '순서'의 의미로 인신: 下一步怎麼辦?
- b. '쫓다'의 의미로 인신: 步人后塵

5) 步는 涉, 陟의 형부인데, 여기서도 「𠂔」에 삐침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인식시켜야한다.

2. 染을 染으로 오인하여 잘못 표기

A. 설명

染  (《說文·十一篇》)를 染으로 잘못 오인 한 것. 染자가 汚染이라는 글자로 많이 각인 되어 있기 때문에 九자안에 점을 찍어서

9) 羅振玉, 《增訂殷虛書契考釋》(臺北: 藝文印書館), 65쪽.

오염물질을 상징하는 部件으로 착각하여 점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染은 木, 水, 九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九는 浸染하는 횃수¹⁰⁾를 일컫는 것이다.

B. 오류교정

- 1) 자의: 비단 혹은 면제품을 염료에 담가서 안료가 침투하도록 착색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부수: 「木」部 에 속함
- 3) 자형분석: 「木」, 「水」, 「九」세 개 부분으로 구성된 회의자
 - a. 「木」: 염료의 식물을 표시 즉 재료 예로 靛藍, 馬蘭, 莖 등은 색 염료를 제조하는 재료 이다.
 - b. 「水」는 염료가 액체화 된 염료를 말한다.
 - c. 「九」는 염색의 횃수를 말한다. 중국에서 九는 숫자 중 제일 높은 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염색을 할 때, 여러 번 염색해야 색깔이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다.
- 4) 인신의 의 활용

染은 다른 물체로 그 본래의 색깔을 변화 시키는 것으로, 습속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언행을 바꾸게 하는데, 그래서 感染, 霑染, 疳染으로 인신되어 쓰여 진다.

3. 豫¹¹⁾자를 豫자로 오인하여 잘못 표기

A. 설명

豫 𠄎 (《說文·九篇下》)자의 성부 '予' 를 '矛'자로 오류 표기한 것은 자형이 근접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성부로 따져 본다면 독음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럼 予의 성부 기능을 파악하면 이 글자의 오류 표기를 많이 줄 일 수 있다.

B. 오류교정

- 1) 자의: 코끼리 중에서도 큰 코끼리

10) “染, 從九, 九者染之數也.” 《說文解字》(十一篇上)(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染字段注云.
 11) “豫, 象之大者. 從象予聲.” 《說文解字》(九篇下)(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2) 부수: 「豕」部

3) 자형분석: 「象」과 「予」로 구성된 형성자

a. 「象」은 형부의 기능을 하고 있고, 「象」의 자형은 코끼리의 이빨, 네 다리, 꼬리의 외형을 본뜬 것이다¹²⁾.

b. 「予」는 글자의 성부 기능을 하고 있고, 「予」는 베를 짜는 공구 「杼」의 초문이다. 자형은 "북으로 실을 당기는 모양"으로 베를 짤 때, 두 손을 서로 바꾸어 추진한다는 모습인데, 이러한 뜻이 "相予"라는 뜻으로 인신 되었다.

4) 인신의의 활용

a. 무릇 큰 것은 모두 豫로 불리니까, 큰 것은 넓고 풍족하여 사전에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여유로움을 의미하므로, '사전에 예비'하는 것을 일컫는다.

b. 관대하다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기쁘다"의 의미로 인신 되었다.

c. 상용단어로 "猶豫"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본래는 두 종류의 야생동물의 이름이었으나, 이 두 마리의 동물로 인해 진퇴양난이 되어 "주저하다"라는 뜻으로 인신 되었다.


5) 「予」가 성부로서의 활용

「予」가 성부인 글자: 預, 杼, 序, 杼 등 이러한 글자를 쓸 때, '予'를 '豕'로 오류 표기해서는 안 된다.

(2) 필획의 감소

1. 逸¹³⁾을 逸로 오인하여 잘못 표기

A. 설명

逸  (《說文·十篇下》)자는 辵과 兔와 결합된 글자로서, '토끼가 도망을 잘 한다'라는 뜻으로, 이후 인신되어 "잃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逸子'라는 글자를 쓸 때는 兔자의 꼬리의 「彡」을 생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逸자를 쓸 경우는 이러한 생략 현상이

12) “象，南越大獸，長鼻牙，三年一乳，象耳牙四足之形。”《說文解字》(九篇下)(臺北：書銘出版公司，1994).

13) “失也，從辵兔。”《說文解字》(十篇下)(臺北：書銘出版公司，1994).

가끔 일어난다.

B. 오류교정

- 1) 자의: 도주하다, 잃어버리다.
- 2) 부수: 「辵」部
- 3) 자형분석: 「辵」과 「兔」로 구성되어 회의자
 - a. 「辵」자는 「辵」과 「止」가 합쳐진 글자로서, '길을 걸어가다'의 뜻이다.
 - b. 「兔」자는 토끼의 형상으로, 글자위의 「𠂆」는 토끼의 귀의 형상을, 그 외는 머리, 측면의 두 다리 「丿」는 토끼의 꼬리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 4) 인신의 활용
 - a. 토끼가 뛰는 것이 너무 빨라서, "잃어버리다 혹은 도주하다"라고 인신 되었다. 逃逸이라는 뜻으로 활용.
 - b. 대부분이 도망가서 은둔하여 지내기 때문에 "고아하다"라고 인신 되어 隱逸이라는 뜻으로 활용.
 - c. 토끼가 아무런 구속 없이 뛰어다닌다는 뜻이 轉義되어 "안일한 생활을 보내다"라고 인신되어져 安逸이라는 뜻으로 활용.

2. 膏¹⁴⁾를 膏로 오인하여 잘못 표기

A. 설명

膏膏 (《說文·四篇下》) 자의 구조에서 「高」는 홀로 쓰일 때는 생략한 적이 없으나, 膏자로 쓰일 경우 아래의 「口」를 생략하고 쓸 때가 많았다.

B. 오류교정

- 1) 자의: 肥肉
- 2) 부수: 「肉」部
- 3) 자형분석: 「月」과 「高」로 구성
 - a. 「肉」은 鳥獸肉의 총칭이다. 독체상형. "고기의 비계 살"을 형상화한 것이다.

14) “膏, 肥也, 從肉高聲.” 《說文解字》(四篇下)(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b. 「高」는 「膏」의 성부이다. 자형은 높은 건물이 겹으로 올려진 형상이다. 이러한 뜻이 인신되어서 높은 등급, 정도가 높은 것, 존귀, 청렴, 연장자 혹은 토지가 비옥함, 풀 같이 걸쭉한 상태의 물건 등을 나타낼 때 쓰임


4) 인신의의 활용

- a. "기름이 많다"라는 뜻으로 인신되어 "膏肥" 라는 뜻으로 활용
- b. "비옥한 대지"라는 뜻으로 "膏田" 라는 뜻으로 활용
- c. "걸쭉한 상태의 물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軟膏"라는 뜻으로 활용

(3) 편방의 혼동

1. 爬를 𢶏로 잘못 표기

A. 설명

爬의 爪  (《甲》, 《乙》 3471) 와 瓜는 글자의 뜻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형이 비슷한 관계로 혼동되어 쓰일 때가 있다.

B. 오류교정

- 1) 자의: 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는다.
- 2) 부수: 「爪」部
- 3) 자형분석: 「爪」와 「巴」로 구성
 - a. 「爪」는 '손' 을 나타내는데, 손으로 긁거나, 기어 올라가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 b. 「巴」는 성부의 역할을 하는데, 그 뜻은 파충류의 일종이다. 그래서 "기어오르다" 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 4) 인신의의 활용

"땅에 엎드려 손으로 기어간다." 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爬行, 爬山

2. 券을 券 으로 잘못 표기

A. 설명

券 券 (《說文·四篇下》) 자는 고대 계약을 맺을 때, 칼로 특수한 기호를 새겨, 다음에 사용할 때, 쌍방의 기호와 들어맞을 때,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¹⁵⁾. 그래서 자형의 근접으로 인해 '刀' 편방이 '力' 편방으로 혼동되어 썼지만, 자의를 알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B. 오류교정

- 1) 자의: 계약하다
- 2) 부수: 「刀」部
- 3) 자형분석: 「刀」와 「券」로 구성. 형성자
 - a. 「刀」는 兵器로서, 「券」자에서 계약을 맺을 때, 칼로 기호를 새겨 계약서의 효력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 b. 「券」는 券의 성부의 기능을 한다.
- 4) 인신의 의 활용
 - a. '증권'이나 '표'의 의미로: 証券
 - b. '지폐'의 의미로 인신: 人民券

(4) 문자 구조의 변환

문자를 국부적으로 바꾸어 표기한 경우를 보자.

1. 惕¹⁶⁾을 惕으로 잘못 표기

A. 설명

「惕」자의 '易'와 惕의 자형이 근접하여서 발생하는 오류 표기로서, 「易」易자는 원래 갑골문에서는 𠄎(《갑》 6.42.8) 두 손으로 두 개의 酒器를 들고 있는 모양인데, 후에 두 손과 한 개의 酒器가 생략되어 𠄎(《甲骨文字典》)이 모양이 남게 되고 주대 금문에서는

15) “券, 從刀 𠄎聲. 契券的文書, 用刀分刻契券的旁邊, 所以叫契券.” 段注: “兩家各一之書牘, 分刻其旁, 使可兩合以為信.” 《說文解字》(四篇下)(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16) “惕, 敬也, 从心易聲.” 《說文解字》(十篇下)(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𠄎(「師酉簋」)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점점 도마뱀의 형상과 닮게 되어 동한시대에 와서는 거의 도마뱀형상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허신이 도마뱀으로 착각하여 글자를 해석 하였다¹⁷⁾.

《설문》의 𠄎은 도마뱀의 형상으로, 동물의 피부가 환경에 의해 변색되어지기 때문에 뜻이 變易라는 뜻으로 인신¹⁸⁾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𠄎은 떠오르는 햇살에서 뻗어 나오는 광채¹⁹⁾를 말한다. 비록 자형은 비슷하지만, 그 뜻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B. 오류교정

1) 자의: 근신하다, 신중하다

2) 부수: 「心」部

3) 자형분석: 「心」과 「易」으로 구성, 형성자

a. 「心」은 심장의 형태를 상형

b. 「易」은 성부로서 과충류의 일종이다. 楊」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근신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4) 인신의 활용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인신되어 사용: 警惕

5) 易와 𠄎이 성부로 사용된 예

易: 錫, 楊, 惕

𠄎: 揚, 湯, 𡗗, 惕, 場

(揚, 湯, 𡗗, 惕, 場이 간체자 일 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廢를 로 잘못 표기

A. 설명

많은 학생들이 「殘廢」는 병환으로 생각하고 「廢」자를 오인하여 癡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B. 오류교정

17) 季旭昇, 《說文新證》(下冊)(臺北: 藝文印書館印行, 2002), 96쪽.

18) 《說文解字》(九篇下)(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19) 《說文解字》(九篇下)(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 1) 자의: 집이 내려앉아, 버려져 아무도 살지 않는 곳
- 2) 부수: 「广」部
- 3) 자형분석: 「广」와 「發」로 구성된 것. 형성자.
 - a. 「广」의 자형은 집을 형상을 본 뜬 것이다.
 - b. 「發」는 여기서 성부와 의부를 겸하고 있다. 「發」는 傷害의 의미가 있다. 가옥이 피해를 입어 무너져 버려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졌다.
- 4) 인신의의 활용
 - a. 가옥이 무너졌다는 의미에서 "손상시키다"라는 의미로 인신되었다.
 - b. 황폐하게 되어져 멈추어 버린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서 停止, 荒廢, 廢棄, 無用등의 인신의 로 활용.

3.2 別字의 사례

별자의 사례는 독음이 같고 자형이 다른 경우, 독음이 비슷하고 자형이 다른 경우, 독음이 같고 자형이 비슷한 경우, 독음이 비슷하고 자형이 비슷한 경우, 자형은 비슷하고 독음이 다른 경우 등으로 나누었다.

(1) 독음이 같고 자형이 다른 경우

1. 「已」經 을 「以」經으로 잘못 표기

A. 설명

「已」는 시간이 이미 흘러간 것을 의미: 已經

「以」는 시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前, 後등의 방위사 앞에 위치하여 시간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以前, 以後

B. 오류교정

1) 사의

已經: 시간이 이미 흘러간 것 혹은 일의 완성을 나타냄.

2) 자형분석

已(巳) (《說文》 263.4): 뱀의 형상을 상형. 가차되어 '이미' 혹은 '정지'의 뜻으로 사용.

3) 假借의 활용

- a. 假借되어 '정지'의 의미로 사용: 痛哭不已, 死而後已
- b. 시간이 이미 흘러간 것, 일이 이미 완성됨을 의미 한다: 後會也 已經來不及了!

4) 「巳」자와 혼동되는 글자

- a. 巳(yǐ): '정지', '이미'의 의미로 사용.
- b. 己(jǐ): 간지(干支)의 제 여섯 번째이며, '자신'을 일컬을 때.
- c. 巳(sì): 時辰을 말함(오전 10시에서 11시).

2. 元 ㅍ 을 原 ㅍ 으로 잘못 표기

A. 설명

「元」은 “처음”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元” 자를 쓰서 표현한다. 「原」은 “광대하고 평원한 땅”, “도량이 크다”, “고유한 것”, “본래부터 있는 것”, “최초의 것” 등의 뜻이 있어서 「元」과 「原」을 혼동 할 수 있다.

B. 오류교정

1) 사의

元旦: 일 년 중 첫째 날을 뜻한다.

2) 부수: 「一」部

3) 자형분석

「元」: 「二」과 「兀」로 구성. 회의자

兀 (〈元作父戍直〉):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

4) 인신의의 활용

이후 '첫 번째'라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예) 元祖, 元年, 元月, 元配

5) 「元」과 「原」의 활용비교

예) 元氣大傷, 元配, 原形畢露, 原來是你啊!

(2) 독음이 비슷하고 자형이 다른 경우

1. 「殘」忍 를 「慘」으로 오류 표기

A. 설명

「殘」과 「慘」은 성조가 다르다. 「殘」은 cán이고, 「慘」은 cǎn이다. 그리고 「慘」의 뜻은 "악독하다", "참혹하다", "잔인하다" 등의 뜻이 있다. 예를 들면, 慘毒於民, 慘殺, 慘無人道 등의 예가 있다.

B. 오류교정

1) 사의

殘忍: 잔악하여, 측은지심이 없는 상태

2) 자형분석

殘: 「歹」와 「戔」으로 구성. 형성자.

a. 「歹」_ㄨ(《甲》 346): 형부, 뼈를 분해한 잔해.

b. 「戔」: 성부, "헤치다"라는 뜻이 있어서 성부와 뜻을 겸하고 있다.

3) 인신의의 활용

a. 손해, 파손의 뜻으로: 摧殘花木, 殘廢

b. 파괴를 입어 온전하지 못함: 殘局, 殘破不堪

c. 흉악하고 잔인한: 殘忍, 殘暴

d. 잔여: 殘留, 殘生, 殘年餘力

4) 「殘」과 「慘」의 문장 속에서의 비교

殘忍的四月, 淒慘的下場, 殘而不廢的精神, 悲慘的身世

(3) 독음이 같고 자형이 비슷한 경우

1. 妨礙를 防礙로 오류 표기

A. 설명

「妨」자는 "손해", "장애" 등의 뜻이 있어서 無妨, 妨礙로 사용되어 진다.

「防」자는 "경비가 삼엄하다"라는 뜻으로 提防, 防備 防範, 防火 등의 뜻으로 쓰여 진다. 독음과 자형이 비슷해서 혼동되어 사용 될 때가 많다.

B. 오류교정

1) 사의

妨礙: 일을 진행하는데 방해를 받아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 되지 않는 것.

2) 자형분석: 「女」, 「方」으로 구성. 형성자

고대 남존여비의 관념아래 女편방이 들어간 글자는 어두운 것들을 표현 하는데 편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奸, 妄, 嫌, 婪 등, 妨자 또한 이러한 관념에 의한 소산물이다.

3) 단어의 응용연습

妨礙了交通, 妨害風化罪, 不妨試試看

2. 家具를 家俱로 잘못 표기

A. 설명


俱자는 具자에서 파생 된 글자이지만, 의미상에는 구별이 있다. 「家具」의 두 글자는 ‘집안에 배열된 기구’이다. 그래서 그 가구를 표시 하는 글자에 人편방을 붙일 이유가 없다. 俱자는 “모두”, “전부”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樣樣俱全이라는 뜻으로 기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나 “구비하다”를 표시 할 때는 俱備와 具備를 둘 다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를 표시 할 때는 俱를 사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B. 오류교정

1) 사의

家具: 집안에 배열된 기구

2) 자형분석

具  (《甲》 3365): 「卪」과 「目」로 구성. 회의자

a. 「卪」자: 갑골문의 좌, 우의 손의 형상

b. 「目」자: 조개의 형상 고대 화폐로 사용되었다.

3) 具자 인신의의 활용

a. 기물: 工具, 家具, 玩具

b. 양사: 一具電話

c. 가지다: 具有魅力

d. 완비된, 구체적인: 具備, 具體

4) 具와 俱의 문장에서 비교

買新家具, 人證物證俱在, 爾夫球俱樂部, 小孩喜歡玩具

(4) 독음이 비슷하고 자형이 비슷한 경우

1. 「塌」糊塗를 「踏」, 「蹋」으로 잘못 표기

A. 설명

「塌糊塗」는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엉망이 된 상태이지, 사람에게 의해 짓밟혀서 엉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踏」, 「蹋」을 써서는 안 된다. 「塌」은 물체의 외부 압력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고; 「踏」, 「蹋」은 인위적,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리는 상태를 말한다. 「塌」은 발음이 tā 이고, 「踏」, 「蹋」은 발음이 tà이다.

B. 오류교정

1) 사의

「塌糊塗」: 어질러져 있어서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

2) 자형분석:

塌: 「土」와 「塌」으로 구성. 형성자

「土」는 형부, 「塌」은 성부로서 "날다"라는 뜻이 있음. 그래서 「塌」에는 "흩어 무너지다"의 뜻이 있음.

3) 인신의의 활용

a. 함몰하다: 塌陷

b. 건축물, 토사가 무너지다: 倒塌

c.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비유: 塌臺

4) 「塌」와 「踏」의 문장 속에서 활용 비교

예) 這次考試一場糊塗

예) 惡意毀謗是踐踏他人尊重

(5) 자형은 비슷하고 독음이 다른 경우

1. 「昧」를 「昧」로 오류 표기

A. 설명

「一味」는 대개 부정적인 문장 속에 많이 사용된다.

예) 他不知自我檢討, 只是「一味」地責怪別人

他不知努力上進, 只知「一味」地討好上司

「昧」는 “어둡다”, “숨기다”의 뜻이 있다. 「一味」의 뜻 중에 愚昧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혼동될 수도 있고, 자형이 근접해서 오류 표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B. 오류교정

1) 사의

一味: 줄곧, 덮어놓고

2) 자형분석

味: 「口」와 「未」로 구성. 형성자

혀로 음식을 음미하는 느낌

3) 「味」와 「昧」가 문장 속에서의 활용

a. 他們兩似乎有見不得人的曖昧關係.

b. 這麼小的年紀就懂得拾金不昧, 真是難得.

c. 這篇文章的意寓深遠, 耐人尋味.

d. 做父母的不應一味遷就孩子的需求, 使得他們需索無度, 好逸惡勞.

4. 결론

이상의 본문에서 표기상에서의 착별자가 발생하는 원인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필획의 필순에 따라 글자쓰기 연습을 시키는 것이 착별자를 줄이는 기초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 새로운 글자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좀 더 흥미롭고 시각, 청각을 만족시키는 아이템이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 내 기초한자 혹은 생활한자라는 공통 교양과목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교재가 4자성어가 아니면, 사서오경 등 경전 위주로 한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어

렵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증문학과에 입학하면 바로 간체자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번체자도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오류자의 출현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 문자 교육을 이웃 중국이나 대만 쪽의 상황을 알아 본 결과 그 들 역시 착별자에 대한 문제에 봉착해서 문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 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部件識字法²⁰⁾」, 「基本字帶字教學法²¹⁾」, 「字源教學法²²⁾」, 「形聲類識字法²³⁾」, 「形義聯想識字法²⁴⁾」, 「集中識字教學法²⁵⁾」 등 6가지 교학

-
- 20) 「部件識字法」은 한자의 部件 구조의 분석을 통해 글자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먼저 독체자를 배우고 난후 간단한 합체자를 배우고, 그 다음 복잡한 합체자를 배우는 순서로 교학내용을 안배하는 학습방법이다. 戴汝潛, 《漢字教與學》(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0), 黃沛榮, 《漢字教學的理論與實踐》(臺北: 樂學書局有限公司, 2003), 81-122쪽 참조.
- 21) 「基本字帶字教學法」은 어떤 한 글자를 가르칠 때, 그 글자와 자형이 비슷한 글자를 한데 묶어서, 字群을 형성하여, 그 중 공통된 편방을 기본자로 내세워, 기본자의 구조, 뜻, 음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 비슷한 글자들의 형, 음, 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로 쉽게 기억하게 하고, 대량의 한자를 습득할 수 있다. 張田若, 陳良璜, 李衛民, 《中國當代漢字認讀與書寫》(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98), 143-165쪽 참조.
- 22) 「字源教學法」은 문자의 본형을 통해, 본의를 설명하고, 이로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학습방법은 주로 상형, 지사, 회의자를 가르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등의 圖片을 학습재료로 이용하여 학습자가 글자의 본형을 이해함으로 각 부건의 서사법이 분명해짐으로 착별자 교정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학습 방법이다. 黃沛榮, 《漢字教學的理論與實踐》(臺北: 樂學書局有限公司, 2003), 13-16쪽 참조.
- 23) 「形聲類識字法」은 형성자의 주요한 구성은 성부에 형부를 첨가한 것으로, 이 방법은 학습자로 문자의 뜻 외에도 자군(字群)중 회의와 형성자의 판별능력이 발달하게 한다. 李美蓉, 《中學國文文字教學網站建置與學習評估——以學甲國中為例》(高雄: 國立高雄師範大學, 2004), 28-29쪽 참조.
- 24) 「形義聯想識字法」은 위의 많은 교수법을 종합 한 것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形似字分組集中教學」, 「相同部首分組集中教學」, 「一般義同, 義近字分組集中教學」, 「同聲旁字分組集中教學」 周麗萍, 呂景和, 《論漢字形義聯想字教學法》, 《嘉興學院學報》(13卷 第4期)(嘉興: 嘉興學院學報, 2001.7), 77-84쪽 참조.
- 25) 「集中識字教法」은 문자 교육을 할 때, 먼저 성부와 형부로 나누어서 기본자를 추출하고, 그 기본자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글자 군을 나누어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기본자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추려내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어 문자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문자 교육 혹은 한자교육이기에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위의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콘텐츠를 이용하여 중국어문자 혹은 한자 교육을 한다면 더욱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중국문자는 형, 음, 의 3요소를 가진 문자이기에 한 글자를 배울 때, 고문자의 형태를 통해 처음 형성될 때의 원의를 보게 하고, 그 다음 자형을 분석하여 의부와 성부로 나누어 육서로 분류하고, 독음을 웹페이지에 녹음시켜 들려주고, 그 다음 인신의 활용을 통해 단어의 활용을 인식 시킨다면 학습자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시각, 청각을 두루 충족 시켜줌으로서 재미나는 문자 교육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필자의 중국어문자 교육에 관한 모색이다. 이런 과정을 이끌어 나가자면 가르치는 자는 고문자의 소양이 필요하고, 기본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部首와 部件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한다.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소양도 함께 어울려야 중국문자 교육이 한층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간체자로 변한 글자들을 첨가시켜 보면, 간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들어가서 서사 방법, 뜻, 인신의, 그리고 소리에 의해 독음을 청취 할 수 있어서 수업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이 독학할 때도 손쉽게 한자학습도우미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參考文獻]

- 許慎, 《說文解字》(臺北: 書銘出版公司, 1994)
 羅振玉, 《增訂殷虛書契考釋》(臺北: 藝文印書館印, 1981)

어 그 기본자의 구조, 部件, 자형, 자음, 자의 등을 분석하여 설명하면, 그 기본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했어도 그 글자의 대략적인 뜻이나, 독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單宛君, 《文字構體分析在識字教學的運用》(新竹: 玄奘人文社會學院中國語文研究所碩士論文, 2003), 14~16쪽 참조.

-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 1990)
- 陳滿銘, 《作文教學指導》(臺北：萬卷樓圖書有限公司, 2001)
- 周何 共著 《中文字根孳乳表稿》(臺北：臺灣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1996)
- 季旭昇, 《說文新證》(上,下)(臺北：藝文印書館, 2004)
-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 1996)
- 張田若, 陳良璜, 李衛民, 《中國當代漢字認讀與書寫》(成都：四川教育出版社, 1998)
- 黃沛蓉, 《漢字教學的理論與實踐》(臺北：樂學出版社, 2003)
- 賴明德, 《中國文字教學研究》(臺北：文史哲出版社, 2003)
- 杜維東, 《錯別字辨析手冊》(北京：華文出版社, 2004)
- 卜兆風, 于茂宏 編著, 《錯別字糾正字典》(北京：中國書籍出版社, 2002)
- 戴汝潛 編著, 《漢字教與學》(濟南：山東教育出版社, 2000)
- 周麗萍, 呂景和, 〈論漢字形義聯想字教學法〉, 《嘉興學院學報》 第13卷 第4 (嘉興：嘉興學院學報, 2001)
- 李美蓉, 《中學國文文字教育教學網站建置與學習評詁-以學甲國中為例》, 國立高雄師範大學國文學系高雄：國立高雄師範大學, 2004)
- 林桂華, 《國中漢字字形矯誤教學研究》, 國立高雄師範大學國文學系教學碩士論文(高雄：國立高雄師範大學, 2004)
- 單宛君, 《文字購體分析在識字教學的運用》, 玄奘人文社會學院中國語文研究所碩士論文新竹：玄奘人文社會學院中國語文研究所, 2003)
- 袁曉園 主編, 《漢字漢語學術研討會論文集》(上,下)(吉林：吉林教育出版社, 1991)
- 張栩, 李乃悅, 萬舍予, 傅文昌, 《漢字常見錯例話》(北京：光明日報出版社, 1989)
- 民衆書林編輯局 編, 《漢韓大字典》(전면 개정 증보판)(서울：民衆書林, 2002)

[中文摘要]

中國文字是一種表意體系的文字，字的形體與字義密切相關，想要了解它，首先就要掌握字形結構的特點與規律。但從另一方面來看，它也是一種方塊文字，字形複雜，筆劃錯縱，加上中國文字淵源久遠，文字繁衍不息，錯亂日多，積非成是的情況層出不窮，更容易造成使用者的誤寫，誤讀與誤用，

成為所謂的「錯別字」。

現今，韓國大學念中文系的學生寫漢字的情況，出現了多種「錯別字」，除了漢字本身的問題以外，也有從繁體字換到簡體字當中有些不規律的變化引起了令學生寫錯字的原因。而學生也有自己寫韓字的習慣，寫漢字的書寫方法沒得教育之下，以自己韓字書寫的方法來寫漢字，因此在中國沒看過的書體會出現。

除了這些原因以外，字意不清楚就寫錯或寫別字。因此要儘量克服這些問題，要參考鄰近的中國，臺灣，香港的漢字教育，他們也有遇到同樣的問題，我們也要參考他們摸索的方法，而重新造出我們自己的方法，我個人提出構築漢字的網站，在課堂上教漢字的時候，利用多媒體，漢字的形，音，意在一個畫面上，尤其是利用古文字，有圖片的文字給學生看，讓他們辨別字的本義與現今所使用的字義之間差異，這樣讓學生學漢字容易懂，而減少產生「錯別字」的問題。

關鍵詞： 中國文字教育， 錯別字， 文字構造， 文字誤謬矯正， 構築漢字的網站

투고일: 2008. 6. 30.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羅末麗初金石文》與《漢語大詞典》編纂

정동진*

〈목 차〉

1. 序言
2. 提早書證
3. 補充失收詞條或義項
4. 補充用例書證
5. 結語

1. 序言

“한국, 일본, 베트남 삼국은 秦漢 이후 漢族 문화의 급속한 유입과 한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량의 어휘들이 자국의 어휘구성에 한 부분으로 구성되게 되었다.”¹⁾

漢語史 연구의 발전을 통해 최근 십여 년 간 중국학자들은 해외 漢語史 언어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국 조선시대의

* 부산외국어대학 중국학과 강사(shanghai@hanmail.net)

1)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 588쪽. “漢語自秦漢以後, 由於漢族文化的先進, 逐漸傳入了外國, 特別是日本、朝鮮和越南。日本語、朝鮮語和越南語都接受了漢語的巨大影響, 向漢語吸收了大量的詞語, 成為它們自己的詞彙中的一個組成部分。”

《朴通事通解》와 《老乞大》 등은 한어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傳世 文獻 외에도 대량의 출토 문헌들도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漢代 이후 끊임없이 출토되어 왔다.

“언어자료의 진실여부는 연구 결론의 믿음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傳世典籍은 후인들의 손을 거쳐 정리되다 보니 원형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 더구나 문자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출토문헌의 한 영역인 碑文은 진실성이 매우 강하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출토된 漢文으로 된 文獻 중 碑文을 漢語文字學의 각도에서 연구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문에서는 당시의 언어면모를 비교적 잘 기록하고 있는 출토문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羅末麗初(中國唐末五代) 시기의 碑文³⁾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 자료가 한어어휘 연구의 대표적인 《漢語大詞典》의 예증에 어떤 보충과 보완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提早書證, 補充失收詞條或義項, 補充用例書證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예시하고자 한다.

2. 提早書證

2.1 提早詞條書證

- 1) 【願使】 의사를 표명하다.
《漢語大詞典》

2) 毛遠明, 《漢魏六朝碑刻文獻語言研究的思考》,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5-1). “語料是否真實, 直接影響到研究結論是否可靠。傳世典籍一般都曾經過後人的整理, 加上書籍輾轉傳抄翻刻, 不大可能保持原貌, 尤其是文字的改變更大。碑刻屬於出土文獻範圍, 真實性特別強。”

3) 한국역사 연구회 편찬,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郭沫若《集外·從典型說起》：“大家都在爭奪出版處，‘有奶便是娘’，於是便生出了在文化強盜的頤使之下從事文化運動的滑稽現象。

《羅末麗初金石文》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⁴⁾：“明日肩輿到五龍山，頤使招諸弟子云：‘佛有嚴誡，汝曹勉旃。’”

(다음날 어깨로 메는 수레를 타고 오룡산 에 이르러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말하기를“부처님의 엄한 가르침이 있으니 너희들은 힘써 노력하라.”고 하였다.)

2) 【閻摩】 염라대왕.

《漢語大詞典》

清蒲松齡《聊齋志異·齊天大聖》：“青衣白‘閻摩不敢擅專，又持大聖旨上忤鬥宿，是以來遲。’”

《羅末麗初金石文》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上乃撫机歎曰‘夫俗人迷於遠理，預懼閻摩，至如大師所言，可與言天人之際矣。’

(무릇, 속인은 깊은 이치에 미혹하여서 염라대왕을 미리 두려워했으나, 대사가 말한 바와 같은 데 이른다면 더불어 천인의 경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3) 【血懇】 간절히 바라다.

《漢語大詞典》

宋蘇舜欽《杜公謝官表》：“兩貢露奏，乞回命書，遷降玉音，不諒血懇。”

《羅末麗初金石文》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⁵⁾：“欲別禪屍，先陳血懇，大師謂曰：‘飛鳴在彼，且莫因循。’”

(참선하던 곳을 떠나고자 하여 먼저 간절히 말하니 대사가 이르기

4) 고려 초의 고승이자 광조사(廣照師)의 주지였던 진철대사 利徹의 부도비로, 고려 태조 20년(937년)에 조성되었다. 높이 2m, 너비 1m, 받침돌 높이는 1m이다.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 냉정리 광조사지에 있다.

5) 고려 태조 22년(939년)에 조성되었다. 전체 높이는 3.5m, 비신 높이가 1.76m, 너비가 0.89m이다.

를“새가 저기서 운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다.)

4) 【趺跏】 가부좌.

《漢語大詞典》

清和邦額《夜譚隨錄·汪越》：“老人攜越繞出屋後，入一土穴中，黝然如漆，正中設一蒲團，使越趺跏其上。”

《羅末麗初金石文》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⁶⁾：“大師生有聖姿，幼無兒戲，行惟合掌，坐乃趺跏。”

(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자태가 있었으며, 어려서는 아이 같은 장난이 없었다. 다님에 오직 합장하였고 앉아서는 가부좌 하였다.)

5) 【毫楮】 붓과 종이.

《漢語大詞典》

宋蘇軾《書鄱陵王主簿所畫折枝》詩之二：“若人富天巧，春色入毫楮。”

《羅末麗初金石文》

‘大安寺廣慈大師碑’：“感動蠢植，毫楮寫周。”

(작은 벌레와 나무들까지 마음 아파한 것을 붓과 종지로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는가!)

6) 【蓬矢】 쏘대로 만든 화살을 가리킨다.

《漢語大詞典》

宋，蘇軾《謝生日詩啟》：“蓬矢之祥，雖世俗之所尚，蓼莪之感，迨衰老而不忘。”

《羅末麗初金石文》

‘大安寺廣慈大師碑’⁷⁾：“大師初放蓬矢之日，雙柱絕倫；將辭錦祿之

6) 고려 태조 26년(943년)에 崔彦鎬가 비문을 짓고 具足達이 글씨를 썼으며 승려 4명이 刻字하였다. 높이 3.15m, 폭 1.45m, 두께 31cm이다. 충청북도 충주군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에 있다.

7) 臺石의 길이는 1.97m, 너비가 1.82m이고, 螭首의 높이가 0.56m이다. 고려의 승려 允多의 탑비이다.

季, 三亭轉麗.”

(대사는 처음 사악한 기운을 쫓는 쭉대로 만든 화살을 쏘 즈음(태어날 때)에는 두 기둥이 뛰어났으며, 장차 비단 강보를 떠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삼정이 아름다웠다.)

2.2 提早義項書證

1) 【行腳】 여러 곳을 걸어 다니며 불도를 수행함.

《漢語大詞典》

宋楊萬里《和文遠叔行春》詩：“行腳宜晴翠，看雲恐夕黃。”

《羅末麗初金石文》

‘大安寺廣慈大師碑’：“師已老矣，恐難行腳，何妨騎乘，一詣九重。”

(대사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마 걷기 어려우실 듯하니, 말을 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 【辰韓】 삼한의 하나.

《漢語大詞典》

清，徐乾學《懷友人遠戍》詩：“邊城日日聽鳴笳，極目辰韓道路賒。”

《羅末麗初金石文》

‘瑞雲寺了悟和尚真原塔碑’⁸⁾：“此碑製自辰韓，曾題國諱，昨因奉詔，須補追尊。”

(이 비는 진한에서 만들어져 일찍이 국휘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조서를 받들어 추존한 것을 보충하였다.)

‘地藏禪院朗圓大師悟真塔碑’⁹⁾：“大師諱開清，俗姓金氏，辰韓鷄林人也。”

(대사의 법휘는 개청이고 속성은 김씨로 진한 계림인이다.)

3) 【駐足】 걸음을 멈추다. 발붙이다.

《漢語大詞典》

8) 고려 태조 20년(937년)에 제작되었으며, 높이 1.8m, 폭 1.5m이다.

9)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제작되었으며, 높이 187.9cm, 폭 97cm, 두께 19.7cm이다.

明宋訥《壬子秋過故宮》詩：“北塞君臣方駐足，中華將帥已離心。”

《羅末麗初金石文》

‘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¹⁰⁾：“法師知此歸心，許令駐足。”

(법사는 귀의할 마음이 있음을 알고 허락하여 머물게 하였다.)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雖然深感丹誠，暫因駐足，所恨近於京輦，不愜雅懷。”

(비록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동하여 잠시 머물렀으나 한스러운 것은 서울에 가까운 점이었으므로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다.)

4) 【斤斧】 칭송하다.

《漢語大詞典》

宋范仲淹《與韓魏公書》：“又窺諸公所賦，何以措手，然旨命丁寧，亦勉率成篇，並自寫上呈，所謂將勤補拙，更乞斤斧，免貽衆誚。”

《羅末麗初金石文》

‘大安寺廣慈大師碑’：“紹才非七步，學昧五車，直言而否歎朱生，斤斧而有彌氏，事不獲已，抑綴爲文。”

(紹는 글을 빨리 짓는 재주도 없고, 다섯 수레의 책을 읽은 것도 아니며, 직언을 하여도 朱生을 감탄하게 하지 못하고, 칭송도 彌氏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이 이미 부득이하게 되어 억지로 글을 짓는다.)

5) 【迷途】 그릇된 길.

《漢語大詞典》

清周亮工《大興和尚俗臘時在烏石山》詩：“迷途未度應難老，尊重頻添不盡燈。”

《羅末麗初金石文》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¹¹⁾：“此沙彌不是凡人，非一朝一夕之故，仍觀此驗，合得戒珠，必是後代之誘引迷途，先標異瑞也。”

10)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제작되었으며, 강원도 강릉군 성산면 보광리 보현사 경내에 있다. 朗圓大師는 신라 말 고려 초기 인물로, 이름이 開淸, 속성이 金씨이다.

11) 고려 혜종 1년(944년)에 제작되었으며, 높이가 227.3cm, 폭이 113.6cm이다.

(이 사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영험을 보건대 계의 구슬을 얻어 받드시 후대에 미혹한 이들을 유인하려고 먼저 신이한 상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3. 補充失收詞條或義項

대형 사서인 《한어대사전》은 고금을 망라한 방대한 어휘들과 예증을 싣고 있다. 하지만 종교 문헌, 특히 비문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홀함으로써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문에 나타난 어휘와 의항 두 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3.1 失收詞條

1) 【削染】¹²⁾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승려.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年登九歲,志切離塵, 父母不阻所求, 便令削染.”

(나이 아홉에 속세를 떠나려는 뜻이 간절하니, 부모가 대사의 구하는 바를 막지 못하여 곧 머리를 깎고 출가하도록 하였다.)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¹³⁾：“遂令削染,許於入室, 猶剩迎門.”

(마침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게 하고 입실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오히려 문에서 환영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였다.)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碑’：“遂迺削染被緇, 苦求遊學, 欲尋學海, 歷選名山.”

(마침내 머리를 깎고, 검은 승복을 입고는 배움에 노닐기를 갈구하였는데 배움의 바다를 찾고자 명산을 두루 찾아다녔다.)

2) 【蓮扉】 사원.

12) 《漢語大詞典》에서는 染削로 수록됨.

13) 고려 혜종 1년(944년)에 제작되었으며, 높이 370cm, 두께 21cm이다.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然則栖遲奈苑，宴坐蓮扉，來者如雲，納之似海，稻麻有列，猶如長者之園，桃李成蹊，亦若仙人之市。”

(그러므로 奈苑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원에서 참선하니, 오는 자가 구름과 같았고 받아들임이 바다와 같아, 벼와 삼처럼 열을 이루니 마치 장자의 딸과 같았고, 복숭아와 오얏나무 밑에 길이 만들어지듯 하니 마치 선인의 시장과 같았다.)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¹⁴⁾：“大師，迺聞信嚴大德，住莊義山寺，說雜華者，希作名公之弟子，願爲眞佛之法孫，特詣蓮扉。”

(대사는 신엄대덕이 장의산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을 강설 한다는 말을 들었다. 名公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진불의 법손이 되기를 위하여 특별히 그 절로 찾아갔다.)

3) 【正覺】 바른 불타의 깨달음.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此則域中之教，方內之譚，曷若正覺道成，知一心之可得 眞如性淨，在三際之非殊。”

(이것은 영역 안의 가르침이요 사방 안의 말이니, 어찌 정각의 도를 이루어 일심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眞如의 성정이 청정하여 삼계에 달리 있다는 것과 같겠는가!)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冠薰修於正覺，超應化於眞如。”

(정각에 薰修함이 으뜸이었고, 眞如에 응화함이 뛰어났다.)

4) 【塵尾】 가늘고 긴 판이나 상아 등에 털을 붙인 團扇형으로 설법 하거나, 經을 강의할 때 사용하는 기구.

‘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牛頭添上妙之香，塵尾代玄譚之柄，可謂猶如洪州大寂，地藏虧誘引之門，有若魯國宣尼，子夏代師資之道者矣。”

(우두전단의 향기에 훌륭한 향기를 더하였고, 塵尾에 玄譚의 자루를 이었으니, 홍주의 대적 문하에서 지장이 가르쳐 인도하는 문을 전하고, 노국의 공자 문하에서 子夏가 스승과 제자의 도를 이운 것과 같다고 이를 만하다.)

14) 고려 경종 3년(978년)에 제작되었으며, 높이 240cm, 두께 29cm, 폭 116.5cm이다.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大師披霧之時，頻搖塵尾，上乃望風之際，甚悅龍顏。”

(대사는 안개를 헤치듯 설법할 때 빈번히 塵尾를 흔들었고, 임금이 이에 풍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용안은 매우 기뻐하였다.)

3.2 失收義項

1) 【知識】 善知識의 줄임말.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지혜 있고, 덕망 있는 고승을 지칭함.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碑’：“俄而追遊衡岳，參知識之禪居，遠至漕溪，禮祖師之寶塔，傍東山之遐秀，採六葉之遺芳，四遠參尋，無方不到。”

(얼마 후 형악을 찾아 노닐어 선지식이 참선하는 거처를 배알하고, 멀리 조계산에 이르러 6조 혜능의 보탑을 배례하였으며, 동산 홍인의 먼 자취를 가까이 하여 6조의 남은 행적을 찾았으며, 사방 먼 곳까지 찾아봐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葛陽寺惠居國師碑’¹⁵⁾：“於是戒珠明朗，法器泓澄，雅厭匏系，振衣遐舉，博訪知識，益究玄乘。”

(이에 계율의 구슬이 밝고 법의 그릇이 깊어 문득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여 옷깃을 떨치고 멀리 가서 지식을 널리 찾아 현묘한 수레를 더욱 궁구하였다.)

2) 【竹馬】 어린아이들이 타고 노는 대나무로 만든 놀이 기구. 대개 7세 전후 나이를 가킨다.

‘瑞雲寺了悟和尚真原塔碑’：“及乎竹馬之期，漸有牛車之量，凡爲嬉戲，必表殊常。”

(죽마놀이를 할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대승의 도량이 있어, 무릇 장난을 칠 때에도 반드시 예사롭지 않은 일이 드러났다.)

3) 【藥宮】 불교사원.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大師言曰：身歸松徑，心在藥宮，仰戀

15) 고려 성종 13년(994년)에 제작되었다.

龍顏，唯祈鳳祚而已。”

(대사가 말하기를“몸은 절에 돌아가더라도 마음은 사원에 있으면서 용안을 우러러 그리워하며 오직 대왕의 복을 빌 뿐입니다.”)

4) 【玄契】 玄은 불교, 契는 깨달음, 즉 佛理의 깨달음을 말한다.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大師默而許之，潛愜玄契。”

(대사가 말없이 허락하니 은밀히 현계에 들어맞았다.)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纔留一句，密付心要，受茲玄契，如蕩德餅。”

(겨우 열흘을 머물렀는데 마음의 요체를 비밀히 부촉 받고 현계를 받았으니 마치 덕병을 쏟은 것과 같았다.)

5) 【玄譚】 經論을 강의하기에 앞서 제목, 지은이, 大意 따위를 설명하는 말.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忽聽玄譚，盡去煩襟之悶，仍承雅況，終懷瑩慮之規。”

(문득 현묘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번뇌에 시달리는 마음이 모두 제거되고 인하여 우아한 모양을 받들면 마침내 마음공부의 규범을 품게 되었다.)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至於指示玄譚，敷陳厚旨，或蔽在學徒之口，或懸於僧史之言者也。”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 보이고 두터운 뜻을 베풀어 이르러서는 학도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승사의 말에 실려 있는 자로다.)

4. 補充用例書證

《한어대사전》의 예증은 역대 어느 사전보다 풍부성과 전형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몇몇 어휘의 예증에 있어 명백한 결함과 누락은 의미해석과 의항의 오류를 가져오게 되며, 《한어대사전》의 전체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증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辭書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한어대사전》에 나타난 불충분 예증을 비

문과의 비교를 통해 보충 설명 하려 한다.

1) 【披雲】 설법.

《漢語大詞典》

‘北史·傳·徐則’：“故遣使人，往彼延請……希能屈己，佇望披雲。”

《羅末麗初金石文》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披雲之際，奉對龍顏曰：‘國富民安，不讓於骨庭之境.’”

(설법할 때 용안을 받들어 말하기를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들이 편안한 것은 골정의 경계에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境清禪院慈寂禪師凌雲塔碑’：“上欽仰禪德，覺速口十培之英，奉承道風，申親受三歸之禮.”

(임금께서는 선사의 덕을 흠양하여 다른 이보다 열 배나 빼어남에 깨달았고 도풍을 받들어 계승하여 친히 삼귀의 예를 폈다.)

2) 【師子】 부처.

《漢語大詞典》

舉孤證前蜀貫休《寄大願和尚》詩：“自憐亦是師子子，未逾三載能嘖呻.”

《羅末麗初金石文》

‘廣照寺真澈大師寶月乘空塔碑’：“禪宗之胤，代代堂堂，人中師子，世上法王.”

(대대로 서로 이어 그 모습이 당당하니, 사람 중의 부처이고, 세상의 법왕이로다.)

3) 【香華】 부처님 앞에 올리는 향과 꽃.

《漢語大詞典》

《法華經·序品》：“香華伎樂，常以供養.”

《羅末麗初金石文》

‘廣照寺真澈大師寶月乘空塔碑’：“土庶闡川，香華溢穀，送終之盛，前古所無者矣.”

(사인과 서인들이 나를 메우고 향과 꽃은 계곡에 가득했으며, 대사를 떠나보내는데 성대함이 옛날에 없던 일이었다.)

4) 【隱霧】 안개 속에 은둔함을 나타냄.

《漢語大詞典》

唐錢起《歸義寺題震上人壁》詩：“堯皇未登極，此地曾隱霧。”

《羅末麗初金石文》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每以注目山川，欲擇終焉之地，隱霧之志，懇到聞天，上莫阻道情，潛憂生別，思惟良久，久乃許焉。”

(안개 속에 숨고자 하는 뜻을 임금에게 간절히 말하니, 임금은 도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어, 속으로는 살아서의 이별을 근심하였지만, 한참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떠날 것을 허락했다.)

5) 【繼明】 계속해서 밝음을 이어나감.

《漢語大詞典》

唐劉禹錫《武陵書懷五十韻》：“繼明懸日月，出震統乾坤。”

《羅末麗初金石文》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承其讓者大寂，嗣其思者石頭，石頭傳於藥山，藥山傳於雲巘，雲巘傳於洞山，洞山傳於雲居，雲居傳於大師，傳法繼明，煥乎本籍。”

(그 회양을 이은 자는 大寂이고 행사를 이은 자는 石頭인데, 석두는 藥山에게 전하고, 약산은 雲巘에게 전했으며, 운암은 洞山에게 전했고, 동산은 雲居에게 전했으며 운거는 대사에게 전했으니, 법을 전하여 밝음을 이었음은 本籍에 분명하다.)

5. 結語

王力은 “각각의 語義는 언제 생겨나서 언제 소멸 되었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비록 古今書籍의 한계로 그 語義가 처음 생겨난 著作 시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시기보다 늦지 않다는 것만은 단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¹⁶⁾고 하였다. 어휘는 뚜렷한 시대성을 가지고 있

16) 王力, 〈新訓詁學〉, 《龍蟲並雕齋文集》(中華書局, 1980年), 358쪽. “我們對於每一個語義, 都應該研究它在何時產生, 何時死亡. 然古今書籍有限, 不能十分確定某一個語義必系產生在它首次出現的書的著作時代, 但至少我們也可以

다. 특히 辭書의 집필은 어휘가 반영하는 시대적 특징을 주의하여야 한다. 辭書에서 예증은 항목을 나열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된다. 《漢語大詞典》 편찬 시 예증의 첫 항목은 문헌 중에서 가장 앞선 예를 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대 문헌의 방대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여러 예증의 단어들이 실제 연도보다 적게는 백년에서 많게는 수 천 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예증의 滯後는 《漢語大詞典》의 분명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어휘의 근원은 漢語史 연구의 중요한 한 방면으로 《漢語大詞典》의 예증에 있어 이러한 부족한 점을 단시간 내에 수정, 보완해 내긴 어렵다. 그러므로 수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노력 하에 언젠가는 각각의 義項이 최초로 쓰인 연대를 분명히 하여 대형 역사성 言語辭書의 완성을 기대해본다.

[參考文獻]

- 韓國歷史研究會編, 《羅末麗初金石文(上,下)》(慧眼出版社, 1996).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
陸宗達, 王寧, 〈文獻語義學與辭書編纂—古代文獻詞義的探求〉, 《辭書研究》(1982).
呂林湘, 〈《漢語大詞典》的性質和重要性〉, 《辭書研究》(1982-3).
王安全, 〈《漢語大詞典》的例句運用〉, 《辭書研究》(1986-6).
羅竹風, 《漢語大詞典》(漢語大辭典出版社, 1993).
汪靜山, 《金石大字典》(河北人民出版社, 1991).
王云路, 〈漢魏六朝語言研究與辭書編纂〉, 《辭書研究》(1992-7).
梁曉紅, 〈論佛教詞語對漢語詞匯寶庫的擴充〉, 《杭州大學學報》(1994-4).
謝芳慶, 〈試論《漢語大詞典》體系〉, 《安徽師大學報》, (1997-1).
汪仁壽, 《金石大字典》(天津古籍出版社, 2002).

斷定它的出世不晚於某時期。”

- 住继愈, 《佛教大辭典》(江蘇古籍出版社, 2002).
- 张 箭, 〈佛教对汉语文字词汇的影响〉, 《成都大学学报》(2004-2).
- 罗维明, 〈论中古墓志对辞书编撰的重要价值〉, 《语言科学》(2004-2).
- 魏平, 〈试论汉魏南北朝墓志的语言研究价值〉, 《乐山师范学院学报》(2006-3).
- 王脉, 〈佛教对汉语词汇影响的探析〉, 《东疆学刊》(2007-1).
- 박재연, 《中朝大辭典》(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 葛城末治, 《朝鮮金石攷》(아세아문화사, 1978).

[論文摘要]

《羅末麗初金石文》能夠較好反映地當時語言面貌, 對漢語言文字學研究來說, 是一塊亟需發掘的寶藏. 《漢語大詞典》代表了當今漢語詞彙研究的最高水平, 但由於書成於衆人之手, 所以難免會有一些疏漏. 《羅末麗初金石文》對《漢語大詞典》編纂的作用, 主要表現在提早書證、補充失收詞條或義項、糾正釋義錯訛、補充用例書證四個方面, 本文結合《羅末麗初金石文》, 論述了《漢語大詞典》在處理相關詞條時所存在的收列詞條、解釋意義、列舉書證等各方面的問題, 希望能為《漢語大詞典》的訂補提供一些有價值的參考.

關鍵詞: 《羅末麗初金石文》, 《漢語大詞典》, 收詞, 釋義, 書證

투고일: 2008. 6. 30.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현대한어 ABB식 형용사의 어법기능에 관한 연구

김명자*

〈 목 차 〉

1. 서론
2. ABB식 형용사의 구성 특징
 - 2.1 構詞法 ABB식 형용사
 - 2.2 構形法 ABB식 형용사
3. ABB식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
 - 3.1 ABB식 형용사의 수식 및 사용 특징
 - 3.2 ABB식 형용사의 어법특징
 - 3.3 ABB식 형용사의 어법 기능
4. 결론

1. 서론

형용사는 단순형용사와 합성형용사로 구분하는데 합성형용사는 다시 실질형태소(實詞素)와 실질형태소의 합성,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虛詞素)의 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형태소와 실질형태소의 합성은 聯合式, 偏正式, 支配式, 主謂式¹⁾이 있으며,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의

* 동의과학대학 국제관광계열 관광중국어전공 조교수(chinaxing@korea.com)

합성은 前加虛詞素와 後加虛詞素가 있는데 ABB식 형용사 “白茫茫, 黑沉沉, 冷颼颼, 金燦燦, 水汪汪”은 바로 실질형태소 “白, 黑, 冷, 金, 水”에 형식형태소 “茫茫, 沉沉, 颼颼, 燦燦, 汪汪”을 더하여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ABB식 형용사는 構詞法²⁾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ABB식 형용사는 2음절 형용사 “孤單, 白淨, 悽慘, 年輕, 水靈”에 “單, 淨, 慘, 輕, 靈”을 중첩하여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것은 형용사 뒷음절의 형태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즉 構形法³⁾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본고는 構形法에 의해 이루어지는 ABB식 형용사이든 構詞法에 의해 이루어지는 ABB식 형용사이든 모두 3음절 형용사라 간주하고, 그들을 성질형용사, 상대형용사와 비교했을 때의 구조 및 통사적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ABB식 형용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2. ABB식 형용사의 구성 특징

ABB식 3음절 형용사의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朱德熙⁴⁾는 1982년에 이미 ABB식 형용사를 논한 바 있으며 ABB식 형용사의 BB를 접미사(後綴)라 하였다. 그 후 呂叔湘⁵⁾ 陳光磊⁶⁾ 역시 “ABB식 형용사는 접미사를 가진 형용사이며 BB는 접미사이다.”⁷⁾라고 하였다.

-
- 1) 張壽康, 《構詞法和構形法》(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1), pp.26~52.
 - 2) 張壽康, 《構詞法和構形法》(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1), p.9. “構詞法”就是咱們語言中詞的構造規則的學問.
 - 3) 張壽康, 《構詞法和構形法》(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1), p.58, “構形法”主要研究對象是詞形變化.
 - 4)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出版社, 1982), p.73.
 - 5)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北京: 商務出版社, 1994), p.12.
 - 6) 陳光磊, 《漢語詞法論》(上海: 學林出版社, 1994, 第1版), p.43.
 - 7)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出版社 1982), p.73.

張壽康⁸⁾은 “ABB식 형용사의 BB는音が 중첩된 형식형태소(虛詞素)”라 하였다. 또한 張壽康은 《構詞法和構形法》⁹⁾이라는 책에서 “형식형태소”를 “前加虛詞素”와 “後加虛詞素”로 분류한 바 있는데 “前加虛詞素”는 “접두사(前綴)”이고 “後加虛詞素”는 “접미사”라 하였다. 즉, 張壽康의 ABB식 형용사의 BB에 대한 견해는 呂叔湘과 같이 접미사라는 것이다. 辛尙奎, 周成은 《試論ABB式形容詞》¹⁰⁾에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같이 BB를 접미사라 하였고 더 나아가 접미사인 BB가 자립형태소인지 의존형태소인지에 대하여 분류하고 ABB식 형용사의 의미 특징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葛本儀¹¹⁾, 鄭夢娟¹²⁾ 등은 ABB식 형용사를 構形法에 의해 이루진 것인지, 構詞法에 의해 구성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필자도 이에 따라 ABB식 형용사 중에서 모든 AB가 하나의 詞로 되는 것은 構形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반대로 AB가 詞로 되지 않고 형태소와 형태소의 합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構詞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간주하고 그들의 구성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構詞法 ABB식 형용사

構詞法으로 이루어진 ABB식 형용사는 어근 A에 접미사 BB를 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ABB식 형용사의 구성 특징에 대해서는 어근 A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한 논문들¹³⁾도 있고, 접미사 BB에 주안점을 두

8) 張壽康, 《構詞法和構形法》(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1), p.51.

9) 張壽康, 《構詞法和構形法》(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1), p.57.

10) 辛尙奎, 周成, 《試論ABB式形容詞》, 《內蒙古大學出版社, 1989, 第4期), pp.101~102.

11) 葛本儀, 《現代漢語詞彙學》(濟南: 山東人民出版社, 2001), pp.32~45.

12) 鄭夢娟, 《ABB式形容詞研究》(武漢大學碩士論文, 2004), pp.6~10.

13) 郝文華, 《ABB式形容詞構詞方式》(湖北: 科教文匯, 2006. 9), p.60.

王玉梅, 《論ABB式形容詞的語法功能和構式》(杭州: 淮陰師範學院學報, 2002.5), p.695.

고 연구한 논문들¹⁴⁾도 있다. 본 논문의 연구중점은 ABB식 형용사의 어법기능에 관한 연구이고 또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어근 A에 따른 분류,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것만을 언급하였다.

2.1.1. A는 형용사이고 주로 성질형용사이다.

(1) 甜絲絲, 苦巴巴, 臭烘烘	(맛, 냄새)
(2) 白茫茫, 灰蒙蒙, 藍晶晶	(색채, 명도)
(3) 冷冰冰, 暖乎乎	(감촉)
(4) 圓鼓鼓, 滿登登	(형태, 부피)
(5) 軟綿綿, 沉甸甸	(질감, 상태)
(6) 傻呵呵, 嬌滴滴	(성격, 성질)

A가 나타내는 의미는 맛과 냄새, 색채와 명도, 사람의 감촉, 사물의 형태와 부피, 사물의 질감과 상태, 사람의 성격과 성질 등이다.¹⁵⁾

이런 성질형용사 A가 BB와 결합하여 ABB식 형용사가 되었을 때 그 의미특징은 기본적으로 A와 같다. 예(2) “白茫茫” 중 “白”은 색채를 나타내고 “白茫茫”도 색채를 나타낸다. 예(1) “甜絲絲”의 “甜”과 “甜絲絲”은 모두 맛을 나타낸다. 때로 ABB는 A가 표현하는 속성 외에 다른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2) “藍晶晶”의 “藍”은 색채를 나타내지만 “藍晶晶”은 색채에다 명도를 더하였다. 이것은 BB로 인하여 추가된 의미이다.

14) 辛尙奎, 周成, 《試論ABB式形容詞》,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9年 第4期), pp.101~107.

申跃, 《淺談ABB式形容詞結構及特点》(濟南: 语言文字修辭, 基礎教育版, 2006, 第11期) pp.123~124.

이병미, 《現代中國語 ABB式 形容詞研究》(서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 김선례, 《現代한어 ABB식 형용사의 의미연구》(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27~37.

2.1.2. A는 동사이고 주로 자동사이다.

笑嘻嘻, 樂悠悠, 醉醺醺, 哭咧咧들이 이에 속한다. 그 중 일부 A는 어휘로 보기 힘들고 동사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喜滋滋, 怒衝衝 등이 이에 속한다. A는 사람의 감정 혹은 구체적인 동작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怒衝衝, 樂呵呵 (감정)
 (8) 哭噥噥, 笑嘻嘻 (동작)

예(7)~(8)의 A는 원래 동사인 데 BB를 추가하여 형용사가 되며 A라는 동작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 “怒衝衝”의 “怒”는 “화가 나다”는 뜻이고 “怒衝衝”은 “크게 화난 모양”을 나타내며 “笑嘻嘻”의 “笑”는 “웃다”의 뜻이고 “笑嘻嘻”는 “정중하지 못하게 웃는 모습”을 나타낸다. 동작을 나타내는 A에 BB를 추가하여 A와는 다른 동작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BB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2.1.3. A는 명사이고 대부분이 구체적인 명사이다.

“汗津津, 水淋淋, 眼巴巴, 油汪汪, 膽突突, 霧矇矇, 泪汪汪” 등이 이에 속한다. 명사 A는 BB를 추가하여 형용사가 되고 이 명사와 관련된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낸다. “肉墩墩”은 “사람이 아주 살찌고 튼튼한 모양”을 “毛蓬蓬”은 “풀 혹은 털이 촘촘하면서 마구 헝클어진 모양”을 나타낸다. 원형 A에 추가된 의미는 역시 BB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필자는 《現代漢語詞典》¹⁶⁾ 및 중간본의 338개 ABB식 형용사를 살펴 본 결과 A가 형용사형태소인 것은 259개, 동사형태소인 것은 25개, 명사형태소인 것은 53개였다. 즉 A명+BB로 구성된 ABB식 형용사가

1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北京: 商務出版社, 1996)

A동+BB로 구성된 ABB식 형용사보다 수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한 개의 명사가 서로 다른 BB를 추가하여 많은 ABB식 형용사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水 — 水汪汪, 水淋淋, 水津津, 水鹿鹿
(10) 汗 — 汗津津, 汗淋淋, 汗鹿鹿, 汗漬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A형+BB형이고, ABB식 형용사의 79%를 차지한다.

2.2 構形法 ABB식 형용사

構形法 ABB식 형용사는 2음절 형용사 AB의 뒷음절 B가 중첩된 것이다. 예:

- (11) 甜蜜→甜蜜密, 空洞→空洞洞, 悽慘→悽慘慘, 蓬松→蓬松松

또한 2음절 어휘의 앞뒤 음이 도치되고 원래의 앞 음절이 중첩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다.

- (12) 漆黑→黑漆漆, 通紅→紅通通

우리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전자를 “AB+B”식으로, 후자를 “BA+B”식으로 표기한다.

2.2.1 AB+B식

呂叔湘은 《現代漢語八百詞》에서 “ABB식 형용사는 A+BB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AB에서 B를 중첩하여 구성된 것도 있다. 예를 들

면 ‘孤單單’이 이에 속한다.”¹⁷⁾ 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런 ABB식 형용사를 AB+B로 분류하여 연구하며, 어근은 AB이고 뒷음절 B를 중첩하여 ABB식 형용사가 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런 ABB식 형용사의 내부구조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吳文義는 《現代中國語形容詞重疊形態研究》에서 “ABB식 형용사인 “甜密密, 空洞洞, 孤單單”을 A/BB로 나누기도 하고 AB/B로 나누기도 하였다. 즉 단음절 형용사 “甜, 空, 孤”에 중첩음 “密密, 洞洞, 單單”을 덧붙여 “甜密密, 空洞洞, 孤單單”으로 되기도 하고, 2음절 형용사 “甜蜜, 空洞, 孤單”의 뒷음절이 중첩되어 “甜密密, 空洞洞, 孤單單”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¹⁸⁾ 물론 이 논문은 형용사 중첩을 다른 각도에서 연구한 논문이지만 “甜密密, 空洞洞, 孤單單”을 3음절 형용사의 각도에서 보았을 때 ABB를 A/BB로 본 것인지 아니면 AB/B로 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辛尙奎, 周成은 《試論ABB式形容詞》에서 “ABB식 형용사 중 BB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A/BB 혹은 AB/B로 그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¹⁹⁾고 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ABB식 형용사 중 AB로 전환 가능한 형용사를 모두 AB+B로 구성된 것이라 간주하고 이들의 내부구조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 | | |
|---------------|---------------|
| (13) 蓬松松 → 蓬松 | (14) 冷清清 → 冷清 |
| (15) 悽慘慘 → 悽慘 | (16) 嬌嫩嫩 → 嬌嫩 |
| (17) 年輕輕 → 年輕 | (18) 水靈靈 → 水靈 |
| (19) 熱乎乎 → 熱乎 | (20) 軟乎乎 → 軟乎 |
| (21) 乾巴巴 → 乾巴 | (22) 皺巴巴 → 皺巴 |

위의 예문에서 우리는 원형 AB의 구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예

17)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北京: 商務出版社, 1994), p.638.

18) 吳文義, 《現代中國語形容詞重疊形態研究》(韓國放送通信大學校, 論文集第16輯, 1993), pp.103-110.

19) 辛尙奎, 周成 《試論ABB式形容詞》(內蒙古: 內蒙古大學出版社, 1989, 第4期), p.105.

(13)~(16)은 AB의 조어형태가 연합식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AB₁로 표기하기로 한다. AB+B형 ABB식 형용사 155개중에서 AB가 연합식인 것은 모두 144개로 構形法으로 이루어진 ABB식 형용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AB₁+B로 구성된 ABB식은 보통 AABB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白淨淨 → 白白淨淨, 孤單單 → 孤孤單單, 悽慘慘 → 悽悽慘慘, 蓬松松 → 蓬蓬松松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은 AABB식이 이음절 형용사의 중첩형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의어로 구성된 연합식 형용사의 중요한 중첩형식이다. 그러나 AABB식의 AB₁이 모두 ABB식 중첩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²⁰⁾ 이를 통해 우리는 2음절 형용사 AB의 주요 중첩형식은 AABB식임을 알 수 있다.

예(17)~(18)에서는 AB가 주술식 합성어로 이 경우를 AB₂로 표기하기로 한다. AB₂는 155개 중 11개로 그 수가 매우 적다. 대부분의 AB₂는 ABB식의 중첩이 없다.²¹⁾ 또한 대부분의 경우 AABB식 중첩형식이 없지만 水靈靈 → 水水靈靈, 油膩膩 → 油油膩膩, 年輕輕 → 年年輕輕 등 AABB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외도 있다.

예(19)~(22)에서 AB는 하나의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를 덧붙인 파생어로 본고에서는 이를 AB₃으로 표기한다.

AB₃+B로 구성된 ABB식 형용사는 보통 AABB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熱乎乎 → 熱熱乎乎, 乾巴巴 → 乾乾巴巴, 皺巴巴 → 皺皺巴巴로 전환할 수 있다.

AB₃+B로 구성된 일부 ABB식 형용사는 원형이 AB가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臭乎乎는 臭乎로, 咸乎乎는 咸乎로, 酸乎乎는 酸乎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문장의 구성으로 보면 “臭乎, 咸乎, 酸乎”는 “熱乎”, “輕乎”와 다름없지만 현대한어에 이와 같은 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 乾淨 - 乾乾淨淨 - *乾淨淨, 清楚 - 清清楚楚 - *清楚楚
明白 - 明明白白 - *明白白

21) 性急 → *性急急, 面熟 → *面熟熟, 眼紅 → *心疼疼 → *心疼疼

AABB식의 중첩형식도 없다. 따라서 “臭乎乎, 咸乎乎”와 같은 이런 ABB식 형용사는 AB+B식으로 분석할 수 없고, A+BB식으로 분석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現代漢語詞典》에는 “乎”가 형용사의 접미사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모든 형용사에 접미사를 덧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기한 “臭乎”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臭乎乎”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乎乎”가 하나의 접미사이고 이것은 접미사 “乎”에서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변형과정은 ① “熱”, “軟” 등 단음절 형용사에 접미사 “乎”를 붙여 “熱乎”, “軟乎”가 되고, ② “熱乎” 등이 다시 중첩되어 “熱乎乎” 등으로 되며, ③ 많은 단음절 형용사들이 “熱乎乎” 형식을 모방하여 “A乎乎” 즉 “臭乎乎, 咸乎乎, 酸乎乎, 濕乎乎” 등으로 되고, ④ 소수의 명사에도 “乎乎”를 붙여 “A乎乎—油乎乎, 肉乎乎”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乎”가 변천되어 접미사 “乎乎”가 된 것이다. “乎乎”의 언어 구성능력은 “乎”보다 더 강하므로 “熱乎乎”, “軟乎乎”를 AB+B로 분석하는 것보다 “A+BB”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2.2. BA+B식

이런 종류의 ABB식 형용사는 앞에서 언급한 두 종류보다 그 수가 적다. 그러나 하나의 특수 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구분을 위해 이런 형용사의 원형을 BA로 표기한다.

黑漆漆(ABB) → 漆黑(BA)

紅通通(ABB) → 通紅(BA)

위 BA식 형용사는 편정식 합성어이다. 그들은 “很, 太, 最” 등과 같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대만 학자 湯延池는 “通紅, 噴香, 漆黑, 冰涼”과 같은 것을 가리켜 “全量形容詞”²²⁾라 칭하였다. 朱德熙는 이들을 “특수 형용사”라 일컬으면서 “앞음절은 이미 원래의 의미

를 상실하였고 前加成分에 가깝다. 왕왕 後加成分으로 전환이 가능하다.”²³⁾고 하였다.

이런 종류의 ABB식 형용사는 앞에서 이야기한 “黑漆漆, 紅通通”외에 “香噴噴—噴香, 白煞煞(白雲雲)—煞白(雲白), 濼湛湛—湛濼, 瘦精精—精瘦, 圓滾滾—滾圓, 硬梆梆—梆硬, 直溜溜—溜直, 黑幽幽—幽黑, 綠油油—油綠, 紅鮮鮮—鮮紅” 등이 있다.

3. ABB식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

하나의 단어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와 특징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고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려면 이 단어를 문장 속에 넣어서 고찰해야 한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어떤 문장 속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어법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될 때 어떤 제한을 받는지 등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ABB식 형용사를 성질형용사 및 상태형용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어법상의 특징을 지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1 ABB식 형용사의 수식 및 사용 특징

형용사의 주요기능은 명사를 수식하고 술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식어로서의 ABB식 형용사는 일반형용사와 차이가 있다. 아래 문장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A)

(B)

22) 湯延池, 〈國語句法中的重疊現象〉, 《國語句法研究論集》(臺灣: 學生書局, 1979), p.123.

23) 朱德熙, 《現代漢語語法研究》(北京: 北京商務印書館, 2001), pp.4~5.

青簇簇的娥眉	心理空落落的
白花花的水沫	雪地松軟軟的
白厲厲的牙齒	兩手汗津津的
亮晶晶的眼鏡片	頭髮濕漉漉的
亮堂堂的玻璃暖房	屋子黑漆漆的

위의 예문에서 우리는 ABB식 형용사가 수식을 하거나 진술하는 대상 대부분 사람의 기관이 느낄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고 혹은 만질 수 있는 사물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대부분은 구체적인 명사이고 추상 명사²⁴⁾는 아주 적은 편이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 (23) 共產黨宣言是馬克思主義活的靈魂。
- (24)*共產黨宣言是馬克思主義活生生的靈魂。
- (25) 活生生的例子
- (26) 活生生的一个人
- (27) 赤裸裸的靈魂
- (28) 紅彤彤的毛澤東思想

예(23) 중의 “活”는 성질형용사이고 이 문장은 성립하지만 예(24)는 비문이다. 예(25)~(26)은 “活”에 중첩음 “生生”을 더한 후 구체적인 명사만 수식할 수 있게 되는 예이다.

(27)~(28)과 같이 추상명사를 수식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다만 “靈魂”과 “思想”은 “赤裸裸”와 “紅彤彤”의 수식을 받고 더욱 구체적이 된다. 그러므로 ABB식 형용사는 구체적인 명사를 많이 수식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ABB식 형용사는 상태형용사이다. 상태형용사는 사물을 묘사하거나 혹은 동작이 처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허황되거나 못 보고 못 만지는 것이 아니다. ABB식 형용사의 강한 묘사성은 그가 수식하고 서술하는 명사가 구체적이며 감각적

24) 精神, 科學, 思想, 意識, 靈魂…….

일 것을 요구한다.

(A)	(B)
胖墩墩的小男孩兒	腳手架濕漉漉的
紅鮮鮮的布兜兜	天空灰蒙蒙的
厚嘟嘟的嘴唇	身子軟綿綿的
綠森森的樹葉	眼睛泪汪汪的
鬧哄哄的會議室	房里靜悄悄的

(A)조는 ABB식 형용사가 한정어가 되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식한 명사 “小男孩兒, 布兜兜, 嘴唇, 樹葉, 會議室”는 모두 실제 형태가 있는 사물이고 구체적인 명사이다. (B)조는 ABB식 형용사가 술어로써 주어틀 서술하는 것이며 그들이 서술하는 명사 “腳手架, 天空, 身子, 眼睛”도 모두 형태가 있는 구체적인 명사이다. 그러나 (B)조의 “房里”는 비록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는 아니지만 하나의 특정 공간을 가리킨다. 이 공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한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주어로서 ABB식 형용사의 서술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또 있다.

(29) 心裏空蕩蕩的。	*空蕩蕩的心裏
(30) 路上蔭森森的。	*蔭森森的路上
(31) 心里熱辣辣的。	*熱辣辣的心裏

ABB식 형용사는 술어를 수식하고 또한 주어틀 서술할 때 보통 수식하고 서술하는 명사에 구체적인 명사를 요구한다. 만약 추상명사일 경우 ABB식 형용사는 술어로서 추상적인 명사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A+BB식 형용사 중에서의 대부분의 BB는 A를 이탈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茫茫, 蒙蒙, 涔涔, 蒼蒼, 綿綿” 등이다. 이들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품사도 형용사이다. 주요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고 술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BB식 형용사가 수식하고 진술

하는 대상은 역시 사람들의 오관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A)	(B)
*茫茫的白霧	白霧茫茫
*汹汹的氣勢	氣勢汹汹

(A)조의 BB식 형용사는 명사의 수식어이고, (B)조의 BB식 형용사는 술어이다. 술어로 사용되는 것이 명사수식어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자유롭다. “白霧茫茫”은 성립하지만 “茫茫的白霧”는 비문이다.

그러나 “白霧茫茫”과 같은 이런 ABCC식 주술구 중에서 AB 중의 A 혹은 B를 취소하면 ABB식 형용사가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2) 白霧茫茫 - 白茫茫, 霧茫茫
- (33) 眼淚汪汪 - 泪汪汪
- (34) 煙霧蒙蒙 - 霧蒙蒙
- (35) 氣勢汹汹 - 氣汹汹
- (36) 細雨蒙蒙 - 雨蒙蒙

위의 ABCC식 주술구와 상응하는 ABB식 형용사 중에 어느 형식이 먼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연구한 바 없으나 이 두 가지 형식 모두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적어도 이 두 가지 형식을 전환할 수 있고, 일부 ABB식 형용사는 ABCC식 주술구의 A 혹은 B음절을 생략하여 ACC 혹은 BCC로 전환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 “細雨蒙蒙”과 같은 주술구 중의 BB식 형용사와 그가 수식하고 서술하고자 하는 명사와의 결합은 고정적인 것이다. 즉 ABB식 형용사와 그가 수식하고 서술하고자 하는 명사와의 결합도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고정적이며, 의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묘사성의 제약도 받는다.

3.2 ABB식 형용사의 어법특징

3.2.1 ABB식 형용사는 비교문장 속에서 술어로 쓰일 수 없다.

형용사의 주요 어법기능은 술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

- (37) 他的个子高。
- (38) 那个房間漂亮。
- (39) 屋子里冷清清的。
- (40) 他的臉紅扑扑的。

“高”는 1음절 형용사이고, “漂亮”은 2음절 형용사, “冷清清, 紅扑扑”는 3음절 형용사이며 모두 문장 속에서 술어이다. 그러나 “冷清清, 紅扑扑”와 같은 3음절 형용사 뒤에는 모두 “的”를 붙였다. 만약 “屋子里冷清清”, “他的臉紅扑扑”라 하면 비문이 된다. 아래 문장들을 비교해보자.

- (41) 價錢合理, 質量也好。
(가격이 합리적이고 질도 좋다.)
- (42) 這片草地綠, 那片草地黃。
(이쪽 잔디밭은 푸르고, 저쪽 잔디밭은 누렇다.)
- (43) 她的目光亮晶晶的, 絲毫没有一点羞澀。
(그녀의 반짝거리는 눈빛은 조금의 수줍음도 없었다.)
(《中篇小說選刊》1985)
- (44) 山, 青翠翠的, 山頂山坳, 覆蓋著綠葉。
(산은 푸르고 산봉우리와 산언덕에는 푸른 잎이 뒤덮여 있다.)
(譚談, 《山道彎彎》)

예(41)과 (42)는 성질형용사 “合理, 好, 綠, 黃”이 술어로 쓰인 것이고 비교와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43)과 (44)에서는 ABB식 상태형용사 “亮晶晶, 青翠翠”가 술어가 되며 비교와 대조의 뜻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전형적인 비교문 형식인 “A比B……”에서 A와 B는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이며, “……” 부분은 대부분 형용사술어이나 다른 구조일 수도 있다. 비교문 속에 나타나는 형용사술어는 보통 1음절 혹은 2음절의 성질 형용사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5) 她比他大。
- (46) 這朵花比那朵花紅。
- (47) 他比他老實。

위의 술어 “大, 紅, 老實”는 모두 성질형용사이다. 단음절이든 다음절이든 술어가 될 때 비교와 대조의 의미가 있고, 보통 비교문에 사용된다. 왜냐하면 성질형용사가 술어로 쓰일 때 사물의 정태적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교가 있어야 사물이 어떤 속성을 갖는 부분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ABB식 형용사는 상태형용사이며 이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비교문의 형용사술어는 두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BB식 형용사가 술어가 될 때 짧은 시간 동안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비교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ABB식 형용사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 외에 이런 속성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혹은 감정색채를 암시하는데 속성에 대한 묘사여서 보통 비교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3.2.2 ABB식 형용사는 부정사“不”、“沒”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ABB식 형용사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고, 정도의 강화나 약화 혹은 적당한 것 등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다시 이에 대한 부정을 나타낼 수 없다. ABB식 형용사는 어근 A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정도의 강화를 나타내며 어근 A앞에 “很”자를 붙인 것과 같다.

“沉甸甸”은 “很沉”이고, “湿淋淋”은 “很湿”과 같다. 아래 문장들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 (48) 這個包袱沉甸甸的。
- (49) 這個包袱很沉。
- (50) 這個包袱不沉。
- (51) 這個包袱不很沉。
- (52)*這個包袱不沉甸甸的。

위 문장 중에서 (48)~(51)은 정문이고, (52)는 비문이다. 예(48)과 예(49)는 긍정문이고, 예(50)과 예(51)은 부정문이다. 의미면에서 볼 때 예(48)과 (49)는 나타내는 뜻이 비슷하고 (50)과 (51)은 많이 다르다. 예(50)은 일반 부정문이고 “不”는 술어형용사 “沉”을 부정한다. 예(51)의 “不”가 부정하는 것은 “沉”이 아니라 “很”이다 즉 “不很沉”은 “아주 무겁지 않다”가 아니고 “(무거우나)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라는 것이다. 예(51)은 일반 부정문이 아니고 때로 중심술어에 대한 긍정 일 수 있다. 의미면에서 볼 때 예(50)은 예(48)~(49)의 부정문이다. 비록 예(48)의 술어 “沉甸甸的”는 묘사의 색채가 농후하고 예(49)의 “很沉”은 판단을 나타내지만 이들의 부정문은 같다. 예(52)의 ABB식 형용사는 부정부사 “不”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 비문이 된다.

원형이 BA인 ABB식 형용사(漆黑-黑漆漆)도 둘 다 부정문에 사용 할 수 없다. “他的手不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他的手不冰涼”이라고는 할 수 없다. “冰涼”, “雪白”와 같은 형용사는 첫 음절이 접두사에 가까운 글자로, “冰涼”은 “很涼”이란 뜻이고, “雪白”는 “很白”란 의미이다. 이미 긍정의 뜻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고로 부정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BA+B로 구성된 ABB식 형용사도 자체가 이미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문에 사용 될 수 없다.

3.2.3 ABB식 형용사는 정반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ABB식 형용사는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형용사 술어문은 주어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고 문미에 “嗎”를 넣어 의문문을 만들 수 없다. “他是韓國人”은 “他是韓國人嗎?”로 말할 수 있는데 “他是韓國人”의 술어 “是”는 판단을 나타내며 판단은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문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這個包袱沉甸甸的”는 묘사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색채를 띄고 있다. 이 평가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화자의 견해를 서술의 형식으로 표현해 내었기 때문에 문미에 “嗎”를 붙여 의문을 나타낼 이유가 없다. 또한 ABB식 형용사는 정반의문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BB식 형용사는 “不”의 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반의문문에도 사용될 수 없다.

- (53) 這個包袱沉甸甸不沉甸甸?
- (54) 孩子的臉紅扑扑不紅扑扑?

그러나 “這個包袱沉甸甸嗎?”, “孩子的臉紅扑扑嗎?”는 가능한데 이는 다만 “沉, 紅”의 속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ABB식 형용사는 “(主語)是不是…(述語)? 의문문에는 사용할 수 있다.

- (55) 你說, 他的手是不是涼水水的?
- (56) 今天的風是不是冷颼颼的?

위 두 문장의 술어는 모두 주어를 묘사하는 것이고 또한 묘사 이외에 주관적인 평가가 함유되어 있다. “是不是”와 같은 이런 선택의문문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나 견해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水開了嗎?”와 같은 시비의문문과는 다르다. “水開了嗎?”는 단순한 의문이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것은 아니다.

3.2.4 ABB식 형용사는 명령문에서 보어로 쓰일 수 없다.

명령문(祈使句)은 요구, 명령, 금지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예를 들면 “請坐!”, “部隊立即出發!”, “場內禁止吸煙!”과 같은 문장이다. 또“請把屋子收拾乾淨.”, “請把收音機開大一點兒”, “把書撿起來!”등과 같이 보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보어는 보통 형용사 혹은 동사이고 주관적인 평가의 의미가 없다. ABB식 형용사는 주관평가의 색채를 지니므로 의미가 상충되어 보어가 될 수 없다. 아래 문장을 살펴보자.

- (57) 一抹晚霞，從窗口斜射進來，把屋里照得亮堂堂的。
(한줄기 저녁노을이 창으로 비추어 들어와 집안을 밝게 비추었다.)
(譚談, 《山道彎彎》)
- (58) 樹叢綠得發黑，被夕陽照得油光光的。
(나무숲은 푸르러 검정빛이 돌며 석양에 비취 빛난다.)
(付星, 《這嘈雜的日子》)

예(57)~(58)의 ABB식 형용사 “亮堂堂, 油光光”은 문장 속에서 보어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서문에 나타난 보어이지 명령문(祈使句)은 아니다.

3.2.5 ABB식 형용사는 감탄문에 사용될 수 없다.

감탄문은 비교적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문장이다. 감탄문은 “真、好、可、簡直、多麼、何等、怎樣” 등 강조 의미가 강한 어휘가 동반되며 감탄을 표시한다. 강조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ABB식 형용사는 본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강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예를 들면 “多麼可愛的春天啊。”는 “可愛”를 강조하고 “可愛”는 “春天”의 속성이다. 그러나 ABB식 형용사는 묘사를 나타내고 아주 강한 주관색채를 나타내며

로 “多麼紅彤彤的太陽!”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강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지 어떤 사물의 일부분에 대해 자신의 강렬한 감정만을 드러낼 수 있다.

3.2.6 ABB식 형용사는 무주어 형용사술어문에서 술어로 쓰일 수 없다.

무주어 형용사술어문은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에 어조를 추가하여 구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好!”, “多美啊!”, “美極了!”와 같은 것이다. ABB식 형용사도 역시 형용사지만 무주어 형용사술어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紅彤彤!”, “白茫茫!”이라 할 수 없다. 비록 ABB식 형용사 뒤에 “的”를 붙여 “紅彤彤的!”, “白茫茫的!”라고는 해도 보통 앞의 경우처럼은 사용하지 않는다. ABB식 형용사의 선명하고 두드러진 묘사 색채는 본인이 묘사하고자 하는 말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무주어 형용사술어문은 보통 감탄을 표시하여 ABB식 형용사를 제한하기도 한다. 만약 무주어 형용사술어문이 감탄을 표시하지 않고 문답형 문장일 때는 문장 속에서 술어가 될 수 있다.

- (59) A: 今天怎麼樣?
 B: 冷飈飈的。
 (60) A: 哎, 看到太陽了嗎? 什麼樣兒?
 B: 嘿! 紅彤彤的!

ABB식 형용사가 묘사하는 사물은 앞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고 또한 ABB식 형용사는 묘사의 의미 이외에 구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예(59)에서는 “오늘은 따뜻하지 않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예(60)에서는 “태양은 뿌영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冷飈飈”, “紅彤彤”은 모두 성질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순수한 묘사는 아니다.

3.2.7 ABB식 형용사는 “是”자문에 사용될 수 있다.

ABB식 형용사는 “是”자문에 사용될 수 있다. 예:

- (61) 麥田是紅油油的。
- (62) 秦淮河的水是碧陰陰的。(朱自清, 《漿聲燈影里的秦淮河》)

예(61)~(62) 두 문장은 “是”가 중심어인 “是”자 판단문이다. 문장에서 판단작용을 한다. 예(61)~(62)의 ABB식 형용사는 주어에 대한 묘사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판단의 뜻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위의 두 문장에서 ABB식 형용사가 직접 술어가 되면²⁵⁾ 판단의 뜻을 함유하지 않고 단지 "麥田"과 "秦淮河"를 묘사할 뿐이다.

3.2.8 ABB식 형용사는 술어로 사용될 때 사물의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동태적이다.

ABB식 형용사는 사건을 서술하는 과장에서 문장의 술어가 될 수 있으며 사물의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또 동태적이다. 예:

- (63) 公所里靜悄悄的, 只聽見隔壁院子里, 孩子們在唱。
(집안은 조용하고, 옆집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만 들린다.)
(孔厥, 《新兒女英雄傳》)
- (64) 平時人來人往, 五天一个集, 顯得很熱鬧, 可是這時卻死沉沉的。
(평소에는 사람들이 드나들며 5일마다 시장이 열리는데 아주 시끌벅적하지만 이때는 오히려 아주 적막하였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65) 這時, 天空灰蒙蒙的, 雨天遲到的黎明, 已經降落到了山村。

25) 麥田綠油油的。秦淮河的水碧陰陰的。

(이때 하늘은 어둑어둑하였고, 비 내리는 날 뒤늦게 찾아온 여명이 산
촌에 내려앉았다.)

(譚談, 《山道彎彎》)

위의 예는 ABB식 형용사가 술어로 쓰이는 것이다. ABB식 형용사는
상태형용사이고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동태적이고 항상 잠재적인
가변성을 나타낸다. 성질을 나타내는 A 혹은 AB와는 다르다. 성질형용
사가 술어로 되는 것은 정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나타낸다.

보통 ABB식 형용사가 술어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동태적이고, 성질형용사가 술어가 되는 것은 사물의 영원한 속성을 나
타내며 정태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또한 형용
사가 서술하는 명사주어와 관련 있다. 예를 들면,

- (66) 這種寶石藍瑩瑩的, 十分可愛。
(이런 보석은 푸르게 빛나며 아주 귀엽다.)
(67) 最近雞蛋挺便宜。
(최근에 계란은 아주 싸다.)

예(66)에서는 “藍瑩瑩的”가 술어가 되며 “寶石”의 정태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예(67)에서는 “便宜”가 술어가 되는 것이 꼭 일종의 잠재된
“가변성”을 함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때 술어의 성질은 그가 서술
하는 명사주어와 관련이 있다. 예(66)의 주어는 “寶石”이고 이것의 색
채와 명도는 그 자체의 정태적이고 고유한 속성이다. 예(67)의 주어는
“雞蛋”이고 그 가치는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술어는 성질형용
사지만 역시 잠재적인 가변성을 나타낸다.

3.3 ABB식 형용사의 어법 기능

보통 형용사의 어법기능은 문장 속에서 한정어(定語), 술어(謂語), 부
사어(狀語), 보어(補語)가 되는 것이다. 또한 “的”를 추가하여 주어, 목

적어가 될 수 있다. ABB식 형용사도 이런 어법기능을 가질 수 있다.

3.3.1 ABB식 형용사는 한정어가 될 수 있다.

보통 형용사, 특히 단음절 형용사는 명사를 제한하고 분류하는 성질이 아주 강하고 “的” 없이 직접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紅花, 大桶, 白紙” 등과 같다. 그러나 1음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제한하고 분류하는 역할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白雪”는 “黑雪, 綠雪, 紅雪” 등이 없어 “白”가 “雪”의 분류 기준이 될 수 없고 “雪”의 속성이 된다. 이것은 제한성 수식어가 아니고 묘사성 수식어이다. 그러므로 단음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 할 때 제한성을 가질 수도 있고 묘사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수식을 받는 명사와 아주 큰 관계가 있다. 그러나 ABB식 형용사는 상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다. 만약 결합하려면 반드시 “的”를 붙여야 한다.

(68) 圍牆以外, 便是樹林子和綠油油的菜地。

(담 벽 외에 숲과 푸른 채소밭이다.)

(傅星《這嘈嘈雜雜的日子》)

(69) 啊, 下雪了, 亮閃閃的白点兒, 在燈光照不到的夜色中發光。

(아, 눈이 내렸네요. 반짝거리는 흰점들이 등불이 비추지 못한 곳에서 빛나네요.) (《當代》1993. 4)

(70) 到了碼頭, 眼前展開白茫茫的海水, 許多漆上了顏色的筏子, 泊在那里。

(부두에 도착하자 눈앞에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다. 색을 칠한 수많은 뗏목이 그곳에 정박해 있었다.) (巴金, 《巴金代表作品選》)

만약 명사 앞에 수량사가 있고 ABB식 형용사가 이 수량명사구 앞에 놓여 질 때 “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71) 山前面黑幢幢一大片建築，吐著黑色濃煙的地方，不正是宮門嗎？
(산 앞에 한 무더기의 새까만 건축물들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곳이 바로 궁문이 아닙니까?)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72) 茶爐前排了長蛇隊，都是拿著桶、壺打水的。亂哄哄一片吵鬧聲。
(차를 끓이는 난로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모두 물통이나 주전자를 들고 물을 길는데 시끌벅적 한바탕 떠드는 소리가 난다.) (《當代》1985.2)
- (73) 那嬰兒，只露出毛茸茸的一個黑頭。
(그 아이는 머리카락 수북한 머리만 드러내었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74) 趙貴望著那黑壓壓的一片園子。
(자오꾸이는 시커먼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다. “毛茸茸一個黑頭。”와 “毛茸茸的一個黑頭。”에서 전자는 “毛茸茸”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일반 한정어와 중심어의 관계이다. 특별히 “毛茸茸”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식하는 명사를 묘사 할 뿐이다.

수량사가 특정 상황에서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 될 경우 ABB식 형용사는 직접 이 수량사를 수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75) 他遠遠地就看見一隻隊伍從售票處透進而出，黑壓壓一片。
(그는 한 단체가 매표소에서 구불구불 나오는데 새까맣게 한 무리 같은 것을 멀리서 보았다.) (《收穫》1991.5)
- (76) 而伴同前去冒險的，只有這方才學話的孩子，簡直等於孤零零一個。
(함께 모험하러 간 사람은 금방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 뿐, 그야말로 외로이 한 사람인 것과 같다.) (葉聖陶, 《夜》)

예(75)의 “一片”은 “一片人群”을, 예(76)의 “一個”는 “一個人”을 대표하였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과 다른 점은 ABB식 형용사가 수량사구(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량사구)를 수식할 때는 일반적으로 “的”를

붙이지 않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的”를 넣는다.

3.3.2 ABB식 형용사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朱德熙는 “형용사로 구성된 동사 수식어는 동작의 방식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수식어는 묘사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다. 26) 그러므로 보통 성질형용사는 동사 수식어가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ABB식 형용사는 상태형용사이므로 부사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항상 부사어가 된다. 부사어가 될 때 보통 “地”를 붙인다.

(77) 人們撐雨傘，穿著雨衣，擠公共汽車，擠商店，怒冲冲地挨在一起。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비옷을 입고 있으며, 버스에서도 뭉비고, 상점에서 뭉비고, 화난 양 바짝 붙어있다.)

(傅星, 《这嘈嘈杂杂的日子》)

(78) 四个人冒著塞北寒夜的頸风，靜悄悄地赶路。
(네 사람은 엄동설한의 강풍을 맞으며 조용하게 길을 재촉하였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79) 金竹披散著頭髮，紅腫著眼睛，坐在一張竹椅子上，垂著頭，痴呆地看著地下。
(찔주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이 붉게 부은 채 대나무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를 숙이고 멍하게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
(譚談, 《山道彎彎》)

ABB식 형용사가 부사어가 될 때 “地”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80) 在這狂歡的氣氛里，只有喬納生孤單單地站著，充滿了鄙夷和氣憤。
(이 광란의 분위기속에 차오나성만 고독하게 서 있는데 경멸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張軍, 《張愛玲散文全編》)

26) 朱德熙, 〈現代漢語形容詞研究〉(《中國語文》, 1956), p.24.

- (81) 韓春光簡單說了一句，轉身急匆匆走了。
(한춘광은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몸을 돌려 급히 가 버렸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82) 我赤裸裸來到這個世界上，轉眼也將赤裸裸地回去。
(나는 벌거벗은 채 이 세상에 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벌거벗은 채 돌아가야 한다.)
(朱自清, 《匆匆》)

ABB식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地”를 붙이거나 혹은 안 붙이는 것은 명사(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수식할 때 “的”를 붙이는 상황과 비슷하다. ABB식 형용사가 명사(수량사 수식을 받는 명사)를 수식할 때 “的”를 붙이지 않으면 ABB를 강조하는 것이고 “的”를 추가하면 이런 강조의 의미 없이 단지 명사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이다. 마찬가지로 ABB식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地”를 붙이지 않을 경우 역시 ABB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81)의 “韓春光…，轉身急匆匆走了。”는 가는 방식이 “急匆匆”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轉身急匆匆地走了” 중의 “急匆匆”은 동사 “走”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이다. 위의 예(82)는 이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앞 절 “我赤裸裸來到這個世界上”은 특별히 “…赤裸裸~來”의 상태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뒷 절 “轉眼也將赤裸裸地回去”의 “赤裸裸”는 단지 “回去”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이고 앞절처럼 특별한 강조의 의미는 없다.

3.3.3 ABB식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ABB식 형용사가 보어로 될 때 뒤에 어기조사“的”를 붙여야 한다.

- (83) 貝小奇的心一下子變得空落落的。
(베이사오치의 마음이 갑자기 텅 비었다.)
(《當代》 1985.3)
- (84) 不知什麼時候天已變得陰沉沉的。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날은 이미 어두침침하게 변하였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85) 安妮，你到銀行工作以後，人變得冷冰冰的。
(안니, 너는 은행에서 일한 후로 사람이 차갑게 변했어.)
(《當代作家》1993.3)

위의 네 문장은 모두 ABB식 형용사가 보어가 되는 것이며, 그 뒤에 일반적으로 “的”를 붙여야 하는데 “的”는 긍정을 나타내고 문장을 종료하는 역할을 한다.

2음절 형용사 AABB식은 보어가 될 때 “的”를 쓰지 않아도 된다.

- (86) 把人打扮得整整齊齊，到碼頭上去接她。
(사람을 단정하게 단장하여 부두에 가서 그녀를 마중하게 하였다.)
(巴金, 《巴金代表作品選》)
- (87) 家家戶戶都把門關得嚴嚴實實，好象沒住人。
(집집마다 문을 꼭 닫아두어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88) 把李財對他們家的剝削仗算得清清楚楚。
(리차이가 그의 집을 착취하는 빚을 말끔히 청산하였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ABB식 형용사가 보어가 될 때는 반드시 “的”를 붙여야 하지만 중첩형 AABB식이 보어가 될 때는 “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음절수와 어기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중국어는 2음절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ABB는 3음절이고 “的”를 붙이면 4음절이어서 읽기에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물론 AABB식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때 “的”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他長得白白靜靜的”, “大門關得嚴嚴實實的”는 음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긍정적인 어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3.3.4 ABB식 형용사는 술어 역할을 할 수 있다.

朱德熙는 “형용사 술어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繫詞가 있는 형

용사 술어구와 繫詞가 없는 형용사 술어구가 있다”고 하였다. 27) ABB식 형용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 (89) 她似乎傻乎乎的, 實則憨厚、純正、爽直。
(그녀는 멍청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충실하고 순수하며 시원하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90) 關莉仍然沒有回答, 兩只眼睛淚汪汪的。
(관리는 대답하지 않고 두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小說月報》 1999.8)
- (91) 倘若下雨, 那么建筑物和馬路都是濕淋淋的, 失去光彩。
(만약 비가 내리면 건물과 큰길은 모두 축축해지고 빛을 잃는다.)
(傅星, 《這嘈嘈雜雜的日子》)
- (92) 西湖的夏夜老是熱蓬蓬的, 水象沸著一般。
(서호의 여름밤은 늘 후덥지근한데 마치 물이 끓고 있는 것 같다.)
(朱自清, 《漿聲燈影里的秦淮河》)

위의 예(89)~(90)은 繫詞가 없는 형용사 술어구이고, (91)~(92)는 繫詞가 있는 형용사 술어구이다. 繫詞가 없는 형용사 술어문 중 “的”는 문미 어기사이고 긍정의 어감을 나타낸다. 또한 ABB에 “的”를 붙이면 4음절이 되어 중국어의 음율 규칙에 맞다. 繫詞가 있는 형용사 술어문 중 “是”는 판단사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분은 체언성이고 ABB 뒤의 “的”는 구조조사이다.

ABB식 형용사가 술어로 될 때 “的”가 없는 것도 있다.

- (93) 灰色的雲, 一層層、輕飄飄、像烟似的。
(회색 구름이 한 층 한 층 두둥실 떠 있는 것이 마치 연기 같다.)
(丁玲, 《丁玲代表作品選》)
- (94) 什麼感覺也沒有, 乾巴巴, 想發吐。
(아무 감각도 없고 바싹 마른 것이 토하고 싶다.)
(《中篇小說選刊》 2005.1)

27) 朱德熙, 〈現代漢語形容詞研究〉(《中國語文》, 1956), p.45.

위의 두 예문에서 ABB식 형용사가 술어로 될 때 “的”가 없는 것은 음절의 병렬구 “一層層”, “想發吐”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一層層、輕飄飄、乾巴巴、想發吐”는 모두 3음절이고 읽기에 순조롭다. 위의 두 문장은 모두 繫詞가 없는 형용사 술어문이고, ABB 뒤의 “的”는 문미 어기조사이다. 때로는 음절의 조화로움을 고려해서 “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繫詞가 있는 형용사 술어문 중 ABB 뒤의 “的”는 구조조사이고 ABB식 형용사가 체언적 특성을 갖게 한다. 판단사 뒤에 놓인 “的”는 생략할 수 없다.

3.3.5 ABB식 형용사는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음절 형용사에 “的”를 붙여 체언성 어구가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紅的、綠的、大的、小的” 등과 같이 이들은 모두 “數量詞組” 혹은 “指量詞組”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어나 술어가 될 수 있다. ABB식 형용사에 “的”를 붙인 것에 관하여 朱德熙는 복합형용사의 문제를 논할 때 이 문제를 “謂詞性結構”라 하였으나²⁸⁾ 필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ABB식 형용사는 “的”를 붙여 “的”자구를 만들고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95) 藏民兄弟喜歡乾巴巴的。粘湖湖、濕瘩瘩的他們不吃。

(장족 형제들은 마른 것을 좋아하고 찰득거리고 축축한 것은 먹지 않는다.) (《中篇小說選刊》 2005.1)

(96) 說著說著那个胖乎乎的走過來了。

(말을 하다가하다가 그 뚱뚱한사람이 걸어 왔다.)

(《中篇小說選刊》 2005.1)

(97) 打開一看，里面黃燦燦的是一條金鏈子。

(열어보니 안에서 노랗게 빛나는 것은 금목걸이었다.)

(孔厥, 《新兒女英雄傳》)

28) 朱德熙, 〈現代漢語形容詞研究〉(《中國語文》 1956), p.94.

예(95)의 “乾巴巴的”는 목적어, “粘湖湖、濕瘡瘡的”는 주어이고, 예(96)의 “胖乎乎的”도 주어, 예(97)의 “黃燦燦的”도 주어이다. 이것은 ABB식 형용사에 “的”를 붙인 것으로 일반 1음절 형용사에 “的”를 붙인 것과는 다소 다르지만 주어 혹은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朱德熙가 언급한 것처럼 “체인성구조가 아니고 용언성구조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1음절 형용사에 “的”를 붙이는 것은 어법상 성질형용사에 “的”를 붙인 것이다. 성질형용사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므로 “구별의미”를 나타내고 “的”을 붙이면 指稱性を 지니며 체언성구조로 문장 속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 ABB식 형용사에 “的”를 붙인 것은 어법상 상태형용사에 “的”를 붙인 것이다. ABB식 형용사는 주관 평가의 색채가 농후하여 “평가의미”를 갖고 있고 이 평가 또한 사물의 속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에 “的”를 붙여 역시 指稱性を 지니며 문장 속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ABB식 형용사에 “的”를 붙인 것 역시 체언성구조라고 본다.

그밖에 ABB식 형용사가 “的” 없이 직접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 (98) 法國人的思想是有名的清楚， 他們的文章也明白乾淨， 但是他們的故事， 無不混亂、肮脏、喧嘩， 但看這船上的亂糟糟。
 (프랑스사람들의 사상은 유명하게 확실하며 그들의 문장도 명확하고 깔끔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혼잡하고 더럽고 시끄럽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배위의 험클어진 모습을 보세요.) (錢種書, 《圍城》)
- (99) 白匪兵， 正緊張， 東東瞄瞄， 西望望， 忽然背後一聲響， 腰間頂上一個硬梆梆。
 (일본 백정병들이 긴장하여 이리저리 두리번거릴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더니 허리춤에 딱딱한 것이 부딪쳤다.)
 (梅小山 等, 《洪湖赤衛隊》)

ABB식 형용사가 직접 주어가 되는 예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론

상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ABB식 형용사는 모두 중국어의 6대 문장성분이 될 수 있다. 사용 빈도에 따라 한정어·부사어·술어·보어·목적어 혹은 주어 순이다.

한정어·부사어·繫詞(계사)가 있는 형용사술어문에서 술어·주어 혹은 목적어가 될 때 ABB식 형용사의 “的”는 구조조사이고, 보어·無繫詞 술어 중의 술어가 될 때 ABB식 형용사 뒤의 “的”는 문미 어기조사이다.

4. 결론

이상의 분석으로 ABB식 형용사의 구성특징과 통사론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ABB식 형용사는 크게 構詞法과 構形法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構詞法에 의해 이루어진 ABB식 형용사의 어근 A는 형용사·동사·명사로 되어있으며 그 중 어근 A가 형용사인 ABB식 형용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構形法에 의해 이루어진 ABB식 형용사의 어근 AB는 연합식과 주술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합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2. ABB식 형용사는 사람의 감각에 대한 묘사 부분이 많으며, 비교문·시비의문문·무주어 형용사술어문에서 술어로 쓰일 수 없고, “不”、“沒有”의 부정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감탄문에서 감탄, 강조의 성분이 될 수도 없고, 명령문의 보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ABB식 형용사는 “是”자문·평서문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은 ABB식 형용사의 의미상의 특징과 관련 있다. 의미상 묘사의 색채를 지니므로 수식하고 서술하는 대상은 사람의 오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명사여야 한다. 추상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를 구체화시킨다. 또 ABB식 형용사는 의미상 정도를 나타내므로 비교문·부정문·시비의문문·감탄문·무주어 형용사술어문에 사용될 수 없다.

[參考文獻]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北京: 商務出版社, 1996)
- 張壽康, 《構詞法和構形法》(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1)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北京: 商務出版社, 1994)
-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出版社, 1982)
- 朱德熙, 《現代漢語語法研究》(北京: 北京商務印書館, 2001)
- 辛尙奎, 周成, 〈試論ABB式形容詞〉,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9年 第4期)
- 黃伯榮, 廖序東, 《現代漢語(下)》(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7)
- 윤상희, 《현대중국어 형용사 중첩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湯延池, 〈國語句法中的重疊現象〉, 《國語句法研究論集》(臺北: 臺灣學生書局, 1979)
- 湯延池, 〈國語句法中的重疊現象〉, 《國語句法研究論集》(臺北: 臺灣學生書局, 1979)
- 蔣國輝, 〈關於ABB式的幾個問題〉, 《大慶師專學報》(第3期, 1989.)
- 吳文義, 〈現代中國語形容詞重疊形態研究〉, 《韓國放送通信大學校論文集》(第16輯, 1993)
- 李榮奎, 〈中國語形容詞의 重疊式에 關한 小考〉, 《尙志大學併設專門大學論文集》(第9輯)
- 邵敬敏, 〈ABB式形容詞動態研究〉, 《世界漢語教學》(第1期, 1990)
- 이병미, 《現代中國語 ABB式 形容詞研究》(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선례, 《현대한어 ABB식 형용사의 의미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 郝文華, 《ABB式形容詞構詞方式》(武漢: 科教文匯, 2006. 9)
- 王玉梅, 〈論ABB式形容詞的語法功能和構式〉, 《淮陰師範學院學報》(2002)

葛本儀, 《現代漢語詞彙學》(濟南: 山東人民出版社, 2001)

鄭夢娟, 《ABB式形容詞研究》(武漢大學碩士論文, 2004)

[中文摘要]

ABB式形容詞是現代漢語形容詞中的一種特殊形式, 其特殊性體現在詞的構成, 意義, 以及在句子中的語法功能。

本文談詞的構成時, 從構形法和構詞法兩方面入手, 分析其內部組合規律, 進一步探討ABB式形容詞, 何時詞根是A, 何時詞根是AB, 併根據詞根特點, 給ABB式形容詞分類, 談其在句子中表示的意義。因ABB式形容詞詞根的性質和特性, 使其在語法功能上與性質形容詞有所不同。

本文通過對大量語言材料的分析, 總結出了ABB式形容詞, 在一定條件下, 可在句子中作主語, 謂語, 賓語, 狀語, 定語, 補語六大句子成分。並研究出了ABB式形容詞不能在比較句、是非疑問句、形容詞非主謂句中作謂語, 不能受“不”“沒有”的否定, 不能出現在祈使句補語的位置, 不能充當感歎句中被強調, 感歎的成分。

關鍵詞: ABB式形容詞 構詞法 構形法 語法功能 結構

투고일: 2008. 6. 29.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語法等級大綱》의 체계상 한계점 고찰 -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위수광*

〈목 차〉

1. 들어가기
2. 《語法等級大綱》
 - 2.1 제정배경
 - 2.2 제정원칙
 - 2.3 체계
3. 《語法等級大綱》의 체계상 한계점
 - 3.1 문법단위
 - 3.2 등급분포와 배열
 - 3.3 등급 간의 계통성
 - 3.4 표현의 일관성과 명확성
4. 나오기

1. 들어가기

세계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어의 수요도 증가하고, 중국어 교육사업도 크게 확장되고 있다. 또한 중국내의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내의 중국어 학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강사(wsk5072@hanmail.net)

습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종 교육 자료와 교재도 시대에 부응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 자료와 교재들의 대부분은 한국인 학습자의 학습목적이나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중국 상황에 맞춰 만들어졌거나,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 만들어 졌다. 특히 이런 자료들의 문법항목 배열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아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의 중국어 교육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통일된 기준과 문법등급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용진(2005)은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문법¹⁾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는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²⁾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상황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모국어인 한국어인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로서의 ‘학습등급’과 ‘어법등급’이 나와야 된다.³⁾

여기서 언급된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은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 汉语水平考试部에서 제정한 중국어 교육기준이자 문법등급요강이다. 이는 한족의 어문교육, 소수민족과 외국인의 한어⁴⁾ 교육에 대한 기준을 서언부분의 ‘성질’과 ‘용도’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본고에서는 동일한 개념인 문법과 어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대외한어어법, 학교문법 등이 그러하다.
- 2)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 汉语水平考试部 刘英林主编,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高等教育出版社, 1996). 이하 인용문 외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을 《语法等级大纲》으로 줄여 부른다.
- 3) 엄익상·박용진, 《중국어 교육 어떻게 할까》(한국문화사, 2005), 134쪽.
- 4) 본고에서 ‘한어’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구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외는 ‘중국어’로 사용한다.(단, 대외한어교육은 제외)

1. 성질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은 규범적인 등급기준과 수준요강이다.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은 세계적인 대외한어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용도

(1) 대외한어교육의 교육설계(总体设计), 교재편집(教材编写), 강의(课堂教学), 평가(课程测试)를 하는 데 주요 기준이 된다.

(2) 중국 국가 급 한어 수준고사(HSK 초·중·고등 포함) 출제의 주요 근거가 된다.

(3) 중국 소수민족의 한어교육, 초·중등 어문 교육 및 기타 관계된 표준화된 언어 시험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4) 대외한어교육과 보통어 4급 문법 등급요강 편집 시 해석 및 컴퓨터 어휘자료집, 문법자료집 등의 범위가 되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위의 내용에서 《语法等级大纲》의 적용대상은 비 한어권인 소수민족과 초·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중국인(한족) 그리고 모든 외국인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교육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아마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어느 나라의 학습자에게도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유형학적으로 다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 학습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로 인한 《语法等级大纲》의 적용상의 문제와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습득 특징으로 인한 문제를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본고에서는 《语法等级大纲》을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교육에 적용하였을 때의 나타나는 체계상의 한계점을 한국어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일부 예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語法等級大綱》

《汉语水平等级标准与等级大纲》의 제정배경에 대해 吕必松(1990)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언어교육의 전 과정과 전체 교육활동을 교육설계, 교재편집, 강의, 평가로 나누었다. 이는 언어교육의 거시적인 인식을 향상시켰고, 맹목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과학적인 교육체계를 세워서 각 교육활동의 표준화, 세분화된 방향으로 발전을 촉진시켰다. 또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汉语水平等级标准与等级大纲》을 제정했다.⁵⁾

대외한어교육의 필요에 의해 1988년에 《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⁶⁾이 제정되었고, 이어 1992년에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이전에 제정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을 제정하였다.

본장에서는 연구대상인 《语法等级大纲》(《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을 만드는 기준이 되었던 《标准》(《汉语水平等级标准》⁷⁾)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본 후, 《语法等级大纲》의 원칙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标准》은 3등 5급 3요소의 기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3등은 ‘초·중·고등’수준이고, 5급은 ‘1급~5급’이며, 3요소는 ‘화제내용’, ‘언어범위’, ‘발화능력’이다.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8) 《标准》의 기본형식과 주요내용

초 등	1급	话题内容 (화제내용)	语言范围 (언어범위)	言语能力 (발화능력)
	2급			
중 등	3급	초등1급의 예) *가장 기본적인	초등1급의 예) *보통어 전체	초등1급의 예) *초보적인 읽기, 듣기,

5) 吕必松, 《对外汉语教学发展概要》,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0), 121쪽 참조.
 6) 中国对外汉语教学学会 汉语水平等级标准研究小组, 《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试行]》(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88).
 7) 이하 《汉语水平等级标准》을 《标准》으로 줄여 부른다.

고 등	4급	일상생활, 제한적 학습활동, 간단한 사회교제	성, 운, 조 甲级词: 1033개 甲级字: 800개 甲级语法: 129항목	말하기, 쓰기 능력구비 *초보적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구비
	5급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급별로 3가지 언어요소에 해당되는 기준을 정성, 정량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기준을 토대로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 《语法等级大纲》이 제정되었다. 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语法等级大纲》의 甲级문법에서 예로 쓰인 어휘들은 《词汇等级大纲》의 甲级词로 사용하여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표2〉에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표2〉 9) 《标准》与《语法等级大纲》, 《词汇等级大纲》, 《汉字等级大纲》

	《标准》	《词汇大纲》		《汉字大纲》		《语法大纲》	
初 等	一级标准	甲级词	1033个	甲级字	800种	甲级语法	129项
	二级标准	乙级词	2018个	乙级字	804种	乙级语法	123项
中 等	三级标准	丙级词	2202个	丙级字	601种	丙级语法	400点
高 等	四级标准	丁级词	3569个	丁级字	700种	丁级语法	516点
	五级标准						

8) 刘英林, 〈关于“汉语水平等级标准”的几个问题〉,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高等教育出版社,1995), 3쪽.
9) 刘英林, 〈关于“汉语水平等级标准”的几个问题〉,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高等教育出版社, 1995年), 9쪽.

总计	四级词	8822个	四级字	2905种	四级语法	1168 项 点
----	-----	-------	-----	-------	------	----------------

2.1 제정 배경

《语法等级大纲》도 《标准》의 기본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으나 그 문법의 이론배경은 《暂拟汉语语法教学系统》¹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暂拟系统》는 1956년에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위해 제정된 최초의 학교문법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법학계의 연구 성과를 통일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작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전통문법 체계를 따랐으며, 형태론(词法)과 통사론(句法)으로 나누고, 문장성분을 주어, 술어, 목적어, 한정어, 부사어, 보어로 구분하였다. 또한 단어(词)를 문장의 기본 단위로 하여 문장에서 중심어를 분석해내는 ‘중심어 분석법(中心词分析法)’을 이용하였다¹¹⁾.

《暂拟系统》의 체계는 이후 《汉语教科书》¹²⁾에도 대부분이 반영되었다. 《汉语教科书》는 1958년에 중국내 최초의 정식 대외한어교육 교재로 편찬되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성과로는 대외한어 체계를 확립시켰다는 것이다. 이 체계 가운데 품사, 문장성분 그리고 문장구문은 《暂拟系统》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고, 문법항목의 선정과 배열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배열되었다는 것과 중국어의 문법 특징을 외국인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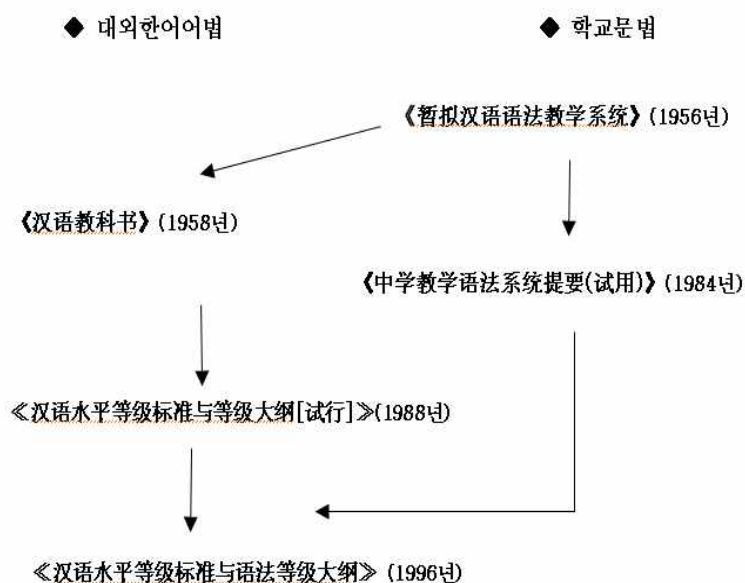
10) 张志公主编, 《语法和语法教学—介绍“暂拟汉语语法教学系统”》, (人民教育出版社, 1956年) 이하 《暂拟汉语语法教学系统》을 《暂拟系统》으로 줄여 부른다.

11) 吕文华, 〈对外汉语教学语法探索〉(语文出版社, 1994), 120쪽 참조

12) 北京大学外国留学生中国语文专修班 主编, 《汉语教科书》(时代出版社, 1958年)

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하여 문법항목을 선정하고, 해석한 것이 그러하다. 그리고 《汉语教科书》의 체계는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대외한어 문법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语法等级大纲》의 문법체계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 1>



吕文华(1994)는 《语法等级大纲》의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语法等级大纲》은 대외한어교육의 경험에 문법연구 성과를 더하고, 대외한어 교재와 교육요강의 분석을 통해 제정되었다. 또한 외국인이 중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특징과 규칙에 중국어 문법차체의 특징을 결합하여 제정하였다. 또한 어려운 점과 중요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

였으며,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별 수용능력과 교육적 요구에 중점을 두었다¹³⁾.

이렇게 제정된 《语法等级大纲》은 시대 변화에 따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또한 《暂拟系统》이 《中学教学语法系统提要(试用)》¹⁴⁾으로 수정, 보완된 내용¹⁵⁾을 첨가하였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추가된 내용¹⁶⁾ 등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2 제정원칙

《语法等级大纲》의 제정원칙은 连续继承原则, 纳新发展原则, 分级定位原则, 循环递进原则, 系统协调原则, 综合过度原则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문법내용을 선정하여 제정하였음을 서언에서 설명하였다.

刘英林, 李明(1997)¹⁷⁾은 이들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连续继承原则¹⁸⁾은 통시적인 연속성과 등급 간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2. 纳新发展原则¹⁹⁾은 기본적으로 시대에 맞아야 하고, 이론연구의

13) 赵金铭, 《对外汉语教学概论》(商务印书馆, 2005), 37쪽.

14) 人民教育出版社中学语文室, 《中学教学语法系统提要(试用)》(人民教育出版社, 1984年)

15) 예로 语素, 词组, 句群的 교육내용 강화되었다.

16) 예로 离合词的 교육내용을 첨가, 회화 문법 교육 내용 첨가되었다.

17) 刘英林·李明, 〈《语法等级大纲》的编制与定位〉, 《语言教学与研究》第4期(1997).

18) 위의 논문, 90~92쪽 참조. 《汉语教科书》(1958)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대외한어교육의 우수한 전통을 잇는 연속성과 《语法等级大纲》(1988)의 정량적인 등급배열로 상호간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19) 위의 논문, 90~92쪽 참조. 교육문법이 《暂拟汉语语法教学系统》(1956)에서 《中学语法教学系统提要(试用)》(1984)로의 발전과 현대 한어 문형의 통계와 분석이 심화 발전도 여기에 속한다. 또 《语法等级大纲》의 중·고급 단계의 문법교육에 새로운 내용과 요소를 추가한 것도 여기에 속한다.

발전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3. 分级定位原则²⁰⁾은 3등· 4급· 5층차의 새로운 대외한어 교육문법체계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4. 循环递进原则²¹⁾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 복잡한 것은 간단한 문법항목이나 문법요소의 뒤에 배열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제2언어교육의 습득 특징과 규칙에 맞아야 한다.
5. 系统协调原则²²⁾은 외적인 체계와 내적인 체계는 서로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원칙이다.
6. 综合过度原则²³⁾은 《语法等级大纲》을 제정하고, 수정하는데 8년의 시간을 소비하였으나 여전히 과도적인 등급요강에 속한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语法等级大纲》이 제정되었지만, 이 원칙들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했지 《语法等级大纲》을 제정한 세부적인 기준은 刘英林(1997)나 《语法等级大纲》의 서언 외에 다른 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3 체계

-
- 20) 위의 논문, 90~92쪽 참조. 등급배열시 다른 항목과 다른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배열하고, 같은 항목과 같은 내용은 그냥 배열한다. 또 '상호보완 원리'에 따라 초· 중· 고등의 모든 등급에 주요부분은 부각시키며, 각각의 특색을 갖추도록 한다.
 - 21) 위의 논문, 90~92쪽 참조. 초·중등과 고등의 등급 사이의 항목은 단계적으로 심화되어야 하고, 중요한 항목의 난이도는 단계적으로 심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중요한 항목 중에서 어려운 항목과 쉬운 항목들도 단계적으로 심화되어야 한다.
 - 22) 위의 논문, 90~92쪽 참조. 외적인 체계로는 《标准》과 《词汇与汉字大纲》, 《语法等级大纲》, HSK가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내적인 체계로는 3등4급의 문법항목과 문법요소들 간에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같은 등급의 문법과 어휘, 한자도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 23) 위의 논문, 90~92쪽 참조. 문법등급이 3급에서 5급으로 확장되어 그럴듯한 체계를 갖추었지만, 아직 완전하고 과학적인 체계는 아니다. 또한 《语法等级大纲》의 제정과 수정도 여전히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더 깊이 있게 꾸준히 연구하여 완성도 있고,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赵金铭(2005)은 《语法等级大纲》의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등급별 문법내용이 적절하고, 등급 구분이 합리적이며, 체계적이고 세부적이다. 또한 중요한 것과 어려운 것을 적절히 다루었으며, 실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과 용도를 잘 고려했으며, 문법항목의 선정이 잘 소개가 되었다.²⁴⁾

《语法等级大纲》의 체계는 《标准》에서 제시한 3요소(화제내용, 언어범위, 발화능력)의 기준에 맞는 내용을 3등(초, 중, 고등), 4급(甲, 乙, 丙, 丁级)의 체계에 맞게, 각 등급에 해당하는 문법항목이나 요소가 배열되었다. 세부적인 《语法等级大纲》의 문법 등급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문법 등급도

初等水平		中等水平	高等水平
甲级문법	乙级문법	丙级문법	丁级문법
129항목(项)	123항목(项)	400요소(点)	516요소(点)
		형태소	형태소
품사	품사	품사	품사
구		구	
	고정구	고정구	구의 구성
	고정형식	고정형식	고정구
	고정형식	고정형식	고정형식
문장성분	문장성분	문장성분	
문장분류			
특수문형	특수문형	특수문형	특수문형
의문문			

24) 赵金铭, 《对外汉语教学概论》(商务印书馆, 2005), 36쪽.

수 표기법			
강조법	강조법		
동작의 태		동작의 태	
		반어문	반어문
		회화형식	회화형식
복문	복문	복문	복문
			다중복문
			문단

〈표3〉을 살펴보면, 초등수준은 甲級, 乙級문법으로 나뉘었다. 그 중의 甲級은 129개의 문법항목으로, 乙級문법은 123개의 문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수준에 해당하는 丙級문법은 400개의 문법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수준의 丁級문법은 516개의 문법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 등급의 문법유형²⁵⁾으로는 ‘형태소’, ‘품사’, ‘구’, ‘구의 구성’, ‘고정구’, ‘고정형식’, ‘문장성분’, ‘문장분류’, ‘특수문’, ‘의문문’, ‘수 표기법’, ‘강조법’, ‘동작의 태’, ‘반어문’, ‘회화형식’, ‘복문’, ‘다중복문’, ‘문단’ 등의 문법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들 문법유형의 하부구조로 1,168개의 문법항목과 문법요소가 甲, 乙, 丙, 丁級으로 나뉘어서 등급별로 배열되어 있다.

이들 유형 가운데 ‘품사’, ‘구’, ‘구의 구성’, ‘고정구’, ‘고정형식’, ‘문장성분’, ‘문장분류’, ‘복문’ 등은 《暫擬系統》, 《中學教學語法系統提要(試用)》, 《漢語教科書》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유형은 중국어 특징을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소’, ‘문단’은 《暫擬系統》(1956), 《漢語教科書》(1958)에서는 다루지지 않았고, 《中學教學語法系統提要(試用)》(1984)에서 다루진 것으로 보아 시대적인 연구 성과로 인해 새로 추가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조법’, ‘동작의

25) 본고에서는 문법 등급도에 제시된 문법내용들을 ‘문법유형’으로 통칭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이들을 ‘문법항목’으로 명하나 실제 《語法等級大綱》에서의 문법단위인 ‘문법항목’과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태', '반어문' 등은 《汉语教科书》와 《语法等级大纲》에서 다뤄진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유형이고, 이와 같이 《语法等级大纲》에서만 다뤄진 '수 표기법', '회화형식', '다중복문'등도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새로 추가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语法等级大纲》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문법단위', '등급분포 및 등급배열' 그리고 '기술방식'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문법단위

《语法等级大纲》의 문법단위²⁶⁾는 '문법항목(语法规项)'과 '문법요소(语法规点)'로 나뉜다. 초급단계인 甲, 乙級에서의 문법단위는 '문법항목'이고, 중·고급 단계인 丙級, 丁級에서의 문법단위는 '문법요소'이다.

賈甫田(1989)은 《语法等级大纲》에서의 문법항목과 문법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법항목'은 전체 문법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을 범주화하고, 문법범주나 문형의 체계를 개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교재 내에서 문법주석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반면, '문법요소'는 문법항목과 달리 비교적 단순하고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유무가 문법체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교재에서 주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²⁷⁾

《语法等级大纲》의 서언에서는 문법항목과 문법요소에 대한 정의나 구분은 없이 단지 수정, 보완된 내용²⁸⁾만을 언급하였다.

26) 본고에서 '문법항목'과 '문법요소'를 통칭하여 '문법단위'로 한다.

27) 賈甫田, 〈《语法等级大纲》(试行)对几个关系的处理〉, 《世界汉语教学》(1989)

28) 《语法等级大纲》의 서언에 제시된 수정,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乙級の '문법요소'를 '문법항목'으로 바꾸면서 甲級の 문법단위와 일치시켜 초·중수준의 문법요강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乙級の 각각의 문법항목은 기본

그럼 사용된 문법단위의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예〉 문법단위

문법단위	문법항목	문법요소
품사 (명사)	[甲001] 1. 일반명사 妈妈, 教室, 词典, 自行车, 水平, 精神	[丙056] 人群(书本, 车辆, 纸张) [丙057] 一带 [丙058] 上旬(中旬, 下旬)

위의 예에서 [甲001]에서 “妈妈, 教室”등은 각각의 문법요소인데 이들은 ‘일반명사’라는 공통된 특징으로 범주화하여 ‘문법항목’으로 쓰였다. 하지만 [丙056~058]에서 각각의 명사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으로 귀납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형식인 ‘문법요소’로 배열되었다.

이로서 여러 ‘문법요소’의 공통된 특징을 범주화하여 하나의 문법형식으로 귀납할 수 있는 것은 ‘문법항목’이 되고, 독립된 형식으로 어느 특정한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것은 ‘문법요소’로 쓰인다. 그러므로 ‘문법항목’은 ‘문법요소’의 상위 개념임을 알 수 있다.²⁹⁾

(2) 등급분포 및 등급배열

등급분포에 대해서 吕文华(1992)와 赵金铭(2005)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였다.

적으로 해석이 요구되며, 甲级의 문법항목과는 다르다.

29) 이미혜,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연구》(박이정, 2005), 40쪽. 문법항목과 문법요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법항목(grammar entries)이란? 문법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유형화 한 항목으로서 단일 형태소로 된 구성도 있고, 복합 형태로 이루어진 구성도 있다. 즉, 문법항목은 문법 교육을 위해 구성된 모든 구체적인 항목을 가리킨다." "문법요소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를 말한다. 선정한 문법요소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적절한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문법 항목을 이룬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甲級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어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갖추고 있다. 乙級에서는 甲級문법을 보충, 확대, 심화하여 ‘고정구’, ‘고정형식’을 첨가시켰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가장 상용적인 내용을 실었다. 丙級에서는 ‘형태소’, ‘회화형식’, ‘반어문’을 추가하여 한층 더 심화하였다. 丁級은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의 구성’, ‘다중복문’, ‘문단’등 고급단계의 문법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단락’과 ‘복문’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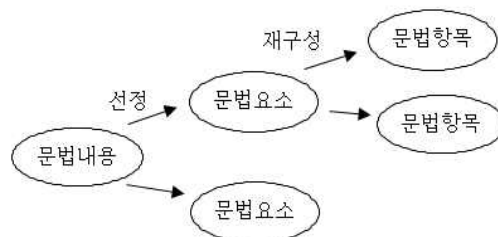
이와 같은 내용은 <표3>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甲級에서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문법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기본적인 문법유형인 ‘품사’, ‘문장성분’, ‘문장분류’, ‘특수문’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의 학교문법 체계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강조법’, ‘수 표기법’까지 배열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乙級에서는 甲級の 내용을 심화, 보충하여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甲級에 비해 어휘항목이 훨씬 더 많다.

丙級에서는 학습자에게 조어법의 이해를 돕고자 ‘형태소’를 추가하였으며,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반어문’, ‘회화형식’도 추가하였다.

<그림2> 문법 항목 도출 과정



30) 赵金铭, 《对外汉语教学概论》(商务印书馆, 2005), 36쪽. 吕文华, <对《语法等级大纲》(试行)的几点意见,>, 《语言教学与研究》第3期(1992).

丁級에서는 丙級에 비해 난이도 높은 조어법의 내용을 다룬 ‘구의 구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문장’의 범위에서 벗어나 ‘단락’으로 확대한 ‘다중복문’, ‘단락’을 다루어 의사소통능력과 읽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语法等级大纲》의 등급배열에 대해 赵金铭(2005)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语法等级大纲》에서 문법항목은 세부적으로 나뉘서 열거되어 있다. 이는 단지 문법체계의 특징에 맞춰서 배열된 것일 뿐이지, 교육이나 교재순서도 아니고, 외국인의 중국어 습득 순서도 아니다.³¹⁾

이를 통해 《语法等级大纲》의 등급배열은 난이도와 습득순서와는 무관하게 전체 문법항목과 문법요소가 각 등급이 배열되어 있으며, 단지 등급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뿐이지 한 등급내의 배열은 학습단계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급배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품사’, ‘복문’, ‘특수문’ 등은 전 등급에 배열되어 있고, ‘구’, ‘고정구’, ‘고정형식’, ‘강조법’, ‘반어문’, ‘회화형식’ 등은 등급의 난이도에 맞추어서 일부 등급에만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문장 분류’, ‘의문문’, ‘수표기법’은 甲級에만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한 등급에만 배열되어 있는 문법단위를 제외하고, 두 등급이상 분포되어 있는 문법유형들은 전체적으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급배열의 유형을 吕文华(1992)는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형식중심’에서 ‘의미중심’으로, ‘기본 용법’에서 ‘활용된 용법’, ‘규칙적인 것’에서 ‘불규칙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³²⁾

31) 赵金铭, 《对外汉语教学概论》(商务印书馆, 2005), 37쪽.

32) 吕文华, 〈对《语法等级大纲》(试行)的几点意见〉, 《语言教学与研究》第3期(1992).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른 예를 들어보면 <표5> 과 같다.

<표5:예> 등급배열 유형

유형	甲级	乙级	丙级	丁级
형식중심 ↓ 의미중심 (비교문)	[甲097] 上海比北京热			[丁357] 他比阿Q 还阿Q
간단한 것 ↓ 복잡한 것 (동목구)	[甲043] 打电话 买东西 进行讨论 遇到困难	[乙070~071] 대상자목적어 你们要严肃处理这个问题 행위자목적어: 前边走过来了 一位护士	[丙172] 도구:我饭量大, 吃 大碗 장소:家里没人, 他 整天吃食堂 의존(凭借):他从小 吃父母, 直到 现在	
기본 용법 ↓ 활용용법 (인칭 대명사)	[甲005] 你(您) 我, 我们 咱们		[丙082] 인칭대명사 활용 欢迎大家来我院参 观, 访问 (단수가 복수로 쓰임) 我想去游览, 但是 人家不让你去 游览 (2인칭이 1인칭으로 쓰임)	

(3) 기술방식

《语法等级大纲》의 서언에서 열거형(尽举性), 예시형(举例性), 절충형(介乎两者之间) 세 가지 유형 기술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열거형으로는 甲, 乙, 丙級の ‘부사’, ‘전치사’, ‘접속사’와 丁級の ‘고정구’, ‘고정형식’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예시형에는 丙, 丁級の ‘형태소’, ‘회화형식’, 甲, 乙, 丙, 丁級の ‘이합사’등이 여기에 속하며, 절충형에는 甲, 乙, 丙, 丁級の ‘특수문’이나 ‘복문’과 같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각 유형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예〉 《語法等級大綱》의 기술방식

열거형		예시형		절충형	
부 정 부 사	[甲022] 不, 没(有), 別	회 화 형 식	[丙 316] 说X就X, .. 说走就走, 别光说不动呀! 说嫁就嫁, 不要再犹豫了	특 수 문	[甲097] 1.비교문 马比牛跑得快 2.跟(和, 同)~一样 她的年纪跟我一样 3.有(没有~这么(那么)) 我说汉语没有他那么好

〈표6: 예〉에서 ‘열거형’은 문법단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거한 형식이고, ‘예시형’은 문법단위에 해당하는 문법내용과 그에 따른 예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절충형’은 예시형에서 문법내용(예로 [丙 316]의 ‘说X就X, ..’)만을 제외하고, 예만 제시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3. 《語法等級大綱》의 체계상 한계점

이 장에서는 《語法等級大綱》을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교육에 적용하였을 때의 나타나는 체계상의 한계점을 ‘문법단위’, ‘등급분포와 배열’, ‘등급 간의 계통성’, 그리고 ‘표현의 일관성과 명확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한국어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일부 예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문법단위

《语法等级大纲》에 사용된 문법단위인 문법항목과 문법요소의 정의를 앞(2.3)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语法等级大纲》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단위가 일부는 일반적인 개념과 동일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표7>에서 예를 들어 문법항목과 문법요소를 비교해 보았다.

<표7: 예> 문법 단위

	문법항목(语法项)	문법요소(语法点)
A. 동사	[甲009]일반동사:看, 写, 打, 参观 [甲010]동사중첩:想想, 学习学习, 说一说, 听了听	[丙059]打量 [丙060]给予 [丙061]给以
B. 수식구	[甲042] 大操场, 英文课本, 一件衣服 努力(地)工作, 老动的时候	[丙168] 문법기능: 1~4. 주어, 술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일 때(생략) 5.보어로 쓰일 때 大家玩儿得很快活 他们打得十分激烈
C. 전환 복문	[乙113]…可是(可)… 他不喜欢体育活动, 可是他喜欢看体 育比赛	[丙366] 虽…但… 他每天上班下班虽匆忙, 但内心里 却很平静

A는 전형적인 문법항목과 문법요소로 쓰인 경우이다.

조동사 부분의 [甲009]은 각각의 문법요소들을 ‘일반 동사’라는 공통된 특징으로 범주화시킨 ‘문법항목’이고, [丙059~61]은 공통된 특징으로 범주화 할 수 없어 단독으로 ‘문법요소’로 쓰인 예이다. 그러므로 A

는 일반적인 개념의 문법단위와 동일하게 쓰인 경우이다.

B는 일반적인 문법항목과 문법요소의 개념이 모호하게 사용된 경우이다.

[甲042]는 ‘大操场’, ‘英文课本’, ‘一件衣服’ 등 ‘수식구’라는 공통된 특징으로 범주화시킨 ‘문법항목’이고, [丙168]은 문법 기능들을 소개하고 문장성분별로 범주화시켜 설명함으로써 ‘문법항목’이 아닌 ‘문법요소’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C는 둘 다 문법요소라 여겨지는 경우이다.

[乙113]은 ‘전환복문’이 ‘문법항목’으로 쓰였고, [丙366]는 ‘전환복문’이 ‘문법요소’로 쓰였다. 하지만 둘 다 동일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모두 문법 요소로 여겨지는 경우이다.

이처럼 예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실제 사용된 문법단위의 구분이 모호하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실제 중국어 교육에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3.2 등급분포와 배열

등급의 분포에 대한 한계점을 吕文华(1994)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语法等级大纲》의 등급 분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모델을 갖추고 있으므로 교육실천에 있어서는 모순이 드러난다. 예컨대 甲级단계는 계통성이 비교적 강하고, 문법의 양이 과도하게 많으며, 집중적이고, 반복율이 낮을 뿐 아니라 난이도도 높다. 반면 乙, 丙, 丁级단계는 일부분은 甲级에서 발전되었으나 대부분이 어휘항목이고, 연관성이 떨어진다.³³⁾

이상의 내용과 같이 《语法等级大纲》은 甲级에 너무 많은 문법유형

33) 吕文华, 〈对《语法等级大纲》(试行)的几点意见〉, 《语言教学与研究》 第3期(1992).

을 다루고 있어 실제로 甲級 사용된 문법유형만으로도 전체적인 중국어 교육이 가능할 정도이다. 또 甲級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유형도 많지만 그 문법 유형에서 다루는 문법항목 또한 적지 않아 전반적으로 甲級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에게는 가능하지만, 언어 유형적으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초급단계인 甲級에서 과도한 양의 문법항목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 가운데 한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동작의 태’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예〉 동작의 태

[甲116~120]	[丙303~307]
완성태 “了”를 이용하여 기술하였음 변화태 “了”를 이용하여 기술하였음 지속태 “着”를 이용하여 기술하였음 진행태 “正”“在”“正在”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음 경험태 “过”를 이용하여 기술하였음	(1)关于“着” 동사+着+동사+着.. (2)关于“过” 동작이나 상황의 종료를 나타냄 형용사+过 (3)关于“了” 형용사+了, 명사/수량사+了 문장 끝의 了

〈표8〉에서 ‘동작의 태’의 전반적인 내용을 甲級에서 다루고 있고, 丙級에서는 “了”, “着”, “过”의 기능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과 甲級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5가지의 태 모두 甲級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작의 태’는 한국어의 ‘동작상’³⁴⁾과 관계가 있지만, 실제 한국인 학습자가 ‘시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이 제2외국어로 영어를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시제와 연관시켜 ‘시제’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법》(교육인적 자원부, 2007년), 182쪽 참조.

로 받아들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법항목의 모두가 甲級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한국인 학습자의 학습특징과 난이도도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등급 배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程堂(1989)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把’구문은 많은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문법항목인데도 불구하고, 甲級에서부터 배열되어 있다.³⁵⁾

이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특히‘把’구문은 통사적 제약이 많아 오류를 많이 범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법유형이 甲級부터 배열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 이와 상반된 예로 ‘是구문’, ‘有구문’, ‘연동문’ 등은 학습자들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甲, 乙, 丙級에 세분화하여 배열하였다. 한국인 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많은 등급으로 나뉘어 배열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등급분포와 배열상의 문제점을 吕文华(1994)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등급분포와 배열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여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의 완성도에만 중점을 두고 제정했다³⁶⁾

이로서 《语法等级大纲》의 등급배열이나 분포가 《暂拟系统》의 체계에 영향을 받았고, 또 일부는 《暂拟系统》이 《中学教学语法系统提要

35) 程堂, 〈对外汉语教学的一项基本建设《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读后〉, 《语言教学与研究》第2期(1989).

36) 吕文华, 《对外汉语教学语法探索》(语文出版社, 1994), 123~124쪽 참조.

(試用)》로 수정, 보완된 내용을 받아들여 《语法等级大纲》을 수정, 보완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모국어 화자의 교육문법 체계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틀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그 특징에 맞도록 난이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3 등급 간의 계통성

문법단위들이 甲, 乙, 丙, 丁级 등급 가운데 어떤 것은 한 등급 혹은 일부 등급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전 등급에 걸쳐 배열되어 있다. 《语法等级大纲》은 단계별접근법(循环递进原则)에 의해 난이도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배열하였고, 또한 중요하고 복잡한 문법현상은 단순한 것 뒤에 배열하였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심화될 때 계통성에 있어서 한계점이 드러났다.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예〉 겹어문

[甲094]	[乙080]
1.사역의미 晚上我请你吃饭. 老师让我再读一遍课文. 2.애증(爱憎)의미 领导经常表扬他工作认真. 3.호칭, 인정(认定)의미 我们都说他是学生. 4.첫번째 동사('有', '没有')인 경우 有人找你.	1.첫번째 동사가 '是'인 무주어겹어문 是谁收集的这些材料? 2.이중목적어문에서 간접목적어가 겹어 送一块蛋糕给姥姥吃. 3.겹어문식 연동문(兼语句套连动句) 老师让我们用中文写一封信.

今天没有人来参观	
----------	--

‘겹어문’에서 [甲094]는 대체적으로 ‘의미’에 중점을 두어 나누었다. 예로 ‘사역, 애증, 호칭’등의 의미로 나누어 내용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甲094] 4번의 경우는 의미와 무관하게 ‘통사적인 구조’에 중점을 두어 첫 번째 동사가 ‘有’, ‘没有’로 사용한 경우를 나타내었으며, 1~3에서와 같이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乙080]은 동일한 ‘겹어문’의 문법유형인데도 [甲094]과 달리 ‘의미’에 중점을 두지 않고, ‘통사적 구조’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이 예를 통해 동일한 문법유형임에도 불구하고 [甲094]에서 [乙080]로 등급이 높아지면서 어떠한 연계성에 의해 심화되었는지 기준이 모호하며, [甲094]의 동일한 문법항목에서도 다른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급 간에 계통성에 있어서 일부 한계점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등급의 단계가 심화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배열하고 기술한다면, 중국어 교육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리라 여겨진다.

3.4 표현의 일관성 및 명확성

《語法等級大綱》의 체계(2.3)에서 살펴보았듯이, 전 등급에 배열되는 문법단위가 있는가 하면, 일부 등급에만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단 한 등급이상 배열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론 계통성도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법단위를 표현하는데 있어 반드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명확하고 규정된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 한계점을 드러냈다.

우선 등급별로 같은 문법유형인데도 다른 용어나 표현을 하는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0:예〉 동작의 태

급	甲級		丙級
구분	동작의 태		
문법 항목	[甲116]完成态	[甲117]变化态	[丙305]关于"了"
설명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了”를 나타내었다.	이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의 어기 조사	형용사+了 명사, 수량사+了 문미+了
예	午饭我只吃了一碗面条.	我现在是大学生了. 她的病好了. 天冷了, 你要多穿(一)点儿衣服.	她的头发又白了许多. 天气已经晴了三天了.

‘동작의 태’ 가운데 ‘了’와 관계된 문법항목으로 [甲116], [甲117]과 문법요소로는 [丙305]가 있다.

[甲116]에서 ‘了’를 동사 뒤에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태(完成态)’라 하였고, [甲117]는 문장 끝에 어기조사로 사용하여 상황변화를 나타내는 ‘변화태(变化态)’라고 하였다. 그 예로 ‘天冷了, 你要多穿(一)点儿衣服’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예문은 [丙305]의 ‘형용사+了’와 동일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丙305]을 ‘변화태(变化态)’아닌 “关于‘了’”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丙305]에서 사용한 ‘了’도 [甲117]와 같은 용법으로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변화태’임에도 불구하고, “关于‘了’”로 표현하여 표현상의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甲117]의 ‘변화태’에서 제시된 ‘天冷了, 你要多穿(一)点儿衣服’는 ‘冷’을 술어로 쓴 형용사술어문이다. 또 [丙305]에서도 ‘형용사술어문’이나 ‘명사술어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형용사나 명사 술어가 ‘동작’과 관계가 있는 ‘동작의 태’의 하부구조에 있는 것은 좀 맞

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도 문법단위를 기술할 때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語法等級大綱》의 적용상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 대해서 呂文华(1992)도 다음의 같은 예로 설명하였다.

〈표11: 예〉 정도 보어

[甲级80]
1~3) 생략
4)形+ 多了
这篇课文容易多了
5)动+ 得+ 形
他写得好, 我写得不好
她写得整齐, 我写得不整齐

위의 내용에서는 得를 쓴 것과 쓰지 않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 ‘他写得好’와 ‘写得整齐’는 의미상으로 ‘정도’의 의미라기보다 ‘평가’나 ‘묘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乙, 丙, 丁级에서도 [甲级80]와 동일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도보어’³⁷⁾인지, ‘상태보어’³⁸⁾인지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다.³⁹⁾

위의 예를 한국인 학습자도 많이 어려워한다. 그 이유에 대해 김충실(200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37) 贺晓平, 〈关于状态补语的几个问题〉, 《语文研究》 第1期(1999). 정도보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程度补语是位于述语形容词之后, 对形容词表示的性质所达到的程度进行补充说明的句法成分."

38) 贺晓平, 〈关于状态补语的几个问题〉, 《语文研究》 第1期(1999). 상태보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状态补语是指位与述语动词之后, 对动词或动词所联系的动元的状态进行描述的句子成分. 其形式标志是在动词和补语之间有一个结构助词'得'."

39) 呂文华, 〈对《語法等級大綱》(试行)的几点意见〉, 《语言教学与研究》 3期(1992).

한국어에는 중국어의 보어와 대응되는 문장성분이 없다. 중국어의 보어는 한국어의 목적어 혹은 보조동사에 대응된다. 두 언어의 이론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이 구조조사 “得”을 어렵게 여기는 조사 중의 하나이다. 어떤 문장에 “得”를 어떻게 써야 하며, 문장의 어느 자리에 써야 하는지 모른다. 40)

위의 예와 같은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이론문법의 연구 성과들을 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이론문법의 연구 성과를 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문법내용을 공통적으로 통일시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인 학습자의 학습특징을 고려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문법내용을 그 특성에 맞게 구분하고 규범화해야 할 것이다.

4. 나오기

《语法等级大纲》은 중국어 학교문법의 체계와 대외한어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연구 성과를 도입하고, 또한 외국인 학습자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양한 용도와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위해 제정된 기준이어서, 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체계상으로 한계점을 드러냈다.

첫째, 문법단위인 문법항목과 문법요소가 일반적인 개념에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적용할 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등급분포에 있어서 甲级에 대부분의 문법항목에 편중되어 있고, 등급배열에 있어서도 일부는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40) 김충실, 〈중한문법대조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6), 152쪽.

셋째, 등급 간의 계통성에 있어서 일부는 같은 문법항목인데도 기술하는 기준이 다르며, 일부 등급은 높아질수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심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문법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동일한 문법내용인데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고, 또 교육에 적용시키기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었다.

이상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언어습득 유형과 학습 특징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이뤄져서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법등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본다.

[참고문헌]

- 北京大学外国留学生中国语文专修班主编, 《汉语教科书》(时代出版社, 1958)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 汉语水平考试部 刘英林 主编,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高等教育出版社, 1996)
吕文华, 《对于汉语教学语法探索》(语文出版社, 1993)
人民教育出版社中学语文室, 《中学教学语法系统提要(试用)》(人民教育出版社, 1984)
赵金铭, 《对外汉语教学概论》(商务印书馆, 2005)
张志公主编, 《语法和语法教学-介绍“暂拟汉语语法教学系统”》(人民教育出版社, 1956)
中国对外汉语教学学 汉语水平等级标准研究小组, 《汉语水平等级标准与等级大纲[试行]》(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88)
賈甫田, 〈《语法等级大纲》(试行)对几个关系的处理〉, 《世界汉语教学》 第2期(1989)
刘英林·李明, 〈《语法等级大纲》的编辑与定位〉,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1997)
吕文华, 〈《语法等级大纲》(试行)的几点意见〉, 《语言教学与研究》 第3期(1997)

2)

程棠, 〈對外漢語教學的一項基本建設《漢語水平等級標準和等級大綱》讀後〉, 《語言教學與研究》 第2期(1989)

賀曉平, 〈關於狀態補語的幾個問題〉, 《語文研究》 第1期(1999)

김충실, 《중한문법대조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법》(교육인적 자원부, 2007)

엄익상·박용진 외2, 《중국어 교육 어떻게 할까》(한국문화사, 2005)

이미혜,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연구》(박이정, 2005)

Abstract

As demand for Chinese language studies is increased in Korea, the proper Chinese education grammar grade basis suiting for Korean learners is inquired. However, we have to look in advance 《语法等级大綱》 set up in China for those who speak Chinese as a native language and those who speak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Then, we have to look over what organizational weakness it has when we apply it into Korean learners.

In this writing, I have described several organizational weaknesses of 《语法等级大綱》 that I've found.

The first, grammar entries and grammar element which are the part of grammar unit are not properly used in 《语法等级大綱》. This might cause confusion by teaching Chinese.

Second, grade range is more focused on 甲级 of grammar entries and the grade sequences are not arranged in stages.

Third, the same grammar entries in systemicity between grade are described in according to the different basis.

Forth, some of grammar contents are described in a different terminology even with the same contents and some of them are not in consistency throughout the chapter.

Based on the weaknesses described above, I hope to find out proper grammar grade basis suits for Korean learners by examining their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pattern and learning trait .

Key Words: Chinese education grammar grade basis, grammar entries, grammar element

투고일: 2008. 6. 26.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詩經》 鄭風의 淫風詩로서의 성격 연구*

金寅浩**

〈목 차〉

1. 〈風〉이란 단어의 의미
2. 짝짓기 儀式(놀이)에서 불려진 淫風詩로서의 성격
3. 鄭風 작품 분석
4. 결론

1. 〈風〉이란 단어의 의미

鄭風에 나오는 시들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風〉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風〉이란 단어를 중국 유가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왔다. 그 하나는 諷諫한다는 ‘諷’의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요’의 의미이다. 〈風〉을 ‘諷’으로 해석한 것은 후대 유가인들이 풍시 160수를 유가적 입장에서 모두 諷諫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만들어낸 해석이니, 이 ‘諷’은 〈風〉이란 단어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이 〈風〉이란 단어를 ‘민요’의 뜻으로 해석하고 이

* 2007년 동의대 교내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2007AA004)

** 동의대 중문학과 교수(ihkim@deu.ac.kr)

해하여 왔는데, 이는 풍시 160수가 그 성격상 민요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고 여겨, 중국인들은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이 〈풍〉이란 단어를 ‘민요’의 뜻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온 것이다. 이는 풍시 160수에 담긴 작품들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붙여진 〈풍〉이란 단어를 ‘민요’의 뜻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 〈풍〉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민요’의 의미가 들어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혹자는 ‘風謠’라는 단어에서의 〈풍〉에서 ‘민요’라는 의미를 찾기도 하나, 이 ‘風謠’란 ‘지방 풍속(風)을 읊은 민요(謠)’라는 뜻으로, ‘謠’에 ‘민요’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풍〉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는 ‘민요’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다.

그럼 본고에서 〈風〉이라는 단어의 원초 의미를 探討해 보고, 그 원초 의미에서 연원되어져 나온 부가적인 의미도 살펴해보도록 하자. 〈풍〉이라는 단어의 원초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연원되어져 나온 부가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은, 風詩의 본래 성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풍〉이라는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가 ‘바람’이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달 지 않을 것이다.

周策縱은 그의 《古巫醫與六詩考》의 제 3장 〈風與伺風鳥, 風氣與生命〉에서, 그는 이 〈풍〉이 ‘鵬’ ‘鳳’과 古音이 같아 서로 그 뜻이 통했다고 하고, 또한 이 〈風〉에는 ‘相風鳥’ ‘伺風鳥’의 뜻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기에서 고대 풍향을 측정하는 기구의 꼭대기에 새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새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였다고 하며, 그것을 바로 相風鳥 내지는 伺風鳥라고 불렀다 했다¹⁾.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風〉이란 단어는 새(鵬, 鳳, 相風鳥, 伺風鳥)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風)과 새(鵬, 鳳, 相風鳥, 伺風鳥)는 모두 하늘로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동일 성질의 존재로 고대인들에게 인식되어져, 같은 의미로 통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1) 《西京雜記》：“長安靈臺相風銅鳥，有千里風則動。”

또한 바람(風)은 그것이 불면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람의 이런 성질 때문에, 이 〈風〉이란 단어에는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인신되어지고 있다. ‘風物놀이’할 때의 〈風〉과 ‘風樂을 즐긴다’고 할 때의 〈風〉이란 단어에는, 지금에도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흥취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진 감정을 바람(風)이 하는 것처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음악이요 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風〉이란 단어를 주책종은 생명력 생육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論衡·商蟲篇》에 보면, “무릇 벌레는 바람(風)의 기운으로 생기는 바이다. 蒼詰이 그것을 알아서 고로 ‘凡’과 ‘虫’을 합쳐 〈風〉자를 만들었다. 바람(風)에서 氣를 취하니 고로 8일 만에 벌레로 변화한다.”²⁾라고 하고 있고, 《說文解字·風部》에 보면, “바람(風)이 불면 벌레가 생긴다. 고로 벌레는 8일 만에 변화한다.”³⁾라고 하고 있다. 또한 《白虎通義》에서도 “바람(風)은 싹을 틔우고 외물을 양성한다.”⁴⁾라고 하고 있다. 위의 생명력 생육으로의 해석은, 바람의 ‘불러일으키는’ 성질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더욱 인신되어져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로 그 뜻이 넓혀진 듯하다. 고대인들은 봄에 만물이 싹트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 그리고 벌레가 생기는 것은, 모두 따스한 봄바람(風)이 불어 그런 생명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여겼던 듯하다.

주책종은 또한 같은 책에서 이 〈風〉이란 단어에는 性的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진 것으로 이 〈풍〉을 해석한 것은, 《서경》에 주를 단 賈逵의 기록에 처음으로 보인다. 《書經·費誓》에 나오는 “馬牛其風”에 賈逵가 주를 달아, “風은 放의 뜻이다. 암수가 서로 유혹하는 것을 風이라고 한다.”⁵⁾라고 하고

2) “夫蟲，風氣所生。蒼詰知之，故凡，虫爲風之字。取氣於風，故八日而化。”

3) “風動蟲生，故蟲八日而化。”

4) “風之爲言萌也，養物成功。”

5) 風，放也。牝牡相誘謂之風。

있다. 또한 《左傳·僖公四年》에 “唯是風馬牛不相及也.”에 대한 杜預의 주에서도, 賈逵의 주를 그대로 인용하여 <풍>을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주책종은 또한 ‘風化’, ‘風月’, ‘風流’, ‘風情’이란 단어에서의 <풍>에도, 이런 성적인 의미가 모호하게 내포되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주책종의 이런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에도 ‘바람났다’, ‘바람둥이,’ 혹은 ‘풍기문란,’ ‘풍속사범’이라고 할 때의 <바람>과 <風>이란 단어에는, 이런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람의 ‘불러일으키는’ 성질로 말미암아 인신되어진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의미가, 더욱 인신되어져 그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인 성과 생식의 의미로 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 듯하다. 이 <풍>이란 단어 그 자체에 이처럼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풍시 160수(특히 그 중에서도 연애시 부류)의 성격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짝짓기 儀式(놀이)에서 불려진 淫風詩로서의 성격

원시시대에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짝짓기 儀式(놀이)⁶⁾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에도 이런 짝짓기 놀이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광장에 던져두면, 그것을 남자들이 주워 그 종이에 이름이 적힌 여자와 짝을 이루는, 그리하여 으스스한 곳에 가서 성행위도 하는 짝짓기 놀이(의식)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 고대 로마의 이런 짝짓기 놀이가 지금의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또한 우리네 신라시대에도 청춘남녀들이 달밤에 탑을 돌면서 서로 눈을 맞추는, 짝짓기 의식과 비슷한 탑돌이라는 놀이를 행하였었다. 이 외에도 고대 원시사회에서는 짝짓기 놀이라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행해졌다고 원시 종교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6) 짝짓기 儀式은 보통 짝짓기 놀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짝짓기 의식(놀이)은 중국의 周代에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대에 청춘남녀들이 물가나 강가에서 혹은 東門 밖에서 이런 짝짓기 의식(놀이)을 행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데, 이는 시경 風詩에 물가나 강가에서 혹은 東門 밖에서 행한 청춘남녀들의 짝짓기 놀이에서 부른 듯한 사랑의 노래가 부지기수로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가나 강가 혹은 동문 밖에서 서로를 유혹하며 부른 시, 자신은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원망하는 시, 상대방의 사랑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시 등등, 짝짓기 놀이에서 파생되어 나온 듯한 작품이 부지기수다. 풍시 중의 연애시란 이런 짝짓기 의식(놀이)에서 불려지던 노래에서 근본적으로 연원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앞의 〈風〉이란 단어에 性的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런 짝짓기 놀이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짝짓기 놀이에서 불려진 이런 여러 연애시들을 淫風詩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짝짓기놀이에서 불려진, 성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淫風詩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난잡한 성적인 요소가 많이 탈색되어 지고 또한 그것도 상징적으로 묘사되어져, 차츰 차츰 하나의 연애시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연애시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청춘남녀가 서로 구애하는(짝짓기하는) 시라고 까지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연애시에는 서로 짝을 구하는 求愛詩(좁은 의미에서의 연애시), 그 구애를 이루지 못한 슬픔을 노래한 시, 사랑하는 짝과 헤어진 슬픔을 노래한 別離詩, 사랑하는 짝과 이룬 옛 사랑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시, 사랑하는 짝이 자신에게 구애하지 않는 것을 원망하거나 몰래 가슴아파하는 시 등등으로 다양하게 변하여 후대의 연애시를 이루는 것이다.

3. 鄭風 작품 분석

공자가 《論語·衛靈公篇》에서 “鄭聲은 내치고 소인은 멀리해야 한

다. 鄭聲은 음란하고 소인은 위태하다.7)”라고 했고 또한 《論語·陽貨篇》에서의 “鄭聲이 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한다.8)”라고 했으며, 순자 역시 그의 《荀子·樂論篇》에서 “요사스런 꾸밈과 鄭衛의 음악은 사람을 음란하게 만든다.9)”한 이래, 역대 문헌에서 鄭聲은 항상 음란한 음악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시경 鄭風에 나오는 노래 역시 음란한 노래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다. 실제 시경 정풍의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당시 청춘남녀의 짝짓기놀이(儀式)에서 불려진 淫風詩 계열의 노래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시들에 대해 〈毛詩序〉를 위시한 鄭玄의 《毛詩鄭箋》, 孔穎達의 《毛詩正義》 등등에서는 모두 유가적인 정치 도덕적 관점에서 윤리적 교훈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유가적 도덕관념에 맞지 않아 유가인들이 항상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는 이런 연애시 부류를 正變說이나 美刺說 등등의 이상한 설로 “달아난 것을 풍자한 것이다.(刺奔),” “때를 풍자한 것이다.(刺時),” “시대의 어지러움을 풍자한 것이다.(刺亂)”라고 엉뚱하게 곡해해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주자의 《詩集傳》에서 부터 “시에서 소위 風이라는 것은 대부분 민간 가요에서 나온 것이다. 이른바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노래이며 각기 그 남녀의 情을 말한 것이다.10)”라고 하여 風에 나오는 시들이 대부분 민간 젊은이들의 연애시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주자는 그의 《朱子全書》 35에서 “지금 시를 감상하고자 함에 〈小序〉 및 舊說을 따르지 않고 단지 원래의 詩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熱讀하면서 서서히 그 뜻을 음미하면 마치 시경 시인의 본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 같다.11)”라고 하여 〈毛詩序〉 이래의 전통적인 학설을 따르지

7) “放鄭聲，遠佞人。鄭聲淫，佞人殆。”

8) “惡鄭聲之亂雅樂。”

9) “姚冶之容，鄭衛之音，使入之心淫。”

10) “凡詩之所謂風者，多出於里巷歌謠之作，所謂男女相與詠歌，各言其情者也。”

11) “欲觀詩，不若置小序及舊說，只將原詩虛心熱讀，徐徐玩味，候彷彿見個詩人之本意。”

않고 시 본문에 의지해 해석해야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주자의 이런 시해석관은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이들 風詩에 나오는 연애시들을 본격적으로 淫詩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고로 본고에서는 鄭風 각 작품을 분석하는데 있어, 먼저 〈毛詩序〉의 해설과 朱子《詩集傳》에서의 해설을 먼저 들어 비교 설명하고, 후에 필자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周 宣王이 배다른 동생인 姬友에게 西周 畿內에 있는 咸林이란 땅을 하사하여 다스리게 했다고 한다. 咸林은 陝西 同州府의 華道란 땅인데, 오늘날의 陝西省 關中道에 해당한다. 이가 제후국 정나라인데, 鄭나라 桓公 시대에 서쪽 犬戎이 침입해 와 주나라 幽王이 살해당하고, 또한 정나라 환공도 죽임을 당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인 掘突이 位를 이었는데, 이가 바로 정나라 武公이다. 무공은 주 왕실에서 司徒(교육을 도맡은 직위)란 직책을 맡아 이름을 날렸고, 또한 췌나라 文侯와 함께 주나라 平王이 洛邑으로 東遷할 때 공로를 세워 주 왕실로부터 櫜를 포함한 十邑의 땅을 하사받아 다스리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정나라 도읍을 櫜로 옮겼는데, 지금 河南省 開封府에 속한 新鄭縣이 그 곳이다. 정풍 앞머리에 실린 〈緇衣〉란 시는 그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武公에서부터 莊公--昭公--厲公--子亶--鄭子--厲公--文公--穆公으로 위가 전해오는데, 〈淸人〉이란 작품은 文公 때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시경 정풍에는 모두 21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緇衣〉 4구3장, 〈將仲子〉 8구3장, 〈叔于田〉 5구3장, 〈大叔于田〉 10구3장, 〈淸人〉 4구3장, 〈羔裘〉 4구3장, 〈遵大路〉 4구2장, 〈女曰鷄鳴〉 6구3장, 〈有女同車〉 6구2장, 〈山有扶蘇〉 4구2장, 〈蓍兮〉 4구2장, 〈狡童〉 4구2장, 〈褰裳〉 5구2장, 〈耒〉 3구2장 4구2장, 〈東門之墀〉 4구2장, 〈風雨〉 4구3장, 〈子衿〉 4구3장, 〈揚之水〉 6구2장, 〈出其東門〉 6구2장, 〈野有蔓草〉 6구2장, 〈溱洧〉 12구2장 등이 그것이다. 朱子の 三傳弟子인 王栢은 풍시 160편 중 淫詩 31편을 선정했는데, 그 중 鄭風에 속하는 것이 무려 14편에 달해 가장 많은 분량을 차

지하고 있다. 〈將仲子〉, 〈遵大路〉, 〈有女同車〉, 〈山有扶蘇〉, 〈蘼兮〉, 〈狡童〉, 〈褰裳〉, 〈采芣苢〉, 〈東門之墀〉, 〈風雨〉, 〈子衿〉, 〈出其東門〉, 〈野有蔓草〉, 〈溱洧〉가 그것으로 본고에서는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將仲子〉 8구 3장

부탁하노니 仲子시여	將仲子兮
우리 마을을 넘어오지 마세요.	無踰我里
내가 심은 버드나무 꺾지 마세요.	無折我樹杞
어찌 감히 그것(버드나무)이 아까우리마는	豈敢愛之
나의 부모님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畏我父母
仲子님을 가히 그립기는 합니다만	仲可懷也
부모님의 말씀(꾸중)	父母之言
역시 가히 두렵습니다.	亦可畏也
부탁하노니 仲子시여	將仲子兮
우리 담장을 넘어오지 마세요.	無踰我牆
내가 심은 뽕나무 꺾지 마세요.	無折我樹桑
어찌 감히 그것(뽕나무)이 아까우리마는	豈敢愛之
여러 어른들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畏我諸兄
仲子님을 가히 그립기는 합니다만	仲可懷也
여러 어른들의 말씀(꾸중)	父母之言
역시 가히 두렵습니다.	亦可畏也
부탁하노니 仲子시여	將仲子兮
우리 화원을 넘어오지 마세요.	無踰我園
내가 심은 박달나무 꺾지 마세요.	無折我樹檀
어찌 감히 그것(박달나무)이 아까우리마는	豈敢愛之
사람들의 말 많음(숙떡거림)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畏人之多言
仲子님을 가히 그립기는 합니다만	仲可懷也
사람들의 말 많음이	人之多言
역시 가히 두렵습니다.	亦可畏也

《毛詩序》에서는 “〈將仲子〉는 莊公을 풍자한 것이다. 그 어미가 동생을 해치고 동생 叔段이 道를 잃어도 莊公이 이를 막지 못하고 祭仲이 이를 諫해도 莊公이 듣지 않아, 젊어서 大亂에 이르게 된 것이다.12)”라고 정치적으로 莊公과 관련시켜 건강부회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는 그의 《詩序辨說》에서 “그 사건은 《春秋傳》에 보인다. 그러나 甫田 鄭氏는 이는 실로 淫奔詩로서, 莊公과 叔段의 일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하며 〈毛詩序〉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說者들이 또 〈毛詩序〉를 좇아 교묘하게 그렇게 말해 그 사건을 실제화 시키니, 이에 잘못이 더욱 심해졌다.13)”라고 하여, 〈毛詩序〉의 장공과 관련시킨 정치적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하며 이를 청춘남녀간의 淫奔詩로 본 것은 옳은 해석이라 했다.

이 작품을 평심하게 읽어보면 부모님 어른들 마을사람들의 꾸중과 말 많음을 걱정하여 님이 자신의 마을로 찾아오지 말기를 바라며 읊은 작품이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실은 그 님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그 속에 짙게 깔려있다 하겠다.

〈遵大路〉 4구 2장

큰 길을 따라 (떠나시려하니)	遵大路兮
님의 소매 부여잡았네.	摻執子之袂兮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無我惡兮
속히 잊지 마소서.	不寔故也
큰 길을 따라 (떠나시려하니)	遵大路兮
님의 손 부여잡았네.	摻執子之手兮
나를 더럽다하지 마시고	無我醜兮
속히 인연 끊지 마소서.	不寔好也

12) “仲子, 刺庄公也. 不勝其母以害其弟, 弟叔失道而公弗制, 祭仲諫而公不聽, 小不忍以致大亂焉.”

13) “事見《春秋傳》. 然甫田鄭氏謂此實淫奔之詩, 無與于庄公, 叔段之事. 序蓋失之. 而說者又從而巧爲之說, 以實其事, 誤益甚矣.”

《毛詩序》에서는 “〈遵大路〉는 군자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莊公이 道를 잃어 군자가 떠나가니 이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것이다.¹⁴⁾”라고 정치적 입장에서 유가적으로 해석했지만, 주자의 《詩集傳》에서는 “淫婦가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고로 (그 님이) 떠나게 되었는데, (이에) 그 소매를 부여잡고 머물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대는 내가 싫어 떠나지 마시고 옛처럼 가히 떨어지지 말기를’ 이라고 했고, 송옥의 부에서 ‘큰 길을 따라 그대 소매 부여잡았네.’라는 句가 있는데, 역시 男女相悅之詞이다.¹⁵⁾”라고 해석했다.

내용상 여성이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有女同車〉 6구 2장

수레를 함께 탄 여자	有女同車
얼굴이 무궁화 꽃과 같구나.	顏如舜華
가벼이 몸을 움직이면,	將翱將翔
佩玉이 소리를 낸다.	佩玉瓊琚
저 아름다운 羌氏네 큰 딸은	彼美孟姜
정말로 아름답고 온화하여라.	洵美且都

함께 동행한 여자	有女同行
얼굴이 무궁화 꽃과 같구나.	顏如舜英
가벼이 몸을 움직이면,	將翱將翔
佩玉이 소리를 낸다.	佩玉將將
저 아름다운 羌氏네 큰 딸은	彼美孟姜
소곤대는 소리 잊을 수가 없네.	德音不忘

《毛詩序》에서는 “〈有女同車〉는 소홀해진 것을 풍자한 것이다. 정

14) “遵大路，思君子也。莊公失道，君子去之，國人思望焉。”

15) “淫婦爲人所棄，故于其去也，攬其袂而留之曰：子無惡我而不留，故舊不可以遽絕也。宋玉賦有‘遵大路兮攬子袂’之句，亦男女相悅之詞也。”

나라 사람이 그것을 소홀히 해서 제나라에 시집가지 않은 것을 풍자한 것이다. 태자가 일찍이 제나라에 공이 있어 齊나라 侯가 그를 부인으로 맞고자 청하였으나 정나라 여자가 현명하여 시집가지 않아, 마침내 大國(齊)의 도움을 받지 못해 쫓겨남을 당했는데, 고로 나라사람들(정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풍자했다.¹⁶⁾”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했으나, 주자의 《詩集傳》에서는 “이 역시 淫奔詩로 의심된다. 더불어 수레를 같이 탄 여자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또 그것을 탄식하며 말하기를: 저 미색의 孟姜 진실로 아름답고 또 온화하도다.¹⁷⁾”라고 해석하여 어느 정도 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작품을 평심하게 읽어보면 신랑이 姜氏네 큰 딸을 신부로 맞아 수레에 태워 데려오면서 읊은 듯하다. 자신의 신부될 사람을 칭송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니, 아주 넓은 범위로 보면 祝婚詩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山有扶蘇〉 4구 2장

산에는 扶蘇나무가 있고	山有扶蘇
습에는 연꽃이 있네.	隰有荷華
子都는 보이지 않고	不見子都
이에 미치광이만 보이네.	乃見狂且
산에는 큰 소나무 있고	山有橋松
습에는 털여귀풀이 있네.	隰有游龍
子充은 보이지 않고	不見子充
이에 교활한 사람만 보이네.	乃見狡童

〈毛詩序〉에서는 “〈山有扶蘇〉는 소홀해진 것을 풍자한 것이다.¹⁸⁾”

16) “有女同車，刺忽也。鄭人刺忽之不昏于齊。太子忽嘗有功於齊，齊侯請妻之。鄭女賢而不取，卒以無大國之助，至于見逐，故國人刺之。”

17) “此疑亦淫奔之詩。言所與同車之女其美如此。而又嘆之曰：彼美色之孟姜，信美矣而又都也。”

라고 했지만, 주자는 그의 《詩集傳》에서 “모두 남녀가 희롱하는(戲謔) 내용이다. 〈모시서〉의 해설은 옳지 않은데, 예를 들어 소홀해진 것을 풍자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특히 이치에 맞지 않다.¹⁹⁾”라고 하여 〈모시서〉 해설이 잘못된 것이라 하고 있다.

子都和 子充은 모두 정나라의 美男子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남자는 보이지 않고 미치광이(狂)와 교활한 사람(狡童)만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역대 시경 해설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남자에게 시집가지 못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영똥한 미치광이(狂)와 교활한 사람(狡童)에게 시집가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미치광이(狂)와 교활한 사람(狡童)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뒤의 정풍 〈狡童〉이란 작품 속에서의 狡童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어법적으로 ‘교활한(알미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子都和 子充같은 미남자는 아니지만, 사랑의 열정으로 가지고 여성을 잘 알면서 자신을 교활하게 미치게 해 줄 그런 남자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미치다(狂)’ ‘교활하다(狡)’는 의미에는 성적인 흥분의 의미도 어느 정도 모호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薜兮〉 4구 2장

마른 잎 마른 잎이여	薜兮薜兮
바람이 불어 너를 날리네.	風其吹女
어지신 님이여	叔兮伯兮
노래하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화답하리.	倡予和女
마른 잎 마른 잎이여	薜兮薜兮
바람이 불어 너를 날리네.	風其漂女
어지신 님이여	叔兮伯兮
노래하신다면 나는 당신과 만나리.	倡予要女

18) “山有扶蘇，刺忽也。”

19) “皆男女戲謔之詞。序之者不得其說，而例以爲刺忽，殊無情理。”

《毛詩序》에서는 “〈籟兮〉는 소홀함을 풍자한 것이다.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해 (임금이)노래해도 (신하가) 화답하지 않는 것이다.²⁰⁾”라고 건강부회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지만, 주자의 《詩集傳》에서는 “이는 淫女의 말이다. 마른 잎이여 마른 잎이여 라는 句는 즉 바람이 불어 너를 날린다는 것이고, 어지신 님이여 라는 句는 즉 대개 (당신이) 노래 하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화답하리 라는 것이다.²¹⁾”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노래하면 함께 따라하고 만나겠다고 읊고 있는데,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사랑하는 남자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狡童〉 4구 2장

저 교활한 사람	彼狡童兮
나에게 말도 걸지 않네.	不與我言兮
저 사람 때문에	維子之故
나로 하여금 밥도 먹지 못하게 할까?	使我不能餐兮
저 교활한 사람	彼狡童兮
나하고 먹으려고 하지 않네.	不與我食兮
저 사람 때문에	維子之故
나로 하여금 자지도 못하게 할까?	使我不能餐兮

《毛詩序》에서는 “〈狡童〉은 소홀해진 것을 풍자한 것이다. 賢人과 국사를 도모할 수 없고 權臣들만 천명을 멋대로 하고 있다.²²⁾”라고 억지로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주자의 《詩集傳》에서는 “이 역시 淫女가 헤어짐을 당해 그 사람을 희롱한 글이다. 자기를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자 많아, 이에 저 사람에게서 비록 헤어짐을 당해도 밥도

20) “籟兮, 刺忽也. 君弱臣强, 不倡而和也.”

21) “此淫女之詞. 言籟兮籟兮, 則風將吹女矣; 叔兮伯兮, 則盖倡予而予將和女矣.”

22) “狡童, 刺忽也. 不能與賢人圖事, 權臣擅命也.”

못 먹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²³⁾”라고 하여 주제에 근접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교활한 사람(狡童)은 정말로 교활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가까이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감정이 너무 상해 반어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사랑하는 한 남성이 자신을 가까이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하며, 그 사람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褰裳〉 5구 2장

그대 나를 사랑하여 생각한다면, 치마라도 걷고 溱水를 건너련만. 그대 나를 생각지 않으시니, 어찌 다른 사람 없으리. 알뎁고 밭살스런 사람아.	子惠思我 褰裳涉溱 子不我思 豈無他士 狂童之狂也且
---	--

그대 나를 사랑하여 생각한다면, 치마라도 걷고 洧水를 건너련만. 그대 나를 생각지 않으시니, 어찌 다른 사람 없으리. 알뎁고 밭살스런 사람아.	子惠思我 褰裳涉洧 子不我思 豈無他人 狂童之狂也且
---	--

이 작품에 대해 《毛詩序》에서는 “〈褰裳〉은 바름을 보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미친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여 이에 나라 사람들이 大國이 자신을 바르게 해주는 것을 그리워한 것이다.²⁴⁾”라고 하여 유가적으로 젊잖게 해석했지만, 주자는 그의 《詩集傳》에서 “음탕한 여자가 그 사사로운 사람을 말한 것이다. …… 역시 그를 나무라는 내용이다.²⁵⁾”라

23) “此亦淫女見絕而戲其人之詞。言悅己者衆，子雖見絕，未至于使我不能餐也。”

24) “褰裳，思見正也。狂童恣行，國人思大國之正己也。”

25) “淫女語其所私者。……亦諷之之辭。”

고 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에 가깝게 해석하기는 했지만, 유가적인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음탕한 여자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평심하게 해석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여인의 怨望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꼭 음탕한 여자의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순수한 사랑을 하는 여자의 작품이라 해야 할 것이다. 짝짓기 놀이에서 사랑하는 남이 자기에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음을 원망하는 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청춘남녀들이 溱水나 洧水 가에서 만났음을 알 수 있겠고, 또한 그 남은 강 건너편에 살고 있음도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강가에서 짝짓기 놀이를 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짝짓기 놀이에서 사랑하는 남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음을 怨望하고 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치마라도 걷고(褰裳)”라는 문구에는 어느 정도 음탕한 性愛的인 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후대 유가문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랑에 있어서 여성의 소극적이고 다소곳한 면은 전혀 없다. 적극적으로 여성이 남자를 원망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耒〉 3구 2장 4구 2장

그대의 풍만함이여 마을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셨는데 내가 (남을) 따라가지 않음을 후회하네.	子之丰兮 俟我乎巷兮 悔予不送兮
그대의 장성함이여 학당에서 나를 기다리셨는데 내가 (남을) 따라가지 않음을 후회하네.	子之昌兮 俟我乎堂兮 悔予不將兮
비단저고리에 비치는 덧옷 걸치고 비단치마에 덧치마 차려 입고서 어지신 임이시여 수레몰아 오시면 나는 더불어 가리.	衣錦聚衣 裳錦聚裳 叔兮伯兮 駕予與行
비단치마에 덧치마 차려 입고서	裳錦聚裳

비단저고리에 비치는 덧옷 걸치고	衣錦聚衣
어지신 임이시여	叔兮伯兮
수레몰아 오시면 나는 더불어 돌아가리.	駕予與歸

《毛詩序》에서는 “〈丰〉은 어지러움을 풍자한 것이다. 혼인의 道가 이지러져 남자가 노래해도 여자가 따라하지 않고, 남자가 가도 여자가 따라가지 않는다.²⁶⁾”라고 해석했지만, 주자는 《詩集傳》에서 “그리워하는 남자가 여인을 이미 길에서 (그녀를) 기다렸으나, 여인이 다른 뜻이 있어 그 남자를 쫓아가지 않았는데, 이미 떠난 후 그것을 후회하며 이 시를 지었다.²⁷⁾”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여자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님이 자신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도 자신이 쫓아가지 않고 이를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를 후회하며 읊은 내용으로 보인다. 3, 4구에서 다시 그 님이 수레를 몰아 자신을 찾아온다면 더불어 돌아가겠다고 읊고 있다.

〈東門之墀〉 4구 2장

동문의 풀 벤 빈 터	東門之墀
꼭두서니 풀은 높은 언덕에 있네.	茹蕙在阪
그 집은 즉 가깝지만	其室則邇
그 사람 심히 멀리 계신 것 같네.	其人甚遠
동문의 밤나무	東門之栗
나란히 집들이 있네.	有踐家室
어찌 당신을 생각지 않으리마는	豈不爾思
그대 나를 가까이 하려 않는군요.	子不我即

《毛詩序》에서는 “〈東門之墀〉은 어지러움을 풍자한 것이다. 남녀가 예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 버린 것이 있었다.²⁸⁾”라고 유가적으로 해

26) “丰, 刺亂也. 婚姻之道缺, 陽倡而陰不和, 男行而女不隨.”

27) “婦人所期之男子, 已俟乎巷, 而婦人以有異志不從, 既則悔之, 而作是詩也.”

석했고, 정현도 그의 《毛詩鄭箋》에서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달려가 사통하고자 하는 말이다.²⁹⁾”라고 했는데, 주자는 《詩集傳》에서 “성문 옆에 빈 터가 있고 빈 터 옆에 언덕이 있다. 그 언덕 위에 풀이 있는데 그 곳이 더불어 음란할 수 있는 자가 거주하는 곳인 줄 알지만 그러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 그를 생각해도 얻지 못한 것을 읊은 내용이다.³⁰⁾” 라고 했다.

그 내용상 가까이 사는 님이지만 님의 마음은 자신에게서 너무 멀어 여자 혼자 애를 태우며 그리워하는 것을 읊은 시인 것 같다.

〈風雨〉 4구 3장

비바람 축축하고	風雨淒淒
닭소리 악악할 제	鷄鳴喈喈
이미 군자를 만났으니	既見君子
어찌 아니 편안하리.	云胡不夷

비바람 소소하고	風雨瀟瀟
닭소리 교교할 제	鷄鳴膠膠
이미 군자를 만났으니	既見君子
어찌 아니 병이 나으리.	云胡不瘳

비바람 캄캄하고	風雨如晦
닭소리 그치지 않는데	鷄鳴不已
이미 군자를 만났으니	既見君子
어찌 아니 기쁘지 않으리.	云胡不喜

〈毛詩序〉에서는 “〈風雨〉는 군자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난세에도 군자가 그 법도를 고치지 않는 것을 그리워한 것이다.³¹⁾”라고 짧게

28) “東門之墠，刺亂也。男女有不待禮而相棄者也。”

29) “此女欲奔男之辭。”

30) “門之旁有墠，墠之外有阪，阪之上有草，識其所與淫者之居也。室迩人遠者，思之而未得見之詞也。”

유가적으로 해석했고, 孔穎達의 《毛詩正義》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했지만, 주자는 《詩集傳》에서 “군자는 그리워하는 바의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음란한 여자가 이 때에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³²⁾”라고 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작품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시는 여자가 오래 떨어져 있었던 님(군자)과의 만남을 기뻐한 시라고 추측된다. 이 密會詩는 표현기법이 소박 단순하면서도 어둡지 않고 발랄하다.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꺾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신선한 느낌마저 준다.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님과의 사랑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1장의 ‘비바람 축축하고(風雨淒淒)’, ‘닭소리 악악할 제(鷄鳴啾啾)’와 2장의 ‘비바람 소소하고(風雨瀟瀟)’, ‘닭소리 교교할 제(鷄鳴膠膠)’에서의 ‘淒淒’, ‘啾啾’, ‘瀟瀟’, ‘膠膠’ 등등은 모두 비바람과 닭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인데, 그러나 성행위의 모습과 그 교성 소리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子衿〉 4구 3장

푸르고 푸른 그대 옷 동정	青青子衿
아득한 내 마음	悠悠我心
비록 제가 가지 못한다 해도	縱我不往
그대는 어찌 소식도 끊나요?	子寧不嗣音
푸르고 푸른 그대 佩玉	青青子佩
아득한 내 생각	悠悠我思
비록 제가 가지 못한다 해도	縱我不往
그대는 어찌 오지도 않으신지요?	子寧不來

《毛詩序》에서는 “〈子衿〉은 학교가 폐해진 것을 풍자한 것이다. 난세에 학교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다.³³⁾”라고 하여 학교와 관련시켜

31) “風雨，思君子也。亂世則思君子不改其度焉。”

32) “君子，指所期之男子也。淫奔之女，言當此之時見其所期之人而心悅也。”

영똥하게 해석하고, 孔穎達의 《毛詩正義》에서는 “정나라가 쇠란하여 학교를 고치지 않아 이에 학교가 분산되어, 어떤 학생은 떠나가고 어떤 학생은 남아, 고로 그 남아있는 자들이 떠나간 자를 원망하고 책망한 내용을 읊어 학교가 폐해진 것을 풍자한 것이다.³⁴⁾”라고 하여 전혀 그 내용과 맞지 않게 건강부회하게 억지 해석을 했지만, 주자의 《詩集傳》에서는 “이 역시 淫奔하는 시이다.³⁵⁾”라고 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짜깃기놀이에서 만난 님을 그리워하며 그 임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음을 원망한 시로 보인다. 자신이 비록 찾아가지 못해도 님은 어찌 소식도 끊고 오지도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다.

〈出其東門〉 6구 2장

그 동문을 나서니	出其東門
여자들이 구름같이 있네.	有女如雲
비록 구름같이 있다고 해도	雖則如雲
내가 그리워하는 이는 아니네.	匪我思存
흰 저고리 푸른 두건 (입은 이가)	縞衣綦巾
애오라지 나를 즐겁게 해줄 뿐.	聊樂我員

작은 성문을 나서니	出其闔閭
여자들이 대꽃같이 있네.	有女如荼
비록 대꽃같이 있다고 해도	雖則如荼
내가 그리워하는 이는 아니네.	匪我思且
흰 저고리 붉은 두건 (입은 이가)	縞衣茹蘆
애오라지 가히 더불어 즐거워할 뿐.	聊可與娛

《毛詩序》에서는 “〈出其東門〉은 어지러움을 민상하게 여긴 것이

33) “子衿, 刺學校廢也. 亂世則學校不修焉.”

34) “鄭國衰亂不修校, 學校分散, 或去或留. 故陳其留者恨責去者之辭, 以刺學校之廢也.”

35) “此亦淫奔之詩.”

다. 公子 다섯이 서로 다투어 전쟁과 변혁이 끊이지 않아 남녀가 서로 버렸는데, 이에 백성들이 그 가족을 그리워하고 보호하려는 했던 것이다.³⁶⁾”라고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지만, 주자는 《詩集傳》에서 “사람들이 淫奔하는 여자를 보고 이 시를 지은 것이다. …… 이 때 淫風이 크게 행해져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시 가히 능히 스스로 좋아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풍속을 옮길만한 것은 아니다.³⁷⁾”라고 하여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동분 밖에서의 짝짓기놀이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흰 저고리 푸른 두건(縞衣藁巾)’ 입은 이와 ‘흰 저고리 붉은 두건(縞衣茹蘆) 입은 이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을 읊은 내용으로 보인다.

〈野有蔓草〉 6구 2장

들에는 덩굴풀이 있고	野有蔓草
맺힌 이슬 축축하네.	零露漙漙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어	有美一人
맑게 치켜뜯 눈매 아름답구나.	清揚婉兮
우연히 서로 만나니	邂逅相遇
나의 소원을 이루었네.	適我願兮

들에는 덩굴풀이 있고	野有蔓草
맺힌 이슬 번지르르 하네.	零露瀼瀼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어	有美一人
맑게 치켜뜯 눈매 아름답구나.	婉如清揚
우연히 서로 만나니	邂逅相遇
그대와 더불어 서로 즐기네.	與子偕臧

이 작품에 대해 《毛詩序》에서는 “〈野有蔓草〉는 때를 만난 것을

36) “出其東門，閔亂也。公子五爭，兵革不息，男女相棄，民人思保其家室焉。”

37) “人見淫奔之女，而作此詩。……是時淫風大行，而其間乃有如此之人，亦可謂能自好，而不爲習俗所移矣。”

생각한 것이다. 임금의 은택이 아래로 흐르지 않아 백성이 전쟁과 변혁 속에 궁핍하게 되어, 이에 남녀가 때를 잃어 婚約을 하지 않고 만나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³⁸⁾”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했지만, 그러나 주자는 《詩集傳》에서 “남녀가 들판에서 서로 만났는데 고로 그 있는 바를 읊음으로서 感興을 일으킨 것이다.³⁹⁾”라고 하여 그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여성이 읊은 듯한데, 들판에서의 性愛의 悅樂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들판에서 행해진 짝짓기놀이에서 우연히 서로 만남(邂逅相遇) 사랑하는 남성과의 즐거움을 읊조리고 있다. 1장의 “들에는 덩굴 풀이 있고, 맺힌 이슬 축축하네.(野有蔓草, 零露漙漙)”와 2장의 “들에는 덩굴풀이 있고, 맺힌 이슬 번지르르 하네.(野有蔓草, 零露瀼瀼)”는 성적으로 흥분한 여성을 암시하는 듯하기도 한다.

〈溱洧〉 12구 2장

溱水와 洧水가 바야흐로 출렁거리네. 사내와 여인들이 바야흐로 蘭을 들고 노네. 여인들이 “가 보셨어요?”하고 물으니, 사내들이 “이미 가보았지.”하고 답하네. “잠깐 가보시지요? 洧水 바깥에는 정말로 넓고 또한 즐거워요.”하네. 사내와 여인들이 서로 희희낙거리며 즐기다가 헤어질 때 芍藥을 情表로 주네.	溱與洧 方渙渙兮 士與女 方秉蘭兮 女曰觀乎 士曰既且 且往觀乎 洧之外 洵訏且樂 維士與女 伊其相虐 贈之以芍藥
溱水와 洧水가 깊고도 맑네.	溱與洧 瀏其清矣

38) “野有蔓草, 思遇時也. 君之澤不下流, 民窮于兵革, 男女失時, 思不期而會焉.”

39) “男女相遇于野田之間, 故賦其所在以起興.”

사내와 여인들이	士與女
여럿이 물가를 가득 채우네.	殷其盈矣
여인들이 “가 보셨어요?”하고 물으니	女曰觀乎
사내들이 “이미 가보았지.”하고 답하네.	士曰既且
“잠깐 가보시지요?	且往觀乎
洧水의 바깥에는	洧之外
정말로 넓고 또한 즐거워요.”하네.	洵訏且樂
사내와 여인들이	維士與女
크게 희희낙거리며 즐기다가	伊其將譔
헤어질 때 芍藥을 情表로 주네.	贈之以芍藥

《毛詩序》에서는 “〈溱洧〉는 어지러움을 풍자한 것이다. 전쟁과 변혁이 그치지 않아 남녀가 서로 버려 淫風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능히 구할 수가 없었다.”⁴⁰⁾라고 하여 이런 연애시를 난세에 지어진 變詩라고 보며 유가적 입장에서 억지로 해석하였지만, 주자의 《詩集傳》에서는 “이 시는 淫奔者가 스스로 기술했던 내용이다.”⁴¹⁾라고 하여 그 내용에 가깝게 해석하고 있다. 이 작품은 너무 음란성이 드러나 班固와 같은 후한인인 高誘도 이 작품에 대해 모두 청춘남녀의 노골적인 사랑을 그린 淫詩라고 보고 있다⁴²⁾. 風詩에는 이처럼 강가나 물가에서 청춘남녀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강이나 물을 경계로 하여 평상시 만나기 어려운 여러 마을의 청춘남녀들이 특정한 날 함께 강가나 물가에 모여 짝짓기놀이를 하면서 노래 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溱水와 洧水라는 강가에서 청춘남녀들이 축제의 일종인 짝짓기놀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蘭이나 芍藥 혹은 띠풀같은 것을 사랑하는 님에게 선물하거나, 혹은 서

40) 溱洧刺亂也。兵革不息，男女相棄，淫風大行，莫之能救焉。

41) 此詩淫奔者自敍之辭，

42) 《漢書 地理志》：“土陋而險，山居谷汲，男女亟聚會，故其俗淫。〈鄭詩〉曰：……‘溱與洧，方渙渙兮。士與女，方秉蘭兮。洵訏且樂，維士與女，伊其相虐。’此其風也。高洧注 畢沅校，《呂氏春秋新校正》卷1：“鄭國淫壁，男女私會於溱洧之上，有洵訏之樂，芍藥之和。”

로 들고 노는 것이 크게 유행한 듯하다. 이 작품 외에도 風詩의 많은 작품들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꽃이나 풀을 서로 주고받거나 들고 노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溱水와 洧水가 바야흐로 출렁거리네.(溱與洧, 方渙渙兮)”는 실제 강물의 출렁거림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감정흥분 상태 혹은 성적흥분 상태를 암시한 것 같기도 하다. 또한 溱水의 바깥과 洧水의 바깥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 곳에서 몰래 성행위를 하였던 것 같다. ‘伊其相虐’과 ‘伊其將謔’을 필자는 “서로 희희낙락하며 즐기다가”와 “크게 희희낙락하며 즐기다가”로 번역하였지만, 鄭玄은 여기에 “서로 희희낙락하며 부부가 하는 일을 하는 것(相與戲謔, 行夫婦之事)”이라고 箋을 달고 있다. 정현은 짧게 “부부가 하는 일을 하는 것(行夫婦之事)”이라고 했지만, 이는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작품을 평심하게 읽어보면 분명 이는 강가에서의 짝짓기놀이하며 부른 것이다. 周時代 청춘남녀들은 모든 만물이 싹트는 봄에, 얼음이 녹은 강가나 물가에서 짝짓기놀이를 하였던 듯한데, 이 〈溱洧〉라는 작품은 시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淫風詩다.

4. 결론

시경 鄭風은 다른 어느 國風보다 淫風詩가 많기로 유명하다. 공자마저도 “鄭聲은 음란하다.(鄭聲淫)”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유가경전인 시경에 나오는 이런 淫風詩들은 유가적 입장에 맞지 않아 역대 학자들이 유가적 입장에 맞추어 견강부회하게 억지로 해석하여 왔다. 〈毛詩序〉를 필두로 이런 연애시들을 正變說이나 美刺說로 견강부회하게 變詩로 이해하여 유가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억지 해석한 이래,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남송시대의 주자 《詩集傳》에서부터 그런 시들을 청춘남녀간의 淫風詩로 정확

하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시경의 〈風〉이란 단어에는 性的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여겨지는데, 지금도 “바람피운다.”, “바람났다.”, “풍기문란”, “풍속사범”할 때의 〈바람〉과 〈風〉이란 단어에는 性的인 의미가 들어 있다. 고대 주나라 시대 청춘남녀들이 특정한 날에 몰가나 강가 혹은 동문 밖에서 짝짓기놀이(儀式)를 행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풍에는 그런 놀이에서 부른 듯한 淫風詩(연애시)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이성과의 즐거움을 읊은 시(〈出其東門〉, 〈溱洧〉),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이성과의 사랑을 읊은 시(〈山有扶蘇〉, 〈蘼兮〉, 〈風雨〉, 〈野有蔓草〉),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이성을 자신은 좋아하는데 이성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원망하는 시(〈狡童〉, 〈褰裳〉, 〈東門之墀〉), 짝짓기놀이에서 만난 이성을 좋아하지만 부모와 어른과 이웃들이 알까봐 걱정하며 거절하는 시(〈將仲子〉), 떠나가는 님에게 자신을 잊지 말기를 부탁하는 시(〈遵大路〉), 과거 사랑하는 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시(〈采芣苢〉), 떠나간 님이 소식을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시(〈子衿〉) 그리고 祝婚詩(〈有女同車〉) 등 다양하게 주제로 노래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향해 읊조리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춘남녀간의 청순한 사랑을 이렇게 솔직하게 읊조린 이런 淫風詩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연애시들은 시경 風詩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詩經》, 십삼경주소본(대만: 예문인서관, 1981)
 (宋) 朱熹 集註, 《詩集傳》(대만: 중화서국, 1977)
 賴炎元 註釋, 《漢詩外傳今註今釋》(대만: 상무인서관, 1986)
 周策縱, 《古巫醫與六詩考》(대만: 연경출판사, 1986)

- 원형갑, 《시경과 性》(상하)(서울: 한림원, 1994)
熊公哲 등저, 《시경연구논집》(계명문화사, 1989)
鄭証璇, 〈王栢의 시경 淫詩觀 연구〉(경희대 대학원, 1996)

[中文摘要]

詩經鄭風有很多淫風の戀愛詩. 可是〈毛詩序〉以下正統的詩經解釋書與註解書都在儒家的立場上牽強附會解釋下來了鄭風詩. 可是朱子《詩集傳》正確地解釋下來了青春男女間的淫風時(戀愛詩). 〈風〉的單詞裏面內包性的意味. “風紀紊亂”, “風俗事犯”的〈風〉都內包性的意味. 古代周代特定日子特定場所青春男女都聚會行爲戀愛儀式. 把青春男女間清純戀愛唱歌的鄭風作品是爲了解詩經風詩的基本性格很重要的作品.

關鍵詞: 淫風詩, 配偶儀式, 風, 〈毛詩序〉, 《詩集傳》, 性, 戀愛詩

투고일: 2008. 6. 21.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龔巖 詩歌에 나타난 陶淵明 ‘歸去來’ 意識의 연구

金周淳*

〈목 차〉

1. 序言
2. '歸去來' 意識의 概念
3. 龔巖의 自然愛好 觀과 陶淵明 '歸去來'의 동경
4. 龔巖 詩歌에 나타난 陶淵明의 '歸去來' 意識
5. 陶淵明 '歸去來' 意識의 影響을 받은 龔巖에 대한 後人의 평가
6. 結語

1. 序言

龔巖은 李賢輔(1467~1555)의 號이고, 조선 중기의 文臣으로 字는 斐仲이며, 號로 雪鬢翁이라는 號가 있고, 諡號는 孝節이다.

龔巖이 활동하던 시기는 士禍와 黨爭 및 中宗反正으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기여서 그의 宦路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龔巖은 1498년(연산군 4)에 문과에 급제하여 藝文館檢閱·藝文館奉敎·春秋館記事 등을 지냈고, 1504년 司諫院正言으로 있으면서 書筵官의 비행을 논한 사건으로 安東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中宗反正으로 인해 복직된 후 密陽府使·忠州牧使 등을 지냈다. 1523년(중종 18)에는 星州

* 대구 가톨릭대학교 중문과 교수(jskim@cu.ac.kr)

牧使로 부임하여 善政을 베푼 것에 대해 조정으로부터 表裏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 뒤 兵曹參知·同副承旨·副提學·慶尙道觀察使 등을 지냈으며, 1542년 戶曹參判으로 있을 때는 政界의 은퇴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자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다. 그 후 1546년(명종 1)에는 資憲大夫, 1554년에는 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그는 宦路에 드나들면서도 언제나 고향을 찾아와 부모 공양에 힘썼으며, 山水 즐기기를 갈망하였다. 그러한 예로 그가 처음 外職으로 永川郡守로 除授받았을 때와 忠州牧使에서 安東府使로 부임되었을 때 아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음을 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46세 때는 愛日堂을 지어 아버이를 모시었고, 59세 때는 親老 때문에 星州牧使를 사임했으며, 아버이를 위한 養老宴도 여러 차례 베풀었다.

龔巖은 官僚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도연명의 '歸去來' 의식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그가 42세가 되던 해에 永川郡守로 부임한 후 44세 때 잠시 고향에 내려와 머물면서 汾川가에 明農堂을 지어놓고 벽상에 陶淵明의 歸去來圖를 걸어 놓아 도연명의 歸去來를 흠모하였다. 그 뒤에도 그는 도연명의 '歸去來' 뜻을 깊이 새기고자 <效嘯歌>와 같은 時調를 비롯한 많은 自然愛好의 작품을 지어 그의 저서인 《龔巖集》에 남겼다.

本稿는 龔巖 李賢輔의 《龔巖集》에서 도연명의 '歸去來'意識이 나타난 28 수의 시가 작품을 선정하여 비교문학적 방법¹⁾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① M.F. 기야르 著, 全圭泰 譯. 『比較文學』序(서울: 正音社, 1979), 8쪽. "비교문학이란 비교가 아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이름 지어진 과학적 방법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간의 문학적 관계의 역사'라고 정의한다면 그 편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② 이전의 비교문학 연구는 원천자에 중심을 두고 연구하였으나. 근래의 비교문학은 수용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동향이라 본고의 연구는 수용자인 龔巖 시가에 중점을 두었다.

2. '歸去來' 意識의 概念

일반적으로 '歸去來' 意識은 은일사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隱'은 '숨는다', '숨기다'라는 뜻으로 '顯'의 반대어이다. 儒家에서는 '隱'의 관념을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²⁾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³⁾ 라는 의미를 두고 선비들의 행동규범으로 삼았다.

'逸'은 원래 토끼(兎)가 '달아난다'로 쓰였으나, '잃는다', '즐긴다', '편안하다', '놓아준다', '뛰어나다', '빠르다'등의 뜻이 있고, 《論語·微子篇》에 "은일자로는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이다. (逸民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라는 글이 있어 '숨는다'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隱'과 '逸'은 처음에는 각각 다른 뜻으로 사용되다가 '隱逸'로 함께 쓰여진 例⁴⁾는 漢 以後에 나타나서 《後漢書》의 〈台佟傳〉에서는 "마침내 가서 은일하더니, 끝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遂去隱逸終不見)"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隱'과 '逸'이 함께 쓰여 '숨는다'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正史에는 《後漢書》에 '逸民傳'이라는 말이 보이다가 《晉書》·《宋書》·《隋書》·《南史》·《北史》·《舊唐書》·《唐書》·《宋史》·《金史》·《元史》·《明史》에서는 모두 '隱逸傳'이란 말로 바뀌었다.

隱逸을 주제로 삼은 최초의 시로는 《詩經》의 〈衛風·考槃篇〉과 〈陣風·衡門篇〉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작품은 賢者의 은거생활을 묘사하였다. 《楚辭》에는 〈招隱士〉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

2) 《論語·泰伯篇》.

3) 《孟子·盡心上篇》.

4) 《漢書·何武傳》에 "行有茂異, 民有隱逸."라는 기록이 보이고, 《後漢書·岑彭傳》에 "曾孫杞, 遷魏郡太守, 招聘隱逸, 與參政事, 無爲而化."라는 기록이 있다.

은 隱士에게 은거생활을 그만 두고 속세로 나올 것을 권유하는 뜻으로 읊은 것이다. 이들 《詩經》과 《楚辭》에 나오는 隱逸詩는 은거생활에 대한 단순한 묘사이거나, 산속에서의 은거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읊은 것으로써 진정한 隱逸詩로서의 가치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다가 東漢 末에 와서 張衡(78~139)이 〈歸田賦〉를 지어 은일의 의미를 현실화시켰다.

張衡의 〈歸田賦〉는 그가 벼슬하여 뜻을 얻지 못하자 농촌으로 돌아가 歸田하고자 하는 뜻을 읊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隱居地를 배경으로 산수자연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여 은거생활의 정취를 드높이는데 중시하여 묘사하였다.

그 후에 산수 자연을 읊은 謝靈運(385~433)의 山水詩가 출현하였지만, 謝靈運의 山水詩는 전원의 情景를 감상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전원의 활발한 정취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생명의 힘이 솟구치는 田園美를 읊은 시인은 陶淵明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연명의 전원시는 다른 隱士들의 전원시와는 달리 전원에서 그가 몸소 체험한 農耕생활을 바탕으로 '참성정', '참생명'의 시를 읊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준다. 이에 齊·梁代の 詩文 비평가인 鍾嶸(?~552)은 도연명을 "고금 은일시인의 으뜸"이라고 칭송하였다.

隱逸人과 隱逸思想은 왜 발생하였는지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정치·사회의 혼란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 隱逸人으로 보는 최초의 인물로 巢父와 許由의 故事를 들 수 있는데, 堯임금이 巢父에게 왕위를 부여한다는 말을 듣자 巢父는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여 냇물에 가서 귀를 씻었다. 이때 소에게 물을 먹이러 온 동생 許由는 듣지 못할 소리를 듣고 귀를 씻은 냇물에서 자기의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고 하여 소를 끌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전한다. 또한 伯夷·叔齊의 故事로써 周武王이 君臣關係를 저버리고 殷을 치러 가는 도중에 신하로써 殷을 치는 것은 君臣의 도리가 아

5) 鍾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

나라고 伯夷·叔齊가 周武王의 말고삐를 잡고 간곡히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자 周나라에서 나는 곡식은 먹지 않겠다며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살다가 굶어죽은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고 秦나라 말년에 戰亂을 피하여 陝西省 商山에서 은거한 商山四皓, 魏晉時代의 정치·사회 혼란기에 竹林으로 들어가 老莊思想에 심취하여 음주시를 읊으며 은일한 竹林七賢, 晉·宋年間에 儒家 본연의 깨끗한 자태로 자연을 벗 삼으며 田園에서 隱居한 陶淵明 등은 중국의 대표적인 隱逸人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敬順王이 千年社稷을 고려 王建에게 바치자 금강산에 들어가 벼을 입고 칩을 캐먹으며 은일한 麻衣太子가 있고, 高麗時代에 武臣政權이 들어서자 당시 문인들로서 竹林에 들어가 중국의 竹林七賢처럼 詩酒로 생활한 李仁老를 비롯한 竹林高會, 그리고 고려 말에 와서 자신의 호를 '隱'으로 삼아 은일을 실천하고자 했던 陶隱·圃隱·牧隱·野隱이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정치적 격동시대에 살면서 出仕와 隱退를 20여 회 반복하며 마침내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은거한 退溪 李滉,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지리산에 은거하여 후진 교육에만 힘쓴 南冥 曹植은 조선을 대표하는 은일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다.

3. 龔巖의 自然愛好 觀念과 陶淵明 '歸去來'의 동경

自然愛好의 觀念은 隱逸思想에서 나왔다 하여 일반적으로 道家思想과 관련된 것으로 보지만, 《論語》에 "늦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을 쓴 어른 5~6명과 童子 6~7명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⁶⁾라는 말이 나오기에 儒家

思想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鄭權采는 그의 논문에서 "隱逸과 自然愛는 현실적이며 公理的인 儒家思想보다는 超世間的 비현실적인 道家思想에 더 가깝다."⁷⁾라고 말하였다.

중국에서 정치와 사회의 혼란이 극심했던 魏晉南北朝時代에 自然愛好詩가 성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自然愛好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고려중엽 武人執政時代에 武人の 武斷政治로 인해 文臣들이 明哲保身하고자 山林으로 도피하여 은거 중에 자연을 배경으로 한 山林文學⁸⁾이 생겨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山林文學은 그 후 朝鮮朝에 들어와서 四大士禍와 黨爭 및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이 연이어 일어나자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낀 문신들이나 학자들로 하여금 江湖를 찾아 도피와 은일로 생성된 江湖詩歌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山林文學 작가로서 孟思誠(1359~1438)은 만년에 致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江湖四時歌〉를 읊었고, 不憂軒(1401~1481)은 〈賞春曲〉을 지어 자연을 벗 삼아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하였으며, 金綵(1488~1534)는 경상도 南海에 유배되어 〈花田別曲〉을 지었다.

趙潤濟는 조선 문인들의 山林學派 형성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여 黨爭下的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이 그 원인⁹⁾임을 언급하였다.

6) 《論語·先進篇》.

7) 鄭權采, 〈尹孤山 文學의 思想的 考察〉(朝鮮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16쪽.

8) 李廷卓, 《韓國文學散藁》(서울: 啓明文化社, 1990), 397쪽. 山林文學에 대해 李廷卓은 "일체의 名利를 버리고 山林에 隱居하여 자연을 禮讚하고, 자연과 더불어 悠悠自適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君子의 性情을 닦고, 明鏡止水의 詩心과 安貧樂道의 道心으로써 芝蘭같이 높은 기품, 松竹같이 굳은 지조와 仙境을 방불케 하는 자연환경에서 그들의 性情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9) 趙潤濟, 《韓國文學史》〈自然美의 發見〉(서울: 探求堂, 1993), 157쪽~158쪽.

뜻있는 사람은 혹은 과묵히어 독서삼매에 悠悠自適하려 하였다. 조선의 山林學派란 것은 이리하여 생긴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세상 俗界 일을 잊어버리고, 宦海의 風波야 높건 말건 나는 모른다 하는 듯이 山澗水邊에 뜻을 부쳐 책을 덮고는 당연히 花朝月夕에 마음을 팔고 때로는 淸溪水邊에 假漁翁이 되어 하룻날을 보내며 벗을 만나면 술병을 열어 놓고 시를 읊어 밤이 깊어 가는 것을 모른다는 완전한 太平閑民의 생활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黨爭 社會의 이면에 움직이는 動中靜의 상태로 무시할 수 없는 한 사회상이었다.¹⁰⁾

이들은 타율성에 의해 자기 스스로 자연에 돌아가 침잠하였다가 언제든 기회가 주어질 조정에서 벼슬로 부르면 정치현실에 끼어들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였다. 그들 중에 松江 鄭澈(1536~1593)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龔巖은 이들과는 달리 士禍가 일어나는 동안에 관리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도 관직생활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40여 년간이나 宦官의 자리에 있었다.¹¹⁾ 그래서 龔巖의 歸去來는 '黨爭下의 明哲保身'이라기보다는 '致仕客의 閑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龔巖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尙震(1493~1564)이 龔巖의 귀거래를 '恬退'¹²⁾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退溪가 龔巖의 歸去來에 대해 "물러나는 것이 상감의 은혜를 잊어서가 아니고, 늙은 나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

10) 趙潤濟, 《國文學史》(서울: 太學社, 1988), 130쪽~131쪽.

11) 도연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 문인들 중에는 평소 도연명의 致仕歸田을 동경하다가 농안 이현보처럼 정치 말년에 와서야 致仕歸田을 한 문인이 있었고, 송강 정철처럼 전원에서 귀양살이 하다가도 벼슬에 대한 향수를 이기지 못해 마침내는 전원을 포기하고 벼슬에 오른 이도 있었으며, 남명 조식처럼 학문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토록 벼슬을 멀리한 선비도 있었다.

12) 李珥, 《辭直提學再疏》, 《栗谷全書》卷五(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91쪽~92쪽.: “스스로 재주가 부족하다고 헤아려 편안히 집안에서 생활하며, 정량을 구하여 학문을 익히며, 스스로의 분수를 가늠하며 감히 나아가 벼슬하지 않은 것을 '恬退'라고 한다.(自度才不足, 而安於家貧, 自度學不足, 而習於求靜, 量己揣分, 不敢冒進者, 謂之恬退.)”

다.(引退非緣忘主恩, 高年自合愛丘園.)¹³⁾라고 말한 것과 龔巖이 致仕하고 물러난 1542년(중종 38년)에 쓴 기록으로 "왕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致仕하니 송별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아 '이렇게 성대한 일은 근고에는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¹⁴⁾라는 말을 종합해보아도 그는 士禍와 黨爭에서 큰 격동을 겪지 않으면서 귀거래를 갈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龔巖이 자연애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위의 이름을 따서 龔巖이라는 호를 지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연명이 자연을 사랑하여 버드나무를 대상으로 삼아 '五柳'라는 호를 스스로 지은 것과 뜻을 같이 한다.

조선 시대의 士禍와 黨爭이 문신들로 하여금 자연애호의 시가문학을 창작해 낸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비록 타율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江湖歌道를 唱導하여 自然美의 발견을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심어준 것은 龔巖의 〈漁父四時詞〉라고 말할 수 있다. 龔巖이

漁父歌를 얻은 후로는 전에 玩悅하던 歌詞는 다 버리고, 오직 이것에만 뜻을 두었다. 손수 謄冊하여 花朝月夕에 술을 잡고 벗을 불러, 汾江의 小艇上에서 윽게 하면 흥미가 무르녹아 저절로 忘却한다.¹⁵⁾

라고 언급함에 退溪는

龔巖先生은 漁父歌를 刪改 補撰하여, 長歌는 十二章을 九章으로 줄이고 短歌는 十章을 五章으로 줄여, 시중드는 아이에게 주어서 익혀 노래하게 하였다. 매양 아름다운 손님이나 좋은 경치를 만날 때 마다 水檻에 의지하고 煙艇을 戲弄하여 반드시 몇 명의 아이들로 하여금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소매를 연하여 너울너울 춤을 추게 하였다. 곁에 있는 사람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 어렴풋이 신선과 같이 보였다.

13) 李滉, 〈龔巖集年譜〉.

14) 李滉, 〈年譜記錄〉.

15) 李賢輔, 〈漁父歌序〉, 《龔巖先生文集》 卷之二.

아! 先生은 여기에서 이미 그 참된 낙을 얻었으니, 그 참된 소리를 좋아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於是刪改補撰, 約十二爲九, 約十爲五, 而付之侍兒, 習而歌之. 每遇佳賓好景憑水櫓而弄烟艇, 必使數兒, 並喉而唱詠, 聯袖而踣躡. 傍人望之 縹緲若神仙人焉. 噫, 先生之於此, 既得其眞樂, 宜好其眞聲.)¹⁶⁾

라는 평을 하였다.

한편 중국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도연명과 竹林七賢의 자연애호 관념을 비교하면, 竹林七賢은 頹廢와 放逸로써 飲酒하며 老莊思想에 젖어 無爲를 意志化하고 행동하여 현실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도연명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¹⁷⁾라는 儒家의 가르침에 따라 "씨 주면 도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한다.(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¹⁸⁾의 견해로써 "세상에 쓰이면 자기의 도를 행하고 버려질 때에는 물러가 숨는다."라는 이른 바 '用舍行藏'의 처세관이 있었다. 그리고 맹자가 말한 "궁하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게 하는 것이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¹⁹⁾라는 儒家思想에 의해²⁰⁾ 詩酒로서 자연을

16) 李滉, 〈書漁父歌後〉, 《退溪集》卷四十三 跋.

17) 《論語·泰伯篇》.

18) 《論語·述而篇》.

19) 《孟子·盡心章上》.

20) 도연명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면, 도연명은 그의 〈歸去來辭〉에서 "죽은 후에 천제가 사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帝鄉不可期)"라고 말하여 옥황상제가 사는 세계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의 〈連雨獨飲〉 시에서 "적송자와 왕자교가 신선되었다고 전하나, 지금 그들의 소식 듣지 못하네.(世間有松喬, 於今定何聞.)"와 그의 〈神釋〉 시에서 "불로장생을 자랑하던 팽조도, 결국 죽어 살아남지 못했노라.(彭祖愛永年, 欲留不得住)."라고 읊어 神仙사상을 부인하였다. 또한 慧遠法師가 東林寺에서 高士들을 불러 結社하고자 할 때 도연명에게 술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초청한 적이 있었다. 이에 도연명은 초청에 응하여 東林寺에 급히 도착하였는데, 慧遠法師는 도연명에게 먼저 술상을 마련하지 않고는 結社부터 재촉하고, 절의 종마루에서 범종 울리는 소리를 듣고는 도연명이 바로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갔다는 故事를 보면 도연명은 佛家에도 심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사

벗 삼아 ‘참성정’ ‘참생명’을 구현하였기에 魏晉의 문인들과는 飲酒文化와 생활방식을 달리²¹⁾ 하였다. 이러한 도연명의 隱逸思想은 龔巖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연애호 관념은 儒家思想으로서 精華한 도연명의 隱逸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4. 龔巖 詩歌에 나타난 陶淵明의 '歸去來' 意識

龔巖이 생존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四大士禍와 黨爭 및 中宗反正 같은 政變이 있었다. 따라서 그가 살던 시대의 양상은 치열한 정치적 갈등과 투쟁으로 문인들은 개인적 자각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동경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龔巖이 오랜 정치생활을 한 것은 요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도 司諫院 正言 신분으로 書筵官의 잘못을 상주했다는 이유로 安東府의 安奇驛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가 유배 중에 지은 漢詩를 보면,

其雨其雨日杲杲	비는 내리지 않고 해만 쨍쨍 내리쬐네
天心豈識民心勞	하늘이 어찌 백성의 고초를 알리오.
萬口待哺方哺囁	수많은 입들이 먹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이고 있으니
我欲上天天路高	나라도 임금께 아뢰고자 하나 길이 높구나.
嗟茲之早誠有由	아 아 가뭄은 진실로 연유가 있으니
安得淑問如皋陶	어찌 고요같이 착한 문육을 얻으리오.
雲師欲作風伯怒	구름이 일어나고자 해도 바람이 거역하는데
助勢黨惡鷗音豪	악한 자들이 무리 지어 올빼미 소리만 드세구나. ²²⁾

상은 魏晉시대에 유행했던 모든 사상을 흡수하여 儒家로 精華한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다.

21) 도연명이 서거한 지 일천 사백 년 후에 근대 작가 魯迅(1881-1936)이 <魏晉氣風與文章之樂有關飲酒>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연명의 시에는 퇴폐의 구취가 거의 없다.(淵明의 詩庶無頹廢之口臭.)"라고 품평한 것은 魏晉人的 飲酒觀과 도연명의 飲酒觀이 다름을 역설한 것이다.(魯迅, 《魯迅選集·第七卷》(東京: 岩波書店, 1976), 164쪽.)

위의 시에서 龔巖은 당시 정치현실에 대해 강렬한 문제의식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정치현실을 바로 잡아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연이은 士禍와 黨爭에 감당하지 못한 듯 歸去來하고자 하는 심정을 은연중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귀거래의 심정은 아래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

廊廟輸忠爲國家 조정에 충성을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함이니
 風雲魚水會享嘉 바람이 구름을, 물고기가 물을 만난 기쁨이로다.
 春陽縱卜新泉石 춘양은 비록 새 샘과 바위에 자리를 잡았지만
 身係安危未退何 몸은 나라 일에 매어 물러가지 못하니 어찌 하리요.²³⁾

라고 자신이 벼슬에 몸담고 있으면서 귀거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관직을 떠날 수 없어 자신을 '바람이 구름을', '물고기가 물 만난 상황'으로 비유하였다. 이것은 龔巖의 歸去來觀이 그의 現實指向의 의식과 직결되어 經世濟民하려는 유학자의 소명의식에서 나온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아래의 시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浮沒水上忘機鳥 물위에서 귀찮은 세사를 잊은 새가 떴다 잠졌다
 慙他閒閒送歲年 부끄럽도다 조용히 세월을 보내는 것이.
 白首奔馳南與北 백수로 남북을 쫓아다니며
 一生虛計說歸田 돌아가 농사한단 말 헛된 꿈이로구나.²⁴⁾

라고 읊어 벼슬과 귀거래의 갈등에서 귀거래에 꿈을 가지면서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탄식을 연발하였다. 이에 그는 귀거래의 심정을 달리 표현한 시로

22) 李賢輔, 〈謫中憂旱〉, 《龔巖先生文集》卷之一.

23) 李賢輔, 〈秋日 飲權禮判仲虛撥相公新宅次主人〉, 《龔巖先生文集》卷之一.

24) 李賢輔, 〈甘浦 次魚興海子游〉, 《龔巖先生文集》卷之一.

年年衰且病	세월이 감에 쇠약하고 병이 들어서
乞退惟其時	물러날 시기만을 원했는데.
家在嶺之南	집은 영남에 있고
魂夢尋常馳	넋은 꿈속에서도 노상 그리로 달리니. ²⁵⁾

라고 읊어 벼슬을 버리고 歸去來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여기서 귀거래의 동경과 벼슬 생활이라는 양면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는

青山環擁覆簷端	청산은 처마 끝에 감싸 돌렀고
左右亭臺對碧灘	좌우의 정대는 푸른 여울을 대했도다.
稻熟平原歸思切	들판엔 배 익었으리, 돌아갈 맘 절실하니
僮工摸取上屏看	화공 시켜 병풍 위에 그려 놓고 보리라. ²⁶⁾

라는 시를 읊으며, 그의 나이 44세가 되어 永川郡守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고향인 安東府 禮安 汾川가에 도연명을 그리는 明農堂을 지어 놓고, 그 벽에 도연명의 歸去來圖를 그려 걸어 놓아 그의 전원 생활에 대한 향수를 달래었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지은 아래의 글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빈 터를 얻어서 못을 파고 그 위에 당을 지어 도연명의 귀거래도를 그려 부쳤음은 뜻한 바가 있어서다. 임기가 되어 서울로 갔다가 갑술년 겨울에 다시 밀양부사로 갔다 돌아와 보니 벽에 歸去來圖는 그대로 있고 벼슬살이는 여전하니 어찌 수치가 아닌가! 그러나 노친이 계시니 임의로 못하고 다만 글귀를 지어 다른 날 성취를 시험해 보려 한다.(得隙地鑿池，而作堂其上，畫以淵明歸去來，焉秩滿還京，甲戌冬古能無羞愧乎時，則翁孃在堂，勢不得任，便姑今絕句留諸壁上欲驗，他日成就其志與更以密城宰來觀之，壁間圖書無恙而五斗之折，吾腰猶否云

25) 李賢輔, 〈題終南遊錄後〉, 《龔巖先生文集》卷之一.

26) 李賢輔, 〈憶汾川伊川兩家〉, 《龔巖先生文集》卷之一.

.)²⁷⁾

위 〈題明農堂並序〉에도 "밀양의 부사가 되어 와서 보니 벽에 그린 그림은 별 탈이 없으나 벼슬살이에 묶인 내 몸은 예나 다름없으니 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密城幸來觀之壁間圖畫無恙)"라고 쓰고, 이 시의 마지막 聯에서는 "벽에 가득히 귀거래 그림만 헛 그려 놓았었네.(滿壁虛成歸去圖)"라는 시구를 통해 정치에 얽매어 강호자연으로 귀거래하지 못함을 표현하였다.

韓巖은 위 〈題明農堂並序〉에 이어

龍壽山前汾水隅	용수산 앞 분수천 구석에
兔製新築計非無	땃집을 짓노니 뜻한 바 있어서다.
東華十載霜侵髮	벼슬길 10년에 서리진 귀밑머리
滿堂虛成歸去圖	벽에는 헛된 귀거래도만 가득할 뿐. ²⁸⁾

이라고 읊은 시는 귀거래를 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벼슬길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신을 한탄한 것이다. 위의 시에 나온 "땃집을 짓노니 뜻한 바 있어서다.(兔製新築計非無)"라는 시구는 도연명의 〈飲酒其五〉 시에 나오는 "사람들 틈에 농막 짓고 사니(結廬在人境)"의 시구를 연상하게 하여 귀거래를 언젠가는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벼슬길 10년에 서리진 귀밑머리(東華十載霜侵髮)"라는 시구는 도연명이 어려서부터 자연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성품과 맞지 않은 벼슬살이로 10여 년을 헛되게 소요한 것을 후회한 〈歸園田居其一〉 시에 나오는 "어느 덧 벼슬살이 13년을 겪었노라.(一去十三年)"라는 시구의 영향을 받아 읊었다. 그리고 "벽에는 헛된 귀거래도만 가득할 뿐(滿堂虛成歸去圖)"의 시구는 그의 사당 벽에 도연명의 歸去來 모습을 그려 놓은 歸去來圖가 벼슬길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고 비

27) 李賢輔, 〈題明農堂並序〉, 《韓巖先生文集》卷之一.

28) 李賢輔, 〈題明農堂〉, 《韓巖先生文集》卷之一.

유하여 읊은 것이다.

龔巖은 亭子를 지은 이유에 대해

未負幽栖志	깊숙이 깃들이려는 뜻을 저버리지 못해서
江湖作小亭	여기서 작은 정자를 지었구려.
千山環簇簇	많은 산들이 뿔뿔이 에워싸고
一水帶盈盈	한 줄기 물이 넘실넘실 떠를 떠었네.
舉目天光遠	눈을 드니 하늘빛이 멀고
憑欄地勢傾	난간에 기대니 땅이 기대는 듯.
膏肓成此地	깊은 병이 여기서 생겨 버렸으니
夢絕帝王城	임금님이 계신 성은 꿈도 꾸지 않으리. ²⁹⁾

라고 읊었다. 위의 “임금님이 계신 성은 꿈도 꾸지 않으리(夢絕帝王城)”라는 시구 표현은 자연에 대한 동경의 의지를 강렬히 밝힌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정치에서의 經世濟民에 대한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다했다는 듯이 龔巖은 마침내 귀거래의 뜻을 굳힌다.

余居嶺之南	내 영남에 사는 몸
京師爲旅寄	서울에선 나그네라.
旣非爲祿仕	이미 녹을 받은 벼슬아치 아니며
亦無百口累	먹여 살릴 가족도 없다네. ³⁰⁾

龔巖은 그의 나이 76세가 되어서야 40여 년 가까운 정치생활에서 손을 떼고 위의 시를 읊은 후 늦게나마 귀거래를 실천에 옮기게 된다.

歸去來 歸去來	말뿐이오 가리업시
田園이 將蕪하니	아니 가고 엇델고
草堂에 淸風明月이	나명들명 기다리느니 ³¹⁾

29) 李賢輔, 〈金丹城萬鈞枕流亭 次李明仲楸〉, 《龔巖先生文集》卷之一.

30) 李賢輔, 〈盆魚行 錄奉李景明 漉 昆季求和〉, 《龔巖先生文集》卷之一.

31) 李賢輔, 〈效顰歌〉, 《龔巖先生文集》卷之三.

龔巖의 위 시조는 도연명이 그의 마지막 벼슬이었던 彭澤令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결의를 표명한 〈歸去來辭〉에 나온 "전원이 황폐하고 있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歸去來兮, 田園將蕪, 胡不歸.)"라는 辭句를 본받아 지은 작품이다. 初章의 "歸去來 歸去來 말쑤이 오 가리업식"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귀거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풍자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歸去來하는 것을 "草堂에 淸風明月이 나명들명 기다리느니"라고 읊어 자연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함으로써 歸去來를 정당화 시켰다. 龔巖은 이 시를 〈效顰歌〉라고 이름 지은 것에 대해

가정 임인년(1542) 가을에 농암이 비로소 벼슬에 풀려나와 돌아오는 배를 세내어 한강에서 전별하고 배위에 취해 누우니 때마침 달이 동산에 떠오르고 가는 바람이 불어오는지라 도연명 귀거래사의 '배는 흔들리어 가볍게 날리고 바람이 불어 옷깃을 나부긴다.'라는 구절을 읊으니 돌아가는 흥겨움이 한결 짙어가기에 즐거이 웃고 이 노래를 지으니 이 노래는 원래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지었기에 이를 효빈가라 한다.(嘉靖壬寅秋, 龔巖翁始解圭組, 出國門, 賃歸船, 飲餞于漢江, 醉臥舟上, 月出東山微風乍起. 詠陶彭澤, 舟搖搖以輕飈, 風飄飄而吹衣之句, 歸興益濃, 怡然自笑, 乃作此歌, 歌本淵明歸去來辭而作故稱效顰.)³²⁾

라고 말하였다. 龔巖이 귀거래를 실천으로 읊기던 76세 되던 해에 圭組를 풀고 都城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머리에 올랐을 때 전송하는 많은 친지들과 술에 취하여 함께 船上에 누워 있으니 달은 동산에서 떠오르고 微風은 옷깃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는 표현은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집으로 돌아가는 배는 출렁출렁 가볍게 바람을 타고 떠가며, 표표히 부는 바람은 옷자락을 불어 날리고 있다.(舟搖搖以輕飈, 風飄飄而吹衣.)"라는 辭句의 정취를 연상하여 읊은 것이다.

32) 李賢輔, 〈效顰歌 序〉, 《龔巖先生文集》卷之三.

伏熱新亭避薄陰	복 더위 새 정자에 얽은 그늘 피하고
繫船沙岸暮江潯	모래 언덕 저문 강가에 배를 매어 두었다.
波光激灑杯中綠	물빛은 가득한 잔속에 푸르고
岳色嶙峋席上臨	피 빛은 높이 자리 뒤에 임했다.
亂舞狂歌期盡醉	어지러이 춤추고 미치게 노래하여 다 취하고
潯陽赤壁入高吟	심양 도연명 적벽 소동파는 높이 읊는데 들어갔다.
遙憐兩客尋津去	어여쁘다 두 손님 나루터 찾아가니
月白汀洲飛水禽	달은 물가에 밝고 황새는 날다. ³³⁾

龔巖의 위 시는 詩酒로써 자연 정취에 흠뻑 도취하여 자연을 벗 삼아 田園樂을 즐긴 도연명과 소동파의 모습을 연상하며 읊었다.

醉來睡著 無人喚
 流下前灘 也不知로다
 비딕어라 비딕어라
 桃花流水 鱖魚肥라
 지구충 지구충 於思臥
 滿江風月 屬漁船라³⁴⁾

위의 〈漁父長歌 第7章〉은 도연명이 가공적으로 그린 이상향을 모델로 하여 '無爲自然'의 소박한 생활 속에서 인위적인 정치의 구속이나 인간 역사의 변천도 느끼지 못하는 꿈같은 마을을 '桃花源'이라고 이름 지은 도연명의 〈桃花源記〉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인간적인 피나 농간은 물론 모든 인간적 지혜의 산물과도 동떨어져 사는 소박한 桃源境의 사람들을 흠모하며 오직 꾸밈없는 자연과 더불어 순박한 人情 속에서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안락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도연명의 이상향을 동경하며 龔巖은 이 시를 읊었다. 그리고 그는 도연명처럼 도원세

33) 李賢輔, 〈閏六月望與退溪及趙松崗汎舟賞月次退溪〉, 《龔巖先生文集》卷之一.

34) 李賢輔, 〈漁父長歌〉 第七章, 《龔巖先生文集》卷之三.

계에서 그의 참삶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峩峩小白與天齊	소백의 높은 산이 하늘과 같아
客到桃源路不迷	나그네 도원 길이 아득도 하구나.
我亦已成歸去賦	나 역시 귀거부를 지었으니
莫誇君獨有愚溪	그대만이 우계에 있다 자랑마라. ³⁵⁾

龔巖은 위 시에서 도연명의 이상향인 桃源境에 도달하기는 아득하지만, 자신도 歸去賦를 지어 읊으니 도연명과 정신적으로 동질성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외에 농암은

爲厭東華滿帽埃	나라에 벼슬을 싫어하여
溫溪卜築喜登臺	온계에 집을 짓고 즐거이 대에 오르다.
新居長物曾無遺	새 거처에 보낼 것 없어
誰遣筇枝再送來	지팡이를 두 번이나 보냈는가.
植杖陶翁 ³⁶⁾ 歆雅量	지팡이를 심은 도연명의 아량을 흠양하고.
把竿韓老慕高才	낚싯대를 잡은 한공의 높은 재주를 생각한다.
主人痼癖元同調	주인의 고질벽도 원래 같은 조격이라. ³⁷⁾

歸田賦已草	돌아와 농사한다는 글이 지어 있고
幽谷少塵愁	그윽한 골짜기 티끌 시름도 적다.
陶令雲常住	도연명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無心出岫頭 ³⁸⁾	무심하게 산머리로 나온다. ³⁹⁾

35) 李賢輔, 〈訪黃上舍于愚溪〉, 《龔巖先生文集》卷之一.

36)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또 때로는 지팡이를 세워놓고 김매기도 한다. (或植杖而耘耔)”라는 辭句가 있다.

37) 李賢輔, 〈聞豚兒輩送竹杖于退溪戲吟示兒輩兼呈退溪〉, 《龔巖先生文集》卷之一.

38)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야심 없는 구름은 산골짜기로부터 유연하게 높이 떠오르고(雲無心以出岫)”라는 辭句가 있다.

我今却笑桃源客⁴⁰⁾ 내가 지금 웃노니 도원의 손님이⁴¹⁾

白盡龔翁兩鬢華	회고 다 희어진 농암의 머리오
青年學士膺恩多	청년 학사는 임금의 은혜가 많았다.
江湖已作相忘地	강호에 이미 잊어버리자 하였는데
春近牆桃又負何	봄 복숭아꽃이 가까우니 또 어찌하나. ⁴²⁾

라고 읊은 시들을 지었다. 위의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또 때로는 지팡이를 세워 놓고, 김매기도 한다.(或植杖而耘耔)"와 "야심 없는 구름은 산골짜기로부터 유연하게 높이 떠오르고(雲無心以出岫)"의 辭句를 원용하였고, 세 번째 시와 네 번째 시는 도연명의 〈桃花源詩并記〉의 詩想을 연상하며 도연명이 귀거래한 후 田園閑居 생활을 동경하여 읊은 것이다.

5. 陶淵明 '歸去來' 意識의 영향을 받은 龔巖에 대한 後人の 평가

後人들은 龔巖의 行狀에 대하여 중국 "은일시인의 으뜸"⁴³⁾이요 田園詩의 開拓者인 도연명과 비겨서 아래와 같은 次韻詩들을 지었다.

彭澤高風颯座隅 팽택 높은 바람이 앉은 구석에 부니

39) 李賢輔, 〈奉唐 溪堂十絕〉, 《龔巖先生文集》卷之一.

40)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진나라 태원 연간에 무릉 사람으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晉太元中, 武陵人捕魚爲業, 綠溪行, 忘路之遠近, 忽逢桃花林)”라는 말이 있다.

41) 李賢輔, 〈病起吟呈退溪〉, 《龔巖先生文集》卷之一.

42) 李賢輔, 〈再唐 元夕絕句呈退溪〉, 《龔巖先生文集》卷之一.

43) 鍾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

千秋意契未能無	천추에 뜻 계합이 없는 것이 아니다.
他年報了君恩後	다른 해 임금 은혜 보답한 뒤에
壁上何妨續作圖	벽상에 계속하여 이 그림을 부치는 것이 무슨 방해 있을고. ⁴⁴⁾

위의 次韻詩는 金安國이 禮安을 來訪하여 雙親宴에 참석하고 〈龔巖詩題明農堂〉을 次韻한 것으로 金安國은 이 次韻詩에서 龔巖의 歸去來 뜻을 짐작하면서도 오직 나라 위해 忠君을 다하라는 慕齊 자신의 은근한 友情으로 이 같이 읊은 것이다. 이외에 ,

嶺外行行地一隅	영남땅 일우를 다니고 다녀도
山川明媚見曾無	산천이 명미한 곳 보지 못하였네.
此中宜着投簪老	여기는 마땅히 벼슬 버리고 있을 만하니
須倩龍眠上畫圖	화공의 솜씨 빌어 그려야 하리라. ⁴⁵⁾

病人宜退故山隅	병든 사람 마땅히 고향으로 가야하나
君亦言歸信有無	그대도 또한 간다고 말하는가?
何日紋枰亭上對	어느 날 정자에 바둑을 대하여
從君一賭壁中圖	그대 따라 귀거도를 내기하여 볼가? ⁴⁶⁾

天上聲名溢海隅	천상에 명예가 해우에 넘치고
人間福德似公無	인간에 복덕은 공 같은 이가 없다.
歸來却對明農壁	돌아와 명농당 벽을 대하니
始覺南行是畫圖	비로소 남쪽 길은 그림으로 깨닫는다. ⁴⁷⁾

라고 읊은 次韻詩들은 후인들이 龔巖의 歸去來 意識을 높이 숭앙하여 읊은 것이다.

한편 후인들은 龔巖의 깨끗하고 사회의 부패에 물들지 않은 선비정

44) 慕齊, 〈次韻〉.
 45) 思齋, 〈次韻〉.
 46) 松齋, 〈次韻〉.
 47) 愼齋, 〈次韻〉.

신을 기려 아래와 같은 증정시를 지어 바쳤다.

曾賦歸來善養身 淵明千載有斯人 閑居懸磬風烟足 恩賜通天雨露新 鄉里爭稱清素節 朝廷今失老成臣 平生積慶看諸子 況復遐齡抵九旬	일찍이 귀거래사를 지어 몸을 잘 기르더니 도연명의 천 년만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한거할 때 재산이 없어도 풍연에 만족하였고 은혜로 통천서대를 주시니 우로가 새로웠다. 향리가 모두 맑고 깨끗한 절개를 칭송하였고 조정은 지금 노성한 신하를 잃었다. 평생에 쌓은 경사는 여러 아들에게 보았고 하물며 구십 향수를 누렸다. ⁴⁸⁾
--	---

柴桑何處是陶門	시상 어느 곳이 도연명의 문이었단고 ⁴⁹⁾
---------	------------------------------------

投冠歸醉故山壺 彭澤千年此路蕪 想得幽居增絕勝 風流應入御前圖	벼슬을 두고 고향에 돌아와 술을 취하니 팽택 천 년에 이 길이 거칠었다. 생각이 그윽하게 거처하여 더 절승이 될 것이니 풍류가 어전 그림에 들어 갈 것이다. ⁵⁰⁾
--	---

地擬桃源清不俗	위치는 무릉도원 같이 세속이 아니고 ⁵¹⁾
---------	------------------------------------

是是非非摠付忘	시시비비를 다 잊어버림에 부친다. ⁵²⁾
---------	-----------------------------------

深慙陶令喜言歸	깊이 도잠이 돌아가기 즐거운데 부끄럽다. ⁵³⁾
---------	---------------------------------------

陶公入室酒盈樽	도공이 집에 들어가니 술이 잔에 가득 찼다. ⁵⁴⁾
---------	---

48) 李曹參判 權應昌, 〈輓章〉.
 49) 兪知 尹鉉, 〈輓章〉.
 50) 李滉, 〈濟川亭送李參判辭還〉.
 51) 任虎臣, 〈愛日堂追次李晦齋韻〉.
 52) 希樑, 〈元夕獻筵詩次韻〉.
 53) 李滉, 〈廣興寺用龔巖先生舊題韻〉.
 54) 大提學 鄭士龍, 〈輓章〉.

위의 贈呈詩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龔巖이 당시의 정치현실 속에서 생활하며 도연명의 귀거래 사상에 깊이 심취되었고, 이러한 도연명의 자연애호 사상을 그대로 그의 詩歌 문학의 詩情에 담아 그 시대상을 그대로 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國文學史에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국문시가를 통해

농암에 올라보니 老眼이 猶明이로다
人事의 변흔들 山川잇든 가실가
巖前에 某水某丘이 어제 본듯 訶예라⁵⁵⁾

라고 漢詩에 능했던 그가 국문시조를 지어 고향을 찾은 감회를 읊은 그의 정신은 국문학사의 일면에서 가히 감탄과 意義가 있다고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에 李佑成은

선생에 대한 평가는 국문학=시가문학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다. 선생의 漁父長短歌의 整理 製作과 〈效嘯歌〉·〈龔巖歌〉·〈生日歌〉 등의 시조작품이 우리나라 시가문학 사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사대부 사회에 이런 類의 가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 높이 평가되었던 것이다.⁵⁶⁾

라고 말하여 龔巖의 국문시가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龔巖의 歸去來 의식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自然과 合一', '物我一體'라는 시적 경지이다. 그의 40여 년간 벼슬살이에서 터득한 삶의 세계는 自然과 合一된 가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金興圭는 그의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龔巖의 自然合一 관념에 힘을 주는 글을 썼다.

55) 李賢輔, 〈農巖歌〉, 《龔巖先生集》卷之三.

56) 李佑成, 〈國譯 龔巖先生文集 序〉.

농암은 두 세계(정치현실과 강호자연)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 도덕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다고 보고 이 분열이 쉽사리 초극될 수 없음을 노래하였다. 그는 조선 초기 사대부층의 정치이상이 현실적인 모순 앞에 동요하면서 그 해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살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련을 체험하였다. 강호자연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가 마침내 정착하게 된 탈정치의 공간이자 부패한 세속의 세계에 대립하는 도덕적 완전성의 영역으로 형상화 되었다. 그 안에서의 삶이 유가적 이상에 비추어 전혀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전제한 분열 중에서 어느 한 쪽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강호의 폐쇄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⁵⁷⁾

韓巖은 오랜 벼슬생활에서 벗어나 歸去來하여 비록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해당하는 〈效嘯歌〉를 부르기는 했지만, 그는 士禍와 黨爭같은 험악한 정치현실에 직면하여서도 도피적 은둔이 아닌 자연과의 친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며, 친구 간의 두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면은 自然親和의 성품으로 승화 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自然親和는 退溪의 〈陶山十二曲〉, 栗谷의 〈高山九曲歌〉, 孤山の 〈山中新曲〉, 松江의 長短歌, 蘆溪歌辭, 曹植의 〈南冥歌〉, 宋寅의 〈水月亭歌〉, 宋純의 〈俛仰亭歌〉 등에 크게 영향을 주어 국문학사에서는 그를 江湖歌道の 창시자로 추앙하고 있다.

韓巖의 시가 가운데

桃花杏花는 夕陽裏에 피어있고
 綠陰芳草는 細雨중에 푸르도다.
 갈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현사롭다.

57) 金興圭, 〈江湖歌道와 政治現實〉, 《安東文化文庫》2(安東大學校 安東文化研究所, 1992).

라고 읊은 시는 江湖自然美에 대해 漢詩로 느끼는 정취를 국문시가로 바꾸어 예리한 자연관찰로 표현하였기에 강호시가를 읊은 다른 뜻 시인들에 비길 수 없는 작품이다.

退溪는 자연으로 歸去來한 龔巖의 行狀에 대해

물러나와 한가로이 지낸 뒤로는 더욱 스스로 시냇물과 산간에서 호방한 생활을 하였고, 매양 흥이 일어나는 곳에 이르면 문득 좃아가서 놀며 돌아올 것을 잊어버렸다. 외출할 때면 반드시 산에서 노는데 필요한 소도구들을 가지고 혼자 다녔다. 지팡이와 짚신 차림으로 수풀을 헤치고 산봉우리에 오르는가 하면, 두 노비에게 가마를 매게 하여서는 들과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누구나 다 재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나 또는 한 가닥 물, 한 덩이 돌이라도 조금 淸陰한 곳을 만나면 반드시 자리를 펴고 앉아 득의한 채 기뻐하면서도 술 마시는 것은 두세 잔에 지나지 않고서 담소가 연이어졌으며 하루 종일 피곤해하지 않았다. 風神은 蕭酒하고 높은 운치는 森逸하여 富貴나 塵埃의 기운은 한 점도 없었으니 간혹 글을 지으매 뜻이 淸新하여 小年들의 왕성한 저작도 미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절간에 가서 놀기를 좋아하여 영지·병암·월란·임강이 모두 그 장소인데, 최후에는 항상 臨江寺에 우거하였다. 때로는 또 가벼운 배, 짧은 돛대로 왕래하며 遊賞하고 侍兒로 하여금 漁父詞를 노래하여 감흥을 돋우도록 하니 표현히 세상을 떠나 독립하실 뜻이 있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늘 우러러보지 않는 이가 없었고, 지나는 이는 그 門에 나아가 뵈기를 영광으로 여겼다.(退閑之後, 于自放於溪山間, 每遇興到, 輒從游芒返. 其出, 必以遊山小具自隨. 或竹杖芒鞋, 穿林陟嶺, 或籃輿兩奴, 傍野巡溪. 自田夫牧豎見之, 不知其爲宰相也. 其遇可人, 與一水一石稍淸陰處, 必班荆而坐, 得意欣然, 飲酒不過三兩盃, 談笑亶亶, 終日不倦. 風神蕭灑, 岸韻森逸, 無一點富貴塵埃氣, 間出篇章 立意淸新, 有非少年盛作. 所可及也. 好遊僧舍, 靈芝屏庵月瀾臨, 皆其所, 而最後常寓於臨江. 時復輕舟短棹, 往來遊賞, 令侍兒歌漁父詞, 以寄興, 飄然有遺世獨立意. 時人莫不高仰之, 過者必造門侯謁, 爲幸焉.)⁵⁸⁾

58) 李滉, 〈龔巖先生行狀〉, 《退溪集》卷四十八.

라고 말하여 龔巖이 名利를 떠나 귀거래한 후 그의 行狀은 도연명이 귀거래하여 名利를 떠나 田園樂을 즐기는 行狀과 다를 바 없음을 退溪가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退溪는 龔巖의 자연시가에 대해

龔巖 李先生은 나이 70이 넘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멀리 떠나 汾水의 굽이로 와서 한가히 지내되, 나라에서 누차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富貴를 뜬 구름처럼 여기고 회포를 세상 물정 밖에다 붙이고서 物外에 붙여 항상 小舟短棹로 烟波 속에서 자유로이 노니고 釣石의 위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갈매기를 친근하여 마음을 담담하게 갖고 물고기를 구경하며 물고기의 낙을 알게 되었으니, 그 江湖의 樂에 있어서 그 참다움을 얻었다고 할만하다.(龔巖李先生, 年踰七十, 卽投綬高厲, 退閑於汾水之曲. 屢召不起. 等富貴於浮雲, 寄雅懷於物外 常以小舟短棹, 嘯傲於烟波之裏, 徘徊於釣石之上, 狎鷗而忘機, 觀魚而知樂, 則其於江湖之樂, 可謂得其真矣.)⁵⁹⁾

라는 글을 써서 龔巖의 江湖歌道 시가에 대하여 최고의 평을 하였다. 이를 보면, 龔巖에 의해 창도된 江湖歌道の 문학구현은 가사문학에서도 자연을 마음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의 자연미 발견은 곧 우리 민족의 자연관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다고 하겠다.

6. 結語

龔巖은 四大士禍와 黨爭 및 中宗反正의 政變이 있었던 조선의 정치·사회가 불안정한 시대에 활동한 정치가이자 문인으로서 도연명의 귀거래 사상에 깊이 심취하였다. 그래서 그는 벼슬에 대한 애착과 귀거래의

59) 李滉, 〈書漁父歌後〉, 《退溪集》卷四十三 跋.

갈등으로 모순된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明農堂을 지어 歸去來圖를 그려 놓아 도연명의 귀거래를 동경하다가 76세가 된 말년이 되어서야 그의 귀거래를 실천에 옮겼다.

龔巖은 조선 강호가도의 창시자로서 그의 자연애호 관념은 退溪의 〈陶山十二曲〉, 栗谷의 〈高山九曲歌〉, 孤山の 〈山中新曲〉, 松江의 長短歌, 蘆溪歌辭, 曹植의 〈南冥歌〉, 宋寅의 〈水月亭歌〉, 宋純의 〈俛仰亭歌〉 등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龔巖의 江湖歌道는 단순히 자연을 바탕으로 읊은 문학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상황과 가치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학사상이며, 그의 현실인식과 삶의 가치관은 국문학적 思潮로 이끈 '歸去來'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江湖歌道 詩歌인들이 가진 '歸去來'意識은 주로 黨爭에 의한 타율적인 외적상황에서 형성된 '黨爭下의 明哲保身'이라고 볼 수 있지만, 龔巖은 정치를 할 때에도 悠悠自適한 物外閒人처럼 귀거래를 동경하며 그의 시적 정서를 표현하였기에 그의 '歸去來'意識은 '致仕客의 閑適'으로 볼 수 있다.

龔巖은 도연명의 '自然愛好'와 '歸去來'意識에 깊이 영향을 받아 동경하면서도 도연명처럼 혼란과 부패의 정치·사회에서 바로 결별을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이 76세가 된 정치 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귀거래를 실천했다는 점은 도연명의 은일관념과 큰 차이를 보인다. 龔巖의 이러한 태도는 16세기 조선 士林들이 임금에 충성하고 經世濟民에 뜻을 두었던 出仕觀念 때문으로 볼 수 있다.

龔巖은 江湖自然에 처하여 자연의 攝理와 인간의 道理를 性理學的으로 융합하려는 시대정신을 自然親和에 다가가려는 의지로써 '귀거래'의 식을 표현하였고, 벼슬에 있을 때는 漢文詩를 위주로 하여 시를 짓다가 歸去來한 후에는 우리말의 時調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여 국문시가의 문학전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 《論語》(서울: 玄岩社, 1965).
《孟子》(서울: 玄岩社, 1965).
陶潛 撰·陶澍 注, 《靖節先生集》(臺北: 華正書局, 1975).
陶淵明 著, 車柱環 譯, 《韓譯 陶淵明全集》(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李賢輔, 《龔巖先生文集》(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9).
龔巖先生文集國譯刊行委員會 編, 《國譯 龔巖先生文集》(서울: 汾江書院, 1986).
退溪學叢書編刊委員會, 《退溪全書》(서울: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1992).
李滉, 《退溪集》(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李珥, 《栗谷全書》(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趙潤濟, 〈自然美의 發見〉, 《韓國文學史》(서울: 探求堂, 1993).
金鍾烈, 〈江湖歌道の 概念과 龔巖의 歸去來〉, 《안동문화문고》 2집(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92).
金興圭, 〈江湖歌道와 政治現實〉, 《안동문화문고》 2집(안동대 안동문화연구
소, 1992)
鄭權采, 〈尹孤山 文學의 思想的 考察〉(朝鮮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
1).
鄭英文, 〈龔巖文學에 나타난 自然觀〉(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
6).
崔珍源, 〈江湖歌道研究〉(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이성원, 〈龔巖과 退溪의 文學的 交遊樣相〉, 《안동문화문고》 2집(안동대 안
동문화연구소, 1992).
이상국, 〈李賢輔의 詩歌研究〉(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반기환, 〈龔巖 李賢輔 詩歌研究〉(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
4).
李廷卓, 《韓國文學散藁》(서울: 啓明文化社, 1990).
金興圭, 〈江湖歌道와 政治現實〉, 《安東文化文庫》 2집(安東大學校 安東文化
研究所, 1992).
魯迅, 《魯迅選集·第七卷》(日本: 岩波書店, 1976).

[中文摘要]

龔巖(李賢輔)作為活動在四大士禍與黨爭以及中宗反正政變的政治社會不安定時期的政治家與文人，深深陶醉于陶淵明的歸去來思想。因此對於官職他生活在愛戀與歸去來之間的矛盾中，在故鄉建立了明農堂，並繪歸去來圖，憧憬著陶淵明的歸去來，在他76歲的晚年實現了歸去來的願望。

龔巖作為朝鮮江湖歌道的創始者，他的愛好自然思想對退溪的《陶山十二曲》，栗谷的《高山九曲歌》，孤山的《山中新曲》，松江的長短歌，蘆溪歌辭，曹植的《南冥歌》，宋寅的《水月亭歌》，宋純的《俯仰亭歌》等有巨大的影響。

朝鮮江湖歌道的詩歌創作者們所具有的歸去來思想主要體現在由於黨爭而在他人的規律下的外在情況下形成的“黨爭之下明哲保身”，然而李賢輔在政治上也悠然自得如在世俗之外一般憧憬歸去來，在其詩歌的情緒表現上體現出“致仕客的閒適”。

龔巖居於江湖自然中，當時的時代精神是將自然的法則與人間的道理融合為一的性理學，他以力圖自然貼近於這種時代精神的意志，通過歸去來表現出來，為官時以作漢文詩為主，歸隱之後以韓國語的時調表現自身情緒，可以說對國文詩歌文學傳統的基礎具有重大的意義。

關鍵詞：歸去來思想，歸去來圖，湖歌道的創始者，黨爭之下明哲保身，致仕客的閒適，國文詩歌文學傳統的基礎。

투고일: 2008. 6. 29.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東萊博議》와 齊桓公論*

李在夏**

〈목 차〉

1. 緒言
2. 呂祖謙의 生涯와 著述
3. 《東萊博議》의 著作과 板本
4. 《東萊博議》와 齊桓公論
5. 《東萊博議》의 限界
6. 結語

1. 緒言

《東萊博議》는 呂祖謙이 《春秋左傳》을 바탕으로 엮은 歷史評論書이며, 齊桓公은 春秋時代를 대표하는 霸者이다. 여조겸은 宋나라의 전형적인 명문가 출신으로 해박한 학식과 사상으로 呂學의 길을 열었으며, 그의 《동래박의》는 科擧를 위한 지침서였다. 따라서 과거로 인재를 선발했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學人들로부터 아낌을 받았다. 때문에 수많은 評각이 이루어졌으며, 朴趾源의 〈兩班傳〉에서도 양반이라면 누구나 달달 외워야만 하는 책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던 것이다.¹⁾ 하지만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星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12228@ks.ac.kr)

1) 五更常起, 點硫燃脂. 目視鼻端, 會踵支尻. 東萊博議, 誦如冰瓢. 李家源 校注, 《李朝漢文小說選》(서울: 普成文化社, 1978), 220쪽.

이에 대한 연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 형편이다.²⁾ 이에 본 논문은 여조겸과 《동래박의》에 대해서 살펴본 뒤, 《동래박의》의 齊桓公論을 통해 《동래박의》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2. 呂祖謙의 生涯와 著述

呂祖謙은 南宋을 대표하는 經學家·史學家·教育者·文獻學者였다. 字는 伯恭으로, 婺州(지금의 浙江省 金華) 출신이다. 송나라 高宗 紹興 7년

2)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연구로는 富恩·施昌東·余慶, 〈論呂祖謙的歷史哲學〉, 《哲學研究》, 1984. 孫方明, 〈呂祖謙史學思想初探〉, 《西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85. 李炳泉, 〈呂祖謙的史學思想〉, 《烟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 등과 1985년 단순히 《동래박의》 독해라 할 수밖에 없는 《新聞戰線》의 기사인 知人論事 卓然一家—讀《東萊博議·鄭伯克段于驛》 및 借托諷喻 深入淺出—讀《東萊博議·楚莫敖屈瑕》 등 몇 편의 글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臺灣에서는 碩士學位 論文으로 許愛蓮, 《呂祖謙及其東萊博議》, 2001,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가 있다. 日本에서도 논문은 보이지 않고 책으로 阪谷朗廬, 《東萊博議評註》6冊, (東京, 汎愛堂, 明治 12년). 堀捨二郎/深井鑑一郎, 《校訂標註 東萊博議》3冊, (東京, 伊藤岩治郎出版, 明治 25년). 五十川左武郎/近藤元, 《東萊博議講義》4冊, (東京, 青木嵩山堂, 明治 28년). 田岡佐代治, 《和譯東萊博議》, (東京, 玄黃社, 明治 45). 塚本哲三 編, 《文章軌範·東萊博議》(漢文叢書 第4), (東京, 有朋堂書店, 大正10)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술논문이나 제대로 완역된 책이 없다. 奎章閣에 소장된 것은 落帙本이며, 嶺南大圖書館에 소장된 판본은 완전하나, 168편으로 이루어진 《동래박의》의 완전한 판본이 아닌 86편으로 이루어진 縮約本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 《呂祖謙全集》(全 16冊)이 浙江古籍出版社에서 출판됨으로써 여조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조겸전집》에는 여조겸의 詩·賦·文·頌·贊·序·跋·銘·志·傳·表·疏·評論·策·問·挽·章·家範·規約·尺牘·筆記 등 각종 문체와 政治·理學·經義·修身·教育·宗法·歷史·文學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으며, 이것은 《四庫全書》는 물론 胡宗憲의 《續金華叢書》와 송나라 呂喬年의 《東萊呂太史集》과 명나라 嘉靖 시기의 安正書堂의 《東萊呂太史集》 40권 등의 판본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다.

(1137) 3월 17일에 태어나 孝宗 淳熙 8년(1181) 7월 29일 45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³⁾ 欽宗 때 資政殿學士와 刑部尙書 등을 지낸 曾祖父 呂好問이 東萊君侯에 봉해져 婺州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 동래선생이라 일컬어지게 되었으며, 후세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여조겸 또한 東萊先生이라 일컫게 된 것이다. 여조겸의 시호가 ‘成’이었던 관계로 呂成公이라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여조겸의 집안은 송나라를 대표하는 權門勢家였으며,⁴⁾ 家學의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⁵⁾ 여조겸은 이러한 家風에 자부심을

3) 《呂祖謙全集》 1冊 737-751쪽, 〈東萊呂太史文集附錄·年譜〉 참조.

4) 여조겸의 가문은 宋나라의 건국과 함께 명문으로 부상했다. 宋初 起居郎을 지낸 呂龜圖의 아들 呂蒙正(946~1011)은 太宗과 眞宗 때 세 번에 걸쳐 宰相의 자리에 올랐으며, 구도의 동생으로 殿中丞을 지낸 呂龜祥의 아들 呂蒙亨은 大理寺丞을 지냈다. 몽형의 아들 呂夷簡(978~1043)은 昭文殿太學士를 거쳐 仁宗 때 세 번 재상의 자리에 올랐으며, 許國公을 冊封 받고 仁宗廟廷에 配享되었다. 여구상은 여조겸의 8대조이며, 몽형은 7대조, 이간은 6대조가 된다. 이간의 아들로 여조겸의 5대조인 呂公著(1018~1089)는 歐陽修的 學友로 神宗과 哲宗 때 門下侍郎과 中書侍郎 등을 지냈으며, 司馬光과 함께 國柄을 쥐고 王安石의 新法을 改廢하고 申國公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공저의 長子로 여조겸의 高祖인 呂希哲은 哲宗 때 崇政殿學士를 지냈다. 희철의 아들로 여조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曾祖父 呂好問은 靖康之亂의 渦中에서 榮辱을 무릅쓴 사람이며, 여조겸의 經世致用的인 學問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문의 字는 舜徒로 欽宗 때 吏部侍郎·兵部尙書 등을 역임했다. 정강지란 때 徽宗과 欽宗을 수행하며 金나라와의 外交를 담당하였으며, 高宗 때 尙書右丞을 거쳐 東萊君侯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오해를 사기도 하였으나, 胡安國 등의 辯護로 위기를 벗어나곤 하였다. 여호문은 五男一女를 두었으며, 孫子가 아홉, 曾孫子가 열여섯이었다. 그 가운데 여조겸의 伯祖父인 呂本中은 高宗 때 起居舍人·中書舍人兼侍講을 지냈으며, 祖父인 呂芻中은 駕部員外郎·右朝請郎 등을 지냈다. 여조겸의 부친 呂大器는 右朝散郎이었다. 이러한 家系는 여조겸이 33세 때 쓴 여호문의 傳인 〈東萊公家傳〉에 보이는 내용으로, 그 어떠한 기록보다 정확하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이는 여러 책의 기록은 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宋史》 434권 〈儒林傳〉 呂祖謙條에서는 “呂祖謙字伯恭, 尙書右丞好問之孫也.”라 하였고, 심지어 2008년에 출판된 《呂祖謙全集》의 黃靈庚이 쓴 〈前言〉에서조차도 呂蒙正을 8대조, 呂夷簡을 7대조라고 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東萊公家傳〉에 맞추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갖고 학문에 열중할 수 있었다. 더욱이 여조겸의 집안에는 수많은 藏書를 갖추고 있었다.⁶⁾ 이른바 1127년의 靖康之亂, 中原을 송두리째 金나라에 내어주고 杭州로 내려와 명맥을 유지했던 南宋, 이러한 복새통에 수많은 文獻은 金兵에 의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金나라의 傀儡政權인 楚나라 張邦昌에게 잠시 몸을 의탁했던 여조겸의 曾祖父 呂好問과 伯祖父인 呂本中 父子는 소장한 문헌을 고스란히 강남으로 옮길 수 있었다. 때문에 여조겸의 집안에는 남다른 중요문헌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조겸은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수많은 典籍을 탐독할 수 있었으며, 그가 文獻整理와 考證에 두각을 나타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여조겸은 隆興 원년(1163) 27세에 進士에 及第하였으며, 같은 해 博學宏詞科에도 합격하였다. 太學博士와 史職을 역임한 그는 輪對에서 孝宗에게 聖學에 힘쓸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⁷⁾ 부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던 그에게 다시 秘書郎·國史院編修官·實錄院檢討官 등의 직책이 주어졌고, 《徽宗實錄》 重修에 참여하였으며, 著作郎을 맡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명을 받들어 《聖宋文海》를 편집했고, 北宋 諸賢의 文集 150권을 엮기도 하였다.⁸⁾

특히 여조겸은 뛰어난 학식과 훌륭한 인품으로 당시의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도 어려서는 성격이 매우 조급했던 모양이다. 후일 《論語》를 읽고 이러한 성격을 고치게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朱

5) 《宋史》 311권 〈呂夷簡傳〉, 336권 〈呂公著傳〉, 376권 〈呂本中傳〉 및 《東萊呂太史文集》 14권 〈東萊公家傳〉에 呂氏一家의 勤學과 著述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이며, 특히 全祖望의 《宋元學案》 19권 《范呂諸儒學案》에는 呂公著 이후 呂氏一門의 학자 17인이 들어있다.

6) 《宋史》 434권 〈儒林傳·呂祖謙條〉에서는 “祖謙之學本之家庭, 有中原文獻之傳.”이라고 하였고, 《宋元學案》 36권 《紫微學案》에서 全祖望은 “中原文獻之傳獨歸呂氏, 其餘大儒非及也.”라고 하였다.

7) 《宋史》 434권 〈儒林傳·呂祖謙條〉 참조.

8) 문집이 완성되자 孝宗은 《皇朝文鑑》이라 명명하였으며, 후세에는 보통 《宋文鑑》으로 일컬어진다.

熹(1130~1200)는 “배움이 伯恭만 같다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⁹⁾ 여조겸은 林之奇·汪應辰·胡憲 등을 事師하였으며, 張栻·주희 등과 어울려 세 사람 모두 이름을 날렸던 관계로 보통 이들을 東南三賢이라 일컬었다. 특히 주자와 학문적으로 대척점에 놓여있었던 陸九淵(1139~1193)과도 막역한 사이였다.¹⁰⁾ 이처럼 여조겸은 주희는 물론 육구연과도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들의 학문을 절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곧 주희의 理學과 육구연의 心學을 조화시키기 위한 鵝湖之會가 바로 그것이다.¹¹⁾

이러한 여조겸은 諸家の 사상을 두루 익혀 절충적인 색채가 강한 학문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주희와 육구연을 겸하여 性理說을 주장했지만, 空豁함에 불만을 품고 讀書와 致用을 주창하였다. 따라서 그의 학문은 致知·居敬·力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의 저술 또한 이러한 경향을 띤다. 이처럼 여조겸은 유학의 집대성자로 익히 알려진 朱子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세계관은 주자와는 사뭇 달랐다. 주자가 외골수로 성리학에 몰입하였다고 한다면, 여조겸은 좀 더 넓은 안목에서 절충적인 학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陸九淵의 견지를 인정하였고, 심지어 주자와는 대립적인 蘇東坡의 학맥과도 폭 넓은 교류를 가졌다. 따라서 그의 저술은 그만큼 폭이 넓고 글도 자유분방하다.

여조겸의 짧은 생애와 달리 그가 이룩한 저술은 대단히 많다. 2008년 浙江古籍出版社에서 처음으로 엮어낸 《呂祖謙全集》만 하더라도 菊

9) 《人譜類記》에서 “呂東萊少時性褊急，一日誦論語躬自厚而薄責於人，忽覺平日忿懣渙然冰釋。朱子嘗言學如伯恭，方是能變化氣質。”이라고 하였다.

10) 《宋史》 434권 〈儒林傳〉：“祖謙嘗讀陸九淵文喜之，而未識其人。考試禮部，得一卷，曰：‘此必江西小陸之文。’揭示，果九淵，人服其精鑑。”

11) 鵝湖之會는 孝宗 淳熙 2년(1175) 江西 信州(지금의 上饒市)의 鵝湖寺에서 5월 말부터 10일간에 걸쳐 열렸던 학술토론회다. 당시 39세였던 여조겸은 金華에서 福建으로 가 朱熹를 만났으며, 다시 陸九淵을 만나 서로의 학문적인 오해를 풀고 합일점을 찾기 위하여 회합을 주선했다. 당시 주희는 육구연을 ‘禪學’이라 꼬집었으며, 육구연은 주자를 ‘支離’하다고 힐난하고 있었다. 회합은 理學과 心學의 本體論이나 方法論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지만, 중국학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版으로 1만 5천 쪽이다. 여조겸의 저술은 총 60종에 달하며 그 가운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이렇다. 여조겸은 주희와 함께 周敦頤·張載·程顥·程頤의 글을 가려 뽑아 《近思錄》 10권을 편집하였으며, 韓愈·柳宗元·歐陽修·曾鞏·蘇洵·蘇軾·張耒의 글 60여 편을 《古文關鍵》 2권으로 엮었고, 范祖禹의 《唐鑑》 24권에 주를 달기도 하였다. 經史에 뛰어난 그는 《詩》·《書》·《春秋》에 담긴 뜻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저서로 《春秋》와 《史記》를 따라 엮은 《大事記》를 비롯하여 《古周易》 2권, 《書定考》·《官箴》·《辨忘錄》 및 《增修東萊書說》 35권, 《呂氏家塾讀詩記》 32권 등이 있다.

여조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저작은 《春秋左傳》에 관한 것으로, 《左氏博議》 25권과 《左氏傳說》 20권 및 《左氏傳續說》 12권이 바로 그것이다.¹²⁾

3. 《東萊博議》의 著作과 板本

《東萊博議》의 原名은 《左氏博議》이다. 呂祖謙을 東萊先生이라 호칭하였던 관계로 후인들은 《東萊左氏博議》, 또는 《東萊先生左氏博議》라고 일컬었으며, 이를 줄여서 《동래박의》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동래박의》는 여조겸 수많은 저술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른 저술이다. 淸나라 高宗 乾隆 43년(1778) 紀昀 등이 작성한 《四庫全書》 〈左氏博議提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좌씨박의》 25권은 송나라 여조겸이 지었다. 전해지는 말로는 여조겸이 장가를 든 뒤 한 달 안에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한다. (左氏博議二

12) 이 밖에도 《左傳類編》 6권, 《春秋集解》 30권, 《左氏國語類編》 등이 《通志堂經解》나 《四庫全書》에 들어있다. 또한 《左氏統紀》 30권, 《左氏手記》 1권, 《春秋講義》 1권, 《春秋集傳微旨》, 《左氏綱目》 30권 등의 저술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十五卷宋呂祖謙撰. 相傳祖謙新娶, 於一月之內成是書.)

이 말은 明나라 彭大翼이 엮은 《山堂肆考》의 말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산당사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송나라 여조겸의 자는 백공이며, 호는 동래이다. 그가 장가든 뒤 한 달 동안 집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까칠해졌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땐 《좌씨박의》 한 다발이 완성되어 있었다. (宋呂祖謙, 字伯恭, 號東萊. 娶後一月不出閨, 人謂其色荒也. 及出, 乃成左氏博議一帖.)¹³⁾

여기에서 다시 〈東萊博議自序〉를 살펴보기로 하자.

《좌씨박의》는 생도들의 과거시험을 위하여 엮은 것이다. 애초에 내가 東陽의 武川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라곤 숲과 골짜기 뿐 사립문을 나서 바라보아도 찾아주는 사람이라곤 없었다. 반년쯤 지나서야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서먹함을 걷어내고 나와 어울리게 되었으며, 답소를 나누던 가운데 과거시험 문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글쓰기를 도울 생각으로 《춘추좌씨전》을 바탕으로 治亂과 得失의 자취를 더듬어 이에 대한 논설을 대충 적어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다보니 어느덧 여러 편이 엮여지게 되었다. 諸生들은 명절이나 휴가를 갈 때도 반드시 이것들을 베껴 행장 속에 넣어가지 않은 자들이 없었다. 더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관계로 더더욱 사방으로 널리 퍼져 거두어들이 수도 없게 되고 말았다. (左氏博議者, 爲諸生課試之作也. 始予屏處東陽之武川, 仰林俯壑, 出戶而望, 目盡無來人. 居半歲, 里中稍稍披蓬藿, 從予遊, 談餘語隙, 波及課試之文. 予思有以佐其筆端, 乃取左氏書, 理亂得失之蹟, 疏其說於下. 旬儲月積, 浸就編帙. 諸生歲時休沐, 必抄真褚中解其歸裝無虛者, 並舍姻黨, 復從而廣之, 曼衍四出, 漫不可收.)

13) 《呂祖謙全集》 6冊 584쪽에서 재인용.

이상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여조겸은 《동래박의》를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은 아니며, 아내를 얻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서 과거를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엮었다는 것과 춘추시대의 治亂과 得失을 논의하였다는 점 등은 《동래박의》의 내용이나 성격과 일치함으로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그가 언제 이 책을 엮었던 것일까?¹⁴⁾ 새로 장가를 들었던 때와 東陽에 거처했던 시기임은 분명하다.

여조겸의 年譜에 의하면 그가 韓元吉¹⁵⁾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해는 紹興 27년(1157)이다.¹⁶⁾ 당시 그는 21세였으며, 동양이 아닌 信州에 머물고 있었다. 때문에 이때는 분명 아니다. 이후 乾道 3년(1167) 5월 母親喪으로 東陽의 明招山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4년에 이미 《좌씨박의》와 〈東萊公家傳〉을 썼으며, 5년 2월 모친상을 벗은 뒤 5월에 부인 한씨의 여동생을 繼娶했다.¹⁷⁾

14) 이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전해지는 《동래박의》의 여러 板本들 가운데에는 文淵閣 《四庫全書》를 비롯하여 대부분 〈左氏博議原序〉나 〈東萊博議自序〉 및 〈呂祖謙自序〉란 명칭으로 여조겸 자신의 서문이 들어있으며, 그 글들 가운데 더러는 말미에 “乾道五年九月初四日, 東萊呂祖謙伯恭序.”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연각 《사고전서》의 서문에는 年紀가 없지만, 이후 판각된 光緒 29년(1903) 存粹齋本과 최근의 《呂祖謙全集》의 서문에는 이러한 年紀가 들어있다. 따라서 이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여조겸이 《동래박의》를 완성한 때는 곧 乾道 5년(1169) 가을이며, 그의 나이 33세 때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문의 年紀는 後인들이 《四庫全書提要》를 참고로 삼입한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5) 여조겸의 丈人 韓元吉은 建州의 知縣을 거쳐 司農寺主簿 등을 지냈다.

16) 《呂祖謙全集》 1冊 737-749쪽 〈年譜〉 참조.

17) 여조겸은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와는 달리 가정사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21세에 韓氏와 결혼한 그는 23세 때인 겨울 딸 畢年을 낳았고, 25세 때인 5월에는 아들 岳孫을 낳았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죽었다. 다시 26세이던 6월 아들 齊孫을 낳았으나 6일 만에 죽었고, 아내 한씨마저 아들은 낳은 지 보름 만에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繼娶한 한씨의 여동생으로부터 35세 때 딸 螺女를 낳았으나, 이 아내 또한 아이를 낳은 지 20여일 만에 죽었으며, 딸 또한 다음 해 죽었다. 다시 41세 때 國子祭酒 芮燁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연보는 여조겸의 동생 呂祖儉이나 제자가 작성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5년 5월 한씨의 여동생을 맞아들인 것을 말하며, 《동래박의》는 모친상을 치르는 약 2년 동안에 작성되었다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가를 든 뒤 한 달 만에 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여조겸이 모친상을 치르는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틈틈이 《동래박의》를 작성하였으며, 점점 쌓여가는 원고를 신혼기간에 정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동래박의》는 乾道 5년(1169)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당시 여조겸의 나이는 33세였다. 때문에 그의 《동래박의》는 젊은이의 패기와 기발함이 무르녹아 있지만, 때로는 精製되지 못한 구석도 있다. 歷史評論書로서의 《동래박의》에 나타난 패기와 기발함을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제되지 못한 구석은 단점이라 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쪽 《동래박의》의 한계에서 짚게 될 것이다.

젊은 나이에 완성된 책이며, 과거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동래박의》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따라서 술한 판본과 각기 다른 體裁로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동래박의》의 가장 중요한 판본으로는 文淵閣 《四庫全書》本 《동래박의》와 淸吟閣本 《동래박의》 및 《金華叢書》本 《동래박의》를 꼽을 수 있다.

《四庫全書》〈左氏博議提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동래박의》는 모두 168편이며, 《文獻通考》에서 말하는 20권본은 이 판본과 다르다. 論題마다 《春秋左傳》의 傳文을 실었으며, 글 사이사이에 典故와 간략한 注釋도 덧붙였다. 때문에 25권으로 나누었던

그녀 또한 여조겸이 죽기 1년 전인 44세 때 죽고 말았다. 이처럼 여조겸은 아내 셋을 모두 생전에 사별하여 明招山 先塋에 묻어야만 하였으며, 혈육이라곤 첫째 딸 畢年 뿐이었다.

것으로 여겨진다. 누구의 注인지는 알 수 없으나, 標題나 板式으로 미루어 麻沙本인 듯하다. 《宋史·藝文志》에 의하면 呂祖謙의 門人 張成招의 《標注左氏博議綱目》 1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마 책방에서 책을 찍어낼 때 장성초의 표주를 각 편에 나누어 끼워 넣었으리라. 楊士奇는 달리 15권본이 있는데 ‘精選’이란 표제가 붙어있다고 하였으며, 黃虞稷은 明나라 正德 연간에 20권본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12권만으로 이루어진 판본은 篇目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字句마저 함부로 삭제한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세상에는 완전한 《동래박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제 《四庫全書》의 이 底本은 董其昌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印章과 아울러 朱彝尊의 收藏印인 찍혀있다. 이 또한 옛 판본의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書凡一百六十八篇, 通考載作二十卷, 與此本不同. 蓋此本每題之下附載左氏傳文, 中間徵引典故, 亦畧注釋, 故析爲二十五卷. 其注不知何人作, 觀其標題板式, 蓋麻沙所刊. 考宋史藝文志, 有祖謙門人張成招標注左氏博議綱目一卷, 疑當時書肆以成招標注散入各篇也. 楊士奇稱別有一本十五卷, 題曰精選. 黃虞稷稱明正德中有二十卷刊本. 今皆未見. 坊間所鬻之本僅十二卷, 非惟篇目不完, 併字句亦多妄削, 世久不見全書. 此本有董其昌名字二印, 又有朱彝尊收藏印, 亦舊帙之可寶者矣.)

이 말에 따르면 《四庫全書》本은 明代의 유명한 書畫家인 董其昌(1555~1636)의 印章이 찍힌 것으로 미루어보아 明나라 이전의 麻沙本¹⁸⁾이 분명하며, 그것은 浙江巡撫使가 採集하여 조정에 올린 것이라 한다.¹⁹⁾ 이러한 《사고전서》본에는 여조겸의 〈左氏博議原序〉가 앞쪽에 놓여있으며, 각 편의 書頭に 《春秋左傳》의 傳文과 글 가운데 註가 삽입되어 있다. 《동래박의》의 내용이나 體例 및 校勘에 있어서 비교

18) 중국의 옛날 板本 가운데 粗雜한 것을 일컫는다. 麻沙는 南宋 때 福建 建陽縣의 別稱이며, 이곳에서는 손쉽게 책을 찍어내 그 유통되는 양이 매우 많았다. 옛날 杭州의 판본을 제일로 쳤으며, 다음이 蜀本이었다. 福建本은 下品으로 인식되었다.

19) 《呂祖謙全集》 6冊 《左氏博議》 1쪽 및 簡宗梧의 〈導讀〉 7쪽(《新譯東萊博議》, 三民書局, 臺北, 1991) 참조.

적 완전한 판본이라 하겠다. 다만 〈提要〉에서는 모두 168편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2편이 모자란다. 곧 《동래박의》 10권의 〈晉나라 里克이 군대를 이끌고 狄人을 물리치다/晉里克帥師敗狄〉²⁰⁾와 12권의 〈秦나라와 晉나라가 陸渾 지역의 戎狄을 이주시키다/秦晉遷陸渾之戎〉²¹⁾를 슬그머니 《동래박의》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히 漢族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했던 여조겸의 입장에 불만을 느낀 女真族인 淸나라에 의해서 《사고전서》의 편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淸吟閣本 《동래박의》는 乾隆 50년(1785)의 《사고전서》本보다 50여년 뒤인 道光 18년(1838) 錢唐의 瞿世瑛이 판각한 것이다. 청음각본은 《사고전서》본을 기초로 하면서도 2편을 복구시키고 교정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 따라서 繁多한 傳文과 註를 삭제함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줄인 면도 없지 않지만, 어떠한 판본보다도 깔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최초로 발간된 《呂祖謙全集》은 이 판본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金華叢書》本 《동래박의》는 同治 7년(1868) 胡鳳丹이 판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청음각본을 따르면서 상당부분 교정의 진전을 보였으며, 《叢書集成初編》의 底本이 되었다.

이상은 세 판본은 모두 168편본이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많이 유행한 판본은 86편으로 구성된 縮約本이다. 축약본은 편의 숫자도 약 반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각 편의 내용도 상당부분 줄이거나 글자를 바꾸기까지 하였다. 때문에 앞에서 보았던 《四庫全書》〈左氏博議提要〉에서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12권만으로 이루어진 판본은 篇目도 불완

20) 이 편은 기원전 653년 晉나라 獻公이 狄人 지역으로 달아난 公子 重耳(晉文公)를 압박하기 위하여 벌인 싸움을 바탕으로 이민족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피력한 글이다. 여조겸은 특히 聖人도 夷狄에 대해서는 인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淸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21) 이 편은 기원전 638년 秦나라와 晉나라가 伊川 지역으로 오랑캐를 이주시킨 사건을 바탕으로 夷狄과 華夏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한 글이다. 漢族 知識人을 대표하는 여조겸의 강력한 華夷論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을 淸나라 입장에서 곱게 볼 리가 없었다.

전할 뿐만 아니라 字句마저 함부로 삭제한 것이 대부분이다”고 하였으며, 淸吟閣本 〈例言〉의 첫머리에서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판본은 겨우 86편만 실려 있어 독자들은 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워하였다. 더구나 함부로 字句를 잘라내고 제목도 바뀌었기 때문에 유달리 廬山의 眞面目을 잃고 말았다. (今世通行本僅載八十六篇, 讀者每以未窺全豹爲憾. 且刪節字句, 改題篇目, 殊失廬山眞面目.)²²⁾

이러한 축약본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鐵琴銅劍樓書目》²³⁾에 元나라 때 관각한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16권 86편본이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이미 元代에도 축약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6년에 출판된 世界書局의 《東萊博議》는 바로 이러한 축약본을 정리한 것이다.

4. 《東萊博議》와 齊桓公論

齊桓公은 춘추시대를 대표하는 霸者인만큼 그에 대한 《동래박의》의 논의는 춘추시대 어느 누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다면 《춘추좌전》을 바탕으로 평론을 이끌어가는 《동래박의》에서의 제환공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조검은 懷疑的인 시각에서 제환공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분명 여조검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동래박의》를 읽는 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글이다.

22) 《呂祖謙全集》 6冊 577쪽, 〈淸吟閣正本重刻東萊博議例言〉 참조.

23) 淸代 瞿鏞이 엮은 自家의 藏書目錄이다. 嘉慶·道光 시기에 常熟의 瞿紹基는 善本을 모아 恬裕堂에 이를 보관하였으며, 이를 계승한 그의 아들 瞿鏞은 이 책을 엮었다.

《동래박의》 168편 가운데 제환공에 대한 논의는 무려 9편이다.²⁴⁾ 그 가운데 〈제환공이 제나라로 먼저 들어가다/齊桓公先入齊〉,²⁵⁾ 〈관중이 제환공에게 안일은 鳩毒과 같다고 말하다/管仲言齊侯宴安鳩毒〉,²⁶⁾ 〈제나라 중손추가 노나라의 정사를 살피다/齊仲孫湫觀政〉,²⁷⁾ 〈군사 기밀을 누설한 제환공의 시중꾼 豎貂/齊寺人貂漏師〉,²⁸⁾ 〈초나라가 弦나라와 黃나라를 멸망시키다/楚滅弦黃〉,²⁹⁾ 〈정나라 태자 華의 요청을 거절한 제환공/齊桓公辭鄭太子華〉³⁰⁾ 등은 제환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논의이지만, 그 주제는 결코 제환공이 아니다.

제환공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是非非非를 논의한 글은 3편이다. 먼저 〈제환공이 曹을 수비하고 邢나라와 衛나라를 옮기다/齊侯戍曹遷邢封衛〉는 제환공의 殘忍性을 거론한 글이며, 〈양곡에서 회맹을 갖고 楚나라 정벌을 꾀하다/會陽穀謀伐楚〉는 私憾과 公憤 사이에서 초나라 정벌의 명분을 영뚱한 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제환공과 관중의 短見을 논의한 글이다. 그리고 〈蔡邱에서 회맹하여 우호를 다지다/會於蔡邱尋盟〉는 제환공의 자만과 한계를 논의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齊侯戍曹遷邢封衛〉만을 바탕으로 《동래박의》의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4) 86편으로 이루어진 縮約本에는 〈제환공이 제나라로 먼저 들어가다/齊桓公先入齊〉 1편만 있는데, 그만큼 縮約本에서도 제환공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25) 齊桓公보다는 한 때 敵讎였던 제환공을 임금으로 모신 管仲의 處身을 긍정적으로 논의한 글이다.

26) 管仲이 齊桓公을 경계시킨 安逸과 遊宴을 논의한 글이다.

27) 齊桓公이 魯나라 侵攻을 위하여 仲孫湫를 보내 노나라의 사정을 살피도록 하였던 것을 논의하였지만, 그 주제는 어디까지나 美風良俗이야말로 한 나라의 근간임을 피력한 글이다.

28) 齊桓公과 管仲 사이의 役割分擔과 密約에 대한 논의로 관중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룬 글이다.

29) 齊桓公의 無責任性을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그 요지는 어디까지나 남의 힘에 의지할 수 없는 평범한 진리를 피력한 글이다.

30) 會盟에 참가한 鄭나라 太子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던 齊桓公에 대한 管仲의 詰難을 중심으로 霸者 處身을 논의한 글이다.

이 글은 周惠王 15년(기원전 662)에서부터 주혜왕 19년(기원전 658)에 이르기까지 5년에 걸쳐 赤狄의 邢나라와 衛나라 침공과 이에 따른 齊桓公의 대처를 힐난한 글이다. 邢나라나 衛나라는 周나라의 同姓諸侯國이었으며,³¹⁾ 당시 제환공은 즉위한지 이미 20여년이 흘러 中原의 霸者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환공의 태도는 자못 어정쩡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여조겸은 이러한 제환공의 태도에서 王者와 霸者の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

王者의 걱정은 霸者の 즐거움이며, 패자의 즐거움은 왕자의 걱정이다. 왕자는 명성을 걱정하고, 패자는 명성을 즐거워한다. 명성을 어찌하여 걱정하는가? 桀王의 暴虐을 겪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湯王을 알 수 없었으며, 紂王의 흉악함을 겪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武王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³²⁾ 탕왕과 무왕이 다행스럽게도 堯임금과 舜임금 시절에 살았다면, 제거할만한 해악도 드러낼만한 공로도 없었으리라. 그리하여 湯은 탕대로, 武는 무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잊혀져버렸다면, 聖人의 바람은 이루어진 셈이다. 공로는 혼란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명성은 공로를 바탕으로 생겨나지만, 어찌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본심이라 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백성들이 가뭄에 단비를 바라듯 고대한 것은 탕왕의 바람이 아니라 탕왕의 불행이었으며, 백성들이 술과 미음으로 마중한 것은 무왕의 바람이 아니라 무왕의 불행이었다. 그러나 패자의 마음은 이와 다르다. (王者之所憂, 伯者之所喜也; 伯者之所喜, 王者之所憂也. 王者憂名, 霸者喜名. 名胡爲而可憂耶? 不經桀之暴, 民不知有湯; 不經紂之惡, 民不知有武王. 使湯武幸而居唐虞之時, 無害可除, 無功可見, 湯自湯, 武自武, 民自民, 交相忘於無事之域, 則聖人之志願得矣. 功因亂而立, 名因功而生, 夫豈吾本心耶? 是故雲霓之望, 非湯之盛也, 乃湯之不幸也; 壺漿之迎, 非武王之盛也, 乃武王之不幸也. 伯者之心異是矣.)

31) 邢나라는 周公 아들의 封國으로, 지금의 河北省 邢台市 西南쪽에 있는 襄國故城이 바로 邢나라의 도읍지였다. 衛나라는 武王의 동생인 康叔의 封國으로, 지금의 河南省 淇縣에 위치하였다.

32) 文淵閣 《四庫全書》本에는 이 말 뒤에 《孟子》의 原文을 註로 달았다.

여조검은 여기에서 《孟子》 〈梁惠王下〉의 齊宣王이 燕나라를 친 뒤의 상황을 빗대 湯王과 武王의 不得已한 정벌은 불행이었음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여조검은 패자의 불순한 의도와 형나라와 위나라를 적적이 침공하였을 당시 제환공의 늦장대처를 이렇게 적고 있다.

무릇 王者가 말하는 불행이란 곧 霸者에게는 이른바 行운이다. 왕자는 천하가 어지러울까 두려워하지만, 패자는 천하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혼란이 극심하지 않으면 공로가 적고, 공로가 적으면 명성이 낮기 때문이다. 명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공로를 부풀려야 하고, 공로를 부풀리려면 반드시 혼란을 키워야만 한다. 赤狄이 閔公 元年 邢나라를 침공하였 때, 2년이 지난 뒤에야 제환공은 비로소 형나라를 夷儀³³⁾ 지방에 都城을 마련해주었다. 적적이 2년 衛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2년이 지난 뒤에야 제환공은 비로소 위나라를 楚丘³⁴⁾ 지방에 봉해주었다. (凡王者之所謂不幸, 乃伯者之所謂大幸也. 王者恐天下之有亂, 伯者恐天下之無亂. 亂不極, 則功不大; 功不大, 則名不高. 將隆其名, 必張其功; 將張其功, 必養其亂. 狄以閔之元年伐邢, 其後二年, 而齊始遷邢於夷儀. 狄以閔之二年滅衛, 其後二年, 而齊始封衛於楚邱.)

그렇다면 2년이란 세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조검은 제환공의 속내를 이렇게 짚고 있다.

제환공이 이들 두 나라를 도와주면서도 반드시 2년이 지난 뒤에야 그러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들의 혼란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제환공의 생각은 이러했다. 두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당시에 서둘러 夷狄을 물리쳐준다면, 그것은 제후로써 이웃나라의 재난을 구해주는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 행적도 유별난 것이 아니며, 그 일도 특별히 전해질만한 것도 아니다. 그 은혜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수로 위세를 떨치고 패권을 거머쥘 수 있으랴! 굶주리게 한

33) 夷儀는 지금의 山東省 聊城縣 서쪽 지역이다.

34) 楚丘는 지금의 河南省 滑縣의 동쪽 지역이다.

뒤에 먹여주면 그 음식이 맛있고, 목마르게 한 뒤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달다. 이제 나는 가만히 앉아서 저들의 혼란이 가중되며 사직이 무너지고, 도성이 함락되며, 흑심한 도륙을 당하고, 백성들이 거의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서서히 일어나 저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하여 위축되고 얼어지는 상황에서 저들을 구원하며,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 저들을 옮겨줄 것이다. 그러면 형나라와 위나라 임금은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셈이며, 그 백성들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가 이어가게 된 셈이 될 것이다. 깊고 무거운 혜택은 자못 九淵도 오히려 알게 여길 것이며, 九鼎도 오히려 가볍게 여기게 되리라. 이러했기 때문에 제환공의 공로와 명성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밝게 빛나 五霸의 으뜸으로 우뚝 솟을 수 있었다. 그 당시 혼란이 시작될 때 이를 구원했다면, 그의 명성이 어찌 그토록 드러날 수 있었겠는가! (齊桓之恤二國, 必在於二年之後者, 何也? 所以養其亂也. 齊桓之心, 以爲當二國之始受兵, 吾亟攘夷狄而卻之, 則亦諸侯救災恤鄰之常耳. 其迹必不甚奇, 其事必不甚傳. 其恩必不甚深, 曷足以取威定伯哉! 先飢而後食之, 則其食美; 先渴而後飲之, 則其飲甘. 今吾坐養其亂, 待其社稷已頽, 都邑已傾, 屠戮已酷, 流亡已衆, 然後徐起而收之, 拔於危蹙顛頓之中, 置於豐樂平泰之地, 是邢衛之君無國而有國, 邢衛之民無身而有身也. 深仁重施, 殆將淺九淵而輕九鼎矣. 故其功名震越, 光耀赫然, 爲五伯首. 向使絕之於萌芽, 則名安得如是之著耶!)

여기에서 여조검은 공로의 극대화야말로 제환공의 패자로서의 성공에 필수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이어서 그 잔인성을 孟子가 말한 惻隱之心에 빗대 제환공의 非人間性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는다.

아, 형나라와 위나라의 어려움이 어떠했던가! 임금이 다 卿이다 士大夫 다 백성이다 하는 모든 사람의 肝腦는 들녘을 맥질하고, 血肉은 들풀을 물들였다. 참으로 어진 사람이 이러한 광경을 보았다면, 백방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리라. 그런데도 이제 제환공은 한낱 자질구레한 명성을 이를 속셈으로 2년에 이르도록 그들의 죽음을 편안히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 어찌면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던 말인가! 저들의 환란을 키워 자신의 은혜를 부풀리며, 오랑캐의 사나움을 쌓아 자신의 공로를 확실히 하고자 함이었다. 이야말로

수만 명의 목숨을 일신의 명성과 맞바꾼 셈이다. 참으로 이것이 어떤 심보였단 말인가!

누구라도 언뜻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다면, 깜짝 놀라며 측은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다. 이것은 인간의 진정한 마음이다. 진정한 마음이 한번 발현되면 그 기세를 막을 수 없거늘, 어느 겨를에 다른 것을 따질 수 있으랴!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여 저 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않았을 때 무사히 구해준다면 그 공로가 별다른 게 없지만, 이미 우물에 빠진 뒤에 무사히 구해준다면 그 공로가 클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팔짱끼고 지켜보며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이내 바지를 걷어붙이고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는 아니나 다를까 제 아들을 다시 살려낸 은인으로 여겼으며, 고을 사람들도 남다른 선행으로 여기게 되었고, 의기는 고을이 왁자지껄하게 만들었다.

돌이켜보건대 그 당시 아이가 우물에 빠지기 전에 구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도 별다른 감사의 표시가 없고, 고을에서의 칭찬도 별로이다. 후자와는 전혀 견줄 수 없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따져 본다면, 전자를 만나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후자를 만나야 하는 것일까? 아, 이것이 바로 왕자와 패자의 차이인 것이다. (嗚呼! 邢衛之難, 曰君曰卿, 曰士曰民, 肝腦塗中原, 膏液潤野草. 苟仁人視之, 奔走拯救, 不能一朝居也. 今齊桓徒欲成區區之名, 安視其死至於二年之久, 何其忍耶! 長人之亂而欲張吾之惠, 多寇之虐而欲明吾之勳, 是以萬人之命而易一身之名也. 是誠何心哉!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怵惕惻隱之心不期而生, 此人之真心也. 真心一發, 森不可禦, 豈暇計其餘哉! 有人於此, 謂彼未入於井而全之, 其功淺; 既入於井而全之, 其功深. 縮手旁觀, 俟其既墜, 乃始蹇裳濡足而救之, 則其父母必以爲再生之恩, 鄉鄰必以爲過人之行, 義概凜凜, 傾動閭里. 回顧前日未入井以救之者, 父母不謝, 鄉鄰不稱, 若夫不作. 然則爲孺子計者, 寧遇前一人耶? 寧遇後一人耶? 噫! 此王伯之辨也.)

5. 《東萊博議》의 限界

여조검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동래박의》를 썼지만, 그는 자신의

글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東萊博議自序〉에서 함부로 글을 내보인다는 힐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다.

그대도 이웃 사람들 가운데 의원을 찾는 사람을 보았을 게야? 그들은 이런저런 병이 들면 누구나 부끄러워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큰길에 씨뭉이는 법이지. 그러면서 행인들이 보지 않거나 널리 퍼뜨리지 않을까 오로지 걱정할 뿐이거든. 그들이라고 어찌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서 그러하겠는가? 덕이야 속으로 숨기는 것이지만, 병이란 소문을 내야하기 때문인 게지. 내가 친구들을 떠나 쓸쓸하게 지낸지 해를 넘기게 되었거든. 그러니 허물이 있어도 나를 채워줄 사람도 없고,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도 없지. 마음가짐이 어긋나고 견문이 그릇되어도 바로잡아줄 사람도 없었네. 그런 마당에 다행스럽게도 이 책 때문에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식견은 물론 털끝만한 잘못마저도 글을 따라 드러나게 되어 조금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지. 더구나 다행스럽게도 과거를 매개로 선비들의 소매춤을 역마 삼아, 여러 고명한 사람들 곁에 두루 놓이게 되었다네. 때문에 더러는 아끼고 새길 것이며, 더러는 성내고 나무랄 것이며, 더러는 업신여기고 꾸짖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런 말 하나를 듣는다면 나의 병폐 하나를 고치게 된 셈이니, 그 수확이 이미 풍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널리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병폐도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니,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수록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단 말인가? (客或咎予之易其言, 予徐應之曰: “子亦聞鄉隣之求醫者乎? 深痼隱疾, 人所羞道而諱稱者, 揭之大塗, 惟恐行者不閱, 閱者不播, 彼豈靦然忘恥哉? 德欲蓄而病欲彰也. 予離群而索居有年矣, 過而莫予輔也, 跌而莫予挽也, 心術之差, 見聞之誤, 而莫予正也. 幸因是書而胸中所存所操, 所識所習, 毫釐髮謬, 隨筆呈露, 舉無留藏. 又幸而假課試以爲媒, 借逢掖以爲郵, 徧致於諸公長者之側. 或矜而鑄, 或慍而謫, 或侮而譏, 一語聞則一病瘳, 其獲不既豐矣乎? 傳愈博, 而病愈白, 益愈衆, 於予也奚損?”)

여조검은 여기에서 매우 겸손스러운 말투로 病者의 예를 들어가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겠다는 말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젊은 학자로서의 자신감이 팽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學問이란 것도 엄연히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여조검도 한 인간

으로서 生而知之가 아니라 學而知之일 수밖에 없는 이상,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자질을 바탕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허점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조겸의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年譜〉에 의하면 여조겸은 39세 때 《춘추좌전》과 40세 때 《通鑑》을 꼼꼼히 읽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⁵⁾ 여조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동래박의》의 지나친 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질책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조겸은 40세 이후 죽는 날까지 《춘추좌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左氏傳說》과 《左氏傳續說》인 것이다. 실제로 여조겸은 《동래박의》를 지은 뒤 40대 초반에 《좌씨전설》을 엮었으며, 다시 이 두 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목적으로 《좌씨전속설》을 남겼다.³⁶⁾

실로 앞쪽에서 읽었던 〈齊侯戍曹遷邢封衛〉에서의 제환공에 대한 여조겸의 酷評은 평형감을 잃었다. 제환공은 孔子도 九合諸侯나 一匡天下란 말로 그 공을 인정한 인물이었으며, 여조겸 또한 공자를 철저히 거역받던 經學者였다. 뿐만 아니라 《春秋左傳》에서도 邢나라와 衛나라가 夷儀와 楚丘로 옮겨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적었다.

邢나라는 이의로 옮겨가면서도 마치 옛 고향으로 돌아가듯 편안한 마음이었으며, 위나라는 초구로 옮겨가면서도 망국의 설움을 모두 잊은 듯하였다. (邢遷如歸, 衛國忘亡.)³⁷⁾

이 말은 분명 제환공의 도움으로 도성을 새로 마련하게 된 두 나라가

35) 淳熙元年甲午. 閱春秋左氏傳, 有標抹本. 淳熙二年乙未. 閱通鑑, 有標抹本. 《呂祖謙全集》 1冊 744쪽.

36) 《左氏傳說》은 《東萊博議》와 마찬가지로 文語體인데 반하여 《左氏傳續說》은 語錄體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左氏傳續說》은 여조겸이 말년에 강조하고 강의한 것을 門人들이 정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37) 《春秋左傳》 閔公 2년.

한결같이 기뻐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여조검은 왜 그토록 혹평한 것인가.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다.

제환공이 패자로 자리를 굳혔을 때의 중원 제후국들의 당면과제는 다름이 아니었다. 바로 北上하는 남방의 강대국인 초나라와 南下하여 중원을 괴롭히던 북방의 戎狄에 대한 방어였다. 그러던 가운데 주혜왕 15년(기원전 662) 겨울 赤狄이 대거 邢나라로 쳐들어왔다. 적적은 지금의 山西省 동남부에 살았던 유목민족이다. 이에 형나라는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지만, 山戎 정벌에서 이제 막 돌아온 제환공은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³⁸⁾ 그러자 管仲은 이런 제환공을 설득하여 마침내 주혜왕 16년 봄 형나라를 구원하게 되었다.³⁹⁾ 그러나 2년 뒤인 주혜왕 18년(기원전 659) 봄 적적은 또다시 형나라를 공격하였고, 제환공은 또 宋나라 曹나라와 함께 구원에 나서 적적을 물리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해 여름 형나라의 유민을 모아 夷儀에 도성을 마련해주었으며, 戰車 100乘과 士兵 1천을 보내 형나라를 수비하도록 조치했다.

주혜왕 17년(660) 겨울 적적은 또 衛나라로 쳐들어왔다. 당시 위나라 임금인 懿公은 음악과 사치로 민심을 잃었으며, 위나라 백성들은 그런 임금을 위하여 싸우려들지 않았다. 의공은 유난스럽게도 鶴을 좋아하였다. 의공은 학에게 대부의 작위를 내렸으며, 좋은 수레에 태워 함께 나들이를 하곤 하였다.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이 터지자 “학을 전쟁터로 보내라. 지금껏 영화를 누린 것은 학이었으니, 천한 우리야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인가?”라고 꿈무늬를 빼는 지경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⁴⁰⁾ 그리하여 의공은 적적과 싸우다 죽었고,⁴¹⁾ 유민들은 겨우 황하를

38) 《史記》 〈齊世家〉에 의하면 齊桓公 23년(기원전 663) 山戎이 燕나라로 쳐들어왔고, 제나라는 이런 연나라를 도와 산융을 물리친 적이 있다. 이 때 제환공은 燕莊公에게 패자로서의 덕을 보여주었으며, 산융정벌의 제의를 뿌리친 魯나라에게도 오히려 덕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패자의 위치를 굳힌 일련의 사건이 되기도 하였다.

39) 《春秋左傳》 〈閔公 元年〉：“狄人伐邢，管敬仲言於齊侯曰：‘戎狄豺狼，不可厭也；諸夏親暱，不可棄也；宴安鴟毒，不可懷也。……簡書，同惡相恤之謂也。請救邢以從簡書。’齊人救邢。”

건너 曹邑에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⁴²⁾ 이때 황하를 건넌 유민의 숫자는 고작 7백 30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⁴³⁾ 그러자 제환공은 전차 3백 승과 3천 명의 병사들을 보내 조읍을 수비하도록 하였으며, 제후의 체면을 위한 물품을 보내주었다.⁴⁴⁾ 그리고 2년 뒤인 周惠王 19년(기원전 658) 정월에 제환공은 마침내 제후들을 소집하여 楚丘란 곳에 위나라를 위하여 새로 성을 쌓았으며, 위나라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조점의 말은 지나친 비약이며, 여조점이 강조하는 2년이란 기간은 제환공이 자신의 공로를 부풀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적적의 공격과 새로운 도성으로의 이주 기간을 따지면 邢나라는 2년 반이며, 衛나라라는 1년 1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형나라의 경우 산융정벌에서 돌아온 직후인데도 결국에는 구원에 나섰으며, 2년 뒤 적적의 침공 때도 마찬가지였다. 위나라의 경우도 楚丘에 성을 쌓기에 앞서 曹邑의 수비와 물질적인 도움을 게을리 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여조점의 이 글은 王道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覇者을 貶下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조점 자신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左氏傳說》에서 그는 〈狄人伐邢〉과 〈狄人伐衛〉라는 표제를 달고 이렇게 적었다.

제환공이 처음으로 패자가 되었을 때 夷狄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형나라도 정벌하였으니, 당시 이적의 중국 침략이 그토록 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시기에 제환공이 패자가 되어 위나라와 형나라

40) 《春秋左傳》 〈閔公 二年〉：“冬十二月，狄人伐衛。衛懿公好鶴，鶴有乘軒者。將戰，國人受甲者皆曰：‘使鶴！鶴實有祿位，余焉能戰？’”

41) 《呂氏春秋》 〈忠廉篇〉에서는 이 때의 참상을 이렇게 적고 있을 정도다. “翟人至，及懿公於滎澤，殺之，盡食其肉，獨捨其肝。”

42) 지금의 河南省 滑縣 서남쪽 白馬故城 지역이다.

43) 《春秋左傳》 〈閔公 二年〉：“宵濟，衛之遺民男女七百有三十人，益之以共滕之民五千人。”

44) 《春秋左傳》 〈閔公 二年〉：“齊侯使公子無虧帥車三百乘甲士三千人以戍曹。歸公乘馬，祭服五稱，牛羊豕鷄狗皆三百與門材。歸夫人魚軒，重錦三十兩。”

를 다시 세우지 않았다면, 중원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의 괴롭힘을 당했겠는가? 이야말로 孔子께서 “管仲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오랑캐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왼쪽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었으리라”고 탄식한 까닭이다. (齊桓公始霸之初, 狄滅衛, 又伐邢, 見得當時夷狄 憑陵中國如此之甚. 向非齊桓之霸, 封衛遷邢, 則中國幾何而不淪胥爲夷狄? 此孔子所以有‘微管仲, 吾其被髮左衽’之歎也.)⁴⁵⁾

더욱이 《좌씨전속설》에서는 제환공의 업적을 다음처럼 적극 변호하고 있을 정도다.

이적이 형나라를 쳤을 당시에 제나라는 이미 형나라를 구원하였건만, 무슨 까닭으로 또 형나라 구원에 나섰던 것인가? 위나라와 형나라는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형나라를 구원하였을 당시에 이적들이 형나라에서 물러갔지만, 그들은 곧장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때문에 위나라가 이적들에게 멸망당한 것이다. 이적들이 위나라를 멸망시킨 뒤 곧장 위나라를 멸망시킨 위세를 이용하여 형나라로 쳐들어왔기에, 제환공은 제후들을 이끌고 다시 형나라를 구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곧장 형나라 도성을 구원하지 않고 聶北에 주둔했던 것은 이적과 중국의 승패가 이 싸움으로 판가름 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환공은 중원의 패자다. 만일 조금이라도 패한다면 이적이 더욱 공세를 취하고 중국이 더욱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경솔하게 쳐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형나라가 이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온 뒤에야 마침내 그 기세와 어지러운 국면을 이용하여 그들을 축출하게 된 것이다. (當初狄伐邢, 齊已救了, 何故又救耶? 蓋衛與邢相近, 始初去救邢, 狄人雖退, 却去伐衛, 故衛爲狄所滅. 狄既滅衛, 却乘滅國之威去伐邢, 所以桓公帥諸侯再來救邢. 然不便去救, 次于聶地者, 蓋夷狄中國之勝負於此乎分, 齊侯是伯主, 萬一小敗後, 夷狄便浸強, 中國便浸弱, 所以未敢輕去. 直待邢人突圍而出, 方敢乘其勢亂而逐之.)⁴⁶⁾

왜 형나라를 夷儀로 옮긴 뒤에야 위나라를 다시 세운 것인가? 그것은 이적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 楚丘에 성을 쌓아 위나라를 다시 세우기

45) 《呂祖謙全集》 7冊, 《左氏傳說》 2권, 24쪽.

46) 《呂祖謙全集》 7冊, 《左氏傳續說》 4권 79쪽 〈諸侯救邢〉.

위해서였다. 따라서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다. 그 형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封衛如何却在遷邢之後? 狄人無有在者, 然後去城楚丘而封衛. 此非是緩, 其勢當如此.)⁴⁷⁾

이러한 측면에서 여조겸의 학자적인 면모를 충분히 살필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동래박의》를 썼으며, 당시 그는 이민족에게 중원을 송두리째 빼앗긴 漢族의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때문에 《동래박의》의 서술은 자못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여조겸은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서슴없이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진정한 학자였던 것이다.

6. 結語

《동래박의》는 여조겸의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적절한 비유가 돋보이는 역사평론서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두 正論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朱彝尊의 《經義考》나 朱熹 《晦庵集》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이다.⁴⁸⁾

《동래박의》는 엄밀히 따지면 미완성 저술이다. 《동래박의》는 魯나라 十二公을 기준으로 하는 《春秋左傳》의 갖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앞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써내려갔지만, 일곱 번째인 宣公에서 그치고 말았다. 《동래박의》와 함께 여조겸의 대표적인 《춘추좌전》에 대한 저술로 꼽히는 《左氏傳說》과 《左氏傳續說》의 標題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좌씨전설》의 250개에 달

47) 《呂祖謙全集》 7冊, 《左氏傳續說》 4권 81쪽 〈諸侯城楚丘而封衛〉.

48) 《經義考》 187권에서 “陳振孫曰: 伯恭授徒時所作. 陳櫟曰: 呂成公博議乃初年之作, 不過以教後生作時文爲議論已. 其議左氏多巧說, 未得盡爲正論.”이라고 하였고, 《晦庵集》 33권, 〈答呂伯恭〉에서도 “向見所與諸生論說左氏之書, 極爲詳博, 然遣詞命意亦頗傷巧矣. 恐後生傳習, 益以澆漓重, 爲心術之害. 願亟思所以反之, 則學者之幸也.”라고 하였다.

하는 표제 가운데 선공 이후 五公에 대한 표제가 140개에 달하며, 《좌씨전속설》의 1,150여개에 달하는 표제 가운데 선공 이후 5공에 관한 표제는 무려 700개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동래박의》는 여조검이 33세 때 책으로 엮은 뒤 달리 교정을 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여조검은 왜 그러했던 것일까. 여조검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았으며, 그것도 몹시 아쉬울 정도로 짧은 생애였다. 10여년 敎學에 매달렸으며, 뛰어난 學識은 官職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었다. 집안의 불행은 끊임이 없었고, 급기야 마흔 두 살 겨울에는 中風으로 半身不遂가 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著述과 敎學을 이어갔던 여조검이다. 그는 젊은 시절 패기와 재치로 써내려갔던 《동래박의》의 허술한 점을 솔하게 반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그에 걸맞게 대단한 성과도 올렸다. 하지만 건강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동래박의》의 꼼꼼한 교정이나 完成은 後人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채 45세를 일기로 감기지 않는 눈을 감고 만 것이다. 아마 여조검이 좀 더 오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면, 朱熹의 理學이나 陸九淵의 心學 못지않게 實事求是의 學問이 꽃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여러 가지 短點에도 불구하고 《동래박의》는 대단한 저술이다. 宋나라 때까지의 중국역사를 망라한 적절한 典故와 比喻, 뛰어난 文章力과 修辭는 비록 ‘巧說’과 ‘傷巧’라는 힐난을 불러왔지만, 수많은 學人들의 역사적인 眼目を 넓혀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宋代 이후 수많은 板刻은 이를 反證한다고 하겠다. 한편 《동래박의》는 科擧를 위한 글이란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과거시험이란 독특한 시각과 논리가 돋보일수록 이른바 貢擧인 채점관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동래박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여조검의 생애와 저술 및 《동래박의》에 대해서 개략을 살피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따라서 제환공론은 소략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과 《동래박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다.

[參考文獻]

- 呂祖謙 編著；黃靈庚 吳戰壘主編，《呂祖謙全集》(全16冊)(杭州：浙江古籍出版社，2008)
- 《東萊博議》(中國：文瑞樓藏板，光緒25年，1899)
- 《東萊左氏博議輯注》(中國：存粹齋石印，光緒29年，1903)
-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嶺南大學校圖書館所藏本)
- 楊家駱 主編，《東萊博議》(臺北：世界書局，1989)
- 李振興 簡宗梧 注譯，《新譯東萊博議》(臺北：三民書局，2002)
- 王進祥 述疏，《東萊博議粹解》(臺北：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1998)
- 呂祖謙，《左氏博議》(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 呂祖謙，《左氏傳說》(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 呂祖謙，《左氏傳續說》(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 馮春生，〈呂祖謙經學著述目錄版本考述〉(金華：浙江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2年 第6期 第27卷)
- 馮春生，〈呂祖謙丁部文獻目錄版本考述〉(金華：浙江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6年 第2期 第31卷)
- 楊伯峻，《春秋左傳注》(北京：中華書局，1990)
- 《宋史》(서울，景仁文化社)
- 司馬遷，《史記》(서울，景仁文化社)
- 《通志堂經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 《皇清經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 《皇清經解續編》(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 北京圖書館，《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서울：法人文化社，1989)

[中文摘要]

呂祖謙，字伯恭，婺州(今浙江金華)人。生于宋高宗紹興七年(1137)，孝宗淳熙八年(1181)歿。祖謙南宋之著名經學家史學家教育者，與朱熹張栻齊名，稱東南三賢，為浙東學派之中心，金華學派之鼻祖，世人尊稱為東萊

先生。

呂祖謙出於權門，家學傳承，文獻藏書無比。曾祖父刑部尚書呂好問伯祖父中書舍人呂本中等之學問，傳於祖謙而發揚廣大。隆興元年(1163)及第，同年選博學宏詞科，歷任太學博士秘書郎國史院編修官實錄院檢討官。重修徽宗實錄，受命撰聖宋文海，纂輯皇朝文鑑。呂祖謙為朱熹理學與陸九淵心學折衷，周旋鵝湖之會，雖不得所期望，其志願自顯於世。祖謙反空理空豁，主讀書力行。

撰著六十餘種，有近思錄古文關鍵大事記古周易書定考官箴辨忘錄增修東萊書說呂氏家塾讀詩記等。其心血之作，乃關於春秋，左氏博議二十五卷，左氏傳說二十卷，左氏傳續說十二卷，即是也。其中東萊博議，歷史評論書，為諸生科舉時文也。乾道五年(1169)，呂祖謙三十三歲時作，淋漓少壯學者之霸氣與奇拔。然而不精製，勿謂正論，此東萊博議之限界也。齊桓公春秋五霸之最，東萊博議言及甚多，而呂祖謙之觀點頗否定，雖然後來走向肯定。如此觀點至於東萊博議後期著述，左氏傳說及左氏傳續說中可見。此實為呂祖謙之學者的力量與良心，後學之所敬服也矣。

其實東萊博議未完著述，偏重於魯十二公中宣公以前，宣公以後五公罕見。以教學宦途無暇，享年短促，若使其命延二三十年，學問益加大成，而東萊博議亦完成無瑕，哀哉！

關鍵詞：

呂祖謙，《東萊博議》，《春秋左傳》，《左氏傳說》，《左氏傳續說》

투고일: 2008. 6. 30.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崔述의 文化談論의 考證事例考*

-- 《考信錄》 諸書에 나타난 樂論을 中心으로

吳昶和**

〈 목 차 〉

1. 들어가면서
2. 本體論的 談論
 - 2.1. 禮樂文化 先後說과 神話읽기
 - 2.2. 律呂의 개념 및 명칭
 - 2.3 「樂以志爲本」
3. 功用論的 談論
 - 3.1. 音樂의 制作主體와 客體美感
 - 3.2. 韶와 武--儀式과 意識
 - 3.3. 「聞樂知德」의 公勇성
4. 나가면서

1. 들어가면서

작금의 사계에서 明清 고증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작 疑古史學의 태두격인 崔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¹⁾ 崔述에 대한 연구는 清代 고증학의 흐름을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o1129@ks.ac.kr)

과약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古籍들의諸問題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패러다임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考信錄》²⁾은 崔述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그의 저작

-
- 1) 중국의 경우 전통문화와 학문에 대한 연구 붐에 힘입어 몇 편의 광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이미 선보인 바 있다. 가령, 邵東方의 《崔述與中國學術史研究》(人民出版社, 1998), 路新生的 《中國近三百年疑古思潮研究》(上海人民出版社, 2001), 郭康松의 《清代考證學研究》(崇文書局, 2001) 등이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朴峻遠교수의 <崔述의 洙泗考信錄 研究-변증체계를 중심으로> (《中國學》 제22집, 2004.8), 李在夏교수의 <《洙泗考信錄》에 대한 錢穆의 認識> (《中國學》 제22집, 2004.8) 등의 崔述 관련 논문이 崔述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李在夏교수 外 여러 학자들이 공역한 《洙泗考信錄》 譯註(1)·《洙泗考信餘錄》 譯註(1)이 《中國學》 제26집(2006.8)에 수록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完整본의 역주본이 정식으로 출판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崔述은 嘉庆 六年(1801) 十月 관직을 떠난 후 저술에만 전념하여 《考信錄》 三十六卷을 완성하였다. 《考信錄》 三十六卷은 前錄二種 四卷, 正錄五種 二十卷, 後錄五種 十二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考信錄》과 관련 있는 《翼錄》 四種 十卷, 雜著二種 四卷, 《無聞》이란 文集 四卷, 詩集 《知非》, 그 밖에 《贅編》·《別編》 등 총 三十四種 八十八卷을 남겼다. 《考信錄》은 현재까지 단편적인 刻印 이외에 完整된 刻本으로 다음과 같은 10종이 전해진다.
 1. 1824年(道光四年) 陈履和刊 《崔东壁先生遗书》本
 2. 1875年(光緒元年) 聚珍翻印本.
 3. 1879年(光緒五年) 王灝의 《畿輔丛书》刻本(《考信錄》等 14종만 있음)
 4. 1924年(民国甲子) 上海古书流通处 石印本(일설은 景本이라고 함)
 5. “近年坊间石印本”(范希增 《书目答问补正》에 따름. 위의 책과 同本일 가능성이 있다)
 6. 1902年 日本의 那珂通世가 編하고 日本史学会에서 陈履和의 道光本에 근거하여 标點을 찍은 《崔东壁遗书》 铅印本.
 7. 上海群学社 铅印小字本.
 8. 1930年 北平文化学社 铅印大字本.
 9. 1936年 顾颉刚이 編訂하여 上海亚东图书馆에서 排印한 《崔东壁遗书》本.
 10. 1983年 상술한 顾颉刚 編訂本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다시 排印한 《崔东壁遗书》本.

가운데 가장 많은 편목을 차지하고 있다. 《考信錄》은 疑古辨僞를 수단으로 삼아 중국 고대사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고증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補上古考信錄》·《唐虞考信錄》·《夏考信錄》·《商考信錄》·《豐鎬考信錄》·《豐鎬考信別錄》 등은 신화시대에서부터 夏·商·周 三代에 걸친 역사와 문화를 다루었고, 《洙泗考信錄》·《洙泗考信餘錄》·《孟子事實錄》 등은 춘추전국시대 孔孟의 행적과 주변의 역사를 다루었다.³⁾ 본고는 이 《考信錄》 제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필요시에 崔述의 기타 저술을 일부 참고하였다.

崔述은 평생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았을 뿐 아니라 독서관이 분명하고 비판적이었다. 崔述은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문화나 이전의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인식체계와 경륜을 가지고 있었다. 崔述은 “風會之開必有其漸”, 즉, 문화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자연적인 것에서 인공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인문적인 것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다. 가령,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언어문자가 생기고, 언어문자가 생긴 다음에 사상이 생기고, 사상이 생긴 다음에 책이 생기고, 책이 생긴 다음에 인류문명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설, 아무리 성인이라도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문명을 개발하고 전수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거에 한 두 사람의 손에 의해 많은 문화, 문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는 설, 성인에 의한 꾸준한 교화로 인지가 발달하고 진선미를 추구하며 윤리도덕과 심미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설, 정치적 이해와 사회적 수요에 의해 가볍고 단순한 형벌에서 잔인하고 복잡한 형벌로 치죄하거나 심지어 대규모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설 등등이 그것이다. 崔述은 이런 일반론적인 문화담론을 당면한 사회문화현상과 결부시켜 그 본말과 허허실실에 대하여 사실적 변증과 더불어 문화적 의미를 발현하는

3) 정작 《考信錄》 36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崔東壁遺書》의 翼錄 四種의 하나로 수록된 《論語餘說》 1권은 孔子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행적을 보충적으로 고증한 내용으로 역시 주목할 만한 저술 중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데 주력하였다. 崔述이 음악기사의 고증에 천착한 것도 그런 의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崔述이 《考信錄》 諸書에서 다룬 음악에 관한 고증 부분은 상술한 崔述 특유의 문화적 사유와 인식범주가 잘 나타나 있다. 崔述은 비록 음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개인취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예사사상이나 孔子가 주지한 「游於藝」의 문예정신이 갖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존중하고 발현하고자 사명감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문적인 실천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청대 대부분의 역사고증이 무미건조한 스타일로 일관되어 저자의 사상적 측면을 가늠해보기에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달리 온유돈후의 정성적인 문화담론의 색채가 많이 가미된 음악에 관한 고증 부분을 중심으로 崔述이 견지한 유교적 음악관의 허허실실을 따져보고, 나아가서 그 현재적 가치소재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⁴⁾

2. 本體論的 談論

2.1. 禮樂文化 先後說과 神話읽기: 《補上古考信錄》에서 崔述은 《補本紀》에서 包犧氏⁵⁾가 二十五絃의瑟을 만들고 神農氏가 五絃의瑟을 만들었다는說을 문화, 문명의 발전 단계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런 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예 후세사람들의 억측과 견강부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⁶⁾ 崔述은 風會之開, 즉 교화를 통한 문화의 형성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전

4) 본고에서는 崔述의 저술 중 《洙泗考信錄》·《洙泗考信餘錄》·《論語餘說》 등 孔子의 음악사상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중 일부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편목의 제약상 별도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伏犧氏와 동일 인물. 伏犧氏는 여러 異稱이 있으나 包犧氏로 표기한 崔述의 설을 따라 그대로 표기하였다.

6) 《補上古考信錄》卷之上 神農氏 〈駁包犧神農作瑟之說(포희씨·신농씨가 슬을 만들었다는 설을 반박함) 條의 考證 참조.

제로 包犧氏가 佃漁를 가르치고, 神農氏가 耕耨를 가르치며, 黃帝氏가 옷을 걸쳐 입는 문화를 개척한 사례만 보더라도 성인 혼자서 一世에 모든 것을 다 창안할 수 없었음이 분명한데, 包犧·神農이 禮樂을 연주하는 고급의 악기를 달링 만들어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崔述이 《補本紀》의 설을 일축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의외로 매우 현실적인 데에서 그 단초를 찾았다. 禮樂이 흥하게 된 것은 唐·虞 시절이나 가능한 일이고, 먹고 살기에 바빴던 包犧·神農 시절에는 吹笙鼓瑟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덧붙여 崔述은 누에에서 실을 뽑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먼저 옷을 만들 일이지 악기에 쓰이는 絃을 먼저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나무를 쪼개어 악기를 만들 수 있었다면 먼저 집을 짓고 棺槨을 만들 일이지 현악기인 瑟을 먼저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例證을 통해 자신이 제기한 가설의 타당성을 확신시키고 있다. 또 崔述은 요임금 이전에 음악으로서 경전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점을 고증하는 대목⁷⁾에서도

“대체로 상고시절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이 많아 성인이 나서서 그들을 위해 옷을 만들고, 음식·공실·기록물 따위를 만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급하는 통에 음악을 만들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후세에 전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문화의 점진적 발전 및 성인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崔述의 說과 神話 기술상의 이항대립을 분석해보면,

첫째, 崔述은 包犧氏에서 黃帝氏에 이르는 신화 전설상의 인물과 그에 관한 문헌상의 갖가지 기술을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7) 《補上古考信錄》卷之下 黃帝以後諸帝通考 〈駁堯以前樂名〉：“蓋上古天下未平，民害尙多未去，聖人爲之制衣服，飲食，宮室，書契之屬，日不暇給，以故未遑作樂；不則有之而世遠年湮，不傳於後世也。”

조명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신화 전설 자체의 성격, 신화 전설의 문학적 수사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이다. 중국 상고사에서 신화 전설은 역사 그 자체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대목이다. 崔述이 다루고 있는 신화 전설상의 인물은 씨족사회의 영웅형상 또는 그 씨족 자체를 특화하는 메타포적인 命名이라고 볼 수 있다.

包犧氏에서 黃帝에 이르는 신화인물의 존재여부와 그들의 문화적 업적의 진위여부, 나아가서 여기서 언급된 문화적 업적에 신화적 메타포가 담겨있다고 볼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나는 점이다. 崔述이 접근한 점진적 풍화와 문명개발단계설에 심각한 모순과 모호성이 엄존하고 있다. 즉, 이런 점진적 풍화와 문명개발이 성인으로 표방되는 영웅적인 인물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 문명은 한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발견 발명의 주체는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이것을 모두 한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풍조로 인해 과장되게 포장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신화인물은 그룹을 짓고 부락생활을 하는 씨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包犧氏와 신농씨의 현악기 개발과 관련한 문화적 메타포의 실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포, 신의 씨족부락에서 개발한 현악기를 현재 우리가 보는 현악기와 동격에 놓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二十五絃, 五絃은 오히려 숫자적 메타포로 가정해볼 경우 복잡하고 비실용적이며 조악한 二十五絃이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깔끔한 五絃으로 압축 정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화적 메타포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禮樂이 지배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제도로 확립된 것은 후대의 일이었다. 包犧氏 黃帝氏 등 원시부락공동체에서 禮樂이 연주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현악기 자체가 包犧氏나 黃帝氏 시대에 고안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현재 우리가 보는 현악기와 원

시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악기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 또한 무리한 접근이다. 원시 악기로서의 현악기는 다른 타악기나 취주악기를 만드는 기술로 얼마든지 손쉽게 고안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崔述도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현악기가 包犧氏나 黃帝氏보다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기술적인 측면이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은 대목에서 일정 부분 현악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보다 앞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신화적 메타포로 해석하면 包犧氏와 황제에 이르러 음악이 본격적으로 연주되고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음악은 언어와 더불어 인간의 태생적 본능적인 표현이다. 음악이 농사나 의상보다 앞서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의식주의 공간문화보다 훨씬 먼저 인간의 생활과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시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원시인이 집단적인 가무활동을 시작했다고 본다면 음악은 매우 이른 시대부터 초보적인 형태에서 복잡하고 다기능적인 형태로 급속하게 발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한편 包犧氏와 神農氏가 제정일체 시대이던 堯舜시대의 예악을 연주하기 위한 악기와 달리 성음을 변별하는 원시악기가 제작되었을 수도 있다. 악기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타악기, 취주악기에 이어 현악기가 고도로 정확하고 복잡한 음을 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包犧 神農시대에 현악기가 제작되었다면 그 이전이나 그와 동시대에 타악기와 취주악기도 개발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包犧 神農氏가 현악기를 만들었다는 기사는 가장 대표적인 악기, 고도로 기술 집약된 악기로 거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崔述은 기사 자체의 상징적 메타포를 읽기 보다는 표면적인 자구에 집착하여 사실변증을 함으로써 스스로 논리비약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崔述이 보여준 고증담론은 텍스트적인 방증이나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추론 수준에 머문 정도로 치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崔述은 매우 현실적이고 노동단계설에 입각한 문화층차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補本紀》의 “包犧氏와 神農氏의 악기 제작설”을 후인이 억측하여 건강부회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崔述의 이런 주장은 문화의 공생관계나 동시다발성, 나아가서 과격적인 창조와 발전이라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회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간과한 발상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서 崔述이 인식한 신화의 잠재적 복합적인 기술방식에 따르면 包犧氏 神農氏는 하나의 신화적 인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 부족이나 한 부족의 일정한 역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키워드로 해석할 수도 있다. 包犧氏의 시대가 500년, 神農氏의 시대가 500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은 한 부족국가의 문화적 업적을 신화로 포장하여 후대에 구전하는 방법이나 매체를 창의적으로 개발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타 經典이나 민간설화로 전해지는 신화전설에 대한 崔述의 인식범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書·益稷》에서 「鳥獸踴躍」, 「鳳凰來儀」, 「百獸率舞」 등으로 순임금의 신하였던 夔의韶樂 연주에 맞추어 온갖 동물들이 춤을 추고 봉황이 날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⁸⁾에 대해서 崔述은 「聞樂知德」의 당연한 결과로 보고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董父致龍」에 관한 기사⁹⁾에 대해서 崔述은 애초에 이를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의심했으나 바로 상술한 「鳳凰來儀」, 「百獸率舞」 등의 이적과 연계시켜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崔述은 그의 〈牛女行〉에서 민간에 널리 알려져서 문학적으로 매우 미화되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견우직녀 설화를 문인들의 황당한 호기심의 발로로 형성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는데, 비록 부분적이긴 해도 문학소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결여된 탓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8) 《唐虞考信錄》卷之四, 〈舜治定功成〉: “夔曰: ‘戛擊鳴珠, 搏拊琴瑟以詠, 祖考來格, 虞賓在位, 群后德讓, 下管鼗鼓, 合止祝嘏, 笙鏞以間, 鳥獸踴躍, 簫韶九成, 鳳凰來儀.’ 夔曰: ‘於! 予擊石拊石, 百獸率舞, 庶尹允諧.’”(《書·益稷》)

9) 《唐虞考信錄》卷之四 【備覽】에서 《左傳·昭公二十九年》에 기록된 「董父致龍」條를 변증하는 대목.

들 정도이다. 이것은 崔述 자신이 《論語餘說》 등에서 보여준 뛰어난 문학적 유머감각과는 대조되는 것이다.¹⁰⁾

2.2. 律呂의 개념 및 명칭: 崔述은 律呂의 개념 및 명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문헌기록에 의존하여 黃帝가 十二律을 만들었다는 등의 기존 학설을 반박하였다. 崔述은 우선 「律」이 경전상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尙書·典謨》이고, 「六律」이라는 명칭이 《尙書·皋陶謨》에 보이지만 「十二律」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春秋傳》의 “一氣, 二體, 三類, 四物, 五聲, 六律, 七音, 八風, 九歌, 以相成也.”라고 한 대목과 《孟子》에서 “師曠之聽, 不以六律, 不能正五音.”이라고 한 대목을 들어 崔述은 그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 崔述 생각에 원래부터 十二律이 있었다면 모두 六律만 언급하지 않았을 터이고, 설령 六律六呂가 있었다 해도 왜 六律만 언급하고 六呂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까 반문하였다. 六律만 선호하고, 六呂는 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崔述은 다만 《國語》에 伶州鳩가 六律 이외에 太呂에서 應鐘까지의 六間이 있다는 말을 한 대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黃鐘 등과 함께 十二律에 병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이 기록에 근거하여 견강부회하는 설이 생기게 되었다고 보았다. 「律」을 「歷」과 부회하여 「十二律」을 「十二月」과 연결시킨 것은 《呂氏春秋》가 처음이다. 그 이후로 劉歆·班固 등이 이 학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는데, 崔述은 이를 「非古」, 즉 원래의 학설에서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고, 원래 《國語》의 글이 부회한 내용이 많은데다가 《呂氏春秋》에서 채택한 것은 鄒衍이나 陰陽家의 학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崔述은 또 太呂, 姑洗, 無射는 예로부터 鐘銘이었고, 黃鐘, 夾鐘, 林鐘, 應鐘은 그 명칭이 비록 경전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두 鐘字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鐘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10) 《論語餘說》 〈聖人好人務平實〉 등이 그린 전형적인 보기이다. 《考信錄》 이외에 崔述이 해학적인 글쓰기에 일가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장으로는 〈楊村捕盜記〉·〈冉氏烹狗記〉·〈侍妾麗娥傳〉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앞서 「文化漸進說」, 「文化先後說」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의 채 구조 되기도 전에 후세 사람들이 종을 만든 다음 그 종에 따라 붙인 명칭을 미리 알고 협종, 응종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鐘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鐘名을 律呂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명칭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崔述은 음악적 견지에서 六律의 형성배경에 대해서 옛날에는 六律의 명칭을 고찰할 수 없었는데, 후인들이 어느 鐘의 소리가 어떤 律에 근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鐘銘으로 그 이름을 삼았을 따름이지 신화 전설로 전해지는 것처럼 黃帝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十二律을 黃帝가 만들었다면 伶州鳩가 어찌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古之神瞽」라고 표현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런 의문의 끝자락에 崔述은 黃鐘, 太呂의 명칭은 춘추전국 이후에 생겨난 것이라 순임금의 六律과 상응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長短이나 廣狹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九分 十分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으니 헛갈리게 만드는 소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崔述의 비판의 화살은 유흠에게 집중되어 그가 성인이 아님에도 후세 학자들이 유흠의 학설을 마치 성인의 말씀처럼 떠받들고 있는 사태를 개탄하였다.

2.3. 「樂以志爲本」: 崔述은 《補上古考信錄》에서 黃帝 以後 신화적인 제왕세기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그가 평소에 견지하던 성인 중심의 문화관을 음악담론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변증하였다. 첫째는 《樂記》에 언급된 大章, 咸池라든지 《周禮·周官》에 언급된 雲門, 大卷, 大咸 등의 음악이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樂緯》 등에서 咸池는 黃帝가 지었고, 大章은 堯임금이 지었다고 하는 등 후세에 음악 제작의 주체를 놓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는 요임금 이전의 음악으로서 경전에 보이는 작품이 없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唐虞考信錄》에서는 「樂以志爲本」, 즉 음악이란 뜻을 근본으로 한다는 취지의 담론¹¹⁾을 이끌어내었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崔述의 음악을 통한 문화담론의 치밀함과 정교함을 잘 엿볼 수 있다. 이 담론은 문자 그대로 崔述의 고증이 단순한 역사고증, 문자고증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인식을 중시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이다. 崔述은 《書經·虞書·舜典》의 “시는 마음의 감동을 말로 표현한 것이고, 노래는 그 말을 길게 뽑은 것이다. 소리는 길게 뽑은 말로 이루어지고, 음률은 그 소리를 조화되게 한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라는 말 속에 음악의 모든 것이 언급되고 있다고 단정한다. 음악은 그 근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志」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詩言志」의 이론을 음악에 접목시켜 발전시킨 崔述 특유의 樂論이라고 볼 수 있다. 崔述은 「志」가 본이고 「聲」은末이라고 보았으며, 「樂」은 「文」과 그 원리가 같기 때문에 「文」의 품격을 따질 때 高下·精粗·純雜의 차이를 감안해야 하듯이 「樂」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고금을 통틀어 孔子와 맹자만큼 음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없다고 전제한 崔述은 성인의 樂論이 토론상대가 지닌 음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孔子의 樂論은 顏淵이나 曾參처럼 음악을 아는 제자들과 공유한 것이지만 孟子의 樂論은 戰國시대 음악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심한 군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악의 고하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3. 功用論的 談論

3.1. 音樂의 制作主體와 客體美感: 고문헌의 상고시대 기사 가운데 보이는 많은 歌詞들에 대해서 崔述은 거의 대부분 후세 사람들의 擬作

11) 《唐虞考信錄》卷之三 舜命官考續下 참조.

이나 附會로 인해 원형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이윤이 노래를 듣고 걸임금에게 고했다는 설의 변증¹²⁾에서 桀임금에 관한 기사 가운데 《書經·湯誓》의

“하나라 임금은 백성들의 힘을 다 빠지게 만들고, 살던 터전을 다 빼앗기고 말았소. 백성들은 일할 기운을 잃고 협력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 태양은 언제나 없어질 것인가? 우리도 그대와 함께 망해버렸으면 좋으련만!’”¹³⁾

이라는 기사와 이와 관련한 《尚書大傳》과 《新序》의 기사를 비교하면서 《尚書大傳》과 《新序》에서 언급된 노래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천박하기 때문에 후인의 擬作이 분명하다고 단정하였다. 이하 고딕체로 표기한 부분이 바로 崔述이 문제 삼은 대목인데, 이른바 속칭 〈夏人歌〉로 전해지는 선진시대의 손꼽히는 시가 중의 하나이다.

《尚書大傳》：“夏人飲酒，相和而歌，曰：‘盍歸于薄，薄亦大矣!’ 伊尹退而間居，深聽樂聲，更曰：‘覺兮較兮，吾大命假兮! 去不善而就善，何樂兮!’ 伊尹入告于王，王憫然嘆，啞然笑曰：‘天之有日，猶吾之有民也。日亡則吾亦亡矣!’”(하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서로 어우러져서 노래하기를, ‘어찌 박 땅으로 달려가지 않으랴, 박 땅이 역시 살만한 곳이라네!’ 이윤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또 다시 심각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비교해보아도 우리 임금님 천명이 다했다네!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니 어찌 즐겁지 않으리요!’ 이윤이 임금을 찾아가 고하자 임금은 화를 내면서 탄식하다가 대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비웃었다. ‘하늘에 해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서 백성이 있다. 해가 없어져야 나 역시 망할 것이다.’)

《新序·刺奢第六》：“群臣相持歌曰：‘江水沛沛兮，舟楫沛兮。我王廢兮!’”

12) 《夏考信錄》卷之二「辨伊尹聞歌勸桀之說」

13) 《書經·湯誓》：“夏王率遏衆力，率割夏邑。有衆率怠弗協，曰：‘時日曷喪? 予及汝皆亡!’”

趣歸薄兮，薄亦大兮!’ 又曰: ‘樂兮，樂兮! 四牡驕兮，六轡沃兮。去不善而從善，何不樂兮!’ 伊尹知天命之至，舉觴而告桀，…… 桀拍然而作，啞然而笑曰: ‘子何妖言! 吾有天下，如天之有日也。日有亡乎? 日亡，吾亦亡矣!’”¹⁴⁾ (“여러 신하들이 서로 붙들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강물이 넘실거림이여, 배들이 출렁이는구나. 우리 임금 망가졌네! 어서 박 땅으로 달려가자꾸나! 박 땅이 역시 살만한 곳이라네!’ 또 이런 노래도 불렀다. ‘즐겁고 즐겁구나! 수레를 모는 네 필의 수말 튼실하니, 여섯 고삐 힘차게 움켜쥐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 이윤이 천명이 다 했음을 알고, 술잔을 들고 걸임금을 찾아가 고했다.…… 걸임금은 손바닥을 치면서 별떡 일어나 대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비웃었다. ‘그대는 그 무슨 요망한 말을 하는가! 내가 천하를 소유함은 마치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다. 해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는가? 해가 없어져야 나도 망하느니라!’”)

崔述이 거론한 두 문헌 외에도 《韓詩外傳》·《藝文類聚》·《樂府詩集》 등에 이 〈夏人歌〉가 실려 있다. 그런데崔述은 왜 《한시외전》을 텍스트로 삼지 않고 굳이《新序》를 텍스트로 취했을까? 저작년도로 보면 漢文帝(B.C.180~157년) 때 저작된 《한시외전》이 漢昭帝 元鳳 4년(B.C.77년)에 태어난 유향이 지은 《신서》보다 최소한 백년 이상 앞선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도 《신서》는 《한시외전》 등의 기사를 그대로 취해 옮긴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신서》가 《한시외전》에 비해서 誤脫字가 더 많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시외전》과 《신서》의 기사를 비교하면 몇 글자의 출입을 제외하고¹⁵⁾ 별로 다른

14) 판본에 따라서 ‘舟楫沛兮’의 ‘沛’는 「敗」로, ‘啞然而笑曰’의 「啞」는 「唾」로 표기되어 있다. 줄고에서는 일단 《考信錄》에서 취한 字句대로 번역하였다.

15) 이 대목의 《韓詩外傳》 기사는 다음과 같다.

“群臣皆相持歌: ‘江水沛兮，舟楫敗兮。我王廢兮，趣歸於亳，亳亦大兮!’

又曰: ‘樂兮樂兮! 四牡驕兮! 六轡沃兮! 去不善兮，善何不樂兮!’ 伊尹知天命之將至，舉觴造桀，…… 桀相然而拊，啞然而笑曰: ‘子又妖言矣! 吾有天下，猶天之有日也。日有亡乎? 日亡，吾亦亡也.’”

《新序》와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去不善兮，善何不樂兮’로 문맥상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번역을 하자면 ‘악(악한 임금인 桀王)일랑 버리

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시외전》은 宋版本마저도 失傳되어 明·清代에 이르러 교감 정리된 판본이 나온 터라서 《신서》보다 문헌 자체의 純正度가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崔述이 이 점을 고려해서 《한시외전》보다는 《신서》의 기사를 텍스트로 취한 것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唐虞考信錄》에서도 崔述은 「廣載之歌」를 변증하면서¹⁶⁾ 사료의 비교검증을 통해서 밝힐 수 없는 원작과 의작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상의 풍격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에 의존하였다. 崔述은 《書經·益稷》의 「廣載歌」가 “가사가 옹혼하면서도 뜻이 심원(詞渾厚而意深遠)”한 점에서는 믿을 만하나 《尚書大傳》에 실린 「大唐之歌」를 비롯하여 순임금이 직접 지었다고 하는 「卿雲歌」, 八伯의 「和歌」 등은 “천박하여 무미건조하고, 피상적이라 절실하지 않다(淺而無味, 泛而不切)”고 평하면서 일부 구절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가사 내부의 전후 문맥에 맞지 않는 점으로 보아 문맥이 맞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무모하게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무작정 따다가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崔述의 추론대로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후세 사람이 擬作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¹⁷⁾ 崔述은 또 순임금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南風之歌」는 “가사가 노골적이고 뜻이 천박한데다가 소리는 느려 터지고 힘이 약하여(詞露而意淺, 聲曼而力弱)” 도저히 唐虞 시대의 표현으로 보이지

고 떠나가세, 그 선(선한 임금인 湯王)이 어찌 즐겁지 않으리요’ 정도가 되겠으나, 역대 교감학자들은 대체로 《新序》의 표기를 따라 ‘去不善而從善, 何不樂兮’로 교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16) 《唐虞考信錄》卷之四 〈舜治定功成〉의 「辨擬作之舜歌」一、二, 「廣載之歌」.
 17) 崔述은 이에 덧붙여 「元首股肱之歌」, 즉 「廣載歌」의 가사와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 이상의 여러 노래가 僞作임을 알 수 있다고 비평기준을 제시하였다. 더군다나 唐虞 시대에는 十二牧, 九牧 등의 벼슬이 있었을 뿐 「八伯」이란 벼슬은 없었는데, 《尚書大傳》에서 「八伯」운운한 것은 부정확한 기술로 보인다. 崔述은 이 노래들을 그와 동시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唐虞 시대의 시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음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이런 고증 사례는 소위 史實上의 僞를 겨냥한 것이기보다는 觀念上의 僞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자의 고증방식이 지나치게 남발되거나 혼잡될 경우 고증의 純度나 정확도에 치명적인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崔述이 사실관계의 변증에 주력하면서 주관에 흐르는 감정적인 접근을 자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그의 저술 곳곳에서 엿볼 수 있지만 경전을 왜곡하거나 후학들의 지나친 오류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崔述은 그만큼 자기 기준에서 고증이나 변론에 자신감이 넘치고 학문적 양심에 거리감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학적 평어가 지닌 모호성과 다의성이 지닌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선행적인 개념설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상투적인 비평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한 것은 과학적 분석과 검증을 요구하는 역사고증학의 학풍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崔述은 《樂記》의 “순임금은 5현의 거문고를 만들고 남풍의 노래를 반주하며 불렀다(舜作五絃之琴以歌南風)”는 기록에 대해서도 의고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선 악기의 제작주체와 연주주체에 관한 崔述의 생각은 그의 고증원칙에 그대로 부합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고대에 악기 중에서도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문고를 제작할 정도이면 대단한 지적 능력이나 기술, 권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문고 제작주체에 대해서 韓愈가 〈拘幽操〉는 文王이, 〈履霜操〉는 伯奇가 만들었다고 거론한 것이 그런 좋은 보기이다. 그러나 《악기》의 기사처럼 순임금이 五絃琴을 만들어 연주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崔述의 판단이다. 崔述은 傳이 오래 전해지다 보니 식견이 천박한 자가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으나 고고학적 뒷받침이나 문헌상의 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한 입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崔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¹⁸⁾ 그렇다면 이 고증 역시 태생적으로 무리한 면이 있

18) 《大道運行論》·《文化價值論》의 저자인 司馬雲杰은 그의 〈中國文化的根

다. “作五絃之琴”이란 《악기》의 기사는 좀 더 주밀하고 신중한 考釋을 필요로 한다. 과연 전의 전승과정상의 문제인지 문자 그대로 애초부터 신화나 전설의 성격을 띤 내용이 경전에 수용되었는지 그 한계가 모호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호도나 왜곡이 아니라 傳記 가운데 흔히 보이는 소설적인 과장이나 신화적인 메타포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歌南風」에 대해서도 《傳》의 “팔음의 체계를 조절하여 팔풍을 연주하였다(節八音而行八風)”이라고 한 것에 비추어 그 소리를 南風에 協律한 것일 뿐 그 가사제목이 「南風」이 아니라고 보았다. 崔述은 이런 고증을 토대로 南風으로 노래를 삼는다는 것은 牽強附會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어지는 《樂記》의 “夔始制樂以賞諸侯(기가 음악을 처음으로 제작하여 제후들에게 감상토록 하였다)”라는 기사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작곡에 뛰어난 夔가 제후의 감상용으로 음악을 제작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崔述은 石梁 王氏의 “기가 음악을 제작한 것이 어찌 오로지 제후들의 감상을 위해서만 이었을까!(夔制樂, 豈專爲賞諸侯!)”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조하여 《악기》의 기사를 불신하는 방안을 취했다. 《樂記》의 어느 구석을 보아도 왕씨의 주장처럼 기가 만든 음악을 제후만을 위한 전용음악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기사 한 마디로 제후의 전용음악으로만 사용된 것처럼 이해하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기는 궁중 樂師로서 제도적인 구속을 받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에게 막상 음악을 제작하고 천자와 경대부의 자제들에게

本精神) (《大連大學學報》 제24권 제1기, 2003년 2월, 16쪽)에서 崔述이 「經典」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그 「經典」을 해석한 후대의 학문, 즉 「子學」에 의문을 품고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崔述에게 있어서 「經」은 근본적으로 의심이나 수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제자백가의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으로 규정되는 「傳」에 대해서만 불신을 품었다는 것이다.

음악을 가르치도록 명령한 주체는 순임금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작한 음악은 주로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순임금 시절에는 서민들도 까닭 없이는 琴瑟 연주를 그만두지 않았을 정도로 음악이 널리 보급되었다지만 순임금의 치덕을 기린 韶가 완성되자 백관의 우두머리들이 진실로 화합하고 虞賓¹⁹⁾이 덕으로 사양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나 천자는 四面에, 제후는 三面에 악기를 걸어 두고 연주한 뒤에야 음식을 먹었고, 천천히 걸을 때는 肆夏라는 악곡을 연주하고 빨리 걸을 때는 采齊라는 악곡을 연주하였다는 이야기는 비록 선사시대의 신화전설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고대 사회에서 음악의 효용가치에 대한 지배계층의 인식범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崔述은 《樂記》의 大章·咸池·雲門·大卷·大咸에 대해 원래 작자의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음악인데, 후세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억측으로만 곡해를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⁰⁾ 더군다나 한 시대를 표방하거나 대표하는 음악은 공덕이 엄존하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요임금처럼 명분과 사리가 분명한 인물이 황제 때의 음악을 함부로 손댈 리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崔述의 문화적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一代之樂의 功德論이다. 이는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의 문제로 인식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후대의 기록이 전대의 미비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수공할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소설을 쓰듯이 첨언, 부언을 하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 「성스러운 경전을 존중하고 외람된 참위서는 내친다(尊聖經而黜讖緯)」는 원칙고수와 정통성의 확보에 대한 崔述의 입장은 단호하고 강경하다. 그리고 「五德終始說」에서도 피력했듯이 「경전은 등 돌리고

19) 순임금에게 제위를 禪讓한 堯임금의 아들인 丹朱를 가리킴.

20) 《補上古考信錄》卷之下 〈요임금 이전의 악곡 이름을 반박한다(駁堯以前樂名)〉條.

추연이나 유흠의 설을 취하는(背經傳而取衍歆之說)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진실을 호도하기 쉽다고 경계하고 있다.

《商考信錄》卷之二에서 崔述은 紂임금이 주색잡기에 빠져 황음무도해져서 정치를 망치는 과정을 기술한 《史記·殷本紀》의 기사²¹⁾를 인용하여 備覽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대목 역시 崔述이 별도의 담론을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예악이 실종된 은나라 말기의 망국적인 풍조를 음악의 변질을 통해 극명하게 엿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난국에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하는 신하가 있기도 하지만, 고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거나 은거하는 신하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일례로 《書經·微子》에서 「父師」「少師」로 일컬어지는 두 신하는 이웃 주나라로 달아났는데, 이 「父師」「少師」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다. 《사기·은본기》에서는 “太師疵, 少師彊”으로 여겼고, 《僞孔傳》 및 《蔡傳》은 모두 箕子·比干으로 여겼다. 崔述은 이 양자의 설을 모두 부정하는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崔述이 《사기》의 내용을 부정할 근거는 바로 《사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즉, 《사기》에서는 疵와 彊이 자신들의 악기를 품고서 주나라로 달아났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락없이 악사가 되고 만다. 그러나 崔述은 《書經》에서의 「父師」「少師」의 언행으로 보아 “殊不類樂官語”, 즉 전혀 악관의 말투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崔述은 《傳》에서도 이 설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崔述은 또 이 「父師」「少師」를 왕자 신분인 箕子 比干으로 보는 것은 애초부터 근거 없는 설이라고 부정하였다. 崔述은 결국 문헌에 명기되지 않은 이름을 한사코 알려고 하는 통에 訛傳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이 대목의 석연치 않은 잘못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父師」「少師」가 악기를 들고 주나라로 망명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崔述은 이들이 「樂官」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이 또한 명백한 방증이 없이 익명 주체의 신분이나 지위 직업 등을 예단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사기》에서 「父師」「少師」를

21) “愛姐己, 姐己之言是從. 於是使師涓作新淫聲, 北里之舞, 靡靡之樂.”

악관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지? 崔述은 이들 두 사람의 말에 근거하여 「樂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樂官」의 신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어차피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변증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고증하더라도 역시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3.2. 韶와 武--儀式과 意識: 崔述은 안연이 孔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孔子가 대답한 말인 “하나라 역법을 시행하고, 은나라 수레를 타며, 주나라 관을 쓰고, 음악은 소무를 연주하며, 정나라 음악은 내치고, 아첨하는 자는 멀리하라--정나라 음악은 음란하고, 아첨하는 자는 위태롭기 때문이다.”²²⁾는 答論에 대한 고증²³⁾에서 앞부분의 夏殷周 三代의 역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었으나 이어지는 음악 부분의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논급이 없다. 과연 이 대목의 음악 기사는 崔述이 지나친 것처럼 짚고 넘어가야 할 의심 가는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일까? 崔述이 미처 고증을 시도하지 않은 경전의 많은 대목에서도 崔述이 장기로 삼은 의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崔述이 그냥 넘긴 이 대목의 고증을 잠시 시도해보자. 우선, 韶舞와 韶武의 관계이다. 문자적으로 고대에 舞와 武는 서로 통용되던 글자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여겨지고 표기상 별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굳이 이 대목에서 韶武를 쓰지 않고 韶舞를 쓴 것은 혹시라도 春秋筆法과 같은 涵意가 담겨진 것은 아닐까라는 억측이 가능하다. 孔子는 주나라 무왕이 연주했다는 무는 완벽하게 아름답지만 완벽하게 선하지는 않다고 평을 한 반면 순임금이 연주했다는 소는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선한 것으로 평을 했기 때문이다.²⁴⁾ 孔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이 소의 연주를 듣고 석 달 동안이나 고기 맛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논어·술이편》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孔子의 개념에

22) 《論語·衛靈公篇》：“行夏之時，乘殷之輅，服周之冕，樂則韶舞，放鄭聲，遠佞人——鄭聲淫，佞人殆。”

23) 《洙泗考信餘錄》卷之一 顏子.

24) 《論語·八佾篇》：“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謂武，‘盡美矣，未盡善也。’”

선韶樂와 武樂의 예술적 경지는 결코 동격일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증좌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기 하지만 武와 舞가 통용자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보다는韶舞는韶武가 아니라 舞曲으로서의韶樂만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崔述은 孔子가 음악에 대해 토론한 것과 소악을 들은 것은 함께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변증하였고, 또 孔子가 소악을 들은 것이 반드시 제나라에 도착한 첫날일 필요는 없다고 변증한 있다.²⁵⁾崔述은 특히《說苑·修文篇》의 기록을 천착하여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동감하면서도 孔子가 소악연주를 듣고 싶어 마부에게 재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설적인 기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孔子가 제나라 성문 밖에 이르렀을 때 한 어린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의 눈빛이 맑고, 마음씨가 바르며, 행동거지가 단정하였다. 이에 孔子는 수레를 모는 마부에게 말했다. ‘좀 더 빨리 몰아라, 좀 더 빨리 몰아. 소악이 곧 연주되려나 보다!’”²⁶⁾

孔子 당시 소악이 연주되던 곳은 주로 종묘나 조정, 악관들이 머무는 관청이었다. 孔子가 아무리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더라도 남의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덜렁 종묘나 조정, 관청에 들어가서 음악연주를 관람할 리 없을 터인데 음악연주가 시작될 것 같으니 수레를 빨리 몰라고 재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견崔述의 지적이 맞게 보이기도 하지만《說苑·修文篇》의 기사는崔述이 생각한 것과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곧, 孔子가 제나라에 들어서면서 본 민심의 실체는 예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昭樂將作”이라는 문화적 기대치로 재생산된 것이 아닐까 한다.

25) 《洙泗考信錄》卷之一 在齊.

26) 《說苑·修文篇》：“孔子至齊郭門外，遇嬰兒，其視精，其心正，其行端. 孔子曰：‘越驅之，越驅之，昭樂將作!’”

茶山은 孔子가 소무를 취한 것에 대하여 선유들이 그 쓰임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심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선대의 음악이 후대에까지 폐지되지 않고 연주되었음이 분명하나 孔子가 굳이 ‘樂則韶舞’라고 말한 것은 《周禮》의 六舞가 자기 기준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상 최선의 음악을 가려 뽑고자 한 것이지 당시 孔子 입장에서 소무만을 보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²⁷⁾

3.3. 「聞樂知德」의 공용성: 《孟子》에서 연주되는 음악소리만 들어 보아도 덕이 얼마나 후한지 알 수 있다²⁸⁾고 말한 것처럼 음악은 후대로 갈수록 일상생활의 각종 의식행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개인의 교양이나 취미진작을 위해 다양한 개인용 악기와 악보가 만들어져 보급 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춘추전국시대에 음악은 사회문화를 지탱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崔述은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음악의 존재가치가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납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고증담론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1. 《洙泗考信餘錄》卷之三 孔門弟子通考의 〈檀弓與說苑記除喪彈琴之異(상복을 벗은 뒤의 거문고 소리에 대한 「단궁편」과 《說苑》의 기록 차이에 대해서)〉에서

《禮記·檀弓篇》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하가 상기를 마치고 孔子를 찾아뵈었다. 이에 孔子가 그에게 거문고를 타게 하였다. 그런데 자하는 음을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았고, 거문고를 타도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에 자하는 그만두고

27) 丁茶山, 前揭書: “孔子取韶舞, 先儒不知所用, 故疑之如此. 然季札適魯而見韶, 孔子在齊, 而聞韶, 明先代之樂, 後代不廢也. ……而今乃曰樂則韶舞者, 周禮六舞, 蓋有未盡叶於聖衷者, 欲於其中選其最善者而存之. 取其未盡善者而去之, 然若當其時, 亦未必獨存韶舞, 今言之如是者, 以韶爲第一也.”

28) 《孟子·公孫丑上》: “見其禮而知其政 聞其樂而知其德.”

일어나면서 말했다. ‘상복을 벗긴 하였으나 슬픔을 아직 다 잊을 수 없나 봅니다. 선왕이 제정한 예법인지라 감히 기한을 넘기지 않았을 뿐이지요!’ 한편 자장이 상기를 마치고 孔子를 찾아뵈었을 때였다. 孔子는 그에게 거문고를 타게 하였다. 그런데 자장은 음을 맞추면 그냥 맞추어졌고, 거문고를 타면 제대로 소리가 났다. 이에 자장은 일어나면서 말했다. ‘선왕이 만든 예법인지라 감히 기한을 채우지 않을 수 없었지요!’”²⁹⁾

이에 대한 崔述의 변증은 음악 자체에 대한 담론은 배제한 채 거문고를 타고 孔子에게 맡은 건넌 주체에 대한 이설을 다루는데 그쳤다.

崔述은 이에 대해

“《說苑》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감히 기한을 넘길 수 없었다고 말한 사람은 민자건이며, 감히 기한을 채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사람은 자하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궁편」과는 정 반대로 되어 있다. 대체로 이것들은 전해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두 책의 내용이 다르게 된 것이리라. 그 가운데에서 「단궁편」이 더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단궁편」 역시 그릇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내용은 신지 않는다.”³⁰⁾

라고 변증하였다. 崔述은 담화 주체가 문헌에 따라 전혀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는 점에 의문을 품고 아예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 양서에 기록된 내용이 기사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히 예법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군자라는 孔子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9) 《大戴禮記·檀弓篇》：“子夏既除喪而見，予之琴，和之而不和，彈之而成聲，作而曰：‘哀未忘也！先王制禮而弗敢過也！’子張既除喪而見，予之琴，和之而和，彈之而成聲，作而曰：‘先王制禮，不敢不至焉！’”

30) “說苑亦載此事，而以不敢過者爲閔子騫，不敢不及者爲子夏，與檀弓正相反，蓋皆得之傳聞，是以彼此異辭。似檀弓爲近古；然檀弓之誣者亦多，皆難取信，故今缺之。”

3.3.2. 《洙泗考信餘錄》卷之三 附錄: 十有二人의 첫 대목에서 琴張·牧皮를 다루면서 역시 장례와 음악이 연관된 일화를 변증하고 있다. 〈辨桑戶死而琴張歌之說(상호가 죽자 금장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변증함)〉이 그것이다. 여기서 崔述이 비판한 내용은 바로 《莊子·大宗師》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 崔述이 정리한 《莊子·大宗師》의 내용은 이러하다.

“《莊子》라는 책에서의 이야기이다. 琴張·子桑戶·孟子反 세 사람은 서로 어울리는 벗이었다. 그런데 자상호가 죽어 아직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한쪽에서는 누에채반을 엮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어우러져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다. ‘아아, 상호여! 너는 이제 너의 참된 모습으로 되돌아갔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로고!’”³¹⁾

崔述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였다.

“금장이나 증석의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狂)는 옛날의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나 행동이 미쳐 말을 따라가지 못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맹자가 말했던 정도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을 따름이지, 悖倫과 毀教를 저질렀던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이처럼 패륜과 훼손을 저질렀다면, 孔子는 어찌하여 그들을 받아들였겠는가? 이것은 바로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 자신의 방자함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금장이 狂簡(기상이 있고 뜻은 크나 실천력이 없고 조락하다는 뜻)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에 가탁한 것이다. 그런데도 후세 사람들은 마침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게 되었으니, 이것은 잘못이다.”³²⁾

31) 《莊子》書稱“琴張與子桑戶孟子反三人相與友，子桑戶死，未葬，或編曲，或鼓琴，相和而歌曰：‘嗟來桑戶乎，而已反其真，而我猶爲人猗!’”

32) “琴張曾皙之狂，不過志期古人而行不掩其言，與孟子所言者是已，非有悖禮傷教事也。如悖禮傷教，孔子奚取焉？此乃放蕩之士撰此言以自恣，以琴張之有狂名也，故托之。而後人或遂以爲實然，誤矣。”

이 일화는 그 사실여부를 떠나 예악이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의 사고나 언행까지 구속하는 절대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금장 등이 친구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일상으로 돌아와 노래를 부르고 생업에 종사한 것은 상식적인 행동에서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유가사상의 잣대에서 그렇다는 뜻이지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자아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장자의 입장에서 굳이 이 담론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孔子나 자공은 현실에 얽매어 참된 도를 모르는 용졸한 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장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담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崔述은 장자의 말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재단하여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 자신의 방자함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질타하였는데, 이런 논지를 펴게 된 원인은 장자 특유의 형이상학적인 暗喻의 담론을 읽지 못한 탓이거나 유교적 가치관에 침잠되어 노장철학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3. 《洙泗考信餘錄》卷之三 孔門弟子通考의 첫 변증인 〈辨荀子居是邦不非其大夫之說(자신이 사는 나라의 대부는 비방하지 않는다는 순자의 설을 변증함)〉에서 崔述은 대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순자의 말에 대한 반박을 전개하였다.

崔述은 경전의 여러 대목을 거론하면서 순자의 설이 무모함을 지적하였는데, 먼저 孔子가 계씨를 혹평한 《論語·八佾篇》의 내용을 거론하였고, 이어서 《詩經·周頌》의 「용시」를 직접 인용하며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였다. 이 사례는 바로 예악과 관련된 것이다.

崔述의 견해는 이렇다.

“《논어》에서는 孔子가 계씨를 일컬어 ‘자기 뜰에서 팔일무를 추게 하는구나. 저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면 어느 짓인들 차마 하지 않으랴!’라고 하였으며, 또 이어서 삼가가 「용시」를 연주하며 철상을 하자 이렇게 말했다. ‘제후들이 돕거늘, 천자는 의젓하기도 하셔라’

어찌 저 세 가문의 사당에서 연주한단 말이고!”³³⁾

계씨는 분수에 넘치는 행동으로 천자만이 제례 시에 여덟 줄의 춤을 추게 할 수 있었으나 일개 대부의 신분으로 예악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춘추시대 당시 대부의 신분에는 네 줄의 춤을 추게 할 수 있었다. 「용시」의 두 구절은 내용 자체가 천자에 해당하는 가사인데, 일대 대부에 불과한 三家가 제사를 끝내고 제수를 거둬들이는 자리에서 연주하도록 한 것은 역시 신분 지위를 참월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孔子가 신랄하게 힐난한 것이다.

이렇게 음악은 춘추시대 예의 규범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엄격한 질서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면서

이상으로 崔述이 《考信錄》 諸書에서 다룬 음악에 관한 고증 부분을 소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크게 본체론적 담론과 공용론적 담론의 두 부분으로 살펴본 결과 유가적 음악관에 투철한 崔述 특유의 문화적 사유와 인식범주가 잘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악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신화 영역의 음악에까지 해석의 끈을 연결한 것은 약간 무리한 발상이라고 여겨지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음악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형성과정의 단계적 발전 등에 있어서는 역시 崔述답게 치밀한 고증을 거쳐 역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명쾌한 지적을 하여 음악의 본연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었다. 공용론적 담론에서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다가 음악 자체의 순수성, 인간감정의 자

33) “論語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 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연스런 발로라는 원형질적인 개념이 뒷전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지만 의식화된 음악이 결국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감정충동의 발단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살펴본 악론을 중심한 고증담론과 같은 문화담론적 고증사례는 의고사학의 삭막한 고증에 그치지 않고 순수한 학문적인 사유와 실천을 통해 正經의 미학을 이루고자했던 崔述의 의지가 낳은 지적 소산으로 생각된다. 다만 崔述 자신이 전통음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눈에 띈다. 하지만 崔述은 한결같이 전통적인 예악사상이나 孔子 특유의 「游於藝」의 문예정신, 「聞樂知德」의 사회적 공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왜곡되고 曲解된 경전의 대의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접목을 꾀하는데 주력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崔述의 문화담론적 고증 사례를 통해 자구해석이나 문헌비교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논리적 변증, 문화담론적인 비평 등의 다양한 방법이 혼용되어 과학적이면서도 인문지향적인 문화고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도 본고의 수확 중에 하나였다. 崔述의 문화담론적 고증사례는 다른 성격의 고증사례와 달리 그의 疑古(옛것을 의심하고)+ 釋古(옛것을 해석하고)+ 參古(옛것을 참고하는)의 학술사상이 객관과 주관의 조화를 이루고, 평생 외길로 견지했던 尙古(옛것을 숭상하고)+ 信古(옛것을 믿고)+ 復古(옛것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상주의적인 학문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엄정한 목적의식이 융합된 결과였다고 본다. 본고에서 다룬 崔述의 음악고증은 바로 그와 같은 학문사상과 정신이 배어있는 전형적인 부분으로 파악된다. 崔述은 시종일관 문헌상의 갖가지 기술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입체적이고 다원적으로 조명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일반적인 고증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차별된다고 생각한다.

중국문화에서 음악은 문자 그대로 중국적 색채와 민족성을 가장 잘 반영한 문화콘텐츠의 하나였고, 21세기 서구음악이 팽배한 현재적 문화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대항적 기운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의 전통음악은 중국문화의 심미적 바탕이자 사상적 핵심의 하나인 것이다. 특히 孔子에 의해 개인수양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덕목으로 중시되면서 전통음악은 봉건 유교사회에서 줄곧 지배적인 문화사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음악은 孔子가 한평생 시종일관 교육현장, 정치무대, 개인생활의 현장에서 동행한 살아있는 문화였고, 역사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그 음악의 감성은 정서의 함양, 인격의 순화 및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성적인 지혜를 일깨우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崔述은 바로 이런 온유돈후의 정성적인 전통 음악문화를 담론의 색채로 전개하여 18C 고증학의 전성기에 유가적 음악관의 존재가치를 천명하는 기회를 빌려 사라져가는 禮樂文化의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參考文獻]

- 崔述, 《考信錄》上下(臺灣, 世界書局, 民78年)
 崔述, 《崔東壁遺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何衛平, 《通向解釋學辨證法之途》(上海, 上海三聯書店, 2001)
 劉紹瑾, 《復古與復元古-中國古代復古文學理論的美學探源》(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劉偉林 著, 沈揆昊 옮김, 《中國文藝心理學史》(서울, 東文選, 1999)
 邵東方, 《崔述與中國學術史研究》(北京, 人民出版社, 1998)
 路新生, 《中國近三百年疑古思潮研究》(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1)
 郭康松, 《清代考證學研究》(武漢, 崇文書局, 2001)
 楊曉魯, 《中國音樂與傳統禮儀文化》(吉林, 吉林教育出版社, 1994)
 俞志慧, 《君子儒與詩教--先秦儒家文學思想考論》(北京, 三聯書店, 2005)
 楊華, 《先秦禮樂文化》(漢口, 湖北教育出版社, 1997)
 呂基鈺編譯, 《中國古代樂論》(서울, 太學社, 1995)
 人民音樂出版社編輯部編, 《〈樂記〉論辯》(北京, 人民音樂出版社, 1983)
 蔡仲德, 《中國音樂美學史》(北京, 人民音樂出版社, 1997)
 《復旦學報》編輯部編, 《中國古代美學史研究》(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3)

- 馮天瑜, 《中華元典精神》(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4)
- 吉聯抗譯註, 《孔子孟子荀子樂論》(北京, 音樂出版社, 1963)
- 楊蔭瀏, 《中國古代音樂史稿》(臺灣, 丹青圖書有限公司, 民74年)
- 柳肅 지음, 洪熹 옮김, 《禮의 정신--禮樂文化和 政治》(서울, 東文選, 1994)
- 이강재·김효신 역주, 《俞樾의 〈論語平議〉--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서울, 학고방, 2006)
- 尹在根, 《東洋의 美學》(서울, 도서출판 등지, 1995)
- 尹在根, 《증보판 東洋의 本來美學》(서울, 나들목, 2006)
- 李澤厚 著, 權瑚 譯, 《華夏美學》(서울, 東文選, 1999)
- 금장태, 《한국유학의 악론》(서울, 예문서원, 2008)
- 김병훈, 《올려와 동양사상》(서울, 예문서원, 2006)
- 한흥섭, 《한국 고대 음악사상》(서울, 예문서원, 2007)

[中文摘要]

本題以崔述的《考信錄》諸書爲文獻資料來考察有關音樂考證部分, 主要觀點在其中有無文化談論的要素和特色. 崔述的有關樂論的考證, 多有文化談論的色彩, 可分爲本體論的談論和功用論的談論兩部分. 崔述的考證指向點就根據儒家的音樂觀, 但是他太注重禮樂的政治社會文化的機能, 甚至於連神話領域的樂論也連接到儒家思想, 一面看起來, 理論上本無問題, 而筆者個人認爲難面有臆測之欠. 雖然如此, 在音樂的本質性性格和形成過程上的段階的進展等問題上, 崔述非常努力解釋歷代學者們不能解決的問題以及曲解的地方. 功用論的談論上亦是寓有創見, 但一方強調音樂的社會功用性, 有點疏忽音樂自體的純粹性, 爲人感情的自然發露等原形質的概念, 反而表面上強調儀式化的音樂到底支配士大夫和一般人的意識, 崔述就鼓吹見禮知政、聞樂知德, 審樂知政、觀風審音的功用性由此成爲中國傳統音樂文化思想的主要思想基礎.

總而言之, 崔述不陷於疑古史學的朔漠無味的考證方法, 自己堅持着純粹的科學的思維和苦心實踐, 平素強烈希望能闡明孔子所達道的正經美學,

終於他的《考信錄》可以說是其精神所歸，代表的他的寶貴的知的所產。雖然崔述自己缺乏傳統音樂上的專門知識和經驗，但是他一直不離傳統禮樂思想和孔子所說的「游於藝」的文藝精神，「聞樂知德」的社會功用性，明其理，達其致，大膽糾正俗世學人的曲經誤謬，欲振作儒家學風。

筆者發見在《考信錄》當中有很多文化談論的考證事例，崔述能夠應用字句解釋，文獻比較，論理辨證，文化批評等多樣多彩的研究方法來創造出一面科學的，一面人文的文化考證。崔述的文化談論的考證事例，關鍵就在它可以說是具體表明他的疑古釋古參古的學術思想，成其客觀和主觀的和諧，實踐尚古信古復古的學問理想。

傳統中國文化上音樂就是最有代表性的文化遺產，中國的色彩和民族性的反映度已達其頂點，在21世紀西歐音樂澎湃的文化環境下依然維持着對抗的氣象。換句話說，誰也不能否認中國的傳統音樂是中國文化的審美基礎，思想的核心。活在18世紀的崔述已經認識度中國傳統音樂的存在價值，努力成章，幸虧到今天中國傳統音樂決不息其氣運，在中國人的意識形態和生活空間上繼續發揚其順其自然的美德使命。

關鍵詞：文化談論，禮樂文化，律呂，韶武，樂以志爲本，聞樂知德

투고일: 2008. 6. 30.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中國 當代詩 浪漫的 流變*

김용운**

〈목 차〉

머리말

1. 권술을 위한 사상사의 조합
2.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
3. 낭만을 위한 몰주체
4. 雙百의 배신감
5. 어처구니없는 자아확장
6. 神人以和의 종교열

맺음말

머리말

中國 當代詩의 전개과정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가치정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정략적인 선택을 자신의 가치정향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詩의 대응인 편이다. 정치에 대한 문학의 상대독립성이 보장되는 사회 속에서는 현실의 구조에 대한 비판과 그것의 이행과정에 대한 계측이 창작의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1949년 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교수(yukimm@dau.ac.kr)

후의 중국에서는 권력에 대한 문학의 자발적인 일치와 單位制度에 의한 문예의 통제가 상하로 결합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낭만이 그 질과 양을 기하급수적인 것으로 과장하게 된다. 현실구조의 역사적인 이행과정을 필연으로써 포착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분석에 기초한 변화지향이라는 점에서 낭만과 현실인식의 결합을 당연시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인식에 입각한 정책의 기획과 가치정향에 편향하는 현실개조의 기획은 인식과 당위를 합리적으로 매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간극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는 현실인식에 기초한 관료엘리트 집단과 가치정향에 근거한 毛澤東主義者들이 경쟁함으로써 양자 간의 간극을 벌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대립의 과정을 통하여 가치정향에 입각한 현실개조의 불가피한 의식성이 편향의 확대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쪽으로 나아가버렸다는 점에 있다. 이는 명백한 중국 당대사의 오류였지만 1976년까지의 중국공산당은 현실로부터 유리된 정책을 끝없이 변명하고 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쟁세력과의 차별성을 공과 私를 대변하는 도덕적 우위에서 찾게 되었다. 毛澤東 사상에 동의하는 자는 도덕적이고 반대하는 자는 비도덕적이라는 이 같은 관념론은 ‘혁명 현실주의와 혁명 낭만주의의 양결합’이라는 보편적인 문제, 즉 권력의 정향에 의하여 문학의 편재가 갖추어져 가기 때문에 문학이 정치에 다양하게 열광해 가는 길을 예비하게 된다. 권술구조가 詩의 내재적인 의미를 채움으로써 인간의 존엄, 생사의 초월,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자유 등이 추방되어 버리고, 권력의 자기실천 과정에 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향이 지적인 수준과 사회내적인 지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열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1. 권술을 위한 사상사의 조합

毛澤東 사상의 기본 틀은 적이 사라져 버린 상태를 지향하는 군사론에 입각해 있다. 모순론·실천론·지구전론·신민주주의론·연안문제강화 등이 보여주는 사상의 기본 구조는 군사적인 대립관계 속에서 피아간의 적대적인 모순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적을 누르고 승리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孫子兵法이 거론한 바 있는 모순 대립 항을 군사적 대립의 총체로 파악함으로써 적의 활동과 경향, 방법과 지향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체의 활동을 조정 계획하고 있는 毛澤東 사상의 근거는 명약관화한 孫子の 계승이다. 따라서 毛澤東 사상의 기본 프레임은 적아간의 대립관계 속에서 모순의 주요한 측면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여 통제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느냐에 집중하게 된다. 그의 사상 체계가 가치론이나 인식론보다는 방법론에, 그것도 물질적 대립관계에 대한 변유적인 방법의 무자비한 실천인 것은 전쟁과 그것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毛澤東은 가치론에 정초한 儒家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자연감성 속에 침전된 인륜이나 사회적인 행위를 판단하는 높은 수준의 감성체계는 군사적인 대립관계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역기능이었다. 문제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전투에서의 승리였다. 게다가 40년대의 전투는 농민의 병사화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농민에게 낮추는 것이 지식인의 윤리였다. 자유의지는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잉여 감성이었으며 개인의 생존과 민족의 존망에 유해한 경향이었다.

따라서 孟子는 금기의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관계의 윤리적인 지표를 상정한 뒤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정치권력을 축출하고자 하였던 孟子의 義나 浩然之氣는 전투상황에서의 기계적인 비판과 찬양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권력이 아니라 적에 대한 것으로 비판의 범주를

제약하고 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打倒 孔子店’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중국의 지속적인 反儒家 경향이 戰時를 벗어난 毛澤東 사상의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위축의 결과였음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戰時動員體制를 유지해야 했으며 열악한 무기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식형태의 통일이었음을 생각할 때, 毛澤東의 자유의지에 대한 백안시나 浩然之氣에 대한 혐의는 군사적인 열세가 반영된 현실지향이었다.

전시동원체제가 필요성이라면 이 같은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술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중국 내의 이미 존재하는 권술 가능성을 필요에 따라 기획하고 실천했다는 데에 毛澤東의 독특함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毛澤東의 이 같은 조합이 실제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권력의 의도를 누구도 파악할 수 없게 한 그의 독특한 기질 탓이었다. 바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권력과 술수가 독특한 아우라를 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毛澤東은 董仲舒의 天人感應論을 모든 사람의 자신에 대한 감응 추구로 전환시켰다. 추상적인 하늘이 毛主席으로 대체됨으로서 구체성을 획득하게 된 20세기 중국의 天人感應은 감응의 순수한 수준과 규모에 의하여 정치의 질이 규정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자아와 권력의 관계가 혁명을 매개로 하는 도덕적 순수성에 의해 전이되고 모든 인민이 毛澤東과의 감응을 통하여 혁명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착각은 毛澤東을 벗어난 사고·언술·행위 모두가 반인간적인 모색과 실천으로 폄하됨으로써 천인감응 이외의 모든 관계를 반동적일 뿐 아니라 사투한 것으로 몰아가게 된다. 그럼으로써 毛主席이라는 단어는 추상화된 하늘 이상의 분위기를 갖추게 된다.

천인감응이 사회내적인 구성원 모두와의 기체라면 墨子の 天意 明鬼는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론과 결합된 천연수장 고유의 一望監視體系라 할 수 있다. 소상품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墨子の 사상적인 기초가 20세기 중국의 사회관계에서도 여전히 유용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생

산이 집단화·기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GDP의 대부분을 농업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기계화가 불가능한 경작지를 평등하게 공유한 뒤에 공동 노동에 입각하여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사회주의 중국의 생산 관계는 墨子를 類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결과였다. 문제는 이 같은 평등의 가난한 대가였다. 전시동원체제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평등의 대가로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시체계가 일반화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墨子의 明鬼가 신비스러운 인식이었다면 新中國의 일망감시체계는 도시의 單位制度和 농촌의 人民公社가 매개하는 것이었다. 單位 속의 개인과 公社 안의 농민 하나 하나는 그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는 내면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대로 기록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明鬼 시스템 하에 놓이게 되었다. 墨子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원에서 사고와 정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반면에 荀子의 性惡說은 주로 지식인에 대한 혐의로 국한되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성의 정수인 道의 지배하에 놓여야 한다는 이 학설은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의 계급성이 勞農과 같지 않기 때문에 노동과 의식교육으로 그들을 개조해야만 프롤레타리아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毛澤東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욕망에 의해 휘둘리지만 사회적 이성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통해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荀子 관점의 수용이야말로 스탈린과는 다른 毛澤東의 인정적인 측면이었다. 자신과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많은 지식인들을 형장의 이슬로 보내지 않고 재교육을 통하여 개조하고자 했던 毛澤東의 여러 가지 시도들은 20세기에 출현한 荀子의 의지였다.

다양한 대상과 층위 속에서 진행된 이상과 같은 가능성들을 어떤 식의 대립구조로 통일시키고 귀납시키느냐가 바로 당대 중국이 당면한 과제였다. 관료엘리트, 黨 내외의 지식인, 勞農兵, 그리고 49년 이후에 출생한 학생 전체를 당과 군부를 연결하는 진영모순으로 획분하기 위해서는 적과 편을 가르고 도덕의 정합성을 편에게만 수여하는 방법이 강구

되어야 했다. 적이 私라면 우리는 공이며 우리가 옳이라면 적은 惡이 되어야만 하는 대립구조야말로 흑백과 진위를 분명하게 하는 차이였기 때문이다. 대상과 층위를 망라하는 이 모든 전선에 朱子學의 天理 人欲 구조가 덧씌워졌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회정치적인 의도 탓이었다. 적이 비도덕적이고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립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존재라는 구도가 바로 이 시기 낭만의 본질,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였다.

문제는 지식인 사회의 이 같은 이원대립 안에 章太炎 이래의 도덕지향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章太炎이 그랬듯이 올곧음을 지향하는 지식인들에게 도덕은 혁명과 모든 진보적 행위의 동력이자 목표였다. 그들은 사상과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체적 행위에서도 고난을 달게 여기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적 작풍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지식인 사회의 이 같은 도덕지향은 그들의 비극을 전면적이고 또 내면적이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²⁾

2.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

중국 공산당에게 사회주의는 구체적인 실천과정이었지만, 사회주의를 경영해 본 경험은 전무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소련의 경험이 절대적인 강령이었으며, 실천과정에서 배양된 민족형식의 다양한 갈래들이 내재적인 정향으로 결합하는 중이었다.

일찍이 毛澤東은 소련을 따르기 위해 “소련에서 달걀과 닭국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3년 동안 달걀이나 닭국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³⁾고 고백한 바 있다. 내용과 형식 모두를 소련의 경

2) 李澤厚著/ 임춘성譯, 《中國近代思想史論》(서울: 한길, 2005), 640-641쪽.

3) “害得我三年不能吃鸡蛋,不能喝鸡汤,因为苏联有一篇文章说不能吃鸡蛋和喝鸡汤”, 毛泽东, 〈在成都会议上的讲话〉, 《毛泽东文集》第7卷(北京: 人民出版社

힘에 일치시킴으로써 중국의 오류를 덜고자 한 것이다. 중국과 소련의 근본적인 차별성은 혁명과정의 방법으로 말미암았다. 동일한 지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두 나라의 혁명 과정은 주체와 방법,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간의 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빚게 되었다. 소련이 지식인 중심의 직업혁명이 그룹에 의한 권력의 장악과 지식인·노동자 연대를 통한 체제의 유지 존속을 도모하고 있었다면, 반제·반봉건 투쟁을 농민 역량에 의존하여 관철해야 했던 중국 공산당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농촌을 근거지로 삼아서 도시를 포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했으며 통일 전선에 입각된 항일 투쟁을 기획해야 했다. 지식인·노동자·농민의 연합전선이 지식인의 눈높이를 勞農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수준에서 농민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선전이 실현되어야 했다. 勞農이 지식인의 수준으로 성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勞農을 향해 변화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⁴⁾

그러나 이 같은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객관현실을 전도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스스로가 농민이 되어야만 민족의 장래가 열린다고 믿고 있었다. 지식인이 농민화 한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도덕주의가 지식인 집단의 강력한 의식형태로 관철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존엄, 자유로운 선택, 사회관계속의 이해의 조정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물태적인 배경을 이루는 시장경제 등이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救亡의 이데올로기가 도덕주의로 지식인 사회를 압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력을 중시해 온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 생산관계의 변혁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井岡山에서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社, 1999), 368쪽

4) 지식인들이 엮었던 이 과정의 고통에 관해서는 李澤厚 著/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론》(서울: 한길, 2005), 379-384쪽 참조.

1935년 12월 31일 瓦窯堡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 공산당은 어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을 경영하는 경험을 축적시켜본 적이 없었다. 江西 소비에트에서 瓦窯堡에 이르는 행군과정은 과학기술을 제고하여 생산라인을 변화시키고 생산관계를 현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黨의 편제를 軍의 편제로 대체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단 하나의 의식형태로 집체화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현실과 장래에 대한 개인의 인식·지향·방법 등은 집단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반동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으며, 黨의 존속에 위대한 경향이자 행위였다. 1937년으로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통일전선하의 항일 투쟁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인 승리임이 분명했지만 그것이 결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새로운 조합이나 통일일 수는 없었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승리는 이미 서술한 바 있는 지식인·노동자·농민의 관계를 더욱 더 도그마틱한 이데올로기로 이끌게 되었다.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한 생산력 수준의 제고라는 토대에 있어서의 중국식 방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中蘇 관계의 악화 또한 이 같은 관념경향의 매체로 작용하였다. 특히 스탈린의 사망과 중심의 해체라는 사회주의 중주국 내부의 변화는 중심의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핵을 갖지 못한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대립구조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아닌 의식형태의 통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당독재의 합리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우상화·신격화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중주국 소련이 바로 이 같은 경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선택으로 나아가버린 것이다. 毛澤東主義者로서는 소련의 변화에 따른 당내의 이견을 사전에 차단하고 진영모순하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소련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소련은 더 이상 형제국이 아닌 수정주의자들이었으며, 수정주의 비판 자체를 당내의 생산력주의자 비판으로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겪은 중국 군부의 가치정향은 의식형

태의 제고보다는 무기의 수준, 특히 전투기와 전폭기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갖는 쪽으로 현대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羅瑞卿과 彭德懷가 林彪의 견해에 반발하면서 소련에 의존한 무기의 현대화를 주장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유격전만으로 현대화된 미국의 무기들을 상대해야 했던 彭德懷의 주장은 의식형태와 무기의 수준 제고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견해가 毛澤東에 의하여 묵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련에 의존한 군의 현대화가 중국 인민해방군내의 중심 해체 경향을 낳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식형태를 견고하게 다짐으로써 토대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毛澤東식 관념경향이 권부의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학이 사회내적인 모순구조와 그 이행과정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관계를 창출한다는 목적보다는 정치를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주입함으로써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가기 시작하였다. 비판이 사라진 문학의 지평에는 리얼리즘이 아니라 정치의 메가폰만이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문학은 이제 현실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사실 자체를 정치와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권력에 의존해서 은폐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정치권력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문학의 영역은 불순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이나 삶에 있어서의 자유는 의식형태의 부르주아 반동 경향으로 매도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매도의 한 가운데에 정치의 계략이 자리 잡게 되었다.

3. 낭만을 위한 몰주체

生死는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삶의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경제적 강제를 제외하고는 자유여야 한다. 경

제적 강제에 예속된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계획되고 실현되는 단 한 번뿐인 순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강제의 시간 자체도 부자유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대가가 명백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노동이 생존과 자유를 함께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전망이 낭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치적인 의도가 당 내외의 전선구도를 조작함으로써 낭만을 낳게 될 때, 그 낭만은 권력에 대해서는 진실하면서도 인간의 내면과 현실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진실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버리게 된다. 게다가 권술구조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압제가 삶의 불가역성과 유일성 위에서 피어나는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 낭만은 사회정치적인 뒤틀림을 경유하면서 왜곡과 거짓의 변주로 나아가게 된다.⁵⁾

當代 詩歌史의 시인들은 바로 이 같은 사회적 노동의 전체를 전도 인식하는 관념론에 의하여 유도되어졌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회적인 노동에 私的인 요소를 배제할수록 도덕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노동의 私的 계기가 노동을 하는 사람에 의하여 취소되어버릴 때, 그 노동은 사명감의 외피를 쓴 노예노동으로 전환해버리기 쉬운 법이다.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만 못한 상황이 노동과정 전체를 지배해 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전통은 바로 이 같은 노동을 당연시 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식인의 계급이동이자 당과 인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럼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질적으로 우수하면서도 노예 이상으로 헌신적인 노동력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떤 식으로 유지 존속시키느냐이다.

私的인 계기가 비도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시장에서의 이윤추구가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는 적극적인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전근대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중국의 시인들

5) 이 과정에 대한 詩歌史로서의 분석은 謝冕의 《浪漫星雲》(廣州: 廣東人民文學出版社, 1999)이 압권이라고 생각된다.

은 자유와 민주의 토대가 사라져 가는 1949년의 상황을 이상이 실현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인민의 중국이 아시아 동편에 우뚝 섰노라/ 눈부신 광선이 온 천지에 퍼진다/ 힘겨운 세월 딛고 창건한 이날의 성공을 경축하노니/ 오성홍기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다/ 사는 자 많고 물산은 풍족하여라/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공이다 6)

현실과의 모순구조를 느낄 수 없는 지식인의 이 같은 내면세계는 현실 비판을 현실에 대한 지지와 찬양으로 대체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천국의 완성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사회관계를 통하여 현대성을 내포해야 하는 중국의 상황은 저개발의 개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저개발의 개발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생산과 소비, 농업과 산업 간의 균형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이다. 농민이 노동자나 산업 예비군을 자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농업의 산업화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협상가격차를 통한 농민의 노동자화는 불가피하였지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구조조정이 지식인과는 직접적인 갈등을 빚지 않으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속해 있었던 중국 지식인들은 50년대의 자본의 원시적 축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으며 그 과정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였다. 현실은 비판의 대상을 양산하고 있었지만 비판의 주체는 제1차 5개년계획의 그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 모두는 49년 이전의 원시적인 축적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개발이기 때문

6) 郭沫若의 〈新华颂〉 중 “人民中国, 屹立亚东。/ 光芒万道, 辐射寰空。/ 艰难缔造庆成功, / 五星红旗遍地红。/ 生者众, 物产丰, / 工农长作主人翁。” 1949年 10月 1日 《人民日报》。

에 비판의 무기조차 들지 않는 무심으로 일관한 것이다.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소련의 전범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전범이 사라져버린 실험실이라고 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실험 자체가 모색이 아니라 정향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방향의 실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대 강령은 소련을 능가하는 사회주의 대국이 되는 것이었다. 방법과 노선의 차이가 명백한 이상 누가 옳은지를 검증하는 일은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국방과 경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능가하느냐에 달리게 된다. 후발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의 수월성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의 최소강령은 새로운 방법과 노선으로 진영모순 속에서 존속하는 것이었다.

4. 雙百의 배신감

지식인의 철없는 무심과 낙관 속에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뜻밖에도 권력 내부의 갈등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劉少奇·周恩來·鄧小平 등이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당 내의 우수한 인재그룹을 이 기획 속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毛澤東主義者들은 진영모순의 규정성, 농민에 대한 고려, 이윤동기의 만연 등을 거론하며 현실의 왼쪽을 향한 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권력의 중심이 관료 엘리트 집단에게 이양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 외의 누군가가 毛澤東主義者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⁷⁾

毛澤東은 30~40년대의 전투과정에서 보여준 지식인 집단의 헌신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상태였으며 당 외 지식인들의 사명감은 毛의 입장이 아니라 휴머니즘·당 내의 민주주의·민주주의를 위

7)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서울: 이산, 2004), 237-270쪽 참조.

한 자유의 문제 등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 시기의 지식인 문학이 휴머니즘의 근본문제—자유와 민주에 대한 관심—를 보편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지식인의 관심과 지향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바다. 그들은 전리품의 분배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를 요구하였다. 혁명에 대한 헌신이 보편가치, 다시 말해서 인민의 행복에 대한 요구로 전환 중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雙百은 毛의 낭만을 내포하는 계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상 때문에 낭만 자체를 변화시켜 가는 동기였다. 雙百이 관료엘리트에 대한 ‘火天大有’ 식의 불 밝힘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毛澤東에게 지식인의 이 같은 반응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이상의 배신감이었다. 수십 년 동안의 체용관계가 권술관계 속에서도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였던 毛澤東에게 자신의 사유를 뛰어넘는 지식인의 모습은 자성보다는 두려움의 계기를 빛는 중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毛澤東의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 가능한 현실 속에서의 방법 찾기였다. 그의 방법이 상황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 관한 모든 논의를 변유적인 방법편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지만, 그것이 방법으로서의 우위를 지닌 모색이라는 점에서는 가치와 인식을 상대적으로 홀시하는 보편적인 경향이기도 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의 毛澤東은 현실과 논의간의 일치를 고수하는 것 보다는 현실 속에서의 정치적인 효용을 더 중요시하는 방법 편향을 띠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毛澤東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규정을 생산력의 변화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과학기술수준의 제고에 따른 생산력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생산관계를 변화시킴으로서 생산력 수준의 제고를 일정 수준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인 개편에 따른 생산력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냐가 아니라 생산관계의 사회적인 재편이 생산력의 제고가 되도록 어떻게 인간을 작동시킬 것이냐였다. 생산관계의 변화는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전환으로 인식되어지는 한, 개체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유발할 수밖에

에 없는 추세였다. 이 같은 변화 자체가 혁명적인 실천이자 인간에 대한 혁명으로까지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찍이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모든 혁명의 역사가 증명하듯, 먼저 충분히 발전된 새로운 생산력이 있고난 뒤에야 낙후된 생산관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여론이 조성되고 혁명을 진행시키며 정권을 탈취해야만 이전의 생산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전의 생산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길을 여는 것이다. 8)

사적 유물론의 정합성을 부정하고 있는 毛澤東의 이 같은 견해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내의 관료 엘리트와 지식인을 草線同색의 관계라고 생각하였던 그가 자신의 주요한 지지기반을 농민으로 과신한 결과였다. 동시에 그것은 지식인에 대한 毛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毛澤東의 지식인에 대한 사회역사적인 혐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경험으로 말미암았던 것 같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北京으로 올라온 그가 北京大學 司書를 하며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을 때, 北京의 지식인들이 보여주었던 현실 괴리는 지식인에 대한 그의 항상적인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9)

8) “一切革命的历史都证明, 并不是先有充分发展的新生产力, 然后才改造落后的生产关系, 而是要首先造成舆论, 进行革命, 夺取政权, 才有可能消灭旧的生产关系。消灭了旧的生产关系, 确立了新的生产关系, 这样就为新的生产力的发展开辟了道路。” 毛泽东, 〈读苏联《政治经济学教科书》的谈话〉, 《毛泽东文集》第8卷, 132쪽

9) 이런 그의 불신은 사상사적인 정합성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章太炎은 唯識으로 돌아감으로써 객관현실의 모순구조를 적멸시켜야 할 내면의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였으며, 근대적인 방법론의 운용으로 학술사에 남는 성과를 이룩한 王國維는 현실모순의 체계에 관한 한 근대적인 영향력의 발휘가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의 학문은 현실 속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 넘어 존속할 수 있는 학문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권력이 거간하는 지식인 비판과 의도적인 길들이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식인 집단의 당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기억될 만한 안타까움이었다. 55년의 胡風反革命集團事件으로 버림받은 지 오래였던 牛漢은 차마 저버릴 수 없었던 자신의 당에 대한 25년간의 원망과 미련을 이렇게 표현하는 중이다.

몇 년이나/ 일기를 쓰지 않았던가// 몇 년이나/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가// 몇 년이나/ 이웃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가// 몇 년이나/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던가// 몇 년이나/ 누구와도 악수하지 않았던가// 몇 년
이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가 10)

하지만 單位 속에서 권력을 장악해 갔던 것은 동료 시인들을 공개 비판하고 권력의 수단을 자임함으로써 출세가도를 달리고자 했던 지식인들이었다.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최소한의 주체지향, 그리고 휴머니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은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인간해방의 길을 가로막는 사회주의 반동의 전범을 창조하는 중이었다. 권력의 낭만은 그에 상응하는 지옥을 낳고 있었다.¹¹⁾

것이였다. 현실에 대한 자기 총체성의 결핍은 陳獨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회주의 정치지향을 가진 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술과 여자는 그의 일상을 떠나지 않는 구성부분의 하나였다. 지식인에 대한 毛澤東의 불신은 한국 전쟁을 겪음으로써 더 심해지게 된다.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위기감 자체가 지식인에 대한 불신으로 전이되는 독특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紅樓夢 批判과 武訓傳 批判에 이어진 55년의 胡風反革命集團事件은 지식인의 반동 경향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방법과 견해를 달리하는 지식인 그룹에 대한 경계의 성격이 짙었다. 지식인이야말로 권력에 상대 독립적인 경향을 조직함으로써 새로운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10) 牛漢, 〈몇 년이나...〉, 김용운·김소현 역, 《夢遊》(서울: 시놀로지, 2000), 176쪽.

11) 이 같은 분위기는 朱正의 《1957年的夏季—从百家争鸣到两家争鸣》(開封: 河南人民出版社, 1998)의 〈附录1 丁酉年紀事〉에 잘 나타나 있다.

5. 어처구니없는 자아 확장

毛澤東主義者들의 지식인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은 勞農兵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노농병이야말로 중국 혁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실천의 주체로서 毛澤東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毛澤東으로서도 주체성보다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회내적인 세력이 필요하였다. 소련과는 노선 투쟁을 통하여 루비콘 강을 건넌지 오래고, 혁명과정을 통해 형성된 엘리트 그룹은 당 내의 관료 세력으로 부상하여 毛澤東에 대한 비판과 간섭을 마다하지 않고 있었다. 당 외의 지식인들조차 당 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비판의 무기이기를 거부해버린 마당이라서 노농병에 대한 毛澤東의 기대는 실천가능성을 초월하고 있었다.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위조직이 필요하고 전위조직의 체계적인 폭력을 위해서는 사회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 보다는 권위에 대한 유사종교적인 열광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958년의 新民歌運動은 필요에 따른 창작주체의 전환이었다. 권력의 필요에 따라 관료 엘리트 비판을 위한 전위부대로서 노농병 직접 창작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이 필연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詩 창작에 관한 노농병의 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다. 大躍進 時期의 노농병이 毛澤東의 사회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부응하여 창작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면, 그들의 위기는 당 내의 관료 엘리트들을 타도하고 난 뒤에 도래하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들 노농병 출신 시인들은 가능성으로서의 내적 근거를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사회내적인 현실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현실 변화의 방향을 상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毛澤東主義者들의 정책 말고는 당 내의 어떤 편향에 대한 방법도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실과 자아의 관계에서 주체적인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이들은 정책과의 조응 자체도 어려워하였다.

그래도 낭만은 삶에 대한 것이다. 삶 자체가 주는 다양한 제약이 그것을 뛰어넘는 현실을 꿈꾸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毛澤東의 의도에 따라 제기된 대약진운동이 낭만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노농병 시인에게 그것은 삶이 아니라 이념에 대한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낭만은 대약진 시대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이념을 고태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처음에 그것은 노동의 고달픔을 신념으로 승화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¹²⁾ 정치성이 짙은 노동요라기보다는 신명이 됨으로써 노동을 벗어나려는 정향이었다. 문제는 권력이 新民歌에 부여한 사회정치적인 사명이었다. 아이러니는 신민가가 노농병의 수단이 아니라 노농병이 신민가의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신민가에 선행하는 권력의 정치적 의도가 존재하는 한, 노농병은 신민가의 수단이 되어 권력에 복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민가의 주체인 것처럼 보였던 노농병이 사회정치적인 세력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신민가를 읊은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세력으로 독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민가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관계의 관건이다. 노농병이 신민가의 창작주체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문학양식이 그들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의 통제 하에 들어간 신민가의 창작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에 대한 상대 독립이 불가능한 노농병 같은 상태가 필요했다. 따라서 창작주체와 새로운 양식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조직적인 통제와, 정치적인 결과를 당 뜻으로 돌리지 않는 우직함이 돋보여야 한다. 이들이 조직의 요구에 따라 관료엘리트를 위협하거나 비판하

12) “为了减轻疲劳提高干劲，把感情表达出来，她就说：‘我们做诗吧！’，‘‘水车叮当响，麦苗你快长；我给你喝水，你给我吃粮。’’ 这是多么朴素、刚健清新。从此以后，做诗的风气就在这个村子里普遍展开了，现在成为有名的诗村。” 邵荃麟，〈民歌、浪漫主义、共产主义风格—7月27日在西安文艺工作者座谈会上的发言〉，《文艺报》18(1958.9).

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모두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毛는 당의 노농병에 대한 이 같은 통제가 매우 용이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가 노농병과 지식인의 대립항을 노농병 우위로 간주하면서 모든 것을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毛澤東이 요구한 노농병의 임무 또한 알고 난 뒤의 실천은 아니었다.

마르크스도 우리와 똑같이 눈 두 개, 손 두 개인 사람입니다. 단지 머릿속에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있었을 뿐이죠. 우리가 아래에 있다고 위에 있는 사람을 겁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본적인 것들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실천은 마르크스를 넘어섰고, 레닌의 말, 예컨대 계국주의 같은 이론들은 모두 마르크스를 넘어섰습니다. 마르크스는 10월 혁명을 하지 못했지만 레닌은 해냈으며, 마르크스는 우리 중국과 같은 위대한 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우리의 실천은 마르크스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천에는 반드시 그 이치와 근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르크스의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의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혁명의 실천이 이데올로기에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우리 이론 수준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13)

그러나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 죽는 일과 신민가를 창작하여 정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毛澤東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만으로 시가 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13) “马克思也是两只眼睛，两只手，跟我们差不多，无非是脑子里有一大堆马克思主义。但是，我们在楼下的人，不一定要怕楼上的人。我们读一部分基本的东西就够了。我们做的超过了马克思，列宁说的做的都超过了马克思，如帝国主义论。马克思没有做十月革命，列宁做了；马克思没有做中国这样大的革命，我们的实践超过了马克思。实践当中是要出道理的。马克思革命没有革成功，我们革成功了。这种革命的实践，反映在意识形态上，就是理论。我们的理论水平可以提高，我们要努力。”毛泽东，〈在中共八大二次会议上的讲话提綱〉，《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7卷(北京：中央文献出版社，1992)，206쪽 주석 2번 참조.

시기의 신민가는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하여 생산력 수준을 제고시키고 자 하는 대약진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다. 어찌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롯된 이 운동의 의도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상의 성과를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노농병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당조직의 관료화를 毛澤東에 대한 권력집중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다. 토대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를 의식성에 입각된 군사투쟁이 아니라 경제건설의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한 이 운동은 처음과 끝 모두가 관념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농병에 의한 신민가 창작은 열광이 관념지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약한 고리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노농병은 대약진 운동의 본질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하나같이 그들은 대약진의 성공을 믿고 있었고 생산관계의 사회화를 통한 생산력의 변혁이 얼마나 관념적인 주장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기의 大鍋飯主義가 공산주의의 초보적인 실천을 이루어냈다는 착각을 빚기 시작하자 대약진 운동의 의식부문이던 신민가는 집단적의 유사종교적 열광을 겪음으로써 자신이 ‘이미 도래한 천국’ 속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대약진 운동의 관념성이 빚어낸 집단 열광의 개체화, 다시 말해서 대약진운동의 관념성에 대한 열광의 자기관념화라는 삼중구조에 유폐됨으로써 현실의 구조와 그것의 시간을 통한 이행과정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만다.

산도 춤추고 물도 웃네/ 인민공사가 세워지니/ 바다도 마를 수 있고
산도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으리¹⁴⁾

모주석은 붉은 태양처럼/ 사방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봄에는 그가 계
서 꽃들 향기롭고/ 小麥은 푸르고 유채는 황금빛/ 여름에는 그가 계서

14) 刘章의 〈人民公社建立了〉중 “山也舞, 水也笑, / 人民公社建立了, / 海能干, 山可倒, / 我们的决心不动摇。” 陈骢, 〈沐浴在阳光中的花蕾—读刘章的诗集《燕山歌》〉, 《诗刊》(1960.1).

모종이 자라고/ 농민의 마음에 기쁨이 한량없네/ 가을에는 그가 계서
수확이 좋으니/ 황금빛 곡식알이 창고에 가득/ 겨울에는 그가 계서 얼
음과 눈이 녹아/ 농민들의 몸이다 따뜻해지네 15)

毛澤東의 낭만은 이들을 정치의 도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자궁으로부터 관료 엘리트 비판으로 나아가는 길을 ‘기대’한 것이다. 기대로 끝나도 되는 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노농병이었다. 毛澤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종교적인 열광은 내재되어 있었지만, 길을 따라 그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이 없었던 것이다. 길을 따라 열광을 실현하는 것이 毛澤東을 만나는 것이며, 그를 신격화함으로서 그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반대자들을 소탕하는 과정이었지만, 노농병의 毛澤東을 위한 잔치는 毛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길과 전답사이에 제사상을 마련해 두고 스스로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가능성이 필요성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신도가 신이 되어 버리는 이 시절의 낭만은 바로 이 같은 기제로 말미암는다. 길이 사라지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자가 역부족으로 한 지점에 멈춰 섰을 때 대상이 주체화하고 방법이 목적화함으로써 숭배하는 자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농병의 毛에 대한 일체감이 毛의 신격화를 통한 자아와의 거리두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확장을 통하여 毛와의 거리를 소멸시키고, 자아를 毛에 버금가는 존재로 끌어올려버린 상황은 자아가 현실의 구조와 시간을 떠나면서 자기 자신을 떠나버리는 전대미문의 詩 현상으로서 이는 현실관계의 정치적인 의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毛澤東

15) 四川의 민가 〈毛主席像红太阳〉 중 “毛主席像红太阳/ 明明亮亮照四方/ 春天有你百花香/ 小麦青青油菜黄/ 夏天有你秧苗长/ 农民心里乐无疆/ 秋天有你收成好/ 金黄谷粒堆满仓/ 冬天有你冰雪化/ 农民身上暖洋洋”, 郭沫若、周扬 编, 《红旗歌谣》(北京: 红旗杂志社, 1959), 2쪽.

으로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하늘엔 옥황상제 없고/ 땅에는 용왕 없다/ 내가 바로 옥황상제요!/ 내
가 바로 용왕이다!/ 三山 五嶽에 명하노니 길을 비켜라/ 내가 왔다!
16)

합작화/ 그 힘이 크니/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다/ 산도
뚫을 수 있고/ 땅도 내려앉힐 수 있다/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는 것
은 모두 우리가 하는 일/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좋은 곡식 자
라게 할 수 있다네 17)

노농병으로서의 길 위에서 황재수를 만난 셈이지만 毛澤東 입장에서
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미완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다고 이 상
황을 까발리며 노농병을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
를 계속 하던 毛澤東은 방법의 전환이 아니라 주체의 전환이 필요하
다는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된다.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신도의 자리
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열광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이다.

그럼에도 무지는 권력과 자신의 관계를 조직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아
니라, 양자 간의 차별을 무화해버림으로써 내가 바로 毛이며, 毛가 바로
나인 胡蝶夢을 일반화하게 된다. 자아의 과장에 힘입어 〈鳳凰涅槃〉의
취기를 현실로 전도 인식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용왕이나 옥황상제가
되어버린 노농병 시인들은 이 운동의 본래 의도에 대해서조차 무심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옥황상제가 된 이들에게 관료엘리트 비판은 하잘
것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상을 벗어나기 시작할 즈음의 현

16) 陝西 安康의 민가 〈我來了〉, “天上沒有玉皇/ 地上沒有龍王/ 我就是玉皇!
/ 我就是龍王!/ 喝令三山五岳開道/ 我來了!” 《紅旗歌謠》, 152쪽
17) “合作化/ 力量大/ 天不怕/ 地不怕/ 山能挖透/ 地能戳塌/ 呼風喚雨都由咱/ 旱
哩/ 澇哩/ 都能長出好莊稼”, 安旗, 〈略談新民歌思想藝術上的主要特點〉, 《詩
刊》(1958.8), 77쪽.

실은 전 중국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중이었다. 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노동병의 극락은 신민가 뿐이었다. 신민가 속에 놓여 있을 때에만 현실을 잇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들의 진실은, 스스로가 원해서 창작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강제 탓에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질문: “그 당시 주로 어떤 내용을 노래했나요?”

맹씨: “현실과 결합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은 형세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를 쓰는 식으로 형세에 맞추었습니다. 작품이 좋아도 縣과 鄉의 지도 아래 학습을 하면서 손을 봐야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형세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용은 모두 毛主席과 공산당, 대약진, 농민해방, 대중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형세를 따라 작품을 쓰는 분위기가 그 때 정말 대단했지요. 정책이 내려오면 즉시 생각하고 썼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쓰면 따라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모두가 경쟁적으로 썼습니다. 18)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천국으로 가송해야 하는 자의 비극은 자아의 위기가 아니라 포기이다. 이제 신민가는 그것의 정치적 의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 사회관계와 지배이데올로기에 갇히고 묶임으로써 최소한의 주체성과 존엄성조차 상실해버린 이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요구하리라고 예상되는 내용을 찬송해야 하는 짓시늉일 뿐이다. 정향도 인식도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생물학적인 조건반사가 신민가의 가송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였다.

따라서 신민가에 대한 당의 붓질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것이었다. 사

18) “问：那时候你们都唱什么内容呢？孟：结合实际嘛。老百姓不就是捧形势，中央有啥政策咱就编啥，跟形势说话嘛。唱得好的，也有培养，县里乡里有指导，改改可以发表，不离国家形势。唱的都是毛主席、共产党、大跃进、农民翻身、群众有吃有喝。那时候可高潮哩，自己跟着形势编，政策下来了，就想着编。俺这儿编理顺的人多，大家都比着编。”刘静，《文化研究视野下的新民歌——《红旗歌谣》为例》（中山大学中文系硕士论文，2006），33쪽.

회주의 리얼리즘의 오래된 정합성, 다시 말해서 미래의 선취는 현재에 대한 왜곡인지 오래였다. 모든 의식형태는 당성의, 당성에 의한, 당성을 위한 형식과 내용으로 발현되어야 했다. 창작과 유통전체를 선전부에 귀속시키고 있는 한, 신민가에 대한 당의 가필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었으며 작가협회에 소속된 모든 창작주체에게도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¹⁹⁾ 따라서 노농병의 신민가에 대한 지식인의 가필은 지식인의 의식형태가 결합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성의 주입이다. 이 같은 당대시의 문화심리는 당성을 선취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멋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창작의 기제를 일반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갔다. 예를 들어 王老九는 농민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작가였다. 작가협회의 핵심인물들과 정보망의 상당부분을 공유하였던 이 시인은 당성의 낚시를 간파하고 그것에 맞는 작품을 써냄으로써 당의 마음에 드는 시인이 되었을 정도이다.

모주석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니/ 내 심장은 황금으로 변하여 영원히
 녹슬지 않으리/ 마음 등지에 날아온 오색찬란한 봉황이/ 멋드러진 노
 래를 부르리// 모주석의 손 그 귀하신 손가락으로 밤낮주야로 청사진
 을 그리시니/ 하늘의 옥황상제도 도망가고/ 바다의 용왕도 떠나가는
 구나 ²⁰⁾

낭만은 진실을 떠나고 있지만 이 시기의 종교열은 오히려 소수민족의 송가에게서 완성되는 듯한 인상이다. 이들의 시가 毛의 의도를 가장 잘 체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시는 毛를 절대화하고 자신을 毛의 은혜로 거듭난 신세로 묘사함으로써 신과 신도의 관계를 완성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자신을 神化하는 호접몽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19) 예를 들어 艾青의 아들은 艾青全集의 간행에 관계하면서 애청이 아니라 세익스피어의 작품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곤 했다.

20) 王老九의 〈伟大的手〉 중 “毛主席和我握了手/我心变黄金永不锈/心窝里飞来五彩凤/贴心的歌儿唱出口//毛主席的手宝指头/连天连夜画蓝图/指得天宫玉帝亡/指得海中龙王走”, 《人民文學》(1958.10).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가 毛澤東의 정치적인 의도, 곧 관료엘리트 비판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다. 중앙 정부와의 관계 자체가 정치적인 긴장일 수밖에 없는 소수민족이 관료엘리트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은 일족의 존망을 거는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의 신민가가 주로 해방이전의 제재를 선택함으로써 이미 타도된 민족 내 계급 모순을 거론하고, 이 과정에 개입한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毛澤東 삼위 일체를 歌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로서는 사이비 종교열을 통하여 신과 신도의 거리를 확인하고 그 거리에 상응하는 외경을 담지하는 것이 최고의 문화 정치적인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들은 높이 높이 난다네/ 새장에서 나갔기에// 말들은 더욱 빨리 달린다네/ 금빛 발굽을 달았기에// 우리는 고통의 날들을 견뎌냈네/ 구원의 손길 毛主席이 계셨기에// 태양이 하늘에 걸려/ 가장 어두운 곳까지 밝혀주네// 모주석의 도리가 여기까지 전해져/ 우리는 산에서도 행복을 얻었다네 21)

天山 꼭대기의 붉은 태양/ 그 빛 사방에 환하게 비치어/ 이 고통의 바다를 낙원으로 바꾸고/ 꽃들 활짝 피어 온 땅에 봄빛 가득하니/ 新疆의 인민이 해방되었네! 22)

6. 神人以和의 종교열

지식인과 노농병을 거쳐 온 당대시의 권력 관계는 언제나 신도의 문

21) 云南 哈尼族的 〈我们幸福了〉, “鸟儿飞得高高的/ 因为它飞出了笼子// 马儿跑得更快了/ 因为它装上了金色的蹄子// 我们从苦日子里熬出来了/ 因为有了救星毛主席// 太阳挂在天上/ 最黑暗的地方都照亮了// 毛主席的道理传来了/ 我们山上也得到幸福了”, 《红旗歌谣》, 28쪽.

22) 新疆民歌 〈领袖歌〉 중 “天山顶上太阳红/ 光芒四射四方明/ 从此苦海变乐园 / 解放花开满地春/ 新疆人民大翻身!” 黎之, 〈歌颂人民领袖的歌谣〉, 《文艺报》22(1959.11), 12쪽.

제였다. 권력에 대한 휴머니즘 과잉이 지식인이라면 자아의 과잉은 노동병이었다. 이들 모두가 유사한 종교열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결합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던 것은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도의 자질이 종교의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었다. 1949년 이후에 출생하여 毛澤東 사상의 교육 속에 자라난 학생들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성을 가능성에 입각하여 필연화 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의 역사 단계를 체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毛澤東 유일 신앙에 입각하여 20년 가까이 교육되었던 이들은 재교육이 필요 없는 이미 존재하는 신도들이었다.

신도가 출현했다고 해서 사회주의 중국의 정교일체적인 분위기가 분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다. 권력은 도덕의 당위를 인식에 있어서의 이념과 실천에 있어서의 당성으로 결합시킴으로써 天衣無縫한 그물망을 완결한 상태였다. 食色에 관한 자연인성은 도덕적 품성을 요구하는 당성의 압도 하에 거의 중세적인 수준으로 부정되고 있었으며, 毛澤東에 反하는 사고방식은 반역사적이며 비도덕적인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게다가 항전기간을 망라한 방법편향의 일반화, 다시 말해서 紅寶書의 유통은 毛澤東의 경험을 예외 없는 합리성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지향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유사종교적인 실천을 위한 주요한 근거, 다시 말해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경전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당과 毛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고 당성이 염불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신도·불심·경전·가피의 한 중앙에 毛澤東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다.

위기는 신도가 아니라 다시 毛澤東으로 말미암았다. 신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륵불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륵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도가 나서야 하는 상황, 곧 탈권투쟁이 필요한 상황이 종교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와 가족의 문제가 중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만다. 다시 말해서 孝에 입각하여 사회내적인 정의를 판단하고 정의 자체를 父子關係의 親情構造에 가라앉히는 儒家的인 통일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 기본적으로 毛澤東·신도관

계는 忠孝의 상호침투를 벗어난 종교열로 집단화함으로써 그것이 가족간의 친정구조를 압도하고 추방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출가를 강요하는 중이다.

아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모택동 사상 학습반에 들어가서/ 개인주의와 투쟁하고 수정주의를 비
관할 겁니다. — 홍위병은 모주석의 말씀을 단호히 따릅니다. 23)

그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됐다! 우리 관계를 한 칼에
끊어버리겠다! 나는 나고 그는 그다! 누구든 모주석의 길을 가지 않
는다면/ 친아들 친아버지도 한 가족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貧下
中農의 진심이다! 24)

紅衛兵들의 출가는 탈권투쟁을 위한 폭력이 목표였다. 그들이 이 같은 방법과 목표의 통일을 향해 뛰쳐나가게 된 까닭은 毛澤東이 그것을 지향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깨달은 존재가 되기 위해 성찰하고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륵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관료엘리트를 타도하기 시작한 이들의 위대함은 단기간의 ‘串連’을 통하여 전국규모의 폭력을 조직화했을 뿐 아니라 관료엘리트 그룹을 무력화함으로써 권력을 毛에게 귀속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외연의 싹쓸이, 즉 蘇修 타도를 전국적인 이념으로 형성하였다는 데에 있다.

붉은 깃발, 붉은 책, 붉은 완장/ 홍위병 전사의 가슴은 의분으로 가득
하다/ 붉은 물결은 눈보라보다 더 맹렬하고/ 항의의 목소리와 파도가
하늘을 뒤흔든다/ 소련 수정주의의 개자식들은 눈깔이 멀어/ 우리 머

23) 北京公社의 한 전사가 쓴 〈妈妈, 我不回家〉 중 “儿子的决心已下,/ 妈妈, 我不回家,/ 我参加了毛泽东思想学习班,/ 斗私批修 — 红卫兵坚决听从毛主席的话。” 嚴佐昌·劉福春 編, 《紅衛兵詩選》(福岡: 中國書店, 2001), 202쪽.

24) 紅松의 〈一介老貧農的話〉 중 “假若他还是不认错,/ 得! 咱一刀两断!/ 我是我! 他是他!/ 谁要不走毛主席的道,/ 亲儿亲爸也不是一家。/ 这 — 就是咱贫下中农心里话!” 《紅衛兵詩選》, 141-142쪽.

리끝까지 업신여긴다/ 중국인민이 착하지만은 않거늘/ 파리모기가 미
쳐 날뛰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나!/ 중국혁명학생들을 모욕하지 마라/
중국에 반하는 것들에게/ 좋은 결말이란 없다! 25)

아아, 용맹스런 중화의 아들딸이여/ 두려움 없는 反수정주의 전사여/
너희는 하늘을 받치고 땅에 우뚝 선 영웅이다/ 너희는 굳게 선 소나무
다/ 소련 수정주의 개자식들 앞에서/ 너희는 보무당당하고 기세등등
하니/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굳센가!/ 두개의 화환은 소련 수정
주의를 향해 던진 원자탄이며/ 《語錄》한권 한권은 소련 수정주의를
향해 돌진한 소총이다! 26)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문화대혁명이 사상적인 대립이 없는 일사불란
한 종교활동이었던 것은 아니다. 聯動과 紅派 홍위병의 갈등이나 대립
은 피가름을 고집하는 기득권계층과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개혁성향의
대립이었으며, 이들과 黑五類 간의 관계는 문화대혁명을 신분해방의 계
기로 삼고자 하는 경향과의 연계 또는 대립이었다. 젊은이들의 毛澤東
을 향한 낭만의 갈래는 이렇듯 자신이 속한 신중국의 출신성분에 의하
여 결정되었지만 毛澤東의 낭만은 경우에 따라 이들을 취사선택하고 폐
기하면 그만인 내림 곳 판의 작두타기였다. 이들 세 그룹의 갈등과 수
용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 깊은 그늘과 가능성을 동
시에 드리우게 한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毛澤東의 자
기 완결을 향한 흐름을 되돌리거나 文革의 민주주의적인 경험을 잊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향과 정서적인 관계

25) 法二紅旗의 紅芒이 쓴 〈打倒蘇修〉 중 “紅旗、紅書、紅袖章、紅衛兵戰士
義憤填胸膛。/ 紅流更比飛雪猛、/ 抗議聲濤震天響。/ 蘇修混蛋們瞎狗眼、/ 竟欺
負到我們頭上! / 中國人民不是好惹的、/ 豈容蚊蠅猖狂! / 中國革命學生不可辱、
凡是反華的、/ 都沒有好下場!” 《紅衛兵詩選》, 70-71쪽.

26) 革命造反兵團 陳汝海의 〈致反修戰士 - 獻給從莫斯科歸國的我留歐學生〉
중 “啊, 英勇的中華兒女、/ 無畏的反修戰士、/ 你們是頂天立地的英雄、/ 你們是傲
然挺立的勁松。/ 在蘇修混蛋的面前、/ 你們雄糾糾, 氣昂昂、/ 多么英勇、/ 多么剛
強! / 兩個花圈是投向蘇修的原子彈、/ 本本《語錄》是殺向蘇修的鋼槍!” 《紅衛
兵詩選》, 86-87쪽.

에 따라 결사를 맺고 집회를 강행하였으며, 철학으로부터 계급적인 문제에 이르는 현실의 각종 항목들을 토로하였을 뿐 아니라, 그룹별로 小報를 간행하고 잡지를 출판하며 유통구조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는 등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각종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민주적인 체험의 집적이 가져오게 될 신도의 주체화였다. 민주와 자유에 관한 이들의 주장과 체험은 사회주의 중국의 허용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에 의하여 주도된 上海 50문이 당 밖의 정치조직을 지향하게 되고, 당 조직에 의한 전국 홍위병 조직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들 내부의 노선 갈등이 인민해방군의 분화를 초래할 정도가 되어버리자 毛澤東은 신도와의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홍위병 조직을 무장해제하고 피폐된 전국의 당 조직을 毛澤東主義者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정과 가족애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시공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속의 리얼리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동지의 시신을 묻고/ 다시 죽을힘을 다해 싸운다/ 전투 속에
 맺어진 두터운 우정은/ 우리를 친형제로 만들었다/ 새벽이 머지않을
 때 밤은 더욱 어두우니/ 죽어가는 적이 총칼을 휘두른다/ 얼마나 많은
 이가 참혹하게 살해되고/ 얼마나 많은 이가 돌아갈 곳 없어/ 사방으로
 떠도는가. 27)

회복이 시작된 자아는 上山下鄉의 떠들썩한 분위기, 집단 의식의 마지막 소명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이 신도의 추방으로 귀결되었으며, 이

27) 鋼二司 新影院의 한 병사가 쓴 〈迎接勝利的曙光〉중 “我们掩埋好同伴的尸体/ 又拼杀在疆场上。/ 战斗里结下的深情厚谊/ 使我们就像亲兄弟一样。/ 天将亮, 夜更黑/ 敌人垂死动刀枪。/ 多少人被残杀/ 多少人无家可归/ 四处流浪。” 《紅衛兵詩選》, 249쪽.

들에게 허망한 일상을 강제함으로써 이 모든 체험을 잊게 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간파하는 중이다. 혁명은 허물어지고 말았지만 정교일체적인 마지막 표현 안에는 집단 의식을 벗어난 개인의 갈등이 존재한다. 자연 인성의 욕망이 있고 정치적인 모색이 있으며,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한 이상과 권력을 가져본 자의 후회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교 일체의 문화 정치 군사 방면에 있어서의 성취와 좌절이라는 홍위병의 낭만 속에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고민이 전무하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회역사적 경험을 개인적으로 내면화해야 하는 이들의 운명은 문학사의 다음 장면을 집단 의식의 내면화가 아닌 개체 내면의 외화로 나아가게 하는 비극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근거이다.

맺음말

1949년 이후의 중국 낭만주의는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개인을 우상화하고 권력의 주변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서 권술의 전술적인 변화를 드러내었던 이 시기의 정치는 경제 사회적인 이견들을 적대시하고 용도 폐기된 도구들을 소외 추방시켜가는 변유의 실천과정이자 전쟁이었다. 정치의 다른 이름일 수밖에 없었던 낭만이 主一無適한 毛澤東 노선 위에서 다양한 거짓과 과장을 채워갔던 것은 문학 때문이 아니라, 노선의 정치적인 필요 때문이었다.

지식인들에게 그것은 삶의 영욕과 양식을 가르치는 칼날이었으며 영욕을 위해서는 자기 부정을 인간 부정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모욕의 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毛澤東·당위·善·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대의·세계혁명의 선상에서 고통스러워해야 했다. 휴머니즘은 적대진영의 전유물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소망과 역사에 대한 기대

는 毛澤東에 대한 유사종교적인 믿음으로 대체되었다. 권력의 일망 감시체계 속에서 지식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자아의 장은 책상 서랍만도 못한 부피를 지닐 뿐이었다.

노농병의 경우는 당성의 향도에 따르는 충성심과 현실구조의 이행과정에 대한 무지가 낳은 자유 사이에서 진지한 만큼이나 황당한 시의 궤적을 그리게 되었다. 毛澤東에 대한 신념은 종교 이상의 것이었지만, 천인합일의 경지가 낳은 내면의 자유는 뜻밖에도 주체와 대상을 변별하지 못하는 자아의 과잉이었다. 毛澤東이 법제와 우주의 규율을 초월하는 절대자로 느껴지면서 그 절대자의 동지인 자신 또한 용왕이나 옥황상제의 수준으로 격상되는 기막힌 정신 병리를 계급과 진보의 이름으로 낳게 된 것이다. 이들의 낭만은 룬펜과 용왕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었지만, 그 사회적인 스펙트럼은 당성과 무지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무식한만큼 당성에 예외가 없고, 당성밖에 나는 몰라서 무식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이 변증관계는 무식을 전제로 한 당성의 아우라였다. 진지한 낭만의 모든 것을 건 실천이 그에 상응하는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황당함은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다. 시장이 없는 곳에서 세워진 평등의 무지개는 기실 자유의 물방울이 사라지면서 피워낸 잠깐 동안의 착각이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학생들이었다. 피 가름에 입각된 관료 엘리트 자녀들의 왜곡된 우월의식이건 문화대혁명 자체를 휴머니즘의 실천을 위한 계기로 상정하고 있던 이상주의자이건 신분상승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黑五類이건 권력과 이상의 관계가 매개하는 이들의 낭만주의는 이상에 의하고 또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향하는 이상은 인류보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기회의 균등으로부터 존재의 자유에 이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치가 끝난 뒤의 현실은 너무나도 황량한 것이었다. 上山下鄉을 통하여 소개되어 버린 이들의 이상은 산과 들로 유배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이들의 존재는 문혁 이후의 개혁개방을 전국화

하는 가능성이었다. 열광이 유배를 낳고 유배가 다시 근대화의 전국보편성을 낳는 과정에 종교에 근접한 이들의 열광이 현실을 빚어가는 역사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낭만은 열광이며 그 열광의 배경에는 현대성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지했던 것만큼이나 황당했던 이 열광의 귀결을 아직도 낭만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낭만은 폭력의 다른 이름이었으며 권력에 의하여 거간된 허망함이자, 그것을 견뎌낸 자들의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毛泽东, 〈在成都会议上的讲话〉, 《毛泽东文集》 第7卷(北京: 人民出版社, 1999)
- 毛泽东, 〈读苏联《政治经济学教科书》的谈话〉, 《毛泽东文集》 第8卷(北京: 人民出版社, 1999)
- 毛泽东, 〈在中共八大二次会议上的讲话提綱〉,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7卷(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2)
- 刘静, 《文化研究视野下的新民歌—《红旗歌谣》为例》(中山大学中文系硕士论文, 2006)
- 郭沫若, 〈新华颂〉, 1949年 10月 1日 《人民日报》
- 邵荃麟, 〈民歌、浪漫主义、共产主义风格—7月27日在西安文艺工作者座谈会上发言〉, 《文艺报》 18(1958.9)
- 黎之, 〈歌颂人民领袖的歌谣〉, 《文艺报》 22(1959.11)
- 安旗, 〈略谈新民歌思想艺术上的主要特点〉, 《诗刊》(1958.8)
- 王老九, 〈伟大的手〉, 《人民文學》(1958.10)
- 郭沫若、周扬 编, 《红旗歌谣》(北京: 红旗杂志社, 1959)
- 謝冕, 《浪漫星雲》(廣州: 廣東人民文學出版社, 1999)
- 巖佐昌暉·劉福春 編, 《紅衛兵詩選》(日本 福岡: 中國書店, 2001)
- 朱正, 《1957年的夏季—从百家争鸣到两家争鸣》(開封: 河南人民出版社, 1998)

李澤厚 著/ 임춘성 역, 《中國近代思想史論》(서울: 한길, 2005)

李澤厚 著/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론》(서울: 한길, 2005)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서울: 이산, 2004)

김용운·김소현 역, 《夢遊》(서울: 시놀로지, 2000)

[中文摘要]

1949年之后的中国浪漫主义, 注定摆脱不了政治的影响。根据战略需要将个人偶像化, 把国家力量集中于权力的周边, 这些都体现了权术的战术变化。这一时期的政治, 既是辩证唯物主义的实践过程, 也是斗争, 它敌视经济, 社会领域中出现的异议, 并将这些无用的工具弃置流放。浪漫不得不成为政治的代名词, 扎根于主一无适的毛泽东路线, 充斥着弄虚作假与夸张矫饰。这一切并不能归罪于文学, 而是为了迎合路线的政治需求。

知识分子正是游走于这刀锋之上, 生杀荣辱, 予取予夺。要想保全荣华富贵, 就必须选择一条屈辱的道路, 将否定自我提升至否定人类的高度。不仅如此, 他们中的每个人, 都在毛泽东, 义务, 善, 无产者的阶级大义, 世界革命之间苦闷彷徨。人道主义是敌对阵营留下的余孽, 对毛泽东类似宗教性质的信仰, 取代了对人类的展望, 对历史的期许。在权力的全方位监视体系下, 知识分子能够确保的自我空间, 甚至还不如一个抽屉大。

而工农兵则是一颗红心, 以党性为先导, 他们对现实构造的过渡进程一无所知, 并因无知而享受着无限的自由, 他们绘出了一条一本正经的, 同时又是荒诞无稽的诗歌轨迹。他们对毛泽东的信仰自然凌驾于宗教之上, 但是在天人合一的境界中所获得的心灵自由, 竟意外地引发出了自我的过度膨胀, 模糊了主体与对象的界限。他们将毛泽东奉为超越法制和宇宙定律的绝对神祇, 同时又生成一种阶级和进步名义下的精神症状: 作为毛泽东的亲密同志, 自己也就成了龙王, 也就成了玉皇大帝。他们的浪漫介于混混与龙王之间, 他们的社会谱系绽放于党性与无知之间。因为无知, 所以唯党性是

从，因为唯党性是从，所以一直无知下去。这种辩证关系，是以无知为前提的党性所特有的灵气。严肃的浪漫取决于实践，但实践演出的却注定是一幕喜剧，这看似荒唐，实际上却并不是什么偶然事件。在没有市场的地方划出平等的彩虹，其实却只是自由的水泡破灭后暂时的错觉。

学生的命运更加悲惨。文化大革命缘于分血仪式后干部子弟们扭曲的优越性。无论是期待借此实践人道主义的理想主义者，或是试图借机改换门庭，一步登天的黑五类分子，权力与理想在他们的浪漫主义中都起到了媒介的作用，浪漫主义立足于理想，同时又受制于理想。从这一角度来说，文革本身就无法摆脱其悲剧命运。因为他们所向往的理想，蕴含着人类普遍价值，蕴含着从机会的均等到存在的自由等民主主义性质的要求。谁知宴席散后却是满地狼藉。上山下乡将他们彻底边缘化，他们的理想被流放至天涯海角，穷山恶水，就此走上了一条不归路。但是，散落各地的下放知青，又使得文革后的改革开放得以在全国迅速铺开。狂热导致流放，流放又促进了在全国范围内实现现代化。这一过程中，他们近似于宗教的狂热在史书上写下了浓墨重彩的一笔。

从这种意义上来说，一切浪漫都可以归为狂热，而对现代的无知又总是植根于狂热的背景之中。狂热有多么严肃，就有多么荒诞，它最终还要被称之为浪漫，不过是一种理想化而已。因为这一时期的浪漫是暴力的代名词，是权力牵线的虚妄，同时也是幸存者们全新的出发点。

關鍵詞：浪漫，权术，工农兵，自我膨胀，紅衛兵，政教一体

투고일: 2008. 6. 20.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탈영토화 된 영웅주의의 귀환

金明石*

〈목 차〉

1. 현실사회에서 무협 스펙타클로
2. 華와 夷, 탈주와 귀환
3. 남과 여, 역할 유지와 해체
4. 맺으며

1. 현실사회에서 무협 스펙타클로

文革세대의 감수성이 두드러진 중국의 제5세대 감독 張藝謀는 1993년의 《귀주 이야기》를 기점으로 계몽주의적으로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후 《책상서랍 속의 동화》(98)에서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처럼 중국사회의 리얼리티를 포착해냈다. 그리고 《영웅》(02)에서는 徐克식 무협스펙타클 형식을 통해 노골적으로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파시즘을 드러낸다. 이후 張藝謀는 《연인》(04), 《황후花》(06)를 거치면서 중국형 블록버스터로 관객을 끄는 영화전략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張藝謀가 2000년대에 들어와 제작한 블록버스터 세 편을 분석대상으로 삼기로 한다.¹⁾ 특히 《영웅》과 《연

* 위덕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shackim@paran.com)

1) 이 세 영화의 촬영기법등은 영화 전공자의 몫으로 남기고 본고에서는 영화 속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추

인》은 張藝謀의 영화 중 직접 집필한 유일한 각본이라고 하므로 張藝謀의 작가정신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고에서는 중국의 현실과 접점을 찾으며 男과 女, 華와 夷라는 구도로 무협사극을 분석할 것이다.

현재는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 속의 인물들도 현재를 재현한다. 영화 속 무사들의 성격과 갈등도 현재와 관련되어 있기 마련이다. 폭력이 스펙타클로 치장되는 무협대작이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사회의 위선과 모순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희생물로 만드는 이 증적인 가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국사회 내에서 증폭하는 내부의 갈등은 갈등의 정체를 숨기며 분출할 출구를 찾게 된다. 이 때 ‘무협’이란 희생물의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며 자본을 향해 질주하는 권력의 욕망을 은폐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張藝謀는 ‘武’와 ‘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한 바 있다.

기존의 무협영화는 탁자가 부서지고 집도 무너지고 피도 튀기는 상투적인 장면이 많은데, 《영웅》은 최고수의 최고경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영화이다. ‘협’의 최고 경지, 그것이 《영웅》에서 보여지는 ‘무’이다. 협의 정신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이다. 기존의 영화가 복수를 중심으로 ‘협’이 정의되는 반면, 이 영화는 믿음을 바탕으로 천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국인들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겠지만, 내게 있어서 ‘협’은 천하와 평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영화의 영웅들은 사사로운 목적이 아닌 자기 개인과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라 생각한다.²⁾

적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지면상 영화의 줄거리소개는 생략하되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한 부분씩 언급하기로 하고, 영화 제목은 한국에 개봉된 제목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황후花》는 무협물은 아니나 恩怨관계와 자객과의 결투 등 적지않은 무협적 요소를 담고있는 작품으로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2) http://movie.naver.com/movie/mpp/mp_preview.nhn?mid=1136&mcode=34431&low=0 참고.

여기서 張藝謀는 자신이 생각하는 ‘武俠’의 함의를 설명하면서 ‘俠’의 최고의 경지가 ‘武’라고 한다. 이어서 ‘俠’은 천하와 평화로 요약된다고 하는 데서 그가 만드는 무협물의 주제가 大中華의 치세에 대한 꿈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세 작품 가운데 《영웅》은 객관적인 史實과 일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공으로 만들어진 큰 영웅(嬴政)과 작은 영웅(無名)의 이야기이다.³⁾ 《영웅》은 진시황을 진정한 영웅으로 귀결시키면서 폭군을 미화했다고 중국관객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陳墨은 이 영화가 史實과 불일치하고 천하의 협사영웅들이 평등과 정의의 이상을 전부 전제주의 권력자에게 기탁하는 폭군의 논리요, 파시스트의 논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그는 다음과 같이 《영웅》의 의의를 인정하기도 한다.

통상적 무협영화와 비교해서 《영웅》의 관중과 영화 간의 상호 작용 관계는 더 주목할 만하다. 영화가 상호작용하는 유희로서 새로운 요소 또는 미래지향을 포함하는 것이다.⁴⁾

陳墨이 말하는 ‘새로운 요소’, ‘미래지향’은 무엇일까? 바로 그는 ‘영웅’의 포커스를 과거 진시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중화권을 이끄

3) 세 영화 모두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영웅》은 가장 구체적인 史實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史實과 비교하자면 燕나라를 위협하는 秦나라를 두려워한 燕나라의 태자는 田光이라는 이에게 秦나라 왕을 칠 것을 부탁하게 되고, 그는 이를 자신과 친한 荊軻라는 인물에게 부탁하게 된다. 荊軻는 田光과의 의리와 우정으로 이를 수락하였고, 秦王 嬴政으로부터 도망 온 樊於期 장군의 머리와 燕나라의 기름진 땅 督亢의 지도를 秦王에게 바쳐 그를 가까이서 알현하게 된다. 이때 숨겨놓은 비수로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밖에 荊軻의 친구 高漸離가 왕실에 불려가서 筑을 탔다는 기록도 영화의 장면 속에 변형되어 펼쳐지고 있다; 司馬遷著, 김원중譯, 〈刺客列傳〉, 《史記》(민음사, 2007) 참고.

4) 《張藝謀的電影世界》, 255쪽.

새로운 지도자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中華主義같은 중국정부의 체제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중국의 평론가들과도 같다. 중국인들은 ‘무협’이란 것이 중국문화에 있어 자명한 어떤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영웅》도 특별히 현재의 체제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중국에 있었던(古已有之)’ 무협서사의 張藝謀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一統江湖라는 대동소이한 주제를 가진 무협서사는 원래 大中華의 통합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張藝謀는 이런 알레고리는 숨겨두고 겉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스펙타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평소 그는 작가정신보다 통속적인 무협 장르주의를 중시한다고 해왔다. 또한 《영웅》이 정통무협을 상업화한 것으로 관객의 흥미를 끄는 장르영화가 목표라고 한 적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는 배우영화라기 보다는 감독영화라고 할 수 있다.⁵⁾

張藝謀가 상업영화를 표방하고도 감독의 영화라고 한 것은 상업영화에 작가주의를 심으려고 노력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 말에서 우리는 잠시 《영웅》의 작가주의를 떠올리게 되지만 張藝謀는 언제나 장르주의를 내세웠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는 영화에서 철학(主義)을 홀시하고 통속성을 추구한다고 하기 때문이다.⁶⁾ 쉽게 말해서 張藝謀는 배우는 감독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 인격이나 개성으로 홀로 설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張藝謀가 보여준 중국의 현실은 계몽주의에 함몰된 담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뿐이었다. 이렇게 史實과는 다른 내용을 스펙타클로 포장한 張藝謀의 영화는 서구인들에게 중국적인 것, 나아가

5) 위의 책, 260쪽.

6) 위의 책, 10쪽과 252쪽, 본고의 각주 8을 참고할 것.

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영웅》이나 역대 중국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황후花》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파시즘이나 증화주의는 할리우드 영화에 담긴 미국 중심주의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런 《영웅》에 비해 《연인》에 대한 관객의 평가는 더욱 혹독했다.⁷⁾ 張藝謀의 근작 가운데 여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인》은 원제가 《十面埋伏》인 것처럼 곳곳에 알레고리가 매복되어 다양한 기호학적 해석이 가능한 세계를 펼쳐 보인다. 陳墨이 이 영화가 《영웅》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더욱 세밀하고 찬란하다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⁸⁾

2. 華와 夷, 탈주와 귀환

중국역사는 각 나라의 정착, 곧 정주에 기초를 둔 문명의 흥망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정주민으로서 자신을 문화를 갖춘 ‘중심’으로, 떠돌이 이민족을 문화를 갖지 못한 ‘주변’으로 구분지었다.⁹⁾ 흔히 중국역사의 역학구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華夷論’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구분에 따르면 華가 정주민에, 夷가 유목민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사의 역학구도를 華와 夷, 즉 정주적인 것에 대한 유목적인 것의 대치로 본다면 우리는 유목론(nomadologie)적 사유를 통해 이 구도를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¹⁰⁾ 이런 華와

7) http://www.movist.com/comm/m_list.asp?mid=8832. 참고; 평자들의 비판은 《연인》의 허술한 플롯에 집중되고 있다. 《연인》의 서사적 허점을 짚어낸 이런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으나 플롯의 허술함은 대중문화 서사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대사가 적고 액션이 넘치는 등 이미지의 과잉을 보여준다. 무협물의 허술한 플롯이야말로 대중에게 비현실적인 환타지의 세계를 열어주는 관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8) 《張藝謀의電影世界》, 403쪽; 張藝謀 스스로 통속적 무협장르주의를 추구한다고 한 바 있지만 그는 ‘內涵(알레고리)’을 중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9) 왕샤오밍, 〈현대중국의 민족주의〉, 《황해문화》(2003년 가을) 40호, 307쪽.

夷의 대결은 중국역사에서 증원을 중심으로 한 분열과 통합으로 나타났고 상상이 기반이 된 무협사극의 과장된 세계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었다. 사실 역사기록이 華(정주민) 중심의 역사, 즉 국가장치의 역사로 기술된 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정주문명을 밖에서 위협하고 정복하는 전쟁기계로서 夷(유목민)은 華라는 중심의 틈바구니에서 끝없는 탈주선을 찾는다. 이런 夷는 ‘소수자(minorities)’로 불릴 수 있는데 소수자란 수가 적은 이들이 아니다. 권력이 강요하는 다수자의 모델을 버리고 욕망의 탈주선을 쫓는 소수인 것이다.

이런 유목론에 따르면 《연인》에서 小妹는 중화민족 즉 정주민의 안녕을 위한 제물, 즉 희생양이 된다. 정주민은 들판의 짐승(小妹)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고문하듯 조금씩 길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유목민(飛刀門)은 좀처럼 짐승을 길들이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도 토지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전쟁이라기보다는 小妹를 찾는 사냥 게임과도 같다. 여기서 우리는 사냥꾼(정주민)이 小妹를 잡기 위해 대나무밭에 함정을 설치하고 대나무로 짠 압송우리로 金포리대장과 小妹를 데려가는데 그것이 녹색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또 金포리대장과 劉포리대장이 小妹를 찾아간 飛刀門의 근거지가 푸른 수풀 속인 것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녹색은 평화, 안녕을 상징한다. 그러나 飛刀

10) 한국에서 ‘유목론’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저술한 《천개의 고원》에 나타난 유목주의를 이진경이 2002년 도입하면서 공론화되었다. 이 ‘유목론’에 대해서는 김재인, 천규석 등의 비판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현실에서 ‘유목민’, ‘이주민’, ‘정주민’이 있지만 이들 각각에 모두 유목적인 경향이 다양한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고 본다. 정주민이 편집증적인 세습 전제군주를 정점으로 받드는 국가를 형성하는 데 비해, 유목민은 전쟁기계(war machine)를 형성하고 보다 우연적으로 수장을 선출하는 것이 차이다. 유목적인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의 창조활동을 함축하며, 탈주선을 만드는 그 창조적 동력이 전쟁기계다. 그러나 전쟁기계는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에서의 창조 일반, 즉 예술, 과학, 철학의 창조를 이끌기도 한다; 김재인, 〈사회를 떠도는 노마디즘, 개념 불명확해〉, 《고대신문》 1563호(2007년 5월 20일)와 홍윤기, 〈실체없는 유목주의, 이미지만 떠돈다〉, 《한겨레신문》(2007년 12월 29일) 참고.

11) 여기서 이들이 일전을 벌이는 대숲은 ‘武林’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門 사매들이 모두 녹색 두루마기를 입고서 ‘녹색낭자군’이 되는데서 우리는 이들이 평화의 사자가 아니라 전쟁기계임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연인》에서 녹색은 華와 夷, 정주민의 유목민에 대한 함정과 유혹, 충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주자를 자처하는 남녀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노정에서 똑같이 어려운 위험에 직면한다. 隨風이라는 이름의 金포리대장이 그 이름처럼 바람처럼 살다가려면 자기가 소속한 집단에서 이탈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장치라는 규격화된 코드를 벗어나 시공을 넘어서 자유를 갈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들의 욕망이 탈영토화운동을 갈망하는 유목민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대 욕구의 윤리학적 가치에 머물지 않고 탈주하려는 이런 유목적 사유를 통해 우리는 중국인들의 집단무의식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길들여진 것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인의 유목적 전통이며 탈현실의 기획이다. 숲 속을 말달리는 이들의 끝없는 탈주 행각은 중국인들 집단무의식의 표출인 것이다. 그렇다면 小妹의 죽음은 주제가처럼 미인을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절망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다 맞게 된 비극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金포리대장과 劉포리대장이 小妹를 좇아 飛刀門 근처지로 들어가는 것은 ‘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탈주하는 ‘선’으로 느껴지지만 이들의 小妹에 대한 사랑은 유목을 가장한 정주민의 스키조(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에 가깝다. 정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채 유목민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들의 편집증은 사랑 때문에 허물어질 뿐이다. 이런 隨風의 정체성은 정주민의 금욕적 기질과 낭인기질 사이를 오간다. 그것은 가꾸려 하지 않는 삶으로 자연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 1943~)의 말에 따르면 그는 유목을 존재의 본질로 하는 ‘호모 노마드’인 셈이다. 小妹는 金포리대장(隨風)가 보여주는 인격적 독립과 의지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이들의 탈주와 방황은 ‘바람’이 모티브가 된다.

隨風: 그렇게 진지하게 나올 것 없소. 난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요. 앞만 보고 갈 뿐 한 곳에 머물지 않소.

小妹: 그럼 바람처럼 길을 가요. 저도 바람이 되보고 싶어요.

영화의 후반부에서 隨風이 그녀에게 ‘바람처럼 세상을 떠돌며 자유롭게 살자’고 할 때에야 그녀는 각성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바람기가 있다’, ‘바람 피운다’는 표현을 남녀간의 불륜에 쓰고 있는데 그것은 몰래 하는 사랑이 인간에게 있어서 ‘신바람 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중국어로 ‘바람기가 있다’는 표현을 ‘有風流’라고 하는 것과 상통한다.¹²⁾ 한편 ‘神바람 나는 것’이라는 우리말 표현에서 ‘神’과 ‘바람’을 함께 쓰는 데서, ‘바람’에 깃든 고대인의 神性を 엿보게 된다. 흔히 쓰는 한국어에 있는 風土, 風氣, 風俗 같은 말에도 고대인의 神性이 무의식적으로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속에서 말하는 일상에서의 神氣의 극적 체험과도 상통한다. 이렇게 性(바람)은 곧 聖(神)과 연결된다. 바람기 있는 小妹를 좇아 바람처럼 떠나려는 隨風, 이들의 사랑의 도피 행각은 ‘神바람 나는 것’이다. 이처럼 《연인》에서 ‘바람’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갈구하는 무속신앙의 해방적 측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영웅》에서는 秦軍의 “바람! 바람! 바람! 큰 바람! 큰 바람! 큰 바람!”이라는 외침이 나온다. 이 바람은 ‘신명나는 것’도 ‘바람기’도 아닌, 말 그대로 고대인들이 절대권력이라는 神靈, 즉 神을 부르는 소리였던 것이다.¹³⁾

秦軍의 바람이라는 외침이 울려퍼지는 곳은 趙나라와 대치하는 秦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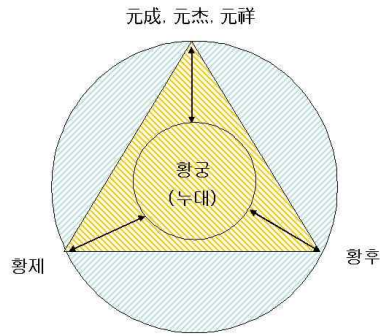
12) 金포리대장은 小妹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隨風, 風流的風”

13) 흥미롭게도 우리말 ‘바람’은 ‘風, 鳳, 鵬’ 등 중국어와 同源으로 보인다. 《莊子》의 《逍遙遊》편에 나오는 大鵬이 神的인 바람을 상징하듯, 《楚辭》, 《離騷》에 나오는 飛廉, 豐隆이나 《爾雅》에 나오는 焚輪 모두 원래는 神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어 ‘바람’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神性은 기독교 《성경》의 《요한복음》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바람’과 ‘성령’은 회랍어로 동일한 ‘프뉴마(pneuma)’란 글자이다. 프뉴마, 즉 바람은 성령이며 성령은 바람이다; 김용옥, 《여자란 무엇인가》(통나무, 2000), 139~140쪽 및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통나무, 1999), 133~202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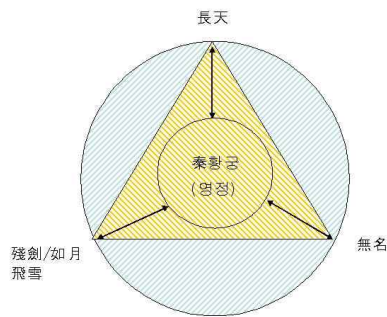
라 영토의 바깥, 푸른 산하가 아니라 황량한 황토벌판이다. 이 벌판은 통일제국을 이루기 전 주인없이 버려진 땅이다. 한마디로 영화 속 강호는 중국인들 뇌리에 잠재되어 있는, 문명인(華)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야만인(夷)의 땅이다. 반면 秦의 황궁은 관객을 압도할 만한 웅대장려한 모습이다. 이것은 《황후花》에 나오는 大唐제국의 황궁도 마찬가지로 황궁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연인》 역시 大唐제국의 도성 長安과 奉天縣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황제를 중심으로 정주민들은 자기들만의 자폐와 유희의 궁궐에 은거한다. 정치가 그들이 접거하고 있는 공간 안에 존재할 뿐이다. 그곳은 《황후花》에서 바로 ‘충효예의’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곳이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중양절’의식이 진행되는 누대도 자폐와 유희의 궁궐이라 할 수 있다. 황제는 누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누대는 등글고 탁자는 모가 났지. 이것은 하늘은 등글고 땅은 모가 났으니 천지를 다스리는 불변의 법칙이다. 이 세계 안에서 너희가 각자 맡은 자리가 있으니 그것은 규칙이라 한다. 君臣과 父子는 서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니 규칙을 어지럽히면 안될 것이야.

이 누대는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천하의 축소판인 셈이다. 바로 황궁이 정주민의 영토라면 《영웅》에서 飛雪, 殘劍이 와신상담하던 땅은 버려진 유목민의 영토인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황후화》의 천하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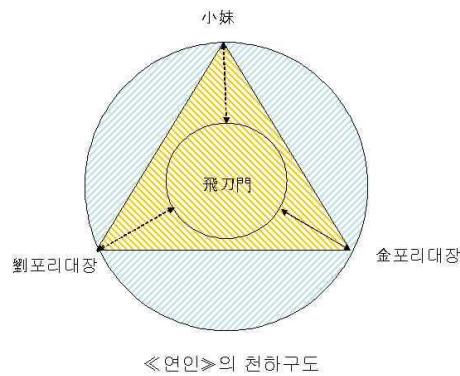


《영웅》의 천하구도

두 그림에서 삼각형의 안은 정주민의 영토이고 삼각형 바깥의 원은 유목민의 영토이다. 여기서 우리는 거주하는 공간에 있어서 가운데 삼각형이 그렇듯이 정주민이 안과 밖의 구별이 확실한 닫힌 우주 속에 사는 데 비해, 유목민은 정주 공간 사이의 노모스¹⁴⁾적 개방 공간에 있는 존재방식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牧丹坊에서 飛刀門근거지로 小妹를

14) 노모스(nomos)란 원래 이집트어의 ‘운하로 구획된 토지’라는 의미인 ‘세페트’의 그리스어이다. 각각 지도자를 가진 독립된 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노모스마다 고유의 신과 독자적인 標識도 있었고 중앙의 왕조 세력이 쇠퇴한 시대에는 독립국가같은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따라 펼쳐지는 《연인》의 진법은 《영웅》과 상반된다.



위의 그림에서는 삼각형 안이 유목민의 영토이고 바깥의 원이 관부, 즉 정주민의 영토가 된다. 여기서 牧丹坊과 飛刀門의 근거지라는 자신만의 영토를 지니고 있는 小妹는 정주민의 영토와 유목민의 영토를 오간다. 비도문의 스파이로 드러나는 劉포리대장도 마찬가지다. 小妹는 영화의 초반부 牧丹坊에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唐末 北方)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노래 부른다.

북방에 미인이 있었네. 세상 끝날 때 홀로 섰다네. 한번 돌아보면 도읍이 기울고 두 번 돌아보니 나라가 기울네. 어찌 도읍을 기울게 하고 나라를 기울게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미인은 다시 얻기 어려운 것을.¹⁵⁾

15) ‘北方有佳人，絕世而獨立，一顧傾人城 再顧傾人國 寧不知傾城與傾國 佳人難再得’; 《漢書·外戚傳》에 실린 이 노래는 원래 李延年在 노래한 것으로 漢武帝의 극찬을 받았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金포리대장과 小妹가 찾아가는 飛刀門의 근거지가 북쪽에 있는 것처럼 이 가사에 나오는 유목민의 영토 또한 북방이라는 데서 2장에서 분석한 華와 夷의 대립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張藝謀的電影世界》, 289, 292쪽 참고.

《영웅》에서도 정주민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 대립구도를 이룬다. 《황후花》에서도 대립구도는 마찬가지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는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반제도적 세계에 연루되거나 가담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다. 《영웅》에서 飛雪, 殘劍, 長天 등 자객들은 진시황 암살계획을 시도한 바 있다. 이것은 《史記》의 서술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이 강호의 대협으로 사는 것은 감독이 탈역사화 과정을 통해서, 무협과 신화로 상상력을 전이시킨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타자(無名)가 찾아와 탁월한 무공을 보여주면서 암살계획은 역사의 예정 인과율로 회귀하게 된다. 그것은 張藝謀영화에서 필연처럼 반복되던 구도이다. 역사의 예정 인과율을 이탈한다면 正邪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그 순간 張藝謀영화의 존립기반이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는 제도권 바깥이나 제도권과 반제도권과의 접점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인》에서는 정주민으로서 사냥꾼에 해당하는 金포리대장과 사냥감에 해당하는 小妹 모두가 희생된다. 이를 통해 張藝謀의 영화는 비로소 제도 안과 제도 밖 사이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 영화에서는 무협물의 장르적 구조와 블록버스터의 공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제도를 경계로 한 배타적인 분리의 벽을 무너뜨렸는데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이와 관련해 陳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연인》의 참된 의의는 개인생명과 그 개체인생의 입장에 입각하여 관방이든 민간조직이든 모든 계급집단의 개인정감, 개체생명에 대한 무자비한 무시, 포위공격, 교살과 질식에 대항하는 데 있다. ...중략... 《연인》은 《붉은 수수밭》의 개체생명이 노래하는 주제를 이어서 전통문화 비판의 현장 깊은 곳으로 진입했다.¹⁶⁾

16) 《張藝謀的電影世界》, 288쪽.

이처럼 《영웅》에서는 反제도의 표상인 협객들을 제도 안으로 불러 들여 자의적 패배로 귀결짓지만 《연인》에서는 飛刀門의 여협들이 제도 안과 제도 밖을 중횡무진하게 한다. 《영웅》에서 협객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실상 협객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패배는 자명한 결과였던 셈이다. 그것은 이 영화가 끌어들이는 無名이 정주민 중심의 중국 역사서술을 재현하는 타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인》에서는 이민족(유목민) 여성을 중화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張藝謀 자신의 華夷論에 대한 상상적 극복이자 《영웅》에서 보여준 역사 상상의 결함에 대한 보충적 차원이기도 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張藝謀의 영화가 《영웅》에서 《연인》으로 전환된 것은 華에서 夷로, 정주민의 영토에서 유목민의 영토로 확장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飛雪은 《영웅》이 끝날 때까지 嬴政 암살계획을 접지 않는다. 그녀는 嬴政을 암살하고 殘劍과 고향으로 가는 것이 꿈이다. 그곳은 검이나 무사가 존재하지 않는 정주민의 영토라 할 수 있다. 《영웅》에서 殘劍과 飛雪이 광야에서 無名과 별이는 일합과 《연인》에서 小妹를 쫓아가며 펼쳐지는 反제도의 영토에 관객은 매혹된다. 그러나 그 매혹의 종착 지점은 제도 속의 회귀로 이어진다. 검열 기제 하의 중국영화에 있어서 反제도란 가능하지 않았으며, 탈제도를 시도했던 타자도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연인》이라는 영화가 제도 밖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해도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제도 안의 두 남자, 劉포리대장과 金포리대장이다. 국가장치라는 틀에 박힌 질서와 규격화된 코드에 환멸을 느낀 두 남성이 유목민의 향수를 느끼며 飛刀門이 잠복해 있는 산 속을 찾는 심성은 일탈적이고 불안정하다. 그러나 환각과 정신적 착란에 빠진 이들의 사랑은 현실을 삼켜버리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결말지어졌다. 결국 《영웅》의 殘劍이나 《연인》의 劉포리대장, 金포리대장은 유목민을 가장한 정주민이었을 따름이다.

연인은 張藝謀의 무협대작에서 제도권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발휘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랬다면 진정한 작가주의의 이름으로 유목민의 정신적 착란과 승화의 영역을 나타내는 좌표가 그려졌을지도 모

르는 일이다. 영원한 유목을 꿈꾸던 연인들의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는 못했지만 《연인》이 원래 무협물이 아니라 애정물이라는 張藝謀의 주장처럼 이 영화는 탈영토화를 이루게 되었다. 제도권으로의 회귀로 종착되는 《영웅》, 《황후花》와 달리 《연인》에서는 탈제도권으로의 탈영토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들뢰즈의 영토화개념에 따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영웅(02)	연인(04)	황후花(06)
비제도권→제도권	제도권→탈제도권	탈제도권→제도권
영토화 (territorialization)	탈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	재영토화 (reterritorialization)

탈제도권으로의 탈영토화를 시도한 《연인》은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영토화를 시도한 《영웅》의 제작을 등에 업고, 탈제도권을 제도권으로 재영토화한 《황후花》를 가슴에 매단 샌드위치맨과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연인》에서는 바로 탈영토화를 통하여 《영웅》이나 《황후花》에서의 수직적 인식구조의 이항논리와 총체화의 시도와 반대로, 수평적 인식구조의 동태적 운동과 총체화될 수 없는 복수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張藝謀의 무협대작을 보는 관객들도 정신분열적 주체(schizo-subject)로서 사회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도 탈주해야 한다. 들뢰즈가 유목과 정주를 대비해서 논하는 이유도 정주문명, 혹은 국가의 모델로부터, 상징계의 인식론적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사고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남과 여, 역할 유지와 해체

張藝謀의 초기영화에서 여성들은 주로 남성의 청춘과 생명의, 욕망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붉은 수수밭》에서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에 치중하고 《국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에 치중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張藝謀와 연인관계였던 鞏俐를 위해서 그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鞏俐와 결별한 뒤 張藝謀의 영화에서 여성형상의 변화가 뚜렷해지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¹⁷⁾ 결국 張藝謀영화 전반에서 여성배역은 대부분 모욕 당하고 학대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인》의 주제가 역시 ‘여성의 불행’이라는 주제를 노래하고 있다. 원제인 〈十面埋伏〉은 楚霸王과 虞姬가 垓下에서 최후를 맞은 곡에서 유래했다. 四面楚歌라는 성어가 여기서 유래되었듯이 우리는 虞姬라는 여성이 처한 불행한 운명에 대한 탄식을 듣게 될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개인이 처한 곤경을 떠올리게 된다. ‘傾國之色’이라는 말처럼 가사에 나오는 미녀는 나라를 기울게 한다. 영화가 붕괴를 앞둔 唐末을 배경으로 한 것은 감독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현대중국의 체제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楚霸王, 虞姬의 고사에는 중국영화와 중국문화의 가치관을 전복하는 알레고리가 감추어져 있는 셈이다.

주제가에서도 드러나듯이 영화 속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일 뿐 조금도 주체적인 존재는 아니다. 《영웅》에서 飛雪은 남성협객 못지않게 뛰어난 무공과 지력을 가진 여협이다. 그러나 飛雪은 중국에는 천하를 대업으로 여기지 않는 개인 복수자로 드러날 뿐이다. 嬴政의 암살에 성공하면 붉은 깃발을 흔들라고 하며 飛雪은 無名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구천을 떠도는 혼령이 되어도 붉은 깃발을 보고 미소지을 거예요.

17) 《張藝謀的電影世界》, 447쪽.

이런 그녀는 결코 온전한 의미의 주체적 여성이라고 할 수 없다. 殘劍 결에는 또 하나의 비주체적인 여성이 자리하는데 바로 如月이다. 《영웅》에서 如月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 無名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殘劍과의 몇 장면을 제외하면 그녀의 주관적 솜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殘劍을 대신하여 殘劍의 연인인, 飛雪과의 의견불일치에 대해 속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인다. 殘劍의 정화와 속죄를 위해 ‘호출(interpellation)’¹⁸⁾된 그녀는 殘劍을 위해 죽음조차 불사한다. 성녀로서의 이미지는 이렇게 남성에 대한 구제와 구원을 위해 활용될 뿐이다. 《영웅》의 如月이 외곶으로 누군가를 모시는 방식은 殘劍과 飛雪이 자멸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녀는 전체와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메시아를 설정한 뒤 희생하는 나르시시즘에 도취되어 있다. 이기적인 욕망과 맹목적인 충성에 사로잡힌 如月에게서 우리는 현실극복 대신 지도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거는 張藝謀의 맹목적인 메시아주의를 읽을 수 있다.

영화의 끝까지 如月の 사랑은 일편단심이다. 그녀는 無名에게 무릎 꿇으며 말한다.

비록 소인은 미천한 하녀이오나 몇 말씀 들어주세요. 8살 때부터 모신 주인님한테서 무술과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주인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글씨에도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주인님 뜻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편 《연인》에서 小妹는 牧丹坊에서 남성의 노리개와 욕망의 대상으로 등장했다가 어느새 劉포리대장과 金포리대장이 경쟁하는 대상이 된다. 그녀가 두 남성과 번갈아 뒹구는 장면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펼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장면도 마초적 리비도의 산물일 따름이다. 영화

18) 이 단락은 팸 모리스 저,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년 4월), 37~60쪽의 서술을 참고로 함.

속의 두 남성이 小妹에게 일편단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중국 무협물이 흔히 그러하듯 남성성 제거화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小妹는 주동적이든, 피동적이든 여성의 육체를 전시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노출하고 벌이는 성애유희에 있는 것 같다.¹⁹⁾ 小妹는 스스로 사랑할 줄 모름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에게는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영웅》의 如月도 마찬가지다. 無名의 거짓설명에서지만 如月은 殘劍과 정사를 벌이고, 이를 본 飛雪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殘劍을 찌른다. 이는 장중한 분위기의 《황후花》도 예외가 아니다. 《황후花》에 등장하는 궁녀들은 유달리 가슴을 드러낸 옷을 입고 있다. 궁녀들은 시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서 소비될 뿐이다. 이것은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고의적인 장치로 볼 수 밖에 없다. 세 영화의 여성들은 갈대형 여성이 대부분으로 관음적 시선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연인》의 小妹는 牧丹坊에서 飛刀門근거지로 이동하면서 야누스²⁰⁾처럼 이중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 맹인에서 정상인으로, 기녀에서 여협으로, 때론 남장여성이라는 두 겹의 존재로 등장하는 小妹는 그 구분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영화사의 전통에서 볼 때 이런 그녀는 남성을 제물로 삼는 ‘팜므 파탈(femme fatale)’²¹⁾의 자장 안에 포함된다. 팜므파탈로서 그녀는 유목민이자 여성으로서, 장애인 기녀로서 사회 주변인의 분열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열된 질서를 거부하려 할 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 뿐이다. 능동적인 걸모습 안에 수동성을 감춘 양면성이 이 시대가

19) 張藝謀는 25세를 전후한 여배우의 외모 변화와 18~20세 때 여배우의 외모를 언급하며 章子怡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張藝謀的電影世界》, 465쪽.

20) 야누스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문의 수호신으로 고대 로마인들은 문에 앞뒤가 없다고 생각하여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21) ‘팜므 파탈’은 거부할 수 없는 묘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이용해 남자 주인공을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악녀, 요부를 가리킨다.

요구하는 여성인 것처럼 《지킬박사와 하이드》에서처럼 강인한 여성전사도 그렇게 소멸되어갔다. 두 남성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간 과정에서 그녀는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만남과 이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다가 비극을 맞는 도착증 환자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두 남자의 목숨을 구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한 여인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신 마초적 리비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네트 쿤(Annette Kuhn)이 볼 때, 금단의 영역을 침범한 그녀는 결코 위험하지 않다. 평범한 여성들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그녀는 도발적인 만큼 여성관객들에게 판타지를 제공해준다.²²⁾ 그러나 판타지가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데 그녀의 한계가 있다. 금단의 영역을 침범한 그녀의 책임은 어느 순간 여성 자신에게로 전이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성은 타자로 만들어졌다. 이는 張藝謀영화가 되풀이해온, 여성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했다. 뛰어난 여성전사는 이처럼 남성들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대가로 희생제물이 되는 운명에 처한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조차 극복해야 한다는 희생정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무협멜로의 서정으로 포장된 영화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張藝謀 감독은 가장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를 관객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小妹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남성 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小妹의 신데렐라 꿈꾸기와 함께 사랑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두 남자의 로망 또한 관객들의 비웃음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결과를 張藝謀가 예상 못한 것 같지는 않다. 작금 중국의 상황은 大躍進運動이나 文化大革命의 추동력이었던 ‘마초 이데올로기’로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張藝謀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며, 이제 과거와 같이 의리와 사랑으로 뭉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

22) 아네트 쿤, 《이미지의 힘》(동문선, 200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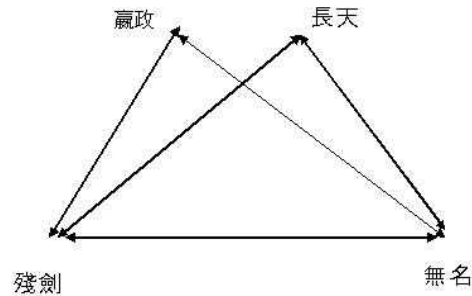
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 金포리대장과 劉포리대장을 살리고 小妹가 죽는 결말을 통해 이 영화는 이성간의 사랑이 동성간의 유대를 대체하거나 현실중국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연인》의 결말을 본 관객들은 은연중에 전통적인 ‘협의’ 즉 개인의 무력으로는 현실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 말고는 기댈 구석이 없다는 강한 체험적 진실을 의심치 않는 것이다. 이런 공적 담론의 경향은 원래 대중의 소망이 아니라 체제의 보수 이데올로기였다. 보통 무협물에서 협객들의 의리는 ‘사내다움(마초 이데올로기)’의 형질과 한 가지인데, ‘의리’라는 데서 이 영화는 무협물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협객들의 의리라는 감정은 아끼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타심을 근본으로 하는 인간의 도리이다.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에 따르면 동성유대적 혐오와 애착이 근대 남성성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한다. 두 남성의 小妹에 대한 이성애는 바로 이런 ‘동성 유대적인 욕망(the homosexual desire)’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던 것이다.²³⁾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절실해진다. 바꾸어 말해서 사회에서 결여, 결핍의 존재인 개인은 사적 네트워크로 그것을 보충해야 한다. 특히 ‘동성유대적 욕망’ 즉 우애(fraternity)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회의 공적 역할 부재나 오작동을 증거하는 지표가 된다. 친구든, 집단의 형태든 상호신뢰나 헌신같은 가치를 소망하는 문제상황의 지수가 되는 것이다. 小妹라는 대상의 교환은 여성을 직접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취하는 듯 보이는데 이것은 남성의 경쟁과 모방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성의 거래(traffic in women)를 위하여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상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레비스트로스 이래 구조주의 인류학의 공식²⁴⁾과도 다르지 않다. 이 때 두

23) 서동진, <《친구》의 수행적 히스테리와 그 냉소적인 성정치학>, 《친구》(삼인, 2004), 31쪽; 본고의 3장에서 ‘동성유대적 욕망’, ‘수행적 히스테리’, ‘애착’, ‘회피’ 등의 개념은 이 논문을 참고하고 많은 부분 적용했음을 밝힌다.

남성간의 수행적 히스테리(performative hysteria)는 사랑과 우정이라는 모순적인 감정 사이에서 표출된다. 사랑과 우정을 수행하면서 이들은 욕망의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게 된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절대사랑을 좇아, 우정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에 간섭한다. 그것은 결국 한 개인의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나’ 속에 있는 ‘우리’로서의 정체성으로 전이된다. 《영웅》에서 長天이 嬴政암살을 위해 無名에게 목숨을 내준 것도 ‘동성 유대적인 욕망’에서 출발했다. 이 영화에서 동성간의 욕망의 삼각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²⁵⁾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이원적 틀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욕망하도록 하는 동성끼리의 매개자(경쟁자) 사이에 구성된 삼각형이다. 《영웅》에서 殘劍은 無名에게 ‘우리’의 천하통일을 이룰 사람은 嬴政 뿐이므로 그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설득한다. 殘劍이 말하는 ‘우리’의 회복은 嬴政의 자아와 삶이 백성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24) 《친구》, 31쪽 참고.

25) 욕망의 삼각형은 르네 지라르著, 김윤식 옮김, 《소설의 이론》(삼영사, 1994) 1장을 참고할 것.

다. 殘劍과의 만남은 無名으로 하여금 맹목적인 개인성에서 합목적적인 정체성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난세에 嬴政암살이라는 다수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주민을 따르는 소수자, ‘로열 마이너리티’²⁶⁾인 셈이다.

殘劍이 無名에게 書法이 劍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검술은 ‘절대권력’의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²⁷⁾ 無名이 가져온 ‘劍’이라는 글씨를 본 嬴政은 말한다.

이제야 알겠도다. 이 글씨엔 검술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검법의 최고의 경지를 쓴 것이다. 검술의 제1의 경지는 인간과 검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검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검이니 수중의 풀조차 무기가 될 수 있다. 검술의 제2경지는 손 대신 마음으로 검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 보 밖의 적도 맨 손으로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술의 최고의 경지는 손으로도 마음으로도 검을 잡지 않고 모든 걸 포용하는 큰 마음이다. 최고의 경지는 곧 살생이 없는 평화를 뜻하는 것이다.

인간과 검이 하나가 되고, 손 대신 마음으로 검을 잡아 살생이 없는 평화로운 천하를 포용하라고 해석하는 嬴政이라는 독재자는 강호의 대협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은 張藝謀가 시공을 초월해 다수 중국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교묘하게 포착한 것이다. 張藝謀는 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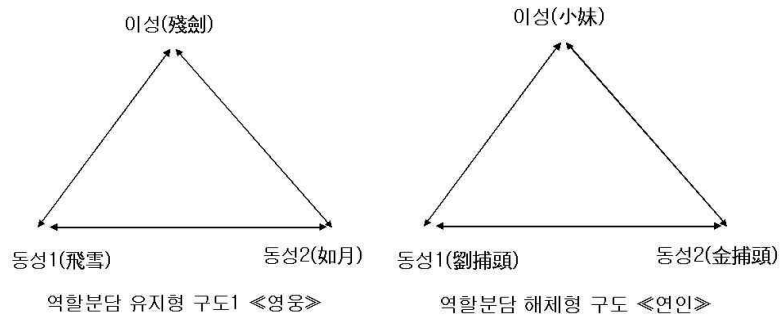
26) 1960년대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성공한 중산층으로 성장하자 미국의 백인 사회는 그들을 ‘모델 마이너리티’로 명명했다. 강진구는 이런 ‘모델 마이너리티’ 개념에 구소련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려인들을 충성스러운 소수자들을 뜻하는 ‘로열 마이너리티’로 부르고 있다. 본고의 ‘로열 마이너리티’ 역시 ‘충성스러운 소수자’라는 의미에서 강진구의 개념을 빌어왔다.; 강진구, 《한국 현대문학의 쟁점들-탈식민·역사·디아스포라》(제이앤씨, 2007), 214쪽.

27)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성물에는 유독 칼이 많다. 영국의 아더왕은 누구도 뽑지 못했다는 바위에 꽂힌 검 엑스칼리버를 뽑아내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 엑스칼리버 역시 절대 권력의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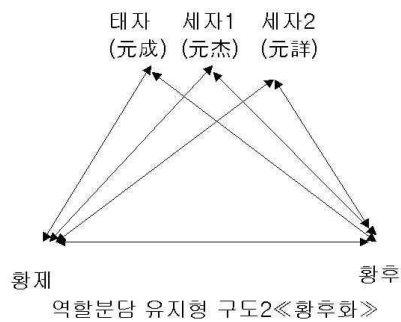
영웅주의로 다수 관객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무협멜로물인 《연인》으로부터 관객들이 느낀 애잔함은 지고지순한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 영화는 ‘동성 유대적인 욕망’을 상기시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정이란 불가능하다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파토스를 변주한다. 그것은 이성과의 사랑, 갈등에서 태어났기에 더욱 씩씩하다. 평범한 동성유대와 불가능한 이성애적 욕망 간의 단락이 벌어지면서, 隨風과 小妹는 더없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커플로 거듭난다. 이 영화가 신파조의 애잔함을 자극하는 퇴행적 텍스트가 아니라 시대적 공감을 얻는 이유도 바로 영화의 화행 자체를 가능케 했던 그런 욕망의 삼각구도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결국 영화는 믿을 구석은 공적 시스템밖에 없고 진정한 우정뿐만 아니라 사랑 역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체념을 자아낸다. 이것이 《연인》의 내러티브가 관객에게 보이는 애잔함과 허망함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 영화는 사랑 앞에 무너진 의리라는 아이러니를 통해 ‘동성유대적인 욕망’의 이상이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연인》의 남성인물들은 小妹와의 관계에서 진지하다 못해 심각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 반면 小妹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탈주하는 비인격적인 욕망의 화신처럼 묘사된다. 小妹의 탈주는 사랑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받는 심적 고통으로부터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는 데서 시작된다. 사랑을 자아내는 조건은 기표의 사슬 체계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의 교섭을 가능케 하는 히스테리의 구조다. 小妹는 진정한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 남자 사이에서 수행적인 히스테리를 때로 긍정하고 부정한다. 그렇지만 그녀가 사랑과 회피 사이에서 발생하는 쾌락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인물들의 낭만적 사랑이 애착의 히스테리라면 小妹의 일탈적 사랑은 회피의 히스테리다. 회피의 히스테리는 사랑과 우정 사이, 그 틈새를 외면한다. 불가능한 이성애적 욕망과 애착의 히스테리 사이에 존재하는 건널 수 없는 틈새를 외면한다. 그녀에게는 그저 성취 가능한 무한한 욕망의 대상만 있을 뿐이다. 《영웅》과 《연인》, 두 영화에서 동성과 이성간의 수행적 히스테리를 욕망의 구도로 그려보면 다

음과 같다.



《영웅》의 갈등구조는 殘劍의 설득과 無名의 굴절이 보여주는 현실 논리와, ‘十步必殺劍法’을 터득한 無名이 嬴政을 암살해야 한다는 힘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연인》에서는 劉포리대장과 金포리대장 사이를 오가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小妹의 현실 논리라면, 小妹의 죽음을 확인하고 두 남자가 피 튀기는 살육극을 벌이게 되는 것은 힘의 논리다. 두 남자의 우정이 배신으로 점철되는 전개야말로 남성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힘의 논리와 현실논리가 두 이성을 중심으로 권력을 이양받을 세자들에게 끊임없이 교섭되는 영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황후花》다.



세 영화를 성별 역할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남성 위주의 《영웅》과 《황후花》에서 성별 역할분담이 유지되어 있다면 《연인》에서는 성별 역할분담이 해체되어 있다. 성별역할이 유지된 《영웅》, 《황후花》의 주인공들이 대의 즉 천하통일이나 大中華를 위해 이성애를 포기한다면 성별역할이 해체된 《연인》의 주인공들은 이성애를 위해 대의를 포기한다. 특히 성별역할이 유지된 《황후花》에서는 대의를 위해 이성애와 가족애 모두를 해체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황후花》에서 황제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된 元成, 元祥은 남성중심 가부장제사회의 희생자라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張藝謀의 이전 작품에서 여성인물에게 집중되었던 사회적인 스트레스, 히스테리, 복수, 가학성이 張藝謀의 무협대작 《영웅》, 《연인》, 《황후花》에서는 남성에게 전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웅》은 性인식의 측면에서 張藝謀의 영화세계가 전환되는 기로에 서있다. 《황후花》에서 元祥의 비참한 죽음과 소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비극의 장면은 비극적 체험을 통한 감정적 유대를 통해 중화라는 거대가족의 정체성을 촉발하고 중심(華)과 주변(夷)의 관계, 그리고 그 연결의 의미를 大中華라는 가족애 안에서 받아들여 준다. ‘거대가족(superfamily)’을 위해 소가족을 희생하는 비극으로 관객의 강렬한 감흥과 몰입을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의 해체는 大唐제국의 치세를 더 강력히 염원하는 데로 이어진 것이다.

《영웅》에서 천하통일을 위한 협객들의 합의는 ‘동성유대적인 욕망’이 매개가 되었다. 《연인》에서 劉포리대장과 金포리대장의 관계도 이에 다르아니었다. 華와 夷, 민족 사이에 편재되어 있을지 모르는 실제적인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중화 민족주의는 수평적 동료의식을 통해 상상되고 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또 민족으로 확대되는 이런 유대의 흐름은, 결국 《황후花》에서 하나의 ‘거대 가족’의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냈다. 이것은 일종의 ‘유기체적 전체성론’²⁸⁾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협멜로물인 《연인》이나 가족의 해체를 다룬 《황후花》는 천하통일이나 ‘중화’라는 개념과 무관해 보이지만 두 영화에서 중화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영웅이 탄생해야 하는 절대 이유로 형상화되었다. 이렇게 《영웅》과 《황후花》가 대의를 통해 부각시키는 것이 큰 영웅이라면 《연인》에는 작은 영웅이 여럿 등장하는 셈이다. 특히 《영웅》에서는 ‘천하통일’을 내세운 큰 영웅(嬴政)이 작은 영웅(無名)을 흡수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천하통일로 제국주의 시대를 열 중화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영웅과 새롭게 주변인(夷)으로서의 운명을 깨달은 소영웅이 ‘영웅’이라는 기표로 연결되었다. 작은 영웅이 큰 영웅에 흡수될 때 관객은 작은 영웅에 ‘나’라는 존재를 투사시킴으로써 그들 구성원 전부는 중화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연인》에서 飛刀門의 여협을 바라보는 현대중국의 여성들도 자신이 여성해방을 누리는 듯한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관객이 큰 영웅의 존재적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영웅주의로 추상화된 민족정신은 구성원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관객들은 《영웅》이라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큰 영웅을 매개로 해서 서로에 대한 직접적 동일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적 감각은 개인적 차원의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감지된다. 이것은 《영웅》에서 無名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했다. 영화 속 인물들이 大中華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영속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張藝謀 무협대작의 관람체험은 중화민족으로서 개인의 위상을 각인시키고 큰 영웅을 절대적 당위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나는 과정이 된 것이다.

28) 이 용어는 고미숙이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책세상, 2001), 43쪽에서 쓴 데서 착안했다.

4. 맺으며

張藝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마치 예전 홍콩의 徐克처럼 무협스펙타클을 연이어 선보였다.²⁹⁾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중국영화의 무협대작 열풍에는 할리우드 거대자본의 중국시장 잠식이라는 파고를 헤치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갈망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한 큰 영웅의 지도에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의 욕망은 張藝謀의 무협대작이 흥행에 성공한 기폭제가 되었다. 張藝謀는 1997년 이후 《투란도트》, 《山水實景歌舞》 등 관제 오페라를 제작, 연출하다가, 올해에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의 연출을 맡는 등 중국대륙을 넘어 세계시장을 향한 허장성세의 연속 편을 준비 중이다.

張藝謀 등 제5세대 감독들이 사회적 갈등해소에 있어서의 국가기구의 역할을 제시한 것은 《책상서랍 속의 동화》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현대 중국농촌의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希望工程’을 제시했다. 그러다 《연인》에서 張藝謀는 현대 정치생활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시공간, 즉 현재 시대가 아닌 공간을 끌어와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확증을 담화시키고 있다. 시공의 모호함을 통해 현실권력의 간섭을 모면하고 중심과 주변의 간극을 해소하면서 세계로의 통용성을 획득하려한 것이다. 《책상 서랍 속의 동화》, 《집으로 가는 길》, 《행복한 날들》에서 이미 希望工程으로의 회귀를 내비친 바 있는 張藝謀의 무협스펙타클(大中華) 제작은 주류 이데올로

29) 徐克은 1960년대의 무협영화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스타일을 이룩했다. 이른바 SFX 무협영화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무협영화로 그는 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다. 程小東 무술감독까지 합류한 張藝謀의 무협대작은 徐克에 비해 CG를 축소시킨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무협을 영화화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徐克이 최고로 꼽힐 만하다. 張藝謀 감독이 동양의 스피버그라는 타이틀을 얻기에는 아직 역부족이 아닐까?

기로의 완전한 귀환을 의미한다.³⁰⁾ 이것은 중국의 많은 신세대 감독들이 현실비판적 성향에서 90년대 후반 대거 주류로 회귀하여 중국 당국의 승인을 얻어낸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최근 중국감독들은 중국형 블록버스터 제작으로 할리우드영화에 대항하려는 듯하다. 중국영화의 흥행과 증화권 진출로 할리우드 영화에 맞선다는 전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할리우드의 중국 진출 전략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³¹⁾ 할리우드에 맞서겠다는 전략은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 궁지에 몰린 생쥐가 몸을 부풀려 고양이에게 자신이 크게 보이게 하듯이 자신을 점점 더 제국주의적으로 연기하게 했다.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괴물과 싸울 때 괴물을 닮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한 바 있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중국의 블록버스터영화는 보여준다.

《영웅》에서는 無名の 죽음을 계기로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세를 치세로 바꾸는 업적을 이룩하게 된다. 《황후花》는 가족의 해체라는 결말로 끝맺어졌지만 重陽節에 가족이 함께 모여 황제의 건재함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가 난세에서 치세로, 그리고 다시 난세로 순환되리라는 인식이다. 이런 역사관은 진화론적인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라 근본주의적인 순환론적 시간관에서 나온 생각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역사서들처럼 《영웅》은 왕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질서를 상징했다. 그러나 《연인》에서 張藝謀는 이런 유학적 정통론을 전복한다. 《연인》의 서사는 華와 夷를 상속성과 보편성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성해 내는 목적 아래 놓인 기획이었던 것이다. 張藝謀 감독

30) 曹俊兵, 〈理念的朴奇到情感的素朴—張藝謀電影近作的藝術追求探析〉, 《中國文學研究》 제25집(한국중문학회, 2002), 119쪽 참고.

31) 할리우드는 미국의 정치, 외교력을 앞세운 투자, 경영으로 먼저 시장을 확보한다. 그리고 화교 감독, 연기자 등을 흡수하고 아시아문화를 융합하여 관객의 취향에 부응하는 영화를 제작한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할리우드영화에 접촉된 관객들은 할리우드에 대한 관심이 배양되고 또 다시 잠재적인 시장이 육성된다. 張藝謀의 영화 《영웅》에 할리우드의 거대자본이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홍著, 이용욱譯, 《중국 영상문학 연구의 길》(학고방, 2007), 268~275쪽.

스스로 단순한 러브스토리임을 피력한 《연인》은 인간의 퇴행적 욕구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파멸의 과정을 다루었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는 적지 않은 순정만화에서 보았던 공식을 연상케 한다. 고전적 아취로 포장되어 있는 《연인》은 성장기 소년의 통과의례(initiation)같은 무협과 사춘기소녀의 신열과도 같은 로망스를 절묘하게 아울러서, 이른바 ‘무협 멜로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그러나 영화 속의 인물들이 안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에 안착할 자리가 없이 욕망을 억제 못하고 파국을 향해 가는 바로 그 몸부림 때문이다. 결국 張藝謀는 영웅주의에 퇴폐주의를 결합함으로써 개인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의 이념과 환상이 가져다준 절망과 좌절을 그려낸 것이다.

[參考文獻]

- 司馬遷著, 김원중譯, 《史記》(민음사, 2007)
 陳墨, 《張藝謀的電影世界》(風雲時代, 2006)
 김용옥, 《여자란 무엇인가》(통나무, 2000)
 김용옥,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통나무, 1999)
 팸 모리스 저,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아네트 쿤, 《이미지의 힘》(동문선, 2001)
 에리히 프롬 지음, 황문수 옮김, 《사랑의 기술》(문예출판사,)
 인홍著, 이용옥譯, 《중국 영상문학 연구의 길》(학고방, 2007)
 스텐더트 보이틸라 지음, 김경식 옮김 《영화와 신화》(을유문화사, 2005)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친구》(삼인, 2004),
 르네 지라르著, 김윤식 옮김, 《소설의 이론》(삼영사, 1994)
 강진구, 《한국 현대문학의 쟁점들-탈식민·역사·디아스포라》(제이앤씨, 2007)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책세상, 2001)
 최상식, 《TV드라마 작법》(제3기획, 1994)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새물결, 2001)

- 질 들뢰즈 지음, 김상환옮김, 《차이와 반복》(민음사, 2004)
자크 아탈리 지음, 이효숙옮김, 《호모노마드—유목하는 인간》(웅진싱크빅, 2005)
왕샤오밍, 〈현대중국의 민족주의〉, 《황해문화》(2003년 가을)40호.
曹俊兵, 〈理念的朴素到情感的素朴—張藝謀電影近作的藝術追求探析〉, 《中國文學研究》제25집(한국중문학회, 2002)
김재인, 〈사회를 떠도는 노마디즘, 개념 불명확해〉, 《고대신문》1563호(2007년 5월 20일)
홍윤기, 〈실체 없는 유목주의, 이미지만 떠돈다〉, 《한겨레신문》(2007년 12월 29일)

[中文摘要]

本书稿把張藝謀在二〇〇〇年代制作的三部大片电影进行分析。通过《英雄》，《十面埋伏》，《滿城盡帶黄金甲》，我分析張藝謀的创作精神，谋求电影与中国现实的接点、以男与女，華与夷的构图分析武俠史剧。中国历史的力学构图，‘華夷論’的概念，按德勒兹与伽塔里的区分，以華例定居居民，以夷例遊牧民。如中國史的力学構圖视为華与夷，即定居与遊牧的对峙，張藝謀的电影由《英雄》转移至《十面埋伏》，是由華至夷，由定居民的领域至遊牧民的领域扩展的局面。略而言之，《英雄》由非制度圈至制度圈领域化，《十面埋伏》由制度圈至脱制度圈解域化，而《滿城盡帶黄金甲》由脱制度圈至制度圈再领域化。

比《英雄》或《滿城盡帶黄金甲》，《十面埋伏》难免观众的苛评。但張藝謀的近作中，《十面埋伏》正如原题，处处设下讽喻，可以多边符号学的解释。由性别角色看此三部电影，在男性为主的《英雄》与《滿城盡帶黄金甲》中性别角色的分任维持，在《十面埋伏》中性别角色的分任解构。为此分析，本书稿以‘同姓紐帶慾望’与‘行事性癡病’，‘愛戀’与‘回避’等的概念例此。可见，張藝謀的以前作品针对女性人物在社会的压力，癡病，复仇，虐變，他的武俠大片《英雄》，《十面埋伏》，《滿城盡帶黄金甲》转移，针

对男性。可以说，在性認識方面，《英雄》位于張藝謀的电影世界转移的转折点。張藝謀武俠大片的观看体验使观众个人刻印作为中華民族的位相，把大英雄接受为絶對当位，自己重生的进程。

關鍵詞：領域化，再領域化，脱領域化，定居民，遊牧民，華夷論

투고일: 2008. 6. 28.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從主體論的角度看中國當代文學中的身體敘事 ：一個批判性的思路*

王曉華**

〈目 錄〉

1. 導言：從主體論身體美學角度審視當代中國身體敘事的必要性
2. 1949-1985年間中國文學對身體主體性的遮蔽和呈現
3. 1990年代中國身體敘事對身體主體性的否定：一個明晰的線索
4. “無頭的肉身”與“無肉身的頭腦”：21世紀身體寫作對身體-主體的片面展示
5. 簡短的結語

1. 導言：

從主體論身體美學角度審視當代中國身體敘事的必要性

在反思當代中國文學中的身體敘事時，研究者通常會產生程度不同的欠缺感：有某種應該顯身的東西沒有出場。不過，對於這應該顯身者是什麼，人們並沒有達成共識。我無意加入到與此相關的論戰中，只想直截了當地指

* 本文系廣東省“十一五”規劃項目《主體性理論視野中的身體美學建構：主體論身體美學研究》的階段成果。

** 深圳大學文學院教授(wangxiaohua9@163.com)。

出：在当代身体叙事中缺位的恰恰是身体自身。

身体在身体叙事中缺位似乎是个悖论：在当代层出不穷的身体叙事中，身体不是早就成为主角了吗？它岂不是获得了太多的被展示、观看、消费的机会？这样的主角又怎能在有关它的叙事中缺位？上述诘问看似理直气壮，但却并不难应对：某类存在被关注与它的真正显身是两回事；当呈现者误解了被呈现的对象时，呈现的意志越强烈，遮蔽效应就会越明显；中国当代身体叙事也很有可能演绎了上述逻辑。

我所说的“身体在身体叙事中缺位”首先意指：在当代身体叙事中显身的并不是本真的身体，或者说，身体的真实身份尚未被揭示。从已发表的作品来看，当代身体叙事中的身体主要被呈现为：(1)审美的对象(启蒙主义的身体叙事)；(2)欲望和消费的对象(消费主义的身体叙事)；(3)解构的对象(解构主义的身体叙事)。对象者，客体之谓也。除了少数时期的极少数作品外，当代身体叙事中的身体几乎总是被当作客体。客体是被认识、改造、消费的存在，将身体当作客体实乃将之领受为被动者。身体被动而人是能够主动筹划自身的存在，因此，这种身体叙事必然或隐或现地将人的主体性归结为非身体性存在即精神、灵魂、思想。于是，肉身性/精神性以及与之相应的一系列古老的二分法就被重构、恢复、加强，以启蒙、反叛、解构为原初使命的当代身体叙事则最终暴露了其保守品格。有位评论家说过：“没有身体人不能生存，但仅有身体，人不能发光。”²⁾ 此语说出了支配当代身体叙事的元命题：(1)人是一种多于身体的存在；(2)这个多出身体的部分使人发光，给人尊严；(3)身体应该遵从这个多出它的部分，将其指示肉身化。对于这多出身体的部分，大部分作家和评论家都称之为灵魂。灵魂是生存、审美、写作的主体，肉身则不过是灵魂借以实现自身意图的工具，此乃上述元命题的必然推论。

吊诡的是，对于这种意义上的灵魂观念，代表主流意识形态的《现代汉语词典》均给出了如下的定义：“迷信的人认为附在人与物体内主宰人与物

2) 《“身体写作与消费时代的文化症候学术讨论会”综述》，《文学评论》2004年第4期。

一切活动的非物质体。”³⁾ 显然，在当代主流汉语语境中，支配当代身体叙事的上述元命题属于迷信范畴。非但如此，当代世界精神哲学也越来越倾向于消除独立的灵魂实体概念，“越来越频繁地”证明非物质的灵魂实体概念不过是虚构，因此，《现代汉语词典》中的定义符合当代知识论发展的大趋势。⁴⁾如果独立于身体的精神实体——灵魂——并不存在，那么，我们就只能将精神理解为身体的某种功能：“创造性的肉体为自己创造了创造性的精神，作为它的意志之手。”(尼采语)⁵⁾ 没有独立的灵魂实体，人就是会思想的身体：“我整个地是肉体，而不是其他什么；灵魂是肉体某一部分的名称。”(尼采语)⁶⁾ 人是身体，精神不过是身体的“意志之手”即自我设计、自我投射、自我认识功能(活动)，故而说“人是身体”等于说“身体是主体”。身体是主体，这就是身体的真实身份和地位。主体性就是身体自我实现、自我确认、自我领受的品性，亦即，真实的主体性只能是身体主体性。作为主体，身体在自我筹划、自我指示、自我认识的过程中创造着以之为中心的世界，文学、工业和农业、建筑与家具都是身体的作品。身体在创造世界时也在创造自身，其所有活动都最终回到自身，落实为身体的自我创造。身体同时是自己的作者和作品，是主体和客体，这就是身体的神秘处和神奇处。认识不到身体的这种神秘和神奇品格，就会把本属于身体的主体性归结为他者的属性，阻碍身体-主体在文学艺术中的出场：此乃身体在当代身体叙事中缺位的根本原因。要纠正这个错误，我们就必须以主体论身体美学观审视当代身体叙事，追查身体-主体被遮蔽的具体机制和细节。

2. 1949-1985年间中国文学对身体主体性的遮蔽和显现

3) 《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馆, 2002), 第802页。

4) *Oxford Dictionary of Philosoph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357.

5) 尼采, 《查拉斯图特拉如是说》(文艺出版社, 1987), 第11页。

6) 尼采, 《查拉斯图特拉如是说》(文艺出版社, 1987), 第43页。

身体是文学的作者：是手握着笔或者敲打键盘，是大脑在思考，是眼睛望着纸张和屏幕，总之，是身体在写作。写作中的身体不可能不将自己投射到文本中，古今中外的文学作品都不缺乏身体的意象。问题的关键是：身体以何种身份进入语言中？它并非总能认识到自己的真实身份，时常会误解自身。这种误解既有认识论上的根源，又为具体的政治-文化-经济语境所规定。

在1949-1976年间，个体被抛入以共产主义为远景的宏大叙事中，身体也几乎总是被认作工具性存在。文学作品中的主人公关注的几乎总是身体的工具性价值。他们在端详镜中之我时，思考的通常是身体与使命之间的关系。在唐克新发表于1960的小说《第一课》中，有个主人公照镜子的细节：“他觉得后面一句话太知识分子气了，但又想不出更好的话来代替。于是又去照照镜子。贴在墙上的镜子里，立刻出现了个圆脸小伙子。一对乌黑骨碌的眼睛，两条一字排开的眉毛，小鼻子下面是两片丰满的嘴唇，它的周围还长着软茸茸的黄毛。”⁷⁾ 小说中的自我观照者在面对自己的面孔时没有任何审美意识，他想到的是镜子里的那张脸“无论如何也不像个老师的脸”。这种对身体的工具意识贯穿于此间的文学艺术作品中。形容好人身体的词大多是健壮、质朴、剽悍、结实、高大——它们所指称的功能有利于宏大的社会建构。1960年2月2日，巴金在其刚刚完成的小说《无畏战士李大海》，就曾如此描述英雄的形象：“四方脸，紫红色脸膛，浓眉大眼，宽肩膀，高大身材”。四方脸和浓眉大眼是忠诚的象征，紫红色脸膛显然说明主人公经历过烈日和风雨的考验，宽肩膀和高大身材则都是力量之源。这几个特征合一，便形成了对集体(民族、人民、国家)有突出价值的身体形象。这样的身体绝不会以自身为目的，更不可能沉溺以自己的美中，而应时刻为使命贡献自身。在上述语境中，合格的身体必须舍弃自己的私人性，以自己的劳作乃至牺牲推动社会前进。身体如果无视禁忌，就会成为惩戒(批判、监禁、消灭)的对象。受此政治-文化-经济语境的制约，文学中的身体只能部分地显

7) 钱乃荣主编，《20世纪中国短篇小说选》(第4卷)(上海大学出版社，1999)，第1页。除特别注明者，本文以下所引短篇小说皆出于此书1~6卷。

示其客體性，其個體主體性則被遮蔽和遺忘。有意思的是，這種對身體的片面規定與當時的主流哲學並不完全相容：按照唯物論的核心命題，世界統一於物質，精神不過是物質的活動和功能，因此，人們必須承認身體是主體，否則，就會陷入到唯心主義的泥潭中。當時的作家和理論家之所以未意識到這個矛盾，是因為對國家主體的崇拜造就了一種思維慣性：所有人都必須聽命於國家主體，毫無保留地奉獻自己所是整體，將其個體性領受為工具性。在一種忽略個體主體性的語境中，身體主體性自然不會獲得承認。這是身體主體性在1949~1976年間被遮蔽的根本原因。

1976年以後，中國開始逐漸重啟市場經濟實驗。市場經濟以個體為本位，要求承認個體的主體性。隨著市場經濟實驗的深入，個體主體性問題凸顯出來。到了20世紀80年代，文學界重提“文學是人學”的命題，以劉再復為代表的部分批評家自覺地“為恢復人在文學中的主體性地位而努力”。⁸⁾在提及對主體性的理解時，劉再復說：“所謂主體性，就是人之所以成為人的那種特性，它既包括人的主觀需求，也包括人通過實踐活動對客觀世界的理解和把握。”(同上)值得注意的是，他所说的“主觀需求”和“對客觀世界的理解和把握”均屬於主觀性範疇，因而他說理解的主體性首要地是精神主體性。雖然劉再復也強調人的主體性包括實踐主體性和精神主體性，但他在具體論述中所闡釋的卻基本上是精神主體性：“我們所探討的創作主體性，主要是作家的精神主體性，即作家內在精神主體的運動規律。”⁹⁾與此相應，“文學是人學”這個命題也被具體化為“文學是精神主體學”。¹⁰⁾至於精神主體本身，則被理解為獨立的世界：“人的精神世界作為主體，是一個獨立的，無比豐富的神秘世界。它是另一個世界，另一個宇宙。”¹¹⁾在這種強調精神主體獨立性的語境中，身體的意義同樣很難顯現出來。它被劉再復定義為“肉”——靈魂升華的對象：“光有肉沒有靈，就會回到動物界，回復到動物本性，而且要比動物還要反常，還要墮落。”¹²⁾既然靈魂對肉身具有

8) 劉再復，《性格組合論》(上海文藝出版社，1986)，第3頁。

9) 劉再復，《文學的反思》(人民文學出版社，1986)，第72頁。

10) 劉再復，《文學的反思》(人民文學出版社，1986)，第59頁。

11) 劉再復，《文學的反思》(人民文學出版社，1986)，第56頁。

如此重要的意义，那么，身体就必须甘愿听从精神主体的领导、塑造、提升。只有在接受了精神主体的领导、塑造、提升后，身体的欲望和美才有正面意义。由此可见，20世纪80年代文学理论界对人的第三次发现确立的仅是精神主体的位置，身体依旧被排斥在主体理论之外。不过，这种理论上的局限性并不完全对应着创作上的局限性：回顾20世纪70~80年代中国文学中的身体叙事，我们会发现此间的创作最终超越了当时的主体性理论，开始承认身体的主体身份。这个过程大致上可以分为两个阶段：(1)承认身体的美和其欲望的正当性；(2)将身体领受为自我解放的主体。

回顾上个世纪70~80年代的身体叙事，我们会发现：此间的启蒙思潮不但承认身体的美及其欲望的正当性，而且一度将身体领受为自我解放的主体。刘心武发表于1977年的小说《班主任》，就把身体当作解放的对象。小说中的班主任张老师对思想保守的女生谢惠敏说：“你为什么还穿长袖衬衫呢？你应该带头换上短袖才对是，而且，你们女孩子应该穿裙子才对啊！”用长袖遮掩身体意味着：主人公认为与欲望相关的肉身是不洁的，人应该像克制欲望一样隐藏这部分肉身。张老师劝谢惠敏穿裙子，潜台词是：身体是美的，人的合理欲望有其正当性，适当地显露肉体(包括性征)并非“沾染了资产阶级作风的表现”。不过，无论是被遮掩，还是被敞开和解放，身体所敞开的还仅仅是自己的对象性。在这种语境中，身体依然是客体，尚只能在客体论美学中找到自己的位置。作为客体，身体时刻要接受精神主体的审视-评估-裁决。1979年，张洁推出短篇《爱，是不能忘记的》时，开篇就以肯定的口气谈论男性身体的美：

看见过古希腊伟大的雕塑家米伦所创造的《掷铁饼者》那座雕塑吗？乔林的身躯几乎就是那座雕塑的翻版。即使在冬天，臃肿的棉衣也不能掩盖住他身上那些线条的优美轮廓。他的面孔黝黑，鼻子和嘴巴的线条都很粗犷。宽阔的前额下，是一双长长的眼睛。光看这张脸和这个身躯，大多数的姑娘都会喜欢他。

12) 刘再复，《性格组合论》(上海文艺出版社，1986)，第434页。

然而，这种美并未让小说中的“我”爱上乔林，她依然“拿不准主意要不要嫁给他。”“我”的母亲曾经爱过“一个相当漂亮的、公子哥似的人物”即“我”的父亲，但“我明白她准是因为自己也曾追求那种浅薄而无聊的东西感到害臊。”真正的爱是灵魂之间的事，身体的美至多是参照因素：《爱，是不能忘记的》真实地记载了上个世纪70年代末期人们对身体的态度。到了80年代，身体的位置发生了微妙的变化。张弦1980年发表《被爱情遗忘的角落》，开始正面表现身体的欲望：

但是，青春毕竟不可抗拒地来临了。她脸上黄巴巴的气色已经褪去，露出红润而透着柔和的光泽：眉毛长得浓密起来；枯涩的眼睛也变得黑白分明，水汪汪的了。她感到胸脯发胀，肩渐渐丰满，穿着姐姐那葵绿色的毛线衣，已经有点绷得难受了。她的心底经常升起一种新鲜的隐秘的喜悦。

“新鲜的隐秘的喜悦”来自身体的欲望。小说中的“她”对待身体欲望的态度曾是矛盾的：一方面，“她”朦胧地感受到了这欲望的正当性，另一方面，对欲望的记忆总是伴随着耻辱和哀伤——“她”的姐姐春妮在青春洋溢的时节，未能抵挡住男青年小豹子的攻势，被“强奸”后自杀了。随着改革开放政策的实施，农民们被允许部分地重建自由经济体系，春风吹到了被爱情遗忘的角落，“她”也解开了心中的结，知道现代人有权实现身体的正当欲望。于是，“她”不仅爱上了不安分的男青年茶树，而且要“为小豹子伸冤”。“为小豹子伸冤”实际上是为身体的感性欲望伸冤，是为长期被看管、压抑、迫害的身体复仇。至此，身体叙事正式成为解放叙事。从根本上说，对身体的解放是身体的自我解放，是身体主体性的实现。《被爱情遗忘的角落》虽然未明确肯定身体的主体性，但直接表现了感性欲望的力量：

就像出洞的野豹一样，小豹子猛扑上去，他完全失去了理智，不顾一切地紧紧搂住了她。姑娘大吃一惊，举起胳膊来阻挡。可是，当那灼热的、颤抖着的嘴唇一下子贴在自己湿润的唇上时，她感到一阵神秘的眩晕，眼睛一闭，伸出的胳膊瘫软了。一切反抗的企图都在这一瞬间烟消

云散。一种原始的本能，烈火般地燃烧着这一对物质贫乏、精神荒芜，而体魄却十分强健的青年男女的血液。传统的礼教、理性的尊严、违法的危险以及少女的羞耻心，一切的一切，此刻全都烧成了灰烬。

欲望和本能都属于身体。它们突破了礼教、理性、道德律，说明身体已经开始为自己解除枷锁。在个体的感性欲望爆发时，上述与灵魂相关的存在竟然如此无力，这无疑已经暗示了真实的主体可能就是身体。当然，暗示毕竟是暗示，小说中的身体-主体意识依旧处于萌芽状态，还未成形为清晰的思想轨迹。《被爱情遗忘的角落》问世5年后，张贤亮推出《男人的一半是女人》，强化了上述身体-主体意识。他以唯物主义世界观统摄政治叙事和情感叙事，认定“政治的激情和情欲的冲动很相似，都是体内的内分泌。”¹³⁾ 这差不多等于说：人就是身体，情感和政治是身体活动的不同向度，身体是生活的主体。小说中的男主人公发现自己性无能以后，称自己为“半个人”，大体上表达的也是这种观念。这位落难知识分子之所以对自己的性无能充满恐惧，除了男人的自尊心在起作用外，还因为他担心“这方面的无能，必然影响到其他方面的心理活动。”正如上半身和下半身构成了完整的人，社会也是身体的共同体，正常的社会应该让人的身体全面发挥作用。正是出于这种认知，章永磷觉得自己身处“不是脑，而是嘴这种器官特别发达”的畸形时代，断定这样的时代不可能长久。不难看出，小说中的身体主体观已经衍生出相应的身体政治学和身体社会学，隐约地敞开了身体叙事更广阔的前景。如果这个前景充分显现出来，那么，中国当代身体叙事将是另一番景象。然而，假设总归是假设。在《男人的一半是女人》之后，主体论身体叙事并没有发展起来。由于复杂的历史-逻辑机缘，身体在中国文学中刚刚回归主体之位，便又被排挤到客体意象的行列。随之而来的就是身体-主体缺位的身体叙事阶段。

13) 《张贤亮集》(海峡文艺出版社, 1986年), 第453页。以下所引该小说片段皆出于此书。

3. 1990年代中国身体叙事对身体主体性的否定： 一个明晰的线索

《男人的一半是女人》发表于1985年。此时，延续了36年的传统意识形态话语依然支配着人们的思与行。小说中的章永磷信仰唯物论。这是他能够敞开身体主体观的重要原因。按照唯物主义的基本原理，精神不过是物质的某种功能，思想乃大脑的活动，因此，人是身体意味着身体就是主体。不过，唯物论也承认意识对物质有反作用。这反作用如此之大，以至于章永磷发现“意识在反抗物质”。也就是说，我至少可以在想象中拉开与身体的距离，不承认我仅仅是这个身体。进而言之，意识可以控制身体这个事实甚至会使我产生一种幻觉，仿佛“我”是身体的拥有者。章永磷在沙枣树下与幽灵对话后，就恍惚觉得“我的躯体乘坐在我的目光之上，穿过黛蓝色的太空到处遨游”。当他想象“我的躯体”穿越宇宙时，他不但把自己当作了多于身体的存在，而且把这多出身体的部分命名为“我”。这个“我”拥有身体，是主体。虽然这种对于“我”的狂想不过是《男人的一半是女人》中的亚叙事，但上述思路却暗示着一种可能性：此后的身体叙事很有可能将“我”(精神)当作主体。

自20世纪80年代中期以后，改革开放令传统意识形态日益式微，唯物论开始成为可供选择的众多体系之一，中国作家们越来越喜欢凸现“我”即精神主体的价值和意义。那么，这个“我”是什么呢？刘再复等人将之命名为精神主体，此后的作家则喜欢称之为灵魂。在1987年发表的短篇小说《跑道》中，刘索拉曾让主人公如是说：“当我照着镜子看我如今这副模样，才发觉精神中的被强奸比肉体的被强奸要可怕得多。肉体不过是肉体，是供养灵魂的皮囊，一辈子只嫁一个丈夫并不标志着贞洁，只要把心灵捧上让人们随意揉搓让精神一会儿随鸡一会随狗就算真的卖淫了。”肉体不过是供养灵魂的皮囊，灵魂才是主体。按照这种逻辑，身体只能是第二性的存在，注定

要被灵魂掌控、征用、统摄。即使作家依然相信“人不能只有灵没有肉”，但刘索拉等先锋作家还是复活了旧的客体论身体美学。1989年，格非在短篇《夜郎之行》中曾经意味深长地追问：“什么东西离开了我的身体？”小说的主人公如此反观生命力的消失：“可是，衰老的阴影过早地撵上了我，我的血液干涸了，我的身体变成了一具空壳。”离开身体的仅仅是血液吗？是不是还有灵魂？如果灵魂离开了，身体就变成了一具空壳，那么，身与心的关系岂非不言自明？对此，格非并未让主人公正面回答，“什么东西离开了我的身体？”则在上个世纪80~90年代的身体叙事中延宕为不断回旋的追问。对于大多数作家来说，这个“什么”就是灵魂。1991年，赵玫在小说《无调性短歌》中写道：

……当两个赤裸的肉体焦灼在一起
生命诞生了。
灵魂也诞生了。

肉体的结合为生命的诞生创立了机缘。灵魂也是肉体结合的产物，需要“诞生”，自然也不能永恒。可是，“灵魂”这个词到底意指什么呢？它是身体的某种功能、属性、活动，还是身体的统治者。我们在整个90年代的身体叙事中找不到确切的答案。实际上，这个时期不存在纯粹的身体叙事。甚至，在棉棉等人的身体写作中，灵魂也总是和身体一起出场：“我实在不知道怎样对待我的身体，我知道身体感觉对我是如何重要，因为我的身体和灵魂一致。”这是《每个好孩子都有糖吃》中的句子。该短篇发表于1998年，叙述了几个都市青年的另类生活。小说中的“我们”吸毒、斗殴、乱交，但却希望“身体和灵魂一致”。即使在吸毒后的幻觉中，他们说感受到的也是“身体飞走了”：

我们都找不到自己了。“我们讲感觉”嘛！飞啊飞啊，我们的身体飞起来了，那是多么迷人的一件事！我们的身体变大变小，无须努力就能得到快乐，像兔子一样灵巧，思路变得宽广，平缓，无数条轨道，无数扇大

門向我们敞开，所有是逻辑和理性，坠落、消失、以往。我们的身体在这里，我们飞到那里，可那里是哪里呢？赛宁，你最大的弱点是不会控制。我不再吸毒，不再酗酒，甚至不再追求高潮。鸟儿们不再叫了，也许是我们听不到了。我没想到我还是和你一样，这就是代价。我们的身体飞走了，找不到了。

“身体飞走了”而“我”还在，那么，“我”是什么呢？显然，“我”不可能等于身体。否则，身体飞到哪儿，“我”就在何处。上个世纪最具先锋性的身体叙事不敢承认“我是身体”这个命题。小说中对身体的无把握感不仅仅是吸毒和戒毒时的幻觉，更表征着找不到身体本质后的迷茫意识。身体写作者回归的是“我的身体”而非“我所是的身体”。这个身体在很大程度上仍是工具——获得快乐的工具。在“我”和“身体”之间，依然有条虚构的鸿沟。“我”像匪首驱使小喽罗一样驱使身体去吸毒、酗酒、斗殴、露阴、偷窥、施虐和受虐、乱性、自残，甚至把身体的尊严和使用权按时段出售。作为代价，“我们的身体飞走了，找不到了”。其实，“找不到身体”恰是上个世纪90年代身体叙事的问题所在。包括棉棉在内的先锋作家描述的仍是“我们的身体”即身体-客体。身体-主体在其文本中仍未显身。他们“习惯于以性来界定身体”，实际上是把身体当作叙事中的欲望对象。只要身体依旧被当作对象和客体，那么，“关于身体的故事和故事里的身体”就都与最真实的身体无关。这样做的结果必然是将主体性归结为灵魂的属性(刘索拉、赵玫、棉棉)。神秘的灵魂一旦在文本中登上主体之位，短暂、脆弱、沉重的身体就只能被想象为服从灵魂指令的客体。陈染创作于世纪末的中篇《另一只耳朵的敲击声》就体现了这种身心观。该小说虽然肯定了身体欲望的正当性，但却设置了可以独立于肉体的心、精神、灵魂：“我的心从没有家乡。像我纷乱空洞的胸口内部某一种脱离我身体的地方，无所归属。”¹⁴⁾ 这个心可以脱离短暂、脆弱、沉重的肉身，是真正的“我”。“我”能够超越肉身的局限，独立存在于宇宙中：

14) 陈染，《无处告别》(江苏文艺出版社，2005)，第101页。以下所引陈染小说皆出于此书。

死亡经常缠绕在我的颈间，成为我的精神脱离肉体独立成活的氧气。

今天，一个惨痛的事实已经渐渐清晰……仿佛一个人在弥留之际，才猛然发现自己的家乡原来是他乡。家在哪里，等不及他想清楚，生命就松开了他的身体，弃他而去。

生命不在于肉身，而在于灵魂。灵魂在某个肉体中的居留偶然而短暂，因此，肉身担当的不过是个悲剧性的角色：容纳居留者却最终被舍弃，并在被舍弃时死去。心与身的地位悬殊，二者的命运与使命有根本差异，因而不可能真正一致。然而，对于小说中尚年轻的黛二来说，身体的欲望如此强烈、直接、真实，令她不难不认真对待，甚至暂时不顾及灵魂的指令：“精神与肉体多年来各行其是，无法沟通，一种分裂和自相诋毁并存一体。”于是，“由不忠的身体和莫测的心组合起来”的黛二不得不忍受自身的分裂：“黛二是个矛盾重重的女性，她既要解放了的现代女性的感观体验欲求，直接纯粹的身体行为；同时又无法摆脱深埋骨中的古典性的沉思冥想。她向着彼岸的圣界和此岸的感性，同时迈出她分裂的双腿。”这种分裂实际上是暂时的：如果灵魂永恒而肉身短暂，那么，二者的斗争便早已分出了胜负，人的正确抉择不言而喻。在《凡墙都是门》中，陈染曾经设想“我”的最后人生意念是：“我该上去了……。”“上去”的目的地是闪烁着圣洁之光的“天国”，是灵魂的家乡，是身体彻底缺席之所。由此可见，上个世纪90年代的身体叙事形成了一个逐渐否定身体(当然也包括其主体性)的明晰线索，以至于最终走向了反面。

4. “无头的肉身”与“无肉身的头脑”：21世纪身体写作对身体-主体的片面展示

到了21世纪初，中国文学中的身体叙事似乎发生了根本性的转折：借助于意识形态的解放和市场的力量，身体好像突然在与心的竞争中占了上风，凸显感性欲望的身体写作开始大行其道，一个出于身体、为了身体、指向身体的时代仿佛真的到来了。不过，身体意象的出场并不等于身体-主体的出场，并非任何形态的身体写作都能促成身体-主体的归位。下面，我将着重考察21世纪兴起的身体写作现象，查看身体-主体在其中的位置，反思身体-主体被敞开和遮蔽的具体缘由。

有人认为身体写作体现了狂欢的逻辑(对原有的清教徒式的禁欲主义的消解)、反叛的逻辑(个体自由对国家主义道德禁忌的反叛)、女权的逻辑(强调女性身体的在场性和权利)、市场的逻辑(基于个体选择自由的市场营销策略)。这种划分并不准确(女权的逻辑不应该与其它三种逻辑并置)，但却揭示了身体写作的解放意味。早在20世纪90年代中期，在身体写作刚刚萌芽时，陈染、棉棉、卫慧等人的写作就塑造出这样的主人公(尤其是女主人公)：他们(她们)无视禁欲主义的道德主张，肯定身体欲望的正当性，沉溺于多种形式的身体狂欢中，为长期受压抑的身体赢得了自我展示的机会。如此这般的身体写作本有可能发现、证实、敞开身体的主体性，但这个机缘到了21世纪仍未显现出来。造成此局面的原因有二：(1)部分身体写作的践行者仍未克服对灵魂理念的信仰(如陈染等)；(2)21世纪的身体写作没有展示完整的作为主体的身体。上面已经分析过第一个线索，下面将主要揭示第二点。

卫慧是世纪之交身体写作的代表性人物。在她的作品中，我们可以领受到身体全面显身的艰难。早在1999年出版的《上海宝贝》中，她就剃掉了身体最重要的组成部分——头脑。当小说中的主人公说“肉体”一词时，她几乎总是设置了肉体/大脑的二分法：“脱离了头脑，肉体还有它自身的记忆存在。”；“我张着眼睛茫然地盯着天花板，肉体的快乐麻痹了大脑知觉，夺走

了我所有的智商。”；“我曾经让自己相信一个女人的身心可以分开，男人可以做到这一点，女人为什么不可以。”¹⁵⁾ 仔细研究卫慧的文本，我发现她实际上将大脑和大脑之外的身体的关系等同于心身关系。也就是说，她所理解的肉身是无头的肉身。这种对无头的肉身的迷恋一度支配了世纪之交的某些身体叙事。在2000年度引起很大争议的“下半身”诗派，就将生命等同于下半身：

- 我们只要下半身，它真实、具体、可把握、有意思、野蛮、性感、无遮拦。
- 我们更将提出：诗歌从肉体开始，到肉体为止。
- 只有肉体本身，只有下半身，才能给予诗歌乃至所有艺术以第一次的推动。这种推动是惟一的、最后的、永远崭新的、不会重复和陈旧的。因为它干脆回到了本质。¹⁶⁾

然而，被剃掉了大脑的身体已经丧失了其完整性，无法表征人类身体的独特处——一种自我设计的主体性存在。它仅仅将身体当作欲望的具体化，忽略了身体作为主体的总体性。身体有欲望，更有理性、梦想、使命感和信仰，有对其他身体和万物的爱。性欲、食欲、占有欲不过是众多身体欲望的构成。身体永远多于它们。由于对于身体多出性欲、食欲、占有欲的部分缺乏完整的呈现，上述身体写作就只能是身体对自己的局部观照和呈现：它割裂了人的上半身和下半身，将人领受为无头的肉体。事实上，这种割裂是非法的：头脑天然地是身体的一部分，企图将头脑与身体整体分开不可能成功。《上海宝贝》中的“我”试图让肉身和头脑各行其是(头脑爱性无能但精神高贵的天天，肉体与性能力卓越的德国人马克交欢)，但最终发现自己实行的是注定要失败的计划：头脑与身体的其它部分本来就是一体。最终，天天自杀身亡，马克回到遥远的德国，“我”只能凄凉地追问：“我是谁？我是

15) 卫慧，《上海宝贝》(春风文艺出版社，1999)。

16) 沈浩波，《下半身写作与反对上半身》，载诗歌民刊《“下半身”》创刊号(2000年)。

谁?”。实际上,不知道“我是谁”是此类身体写作者的必然结局:不存在无头的人类肉身,坚持肉体/大脑的二分法只能将个体抛入茫然状态。或许是无无论修正这种致命的欠缺,卫慧在2004年出版的《我的禅》中,试图表现身心合一的爱。小说中的“我”不再游走于分别代表头脑和肉身的男人之间,而是试图专注地爱muju——一个能让性“还原成一种宗教式的东西”的日裔男子。在追求这种“带有神秘主义的关系特征”的爱情时,她强调自己作为人(尤其是女人)的存在:“写作与社交让我感受到自己作为人的存在,性,尤其是结合了爱的性,这让我感觉到自己作为女人的存在。”¹⁷⁾ 经过如此这般的蜕变,她与那些只讲性的个体拉开了距离,甚至产生了“嫁给佛”的冲动。不过,头脑与肉身的二分法仍未消失。当小说中的“我”说身体一词时,她所指的仍是无头的肉身:“快乐在身体、在头脑中堆积,像粉末一样堆积得越来越多,最终,经由大脑的性高潮足以掀翻一个太平洋。”正是这种残存的肉体/大脑二分法使意欲“嫁给佛”的她依旧无法控制“无头的肉身”:在回国后与muju分离的短暂时间段中,“我”与马克发生了性关系,然后怀孕了。如果说《上海宝贝》中的“我”最终不知道“我是谁”的话,那么,《我的禅》中的“我”则不得不在小说的结尾处不停地猜测她正在孕育的另一个生命是谁(因为她不知道其父亲是谁)。在延伸到他者身上的身份追问中,我们仍可感受到肉体/大脑二分法所带来的迷惘。这种迷惘源于一个根本性的欠缺:卫慧等人在21世纪的身体写作仍未找到自己的主体,依旧处于无根的状态。《我的禅》中的“我”试图以“嫁给佛”来消解这种迷惘,则会回到将一切归结为精神的老路(从“无头的肉身”走向“无肉身的头脑”),离身体-主体越来越远。

企图以重提灵魂来迷失、沉沦、罪责和短暂性中拯救肉身,这是卫慧在《我的禅》中表现的转向的实质。当她以“我”的口气说“嫁给佛”时,她已经开始皈依陈染等人坚守过的灵魂论,回到了部分身体写作者曾经演示过的老套路。从这个意义上讲,卫慧暧昧的回归更凸显了当代中国身体叙事的困

17) 卫慧,《我是禅》(上海文艺出版社,2004),第47页。以下所引该小说片段皆出于此书。

境：要么聚焦于“无头的肉身”，要么回到对灵魂的信仰，寄希望于“无肉身的头脑”。产生这种困境的根本原因是对身体的不信任态度。无论是强调身体的其动物性，还是把人的本质归结为精神，作家们实际上都在重复贬抑身体的古老实践(它从先秦和古希腊时期就开始了)。

5. 简短的结语

要克服上述贬抑身体的立场，我们就必须承认身体的主体性，展示作为主体的身体。身体是自我设计的主体，灵魂不过是对身体自我设计活动的不恰当命名。是身体修建了长城，开拓了运河，发明了汉语，创造出古往今来的生活，因此，身体绝非仅仅是欲望的代名词，更是建设者、思考者、承载者、关爱者。身体是文学的创造者和接受者，任何文学都是身体的文学，写作永远是身体的事业。身体在创造出实在世界的同时也创造出语言和意象的世界。文学回到身体就是回到自己的来处、本源、创造者，就是回到自立的主体。身体是主体，是内蕴着感性和理性、欲望和远大理想、细小的计划和宏大蓝图的总体，是自我设计着的目的性存在。中国文学中的身体叙事尚未发现这个真理，还没有充分展示身体作为主体的尊严。这说明真正的身体叙事在中国还有待诞生。

[参考文献]

- 尼采，《查拉斯图特拉如是说》(北京：文艺出版社，1987)
钱乃荣主编，《20世纪中国短篇小说选》(上海：上海大学出版社，1999)
刘再复，《性格组合论》(上海：上海文艺出版社，1986)

刘再复,《文学的反思》(北京:人民文学出版社,1986)

张贤亮,《张贤亮集》(北京:海峡文艺出版社,1986)

陈染,《无处告别》(南京:江苏文艺出版社,2005)

卫慧,《上海宝贝》(长春:春风文艺出版社,1999)

卫慧,《我是禅》(上海:上海文艺出版社,2004)

Abstract

The present paper is intended to analyse the body-narratives in the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under the viewpoint of subjectivist-body-aesthetics. The basic ideas of subjectivist-body-aesthetics are: man is body, body is subject, aesthetic activities is the praxis of the body-subject. From the viewpoint of subjectivist-body-aesthetics, the main weakness of body narratives in the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is that it merely presents the objectivity of body. In 1949-1976's, the grand revolutionary narratives defines the body as the tools which must servers for the ultimate goal of communism project. After 1976, the reforming and opening-up policy makes a Comparatively free atmosphere in which writers are allowed to show the beauty and desires of body. Some writers, such as Chang Xian Kiang, began to regard the body as the self-decisive subject. But the body narratives after 1990's does not develop this clues. From 1990's, Chinese body narratives differentiates itself into two trends: (1)highlights the spiritual subjectivity, insists that the body is only the impermanent house of the soul-subject; (2)reduces the body to the corporal being without head, displays the desire of the body unilaterally. Both of them deny the subjectivity of body and doesn't reveal the status ,meaning, dignity of body-subject. So, the authentic subjectivist-body- narratives is still unborn in China.

Key Words : Subjectivism; body aesthetics; body narratives; spiritual subjectivity; body subjectivity

370 · 中國學 第30輯(2008.8)

투고일: 2008. 6. 27.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21世紀中國散文作家的精神守望

李曉虹*

〈目 錄〉

1. 哲理性散文作家对生命意识的探讨
2. 历史文化散文中的现代意识和人性深度
3. 表现激变时代的苦乐人生
4. 在心灵隔膜中呼唤人间挚情
5. 在凡人小事中体现人生趣味
6. 问题与展望

中国散文在经历了1990年代的发展繁荣之后，在21世纪的8年中，有了新的发展：在内容上，对心灵与命运的叩问，对历史文化的人性发掘，对乡土与底层的关注，对亲情的深层表现，体现着新世纪散文作家的精神走向，也使散文创作拥有了众多读者。形式上较之以往的任何时代都更加自由、丰富，更充分地体现了其与生俱来的包容性特点。同时，由于散文所具有的文体特质，使其在信息时代得到了长足发展，成为创作数量最丰、作家队伍最庞大，在报刊上拥有版面最多同时也最受读者关注的文体。网络的发展尤其是博客的流行更带给散文以巨大影响，它打破了写作的门槛，解构了话语霸权，越过了评审环节，给每一个跃跃欲试的人提供了平台，可以说，

* 中国社会科学院研究员，韩国釜山国立大学客座教授。

有互联网的地方就有散文写作。散文真正成了无拘无束的自由之花，在中国大地的任何一个角落尽情绽放。

21世纪中国散文较之小说、诗歌等文体拥有更多读者，获得了新的生命力，在上述几个原因中，最重要的是在于其自身在精神上的丰富性和深刻性。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

1. 哲理性散文作家对生命意识的探讨

新世纪以来，市场经济的快速发展带来了财富，同时也带来对人的心理和观念的巨大冲击，物质发达与精神匮乏之间的矛盾日渐突出。人生处在一种极度浮躁和茫然的状态中，为生存忙碌，为物质享受奔波。许多时候，人们有意回避或无暇顾及精神问题，越来越做了物质生活的奴隶。但是，有意逃避的东西并未走远。人类生存痛苦的问题并没有解决，反而越来越强烈了。人为什么活着？怎样才快乐？生的意义何在？这些问题始终存在，而在今天，对意义的探寻，对理想的坚守已经不仅仅是一种个人主张，因为它是对物欲激增而精神衰减的状态的一种反抗，因而，增加了一些悲壮的色彩。

正是因为有人在物欲横流审美理想缺失的现实条件下，以文字守望精神高地，直接切入“生与死”、“爱与孤独”、“幸福和痛苦”、“活着的意义”、“时间和永恒”等元问题，把形而上的哲思文学化，以诗性的语言表述自己的生命意识，启发心智，净化精神，才使散文的艺术张力得以充分体现。

韩少功提出：“进步的回退”。他说：“文学永远像是一个回归者，一个逆行者，一个反动者，总是把任何时代都变成同一时代，总是把我们的目光锁定于一些永恒的主题：比如良知，比如同情，比如知识的公共交流。……生活不过是一个永恒的谜底在不断更新着它的谜面，文学也不过是一个永恒的谜底在不断更新着它的谜面”。¹⁾ 因此，文学就不仅仅是一种职业，一个饭

1) 韩少功，《进步的回退》（海口：《天涯》，2002年 第1期）。

碗，对文学的执着就不是一种功利的谋生手段，而是一种坚守，是一种坚守中的进步。史铁生看到在一些作家那里，“写作变成潇洒，变成了身份或地位的投资”，变成“比赛、擂台和排名榜”的现象时，他重温了罗兰·巴特的一句话：“写作的零度”。他说：“写作的零度即生命的起点，写作由之出发的地方即生命之固有的疑难，写作之终于的寻求，即灵魂最初的眺望”。从这些生命的也是文学的元命题出发，不过问技巧，不去派什么用场的“诚实”地写，“安静”地写，“重新过问生命的意义”，“回到最初的眺望”，“去看那生命固有的疑难”。²⁾ 张炜则把时代剧烈变动中作家的状态分为两种：一种是“山脉式的作家”，“世界对于他们是观察的对象，而不是跟从的依据”。他们“好比是山脉。不动，长存”。“另一种是流云式的作家，被风扯动，极易消散，形不成雨”。他欣赏“山脉式的作家”，希望“守住”、“不变”，“在独守独立的思索中向置身的这个世界发言，吐出了逆耳之音。环境问题，民主内容，人类技能的提高与精神萎缩的后果……冲破伦理的困惑，努力提高历史的理解力”。³⁾

有着哲学背景的周国平把他的思考聚焦在带终极性的人生问题上：诸如人、永恒及其由此幻化出来的“生与死”、“爱与孤独”、“幸福和痛苦”、“时间和永恒”等，在这种思考中表现出一种思辨性。最近，他强调心灵“丰富的单纯”，他说：“对于心的境界，我所能给出的最高的赞语就是：丰富的单纯。”“我相信，每一个精神上的伟人在本质上都是直接面对宇宙的。一方面，他知道自己只是宇宙的儿童，这种认识深藏于他的心灵的核心之中，从根本上使他的心灵永葆儿童的单纯。另一方面，他对宇宙的永恒本质充满精神渴望，在这种渴望的支配下，他本能地受一切精神事物所吸引，使他的心灵变得越来越丰富。”“与之相反的境界是贫乏的复杂。”尽管，他的精神追寻总是与日常生活语境保有一定距离，但恰恰是在这种距离中，我们看到了人类长久的守望的诗的境界，看到在物欲横流审美理想缺失的现实条件下，心灵追求的意义。⁴⁾

2) 史铁生，《想念地坛》（上海：《文汇报》2002年8月27日）。

3) 张炜，《方式和内心需要》（大连：《都市美文》2003年第3期）。

王开岭的《仰望:一种精神姿势》中执著于对星空的仰望并赋予其宗教的意义:“在我眼里,这不仅是深情的动作,更是一束信仰仪式。它教会了我迷恋和感恩,教会了我如何守护童年的品行,如何小心翼翼地以虔敬之心看世界,向细微之物学习谦卑与忠诚……谦卑,人只有恢复到谦卑,生命才能获得神性的支持,心灵才能生出竹节的高度与尊严。”他从仰望中体悟人类的神性和诗意,但却遗憾地看到:“随着技术信心的膨胀和飞行工具的扩张,人们却变得实用了、贪婪了”,“星空”变成了领地,“羡慕”变成了“占有”,精神的星空被“彻底物理化”了,这实在是莫大的悲哀!⁵⁾

周国平的《走进一座圣殿》从圣埃克苏佩里的《要塞》中读出生命的意义在最平凡的日常生活之中,但这不等于说,凡是过着这种生活的人都找到了生命的意义。“人拥有了财产,并不等于就拥有了家园。家园不是这些绵羊、田野、房屋、山岭,而是把这一切联结起来的那个东西。那个东西除了是在寻找和感受着意义的人的灵魂,还能是什么呢?”⁶⁾

南帆在《七尺之躯的空间》中面对人生的另一个难题:“七尺之躯需要多大的空间?似乎没有人说得清楚。”“东奔西走也罢,梦游八极也罢,突围也罢,守住也罢,我们至今还是不明白,哪一处是我们真正落脚和藏身的空间?”⁷⁾

刘焯园“穿越人性深雨的蛮荒”,感受“苍凉”之美。苍凉“只属于亲历的沧桑,属于几千年浸淫的血泊里,那和心灵一样无垠生长的柔暗青光—那是对苦难的珍惜,是葆有生命的完整和活力的根基”,“苍凉”是“擦拭人生青铜的冥冥之光”。⁸⁾

詹克明从植物的生命过程中感悟生命的大道理:“生命必须包含等待,没

4) 周国平,《单纯》(天津:《散文海外版》2003年 第1期)。

5) 王开岭,《仰望;一种精神姿势》(大连:《都市美文》2006年 第1期);李晓虹编选,《2006中国散文年选》(花城出版社,2006年 12月),第1页。

6) 周国平,《走进一座圣殿》(大连:《都市美文》2003年 第10期);李晓虹编选,《2003中国散文年选》(花城出版社,2004年 1月),第1页。

7) 南帆,《七尺之躯的空间》(北京:《十月》2001年 第5期)。

8) 刘焯园,《致苍凉》,林非等编选,《21世纪中国经典散文·人生百味(卷)》(呼伦贝尔:内蒙古文化出版社,2007年 10月版),133页。

有学会等待的生命就不具备生存资格”，“对生命而言，等待永远是一支瞄向‘发展’的满弓弦箭，它时时都在屏息静听，候望天命信号”。⁹⁾ 陈村在“年轻”成了“辉煌的卖点”的状态下体会“老”的意义：这时，完成了传宗接代的任务，“心中安泰”，“将人生的泡沫撇去，汤就清了”，“人的文化，由各年龄段的人共同创造，没人能划出一道界限，把线外的人一律忽略，称作废墟”。¹⁰⁾ 卞毓方的《少女的美名像风》是一首忧伤的歌，少女本来是一溪清泉，一朵山间幽香的小花，因为美丽而出名，因为出名而成为一个街心花园雕塑的原型，却又因此而遭受中伤。这实在是人生的一个悖谬，少女应当对命运说些什么？¹¹⁾ 潘向黎对于国人的求“变”之心与日本文化中“不变”的因素的考虑，¹²⁾ 林夕将女性生活中的男性当作第五只轮胎(备胎)的形象比喻¹³⁾都是以文学的方式思考着精神问题，渗入底里的总是那种人类长久守望的诗意。

2. 历史文化散文中的现代意识和人性深度

如果说，余秋雨的《文化苦旅》¹⁴⁾开创了新时期历史文化散文的先河，那么，新世纪以来，王充闾、林非、李国文、卞毓方、梁衡、李存葆、石英、刘长春、郭保林、杨闻宇、冯伟林、陈启文、王开林、李木生、张加强、筱敏、唐韵、素素、苏沧桑等一批作家的作品则共同构成了历史文化散文创作新的景观。

9) 詹克明，《生命需要等待》(北京：《青年文摘》2005年 第4期)。

10) 陈村，《人之老》(上海：《文汇报》2005年2月11日)。

11) 卞毓方，《少女的美名像》(西安：《美文》2002年 第6期)。

12) 潘向黎，《好的东西，都是不变的》(上海：《文学报》2006年3月9日)。

13) 林夕，《第五只轮胎》(北京：《中国人口报》2006年4月20日)。

14) 余秋雨，《文化苦旅》(上海：知识出版社，1992年 3月 第一版)。此书开历史文化散文先河，产生了极大影响。之后，历史文化散文的创作成为散文创作中一个重要的方面。参见李晓虹《中国当代散文审美建构》第九章第一节《余秋雨：中国知识分子文化人格的批判关怀》。

1990年代末以来, 历史文化散文曾一度走入困境。这与一些作品存在的明显缺陷有关: 一是作品中的历史叙述往往为知识所累, 很难看到作者的情怀, 本应属于背景的史料, 因着作者的引述, 反倒成了文章的主体, 留给读者的想像空间很小, 使人读起来难以喘息; 二是缺少具有现代意识的文化反省、灵魂撞击, 缺乏精神的发掘。在不少文化历史散文中, 看不到那种穿透历史, 进入人性、人生和精神家园层面的精神思索。

近年来历史文化散文创作得到了新的发展。大量新作的接连问世给历史文化散文注入新的生机。对传统的回顾, 对现代化的吁求, 对人性的思考, 对传统艺术的整理和吸收, 构成了作家们不同的写作路向, 但在作品中, 都表现了宇宙感与文化感、人生感的融合。

王充闾近年来的创作通过对历史人物的分析探索中国古代知识分子的精神问题及其历史命运, 表现出对独立自由的心灵世界的向往和对扼杀个性、制造奴性的封建统治者的明确的批判立场。王充闾2002年创作的《用破一生心》¹⁵⁾在人性深度上超过以往, 作品重在写曾国藩的生存状态: 他活得太苦、太累, 他的痛苦来源于内外两界: 一方面来自朝廷上下的威胁, 位高权重的他终日陷于忧危之中, 畏祸之心念念不忘。另一方面来自内在的心理压力, 他要时时处处戴着人格的面具, 一言一行都要维持高大而完美的形象, 同样是临深履薄般的惕惧, 从而形成了他的分裂性格。封建社会并没有先天地为有着宏伟抱负的曾国藩之流提供应有的社会地位和实际政治权力, 若要获取一定的权势来推行自己的主张, 实现立功成名的愿望, 就必须忍辱包羞、屈心抑志, 俯首甘为昏庸君主、阴险太后的忠顺奴才, 取得他们的信任和倚重; 而这是以丧失人格和一己的独立性为其惨重代价的。通过对这类悲剧人物的解读, 我们可以思考人生中的许多问题。之后, 王充闾又接连创作了《他这一辈子》、《灵魂的拷问》、《人生几度秋凉》等作品¹⁶⁾, 通过历史人物, 解读人生, 体现了思想的深度。

林非对中国文化的深入解读建立在现代意识之上, 一方面, 他渴望与古

15) 王充闾, 《用破一生心》(北京: 《人民文学》 2002年 第3期)。

16) 以上三篇作品均见《王充闾散文》(插图珍藏版)(北京: 《人民文学出版社》2007年 3月版)。

代那些心存高远、灵魂洁净的志士仁人对话，向着悠远的历史敞开心扉，寻求知音。《询问司马迁》、《浩气长存》等作品给这些遥想中的英雄注入血脉和生机，显露出作者的生命情怀和价值理想。另一方面，对于封建传统文化中的专制主义始终进行着深入批判。《古代美女息妫的悲剧》¹⁷⁾不是仅仅讲述古代美女横遭楚文王霸占的悲剧，作者批判的锋芒不仅指向权倾天下、强取豪夺，为所欲为，蹂躏美践踏美的专制君王，更深刻地联想到我们经历的那个特殊的时代：更大的悲剧在于对人的灵魂的驱遣和精神的控制。

《在卢梭铜像面前的思索》¹⁸⁾中，言在卢梭，意在对人类精神之路的深入思索。作者曾经被卢梭“人是生而自由的，却无往不在枷锁之中”，“如果没有平等，自由便不可能存在”的文字深深击中心灵，点亮理想之炬，但走过漫长的精神之路以后，却看到卢梭的局限：他把领导公民和国家的“主权者”理想化了，作者发问，“难道那些领导者在掌握了庞大的权力之后，一点儿也不会滋生出霸道与贪婪的念头来？况且是在消解了任何有效的保证措施之后，难道就不会开始走上假公济私和为所欲为的邪路？不会这样一步步地膨胀和堕落下去，成为说一不二和肆意压制别人的独裁者？”这些发问将读者的思索引向深处。《话说知音》中，作者一面感受着伯牙在失去钟子期之后的悲怆，但却想“唐突地劝慰他”，不要轻易放弃，只要坚韧地弹奏下去，一定会引出“第二个、第三个直至更多的知音”，在理解知音难觅的同时，呼唤更坚韧的“寻找”，其深意可能正在于此。

李国文从文人之死的角度切入知识分子问题。《司马迁之死》、《苏东坡之死》、《龚自珍之死》、《王国维之死》等作品从不同角度写出知识分子的命运。“封建社会中的知识分子，总是处于出世与入世，在野与在朝，又想吃，又怕烫，要不吃，又心痒的重重矛盾之中”（《李太白之死》），道出知识分子的矛盾心态。¹⁹⁾

近年来一些中青年作家的写作成为历史文化散文创作中一道新的风景。

17) 林非，《古代美女息妫的悲剧》（天津：《散文》2004年第6期）。

18) 林非，《在卢梭铜像面前的思索》（大连：《都市美文》2006年第4期）。

19) 以上五篇作品均见李国文著《中国文人的非正常死亡》（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3年4月版）。

《墨海笔记》(刘长春)、《谁与历史同行》(冯伟林)、《傲骨禅心》(张加强)、《季节深处》(陈启文)等散文集显示了历史文化散文新的面貌。这些作者出生于五六十年代,大多从事与文学无关的工作,却都有扎实的传统文功力和对文学的挚情,他们的创作作为历史文化散文增添了生机。

特别需要关注的是一些女作家的创作。她们以“诗”与“思”结合的创作对历史文化散文进行了新的诠释。筱敏是一位有独立意识的作家,她的历史散文《人牲》²⁰⁾描述史前殉葬的人的悲惨命运。这些“人”没有名字,像是大片大片没有名字的玉米,没有人注意他们的区别他们的思想他们的忧伤他们生命的分量,他们生来就为献祭准备着,“他们必须不断地献上太阳的养料——人的心和人的血”,人牲看到“猩红的血从天阶顶端流淌下来,在每一级阶石上渗开,让每一阶石丰润饱满,而后一级一级向下淌去,在每一个转角都开出一枝火焰之花来。漫空是腥鲜的气味,是生灵的气味。这是太阳神嗅之而心喜的气味,人牲知道神是怎样为自己涂抹胭脂树红的了”。“人牲”是人类历史上最残酷的存在,透过这样的文字,我们能够仅仅将眼光留在对史前文明的遥望吗?唐韵的《谁为暴力屈膝》²¹⁾受到关注,不仅仅因为作者描写了“这个”成吉思汗的生活经历、社会环境和历史背景,他的杀人如麻及铁蹄征服世界的过程,更在于她的质疑:“为什么今天的人们把成吉思汗奉为‘最伟大的英雄’呢?”,还在于她沉重的提问:“我们是否可以让生活在现代文明社会中的人们,为他们这种对暴力的向往和屈服,对生命的蔑视和践踏而感到耻辱呢?” 庞天舒的《昭君的草原》²²⁾、朱旭红的《西施是谁》²³⁾,都对人们一直沿袭的历史看法提出质疑,重新解读久远的,但是能够给人以启发的历史生活。

3. 表现激变时代的苦乐人生

20) 筱敏,《人牲》(西安:《美文》2004年 第7期)。

21) 唐韵,《谁为暴力屈膝》(天津:《散文》2002年 第7期)。

22) 庞天舒,《昭君的草原》(西安:《美文》2002年 第8期)。

23) 朱旭红,《西施是谁》(西安:《美文》2002年 第8期)。

进入新世纪以来, 社会生活方方面面都在发生着变化。表现变化着的现实生活, 成为散文的重要内容。一些作家承载“五四”传统, 关注底层历史, 关注沉默的大多数, 关注正在消失的乡村和乡村中不幸的人生, 关注普通人身上表现出的美好品质。但言说姿态与“五四”时期的一代启蒙主义文学家已经有了很大不同, 在他们的作品中体现的已经不是那种“哀其不幸, 怒其不争”的沉重, 他们已经不再把自己的作品看作是唤醒民众的“呐喊”, 而是用理解和欣赏的态度感受那些还未遭到现代工业社会解构的处于自然状态的生活, 从中发现那些让人心动的东西, 或者感受在沉默中深藏着的苦难和快乐, 或者发掘在苦难中仍保留着的闪光的精神。张承志的《与草枯荣》²⁴⁾在没有记录的历史中寻找历史。在内蒙古草原上“一次次目击平凡的生死, 它陪伴我用30年的注视, 仔细观察了一个民族肌体的自然代谢”, 这些牧民象草一样无声无息地生长、壮大, 直至死亡。但是, 这平常的生, 平常的死, 平常的消失的人, 都是生长的诗。冯秋子的《荒原》²⁵⁾、韩少功的《月下桨声》²⁶⁾、刘家科的《乡村记忆》²⁷⁾、李登建的《短工市》²⁸⁾、李雪峰《回家的花朵》²⁹⁾、阿贝尔的《一个村庄的疼痛》³⁰⁾等作品自觉地与生活底层的普通人对话。

近来, 更有《关卡》³¹⁾、《爱着你的苦难》³²⁾从打工者的角度, 诉说他们的真实境况。底层生活需要表现, 更需要用理性去击穿生活的表象, 而进入深层探寻。《关卡》中的“关”和“卡”是打工者心中的两个结, “像两个寓言与象征”, 是他们内心深处的伤口和弹片。《我和刘高兴》中的刘高兴是一个“在肮脏的地方干净地活着”的城市中从不为人关注的拾荒者中的一

24) 张承志, 《与草枯荣》(上海:《上海文学》2001年 第2期)。

25) 冯秋子, 《荒原》(西安:《美文》2007年 第1期)。

26) 韩少功, 《月下桨声》(上海:《文汇报》2004年7月14日)。

27) 刘家科, 《乡村记忆》(北京:《人民文学》2003年 第7期)。

28) 李登建, 《短工市》(北京:《阳光》2002年 第6期)。

29) 李雪峰, 《回家的花朵》(邢台:《散文百家》2006年 第8期)。

30) 阿贝尔, 《一个村庄的疼痛》(北京:《中华散文》2002年 第7期)。

31) 王十月, 《打工记事: 关卡》(海口:《天涯》2007年 第6期)。

32) 塞壬, 《爱着你的苦难》(海口:《天涯》2005年 第1期)。

员。作者直接走进这些挣扎在最低层的人们生活深处，体会他们无处诉说的冤情，“我为这些离开了土地在城市里的贫困、卑微、寂寞的人和他们受到的种种歧视而痛心着哀叹着，一种压抑的东西始终在左右我的笔。……我无法摆脱一种生来俱有的忧患，使作品写得苦涩沉重。”³³⁾ 读到这类作品，我们通常理解中的平等、自由、人的权力、人的尊严等等问题难道还只是写在纸上的词汇？哪一个有良知的人内心不会被深深的刺痛？

近年来的城市生活也在发生着重大的变化。建筑在变，道路在变，生活节奏在变，心情在变，这些变化构成了新的“都市人生”。素素的《模仿的大连》³⁴⁾、阿成的《城市寓言——走进哈尔滨》³⁵⁾、刘元举《感觉城市》³⁶⁾等作品，直接面对城市的变化，城市的特点；莫言的《陪考一日》³⁷⁾、南帆的《快》³⁸⁾、韩小蕙的《什刹海滋味》³⁹⁾等作品则呈现城市生活中的不同侧面，反映现代人的生活节奏、生活情趣、生存焦虑等千般滋味。

一批军旅作家创作了许多反映军人生活的作品。长期以来，对于战争、灾难这种大事件的整体性关注，对于军人精神风貌的整体性描述一直是军旅文学最重要的特色和亮点。军旅文学似乎只属于那些搏击疆场的英雄，那些可歌可泣的人物，那些与历史有着重大关联的宏大叙事。近年来，没有了战争，没有了硝烟弥漫的战场，生活日渐平静，军人也成为众多职业中的一种。多数情况下，军人所面临的也是大量平凡的日常生活。那种雄赳赳气昂昂的姿态、那种激烈的矛盾冲突和英勇献身的英雄主义热情似乎已没有了太多的展示天地。在日常生活情境中，军旅作家写什么，怎样写，似乎成了一个问题。每位军旅作家在这个最古老的问题面前都遭遇到前所未有的挑战。但是困境不能不说是一种机会，它使军旅作家不再作为一个板块出现。多元

33) 贾平凹，《我和刘高兴》（西安：《美文》 2007年 第8期）。

34) 素素，《模仿的大连》（贵州：《山花》 2002年 第6期）。

35) 阿成，《城市寓言——走进哈尔滨》（贵州：《山花》 2002年 第5期）。

36) 刘元举，《感觉城市》（《北京日报》 2002年1月20日）。

37) 莫言，《陪考一日》（天津：《散文海外版》 第2期）。

38) 南帆，《快》（北京：《人民文学》 2003年 第3期）。

39) 韩小蕙，《什刹海滋味》（福州：《福建文学》 2006年 第2期）。

的、散乱的、没有热点，没有中心的状态为军旅散文向个性化、多样化，向生命本体的回归提供了条件。

杨献平在《巴丹吉林的个人生活》中讲述着一个普通军官在沙漠边缘上一个小小的军营里日复一日，年复一年按部就班的日子：“我在巴丹吉林沙漠边缘的生活，飘浮在黄沙、驼迹、车辙和尘土之上，令人厌烦而又不知疲倦。我知道，这是我们必须的生命之路”，正是在这种平淡的、缺少变化的日子里，得以仔细体会冬季的漫长、春天的姗姗来迟和匆匆而去，得以从一棵树的死感到命运的不可预测，“在这片沙漠生存，我们已经将树乃至一枚小小的不知名的草，当作自己生命和生活的一部分了。它们的自然的生或是死，都可以令我们内心欣喜或是疼痛，这绝不是像报章上通常说的环保意识增强了，而是对自己生存环境的一种维护。”⁴⁰⁾ 其实，我们每一个人都生活在时间和空间的有限性之中，无论身处何地，都难以做到每时每刻都有充满戏剧性的体验，而且，对于多数人来说，更多的是平常的状态，即使是军人，在没有战争的时候，也要体会平常中的存在，平常中的自我造就和自我完成。当写作滤去了那些编造的惊心动魄的故事，生活的常态才能以最无遮拦的方式展现开来，而写作者也才能在沉思中转而向内，细心咀嚼“此在”的生活与其他生命最普遍的联系。

另一位更年青的军人凌仕江在青藏高原上“一个人的哨所”中，孤独着，向往着，做着梦，想着远方。“哨兵远离人群，军装的使命将他幽闭在宁静的哨所，幽闭在虚幻的美好中。在这里，家园成为哨兵幻想的远方。城市是远方，乡间是远方，人群是远方，甚至能看见灯火的不远处，哨兵也敏感地将它定义为远方。”（《一个人的哨所》⁴¹⁾）在这里，“远方”已不是一种实有，而是一种期待，一种人在孤寂中的心灵愿望。

王宗仁的《烟坟》⁴²⁾、王宏甲的《腰铃声声》⁴³⁾、宁明的《大海有多

40) 杨献平，《巴丹吉林的个人生活》（沈阳：《鸭绿江》2002年第7期）；李曉虹编选，《2002中国散文年选》（花城出版社，2003年1月版），610页。

41) 凌仕江，《一个人的哨所》（西安：《美文》2002年第10期），616页。

42) 王宗仁，《烟坟》（《橄榄绿》2002年第7期）。

43) 王宏甲，《腰铃声声》（《美文》2002年第8期）。

高》⁴⁴⁾等作品从不同的侧面反映部队生活。

4. 在心灵隔膜中呼唤人间挚情

人间挚情是文学作品永远的主题，一直受到读者的喜爱。尤其是在生活节奏越来越快，外在压力不断增加的现代生活中，人们有时会从心底产生对亲情的珍视。散文帮助人们重新唤起那些美丽温情中带着感伤的东西。近年来，表现亲情、友情、爱情的情感类作品佳作颇多。一些作品是进城的儿女思念远乡间的父母，其中有对童年生活的记忆，有对父母一生辛劳的感恩之情，也有对乡间习俗的切身感受，这类作品大多写得深沉而有沉甸甸的情感分量。因为这类题材不可重复使用，将一生的体验置于一篇并不很长的作品中，而且隔开了时间的薄雾回头看去，再加入成熟后的作者的思索和复杂的人生感受，就更增加了感染力。还有些表现亲子之情的作品，在远行送别或朝夕相依中闪烁出至情至性的火花，写得亲切动人，催人泪下。像这样选取了各不相同的角度，很独特地切入自己挚爱的方式，有的活泼灵动，有的深沉而耐人寻味。除此以外，也有表现出现代社会中父母与儿女之间的隔膜、摩擦与怨恨……这类作品很受关注，是因为它触及了一个最不容易绕开的话题：永远的爱与痛。

阎纲的《我吻女儿的前额》⁴⁵⁾中将白发人送黑发人的痛感写得淋漓尽致，是近年来最受关注的至情的文字。柳萌的《永远的愧疚》⁴⁶⁾中忙碌的儿女不能报答母亲深恩，甚至母亲临终也未能见上一面，这种愧疚在快节奏的现代人心引起共鸣。朱寿桐《从俗如流》⁴⁷⁾表现在乡间祭奠母亲的庸俗仪式中的复杂心情：一面是无奈，一面也似乎想从中得到一点心灵的安

44) 宁明，《大海有多高》（大连：《都市美文》2006年第5期）。

45) 阎纲，《我吻女儿的前额》（天津：《散文》2001年第6期）。

46) 柳萌，《21世纪中国经典散文·永远的愧疚》（林非等编选，呼伦贝尔，《内蒙古文化出版社》（2007年10月版），56-59页）。

47) 朱寿桐，《从俗如流》（《钟山》2001年第4期）。

慰。王兆胜在《三哥的铅色人生》中写尽一个生活在社会最底层的残疾青年悲哀、沉重而无望的人生：“如身陷泥淖，似泰山压顶，若心在暗夜，永无光亮可言”⁴⁸⁾，读之让人感叹，世间有多少这样背负苦难走过一生的普通人，多想想他们，我们便不会让自己的心在现实的享乐中漂浮起来。

公刘的女儿刘粹的《诗在你在一接父亲回家》⁴⁹⁾、孙犁的女儿孙晓玲的《摇曳秋风遗念长》⁵⁰⁾、臧克家的女儿臧小平的《短巷情长》⁵¹⁾、沈从文、张兆和的孙女小红的《奶奶在花园》⁵²⁾以大量的生活细节表现着这些文学家的动人之处。而且，作者生活在这些文学大家的身边，能够把握许多鲜为人知的细节，又受到文学陶冶，把这些大家的神采和精神世界生动地展现开来。

5. 在凡人小事中体现人生趣味

也有一些作品走向平凡与普通的人生状态，关注凡人小事，关注现代人的世相与心态。这些作品内容大多无关宏旨，谈论美食、品茶、饮酒、垂钓、狩猎、种花、养猫、养狗、衣着、花鸟、起居、雅趣及语词、典故、音乐、民俗、读书、赏乐、看画、收藏等等，已经遍及各类刊物报纸。有的报刊甚至开辟专栏，大量地披载闲适性的小品，力图在此种悠闲的情趣中消解烦恼，获得沉醉休息的片刻，从而为处于商品社会激烈竞争中的人们，提供一片宁静的憩息之地。

其中一些作品已经变成商品化和大众传媒制约下的消费文学的一部分。它的主调式表现为从崇高走向小品、诙谐、幽默、轻松之喜剧的发展趋势。追求宁静淡泊的艺术情境，情绪自然、语言亲切、娓娓道来，摆脱了那种无

48) 王兆胜，《三哥的铅色人生》（《都市美文》2005年第8期）。

49) 刘粹，《诗在你在一接父亲回家》（《随笔》2003年第3期）。

50) 孙晓玲，《摇曳秋风遗念长》（《天津日报》2003年5月15日）。

51) 臧小平，《短巷情长》（《工人日报》2004年3月12日）。

52) 小红，《奶奶在花园》（《散文海外版》2004年第1期）。

病呻吟的矫饰文风，也避开了带有悲剧性的感伤主义情调，较充分地体现了散文这种文体的本义。

闲适文化的兴起与社会文化变革有密切关系。经济占据社会生活的中心地位后，市场经济对文化的占有促成了一些新的文化现象的产生。文化消费品成为时尚，在这种社会条件下，“闲适”性作品使人在片刻中沉醉休息，为处在商品社会激烈竞争中的人们提供一片宁静的憩息之地，使传统文化中的名士精神有了新的土壤。

当然，在一些“闲适”性作品中，实际上也往往是在清闲淡泊的美学追求中渗透对生活的深度理解和深意探究。许多作品是在闲适的情绪或美的感受中，寻求指向重大命题的意蕴深度。但毕竟，散文形式、结构、语言上的特点使其以极大的优势进入现代消费，这样，文字的趣味就成为一种导引，把读者引入一片艺术世界。当然，在这一片散文天地中，既有对无序的、消闲的优雅趣味的公开追求，对怀旧风尚的迷恋，也有一种在对日常生活琐事的描绘中导引出来的对“意义”的探寻。两种不同的期待来源于对同一类文学体裁的阅读，恰恰是在这里，文学的功能得到多方面发挥。

如徐坤的《短信息的狂欢节》⁵³⁾中形容在教室里短信横飞的局面“短信息这时就象一群快乐的苍蝇，嗡嗡嗡通过数码媒介在我们的课堂里振翅飞翔。”贾平凹的《看世界杯足球赛》把世界杯写成了色彩丰富，五光十色的人生，让人感觉趣味无穷。他写意大利队与加纳队的一场比赛：“很多女性都喜欢意大利队，因为意大利队历来的队员俊朗；很多男性却支持加纳队，因为加纳队是神秘之师，希望能成为黑马。……如果说意大利是足坛上的贵族，加纳便是平头百姓，两厢争斗起来，看客们如我们的大多数便是既羡慕贵族又盼望平民能这一回把贵族灭了。果然两队是踢得激烈，人是风行，球如流星，每一个队员都是头上下雨。”⁵⁴⁾对于球队的这种比喻，对于看球人内心的描写生动传神，让读者也从文字中体会到看球的快乐。林希的《走路》从最平常的“走路”中看出人生的各种色相。“走路，千姿百态。健步如飞，

53) 徐坤，《短信息的狂欢节》（大连：《都市美文》2003年第5期）。

54) 贾平凹，《看世界杯足球赛》（西安：《美文》2006年第8期；李晓编选，《2006中国散文年选》（花城出版社，2006年12月版），158页）。

大步流星，是一种走法；前呼后拥，一步三摇，踱方步，也是一种走法；步履维艰，如履薄冰，自然又是一种走法；新穿靴子高抬脚，穷人乍富，更有一种走法。还有一种走法：‘常将冷眼看螃蟹，看你横行到几时？’，类如‘四人帮’，也很是走过几步的了。⁵⁵⁾

再如陈染的《家居琐记》⁵⁶⁾、凌力的《平民美食》⁵⁷⁾等作品读来各有生趣。

这类文体在市场化的21世纪颇受青睐，有些已经变成商品化和大众传媒制约下的消费文学的一部分。但是，当这种文学向日常生活的靠拢一旦无限度无选择时，一旦它逐渐丢失了文学的诗性品格，而仅仅成为转绕生活场所所弥漫的气氛和心情的表白，甚至成为一些作家文人生活起居的流水账簿、成为“名人打喷嚏”的记录时，它的消极性也就逐渐显示出来。

6. 问题与展望

散文收获很多，但也存在明显的问题：首先，散文的文体意识正逐步淡化、泛化，散文已经彻底地从书斋中走出，完全撕去其神秘的面纱，成为一种不折不扣的公共话语形式；散文的写作空间无限扩大，谁都在写，谁都在诉说；各种各样的文字都以“散文”相标示。其结果是淡化以至抹杀了散文文体的规定性，只要不分行，就是散文。散文作品铺天盖地，充斥于报刊的各个版面。这固然反映了文学的繁荣，也是文学大众化的一种标志，但它所带来的弊病，也是显而易见的。而泛化的结果，必然是对散文内在规律的颠覆。

其次，在散文创作中，庸俗化倾向亦是不容忽视的：高尚与低俗并存，

55) 林希，《走路》(云南：《大家》2001年第2期)；收入李晓虹编选，《2001中国散文年选》(花城出版社，2002年4月)，240-241页。

56) 陈染，《家居琐记》(云南：《大家》2002年第1期)。

57) 凌力，《平民美食》(《北京文学》2002年第1期)。

潜心创作与任意恶搞同在，以美为美与以丑为美激烈拼争。当前，一些文章注入了太多的游戏成分，充溢着水分和废话，内容稀薄，精神缺席；有的泡沫膨胀，淹没了散文诗性，粗糙、草率，缺乏美感；有的虚假造作，背离真实，使散文陷入信任危机。

再次，缺乏个性、趋向时尚化也是散文发展中的一个问题。置身于实利化、技术化的社会环境里，面对着物质、权力、市场对于人的主体性、独创性的冲击，显现出心浮气躁，个性迷失的趋向；特别是伴随着科技迅猛发展、智能化过程加速，文学写作方式、阅读方式发生剧变，各种传媒竞相追逐趣味的大众化，更在很大程度上消解了文学的个性、独特性、深刻性。反映在散文创作中，个性化缺失现象比较严重。追逐时尚，消解深度，使作品成为一种表象化、平面化的精神符号；强调话语表达的即时性和现场性，使作品成为快餐式的读物。在这种时尚化写作中，一些散文已不再成为作家表露自我意愿的特殊形式，成为作家人格精神的外露，而是一种旨在加强消费功能，以追踪时尚为乐趣，以迎合大众热衷时尚的心理为目的的文化经营行为。

在散文风头正劲，甚至形成一种令人目眩神摇的文体“狂欢”的态势中，还应守护住散文的理性思索和诗性追求，坚持内心真实与对外在世界真实感知的统一，葆有悲悯心与道德底线等基本价值。

21世纪中国散文最能引起读者注意的是散文中出现的理性色彩与深度追求。如前所述，作为对禁锢个性的散文状况的反拨，散文从书斋走向平凡人的生活，一部分作家开始关注凡人小事，关注现代人的世相与心态。也有一些作家写“小花小草”及由此触发的小感悟。但另一方面，创作中的人文精神进一步增强。一些作家将对生活的关怀升华为一种文化意识，一种精神意向，从中体现对“人”的“存在”的思考，对“人”的价值，“人”的生存意义的关注，对人类命运，人类的痛苦与解脱的探索。在这种掘进中，仍然保持着清醒的批判性。这两种路向各有其产生的当代原因，而它们共同构成了当代散文丰富的表现域界。这些散文家有的专事人文科学研究和教学工作，又有志于散文创作，力图把对人生和社会的思考倾注在自己的创作中。这些作家的创作大多关注知识分子的精神史。关注社会发展进程中的文化问题和人生问

题,追求人生智慧,有深切的终极关怀和现实关怀,体现出在特定人文地域环境中所达到的人文理想。他们在追求人类精神的内在性上与闲适散文形成对照,作家落笔或许是在一个自然景观,一段生活趣事,甚至一片叶、一朵云上,但却探究下去,努力走向宽阔与深沉,走向文化思考。作品大都笔墨散淡、蕴蓄深厚、视野宏阔,追求深度。这些作家将较多的理性内容渗透到散文创作中,探究宇宙、人类、历史、社会、人生的种种奥秘,更关注文化问题,关注中国现代化进程。他们的创作充满书卷气,将学识、智慧与文化意蕴融为有深度的创作,给人以思想的冲击。他们的创作代表了当代散文创作能够达到的思想深度。当然,问题与希望同在,只有更多的作家自觉地作为人类精神家园的守护者,散文才真正能因为其精神的深广度而得到读者认同。

[参考文献]

- 徐复观,《中国艺术精神》(春风文艺出版社,1987)。
刘岱主编,《抒情的境界》(三联书店,1992)。
陈柱,《中国散文史》(商务印书馆,1937;上海书店,1984年影印版)。
宗白华,《艺境》(北京大学出版社,1987)。
王佐良,《英国散文的流变》(商务印书馆,1994)。
俞元桂主编,《中国现代散文理论》(广西人民出版社,1984)。
王郊天编,《散文创作艺术谈》(江苏人民出版社,1984)。
郭预衡,《中国散文简史》(北京师范大学出版社,1994)。
林非,《中国现代散文史稿》(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1)。
汪文顶等著,《现代散文史论》(福建教育出版社,1994)。
百花文艺出版社编,《笔谈散文》(1980)。
林非,《散文的使命》(漓江出版社,1992)。
李晓虹,《中国当代散文史略》(台湾秀威图书出版公司,2005)。
李晓虹、王兆胜编选,《2001中国散文年选》、《2002中国散文年选》(花城出版社,2001,2002)。

李晓虹编选, 《2003中国散文年选》、《2004中国散文年选》、《2005中国散文年选》、《2006中国散文年选》、《2007中国散文年选》(花城出版社, 次年 1月)。

李晓虹编选, 《新世纪优秀散文选》(花城出版社, 2008年 1月)。

The mentality and the prospect of Chinese prose writings in 21st century

Chinese prose writings of 21st century attracted public attention. The principle reason why they got a wide range of notice is that these writings are written based on abundant of mentality and deep impression so that they were expressed in some dimensions.

Most of all, philosophical writings have attracted a lot of readers. These works brought out the fundamental notion like 'life and death', 'love and solitude', 'happiness and pain', 'life and its meaning' and 'time and infinity' under the world of just chasing ultimate object and secularization.

Historical writings also faced new waves and changes. At the first time, these pieces of works were so long to be read and separated from original emotions, so they could not help criticizing in the 1990. After 21st century, a lot of works tried affirmative changes and they reminisce the past, at the same time, they tried to embody modern consciousness and the deepness to get notice from readers.

The total changes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has represented into modern Chinese prose writings as well. Soon these writings got subjects from the lower status people as well as the city life.

The performance of 21 relatives and friends, love of prose works a lot.

In addition, Daily life and ordinary people of the state also entered the large number of prose.

Finally, some essays the question is: vulgar. false and game attitude.

21세기 중국산문의 작가정신과 전망

21세기 중국산문은 소설과 시의 스타일을 가져와 더욱 다양한 독자층의 주목을 받았다. 그 주요 원인은 이렇게 창작된 산문이 풍부한 정신과 깊은 인상을 바탕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은 몇 가지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哲理散文이 비교적 크게 주목받았다. 점점 세속화되고 심미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산문을 통해 정신적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생과 사’, ‘사랑과 고통’, ‘행복과 고통’, ‘삶과 의미’, ‘시간과 영원’ 등의 질문에 더욱 직접적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곧 산문의 방식을 통해 생명의식을 표현하고 예술의 힘을 이끌어 낸 것이다.

역사문화 산문도 새로운 발전을 맞이했다. 1990년대 등장한 역사문화 산문은 일찍이 봄을 일으켰으나 그 길이가 너무 길고, 역사사료와 작가의 개인적 정감이 유리되는 등, 비판을 크게 받기도 했다. 21세기 들어서 쏟아진 다량의 글들은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했는데,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대적 의식과 인성의 깊이를 실현해냈으며 이로써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생활을 표현하면서 산문의 제재도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21세기 이후의 중국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곧 산문에 재현되었다. 하층민들이나 보통 서민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도시민의 바쁜 삶의 속도와 인간관계의 변화는 물론 휴대폰 문자, 온라인 채팅 등이 가져온 새로운 삶의 형태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산문 속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산문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영원한 사랑과 고통도 표현한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집착은 문학작품의 영원한 주제이며, 특히 삶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때, 그리고 외부적 스트레스가 늘어만 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한데, 이는 마음 속으로부터

친밀한 정서를 바라게 된 것과도 통한다. 21세기 이래로 친정과 우정, 애정의 정서를 다룬 작품들은 비교적 많으며 이들이 역시 독자들에게 많이 읽혔다.

일반인들의 소소한 일상도 산문가들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맛있는 음식 먹기, 차 마시기, 음주, 낚시, 사냥, 화초 가꾸기, 동물 기르기, 옷 등에서부터 언어, 전고, 음악, 민속, 독서, 향락, 그림감상 등등까지 많은 글들이 다양한 잡지에 실렸다.

이와 같은 21세기 산문의 발전 과정에도 문제는 있다. 사회의 부조, 물질이익의 과도한 추구로 인해 작품들이 세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글들은 너무나 많은 흥미위주의 방법을 사용하여 허풍과 유머만 늘어나 내용은 부실해지고 정신은 결핍되게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결국 산문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하고 심미적 요소도 간과하게 되어 진실을 멀리하고 위기를 맞게 되기도 했던 것이다.

Key Words: 21st century, prose, richness, profound, vulgarization

투고일: 2008. 6. 27.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九十年代都市小說的敘事策略整體回眸

侯 穎*

〈目 錄〉

1. 緒論
2. 論文從三個方面論述了對90年代都市小說的整體敘述策略的評價
 - 2.1. 初現“個人寫作”和“欲望化寫作”的“日常化敘事”特點引發爭議
 - 2.2. 美學傾向凸顯：經驗敘事和非虛構化；零亂、雜碎和無序；循環
3. 總評“新生代都市小說”的缺憾：由作家精神厚度的欠缺而導致的缺陷
4. 總論

緒論

曾經的90年代“新生代都市小說”終於在喧器一時、備受爭議的氛圍中塵埃落定了。回眸這一文學現象，總述90年代都市小說的敘述策略，一方面希望能對作家作品做一客觀公正的評述，同時也希望能夠為當下的創作提供可供反思的樣本。本文將從三方面具體論述對90年代都市小說整體敘述策略的評價。

正文

* 釜山外國語大學 中國語學部 教授(houying_1977@163.com)

一、初现“个人写作”和“欲望化写作”的“日常化叙事”特点引发争议

20世纪90年代中国的都市化进程突飞猛进，与此相对照，中国新时期文学的创作在步入90年代以后也悄然发生着变化：一批游离于主流意识形态之外，鄙夷并放弃宏大叙事，从个体生命体验出发，采用日常化叙事书写现代人在都市社会中欲望的追求、困惑的心理和人生的挣扎和无奈的都市小说登上文坛。他们以其“性趣盎然”的欲望化叙事和日常化的叙述策略，成为90年代招致文坛评议颇多的创作群体。并且，在他们笔下，对日常生活的奇迹性发现和集中书写，不仅曾经使人耳目一新，而且升腾为一种美学原则，值得我们对此作一番回顾。

在20世纪中国，英雄/凡人、世俗/崇高、日常/超日常之间互为否定、互为欲望的张力，产生的是一种富于节奏性、诱发性的焦灼状态，在某种程度上决定了20世纪中国文学的发展流程和20世纪中国作家的心路历程。很多时候，在西方启蒙思想的云翳下，世俗性沦为整体性宏大叙事的边角料，甚至是“现代性”的总体话语予以征服围剿蚕食的柔弱对象。殊不知在现代性的内部，始终存在着一个难以化解的矛盾。现代性对未来和过去的狂热追求都以一种英雄主义的、宏大的整体性的冲动来超越日常生活，但其伟大的追求目标仍然是非神性的世俗日常性，只是它更为合理、更有效率而已(以伟大追求平凡)。比如帕斯就认为，现代性是与现实混在一起的，“现时是现代性顶端最新的花朵”，“现代性不在我们之外，而在我们内部”。也有学者认为存在着两种现代性：政治现代性和文化现代性。政治现代性强调日常生活改造，力图使日常生活超越非现代性的桎梏，变成一种新生活方式；而文化现代性则反对一切意识形态强权压抑，维护日常生活的诗性内涵，还一个活泼泼的民间社会日常生活。但两者的力量对比悬殊，政治现代性牢牢占据上风，于是日常生活改造尤其是知识分子的日常生活改造成为20世纪中国文学的显在主题。正如丁玲所述：“我们的日常生活在上边，是脱离群众的，而我们又写下去的这些人，因此要下去。于是写作之前就先下去生活几个

月。”²⁾

我们是否应该对日常俗世生活讳莫如深？还是让我们先看看一些大师是怎么对待日常的吧。在《审美特性》中卢卡契开宗明义地指出：人在日常生活中的态度是第一性的。“人们的日常生活态度既是每个人活动的起点，也是每个人活动的终点。这就是说，如果把日常生活看作是一条长河，那么由这条长河中分流出了科学和艺术这两种对现实更高的感受形式和再现形式”。³⁾ 由人们的日常生活，卢卡契既历史发生学、又逻辑系统学地推演出审美特性。他批评海德格尔忽视了日常生活的“进步性”，把日常生活看成“完全由使人畸形的异化力量所支配”的“毫无希望的没落领域”⁴⁾，并且提醒人们关注日常生活“作为人的行动中的认识的源泉和归宿的本质性”，理解“日常性的本质和结构”的丰富性，以及“艺术对现实的全部丰富性”。米兰·昆德拉也说，小说作为艺术不是别的，它正是对被遗忘的存在的探寻。它以自己的方式，通过自己的逻辑，一个接一个地发现了存在的各个方面。由此可见，文学的一个重要职责就是维护人类生存的丰富向度。文学现实生活本身的叙述，既有对日常生活本身的批判，也有对日常生活的诗性发现，以及对全部的感性和本质的丰富性的显示。

为日常叙事奠定基调的是“新写实小说”。它以还原生活的原生状态为旨趣，拥抱零度情感，“只做拼版工作，而不是剪辑，不动剪刀，不添油加醋”，力图呈现“当下此时的真实”。不过新写实的“日常”并不彻底。它立足于生活之外描写日常生活，承诺了作者和读者可以获得一个超越的、外在于日常生活的“点”，这个点乃是一个观察者位置的确认，也是可能对之进行超越的期望。作家通过对于世俗性的描写来完成对于世俗性的逃遁和闪避。在现代化的蓝图逐渐临近之时，90年代都市小说家将新写实开辟的日化审美情趣铺展开来，承认现存生活世界的第一性地位，在那些最平凡普通的日常生活中，找到了叙事空间，把日常生活作为独立的写作领域，拆除所有精

2) 丁玲，〈到群众中去落户〉，《生活·创作·修养》（人民文学出版社，1981）

3) 卢卡契，《审美特性》（第一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6），p.1.

4) 卢卡契，《审美特性》（第一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6），p.35.

神性的装饰，以日常生活逻辑消解价值的理想状态，从日常生活层面剥露了政治现代性的虚幻和缥缈。作家李洱认为现代艺术就是从日常生活开始，“能否对日常生活做出准确的文学处理，对小说家来说，一直是极富挑战性的工作”，“日常生活是个人、权力和历史相交错的最真实的地带”。⁵⁾ “‘存在’和日常生活如同圣父和圣子，推演出小说的魂灵”。⁶⁾ 他们走向现实，认同日常，放弃传统美学从生活之外的超验立场睨生活的观察方式，选择从日常生活的阡陌之内体认生活的如是性。从对永恒终极的生活意义的寻求转向对人生此在酸甜苦辣的感知与描摹上，在外部世界的压力和人的张力之间寻找可靠的界面。日常生活世界就是人类生存的“非预设性”的自在状态，他们的日常生活特征明显，渴望“一种无法抗拒的颓废力量”(棉棉《啦啦啦》、《一个矫揉造作的晚上》)，“对一切都有热情对一切又很快厌倦”，“这种日常生活就是毫无诗意的一种繁琐，绝对不是生活的本质，而是悬挂于强大的生活之流上方的恍恍惚惚的东西”(《象卫慧那样疯狂》)，“我们是想干点什么，可我们什么也干不了”(周洁茹《我们干点什么吧》)。这是一种尼采所言的“酒神状态的迷狂”：“它对人生日常界限和规则的破坏，其间，包含着一种恍惚的成分，个人过去所经历的一切都淹没在其中了。这样，一条忘川隔开了日常的现实和酒神的现实。可是，一旦日常的现实重新进入意识，就会令人升厌；一种弃志禁欲的心情油然而生。……由于他们的行动丝毫改变不了事物的永恒本质，他们就觉得指望他们来重整分崩离析的世界，乃是可笑的或可耻的。”⁷⁾ 他们以放言无忌的疯狂和喋喋不休的诉说拆解了小说的规则，爱不释手地玩味、咂摸着相对有限的日常经验。对日常生活的亲和感使他们采取了一种低姿态的精神飞翔，把世俗性和日常性设为人生的底子，对于一切有悖于日常生活的内容和逻辑观念的理想状态，一切神圣的“浮文”抑或神话进行消解的倾向。邱华栋在《手上的星光》中如是说：“以当下为 主流精神，以欲望为核心”，其创作构成了90年代物化现实生活的形象注

5) 李洱，《自画像之二》(集体作业)(中国广播电视出版社，1999)。

6) 李敬泽，《让小说丰饶快乐》(集体作业)(中国广播电视出版社，1999)。

7) 尼采，《悲剧的诞生》(三联书店，1986)，p.28。

脚。就连颇具浪漫情怀的张欣也曾深有感触地说：“我实在是一个深陷红尘的人，觉得龙虾好吃，汽车方便，情人节收到鲜花便沾沾自喜；当然我也对沦落街头的人深表同情，对失学儿童捐款热心，痛惜妙龄女郎因物欲所惑委身大款”，“广州实在是一个不严肃的都市，它更多化解了我的沉重和一本正经。”⁸⁾ 卫慧在《像卫慧一样疯狂》中写到：“所谓的幸福不也就是对痛苦烦恼的遗忘吗？要的就是这种遗忘。”“我们的生活哲学由此而得以体现，那就是简简单单的物质消费，无拘无束的精神游戏，任何时候都相信内心冲动，服从灵魂深处的燃烧，对即兴的疯狂不作抵抗，对各种欲望顶礼膜拜，尽情地交流各种生命狂喜包括性高潮的奥秘，同时对媚俗肤浅、小市民、地痞作风敬而远之。”作家一半在文学中，一半在生活中，总是把日常生活情绪带进小说，棉棉说“我写不好作品是因为我总是控制不了我的激动可我为什么总是那么激动呢？”此类倾诉凸现的是一种把生活艺术化，艺术生活的整体状貌。

二、美学倾向凸显：经验叙事和非虚构化； 零乱、杂碎和无序；循环

在日常生活之内体认、感知、描摹生活的审美旨趣决定了90年代都市小说呈现出如下的日常格调。

1、经验叙事和非虚构化的美学倾向。

在以日常生活为诗性纬度的都市小说里，精神性、超验性被视为虚妄的彼岸或未来，只有个体的唯一性、不可重复性以及确实的生存感，才是无可争议的现实存在。于此裸露出强烈的自恋倾向，作家逃避现实周遭的无限可能性和多样丰富性，而把视界圈定在一己之身，多倚重作家自己在现实此在的遭遇和感想，间或亦改头换面。作家把世界看作自身的投影，其个人的生活经验和情感追求与作品中被关联的对象世界完全融为一体。在文本的显性

8) 张欣，〈深陷红尘，重拾浪漫〉，《小说月报》(1995-5)。

层面，作家、人物和叙述人三者局于一体，自说自话，建构一种互文性。因此，多数作家有意偏离巴尔扎克所述的“它的双脚在地上行走，他的脑袋却在行云驾舞。”拒绝虚构，淡化有关日常生活的想象和想象的日常生活，而回到生活现场，回归经验常识，实录自我经验。在这里，以陌生人的视角，写一些外来户在都市红尘中扩张的世俗欲望以及颠沛流离、左冲右突的生活方式。因为欲望凸凹，他们孤注一掷；因为后天闯入，他们无依无靠。无根的漂浮焦虑是他们困厄境遇的情感底色。而这种悲怆的情感感悟在这些文本里既是自足的一体，又是被膨胀和被延伸的。它是邱华栋本人在现实中过剩的情感体验的宣泄。因为红尘内的作者本人体认的同样是攻守失据的尴尬和无奈。邱华栋曾经不止一次的表白过，“在这座见到钱才能眉开眼笑的城市面前，我口袋空空”，因为还无法进入城市内部，不时遭受都市的挤压，所以他总在城市边际寻找、冲击，“像某种呕吐物那样，在城市的口腔和牙齿间流动不已”，并“打算靠写作挣钱与成名”。这种体验的蚀骨铭心，使邱华栋往往不能自抑，于是一种类似“自元”和“自涉”的创作手法涵括了他几乎所有的写作，大写特写所有关于城市的观感、情绪和议论。同时对大信息量的肆意追求与填塞，使其小说趋于接近新闻，“小说、新闻和自传诸文体间日益流行的互相渗透不容置疑地表明许多作家已感到要保持艺术创作所不可或缺的与自己的距离已越来越困难了。”⁹⁾ 作家下降为物使得文学的虚构意识和批判立场成为妄谈，这正体现了90年代生活艺术化、艺术生活化的整体性征。

棉棉在《告诉我通往下一个威士忌酒吧的路》袒言：“我把我仅有的那点故事都变成小说了，其实我向来反对女作家写真人真事，但是写作确实没有赐予我虚构生活的权利。我费尽心思在我的故事里寻找感觉，毁灭性地找，企图化腐朽为神奇”。丁天在《饲养在城市的我们》里说：“面对往事我无法不动声色，既然动了色，小说必须的虚构又让我内心感到不安，于是抛弃了虚构，没有了虚构，我就无法成为全知者，一切几乎都成了‘我所不能了解的事’。……严格说来，这更像事一篇抒情回忆散文。虚实无度是小说

9) 克里斯多夫·拉斯奇，《自恋主义文化》（上海文化出版社，1988），p.17.

大忌，但我想小说和生活比起来是不重要的，犯忌就犯忌了吧。”卫慧在《上海宝贝》后记里如是写到：“这是一本半自传体的书，在字里行间我总想把自己隐藏得更好一点，可我发觉那很困难，我无法背叛我简单真实的生活哲学，无法掩饰那种从脚底心升起的战栗、疼痛和激情，……”因而，一些读者按图索骥地企图管窥作家隐私实在并不是什么空穴来风，原因就在于这些作家无保留甚至是有意识地炫耀、照亮自我经验。连主张和秉持“虚构生活”的朱文都不容回避：自己“一半在小说中，一半在生活中”，“我写‘小丁’的时候，有时有等同的感觉”。

总之，有关日常生活的虚构和想象让位于关于人生此在的现场叙述。

2、零乱、杂碎和无序。

都市作家生活流的叙事方式使得日常生活的边角纤毫毕现。日常生活是人类生存的一种自然本色的“非预设性”状态，日常叙事疏离古典文学里预设的整体性人格在叙事中的绝对地位，关注笼罩在自然观念之下的日常生活世界处于常态分布的事物与现象，关注各种各样人的生存状况，具体历史，个体经验，人的现世的感性冲动、世俗欲念等等，并从人的意识层深入到潜意识层立体展示人的存在维度。在他们的城市素描中，时间的整体性被切割成没有任何内在联系的碎片，日常生活只维系于此在的只鳞片爪上，既没有过去也没有未来。有关世界发展的因果性链条、必然率被他们当作虚假的神话而嘲笑的体无完肤，进入他们视野的都是一些偶发的故事和场景，而人类在此尽兴抑或无奈的“活着”。何顿在《局部》中说：“人是生活在局部中，生活在自己的碎片中，不是吗？”其不加修饰的叙事方式，带着生活原生态的热烈和躁动，逼真地展现了粗鄙、毛茸茸而又生气勃勃的日常情景。同样，朱文也是这样一位出色的摆弄“小事的高手”，他总是信手拈来，涉笔成趣，在时代的标志性符码和鸡毛蒜皮、家长里短之间，尤其偏爱后者。他表现的世界作为残缺的局部和细节在一分一秒存在，让生活在放大镜的视角下凸现其藏污纳垢的毛孔和纹理。从而使“全部的社会生活都在其最古怪、最细微末节的层次上”得以再现。¹⁰⁾ 《小羊皮纽扣》写小丁上街去买一枚纽扣，“那是他今天的生活目的，他的理想。”但当他进入商场后，却很被动地随着

人流到处走动，盲目的漫游持续了一个钟头之后，他才恍然想起：“噢，我原来是来买纽扣的。”《傍晚光线下一百二十个人物》里，朱文干脆采取场景拼贴的方式，捕捉傍晚光线小人物们影子一般的生活。而在《什么是垃圾，什么是爱》中，朱文津津乐道于人物之间歇斯底里的、无休无止的扯皮和吵闹，甚至翻来覆去地状写“小丁”的湿疣。由此看来，日常叙事的形象主体不再是一连串的情节，而是一堆细小的生活景象，不是情节的河，而是细节的网、生活的网，作者在看似漫不经心地提炼的基础上利用情节线索为生活细节结网。然而，这些细节不再如传统美学认为的具有画龙点睛般的效果，而只是现世生活本身呈现的样子，是其零散性、随即性和无序性使然。

让我们再来看刁斗小说《证据》中的一段话：

青青和铁军是一家人，到目前为止，他们依然一个是妻子一个是丈夫。出任妻子和丈夫的角色，对于他们两个来说，尽管都不能算历史悠久，但也绝非是新官上任了。我们暂且可以把他们的婚史规定为7年：超过了五年但又不是十年，恰好适应于某种情绪的生成。实事求是地讲，一个建立了七年而又没有孩子的家庭，的确很容易呈现出一种意趣了无的苍白与单调来，起床、洗漱、草草用餐、匆匆地上班、投身于同样无所事事的工作、下班、去市场买菜、进厨房做饭、在厕所的莲蓬头下洗澡、上床做爱、睡觉，只需浏览一下这每天按部就班的作息时间，产生乏味透顶的感觉在所难免。炮弹的生活里没有故事。他们偶尔也会为一些琐事发生口角。比如铁军的裤衩换下来三天了青青也没有洗，比如青青患感冒的时候未能即使买回适口的水果，比如青青出门时像哺乳的妇女那样忘记了戴乳罩并且腋毛也越长越黑越长越密可她却不穿坎式背心，比如铁军在逛街时眼睛总是极不安生的瞄在其他女人的身上同时还满脸幸福地向距他最近地陌生女人抽动鼻翼以吮吸某种新鲜的体味……但这实在算不上什么特殊的故事。

这里没有出现现代性对主体性的伟大承诺，却强调了日常生活对于所有

10) 弗兰克·伦特里契亚，〈福柯的遗产：一种新历史主义？〉，《最新西方文论选》（漓江出版社，1991），p.465.

人的具体性与不可逃避性，在日常生活的平庸琐碎、暧昧含混处制造意义空框，扼杀思想的浪漫。正如蔡翔所言：“日常生活对于主体性的侵蚀或者修正，意味着事实——价值的日渐分离，理想与激情悄然远逝，个人在‘事实’的困窘中，不得不收敛起自我的浪漫想象，主体性玫瑰般的精神性笑容以及它的偏执和狂妄在此受到日常生活的无情嘲谑。”¹¹⁾ 这些作家都是把人生往小处做的，从无意义之中发掘意义。在这个严重匮乏生活情趣的年头里，他们只需要一点材料，便可使之焕发出光彩。作家之手把握着一把把大锯，半开玩笑半认真地切割着生活点滴之米粒，这是一个很让作家自己感动的过程。

3、循环叙述。

这里的循环叙述既指一些都市小说中呈现出来的一种叙事方法，同时作为一种“有意味的形式”，它又指涉着一种精神症候。

日常生活的重复、单调与机械结成的厚茧在消磨主体性之际，也同时必然造成反抗和逃避日常俗世生活的诗性冲动。也许连逃避的方向人们都不甚明了，不过在内心里他们却清楚地知晓此在此时此地不值得去守望。于是，他们虽盲目却孤注一掷地去探寻彼岸生活的多重可能性。这种逃避与奔跑注定了是在迷宫中的左冲右突，是一种回环往复，带有一种冥冥般的宿命色彩。正若东西取名之意：在东奔西跑中东张西望，在东张西望中东涂西抹。于是，他们对“出去”这个字眼有一种“特殊的感应”，并热望选择“出去”这种方式。“出去”具有“特殊的魔力”，“暗示了一种解脱的方式”，体现着一种个体的本体论立场。“是要出去了，不是离开落城，而是离开自己”，鲁羊《出去》中的马老师如是说。就象一个手里攥着票却没有合适位子的乘客，他不满足现实庸常的校园“围城”生活（“我们怎样才能把屋子改造得可以居住呢？”），时时有一种偏执的走“出去”的冲动，幻想着出去转转。可是何处是安身立命的归宿呢？事实上马余是无处可去的，如影随形无处不在的俗世的挤兑，使马老师等的生命流变颇似鲁迅笔下的吕纬甫，“蚊子”般地“飞了一

11) 蔡翔，《日常生活的诗性消解》（学林出版社，1996）。

个小圈子，便又回来停在原地点”，最终通过酩酊大嘴而虚拟了一出从自己“出去”的闹剧。金海署《找个温暖的地方》较为典型地揭示处日常生活界限里精神的困境。在日常生活的无聊、混乱、被侮辱、被遗弃的状态中，郁积已久的主人公选择了“在路上”的抵抗，但路上和家里貌离神和。他试图解决问题，问题反而更加尖锐，琐屑与无聊感再一次占据了其身心，以至于他不由得诘问自己：我是谁？想做什么？在做什么？为什么要这么做？于是一次理性的调整变成了非理性的疯狂逃窜，渴望回家的念头挤兑了出走的初衷。正如朱文在《如果你注定潦倒至死》中所写：“关键是在外面就没有谋生的心情，那是一种意外的生活，违背常规但是好象感觉是被允许的，同时自己心里也清楚，迟早还是要回到这里来，回到原来那些问题中，逃不掉的，而且也不打算逃掉。”在俗世之厚茧中，人们命定无处可逃。人物心理和行为的如此循环嘲笑了在路上的文学想象，打破了占据我们心灵已久的存在主义哲学命题，强调自我选择和看重过程的观念已无法解决现实难题。还是弗兰兹·卡夫卡之言切中肯綮：“你可以逃避这世上的痛苦，这是你的自由，也与你的天性相符。或许，准确地说，你惟一能逃避的，只是这逃避本身。”霍可海默和阿尔多诺在《启蒙辩证法》中也如此论述：“摆脱和逃避日常生活就像私奔一样，从一开始就决定了，一定会回到原先的出发点。”¹²⁾ 作为俗世尘网网住的猎物，人物行为周而复始、凝固恒常、甚至无休无止同样使得日常叙事呈现出封闭性，整体叙述凝滞、缓慢而重复。《什么是垃圾，什么是爱》的开头和结尾毫无二致，都描述了小丁呆在酒吧里的昏昏然。此外，诸如如此这般的例子不胜枚举，象魏微的《从南京出发》等。

三、总评“新生代都市小说”的缺憾： 由作家精神厚度的欠缺而导致的缺陷

在文学史对日常生活叙述一直阙如的既定前提下，90年代都市小说奇

12) 马克斯·霍可海默，特奥多·威·阿尔多诺，《启蒙辩证法》（重庆出版社，1990），p.13.

迹性地发现了日常生活界限，对之做出有力的反驳。90年代都市小说家投身此在现实生活，通过对90年代日常现实的洞幽烛微地发掘、勘察，以建构生命存在的方式确立了小说写作新的可能性，极大地拓宽了写作对象，使日常叙事和其他叙事方式一道共同承担了文学的历史使命。同时，它的解魅姿态使得日常生活本身的丰裕多姿得以摆脱各种集体性幻象的遮蔽，而获得多视角的再现，于是文学与现实、与读者之间的沟通和全面对话由可能变成现实。

日常叙事尽管如此功莫大焉，但是作家在实际操作过程当中还暂存着不少缺憾，兹简要归结为以下两点。

首先，作家视阈过于狭窄，导致日常生活的严重格式化。本来日常生活是敞开着的，然而他们却人为地简化、过滤了这种多样性，把时空极度浓缩成为一个点，一个没有规定性的此在。这样既失去了对过去的依傍，又没有对未来的承诺，仅仅写出了此在有限性，而对现实中间所蕴藏的一触即发的无限可能性却漠然置之。“小说不研究现实，而是研究存在。存在并不是已经发生的，存在是人的可能的场所，是一切人可以成为的，一切人所能做的。小说家发现人们这种或那种可能，画出‘存在的图’。……因此，人物与它的世界都应被作为可能来理解。”¹³⁾ “小说精神是持续性的精神：……但是，我们时代的精神却固定在现实性之上，这个现实性如此膨胀，如此泛滥，以至于把过去推出了我们的地平线之外，将时间缩减为惟一的当前的分秒。小说被放入这种体系中，就不再是作品(用来持续，用来把过去与未来相接的东西)，而是象其他事件一样，成为当前的一个事件，一个没有未来的动作。”¹⁴⁾ 坚硬的现实质地如附骨之蛆吞噬着作家心智，使得一些人画地为牢而削弱了对日常生活的想象和评判。于是，日常生活被简约为吃喝嫖赌，在重复之中难有螺旋上升的展现。让我们遥想一下张爱玲：其小说表层叙述的是日常琐事，但是规则化、按部就班的叙述不时被打断，使得被叙述的日常生活出现缝隙，人物于一瞬间从这缝隙中瞥见的黑暗和感受到的空

13) 米兰·昆德拉，《小说的艺术》(三联书店，1992)，p.42.

14) 米兰·昆德拉，《小说的艺术》(三联书店，1992)，p.18.

虚与恐怖，有可能一下子淹没所谓的正常生活，原本日常生活中隐藏的问题一下子裸露出来，于是，日常向非日常的转化提携着人物、叙述者甚至作家的情感思想一并涌出，造成所谓的“震惊”体验。然而90年代的都市小说家鲜有人能够达到如此效果(也许朱文等几位例外)。

其次，日常叙事为一些人所诟病或不齿也缘于一些作家超验性精神关怀的缺席。写作过程缘于异己力量的想象性存在，是作家心灵的探寻之旅，也是作家自身的精神增长过程。但是一些作者一方面自认俗人、沉迷于世，无力拒斥现实的诱惑而恣肆认同日常、享受生活，以没有超拔和提升的话语来参与和扶持着世俗价值体系，把世俗的本真理解为艺术的某种终极目标，另一方面又把日常叙事本事看作是日常经验本身的延续和完善化，把美的超越性归结到经验层面，从而丧失了一个作家在与现实保持必要距离时所可能获得的深度。这即是丹尼尔·贝尔所竭力抵制的“距离的消蚀”。因为这反过来又“意味着一个人失去了对经验的控制——即退回来同艺术进行‘对话’的能力。”¹⁵⁾ 日常叙述不仅是情感的，同时还是心智的，因此，在幽昧的日常生活中，作家一定要保持反抗常规的激情，一种对有限置疑、批判的立场，加强思想深度，加强个人与自身的历史、与社会的复杂性关系的描写，摆脱过分平面话的叙述。对日常说话，不是简单倒退到自然主义，而应该在拒绝先验本质强加给日常的同时，在多元性的意义上，给出日常丰富而生动的存在。在冲破一般的日常性幽闭状态的同时，使这一叙事堵塞着一切向模式化的欲望情绪流转换的裂口，从而逼近经验的真实和存在的困境。

总论

总而言之，90年代都市小说的整体叙述策略可总述为“个人写作”和“欲望化写作”的“日常化叙事”。作家从日常生活角度为读者呈现了90年代都市人的生存境况，其对日常生活的奇迹性发现和集中书写，不仅曾经使人耳目

15) 丹尼尔·贝尔，《资本主义文化矛盾》(三联书店)，p.166.

一新，而且升騰為一種美學原則，在文學史上留下了只屬於自己的足跡。

但是，無容置疑，90年代文學的日常化敘事明顯帶有“去意識形態”的功利動機。在某種意義上，“日常化敘事”所針對的正是梁斌、柳青所代表的五六十年代文學的“宏大敘事”，同時帶有徹底解構“新時期”以來文學成規的意圖。正是對這些“成規”的顛覆建立了90年代“日常化敘事”的言說權利。“日常化敘事”具有自己的歷史規劃和文學訴求，但它存在着致命的文化宿命，因為某些作家精神厚度的缺失，它仍然是一種“姿態”性的“寫作”。它其實還是在重蹈五六十年代文學、“新時期文學”和“尋根文學”的歷史復轍，越是激進地反“傳統”，越是顯露出某種“姿態”上的藝術功利性。

[參考文獻]

- 丁玲，〈到群眾中去落戶〉，《生活·創作·修養》（人民文學出版社，1981）
- 盧卡斯契，《審美特性》（第一卷）（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6）
- 李洱，《自畫像之二》（集體作業）（中國廣播電視出版社，1999）
- 李敬澤，《讓小說丰饒快樂》（集體作業）（中國廣播電視出版社，1999）
- 尼采，《悲劇的誕生》（三聯書店，1986）
- 張欣，〈深陷紅塵，重拾浪漫〉，《小說月報》（1995-5）
- 克里斯多夫·拉斯奇，《自戀主義文化》（上海文化出版社，1988）
- 弗蘭克·倫特里契亞，〈福柯的額遺產：一種新歷史主義？〉，《最新西方文論選》（瀛江出版社，1991）
- 蔡翔，《日常生活的詩性消解》（學林出版社，1996）
- 馬克斯·霍可海默，特奧多·威·阿爾多諾，《啟蒙辯證法》（重慶出版社，1990）
- 米蘭·昆德拉，《小說的藝術》（三聯書店，1992）
- 丹尼爾·貝爾，《資本主義文化矛盾》（三聯書店）

[中文摘要]

90年代都市小说的整体叙述策略可总述为“个人写作”和“欲望化写作”的“日常化叙事”。其对非诗意日常生活的发现和集中书写，升腾为一种美学原则。其特征表现为：非虚构，循环叙述和零散等。而文本之失误多缘于作家自身精神厚度的欠缺。

關鍵詞：日常化叙事，非虚构，循环叙述，零散，精神厚度

투고일: 2008. 6. 26. 심사일: 2008. 7. 20.~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증가요인에 관한 연구*

권진택**

〈 목 차 〉

1. 서론
2.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제소의 내용과 특징
3.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의 배경과 요인
4. 결론 및 대응방안

1. 서론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WTO에서 엄격히 규제하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반보조금 관련 조치나 세이프가드 등은 그 적용이 어렵거나 상대국가의 보복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반덤핑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¹⁾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출한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자국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하는데,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기성회 해외중기연수 지원에 의한 것임.

** 진주산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kwonjt@jinju.ac.kr)

1) 郭華, 〈中國的反傾銷現狀與對策〉, 《外貿經濟 國際貿易》 7(2001), 44-46쪽; 唐震, 〈WTO與反傾銷內在關係的探論〉, 《外貿經濟 國際貿易》 7(2001), 49-52쪽.

이러한 관세인하는 2006년 현재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관세인하는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산업경쟁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의 피해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에 제정된 GATT의 반덤핑규약 중에 덤핑 존재 사실의 해석 적용이 지닌 모호성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자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GATT 제VI조 및 동조의 이행협정에 해당하는 WTO 반덤핑협정을 새로이 체결하여 각국이 이에 따른 반덤핑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동협정의 반덤핑 발동요건은 명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구(舊)대외무역법의 30조와 32조에서 규정한 반덤핑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1997년 3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 11월 26일자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개정된 반덤핑 조례는 기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의 조례를 보다 세분화시켜 반덤핑 6장 59조, 반보조금조례 6장 58조로 각각 규정하여 구조에 비하여 많은 내용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중국 국무원의 기구개혁으로 반덤핑조사를 비롯한 무역구제 관련기관이 변경되었다.²⁾ 이에 따라 기존의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던 반덤핑 조사기관들이 상무부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을 새로이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2) 반덤핑 조사기관은 덤핑조사를 외경무부가, 국내산업피해조사를 국가경무위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였으나 2003년 3월 국무원의 기구개혁으로 반덤핑 조사를 비롯한 무역구제기관이 새로 출범한 상무부로 일원화되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张立荣, 《中外行政制度比较》(商务印书馆, 2002.5), 399쪽, 402쪽, 404쪽, 407쪽 및 중국 국무원이 제공하는 행정조직도 (<http://www.mofcom.gov.cn/qtbwzfwz.shtml>)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반덤핑조례를 재개정하여 반덤핑법을 전략적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할 체제를 정비하였다.³⁾

실제로 중국이 반덤핑법제를 제정한 1997년 이후부터 2004년 12월 현재까지 수입규제조치는 총 34회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이 취한 반덤핑 관련 규제조치의 주요 대상 국가는 한국(24회), 일본(19회), 미국(1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외국에 취한 반덤핑 조치의 연도별 품목을 보면 반덤핑 법제가 제정된 1997년 초기 신문지에서 냉간압연연구소강판 등의 산업에서 2004년 12월 현재 중화학제품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반덤핑법제의 제정이후 반덤핑 조치가 계속적으로 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품목 또한 단순 가공제품에서 중화학품목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03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 관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17.7%를 차지한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이처럼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막대한 한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중 반덤핑조치의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의 조치의 주요 요인을 찾고 한·중 반덤핑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제소의 내용과 특징

2.1. 제소국가 및 제소건수에 대한 특징

2005년 1월 현재 한국의 불공정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의 조사에 따

3) 이정표, 손성문, <중국의 개정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2005 전국무역학자대회 발표논문집》(무역학회, 2005. 8), 2쪽.

르면 한국이 외국에 취한 반덤핑 제소국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들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게 취한 145번의 반덤핑 제소 중에서 반덤핑제소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31회)과 일본(30회), EU(30회)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편중되어 반덤핑 제소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반덤핑조치 품목 및 대상국가

번호	품 목	대상국	조 치 내 용	
			관세율	부 과 기 간
1	H형강(재심사)	러시아	15.95%	02.7.3~05.7.2(3년)
2	일회용포켓형 라이터(재심사)	중국	36.42~100.1%	97.11.8~02.11.7(5년)
3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대만	가격약속	97.8.5~02.8.4(5년)
4	페로실리코망간	중국	17.95~24.68%	98.4.10~03.4.9(5년)
5	폴리비닐알콜	일본	27.00~37.75%	98.4.10~03.4.9(5년)
6	PS인쇄관(재심사)	일본	24.51~38.16%	02.1.7~05.1.17(3년)
7	복합호제	일본	가격약속	00.1.18~05.1.17(5년)
8	PS인쇄관(재심사)	네덜란드	가격약속	00.1.18~05.1.17(5년)
9	알칼리망간 건전지	싱가포르, 중국, 일본	가격약속 26.7%	00.4.15~03.4.14(3년)
10	소다회(재심사)	중국	가격약속 25.61~26.47%	00.12.4~02.12.3(2년)
11	셀프복사지	독일	가격약속 14.82~15.38%	01.8.21~04.8.20(3년)
12	CD-R	대만	51.72%	02.1.21~07.1.20(5년)
13	수산화알루미늄	일본	가격약속가격약속 \$144.3~159/톤	03.7.18~08.7.17(5년)
14	일회용포켓라이터	인니	54.17~86.63	03.9.9~06.9.8(3년)
15	정보용지 및 백상지	인니, 중국	2.80~8.22	03.11.7~06.11.6(3년)

자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5. 1), 12쪽을 참조하여 제작성.

이에 반하여 중국에서의 반덤핑 제소국가는 <표 2>에서처럼 중국이 외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처음 실시한 1997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모두 31건이었다. 1997년 한국, 미국, 캐나다에 대해서 신문용지에 대한 제소를 하였고, 1998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99년 러시아, 한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해서 4번에 걸친 반덤핑 제소를 하였다. 2000년에는 반덤핑 제소건수는 1회에 그쳤으나 그 대상 국가는 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2001년에 중국의 반덤핑 제소건수는 6건, 2002년에는 총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제소국가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국가를 비롯하여 개도국인 싱가포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있다. 2004년 12월까지 한국은 거의 빠짐없이 중국의 반덤핑제소 대상이 되어 있으며 피제소건수도 가장 많았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 반덤핑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중국에서의 반덤핑 제소국가와 제소건수

년 도	대 상 국 가	건 수
1997	한국, 미국, 캐나다	1
1998	-	-
1999	한국,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	4
2000	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1
2001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6
2002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인도,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9
2003	한국, 미국,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이란, 멕시코, EU, 인도, 프랑스	6

2004	한국, 미국, EU, 일본, 러시아, 독일, 태국, 대만,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7
	합계	34

자료: 寧宣鳳, 〈中國におけるアンチダンピング法制およびその運用〉, 《國際商事事務》 29:3(國際商事法研究所, 2001), 310쪽과 <http://www.cacs.gov.cn/DefaultWebApp/showNews.jsp?newsId=300080000016>(2005. 12)을 참조하여 재작성.

한편 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건수는 중국의 대외개방 첫해인 1979년에 EC가 중국 사카린 및 소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6월까지 33개국에서 중국 상품을 대상으로 713건의 반덤핑 조사가 착수되었다.⁴⁾ 1979년부터 1998년 말까지 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건수는 330여 개에 달하였다. 그 중 1979년부터 10년 간 66건, 1989년부터 10년간 260여 건이 있었다. 1998년에 한 해 동안 유럽연합과 미국은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30회에 가까운 반덤핑 조사를 하였다. 2000년 1월 26일 유럽연합이 WTO 반덤핑 처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까지 유럽의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소송, 재심사한 분쟁은 14건에 달하였다.⁵⁾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에는 17개 국가로부터 55건의 반덤핑 조치를 당하였으며, 2002년에도 중국제품에 대한 제소는 이어져 미국, 인도 등 18개국에 의해 42건의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졌다.

2.2. 제소품목에 대한 특징별 비교

한국이 외국에 취한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은 모두 15개이며, 이중 중국과 일본이 모두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받은 품목은 5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제소품목에서도 중국에 편중되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4) <http://www.cacs.gov.cn/DefaultWebApp/showNews.jsp?newsId=300090000050>(2005. 12.)

5) 高永富 外, 《國際反傾銷法》(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187쪽.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반덤핑 제소품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 관련 제품임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3〉 중국에서의 반덤핑 제소품목 및 제소건수

년 도	분 쟁 내 용	건수
1997	신문용지(한국, 미국, 캐나다)	1
1998	-	-
1999	냉간압연규소강판(러시아), 아크릴산 에스테르(독일, 미국, 일본)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한국, 일본), 폴리에스텔 필름(한국)	4
2000	염화메탄(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1
2001	폴리스티렌(한국, 일본, 태국), 수입사료 L형 암모니아염산(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테릴렌 인조섬유(한국), 폴리에스테르절편(한국), 아크릴산 에스테르(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6
2002	아트지(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무스프탈산(한국, 일본, 인도), 페놀(EU), 합성고무(한국, 일본, 러시아), 냉연철강(한국, 대만, 러시아, 우트라이나, 카자흐스탄), PVC(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TDI(한국, 미국, 일본) 페놀(한국, 일본, 미국, 대만), MDI(한국, 일본)	9
2003	에탄올아민(일본, 미국,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이란, 멕시코), 클로로포름(한국, 미국, EU, 인도), 무색상변위광섬유(한국, 일본, 미국), 합성필라멘트사(대만), 클로로포렌고무(일본, 미국, EU), 하이드라진·하이드라크(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6
2004	미표백 크라프트판지(한국, 미국, 태국, 대만), 트리클로르에틸렌(일본, 러시아), 비스페놀 A(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 싱가포르), 디메틸시클로실록산(일본, 미국, 독일, 영국), EDPM(미국, 한국, 네덜란드)벤젠프로롤(일본,EU,미국), 디소디움 5(일본, 한국)	7
합계		34

자료:

<http://www.cacs.gov.cn/DefaultWebApp/showNews.jsp?newsId=30008000016>(2005. 12)를 참조하여 작성성.

이에 반하여 중국이 취한 반덤핑 제소품목은 〈표 3〉에서와 같이 1997년대에 신문용지에서부터 시작하여 1998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99년 냉간압연 규소강판, 폴리에스텐 필름 아크릴산 에스테르 등 철강제품에서 2004년에는 미표백 크라프트판지, 비스페놀 A, 디메틸시클로실록산, 벤젠프로롤, 디소듐 염화메탄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중국의 반덤핑 조사를 받은 나라는 개별 국가 19개국과 EU이며 그 가운데 조사회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으로 24건이나 된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19건, 미국17건의 순이다. 한국제품이 중국시장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것은 우선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타국의 보복조치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제소품목이 중국의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자국내 여론을 반영하여 자국 산업보호품목이거나⁶⁾,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빈발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조치로 인한 원인⁷⁾, 한국과 중국 간의 지리적인 근접성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3.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의 배경과 요인

3.1. WTO 체제하에서 중국의 관세정책과 반덤핑

6) 周力勇, 〈我國反傾銷機制的建立與民族工業的保護〉, 《對外經貿實務》(北京: 對外經貿實務雜誌社, 1997), 14쪽.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반덤핑정책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중정보》, (2001); http://www.kotra.or.kr/ktc/china/market/economy_detail.php3?kct=ALL&uc=0010000&mc=0010002&inpt_no=48148.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지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히 높아져 왔으며⁸⁾, 이로 인해 WTO 가입과정에서 중국의 관세정책은 언제나 관련국들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1992년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 관세율을 하향 조정해 왔는데, 지난 10년 간 관세의 하락 폭은 31.2%에 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관세는 품목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지니고 있어 향후 중국이 어떠한 관세정책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의 관세정책 방향에 따른 영향 또한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가입 시 약속한 관세인하나 비관세 조치의 삭감·폐지 등 시장개방을 실시해야 한다. 관세 인하에는 평균 관세 수준의 인하 외에도 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율의 상한통일(harmonization)이나 정보기기 등의 제로(0) 관세화라는 과제도 있다.

1998년 4월 중국은 일부 WTO 회원국과의 쌍무 간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2005년까지 공업제품의 관세율을 단순평균으로 10.8%, 가중 평균으로 6.6%까지 인하한다는 목표를 포함한 품목별 제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시에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의 상한통일이나 정보 통신관련 기기 및 그 부품의 관세 철폐를 정한 정보기술협정(ITA)에 참가할 것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1999년 11월 타결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2005년에 중국의 광공업제품 관세를 평균 9.4%까지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중 자동차의 관세율은 80-100%에서 2006년 7월까지 25%로, 정보기술품목(컴퓨터, 통신 기기 및 인터넷 관련 기기)의 평균관세율은 13.3%에서 2005년에 0%로,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카테고리에 따라 0%, 5.5%, 6.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표 4〉 참조).

8) 2002년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5천 98억 달러로 무역 규모면에서 세계 6위, 대외무역의존도는 44%에 이르고 있다.

〈표 4〉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미국과의 협상 합의내용)

품 목	인 하 목 표
광공업제품 전체	1997년 평균 24.6%에서 2005년 평균 9.4%로, 2010년에 8.9%로 인하한다.
정보기술품목	컴퓨터, 통신기기 및 모든 인터넷 관련 기기의 관세율을 현행의 평균 13.3%에서 2005년에는 0%로 인하한다.
농산물	미국 관심품목의 관세율은 평균 31.5%에서 2004년 1월까지 14.5%로 인하한다.
자동차	2006년 7월까지 현행 80-100%의 관세율은 25%로 인하한다.
자동차부품	현행 평균 23.4%에서 2006년까지 평균 10%까지 인하한다.
화학제품	화학제품 관세율 상한 통일에 참가하여, 관세수준을 현행 35%에서 카테고리에 따라 0%, 5.5%, 6.5%로 인하한다.

주: 미국 측 발표에 의거함.

자료: 馬成三, 〈十五計劃における中国貿易の課題〉, 《貿易と関税》 50:2(2002), 11쪽.

GATT는 무역 조절 수단으로서 관세의 이용을 인정하지만 비관세 조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GATT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역 상품의 수입에 관해, 또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발송된 상품의 수출 혹은 수출을 위한 판매에 관해, 할당 또는 수출의 허가나 기타 조치를 불문하고 관세 기타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신설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양국간 협상에서 WTO 가입 5년 이내에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량할당, 기타 수량제한을 폐지할 것과 자동차의 수입 수량 제한의 폐지(2005년까지), 할당수량을 자동차 산업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의 수준으로부터 매년 15%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0년 5월에 EU와의 합의에서 주류나 화장품,

9) GATT 1994 Article 11. 1.

의복, 기계 설비 등을 포함하는 EU의 관심품목(150개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18.6%에서 10.9%로 인하하는데 동의했다. WTO 가입 교섭을 통해 중국이 산업별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 과 같다.

<표 5>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산업별 관세인하(2000년 기준)
단위: %

산업분류	평균기준 세율(A)	최종년도의 평균세관세율 (B)	관세인하율 (A-B)/A	이행최종 년도
식물성 섬유사	6.9	4.7	32.0	2002
천연·합성고무	24.0	20.0	16.7	2002
해조류	15.0	9.7	35.6	2004
임산물	2.4	1.7	29.5	2002
기타 수산물	17.1	10.5	38.6	2005
석탄·코크스	4.4	4.4	0.0	2000
석유·역청유	3.8	3.0	20.0	2000
석유가스	7.1	5.9	16.9	2002
광물성 생산품	5.0	4.3	14.6	2005
가공어류	22.1	11.9	46.1	2005
음료·주류	63.0	36.0	42.9	2005
섬유	25.4	10.3	59.7	2005
의류	32.9	16.1	50.9	2005
피혁제품	21.5	17.5	18.6	2005
목재·가구	14.3	5.2	63.9	2005
인쇄·출판	14.7	5.4	63.1	2008
석유화학	8.0	5.5	31.6	2005
플라스틱	11.4	6.9	39.4	2005
유리·세라믹	17.8	15.0	15.5	2004
철강	8.9	5.1	42.1	2004
비철금속	8.1	5.5	32.1	2004
금속제품	13.7	11.4	16.8	2004
차량·부품	41.3	14.7	64.4	2005
기타 수송수단	12.3	8.2	33.6	2005

전기·전자	18.1	9.0	50.2	2005
기계·장비	15.6	10.0	35.9	2005
기타 제조업	21.8	16.4	24.8	2005
기타 산업(미분류)	13.9	7.2	48.4	2005
산업전체평균	16.8	10.1	40.2	

주: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시장접근분야)
 자료: 송유철·정인교, <중국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월간 KIEP 세계경제》 4:10(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63쪽.

2003년 현재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1.0%이며,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시장개방협상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른 관세인하 규모인 11.5%를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 2004년에도 중국은 이미 계획치 10.6%를 초과 달성하여 10.4%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관세인하는 곧 중국 산업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표 6〉 참조).

〈표 6〉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계획 및 실제조정
 단위: %

년도	전체		공산품		농산품	
	계획	조정	계획	조정	계획	조정
2002	12.0	12.0	11.7	11.4	18.5	18.1
2003	11.5	11.0	10.6	10.3	17.4	16.8
2004	10.6	10.4	9.8	-	15.8	-
2005	10.1	-	9.3	-	15.5	-
2006	10.1	-	9.3	-	15.5	-
2007	10.1	-	9.3	-	15.5	-
2008	10.0	-	9.2	-	15.1	-

자료: 중국인민공화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공고에서 정리.

이러한 중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국의 대응은 비관세 장벽, 수량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등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이나 수량제한조치는 WTO에서 엄격

하게 규제하는 것이며, 긴급조치의 발동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의 보복조치가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실질적인 부과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수출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물량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중국도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서 반덤핑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¹⁾

3.2.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통상정책

중국의 반덤핑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 집중되는 까닭은 양국의 교역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무역수지적자와 산업 구조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대한국 무역 통계를 보면 90년 중반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한 해만 한국에 대해 약 23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0)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반덤핑 바로 알기》(2001), 13쪽.

11) 중국이 1999년 6월 3일부터 원산지가 한국, 미국, 캐나다로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해서 각각 9%-55%, 78%, 57%-78%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00년 상반기 중국의 신문용지 수출액은 각각 미화 93, 45, 75만 달러였으며, 2001년에는 각각 미화 1, 6, 38만 달러, 2002년에는 각각 미화 4, 30, 18만 달러로 2003년 1분기에는 미화 0, 5, 16만 달러로 급락하였다. 이들 세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는 신문용지의 수출액은 장기적으로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반덤핑 관세율이 낮은 한국은 대중국 신문용지 수출이 급락하여 그의 수출이 0에 가깝다. 仲崇东, 〈充分运用国际贸易规则依法维护国家产业利益〉-我国首例进口反倾销措施的经济效果评估-, 《国际贸易论坛》(国际贸易论坛出版社, 2004, 2), 3-5쪽; 이는 중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3개국가의 중국내 신문용지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문용지 생산기업은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는 중국이 반덤핑 조치로서 바라는 통상정책의 효과의 결과인 것이다.

〈표 7〉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출	수입	무역액	무역수지
1990	13	7	19	8
1995	67	103	170	-36
1996	75	125	200	-50
1997	91	149	240	-58
1998	63	150	213	-87
1999	78	172	250	-94
2000	113	232	345	-119
2001	125	234	359	-109
2002	155	286	441	-131
2003	201	432	633	-231
2004.1-9	193	456	649	-263

자료: KOTIS 무역통계 DB에 의거함(중국통계).

한국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점하는 비중은 비교적 단기간에 급증했고,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는 중국 경제 정책의 향방에 따라 한국 산업의 수급상황이 결정되고 나아가서 산업발전 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신발, 석유화학제품 등은 40% 이상 중국에 수출되고 있고, 수입 점유의 70% 이상을 중국산이 점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주요 수출입 상품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의 20% 이상인 품목은 〈표 8〉과 같다.

〈표 8〉 한국 주요수출입 상품의 중국 점유율(2003년)

구분	40%이상	30-40%	20-30%
수출	·신발(46.4) ·석유화학제품(43.7)	·화학공업제품(36.3) ·산업기계(33.9) ·철강제품(32.0) ·중전기(31.7)	·기초산업기계(29.0) ·완구·인형(26.3) ·컴퓨터(23.6) ·컨테이너(21.4%) ·산업용전자(20.2)
수입	·섬유제품(71.3) ·직물(47.0)	·석탄(39.3)	·중전기(28.8) ·가정용전자(28.0) ·농산물(26.9) ·컴퓨터(26.3)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2004).

이처럼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심화되면서 양국 사이에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88년부터 2004년 4월말까지 중국 상품 3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6건은 기각되거나 신청이 철회되었으나 18건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중국은 2004년 7월까지 총 31건의 덤핑조사 가운데 한국의 상품이 단독 또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반덤핑 조사를 받은 건수가 22건이나 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적자가 계속되는 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품목별로 보면 중국의 전략적 부양산업인 화학원료 및 화학섬유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4월말까지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은 23건이며 그 가운데 2건은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되었고, 1건은 조사가 취소되었다.

중국 정부의 대외 반덤핑 조치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 정부는 2003년 6월 반덤핑 조치가 많은 철강, 화학공업, 경공업 등 관

련 산업에서 약 200억 위엔의 손실이 만회되고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도 확보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¹²⁾ 이러한 평가는 곧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3.3. 한·중간 산업의 경합

2003년도 중국의 수출액은 4,385억 달러인 반면 한국의 수출액은 1,938억 달러에 그쳐 중국수출액의 44%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수출증가추세는 장기적인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1990년까지 한국이 중국에 앞서 있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1년부터 역전되어 2003년 한국은 2.6%인데 비해 중국은 5.9%를 기록하였다(〈표 9〉 참조).

〈표 9〉 한국과 중국 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억 달러 %

년도	한국		중국		A/B
	수출액(A)	점유율	수출액(B)	점유율	
1990	650	1.9	629	1.8	1.03
1993	822	2.2	916	2.4	0.90
1995	1251	2.4	1489	2.9	0.84
1998	1323	2.4	1805	3.3	0.73
2000	1723	2.7	2492	3.9	0.69
2003	1938	2.6	4385	5.9	0.44
연평균증가율	8.8	5.4	16.1	7.9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각 년도).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값싼 노동력, 풍부한 자원, 규모의 경제성, 기초

12)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의 대외통상마찰현황과 중국정부의 대책〉, 《중국경제현안브리핑》 36(2003).

기술력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단일 자유무역지대가 되면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규모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변화를 보아도 중국의 약진이 눈부시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수출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주축으로 하여 주요 선진국시장인 미국, 일본, EU에서 빠르게 증가해 왔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1995년 이후 미국, 일본, EU에 대한 중국의 수출신장률은 한국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이들 주요 선진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의 수출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신발,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뿐만 아니라 TV, 에어컨, 세탁기 등과 같은 많은 가전제품에서도 1위를 점하고 있다.

<표 10> 한국과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시장점유율추이
단위: %

구분	년도	미국		일본		EU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시장점유율	1990	3.7	2.9	5.0	5.1		
	1995	3.2	6.1	5.1	10.7	0.8	1.7
	2000	3.3	8.2	5.4	14.5	1.0	2.6
	2003	2.9	12.1	4.7	19.7	1.0	3.1
시장확대율	1990-95	5.5	24.6	8.1	24.3		
	1995-00	10.7	17.0	3.5	8.9	8.8	13.0
	2000-03	-2.8	15.0	-4.4	11.0	-1.3	10.5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2004); 《중국해관통계》(각 년도).

<표 11>에서와 같이 한·중 간 주요제품별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2003년 현재 섬유(2.43)와 전기전자(1.99), 철강/금속제품(1.3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

전자제품 중에서는 통신기기(3.64)와 반도체(2.26)가 매우 높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 IT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의 제품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면 2003년 현재 피혁제품(4.25)과 의류(3.21), 섬유(2.56), 전기전자(1.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중에서는 반도체(0.55)를 제외하고는 모두 RCA지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양국의 현시비교우위부문과 열위부문을 비교해 보면 차량 및 부품, 철강/금속제품, 반도체에서는 한국은 우위 중국의 열위로 상호보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혁제품, 의류, 비철금속, 기타제조업에서는 중국이 우위 한국이 열위로 역시 상호보완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에서는 양국이 동시에 현시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상호 경합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과 2003년 사이의 RCA 지수의 변화를 고찰해 보면 한국의 경우 통신기기와 컴퓨터의 RCA 지수가 급상승한 반면 반도체, 가전기기 및 섬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에서 RCA 지수가 상승추세를 보여준다. 전자산업의 이러한 RCA지수의 변화는 양국이 이 산업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11〉 주요제품별 한·중간 경합관계

분류	한국		중국	
	1998	2003	1998	2003
피혁제품	1.62	0.82	4.61	4.25
목재가구	0.08	0.04	0.77	0.85
종이/인쇄출판	0.54	0.46	0.27	0.30
섬유	3.01	2.43	2.41	2.56
의류	0.94	0.54	4.16	3.21
전기전자	1.49	1.99	1.09	1.79
컴퓨터	0.71	1.84	1.02	2.74
통신기기	1.16	3.64	0.89	1.90

가전기기	1.02	1.28	1.53	1.74
반도체	3.94	2.26	0.32	0.55
기계	0.59	0.81	0.35	0.61
정밀기기	0.68	0.51	1.07	0.85
차량 및 부품	0.92	1.24	0.05	0.11
기타 수송장비	0.47	0.16	1.25	0.84
철강/금속제품	1.68	1.39	0.91	0.81
비철금속	0.78	0.73	1.08	1.03
항공	0.74	0.76	0.72	0.53
기타 제조업	0.91	0.45	1.53	1.28

자료: KIEP, 《중국경제연보》(2004), 369쪽.

한편 〈표 12〉에서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을 고찰해 보면, RCA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전,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섬유류 등에서 양국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밀기계는 양국 모두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은 한국이 높은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수입특화상태에 있으며, 반도체와 철강도 한국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은 수입특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섬유류 등의 산업에서 경합관계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추세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계속해서 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력 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기적으로 한국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경쟁력이 약한 유치산업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보호주의적인 반덤핑 조치를 통해 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이 첨단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부문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도 반덤핑 조치가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2〉 한·중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한국		중국	
	2003	2004	2003	2004
가정용전자	0.56	0.54	0.57	0.59
무선통신기기	0.29	0.34	0.80	0.82
반도체	-0.70	-0.65	-0.04	0.04
컴퓨터	0.43	0.47	0.45	0.51
전자부품	-0.29	-0.27	-0.01	0.06
석유제품	-0.33	-0.50	0.05	0.13
석유화학	-0.83	-0.84	0.34	0.35
철강	-0.45	-0.38	-0.01	-0.09
선박	0.80	0.58	0.91	0.88
섬유사	-0.13	-0.08	0.08	0.02
섬유제품	0.95	0.95	0.20	0.17
직물	0.24	0.30	0.72	0.72
일반기계	-0.16	-0.13	-0.05	0.04
정밀기계	-0.40	-0.48	-0.70	-0.72
자동차	-0.67	-0.61	0.88	0.89

자료: KOTIS 무역통계 DB에 의거하여 계산함.

4. 결론 및 대응방안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과거 WTO 비회원국으로써 누려왔던 여러 가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거나 또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야 할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으나,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임이 입증됨으로써 세계경제무대에서 새로운 입지를 확보할 여러 가지 장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인하여 중국 내 산업피해는 급증할

것이며, 이러한 피해를 보호할 보완적 수단으로써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반덤핑조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반덤핑법제 적용상의 용이성에 따른다. 1979년에 제정된 GATT 반덤핑규약의 덤핑존재사실의 해석적용의 모호성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자국내 사향산업을 보호할 수단으로 반덤핑법을 제정하여 동 법률의 남용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반덤핑법제가 선진국의 사향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994년 GATT 제VI조 및 동조의 이행협정에 해당하는 WTO 반덤핑협정을 새로이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의 반덤핑 발동요건에 있어서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사향산업의 보호, 개발도상국은 유치산업 보호, 또는 상대국가의 전략적 대응수단으로 반덤핑법을 제정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제소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유치산업보호나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 통상정책적인 요인에 따른다. 중국이 외국에 취한 반덤핑 조치의 연도별 품목을 보면 반덤핑법제가 제정된 1997년 초기 저임금 저기술 산업 제품인 신문용지에서 2003년에는 냉간압연규소강판 등의 산업, 2005년 현재는 고임금 고기술부분인 중화학제품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반덤핑법제의 제정 이후 반덤핑 조치가 계속적으로 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 또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볼 때 반덤핑의 조치가 자국의 유치산업보호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치산업제품에 대한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조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중 간 산업의 경합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에 따른다. 한·중 간에는 한국의 주된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 EU 시장에서 이미 견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특수직물, VTR, TV, 모니터, TV부품, 전동기, 전기모터 등에서 서로 경합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점유율의 측면에서 1990년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2000년 이후 미국, 일본, EU에

대하여 한국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의 수출은 연평균 10%이상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규모의 경제성, 기초기술력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중 간 경합제품에 대해서 수년 내에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한국과의 경쟁제품에 대해서 보호주의적인 반덤핑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경합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반덤핑 증가에 대한 요인별 대응방안으로서는 먼저, 반덤핑 조치의 남용성과 관련하여 중국이 WTO 회원국에 가입한 이상 WTO 규정에 부합하게 반덤핑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WTO 규정에 위배한 반덤핑 조치를 내린다면 적극적인 대응조치로서 WTO의 분쟁해결 기구에 중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산업 보호나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중국내 한국의 여론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반덤핑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제품이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며, 이와 같은 반제품은 중국에서 재가공 이후 부가가치의 향상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제품임을 반덤핑 협상과정에서 강조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이 이와 같은 반제품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반덤핑 부가를 한다면 중국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이는 곧 중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중국의 수출증가에 불리함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중간 세계무역에서 산업의 경합이 증가하고 있다. 일국의 산업구조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의 전반기구조에 있는 것이다.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IT, BT, CT 등의 산업에 대한 신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기존의 여러 가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등으로 인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곧 한국도 중국에 대한 자국의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불러올 것이고 이러한 양국의 현상은 결국 반덤핑 보복조치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는 곧 양국의 무역 및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반덤핑 분쟁 특별기구¹³⁾를 통해 양국 간에 향후 급증하는 반덤핑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한·중 간 반덤핑 협정 등을 통하여 반덤핑 제소의 급증을 사전에 방지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高永富 外, 《國際反傾銷法》(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郭華, 〈中國的反傾銷現狀與對策〉, 《外貿經濟 國際貿易》7(2001)
周力勇, 〈我國反傾銷機制的建立與民族工業的保護〉, 《對外經貿實務》(對外經貿實務雜誌社, 1997)
唐震, 〈WTO與反傾銷內在關係的探論〉, 《外貿經濟 國際貿易》7(20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반덤핑정책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중정보》(2001)
馬成三, 〈十五計劃における中国貿易の課題〉, 《貿易と関税》50:2(2002)
송유철·정인교, 〈중국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KIEP 세계경제》4:10(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3) 예를 들면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양국이 체결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간의 더욱 친밀한 경제관계의 무역협정”(The Australian-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

-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반덤핑 바로 알기》(2001)
-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의 대외통상마찰현장과 중국정부의 대책〉, 《중국경제현안브리핑》 36(2003)
- 寧宣鳳, 〈中國におけるアンチダンピング法制およびその運用〉, 《國際商事法務》 29:3-4(國際商事法研究所, 2001).
- 이정표, 손성문, 〈중국의 개정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2005 전국무역학자대회 발표논문집》(무역학회, 2005)
- 王京琪, 《中外反傾銷法律与實務》(人民法院出版社, 2000)
- 仲崇东, 〈充分运用国际贸易规则依法维护国家产业利益〉-我国首例进口反倾销措施的经济效果评估-, 《国际贸易论坛》(国际贸易出版社, 2004).
- 張曉東·余盛興, 〈論建立与完善我國反傾銷訴訟体制〉, 《商法研究》(2000.4)
- 张立荣, 《中外行政制度比较》(尚务印书馆, 2002)
- 陳愛蓓, 〈WTO反傾銷規則与我國的反傾銷之法〉, 《學海》(2001)
- 중국, 《중국해관통계》(각년도)
-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각년도)
- <http://www.cacs.gov.cn/study/sszm/sszm5.htm>
- <http://www.chinainfomarket.com/touzi/0801.htm>
- <http://www.mofcom.gov.cn/qtbwzfwz.shtml>
- http://www.kotra.or.kr/ktc/china/market/economy_detail.php3

Abstract

As one of member countries of World Trade Organization(WTO), China should revise or remove some of the existing entry barriers which have been protecting its domestic market. But Chinese industries will be faced with lots of difficulties by foreign competitive goods. So for the time being, Chinese government will take policies for protecting its industries such as anti-dumping and safeguard. But as safeguard causes other country's retaliation,

anti-dumping would be most favorable take-action, China will more often use anti-dumping against Korea which has many competitive manufacturing goods to China. It was already happened. During Dec. 1997-Jul. 2004 China had taken 34 anti-dumping measures increasingly, of which 24 to the Korean industry goods. Three causes could be considered. First, anti-dumping measure is the most preferred one which has no side-effects such as the counter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Second, China is suffering increasing trade deficit with Korea. Lastly, China and Korea are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the world market.

So it is necessary that speci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e established to settle ever-growing anti-dumping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Or anti-dumping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be needed to prevent the two countries from entering wasting disputes.

Key Words: WTO, China, Anti-Dumping, Trade dispute

투고일: 2008. 6. 30.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 중국정책: 양방향 정책의 관점에서*

주장환**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한반도 정책
3. 노무현 정부의 대 중국정책
4.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5. 맺는 글: 앞으로의 과제

1. 들어가는 글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지속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흥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신흥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에 주목하고 있다.¹⁾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하기 시작한 “走出去”(밖으로 나아

* 이 글은 대한중국학회 2008학년도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지정 토론자 및 자유 토론자들의 세밀한 지적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동서대 국제학부 조교수(jjhlmc@hanmail.net)

1) 박병광, <중국의 미래상에 관한 담론 고찰>, 정재호 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서울: 도서출판 길, 2006), 323-360쪽.

가기)란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중국의 대외정책노선은 최근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²⁾ 중국의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의 변화는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이 그 동안 누려왔던 패권적 지위(최소한 주도적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은 물론이고, 기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재설정함으로써,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우려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한국·중국·미국 사이에서의 협력과 대립관계, 특히 한·미간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는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이 지니고 있던 이념적 성향 외에도, 신흥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영향력, 한·중 국교수립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경제교류의 확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그만큼 증대 됐으며,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상대로 성장했음을 잘 반증해 준다. 그 결과 북핵문제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발생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 중·미 양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익우선의 탈이념·실용주의를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삼을 것임을 밝히면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의 복원과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지속되어졌던 대외정책노

2) 중국의 대외정책노선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서진영,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 7(2003), 9-34쪽을 참조바람.

선의 전면적 수정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기존의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티베트문제, 타이완문제 등과 같이 민감한 현안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정책 노선의 방향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이 급격하게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중국봉쇄 정책에 참여할 경우 앞서의 정부들이 미국과 겪었던 갈등을 역으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중·미 양국 간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섬세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판단에 기초해,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양방향’(hedging)정책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사이에서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 전망하고자 한다. 양방향 정책이란 신흥강대국의 부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신흥강대국과 기존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역 내, 또는 세계적 범위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할 때 기타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정책으로, 일종의 양다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역내에서 진행되는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기타 국가들은 한 가지 이상의 대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흥 강대국은 물론이고 기존의 강대국과의 이중적 연합을 모색하게 된다.³⁾ 이때 두 개 이상의 강대들과 이중적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대응방식으로 는 ‘관여’(engagement)정책과 함께 현안별 지지(issue-based support)를 통한 ‘균형화’(balancing)정책이 병행되어 사용되어진다.⁴⁾ ‘관여’정책

3) 이와 관련해서는 Amitav Acharya, 〈Containment, Engagement, or Counter Dominance?: Malaysi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Alastair Ia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Routledge, 1999), 129-151쪽을 참조바람.

4) Evan Resnick, 〈Defining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2(2001), 551-567쪽; Randall L. Schweller, 〈Managing the

은 신흥 강대국의 현상타파적인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강제적인 수단이란 공식적 국제조직과 비공식적 규칙들에 부상하는 국가를 착근시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변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관여의 목적은 기존 국제질서의 위계구조와 평형상태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여는 부상을 제어하고자 하는 대응 국가가 이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때 균형화 정책은 ‘연성 균형화’(soft balancing)정책과 ‘경성 균형화’(hard balancing)로 나눌 수 있는데, ‘연성균형화’ 정책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갈등에 대비하여 제3국과의 제한적인 외교적 연합이나 상호협약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경성균형화’정책은 군사력의 증강 내지는 동맹 중시 등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관여와 균형화를 구체적인 실행방식으로 삼고 있는 양방향정책은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데 대해 일본 및 아세안(ASEAN)과 같은 주변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상과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정책의 수립에 있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의 방향과 함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이상의 개념과 주요 변수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노무현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역시 제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전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대중국정책을 전망한 뒤, 제5장에서 대중국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남겨진 과제를 검토

Rise of Great Power: History and Theory》, Alastair Ian Johnston and Robert S. Ross(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Routledge, 1999), 7-17쪽.

5)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연구로는 박병광, 〈중국의 강대국화와 인도의 대응방안〉, 《中蘇研究》 115(2007. 가을), 127-148쪽을 참조바람.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2.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한반도 정책

2.1.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중국은 두 가지 중요한 선행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목적을 결정한다. 첫 번째는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대인식에 기초해 외교정책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⁶⁾ 혁명과 전쟁을 시대의 성격으로 규정했던 마오쩌둥(毛澤東)과 달리, 덩샤오핑(鄧小平)은 ‘평화와 발전’(和平與發展)을 시대의 주제로 인식했다. 즉, 강대국의 중국 침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중국 국내의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 인식은 국제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제체제 편입을 가속화 시켰으며, 장쩌민(江澤民)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胡錦濤)체제에서도 계승되어 졌다.

이러한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외교원칙은 대내외적으로 천명되는 외교원칙과 함께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담고 있다. 현재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평화공존 5원칙”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으로 천명되는 외교원칙이 수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중국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략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역시 바로 이러한 대전략의 변화를 통해

6) 차창훈,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전략과 목표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外交史論叢》 29:1(1997), 165-203쪽,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덩샤오핑에서 장쩌민으로 이어진 ‘韜光養晦’(실력을 감추고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린다)의 시기와 후진타오의 ‘有所作為’(필요할 때 적극 행동한다)의 시기로 구분되어 진다.

1989년의 천안문사태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권의 대 변혁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덩샤오핑의 ‘韜光養晦’전략은 “냉정히 관찰하고, 현실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앞장서는 일을 피할 것”(冷靜觀察, 穩住陣腳, 沉著應付, 韜光養晦, 決不當頭)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외교정책 노선이다. 이에 따라 장쩌민시기까지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의 정면 대결이나 갈등을 피하고자 했으며,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동시에, 서방세계의 중국 내정 간섭도 배제하려 했다. 따라서 중국은 가급적 자국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제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다. 즉, 주권국가로서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른바 “최대-최소원칙”(maxi-mini principle)의 외교정책을 구사해 왔다.⁷⁾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책임대국론’(負責的大國), ‘평화부상론’(和平崛起)과 같은 개념들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 노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⁸⁾ 장쩌민 후반기부터 이러한 개념들을 적극 도입해 강대국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른바 ‘대국외교’(大國外

7) Elizabeth Economy,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imes on Chinese Foreign Policy-Making>, David M. Lampton(eds),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230-253쪽.

8) Zhang Yongjin and Greg Austin(eds), 《Power and Responsibility in Chinese Foreign Policy》(Canberra: Asia Pacific Press, 2001); Robert L. Suettinger,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China Leadership Monitor》 12(2004), 1-10쪽.

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⁹⁾ 이후 후진타오시기가 시작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有所作為’의 전략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접 개입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제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처럼 중국의 대외 정책 노선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것으로 변하게 된 것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세계경제질서의 편입에 따른 종속성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결합된 결과물이다.

먼저 급격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에 따라 진행된 개혁·개방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단계에 해당하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국민총생산액을 1980년 대비 2배 증가시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단계인 溫飽단계에 진입했으며, 2단계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총생산액을 1980년 대비 4배 증가시켜 일상생활이 걱정 없는 小康수준에 진입했다. 현재는 2050년까지 부유한 사회주의 강대국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3단계 발전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장쩌민은 이 3단계의 발전전략을 다시 세 단계로 세분화한 이른바 ‘신 3단계발전(新三步走)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까지 국민소득을 2천 달러까지 향상시키며, 2020년에는 4천 달러, 2050년까지 8천-1만 달러로 향상된다.¹⁰⁾

한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감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강대국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

9) H. Lyman Miller and Liu Xiaohong, "The Foreign Policy Outlook of China's "The Third Generation" Elite", David M. Lampton(eds),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123-150쪽.

10) 王蒙奎, 〈全面建設小康社會的宏偉綱領〉, 《人民日報》, 2002年 12月 3日.

지 않고 있다. 특히 1993년의 베이징 올림픽 유치 신청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 1995년의 리덩후이 타이완 총통에 대한 비자발급, 1996년 타이완해협 위기 시 항공모함의 파견, 1997년 미일군사동맹의 강화, 부시정부의 MD구상,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대중국 봉쇄정책(containment)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¹⁾ 이러한 미국의 봉쇄전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특정 국가들만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외교를 전방적인 외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¹²⁾

이처럼 중국이 전방위적 외교로 전환한 또 다른 이유는 중국경제의 세계화화도 관계가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경제의 세계화과정(또는 세계경제질서로의 편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의 무역규모는 1970년대 후반의 20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약 1조 4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과 독일의 세 번째 무역상대국이 됐으며, 세계 최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세계 두 번째의 외환보유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경제의 세계화는 대외 의존성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 경제에서 무역 의존도는 70%에 달하며, 해외수출품의 50%는 원자재 수입을 통한 가공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 관계의 악화 또는 주변국의 정세 불안정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보다 중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1) Thomas J. Christensen,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4(2001), 5-40쪽

12)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전방위적 외교를 진행하면서 외교정책의 주요 내용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을 통한 강대국 외교, 선린우호관계 수립을 통한 주변국외교,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다자외교로 구별해서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단순수교”→“선린우호”→“동반자”→“전통적 우호·협력”→“혈맹” 등의 5단계로 구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군사 안보의 개념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보개념이 대체하는 “신 안보개념”(新安全概念)을 도입했고,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내 혹은 지구적 차원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 중 발생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중국은 환율고수정책을 통해 주변국가에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역내 발언권을 강화했다. 한편 2001년의 9·11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대해 전폭적 또는 묵시적 협력을 제공하면서 지역 내 또는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2.2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이처럼 지속적인 현대화와 강대국화를 위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가들과의 협력과 관계의 지속, 그리고 지역 내 혹은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대외정책 노선의 변화가 어떻게 한반도 정책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지를 잘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바로 그거이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2003년 10월, 중국은 그 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북한에 특사자격으로 파견했다. 평양에 도착한 우방귀는 김정일과의 면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배경에는 현재의 한반도체제를 평화적인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적이 깔려 있다.¹³⁾ 이는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분쟁이 야기될 경우, 또는 극단적인 상황의 발생

13) David Shambaugh, <China and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Washington Quarterly》 26:2(2003), 43-56쪽.

으로 인해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군사적, 안보 비용이 중국의 강대국화과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한 또 다른 요인으로써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남·북한 관계의 변화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이외의 분야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종속변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남북관계는 급진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중국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¹⁴⁾ 이후 지속된 햇볕정책에 대해 미국이 미온적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던 것에 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 특히 한-미간의 관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을 통한 한국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문제의 정리를 통해 동북지역에서의 대조선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내의 변화와 함께, 중국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북한 변화원인, 그 속도와 범위의 문제이다.¹⁵⁾ 중국은 북한이 태도를 바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북한의 경제적 곤란을 들고 있으며,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러

14) 필자가 만난 중국 내의 한반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대외정책관 등이 이전의 김영삼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미국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데 중국은 주목했으며, 이점에서 제한적이거나 한국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15) 한석희, <탈냉전 시기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의 국가이익과 주변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책>, 《연세사회과학연구》 7(2001. 11), 79-83쪽.

한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 체제불안이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¹⁶⁾ 수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봐야 될 것이다.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은 정책적 조연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지원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이 경제정책의 실패와 홍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처했을 때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1997년 한 해에만 중국은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공급했으며, 10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고,¹⁷⁾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또 다시 북한에 대해 50만 톤 상당의 식량지원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⁸⁾ 이처럼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경제지원은 북·중간에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변화된 대외정책노선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어지는 대북한 정책,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를 밝히면서 협력을 취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제 관여 정책과 함께, 핵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사안별 지지/반대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한국·북한·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대해 우호관계(amity)를 유지하는 중심적 위치(pivot)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¹⁹⁾ 이로 인해 기존의 한·

16) 閻學通 等著, 《中國與亞太安全:冷戰後亞太國家的安全戰略走向》(北京: 時事出版社, 1999), 211-240쪽.

17) Moon, Chung-in and David I. Steinberg(eds),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220쪽.

18) 남문희, 〈중국, 북한에 식량 50t 지원한다〉, 《남문희의 한반도 리뷰》(<http://bulgot.sisain.co.kr/27>)

19) Lee Hong Yung, 〈China and the Two Koreas: New Emerging Triangle〉, Young Whan Kihl(eds),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미·일의 삼각관계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의 대동북아전략은 일정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바로 이점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3. 노무현 정부의 대 중국정책

3.1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외교정책은 개념상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다른 국가 혹은 국제적 실체(international entity)를 상대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이나 계획된 행동방침을 의미한다.²⁰⁾ 하지만 무엇을 외교정책의 목표(국가이익)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일국의 국내적 상황에 따른 정책결정권자의 주관적 혹은 당파적 이해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당시의 국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상호침투성(interpenetration)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²¹⁾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외교정책은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북한과의 대치라는 국내적 상황과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

War》(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97-110쪽.

20) 이와 관련해서는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7), 20-23쪽; Joseph Frankel, 《*The Making of Foreign Policy*》(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1-3쪽을 참조바람.

21) 이와 관련해서 James N. Rosenau(eds), 《*Linkage Politics*》(New York: The Free Press, 1969)를 참조바람.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미국이 가장 중요한 후원자라는 인식 아래서 결정되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 유지가 외교정책 최대의 목적이 됐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소위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 문제에 관한 평등한 발언권을 요구하기 시작한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산진영을 향한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되기 시작했다.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²²⁾과 이에 연동된 외교정책을 수립·시행했다.²³⁾

9·11테러와 함께 2차 북핵 사태의 발생으로 국제정치의 유동성이 강화되어가고 있던 시기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평화와 번영정책’(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을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로 제시하면서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의 철학을 계승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대상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지역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했다.

22) 햇볕정책으로 대변되어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으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보다는 분단 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했고, 둘째,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 등의 대북3원칙을 기조로 하여 안보와 화해·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며, 셋째는 능동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접근법이었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압박정책보다는 상호 실리적인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경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통일전략》 2:2(2000), 79-103쪽을 참조 바람.

23) 이와 관련해서는 김강녕,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통일전략》 3:1(2003), 36-39쪽을 참조 바람.

즉,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인식 아래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동북아공동체의 구축에 연계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 중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했다.²⁴⁾ 특히 동북아 공동체의 건설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호혜관계의 강화와 통합의 과정을 통해 관련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증폭시킴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을 동북아 정치의 중추,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했다.²⁵⁾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대북정책을 지역차원(주요하게는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북한의 낙후된 경제와 현 단계 한국의 경제규모를 볼 때 남·북한의 협력만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통일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로 인해 남북관계의 어떠한 전개도 주변국을 무시한 채 이루어 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중장기 전략인 동북아 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평화체제구축 노력과 더불어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심화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미·중·일·러를 대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협의하기 위한 포괄적 다자협력체 구성, 한·중·일 FTA 추진과 병행하며 남·북한 및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구성이라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설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 목표인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24)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2003), 15쪽.

25) 김근식,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http://www.knsi.org>); 김태현,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평가: 동북아 공동체의 꿈과 현실〉, 《정세와 정책》(2004.04), 1-4쪽.

역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문제 해결단계에 맞추어 대규모 대북 경제 협력 조치를 단행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고 이에 가담하지 않으며, 동시에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고려하는 포괄안보를 지향한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²⁶⁾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외교정책 기조는 그 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오고 있던 동맹관계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동맹이 체결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설명되어진다. 첫째는 이념적 요인으로서 국가들이 특정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위협에 군사적으로 공동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결성한다. 두 번째는 실리적 요인으로서 국가들은 안보에 관한 손익계산에 기초해 동맹을 결성하기도 한다. 즉 안보책임의 분담, 안보자산의 공유, 혹은 강대국을 동맹파트너로 삼음으로써 제공되는 보호 등을 통해 안보의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것이다.²⁷⁾ 따라서 동맹국들은 협상을 통해 동맹공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보와 자율성 간에 일정한 교환관계가 형성된다. 즉 동맹국들은 동맹공약에 입각한 군사협력을 통해 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약을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의 자율성이 희생되는 것이다.²⁸⁾ 그러나 동맹환경이 변하거나, 동맹국들의 이익, 능력 혹은 국내 상황이 변화하면 불가피하게 동맹 결성 당시 형성되었던 안보와 자율성 사이의 교환조건에 변화가 발생하며,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

26)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2003), 12-13쪽.

27) 이와 관련해 Robert Osgood, 《Alliances and American Foreign Policy》(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1968); Stephen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 39:1(1997), 156-179쪽;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을 참조 바람.

28) James D. Ma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1991), 910-911쪽.

지 않을 경우, 동맹국간에 과열음이 발생하는 것이다.²⁹⁾ 이때 동맹국 쌍방이 동맹을 포기하지 않고자 할 경우, 동맹국 각국은 자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루’와 ‘방기’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방기는 동맹국간 체결된 동맹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선택을 의미하며, 반면 연루는 동맹 파트너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려는 선택을 말한다. 이 연루와 방기 선택 모두는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각 위험간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한다. 즉, 방기의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은 연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연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방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어떻게 이 양자사이의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딜레마에 처하는 것이다.³⁰⁾ 이렇게 볼 때 이념과 안보를 매개로 미국 주도의 비대칭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동맹의 안보위기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세계 전략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미국과 남·북간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법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지만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미사일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서는 ‘방기’의 태도를 나타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라크파병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연루’의 태도를 취했다.

29)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181쪽.

30)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181-182쪽과 184-186쪽;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1984), 467쪽.

3.2 노무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

한편 중국은 현 단계 동북아 지역이 기존의 국제질서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병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 동북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막고,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동북아 신(新)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관건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했으며,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됐다. 한국 역시 북핵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자세와 함께 일방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정책에 비해 ‘睦鄰’(선린관계 유지), ‘安鄰’(주변정세의 안정 유지), ‘富鄰’(주변국과의 공동 발전 추구)의 이른바 6자 방침을 원칙으로 삼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 동북아 질서의 수립에 공감함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³¹⁾ 이렇게 양자의 공감 속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군사·안보 방면에 이르는 포괄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5년 간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발전을 가져왔다. 1992년 수교당시 62억 달러였으나 2002년에는 412억 달러로 증가했고, 그리고 2006년에는 1181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1992년 대비 118배 증가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교역 과정을 통해 한국경제는 약 35조원의 GDP를 창출했으며, 무역 이외의 산업별 파급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한·중 경제교류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국간 경제교류의 발전을 바탕으로, 2003년 이후, 중국은 한국

31) 문홍호, 〈참여정부의 대 중국정책 평가와 과제〉, http://www.hanyang.ac.kr/home_news/H5EAKB/0007/101/2007/196-5.pdf

의 제1 교역 상대국이자 제1 무역 흑자국이 됐으며, 특히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의 제3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³²⁾ 이러한 성장추세를 감안하면 2012년까지 양국간 교역량을 20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키기로 한 2005년 한·중 정상회담 시 나왔던 목표는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³⁾

경제교류의 확대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중간의 인적 그리고 문화교류 역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당시 양국간 인적 교류는 연인원 약 250만 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482만 1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92만 4000명,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89만 7000명이다. 이렇게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가 속에서 양국간의 항공편 역시 대폭 증편되어 2006년 말까지 한국의 6개 도시와 중국의 30개 도시를 연결하는 양국의 항공편이 매주 800여 편 운행되고 있다. 양국의 인적교류가 증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漢流’가 중국에서는 ‘韓流’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에 온 외국 유학생 16만 명 중 한국인 유학생은 36%인 5만 7000명에 달한다. 2006년 HSK(漢語水平考試) 응시생 중 61%인 9만 9000명이 한국인이었다.³⁴⁾

한편, 비록 한·미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한·중 양국의 군사·안보 관련 교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군사·안보교류는 고위급 인사교류, 정책실무 교류 및 연구·교육을 포함한 기타 분야의 교류 등 3개 분

32)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79억 8000만 달러, 수입은 299억 2000만 달러로 총 교역량은 678억 8000만 달러이며, 한국은 80억 3000만 달러의 대 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33) 정상은, 〈수교 15주년을 맞이한 한중 경제관계의 회고와 전망〉, 《CEO Information》 618(2007.08.22), 4-5쪽.

34) 〈한중수교 15주년: 가까워지는 중국 vs 멀어지는 미국〉, 《연합뉴스》, <http://www.yonghapnews.co.kr>(2007년 8월 20일)

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고위급 인사교류의 경우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중국의 부 총참모장인 첸수건(錢樹根)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의 김종환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군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은 계속되어 2005년 4월에는 한국의 윤광웅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2006년 4월에는 차오강환(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책실무 교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같이 양국의 장성급을 대표로하여 자국의 국방정책을 설명하고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체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 결과 2007년에는 한·중 공군 및 해군간의 핫라인 설치 합의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정기·비정기적 학술회의 등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의 학술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 뤼양(洛陽)의 중국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과 국방대학의 단기 과정에 정기적으로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중국의 국제전략학회간의 ‘한중국방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³⁵⁾

이상과 같은 교류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관계 역시 점차 격상되어 왔다.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21세기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합의했으며, 2000년 리평(李鵬) 국무원 총리의 한국답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격상하게 된다. 이후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양국은 다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관계를 격상시켰으며, 2005년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지난 10년,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한·중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전면적인 관여정책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한국은 중

35) 이와 같은 한·중 양국간의 보다 구체적인 군사·안보관련 교류와 관련해서는 황재호, <한국의 대중 군사외교>, 《국방정책연구》(2007. 봄), 77-81쪽을 참조바람.

국에 대해서 제한적인 연성 균형화정책을 실시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영토의 안정적 통합, 동북지역의 사회적 안정과 조선족 사회 및 동북지역에 대한 외부 영향력 차단이라는 방어적 측면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공세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시민사회 및 학계의 주장과 반발을 고려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여러 차례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³⁶⁾ 또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위해 2004년에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정식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탈북자 처리와 통상 마찰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연성균형화 전략으로 대응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가 자신들의 외교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실천 방안은 균형·조화적 다변외교, 정치·경제·군사적 차원에서 거시적·총체적 (또는 포괄적) 다원외교의 추진 그리고 자주·협력 외교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가 ‘현안별 지지/반대’정책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 방기와 연루를 선택적으로 유지한 한편, 경제적으로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의 정책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중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갈등’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중 양국간의 협력의 확대와 강화가, 과연

36) 그 대체적인 내용은 “그 배경이 어쨌건 간에 학술차원에서 하더라도 정치적 문제가 되어 한중관계를 저해할 수 있으니 중국정부에서 이런 인식 제거하고 양국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신년초대석: 송민순 장관>, 《연합뉴스》(2007년 1월 4일), <http://www.yonhapnews.co.kr>.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확대 될 수 있는 한·미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의 인정이라는 큰 선물을 주었으나, 중국으로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지 못했다. 바로 노무현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시킴으로서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대통령 선거기간 중 자신의 선거 공약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의 목적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실용주의 외교’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이른바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으로 구체화되었다. 지난 2008년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외교통상부는 보고서를 통해 ‘실용외교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한다는 슬로건 하에 ‘평화’, ‘번영’, ‘국격’(國格)을 높인다는 3대 외교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 과제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를 위한 신(新) 아시아외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 코리아 지향' 등 7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³⁷⁾ 그리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MB 독트린’으로 불려지

37) 2008년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는 '비핵·개방 3000 구상'³⁸⁾을 제시해 놓고 있다.

문제는 선거직후 그리고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특사·주한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반면, 대 중국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대미외교노선의 강화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물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불확실한 대 중국정책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 중국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외교노선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잠재적 갈등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3비전과 7대 독트린” 중 ‘한·미 동맹의 강화’와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신 아시아외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파악되어지는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에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동안 담론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던 한·미 동맹 강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향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8년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

외교통상부는 보고서를 통해 '실용외교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한다는 슬로건 하에 평화, 번영, 국격(國格)을 높인다'는 3대 외교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 과제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 코리아 지향' 등 7대 과제를 선정한다.

38)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천 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임.

시각 4월 15일(한국시각 16일) 미국 주류사회의 대표적 친한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만찬 연설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 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과거 한·미간의 동맹약화를 노무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그리고 ‘평화구축동맹’의 ‘한·미 전략동맹 3원칙’을 제시했다. 즉 ‘가치→신뢰→평화구축’의 순서로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치동맹’의 경우,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데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양국이 한층 성숙한 가치동맹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신뢰동맹’은 한·미 양국이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신뢰에 기반한 양국의 동맹관계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안보 신뢰와 군사 투명성 제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반이 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이다.³⁹⁾ 이 같은 ‘가치동맹’과 ‘신뢰동맹’이 다분히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평화구축동맹’은 보다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적인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외연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물론 한미동맹의 범위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것을 의식해 “테러와 환경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는 했지

39)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 구상>, 《한겨레》, <http://www.hani.co.kr>(2008년 4월 16일)

만,40)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인권과 민주주의 보급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벌써부터 미국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한국의 평화유지활동(PKO)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서 이 같은 선 굿기가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또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의 연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기 위한 지렛대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는 물론이고 현재 '역내·외 훈련 때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읍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낮은 단계의 5개항에만 참여하고, '공식참여', '지역 내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지역 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등 높은 차원에서의 3단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41) 이렇게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루되어질 경우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긴장 역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협력 외교 과제로 제시한 '新 아시아외교' 역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신 아시아 외교는 앞서의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과거 정부가 김영삼 정부의 아·태협력 중시정책을 포기하고 동아시아 중시정책에 이어 동북아 중시정책으로 이어지는 축소지향적인 지역협력 정책을 시행했다는 비판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기초 위에서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신 아시아외교'는 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 증

40) <한·미 군사동맹 '한반도 너머로 확장'논란 가능성>, 《한겨레》, <http://www.hani.co.kr>(2008년 4월 17일)

4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고에서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차원에서 PSI의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PSI 정식 참여 검토>,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2008년 1월 12일). 특히 MD체제의 참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참여 구상 정밀분석>, 《신동아》, 통권 581호(2008.02), 290-299쪽을 참조바람.

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통합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주도국가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간 지역패권 경쟁으로 어떤 일방도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들 간 연결고리로서 중간자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 경제, 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같은 대 아시아 외교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첫째, 장기적으로 역내 국가들 간 정치, 경제, 안보, 문화적 차원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둘째, 아시아의 주요 세력인 일본, 중국, ASEAN, 호주, 인도 등과 양자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셋째,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중국-북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트랜스 아시아 에너지 협력벨트 구상의 추진, 넷째, 6자회담 이후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협력안보 공동체 창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²⁾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 아시아 외교의 확대 구상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균형자 노선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는 한국이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외교노선을 표방한바 있다.⁴³⁾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기존의 동맹관계를 재조정하거나 또는 이탈하려는 조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에는 롤리스 미 국방성 부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흥

42) 이와 관련해서는 배궁찬, <신정부의 지역협력 외교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http://www.kaisnet>을 참조바람

43) 《청와대 브리핑》, 2005년 3월 22일.

석현 전 주미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며,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주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⁴⁴⁾ 이러한 미국의 반대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현실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 같은 사례는 동북아 보다 지역적으로 확대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명박 정부가 앞서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절대적 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됨을 보여주며, 이를 위해서는 APEC의 안보기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신 다자안보 협력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이와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확대와와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적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의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⁴⁵⁾을 모델로 삼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외무장관 회담의 정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역시 원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실현될 경우 북한·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에 대항해 새로운 삼각동맹체제를 구성함으로써 6자회담의 틀이 깨어 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44)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2005년 6월 9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 노선을 발생배경, 발전과정, 결과 그리고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김현, 〈한미동맹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사회이론》(2007 봄/여름), 51-56쪽을 참조바람.

45)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은 한·미·일 삼국이 대북한정책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모임이다. 차관보급이 각국 대표를 맡아 서울-워싱턴-도쿄를 돌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2003년 초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등 정세변화로 중단됐다. 이후 북핵문제는 2003년 8월 처음 열린 6자회담으로 이관되어 저서 논의되어 졌다.

존재 한다.⁴⁶⁾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월 1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분명하고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⁴⁷⁾ 한편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확대와 한·미·일 사이에서의 새로운 협의체 구상은 미국의 대 중국봉쇄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향후 한·중 관계에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정한 경계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물론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상에서의 발언이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⁴⁸⁾ 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등에 대해서 ‘찬성’이나 ‘지지’가 아닌 ‘이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스처들은 현재 중국은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로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외교의 강화 역시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에너지·자원 외교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으로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6자회담에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 러시아가 의미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이 크게 증진되면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2013년까지 추진

46) <한·미·일3각동맹부활, 중국과 갈등 빚을 수도>, 《한겨레》, <http://www.hani.co.kr>(2008년 1월 4일)

47) <동맹강화-북핵 주도권 이중 포석>, 《동아일보》, <http://www.donga.com>(2008년 1월 25일)

48) <2008년5월27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440969.htm> (2008년 5월 27일)

49) 최지영, <탈냉전 후 미·중 양국 신안보질서관의 충돌>,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www.knsi.org)

중인 극동·바이칼 사회개발 프로그램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어 한반도 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을 포함한 교통,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자원 협력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서열 2위인 빅토르 주프코프 총리를 파견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선 직후 특사로 파견된 이재오 전 의원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 평화 경제지대’ 건설에 공감함을 표시하면서, 양국 정상을 대표로 하는 ‘한·러 동북아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바 있다.⁵⁰⁾

현재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철도연결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과거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발전되어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상호연계성의 강화와 함께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과 같은 상황의 발생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렇게 한·러 양국의 경제교류, 특히 에너지·자원외교의 확대와 철도의 연결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가 보다 접근하고자 하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불러 오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중국이 원하는 동북아 신질서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지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동맹회복과 강화를 위한 노력은 사안별 지지/거부라는 방식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 ‘방기’와 ‘연루’를 선택함으로써 중·미 양국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와는

50) <러, 자원외교 주목·경제협력 강화 기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2008년 2월 25일); <MB실용외교 시동...4강 입장: 러시아>,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2008년 4월 11일)

달리,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루하고자 하는 거의 ‘편승’과 가까운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편승 역시 신흥 강대국과 전통적인 강대국의 경쟁 사이에서 기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수단의 한 방법이다. ‘편승’정책은 강대국의 동맹에 가담하는 것이며 약소국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동맹자를 확보하기 위해 약소국들에 대해 혜택제공을 약속함으로써 편승전략을 취하도록 촉진시킨다. 약소국들은 편승을 통해 안보라는 공공재를 보장받고 자국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편승전략은 신흥강대국가의 부상 자체를 좌절시키거나 지연시킬 능력과 의도가 없고 오히려 부상국가의 부상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동반이익을 최대화하기를 원하는 약소국들의 대응전략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편승은 특정 국가의 국제 전략에 대한 편승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정책에 편승하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되어진다.⁵¹⁾ 즉 한국이 미국의 국제 전략에 편승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고, 확실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외교정책 곳곳에는 중국의 동북아구상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잠재적 충돌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한·중 양국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2007년 12월 중순 홍콩의 《아주주간》(亞洲周刊)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방면에서 중국의 협조만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당선 이틀 후,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견에서도 자신이 중국을

51) 편승전략과 관련해서는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 1(Summer 1994), 72-107쪽을 참조바람.

매우 중시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며, 한중관계가 자신의 임기동안 더욱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계속 지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외교·문화 등의 전방위적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대폭 수정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봐야한다. 한·미 동맹의 강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양국 사이에서의 간극을 메우고, 한·중·미 삼국 사이에서의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관여’정책을 펼침으로써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를 보다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747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요구해 오고 있는 한·중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기에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²⁾ 중국은 한·중 FTA체결을 통해 한·중 양국간에 경제·무역 교류가 확대되면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한·중 공동경제권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한·중 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중 FTA가 양국간의 관계강화(또는 유지)에 있어 좋은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⁵³⁾ 또한 티벳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 한·미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또는 묵시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중국과의 ‘연성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방향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2) 〈한중수교 15주년: 7 리둔춘 한반도연구센터 두임 인터뷰〉,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2007년 8월 20일)

53)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은 중국 측의 조기 협상 개시에 대해 한국측이 한·미 FTA의 여전히 불분명한 국회 비준 등을 이유로 그리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실제로 예상됐던 2008년 상반기에 산관학 연구의 종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모멘텀은 유지하되 연내 협상 개시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 인터뷰(2008년 8월 1일)

종합하면,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는 각각 대미정책에 있어서, 연루와 방기의 선택적 조합/ 편승과 거의 유사한 적극적인 연루의 태도를 보여줬고, 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와 궤를 같이하여 대중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들 정부 모두 양다리정책을 기본 목표로 하되, 노무현 정부는 전방위적인 관여정책과 제한적인 연성 균형화 정책을 동시에 구사했고,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로 봤을 때, 경제 분야에서의 관여정책과 연성균형화 정책을 동시에 구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5. 맺는 글: 앞으로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중관계의 미래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까지 한·미 동맹의 강화에 상응해 한·중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독립적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한·중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는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다.⁵⁴⁾ 따라서 유사시 기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북·미간 관계가 급진전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경우 한국은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활용할 필요성이 생긴다. 또는 남·북관계(혹은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 질 경우,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때, 사전에 중국과의 독립적 정책을 마련해 관계를 관리해 오지 않았을 경우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과제

54) 이남주, <‘이명박 정부’ 숨죽이며 지켜보는 중국의 시선>,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2008년 2월 21일)

는 한·미 관계에 상응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이명박 정부가 풀어가야 할 현안을 제시한 중국 언론의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⁵⁾ 그 첫 번째가 한·미 군사협력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첨단 군사 정보는 여전히 미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국제정세와 미국의 군사전략,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안보관을 수립하여 자주적인 방어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한·미 양국이 무기구매와 미사일연구·개발 및 전략적 배치 등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모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966년 제정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는 그 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불평등 조항을 안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으로 인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해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국 국내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한·미관계는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대선 직전 발생한 미선이·효순이 사건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한·미 경제무역관계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FTA비준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2008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FTA는 예측하기 힘든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와 오바마 모두 현재와 같은 내용의 한·미 FTA의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간의 경제·무역관계가 한·미간의 경제·무역관계를 넘어선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은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 과정 중 한·미 양국의 입장차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마주할 때의 입이 서로 다르고, 양국 국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상당히

55) 〈韓國新總統: 外交將轉向?〉,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 (2008년 2월 1일)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일치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새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새 정부에 대해 북한이 강경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 문제는 현재 나타나고 있다.⁵⁶⁾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과제는 첫 번째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만큼 한·미 동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한·미, 한·중관계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서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나타내는 외교의 내용에 있어 대미 비대칭성이 심화될 경우 여타의 국가들과 외교협상을 전개할 때, 특히 미국이 관계되었을 경우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보다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미국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만약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를 대등한 또는 독립적 관계에서 해석하고자 할 경우, 또는 한·미 양국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외교정책은 그 근본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과제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이다. 청와대 수석 및 정부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해 대외 정책결정과 관련해 핵심적 지위에 포진하고 있는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전 주중대사를 지낸바 있는 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면 중국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우며, 주요 외교라인은 모두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의 고위직 관리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마찬가지

56) <북, 이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비난>,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2008년 4월 2일); <北, “10.4선언 이행여부 확실하라” 공세>, 《중앙일보》, <http://www.joins.com>(2008년 4월 21일)

지이다.⁵⁷⁾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 중국대사는 물론이고 대사관 직원들의 상당부분이 한국어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 중국 외교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환치우시보(環球時報)의 잔더빈(詹德斌)은 “한국에서처럼 미국전문가가 대외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현실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관계만 좋아지면 한중 관계를 포함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결자의 고위참모들의 ‘미국안경’을 끼고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다룰 경우 미국식 사고에 입각해 현상을 파악하기 쉬우며,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은 물론이고 한·중 양국의 관계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⁵⁸⁾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 국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을 활용해 대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해야 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최소한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57) 詹德斌, 〈韓國外交缺少“中國通”〉, 《環球時報》, <http://www.huanqiu.com>(2008년 4월 2일)

58) 〈MB외교에 불안한 중국〉, 《중앙일보》, <http://www.joins.com>(2008년 2월 27일)

[參考文獻]

- 김근식,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http://www.knsi.org>).
- 김강녕,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통일전략》 3:1(2003).
- 김태현,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평가: 동북아 공동체의 꿈과 현실〉, 《정
세와 정책》(2004.04).
- 김현, 〈한미동맹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사회
이론》(2007 봄/여름).
- 문홍호, 〈참여정부의 대 중국정책 평가와 과제〉, [http://www.hanyang.ac.kr/
home_news/H5EAKB/0007/101/2007/196-5.pdf](http://www.hanyang.ac.kr/home_news/H5EAKB/0007/101/2007/196-5.pdf).
- 박병광, 〈중국의 미래상에 관한 담론 고찰〉, 정재호 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서울: 도서출판 길, 2006),
- _____, 〈중국의 강대국화와 인도의 대응방안〉, 《中蘇研究》 115(2007. 가을).
- 배공찬, 〈신정부의 지역협력 외교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http://ww
w.kaisnet](http://www.kaisnet).
- 서진영,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하
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 7(2003).
- 이남주, 〈‘이명박 정부’ 숨죽이며 지켜보는 중국의 시선〉, 《프레시안》, [htt
p://www.pressian.com](http://www.pressian.com)(2008년 2월 21일).
- 정경환,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통일전략》 2:2(200
0),
- 정상은, 〈수교 15주년을 맞이한 한중 경제관계의 회고와 전망〉, 《CEO Info
rmation》 618(2007.08.22).
- 차창훈,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전략과 목표를 중심
으로〉, 《韓國政治外交史論叢》 29:1(1997).
-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2003).
- 한석희, 〈탈냉전 시기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의 국가이익과 주변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책〉, 《연세사회과학연구》 7(2001. 11).
- 황재호, 〈한국의 대중 군사외교〉, 《국방정책연구》(2007. 봄).
- 王蒙奎, 〈全面建設小康社會的宏偉綱領〉, 《人民日報》 2002年 12月 3日.

- 閻學通 等著, 《中國與亞太安全: 冷戰後亞太國家的安全戰略走向》(北京: 時事出版社, 1999).
- 詹德斌, 〈韓國外交缺少“中國通”〉, 《環球時報》, <http://www.huanqiu.com>(2008年 4월 2일).
- Amitav Acharya, “Containment, Engagement, or Counter Dominance?: Malaysi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Alastair Ian Johnston and Robert S. Ross(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New York: Routledge, 1999).
- David Shambaugh, “China and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Washington Quarterly* 26:2(2004).
- Elizabeth Economy,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imes on Chinese Foreign Policy-Making”, David M. Lampton (eds),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Evan Resnick, “Defining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2(2001).
- H. Lyman Miller and Liu Xiaohong, “The Foreign Policy Outlook of China's ‘The Third Generation’ Elite”, David M. Lampton(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James D. Ma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1991).
- James N. Rosenau(eds), *Linkage Politics*(New York: The Free Press, 1969).
- Joseph Frankel, *The Making of Foreign Policy*(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1984).
- _____, *Alliance Politics*(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Englewood

-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7).
- Lee Hong Yung, "China and the Two Koreas: New Emerging Triangle", Young Whan Kihl (eds),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ar*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 Moon, Chung-in and David I. Steinberg(eds),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Summer 1994).
- Randall L. Schweller,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 History and Theory", Alastair Ia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New York: Routledge, 1999).
- Robert L. Suettinger,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China Leadership Monitor* 12(2004).
- Robert Osgood, *Alliances and American Foreign Policy*(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1968).
-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39:1(1997).
- Thomas J. Christensen,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4(2001).
- Zhang Yongjin and Greg Austin(eds), *Power and Responsibility in Chinese Foreign Policy*(Canberra: Asia Pacific Press, 2001).

[中文摘要]

本文爲了摸索韓國未來外交政策的適當的方向，主要考察的是韓國的最

近的兩個政府即，盧武鉉和李明博政府的對中政策。從他們所主張的政治立場來看，這兩個政府是在一定程度上持有正相反的態度，前者是進步；後者是保守。因此本文主要進行比較這兩個政府的對中政策。雖然李明博政府上台了不久，但是在總統競選過程以及當選以後已經發表了自己對外交政策的一些基本原則和方向。因此本文認為通過分析這些資料可以判斷對中政策的基本方向。研究結果，盧武鉉和李明博政府在對美政策上持有介入和放棄的選擇性組合/積極性介入態度。同時在對中政策上，在基本上實行兩方向政策的前提下盧武鉉政府實行的是全方位性介入政策和軟性均衡化政策而李明博政府可能實行經濟方面的介入政策和其他方面的軟性均衡化政策。總的來說，韓國政府要注意在外交政策上早變夕改所帶來的弊病。

本文以共五章組成。在第二章闡述中國的外交政策以及對韓半島的政策。雖然本文在分析過程中不把中國設定為獨立變數，但是在本文裏中國的外交政策及對韓半島的政策是以背景的形式存在。在第三和四章裏分析和預測盧武鉉和李明博政府的外交政策和對中政策。在結論裏本文主要提出李明博政府要克服的一些任務。其主要內容是：第一，盡快制定對中政策的具體內容；第二，要警惕韓美同盟非對稱性所造成的一些負作用；第三，要增加對中國專家的關心。

關鍵詞：盧武鉉、李明博、對中政策、兩方向政策

투고일: 2008. 6. 25.

심사일: 2008. 7. 20. ~ 2008. 7. 31.

게재 확정일: 2008. 8. 10.

사유에 깃든 문명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의 《중국사유 *La Pensée chinoise*》

유병태*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 1884-1940)의 《중국사유 *La Pensée chinoise*》는 1934년 르네상스 뒤 리브르(Renaissance du Livre) 출판사가 기획한 총서 《인류의 발전 *L'Evolution de L'humanité*》의 제4권으로 발간되었다. 이 총서는 프랑스의 역사철학자이자 아날학파의 주도자였던 앙리 베르(Henri Berr, 1863-1964)의 기획 하에 주관되어 《인류의 발전》이라는 그 제명이 암시하는 대로, 20세기 초엽 대륙과 동서의 분열로 좌초 직전에 이르게 된 세계문명에 대한 성찰을 기함으로써 상이한 문명 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총서의 제 1, 2, 3권은 이성적 사유를 정신의 공동토대로 삼고 있는 지중해 문명의 사회적 기원과 특징들을 논구하고 있으며, 이어 제4권에 해당하는 이 책 《중국사유 *La Pensée chinoise*》는 서구의 외부인, 극동문명 특히 중국문명에 대한 연구를 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총서의 취지에 따라, 《중국사유 *La Pensée chinoise*》라는 제명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으로서의 중국사유를 그 외연을 넓혀 중국문명의 여러 요소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방대하게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한 권의 사상사로서 대하기보다는

* 인제대학교 중문학과 교수(chinayou@inje.ac.kr)

일종의 문명사적 저술로서 읽어야 할 것이다. 구성면에서 이 책은 제1부 사유의 표현(언어, 문자와 글, 문체), 제2부 주요 개념들(시간과 공간, 음양, 수, 道) 제3부 세계의 체계(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제4부 교파와 학파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사상사 관련 저술들이 그 주류로서 다루는 유파와 학파에 따른 중국사상의 논의는 제4부에 국한시킨 채 대부분의 지면을 문명의 제 요소들에 관한 연구에 할애하고 있다. 이는 그라네로서는 한 문명의 사상이나 그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상 자체의 연구에 앞서 그 사상을 가능하게 했던 문명적 환경과 문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라네는 이 책에서 특정한 한 사상이나 그 유파가 어떠어떠했는지에 대한 규명보다는 그러한 사상들이 출현하기 이전에 일찍부터 중국문명 속에 줄곧 자리해 오면서 그러한 사상들의 공통토대가 되어왔던, 그라네 자신의 용어인 이른바 "익명의 전통"을 규명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저자가 이 책의 보다 이전과 이후에 보여주었던 중국문명에 관한 저술들인 《중국고대의 자매혼인제 *La Polygnie Sororale et le Sororat dans la Chine féodale, étude sur les formes anciennes de la polygamie Chinoise*, 1920》, 《중국인의 종교 *La religion des Chinois*》(1922), 《중국고대의 춤과 전설 *Dances et Légendes de la Chine ancienne*》(1926), 《중국문명--공적생활과 사적생활, *La Civilisation Chinoise- La vie Publique et la vie privée*》(1929), 《중국고대의 혼인제도와 종족관계 *Catégories matrimoniales et la relations de proximité dans la Chine ancienne*》(1939), 《중국문명 *La Civilisation chinoise*》(1929)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본서에서는 그가 이전의 저술들에서 풍속, 민속사적, 문학사적 입장에서 지속해 왔던 중국문명에 관한 연구를 보다 포괄하는 방식으로 크게 중국의 문자와 언어, 수, 사상의 주개념들을 통해 중국사유의 동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라네는 중국 사유는 서구의 사유와 변별되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 첫째, 중국 사유는 순수한 인식의 추구보다는 문화, 과학보다는 지혜의 추구를 궁극으로 삼는다. 둘째, 중국 사유는 인간과 우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사회, 사회와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셋째, 중국 사유는 우주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질서는 어떠한 법칙에 의해 추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구성요소인 인간과 자연, 사회와 우주의 내밀한 협조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중국 사유는 이성적 추론에 입각한 서구의 인식론적 비평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사유의 특징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는 중국 사유를 특징짓는 표현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제일 먼저 고찰된다. 중국어는 구체적인 의미가 풍부한 단음절 언어로서 명확한 표현체가 아니라 감성을 전달하고 과급하는데 효율성을 갖춘 못 "음성적 표상"들이 넘쳐나는 언어로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실행력을 동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어는 개념의 기술, 생각의 분석, 학설의 추론적인 표현보다는 타인에게 행동을 암시하고 타인의 마음을 바꾸고 설득하려는 저의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다. 말은 행동 그 자체이며,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를 소유하고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어는 순수한 기호로서는 가 닿을 수 없는 일종의 마력적인 힘을 가진 상징이며, 그러한 효율성은 형상체로서의 문자와 단어를 통해 줄곧 그 신선함을 잃지 않고 보존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와 문자로부터 생성되는 문학들, 예를 들어 시인과 역사가와 철학자들의 묘사와 서술들 역시 논리와 독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成語와 金言과 상투적인 제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이 成語와 金言과 상투적인 제재들은 과거로부터 줄곧 그 환기력을 보존해 오며 따라 암시만으로도 충분한 효율성으로 인해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문학은 일종의 모자이크 양식과 유사한 조립문학으로서 규정된다. 그라네는 이러한 문학에서 운율이 갖는 중요성을 지목한다. 운율은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속되는 일련의 단어들과 표현들 속에서 일종의 겹표와 같은 것으로, 구문의 의미를 言外の 영역으

로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 사유는 이 운율을 통해 명료한 기호들의 직접적인 전달이 갖는 한계를 넘어 은밀하게 정신에서 정신으로 조형적으로 과급되는 것이다. 莊子는 이러한 운율의 심오한 운용을 통해 중국사상가들 중 가장 덜 난해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사상을 꽃피운 대가로서 자리하게 된다. 제2부에서 그라네는 어떠한 주개념들이 중국 사유를 주도하는 동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지, 또한 어떠한 주개념들이 중국 사유를 형성해주는 범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지를 규명한다. 陰陽과 道를 비롯한 중국의 주개념들은 추상적 범주로서 기능하는 서구의 수, 시간과 공간 및 원인과 종류의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개념으로서 사회활동과 사회조직의 원칙으로서 제공된다. 시 공관에 있어 중국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는다. 아울러 중국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획일적인 인식이 적용 가능한 균일한 대상이 아니라 행동상의 목적이나 특수한 효율성에 따라 분류에 관계되는, 일종의 위치와 기회가 부여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집단들의 집합체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집단으로서의 시공은 각기 十干과 十二支에 의해 그 상징성을 부여 받으며 우주의 골간과 고리를 형성한다. 음양은 밝음(明)과 어둠(幽), 움직임(動)과 멈춤(靜), 강함(剛)과 약함(柔), 감(往)과 오(來) 등의 두 구체적인 양상들의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우주의 이원적 특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한 쌍의 으뜸적인 표상으로서 중국인들이 사물들을 분류하는데 있어 지배적인 범주로서 작용한다. 아울러 이 음양은 至高의 범주인 道에 의해 통섭됨으로써 이원론적 대립으로부터 조화(和)으로 나아간다. 道는 충만한 활력으로 우주의 삶을 총괄하는 총체적 범주이자 질서와 조정의 권능으로서 성스러움과 구별되지 않는 지혜와도 같다. 數는 중국사유의 기본적인 태도와 정교한 심리를 보여준다. 중국인들은 수의 상징적 가치와 그 효용성을 추구할 뿐 수의 양적 개념에는 무감하다. 그들에게 수의 용도는 현실 세계를 측량하는 데 있지 아니하며, 현실의 구조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시공에 적합한 기하학적 적용에 사용된다. 아울러 중국인들은 수의 배치를 통해 우주의 요소들과 그 관계를 재현

함으로써 우주를 인식하고 정비한다. 중국 사유는 바로 이러한 공동의 토대, 즉 익명의 전통 위에서 그 동향과 특질이 규정된다.

기원전 5-3세기 봉건체제에서 제국체제로의 과도기에 중국은 도덕적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전제군주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정당성을 기하고자 함에 따라 학파와 교파는 불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익명의 전통, 특히 공통개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시기 학파들이 내세운 이론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론이기보다는 일종의 지혜에 관련된 다양한 技術, 즉 지략에 불과하였다. 그라네는 이 기술들을 크게 세 갈래, 즉 統治術과 公益術과 長生術로 나눈다. 이들 중에는 더러는 궤변에 능통한 정치가와 외교가들, 더러는 논리학에 의거하는 행정가와 법률가들, 더러는 추상적인 사변가들도 있었으나 모두가 일시적인 성공이나 국지적인 영향력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孔子만은 지속적이고도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직 공익의 문제에 전념했던 그는 극히 인간적이고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로서 허식과 절대적인 규범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양을 통해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들, 즉 군자들이 생활에서 보여주는 우애에 입각한 처세술만이 유익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천자에서 만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은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을 깨우치고 타인을 이해해함으로써 聖人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공자의 인본주의는 범주화된 지식과 교리적이거나 허황된 사변들과 침례하게 대립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 또한 그의 권위가 증대해감에 따라 변질되기에 이르렀고 그 독창성도 퇴색되어 갔다. 墨子は 공자와 마찬가지로 공익의 추구하고 미풍양속을 선양하였으며, 봉건시대의 농촌사회의 상부상조에 대한 의무감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의무를 가장 엄격한 극기를 통한 고행과 연결시킴으로써 대중적 지지기반을 잃고 만다. 老子和 莊子로 대표되는 方術家 혹은 長生家들은 孔子와 墨子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그들은 의례를 칭양하는 윤리주의나 고행을 옹호하는 과격주의에 반한 채, 왕성한 생명력과 완전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仙의 경지를 내세웠다. 長生術은

우주적 삶에 부합하는 요법으로 활력을 얻어 영생을 구가하는 기술이다. 그 기술은 아이들과 동식물들로부터 단순하게 삶을 즐기는 생활요법을 배움으로써 생명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 그리하여 성인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가늠할 수도 범할 수도 없는 자로서, 완전히 자생적인 생명력 그 자체이자 우주의 생동하는 숨결에 혼용된 숨결 그 자체가 된다. 공자는 공익을 위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도가의 聖人は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삶을 영위할 따름이다. 성인은 오직 세계의 망각을 통해 세계를 구한다. 성인의 영생과 더불어 자연은 영속한다. 공자의 적통으로 자부하는 孟子는 文士의 전형을 정착시킨 최초의 문사로서 백성들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 통치의 원칙을 善政에 두었으며, 군주를 계몽시키는 것을 현자의 임무로 삼았다. 荀子는 법가와 도가의 세례를 입고 있으나 스스로 공자의 적통임을 자임하였다. 그는 문명이란 인간의 자연성을 완성한 현자의 발명품으로 인식하였으며, 참되고 선한 세상은 이 문명의 표현이자 이성의 표현인 禮와 義의 실천 속에 도래한다고 보았다. 漢代는 그 성립과 더불어 過去에 입각한 제도의 정착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董仲舒를 중심으로 역사에 입각한 통치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공자의 이론을 신성화하는 반면 이단의 이론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며, 옛 문헌들로부터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찾는 데 뉘이고 말았다. 따라서 관료는 문사의 몫이 되었고, 문사들은 교리의 전파자로 남게 됨에 따라 공자의 인문주의와 실증주의적 사상을 저버린 또 하나의 교리주의가 하나의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 걸 같이 단순한 인식이 아닌 문화의 추구와 함께 현자들로부터 "자유로운 명상을 도와주는 제재들"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의 현자들은 그들의 정통사상들 가운데 특히 도가의 자연주의나 공자의 인본주의를 더욱 선호하였다. 그들은 하나 같이 화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유가와 도가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완벽한 지혜, 완전한 자기 통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협동하는 삶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들 중에서 가장 일찍 성숙기에 도달한 문명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상 본서의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았다. 중국 사유를 크게 언어와 문자와 주요개념이라는 삼대 요소로 종합적으로 보려는 시각은 그 시도에 서부터 무모함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탓에, 학자로서의 지적 엄밀성과 통찰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과감한 용기와 불굴의 투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3대 요소를 전제로 하기 이전의 준비 작업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서가 불가피하게 때로는 국부적일 수도 또 때로는 단정적일 수도 또 때로는 철학적 인식이 다소 결핍된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한 문명을 포괄하려는 시도에 있어서만큼은 또한 그러한 시도가 임의적 해석보다는 신화, 민속, 역사, 철학적 사료와 문헌에 충실하려는 실증적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라네는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ero, 1882-1945)와 뽀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와 더불어 현대 중국학의 기초를 세운 에두아르 샤반느(Eduards Chavannes, 1865-1918)의 제자이며,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 1858-1917)의 제자로서 지난 세기 초 프랑스에서 중국학의 기초를 다진 학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그라네는 당시의 중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사상사적 측면에 국한되어 중국 본연의 사유를 서양의 철학적 개념에 입각하여 재해석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려는 자의적 접근방식을 배제하는 한편, 사회학과 민속학과 인류학의 측면에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신선한 생명력"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는 중국문명의 유구한 역사성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그의 탐구는 그 기원조차 알 수 없는 어떤 사유방식이 2천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줄곧 역사의 흐름을 관장하면서 아직까지 현대의 동양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이로움을 간직한 채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서구 철학사는 지배적인 개념들이 전복되고 부

정되는 과정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문명권에서의 핵심사상은 오로지 추종하고 숭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만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며,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사상 그 자체에 국한시켜 탐구하고 있기보다는 문자를 비롯한 수의 영역에 까지 적용시켜 탐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당시 유행했던 서양의 문화비교 학자들이 중국의 "외부시점"에서 적잖이 범해 왔던 오류들을 벗어나고 있다. 당시 비교 문화의 이름으로 범해지는 가장 큰 오류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비교 연구 자체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상이한 두 문화를 왜곡시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인도유럽어의 알파벳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표상문자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지 않다. 알파벳문자가 개념을 수용하는데 적합하다는 기준으로 중국의 표상문자를 바라보는 "시점"으로는 중국의 문자에는 그러한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만을 들추어내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이렇듯 한편의 문화에 있는 것이 다른 편의 문화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일종의 이분법에 옳매인 편협한 "시점"의 산물일 뿐, 연구대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그라네의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와 문자에서 뿐만 아니라 수와 주개념의 연구에 있어 결코 서양의 기준에 따른 접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대상을 최대한 중국의 "내부시점", 즉 중국문명의 형성요체인 풍습, 사유방식, 제례, 의식, 정치구조, 사회조직 내에서 한정적으로 적용시켜 다루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중국문자 고유의 특성은 그 문자의 기원에서부터 문자를 통한 사유의 정립, 사유의 정립을 통한 정치이론의 확립, 정치 이론의 확립을 통한 사회조직의 기반 완성, 사회조직 기반의 완성을 통한 역사성의 구축과 일상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조망 하에서만 그 문자 자체의 특성이 고찰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문자에 내재하는 하나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있어서 마저도 중국의 주요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개념의 문제만 하더라도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개념으로는 동양

사회를 지배했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어떠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유전개에 있어 그 작용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식 철학방식, 이를테면 철학적 용어들을 도입하여 동양의 사유방식을 기술하는 것은 표기문자로 표상문자에 접근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라네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두 문명 중 하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서양철학에서 주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존재, 실체, 힘 등의 개념들에 비추어 동양사상의 개념들을 인식하려 드는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이해 불가능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유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한계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의 폭넓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에 대한 탐구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그가 겪는 진정한 학자로서의 한계에 접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한 서구학자로서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동양학자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아직껏 道라는 개념의 기원뿐만 아니라 음양사상의 기원 역시 규명된 적이 없고 또 그러한 규명작업을 시도하는 것 역시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따름일 것이다. 우리가 道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항상 어떠한 규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까닭은 일찍이 이 개념을 전하였던 이른바 고전들, 이를테면 노자나 장자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벌써 道라는 개념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한계인식을 보여주는 불확실하고도 미정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라네가 이 저서의 집필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념의 미정의 상태가 단순히 우리에게 사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린 개념으로서 우리의 사유를 끊임없이 자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사상의 주개념은 사유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폐쇄적인 교리로 흐르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화두처럼, 즉 세계로 열린 하나의 창문처럼 정신에 다가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동양사상의 주개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성은 마치 중국문자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의 이름으로서,

또한 하나의 이름인 까닭에 하나의 실재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는 계기로 주어지고 있는 것과는 같다. 이러한 종합적인 열린 공간으로서, 중국 문명의 요체를 이루고 있는 문자, 수, 주개념들에 대해 그라네는 학자로서의 열린 시각 즉 미지의 문명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물음이 방향성을 지니는 것은 바로 물음 자체가 하나의 미지의 것에 대한 열림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동양 학자는 동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양 학자는 서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신이 속한 문명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은 마치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문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나는 그 문명에 대한 긍정적 자세이며 또 하나는 부정적 자세이다. 그런데 한 문명을 일구는 사유라면, 내적으로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다만 부정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경우는 바로 문명의 기본 틀인 사유자체가 하나의 제도화로 정착하면서 정신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강제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서양에 있어서 형이상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형이상학 자체가 이러한 강권적 체제로 전락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구학자들이 형이상학의 주개념들인 존재, 실체 등의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바로 그 개념들이 강제력을 발휘하면서부터 야기되는 역사의 불행 때문일 것이다. 불가지함을 전제로 내세우는 서구의 형이상학은 바로 그 불가지함을 이유로 수많은 맹신적, 자의적 해석들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불가지한 것은 바로 그 자체로는 본래 열린 공간이다. 불가지한 것은 다만 인식의 한계를 규정할 따름이므로 무한한 물음의 공간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불가지한 것을 하나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물음의 공간을 닫아버리는 제도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다. 제도화되어버린 형이상학은 더 이상 물음의 공간이 아니다. 서구인들이 동양철학의 주개념인 道라는 개념에서 열린 공간을 보면서도, 서구 내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열린 공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요컨대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인 사유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탓에 결국 다른 곳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동양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구학자들이 더러는 이국취향 또 더러는 적극적인 탐구의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 반면, 서구의 학자들과는 달리 동양의 학자들은 그 자체의 문명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긍정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일종의 고전화된 사상들을 숭상하는데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교연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문명마다의 그 기본 틀을 형성하는 사유야말로 서로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양의 道라는 개념의 긍정성은 서구의 형이상학의 긍정성과도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서구의 형이상학이 왜곡된 형태는 道라는 사상이 왜곡된 형태와 유사하다. 문명의 기본사상은 이렇듯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수단으로 전락되는 과정에서 필시 왜곡의 역사를 낳기 마련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이 책은 문명사에 관련된 저술이다. 기본적으로 문명사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료들을 통한 고증에 앞서 연구자로서의 문명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타 문명에 관한 연구는 그 문명 자체가 겪었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실증적이든 사회사적이든 어떤 방식으로의 고찰 이전에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즉 문명의 기원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그라네는 바로 이러한 성찰의 과정으로서 본서를 시대적으로 漢代 이전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한 문명의 긍정성 혹은 부정성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문명의 정착시기에 있어 문명의 역사적 가능성을 보고자 했던 것일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그라네의 자세는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깨우쳐주는 경종이기도 하다. 본서의 번역이 굳이 하나의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있다 하겠다.

《信仰·母題·敘事——中國古典小說的新探索》

金世煥*

《信仰·母題·敘事——中國古典小說的新探索》一書是衡陽師範學院朱迪光教授許多年來研究的精心大作，2007年12月中國社會科學出版社出版以後，很快就引起學術界的爭鳴，又得到許多學者的強烈共鳴。其書由上中下三編十一章組成，共26萬字。上編共二章主要對中國的民間信仰的出現、發展和特徵進行了系統的闡述。第一章概述中國古代民間信仰的出現，第二章對中國民間信仰存在、發展之因由及其特徵進行了探討。中編共三章討論“母題(motif)”概念的引進和中國的母題研究，第三章概述了民國時期“母題”概念的引進及其應用，第四章探討學界關於母題與主題、題材、原型、意象的辨析，第五章通過考察諸家“母題”界說，確定“敘述母題”定義。下編共八章，是著作的主體部分。第六章宏觀地闡述民間信仰、敘述母題與中國小說敘事的关系，揭示民間信仰、敘述母題為何會對古典小說產生影響。第七章具體考察《搜神記》，發現民間信仰、敘述母題與故事敘述同構，也就是說同一個載體裝載着兩個方面的內容，既是信仰方面的內容，又是一種敘述模式，是中國小說的初級形態，既有着史前那種渾融體的一些特徵，又向新的體裁演變。第八章探討民間信仰、敘述母題對唐人小說創作的影響，發現承載着民間信仰內容的神怪人化母題對唐人“有意為小說”的自覺意識的產生有着重要的關係，也就是說對中國小說的真正出現起着重要的催產作用。第九章考察宋元話本這種受着民間信仰、敘述母題巨大影響下的故事敘述。第十章、第十一章分別從主題、結構和人物塑造等方面考察民間信仰、敘述母題對《三國演義》、《水滸傳》創作的影響。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kimshwan@pusan.ac.kr)

这部著作，正如其宣称的那样是中国古典小说研究领域中的一种新的探索，具体说来有以下一些特点和成就。

第一，研究的角度新颖，研究的方法的独特。鲁迅的《中国小说史略》在论述中国古代小说的发展时就注意民间信仰的影响，惜乎是“略论”，只是点到为止。近年有许多著作也选择了从宗教与文学的关系角度来研究文学，如葛兆光的《禅宗与中国文学论集》、孙昌武的《佛教与中国文学》，但从民间信仰的角度来研究中国古代小说的还没有，因此具有开创性。从民间信仰的角度来研究中国古典小说，可以说是一种文化研究，当然也是一种内容研究，而母题研究虽然也牵涉到作品的内容，但它主要是寻找小说文本中的共同因素，偏向于形式研究。另外，研究还采用了模式研究的方法，也就是说在历时性的研究中使用了共时研究。这样，不同方法的兼用形成了本书研究方法的独特。

第二，对中国民间信仰、中国母题研究进行了深入的研究。首先，该书第一次通过对中国古代文献的全面稽考，勾勒出中国古代民间信仰的真实面貌，探讨其出现、发展之因由，其突出的贡献是对中国民间信仰特征——“总是面对现实并解决现实具体问题”的揭示。其次，全面考察了“母题”概念的引进及其应用的历史，廓清了中国文学研究中母题研究中的混乱情况，提出了恰当的“叙述母题”概念。

第三，系统阐述了民间信仰、叙述母题与中国古典小说叙事之影响。民间信仰对中国古典小说的影响是要通过叙述母题这一中介或者这一途径才能起来作用。民间信仰在其传播时除了信仰场所如祠庙和信仰形式如祭祀外主要是通过一些故事的世代的口耳相传。其中用来传播民间信仰的许多故事，尤其是那种原生态的故事，实际上就是叙述母题。这样一来，民间信仰与叙述母题的关系可以概括为：内核与形式的关系(信仰为内核，叙述母题为形式)。对古典小说起着影响的是那些承载着民间信仰内核的，持续存在的，结合得非常紧密的小故事亦即叙述母题。承载着民间信仰内容的叙述母题对古典小说创作的影响首先表现在叙述母题成为中国古代小说的重要题材内容。魏晋南北朝志怪小说中，神仙、妖怪等等民间信内容充斥其中。宋代说话中的小说类有八个子目，灵怪、烟粉、妖术、神仙等占其中四个。这四个

子目就是承載民間信仰內容的敘述母題的四個大的類別。而其他子目中牽涉到這方面的內容還不算在內。明代章回小說中還有神魔小說這樣一類,如《西遊記》以及隨後產生的《四遊記》,《封神演義》等等,里面充滿承載民間信仰內容的敘述母題。就是那些被稱之為現實主義作品里面也不乏承載民間信仰的內容敘述母題,如《三國演義》,這部小說中有不少鬼魂顯靈等民間信仰內容的敘述母題,《紅樓夢》中也是如此,神仙鬼怪、符咒禳祝等敘述母題也隨處可見。其次,通過敘述母題的採用而使民間信仰的特徵影響着古代小說創作中對非現實題材的處理方式。一方面在非現實題材作品中,無論是其敘述母題的模式,還是其中似人非人的神仙鬼怪的母題成分,都是人類幻想的產物,但古代小說創作者們在具体描寫中却完全採用寫實的手法。另一方面通過敘述母題使民眾信仰的特點直接影響非現實題材作品創作和寫實作品中的非現實情節的採用即借用超現實的力量來解決作品主人公所面臨的具体問題或矛盾,改善主人公的生活境遇或達到某一現實的目的。

第四,在古典小說名著研究方面取得一些突破。《三國演義》、《水滸傳》在中國家喻戶曉,研究者甚多,幾乎所有現當代的大學者都研究它們,所取得的成就不用說是巨大的。但是,每部古典名著的研究並沒有終結,所有已取得的研究成果都是未來的研究的起點,事實上也确实如此,有許多問題迄今為止還沒有找到完美的答案。《三國演義》,以前人們只看到它與史書的關係,對民間信仰敘述母題對它的影響注意却視而不見,而實際上民間信仰影響着它的主題的表達、結構的方法特別是人物的塑造。對《水滸傳》的研究也是如此,明清的評點家認識到它與“忠義”的密切關係,解放後研究者幾乎都認定它寫的是農民起義,其結構也是什麼小說的話本聯綴等等。通過對小說中民間信仰內容的研究,發現《水滸傳》有着一個民間信仰框架,也就是說它的結構是受民間信仰影響的結構,而且是環形的:魔星——好漢——將軍——神道。這一結構決定着,或者說由民間信仰所決定的創作主旨就只能是對那些不得其善終天神般人物的歌頌,因此從民間信仰方面論述了傳統的“忠義”之說合理性的,比只從傳統道德方面立論更有說服力。

《中國學》 발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2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1년간 2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8월 30일과 12월 20일, 2회 발간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8월 30일 발행 학술지의 원고는 당해 년 6월 30일, 12월 20일 발행 학술지의 원고는 당해 년 10월 30일을 기해 접수를 마감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월	8월	12월
-----	----	-----

원고마감	6월30일	10월 31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평가 의뢰	7월 10일	11월 10일
논문심사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7월 31일	11월 25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8월 10일	12월 1일
원고 수정 및 반송	8월 17일	12월 7일
수정 원고 재심사	8월 20일	12월 1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8월 27일	12월 17일
《중국학》 발간	8월 30일	12월 20일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와 게재 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하기 전의 규정되지 않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111

1. 논문 투고시 3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5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 인쇄 및 35쪽 시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大韓中國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학술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義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 4) 團體會員 :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幹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명·運營委員 약간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幹事 약간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幹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研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運營委員·幹事に 한 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의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幹事의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理事는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고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23條

研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の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 1) 研究倫理委員會는 編輯理事, 學術理事를 포함,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幹事는 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제정된 研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5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6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

다.

第27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8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29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8월 30일 발행분

은 7월 10일에,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이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10일 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에 심사를 마감하고,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10일 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25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이사는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이사는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 가. 3명의 심사위원 2명에게 80점 이상을 획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강연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일정 게재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논문심사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3) 게재 유보, (4) 게재 불가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대상에 우선 포함되고,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근거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 반영 후 게재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매 편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4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및 일정

가. 원고마감: 8월 30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나. 심사의뢰: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다. 심사기간: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라. 게재결정: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25일로 한다.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1일로 한다.

바. 수정원고마감: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7일로 한다.

사. 게재최종결정: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아. 편집·인쇄: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17일 이전에 완료한다.

자. 발간: 8월 30일, 12월 20일 2회 발간한다.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2004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위쪽 60		머리말 10	
왼쪽 50			오른쪽 50
제본 0			
아래쪽 60		꼬리말 0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한자	바탕	바탕	바탕
	장평	SimSun	SimSun	SimSun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著,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著,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대한중국어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어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

하여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데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한다.
 -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

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半年刊 **中國學** 第 30 輯

2008년 8월 20일 인쇄
2008년 8월 30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 長：金 泰 寬
發行處：釜山市 釜山鎮區 伽倻洞 (☎ 614-714)
東義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內
TEL : (051) 890-1252
H.P. : 016-644-4815
E-mail : kkkang@deu.ac.kr

印刷處：中文出版社 (053) 424-9977
